

대한중국학회 2025년도 춘계 국제학술대회

트럼프 2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지역적 교차



孔子学院
Confucius Institute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BU
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일시】 2025년 05월 17일 (土) 12:30~18:00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 대강당 (D110)

【주최】

대한중국학회

동서대학교 공자학원 · 중국연구센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아프리카연구소

【주관】 대한중국학회

2025년도 춘계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학술위원회	위수광 (수석학술위원장·창신대)	
	기유미 (학술이사·경성대)	박규정 (학술이사·대구대)
	梁 楠 (학술이사·동아대)	曹 筱 君 (학술이사·부산외대)
	최선진 (학술이사·부산교대)	
사무국	이서현 (수석총무이사·한국해양대)	
	고혜림 (총무이사·부산대)	오혜정 (총무이사·부산외대)
	이민경 (총무이사·국립부경대)	강병관 (출판이사·한국해양대)

【 식순 안내 】

제1부 개회식 (12:30~13:50)

▶ 개회식: 대강당: D110

12:30~13:50

■ 사회: 이서현 (수석총무이사, 한국해양대)

□ 등 록 : 12:30~13:00

□ 개 회 식 : 13:00~13:30

- 개 회 사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 환 영 사 : 장순홍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 축 사 : 陈日彪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총영사)
- 축 사 : 정주연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
- 내빈안내 : 이서현 (수석총무이사, 한국해양대)
- 윤리교육 : 구경모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위원장, 우송정보대학교)
- ※ 전체 학회 회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 동서대 공자학원 『중국 인문·사회과학 학술저서 번역출판 사업』 : 13:30~13:50

- 2024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및 저서 소개 : 고혜림 (총무이사, 부산대)
 - 語言和人 (陳原) : 김정필 (경상국립대)
 - 汉字再发现: 从旧识到新知 (葛亮) : 김정남 (동국대)
 - 唐詩語言研究 (蔣紹愚) : 김준연 (고려대)
- 2023년 사업 선정 저서 출판 완료 보고 및 소개 : 고혜림 (총무이사, 부산대)
- 2023년 출판 번역도서 증정 추첨 · 도서상품권 추첨 (개회식 참석 회원 대상)

□ 등록 시 주의사항

- 학술대회 당일,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에서 본 학회 외에도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본 학회의 참가 등록은 **대강당(D110)** 앞에서,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의 참가 등록은 1층 로비에서 이뤄지므로, 본 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부 학술발표회 (14:00~16:30)

* 휴식시간(분과별 자율, 휴게실 D207)

▶ 특별분과I - 트럼프의 귀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D227

14:00~16:30

■ 사회: 이홍규 (동서대)

☐ 1.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미중관계

• 발표: 차창훈 (부산대)

• 토론: 김동수 (국립부경대)

☐ 2. 트럼프 집권 2기 ‘하나의 중국’ 프레임과 중·미·대만 삼각관계의 정치역학

• 발표: 강병환 (동서대)

• 토론: 이주형 (국립창원대)

☐ 3. 미국 기후변화 대응과 중국의 EV산업

• 발표: 김현진 (동서대)

• 토론: 서창배 (국립부경대)

☐ 4. 트럼프 2기 미중간 통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 발표: 김동하 (부산외대)

• 토론: 김경환 (경성대)

☐ 5.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와 중국 상하이 지역 경제 변화

— 전략적 충돌 속 중국상하이 경제의 구조 전환과 대응 전략

• 발표: 김태성 (창신대)

• 토론: 장정재 (부산연구원)

▶ 특별분과II - 다극화 세계 속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차적 네트워크

: D226

14:00~16:30

■ 사회: 임기대 (부산외대)

☐ 1. 중국의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다극화 세계에서의 에티오피아 사례

• 발표: Ghebru Bethel · 임기대 (부산외대)

• 토론: 박문규 (충남대)

☐ 2.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전략과 시사점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 발표: 장정재 (부산연구원)

• 토론: 서선영 (경남투자진흥원)

□ 3. 초국가적 이슬람 공동체와 국가 경계 연구

— 중국과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의 종교 실천과 공동체 연구

• 발표: 진소영 (부산외대)

• 토론: 이정욱 (부산외대)

□ 4. 중국 대외협력 현황 및 시사점

— 양콜라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김성민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토론: 장훈태 (백석대)

▶ 특별분과 III - 초기 세계화와 아시아-중남미 교류: 갈레온 무역과 그 유산
: D225 14:00~16:30

■ 사회: 임상래 (부산외대)

□ 1.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없는 사람들”

— 대항해시대 아시아계 이주민

• 발표: 구경모 (부산외대)

• 토론: 노용석 (국립부경대)

□ 2. 라틴아메리카 은의 유입과 명 제국과 스페인의 쇠락

• 발표: 최명호 (한국외대)

• 토론: 许 莉 (부산외대)

□ 3. 중국과 메소아메리카의 만남: 갈레온 무역 유물을 중심으로

• 발표: 정혜주 (경희사이버대)

• 토론: 권봉철 (부산외대)

□ 4. 중국 명·청 시대의 갈레온 무역이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

• 발표: 오혜정 (부산외대) · 서선영 (경남투자진흥원) · 김성자 (국립부경대)

• 토론: 김동하 (부산외대)

▶ 중국어학분과 I: D215

14:00~16:30

■ 사회: 윤순일 (부산대)

□ 1. 『詞林韻釋』의 入聲 체계 및 이에 따른 성격 고찰

• 발표: 왕옥지 (동명대)

• 토론: 김령경 (江西师范高等专科学校)

□ 2. 《三國志》裴松之注新詞研究

• 발표: 黃 娟 (경성대)

• 토론: 曹筱君 (부산외대)

☐ 3. 한국인의 문해력과 한자어의 상관성 고찰

• 발표: 김정필 (경상국립대)

• 토론: 기유미 (경성대)

☐ 4. 웹크롤링에 기반한 ‘X可以’의 사용 양상과 담화 기능 분석

• 발표: 김은주 (고려대)

• 토론: 오유정 (고려대)

▶ 중국어학분과 II : D216

14:00~16:30

■ 사회: 진준화 (국립군산대)

☐ 1.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의 양태 의미 기능

• 발표: 진준화 (국립군산대)

• 토론: 진의낙 (연세대)

☐ 2. 중국어 의문사와 ‘了’ 공기 구문의 화용 의미 분석

— ‘是……的’ 구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이인주 · 黄珊珊 (경상국립대)

• 토론: 이혜정 (경북대)

☐ 3. “愚者之旅”与“易之变”

— 塔罗大阿卡纳与《易经》六十四卦的过程结构比较研究

• 발표: 许璐茜 (부산외대)

• 토론: 박규정 (대구대)

☐ 4. 문법구문과 수사구문 상호 관계의 인지, 기능적 해석

— ‘X是一種Y’을 중심으로—

• 발표: 신근영 (경희대)

• 토론: 김정훈 (국립창원대)

▶ 중국어교육분과 : D224

14:00~16:30

■ 사회: 진 현 (영남대)

☐ 1. 신HSK 교육용 한자와 토픽 교육용 한자 관련성 기초 연구

• 발표: 独海峰 (고려대)

• 토론: 이은화 (인제대)

☐ 2. ‘(是)……的’의 의미 항목과 교육 방안 모색

• 발표: 진 현 (영남대)

• 토론: 위수광 (창신대)

□ 3. 对外汉语教学语法系统再思考：以补语为例

• 발표: 何寶璋 (國立東華大學)

• 토론: 戴 恒 (부산외대)

□ 4. 汉语二语教学中古为今用之道

— 以传统启蒙教材的应用为例

• 발표: 맹주억 (國立東華大學)

• 토론: 이영희 (동의대)

▶ 중국문학분과 I: D228

14:00~16:30

■ 사회: 이경미 (동서대)

□ 1. 冷戰感性

— 公孫嬾文學中的戰爭與迷霧

• 발표: 翁智琦 (國立台北教育大學)

• 토론: 留婷婷 (부산대)

□ 2.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분석

—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을 중심으로

• 발표: 정혜원 · 최진아 (부산대)

• 토론: 임춘영 (동아대)

□ 3. 송대의 道統意識과 시대정신의 역사문화콘텐츠 세계

• 발표: 김현정 (국립공주대)

• 토론: 정태업 (부산외대)

▶ 중국문학분과 II: D229

14:00~16:30

■ 사회: 이보고 (국립부경대)

□ 1. 林希逸《莊子口義》論蘇軾與莊子

• 발표: 簡光明 (國立屏東大學)

• 토론: 최세윤 (고신대)

□ 2. 被压缩的“苦闷”

— 许广平与鲁迅1925年通信中的性别意识与女学生处境

• 발표: 辜知愚 (長崎外國語大學)

• 토론: 안승웅 (국립부경대)

□ 3. 儒家思想下中国河南大调曲子的传承与思考

— 基于文化基因与音乐形态的双重维度

• 발표: 王 铮 (浙江师范大学)

• 토론: 毕文秀 (부산대)

□ 4. 루쉰의 「그림자의 작별(影的告別)」

— 어둠을 향해 없는 땅에서 방황하는 처연한 영혼

• 발표: 김언하 (동서대)

• 토론: 박노종 (부산대)

▶ 중국문화·영화분과: D230

14:00~16:30

■ 사회: 이지훈 (한라대)

□ 1. 세기 전환기 중국 영화의 민족성 탐색

— 영화 <귀신이 온다>를 중심으로

• 발표: 刘晓曼 (서울대)

• 토론: 이동훈 (동아방송예술대)

□ 2. 문화생태주의에서 본 中原의 공간과 天下의 통치권력적 세계

— 공간적 진화

• 발표: 김연재 (北京大學)

• 토론: 김지영 (동서대)

□ 3.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대학원 유학 실천에 관한 연구

— 서예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중국 서예가들을 중심으로

• 발표: 최리나 · 李詹鵬 (세한대)

• 토론: 이효철 (호남대)

□ 4. 중국의 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의 역할과 소비자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발표: 주민욱 (한라대) · 唐德鑫 (경기대) · 梅健华 (서경대)

• 토론: 김오성 (충북대)

▶ 중국사회과학분과: D231

14:00~16:30

■ 사회: 예동근 (국립부경대)

손성문 (경상국립대)

□ 1. Multilevel variables and Health Behaviors in Chin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발표: 陈楠 (고신대)

• 토론: 吴明 (국립부경대)

□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계, 아시아계의 이주배경자녀 양육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이윤영 (한라대)

• 토론: 정현일 (부산연구원)

- 3. 结构性压迫与主体性突围：2000年后中国婚姻移民女性在韩社会融入策略研究
 - 발표: 杨渝东 · 孙怡阳 (南京大学)
 - 토론: 손성문 (경상국립대)
- 4. ‘임시커플’에 대한 연구
 -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발표: 魏 霞 (경상국립대)
 - 토론: 박현숙 (한라대)
- 5.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등지 형성’
 - ‘슈촌(樹村)’의 형성과 해체를 중심으로
 - 발표: 张鑫培 (연암연구원)
 - 토론: 예동근 (국립부경대)

▶ 차세대학자분과 I - 어학 · 문학: D208

14:00~16:30

■ 사회: 이길연 (창신대)

- 1. 中韩日越四国同形异义汉字词“丁宁”的语义演变考察
 - 발표: 廉裕奎 (부산외대 박사생) · 이효영 (부산외대)
- 2. 중국어 중복문의 특징 고찰
 - 발표: 박현경 (대구대 석사생) · 이미경 (대구대)
- 3. 从亭台堂记看苏轼精神家园的构建
 - 발표: 翟春燕 (국립부경대 박사생) · 김창경 (국립부경대)
- 4. 探究《桃花源记》与《桃花源诗》的关系问题
 - 暨中国古代文体认知问题的探讨
 - 발표: 韦树定 (국립군산대 박사생) · 박병선 (국립군산대)
- 종합토론: 李 璇 (울산대) · 孙 淇 (부산외대)

▶ 차세대학자분과 II - 문화·예술 : D209

14:00~16:30

■ 사회: 이경민 (동아대)

- ☐ 1. 坚毅对非书法专业大学生书法学习兴趣的影响研究
— 以家庭文化资本为中介效应
• 발표: 张 潇 · 陈云飞 (세한대 박사생)
- ☐ 2. 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研究
• 발표: 于 雯 (경희대 박사생) · 张 蕊 (부산대)
- ☐ 3. 电影视角下的中国洗浴文化
— 从传统礼仪到现代生活
• 발표: 杨春宇 (국립부경대 박사생) · 김현태 (국립부경대)
- ☐ 4. 돌보는 여성들: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돌봄을 발견하기
• 발표: 손수경 (서울대 박사생)
- ☐ 종합토론: 杨惠敏 (국립부경대) · 赵淑文 (沈阳理工大学)

▶ 차세대학자분과 III - 사회·경제 : D210

14:00~16:30

■ 사회: 王 静 (울산대)

- ☐ 1. 从文学地景到文学观光的扬州经验
• 발표: 司钰阳 (국립군산대 박사생) · 박병선 (국립군산대)
- ☐ 2. 中国老人社会网络的变化轨迹及影响因素分析
• 발표: 岳俊跃 · 舒梓乔 · 杜智佳 (전북대 박사생)
- ☐ 3. 乡村振兴背景下鞍山市乡村旅游发展研究
— 以千山区为例
• 발표: 贾晓菲 · 闻浩然 (국립부경대 석사생) · 李丹 (국립부경대)
- ☐ 4. 2014~2025年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图谱: 基于文献计量的综述
• 발표: 杜 壮 · 杨军秀 (국립부경대 박사생) · 이태호 · 조진호 (국립부경대)
- ☐ 종합토론: 刘 舟 (대구대) · 高伟森 (국립부경대)

제3부 기조강연 및 폐회식 (16:40~18:00)

▶ 기조강연 및 폐회식: 대강당 (D110)

16:40~18:00

■ 사회: 이서현 (수석총무이사, 한국해양대)

☐ 기조강연 (16:40~17:40)

- 《미중 갈등의 해소와 미래 협력 방안》 (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

곽수중 (리엔경제연구소 대표 / 캔자스대학교 경제학 박사)

☐ 폐회식 (17:40~18:00)

- 학술대회 총평 : 위수광 (학술위원장, 창신대)
- 우수논문상 시상 : 박민수 (회장, 부산외대)
- 학술대회 차세대 우수논문상 시상 : 박민수 (회장, 부산외대)
- 폐회사 : 박민수 (회장, 부산외대)
- 기념촬영

☐ 리셉션 (18:00~)

- 장소 : 통큰솔뚜껍닭볶음탕 부산구서점
- 전화번호 : 0507-1446-8669
- 도보 이동 또는 자차 이동
- 지도 : 뒷면 지도 참조

☐ 리셉션(차세대분과) (18:00~)

- 장소 : 불막열삼 두실7번역점
- 전화번호 : 0507-1369-6635
- 도보 이동 또는 자차 이동
- 지도 : 뒷면 지도 참조

【 오시는 길 】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

■ 부산외국어대학교 : 부산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 051-509-5000

지하철

- ▶ 지하철 1호선 '남산역': 3번 혹은 5번 출구로 나온 후 아래의 마을버스를 이용
- ▶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3번 출구로 나온 후 아래의 마을버스를 이용

버스

부산외국어대학교캠퍼스 하차 (버스 정류장: 아래 지도 '별 ★' 표시)

- ▶ 마을버스 : 금정3
- ▶ 일반버스 : 301

* 승차 정류장은 하차 정류장 건너편에 있으므로, 승차 시에는 주의.

남산캠퍼스 - 트리니티홀 (D)



남산캠퍼스 - 주차장

- ▶ 체육관 (B) 뒤
- ▶ 트리니티홀 (D) 뒤
- ▶ 만오기념관 (G) 지하 (입구: 위 지도 '원 ●' 표시)
- ▶ 비즈니스텍센터 (I) 옆, 뒤
- ▶ 운동장 옆 (위 지도 '세모 ▲' 표시)

리셉션 장소 : 통큰솔뚜껑닭볶음탕 (부산구서점)

- 주 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45번길 5 ☎ 0507-1446-8669
- 도보 이동 (걸어서 30분), 자차 이동 (10분 소요, 주차: 두실주차장 이용)
- 두실주차장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45번길 6 (통큰솔뚜껑닭볶음탕 맞은편 주차장)



리셉션(차세대분과) 장소 : 불막열삼 (두실7번역점)

- 주 소 : 부산 금정구 두실로7번길 49 ☎ 0507-1369-6635
- 도보 이동 (걸어서 30분), 자차 이동 (10분 소요, 주차: 두실주차장 이용)
- 두실주차장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45번길 6 (통큰솔뚜껑닭볶음탕 맞은편 주차장)



목 차

【기조강연】

미중 갈등의 해소와 미래 협력 방안 / 곽수중	1

【특별분과 I - 트럼프의 귀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미중관계 / 차창훈	19
트럼프 집권 2기 ‘하나의 중국’ 프레임과 중·미·대만 삼각관계의 정치역학 / 강병환	25
미국 기후변화 대응과 중국의 EV 산업 / 김현진	53
트럼프 2기 미중간 통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 김동하	65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와 중국 상하이 지역 경제 변화 / 김태성	79
— 전략적 충돌 속 중국상하이 경제의 구조 전환과 대응 전략	

【특별분과 II - 다극화 세계 속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차적 네트워크】

중국의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 다극화 세계에서의 에티오피아 사례 / 베텔 게브루 · 임기대	87
중국의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전략과 시사점 / 장정재	97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이슬람 공동체와 국가 경계 연구 / 진소영	103
— 중국과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의 종교 실천과 공동체 연구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 및 시사점 / 김성민	113
— 앙골라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분과 III - 초기 세계화와 아시아-중남미 교류: 갈레온 무역과 그 유산】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없는 사람들” / 구경모	123
— 대항해시대 아시아계 이주민	
라틴아메리카 은의 유입과 명 제국과 스페인의 쇠락 / 최명호	133
중국과 메소아메리카의 만남: 갤리온 무역 유물을 중심으로 / 정혜주	141
중국 명·청 시대의 갈레온 무역이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 / 오혜정 · 서선영 · 김성자	149

【중국어학분과 I】

『詞林韻釋』의 入聲 체계 및 이에 따른 성격 고찰 / 왕옥지	161
《三國志》裴松之注新詞研究 / 黃娟	169
한국어의 문해력과 한자어의 상관성 고찰 / 김정필	177
웹크롤링에 기반한 ‘X可以’의 사용 양상과 담화 기능 분석 / 김은주	185

【중국어학분과 II】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의 양태 의미 기능 / 진준화	195
중국어 의문사와 ‘了’ 공기 구문의 화용 의미 분석 / 이인주 · 황산산	203
— ‘是……的’ 구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愚者之旅”与“易之变” / 허로천	213
— 塔罗大阿卡纳与《易经》六十四卦的过程结构比较研究	
문법구문과 수사구문 상호 관계의 인지, 기능적 해석 / 신근영	223
— ‘X是一種Y’을 중심으로	

【중국어교육분과】

신HSK 교육용 한자와 토픽 교육용 한자 관련성 기초 연구 / 独海峰	229
‘(是)……的’의 의미 항목과 교육 방안 모색 / 진현	235
对外汉语教学语法系统再思考：以补语为例 / 何宝璋	243
汉语二语教学中古为今用之道 / 孟柱亿	247
— 以传统启蒙教材的应用为例	

【중국문학분과 I】

冷戰感性 / 翁智琦	259
— 公孫嬈文學中的戰爭與迷霧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분석 / 정혜원 · 최진아	267
—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을 중심으로	
송대의 道統意識과 시대정신의 역사문화콘텐츠 세계 / 김현정	283

【중국문학분과 II】

林希逸《莊子口義》論蘇軾與莊子 / 簡光明	291
被压缩的“苦闷” / 辜知愚	301
— 许广平与鲁迅1925年通信中的性别意识与女学生处境	

儒家思想下中国河南大调曲子的传承与思考 / 王铮	309
— 基于文化基因与音乐形态的双重维度	
루쉰의 「그림자의 작별(影的告别)」 / 김언하	323
— 어둠을 향해 없는 땅에서 방황하는 처연한 영혼	

【중국문화 · 영화분과】

세기 전환기 중국 영화의 민족성 탐색 / 유효만	335
— 영화 <귀신이 온다>를 중심으로	
문화생태주의에서 본 中原의 공간과 天下의 통치권력적 세계 / 김연재	347
— 공간적 진화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대학원 유학 실천에 관한 연구 / 최리나 · Li Zhanpeng	359
— 서예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중국 서예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의 역할과 소비자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주민욱 · 매건화 · 당덕흠	367

【중국사회과학분과】

Multilevel variables and Health Behaviors in Chin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Chen Nan	377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이윤영	389
— 한국, 중국계, 아시아계의 이주배경자녀 양육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结构性压迫与主体性突围：2000年后中国婚姻移民女性在韩社会融入策略研究 / 杨渝东 · 孙怡阳	399
‘임시커플’에 대한 연구 / 魏霞	411
—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등지 형성’ / 장신편이	423
— ‘슈춘(樹村)’의 형성과 해체를 중심으로	

【차세대학자분과 I - 어학 · 문학】

中韩日越四国同形异义汉字词“丁宁”的语义演变考察 / 염유새 · 이효영	439
중국어 중복문의 특징 고찰 / 박현경 · 이미경	451
从亭台堂记看苏轼精神家园的构建 / 翟春燕 · 金昌庆	467
探究《桃花源记》与《桃花源诗》的关系问题 / 韦树定 · 朴炳仙	475
— 暨中国古代文体认知问题的探讨	

【차세대학자분과 Ⅱ - 문화·예술】

坚毅对非书法专业大学生书法学习兴趣的影响研究 / 张潇·陈云飞	483
— 以家庭文化资本为中介效应	
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研究 / 于雯·张蕊	493
电影视角下的中国洗浴文化 / 杨春宇·金炫兑	505
— 从传统礼仪到现代生活	
돌보는 여성들: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돌봄을 발견하기 / 손수경	513

【차세대학자분과 Ⅲ - 사회·경제】

从文学地景到文学观光的扬州经验 / 司钰阳·朴炳仙	525
中国老人社会网络的变化轨迹及影响因素分析 / 岳俊跃·舒梓乔·杜智佳	533
乡村振兴背景下鞍山市乡村旅游发展研究 / JIA XIAOFEI·WEN HAORAN·LI DAN	543
— 以千山区为例	
2014~2025年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图谱：基于文献计量的综述	
/ 杜壮·조진호·杨军秀·이태호	551

[기조강연]

미중 갈등의 해소와 미래 협력 방안

박 수 중*

【목 차】

1. 미국의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2. 미국이 잃어버릴 것들
3.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공존
4. 미중간 무역 불균형
5.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 그 100년의 첫 25년이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문명간의 이해와 충돌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편, 정치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과 글로벌 질서의 변화는 늘 경제적 이해관계를 놓고 국가간 충돌이나 협력을 전제로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이해관계는 냉전체제 기간 동안 보였던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14억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경제관계를 가져본 역사가 없었다. ‘경제의 규모(Economies of Scale)’이 ‘경제의 범위(Economies of Scope)’와 ‘경제밀도(Economies of Density)’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은 분명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단지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의 2001년 WTO 가입과 그에 따른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의 긍정적 측면만 바로복 있었다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20년 이후 팬데믹 사태에 이은 미중간의 경제적 긴장관계는 미국으로서는 분명히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 대한 전략적 실패에 해당한다.

2025년 3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은 약 115조 달러 규모다. 이 중 미국을 비롯한 선진 경제국들은 약 67조 달러, 신흥 시장 및 개도도상국들은 47.93조 달러를 차지한다. 특히 이들 신흥 경제국들 중 BRICS 국가들은 총 GDP는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GDP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경제는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 GDP의 약 65%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중국 GDP가 19조 달러로 BRICS 전체 GDP의 약 61%를 차지한다. 이 같이 막대한 글로벌 GDP 비중은 BRICS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그룹 중 하나로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한다. 비록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가 세계 증시 시가총액 규모의 55%를 점하고, 글로벌 유동화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이 거의 8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시장에서

* 제1저자. 대한대학교 중국학과 박사과정 (daehanchi83@gmail.com)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순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지각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1. 미국의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¹⁾

1996년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s)’은 1991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체제의 소멸은 미래 질서는 ‘이념’보다 ‘문화와 종교’와 같은 문명적 요인들의 충돌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표현은, 1926년 영국 역사학자인 바실 매튜스(Basil Mathews)가 중동을 다룬 저서 ‘젊은 이슬람의 여정: 문명의 충돌 연구(Young Islam on Trek: A Study in 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는 식민지 시대와 벨 에포크(Belle Époque)²⁾시기에 사용되던 ‘문화의 충돌(clash of cultures)’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극작가이던 알베르 카뮈(Albert Camus)가 1946년에 이를 언급한 적이 있고, 인도 저널리스트인 기릴랄 자인(Girilal Jain)은 1988년 인도의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의 분쟁을 다룬 ‘아요디아 논쟁(Ayodhya dispute)’³⁾을 분석하는데 인용한 바 있다.

헌팅턴은 1991년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글로벌 정치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볼 때, 일부 이론가와 작가들은 인권,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가 냉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념적 대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Yoshihiro Fukuyama)는 세계가 헤겔의 변증법적인 의미에서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팅턴은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세계는 단지 문화적 갈등이 충돌의 요인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보고, 미래의 주요 갈등은 문화적 경계축을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헌팅턴은 문명이 문화적 정체성의 최고 범주로서 다가올 21세기 이후 후기 문명사회에 있어 사회 및 국가간 갈등과 충돌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운 것이다.

당연히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은 역사 발전 과정의 일환이다. 과거 서구 문명의 눈으로 본 세계사는 주로 군주, 국가 및 이념 간의 투쟁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정치의 새로운 국면에서는 비서구 문명들이 더 이상 서구 문명의 피지배자 혹은 열등 문명이 아니라, 서구와 함께 세계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구 소련의 공산당 당서기를 역임했던 후르시초프(Nikita S. Khrushchev)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독일 총리 하인리히 뢰브케(Heinrich Lübke)에게 그는 “유럽에 있어 미래의 적은 구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귀뜸한 바 있다.

1) 대전대학교 학보 및 대구 매일 신문 ‘광수종의 이슈진단’등의 원고 등을 일부 인용 혹은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2) 벨 에포크(Belle Époque, 아름다운 · 좋은 시절)란 주로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1914년)까지 프랑스가 사회, 경제, 기술, 정치적 발전으로 번성했던 시대를 일컫는 데에 회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벨 에포크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말 · 에드워드 시대와, 독일의 빌헬름 시대와 대응하는 프랑스의 시대를 의미하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이 무렵 시절을 말할 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3)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시의 토지 부지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 종교적 논쟁이다. 이 문제는 적어도 18세기부터 많은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그들의 신 라마의 탄생지로 간주되는 장소의 통제, 그 장소에서 바브리 마스지드 모스크의 역사와 위치, 그리고 이전 힌두 사원이 모스크를 만들기 위해 철거되거나 수정되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란 개념은 역사적, 이념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미국이 독특하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우월한 국가라는 개념이다. 19세기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미국을 “예외적(exceptional)”이라고 언급한 최초의 인물이지만, 실제로 ‘미국 예외주의’라는 개념은 1920~30년대 미국의 공산주의 활동가들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보는게 옳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국가가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계급 투쟁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계급 경계가 희미하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라고 간주했었다.⁴⁾ 그 결과 미국의 ‘좋은 정치’의 원칙들은 미국 ‘독립 선언서’와 ‘미국 헌법’에 신성한 영감을 받은 문장으로는 묘사되어 있다고 본다. 이처럼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한 방식대로 ‘미국의 예외주의적’ 정신을 따르는 것이 국가 성공의 핵심이며, 미국의 보편적 가치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사회 및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는다.

21세기에 들어 ‘미국 예외주의’ 신봉자들은 공화당 성향으로 기울었으며, 이들이 중시하는 생활 방식에는 유대-기독교적 신에 대한 경외심, 자유 시장 옹호, 그리고 집단의 필요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정치적 신념은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⁵⁾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란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미국의 무의식적 혹은 명시적 가치이며 정신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이같은 ‘미국 예외주의’에 매우 충실한 구호다. 과거 뉴트 긴리치(Newt Gingrich), 릭 샌토럼(Rick Santorum)과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애국심, 도덕적 정당성, 그리고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을 강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미국 예외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압축적이며 정교한 표현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예외주의’가 당초 ‘관세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 또는 후폭풍의 결과를 예견치 못한 측면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상당한 속도로 글로벌 경제의 2위 대국으로 급성장했지만, 이렇게 중국경제의 급부상을 있게 한 단초는 대부분 미국이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중국 경제의 대외 개방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일본 경제를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경제규모를 확대한 중국경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과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의 일부분을 급성장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아직도 ‘밀도의 경제(Economies of Density)’ 측면에서는 정부의 경제 운용 방식과 기업의 경영체계 구축에 더 많은 시간적 노력과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성급하게 자신들의 카드를 펼쳐 보였다. 먼저 1776년 독립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근간이 되었던 ‘고립주의’와 ‘경찰국가’의 상반된 패러다임의 충돌이 내부에서 결정된 바 없으며, 그 결과 21세기 새로운 ‘동맹외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한 셈이 되었다. 둘째, ‘동맹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뉴노멀(New Normal)’을 구축하는데 있어 트럼프 정부 2기는 미국의 전통적인 ‘팀 워크 정치(Teamwork Politics)’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 단독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임으로 주변국가는 물론 20세기 구축한 대외 정치

4) 리처드 호프스테터(Richard Hofstadter), 루이스 하츠(Louis Hartz), 다니엘 J. 부어스틴(Daniel J. Boorstin)과 같은 ‘합의(consensus)’의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유럽처럼 봉건제나 전제군주의 역사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 층성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본다. 또한, 로버트 A. 달의(Robert A. Dahl) 영향력 있는 저서 ‘민주주의 이론 서론(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1956)’에서 설명된 것처럼, 미국은 지리적·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미덕을 널리 받아들이고, 다원적 정치 전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역사적 공동체나 지배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이념에 기반하여 독특하게 건국되었다고 보았다.

5)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미국은 미국의 예외주의가 있고, 영국은 영국의, 그리스는 그리스의 예외주의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외교적 동맹 관계에 균열을 자초하고 있다. 셋째, 그 결과 단순한 보복관세, 보편관세 혹은 상호관세 등의 무역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한 ‘운동장 바로 잡기’가 글로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벌써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BRICS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자주 언급된다. 금값이 팬스레 요동치는 것 같지 않은 이 유도 여기에 있다.

2. 미국이 잃어버릴 것들

국가간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엄격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종합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1979년 1월 1일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치 못했을까? 하지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미국 그 자신이다. 먼 역사 속에 우리는 그 시작 점을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발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번 관세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동맹외교의 핵심 요소를 모두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2기 출범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이슈를 전면에서 등장시키며 시작되었다. 첫째, 이민정책, 둘째, 무역 및 관세정책, 셋째, 지정학적 영토 문제와 고립주의 강화,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요구 등의 간섭 등이다. 대부분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5년 4월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약 42%로, 반대 의견이 54%로 부정적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지지율은 37%로, 이는 그의 첫 임기 중 최저 수준이며,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 역시 45%로, 반대 의견이 46%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2026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중요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앞서 지적한 네 가지 정책들이 모두 통영될 수 있는 동맹외교 접근 방식의 리모델링 혹은 업그레이드 방식에 있어서 전략 및 전술적 패착이 가장 눈에 띈다. 종전의 ‘지휘통제형 외교(command and control diplomacy)’에서 ‘역량 중심 국력 운영(capacity-centric statecraft)’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는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도 저도 아닌 ‘고립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21세기 후기 사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전략적 우위가 다시 한 번 ‘규모의 힘(power of scale)’에 좌우되는 시대다. 중국은 고령화, 막대한 부채, 정체된 생산성, 주택 시장의 위기, 청년 실업,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적 도전들이 반드시 전략적 열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국이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낼 경우, 미국은 자칫 강대국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축과 지표 상에서의 중국의 규모와 역량을 간과한 것에 대한 결과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을 사용해 지역별 물가와 구매력을 반영할 때, 중국 경제규모는 30조 달러로 현재 24조 달러 수준인 미국경제를 이미 10여 년 전에 추월하였으며, 서비스가 아닌 상품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의 생산 능력은 미국의 세 배에 달하며, 이는 군사 및 기술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년 동안,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다섯 배 증가한 30%에 달했고, 미국의 점유율은 절반으로 줄어 약 15%가 되었다. 중국은 미국

에 비해 시멘트는 20배, 철강은 13배, 자동차는 3배, 전력은 2배를 생산하면서 이미 전통 산업에서도 일부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첨단 산업에서도 점차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을 통해 중국은 이미 세계 화학 제품과 선박의 약 절반을 생산하고, 전기차의 3분의 2 이상, 전기 배터리의 4분의 3 이상, 소비자용 드론의 80%,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핵심 희토류 정제 광물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미국의 7배에 해당한다. 4세대 원자로 상업화에서도 중국은 타국보다 10년 앞서 있으며, 20년 내 100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187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처럼 세계 생산을 전면적으로 지배했던 강대국은 미국이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이 불균형이 '중국 45%, 미국 11%'로 확대되면서 그 차이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종종 중국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서구의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거 인류문명사에서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조업 강국은 결국 혁신의 토대를 제공한다. 국가 주도의 투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과학 분야 투자에서 중국이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인구는 풍부한 인재 풀과 경쟁적 규모를 가능케 한다. 고급 인재풀에 의한 산업 및 혁신력은 동시에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이며, 향후 5년 내에 65척이 추가되어 총 435척 규모를 보유, 현재 약 300척 규모의 미 해군보다 50% 더 커질 전망이다. 항공력에서는 아직 미국에 뒤처지지만, 자국산 제트 엔진 생산이라는 기술적 장벽을 돌파했고, 연간 100기 이상의 4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 미사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순항 및 탄도미사일 보유 및 더 나아가 양자 통신, 극초음속 무기 등 여러 군사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선도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강점들이 설사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 해도 그 전략적 우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비록 1978년 경제개방 이후 급속한 성장이었지만, 나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사실 때문이다.

미국이 이러한 중국에 대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해법은 새로운 동맹 접근 방식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외교는 냉전체제 하에서 '힘을 투사'하는 외교였다면, 21세기 후기 문명사회에서는 그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projecting power, but about preserving it.) 둔 외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호주, 캐나다,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및 EU 등이 연합하면, 이들 확장된 동맹 구조는 중국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들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중국 19조 달러에 비해 60조 달러 규모의 경제 규모를 형성하며, 구매력 기준으로도 중국의 두 배 이상이다. 이들 국가 연합은 전 세계 제조업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중국보다 훨씬 많은 특허 및 학술 인용 건수를 기록하고, 연간 국방비는 1조 5천억 달러로 중국의 두 배 수준이며, 중국을 능가하는 무역 연합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지나친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가운데 서반구 내 영향력을 '거대한 외로운 섬'의 영역으로 후퇴한다면, 중국은 이를 이용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 재편에 전략·전술적 운용 시스템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셈이된다. 미중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동맹과 파트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외교전략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어서는 안 된다. 냉전 시대의 동맹은 관성적으로 강대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보호를 받는 의존자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으로서는 동맹국들은 때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방해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식 동맹외교 모델의 단점만 이용하며 틈새전략만을 고려할려 들 경우 진정한 미래 권력으로 당당히 나설 수 없음을 동시에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하드

파워(hardpower)’에 의존하는 동맹외교 이 모델은 이미 낡았다. 미중 양국이 진정한 규모의 이점을 확보하려면, 동맹 구조를 관리되는 관계들의 집합에서 군사·경제·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공동 역량 구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고,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며, 미국은 최고의 군사 기술을 동맹들과 공유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중국에 맞서는 공동 관세 또는 규제 장벽 아래 시장을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역량 중심 국력 운영(capacity-centric statecraft)’이다. 이같은 동맹외교 모델은 중국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자신만의 공급과 가치사슬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지만, 주변국들과 공존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분업체계의 구축은 중국의 정치경제가 새롭게 동맹외교 전략·전술을 구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충분조건이다. ‘강요와 포기(coercion and give up)’의 전략과 전술은 매우 원시적인 동맹외교다. 미국의 전략적 실책이 중국에게 전략적 편익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앞세운 ‘하드파워’ 외교보다는 경제, 문화 및 사회적 거리를 가까이하는 ‘소프트 파워(softpower)’ 외교와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 동맹외교 전략의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3.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공존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역사의 흐름은 급변했다. 아울러 이 전쟁은 외부의 시각보다 훨씬 더 깊이 러시아 자체를 변화시켰다. 어떤 정전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설령 그것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것이라 해도, 푸틴이 러시아 사회의 중심 원칙으로 만든 ‘서방과의 대결’이라는 구조적 현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전쟁이 끝난다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푸틴의 전략은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는 훨씬 더 억압적인 국가가 되었고, 반서방 정서는 러시아 사회 전반에 더욱 깊이 뿌리 내렸다. 2022년 이후, 크렘린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대내적으로 친전쟁·반서방 선전을 퍼뜨렸으며, 전쟁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얻는 광범위한 계층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러시아인들은 이제 서방을 ‘죽음의 적’(now view the West as a mortal enemy)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푸틴의 침략에 대처하며 놀라운 결단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법의 부재와, 실제보다 더 거대한 계획이 있는 듯한 언사로 인해 오히려 혼선을 키운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의 빠른 종식을 모색하면서 대서양 동맹의 통일성을 흔들고 있고, 설령 트럼프의 푸틴에 대한 접근이 일시적인 미·러 관계 해빙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푸틴의 서방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진정한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푸틴은 트럼프가 유럽에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강요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며, 2028년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또 한 번 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러시아 시장에 다시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략적 관계에서 발을 뺄 의사가 없다. 크렘린은 중국의 디지털 감시 도구와 같은 기술을 수입하고, 중국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며, 베이징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워싱턴과의 충돌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푸틴 대통령의 체제가 내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푸틴 대통령도

무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의 후계자들이 그의 측근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은 러시아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것이고, 현실적인 동기 역시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취약하다는 일부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푸틴의 후계자들이 국가의 위치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외교 정책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푸틴의 퇴장과 함께 열릴 기회를 잡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이 겪은 수준의 대전환 없이는 러시아가 서방과 견고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환상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관계에 대한 비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러시아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 예를 들어 군비 통제 전략이나 상호 무기화가 불가능한 경제 상호의존 방식 등을 제안해야 한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명확하고 전략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러시아와 소통함으로써 그러한 비전을 전달하기 시작해야 한다.⁶⁾

전쟁이라는 ‘춤’ (War Dance)

푸틴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크렘린에서 두 번 임기를 지내는 동안, 원자재 가격의 급등, 서방의 투자 유입, 시장 개혁,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 덕분에 러시아의 GDP는 거의 두 배로 성장했다. 제정 러시아와 공산주의 시대의 독재, 소련 붕괴 후의 혼란스러웠던 10년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하고 자유로웠던 시기를 경험한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었지만, 사회적 계약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경제와 그것이 떠받치던 사회적 계약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2024년 1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서 경제학자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Alexandra Prokopenko)는 크렘린이 처한 상황을 “불가능한 삼중 딜레마(trilemma)”라고 설명했다.⁷⁾ 크렘린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거시경제 안정을 지키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했는데, 이 목표들은 서로 충돌했다.

하지만 푸틴은 러-우 전쟁 자금 조달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이 퍼즐을 해결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러시아 정부는 국가 예산의 약 40%를 국방과 안보에 지출할 계획이며,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다른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 전쟁은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 2022년에는 GDP가 소폭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3.6%, 2024년에는 4.1% 성장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총성이 멈춘다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군사화된 상태로 남을 것이다. 푸틴은 값비싼 군 현대화 계획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시작되거나 지속된다면, 러시아 국민의 경제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정권 교체에 대한 심각한 압력을 불러올 가능성은 낮다. 푸틴은 그의 전쟁을 비판하는 대가를 치명적

6) 크렘린 내의 모든 이들이 푸틴의 반서방 집착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비공식적으로 많은 러시아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덕적으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실수였다고 인정한다. 이들 실용주의자들이 서방 국가들과의 더 나은 관계를 상상하기 쉬워질수록, 푸틴 시대 이후 벌어질 권력투쟁에서 그들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방이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바꾸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만일 서방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보다 상호 유익한 공존 방식조차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게 된다면, 크렘린의 미래 지도자들은 푸틴의 자세—중국 의존을 포함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위험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7) Alexandra Prokopenko, Putin's Unsustainable Spending Spree. How the War in Ukraine Will Overheat the Russian Economy, Foreign Affairs, January 8, 2024

으로 만든 동시에, 전쟁을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은 또한 전선에 동원된 병사들, 군수 공장 노동자들, 그 가족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지지를 받고 있다. 크렘린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약 70만 명의 러시아인이 전선에 있으며, 평균 병사 월급은 약 2,000달러로, 이는 국가 평균의 두 배, 많은 징집병을 보낸 지역 평균의 네 배에 달한다. 침공 이후 80만 명 이상의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으며, 정부는 사망자 및 부상자 한 명당 최대 8만 달러를 유족에게 지급했다. 크렘린의 이러한 지출은 부당한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상승한 대규모 집단을 형성했으며, 2024년, 크렘린은 퇴역군인을 공공 부문 또는 정부에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전쟁은 러시아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상승 통로가 되었다. 민간 관료들은 점령 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승진을 앞당기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정보기관 및 법 집행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서방 및 우크라이나 첩보원 색출과 반전 활동가 및 언론인 탄압이 출세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러시아 관료제는 정치화되었다. 중앙은행 같은 과거에는 비교적 실용적인 기관들조차 이제는 서방 제재에 맞서 싸우는 전사들이 된 것이다.⁸⁾

푸틴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외교정책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러시아 외교정책은 세 가지 목표에 종속되어 있다: 전쟁을 위한 동맹 구축, 제재로 타격받은 경제 유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에 대한 복수다. 러시아 관료들은 북한, 이란, 예멘의 후티 반군과 같은 미국의 적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방에 더 큰 비용을 부과하려 한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크렘린은 일시적으로 후티와 같은 미국의 적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등의 과감한 행동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정권이 퇴장하면 언제든 이를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원자재를 할인 판매하고 수출을 늘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무엇보다 러시아는 결정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전쟁 이전에는 양국이 비대칭 상호의존 관계에 있었고, 러시아는 유럽과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푸틴은 베이징의 전쟁 지원을 얻는 대가로 훨씬 깊은 중국 의존을 받아들였다. 러시아가 3년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산 무기 부품 덕분이다. 중국은 러시아 수출의 30%를 흡수하고(2021년엔 14%), 러시아 수입의 40%를 공급하고 있다(전쟁 전엔 24%). 베이징은 위안화 기반의 금융 인프라도 제공하며, 러시아의 무역을 돕고 있다.

러시아는 대중 의존 전략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여러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워싱턴의 주된 경쟁자이며, 따라서 중국을 강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 붕괴에 투자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022년 이전엔 공유를 꺼리던 무기 설계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구소와 대학들은 중국 혁신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러시아인은 화웨이

8)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당연히 푸틴 측근들과 그들의 후견 네트워크다. 그들 중 일부는 외국 및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틈을 타 자산을 저가에 사들이거나 아예 몰수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와 같은 강력한 내부 인사의 지원을 받았다. 슈퍼리치 외에도, 제재 회피로 돈을 버는 사업가들처럼 수만 명의 기회주의자들이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보다 하위 계층에는 수십만 명의 화이트칼라 전문직 종사자들—특히 IT,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이 있으며, 이들은 반체제 인사들의 해외 이주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더 높은 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

같은 중국 기업에 점점 더 많이 고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에 육로를 통해 석유와 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해상 봉쇄 시에도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도 제공 중이다.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결합”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어느 정도는 푸틴에게 호의적인 접근을 통해 이 목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어떤 시도를 하든,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유럽은 러시아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며, 더 적은 미국 지원으로도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노력을 여전히 NATO라는 대서양 동맹의 일환으로 포장해야 하며, 트럼프 정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외교·군사·방산 분야 주요 인사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어찌면 유럽 질서의 변화 혹은 전환의 시그널에 대응하여 스스로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최근 지도력 변화는 유럽을 준비되지 않게 자극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더욱 적극적으로 푸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유럽도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전쟁과 뜨거운 전쟁을 반복하는 영원한 전쟁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 지도자들이 다른 비전을 논의하는 것을 미룬다면, 그들은 푸틴이 서방과의 대립을 영구적인 유산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돕는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그 틈새에 중국의 대유럽 전략과 전술이 더욱 더 미국과 유럽의 동맹체제에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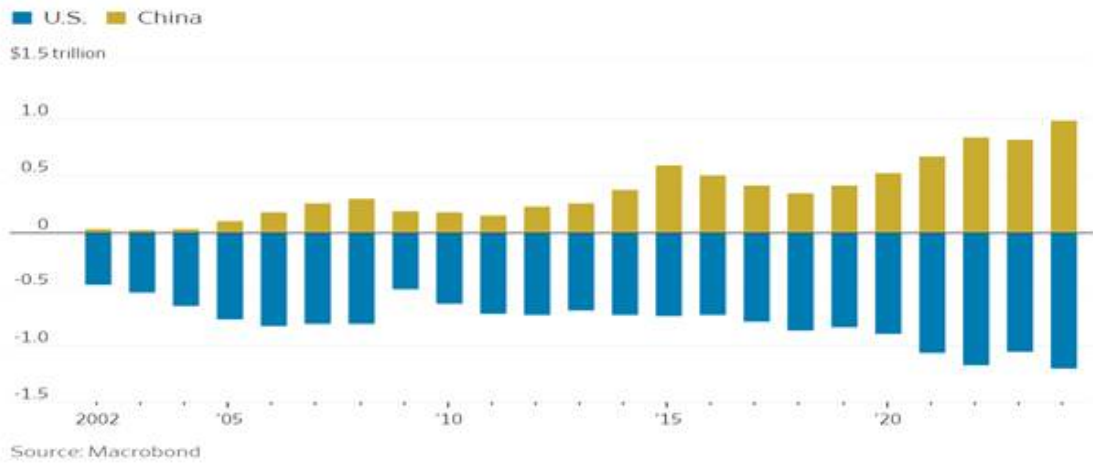
4. 미중간 무역 불균형⁹⁾

미국의 대중국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미국 단독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병일 수 있다. 18세기 이후 19세기 까지 세계 GDP의 55% 비중을 차지하던 인도와 중국의 경제 패권이 산업혁명 이후 서구 열강들의 근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가 펼쳐지기까지 미국은 글로벌 GDP의 60%와 기축통화로써 달러화의 위상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누리는데 늘 익숙해져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마침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이르면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와 상호관세의 폭탄은 미국에게는 자칫 무역 불균형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고르기(Leveling the Playing Ground)’라는 명분을 가지게 한 것으로 비칠지는 모르나,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국 통화의 기축통화 위상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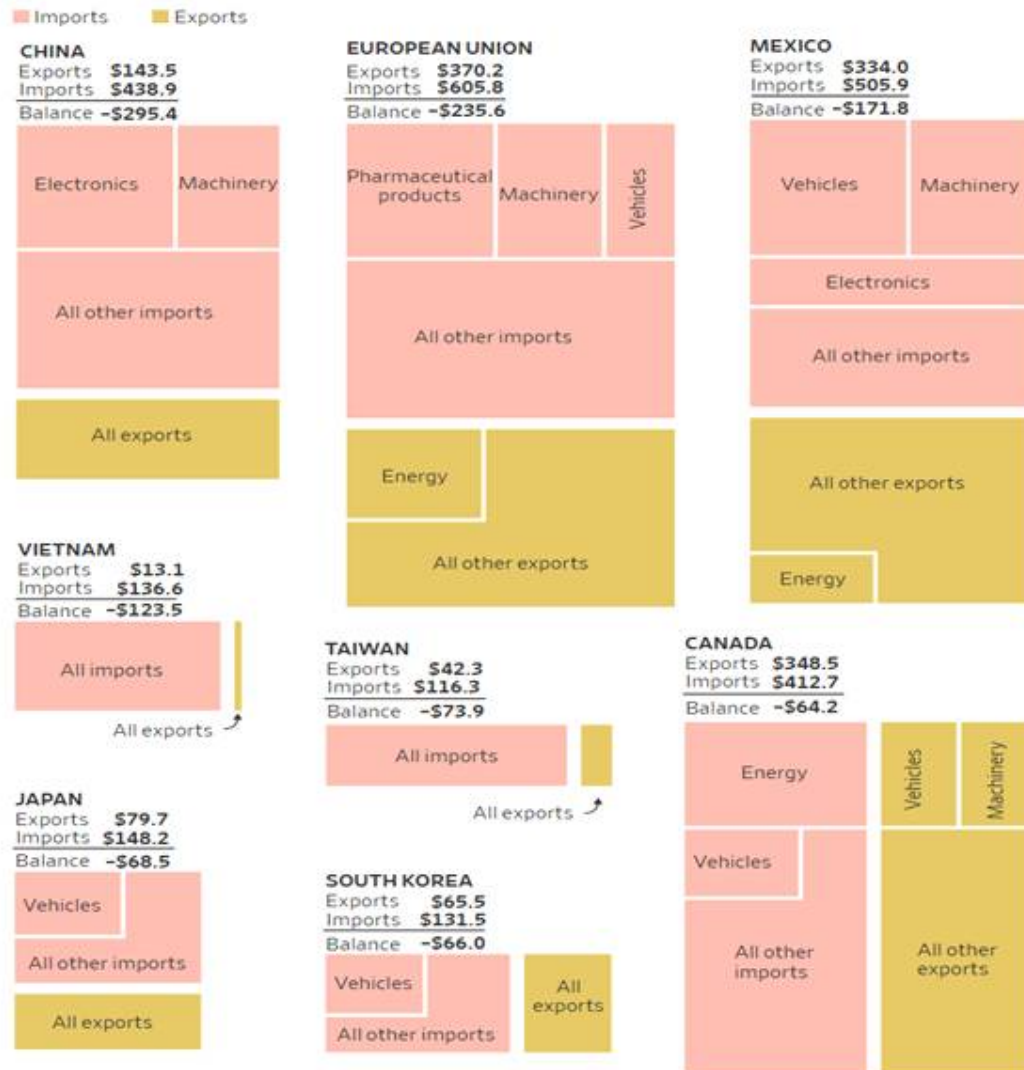
여타 국가들이 백악관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세계 두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격차가 계속되는 한 무역 불안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장기화되는 충돌은 국제 무역의 심각한 교란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을 키우게 될 전망이다. 더 분열된 세계 경제로 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더 강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의 맞불 전략을 쓰고 있지만, 이러한 미중간의 ‘관세 폭탄’ 주고 받기는 결코 글로벌 경제에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9) David E. Sanger, Trump’s Dilemma: A Trade War That Threatens Every Other Negotiation With China, NY T, 2025.4.14

Global goods trade balance



Value of goods in 2024 by U.S. trading partner, in billions



이 같은 공방은 양측 모두 아직 휴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자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최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존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는 중국의 글로벌 무역 지배를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국제 무역 체제의 대표적 증거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과거 예기치 않게 협상에 나섰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미국과 중국은 전례 없는, 그리고 비용이 막대한 ‘치킨 게임’에 갇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중국에 초점을 맞췄지만, 2기에서는 무역전선을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 확대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높은 수입 장벽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기계, 소비재를 미국에 대량 수출해 미국 산업을 압박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한다. 지난 2025년 3월 31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는 수십 개국의 대미 수입 장벽을 다뤘으며, 그 중 약 50쪽이 중국에 집중되어 기술이전 강요, 수입 쿼터, 식품 안전 기준, 위조 상품 문제 등을 지적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6쪽, 7쪽에 그쳤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제3국에 생산기지를 세워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연결된 다른 무역 파트너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2018년 이후 중국의 ‘공장 역할’을 미국 시장과 연결하며 수출이 급증했지만, 이번에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되었다. ‘리버레이션 데이(Liberation day, 무역 해방의 날)’는 사실상 중국을 둘러싼 관세 장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도 과도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파급되었다.

트럼프의 근본적 목표는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과 베이징의 정책이 교차하며 구축된, 미국은 소비의 중심으로, 중국은 생산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되돌리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단연 핵심 표적이다. 트럼프가 2025년 1월 재임 이후 발표한 누적 관세 조치들은 2024년 기준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른 어떤 주요 교역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2024년에 거의 1조 달러에 이르는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제조수출국의 입지를 굳혔다. 반면, 미국은 1조 2,000억 달러의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1975년 이후 지속된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3,000억 달러로 전체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멕시코, 베트남, EU와도 상당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수입을 억제하고 제조업의 국내 회귀를 유도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공급망 체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 체계가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며, 미국 경제가 기술과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과 일부 분석가들은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수입 장벽, 환율 조작, 산업 보조금 같은 요소들을 지목한다. 특히 피터 나바로 같은 트럼프의 무역 참모는 이런 요소들이 글로벌 경제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와는 다르게, 지속적이고 큰 무역흑자는 과잉 저축과 낮은 소비의 결과이며, 반대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낮은 저축과 높은 소비로 설명된다고 본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에서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이 필요하며,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를 약속했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이 단기적 부양인지, 아니면 투자와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근본적 전환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소비를 억제해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세금 감면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은 적자를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 중국이 더 소비하고 미국이 더 저축해야 한다는 점, 중국은 생산국, 미국은 소비국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 찾기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전략 없는 압박, 혼란만 키운 트럼프의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정책은 전략적 일관성을 결여한 채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도 의도와 목적을 놓고 엇갈린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관리들은 관세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미국 경제를 자급자족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디커플링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중국 전략 전문가 러시 도시(Rush Doshi)는 “트럼프 행정부에는 거시적인 전략이 없다. 단지 일련의 조각난 전술들이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일본, 한국, 인도, 대만, EU와의 연합을 통해 중국의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하고, 미국 내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와 커트 캠퐸(Kurt Campbell) 전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Foreign Affairs에 공동 기고문을 통해 “전략적 우위는 규모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규모를 갖고 있고, 미국은 혼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들어 전자 제품 등 약 25%에 달하는 대중 무역 품목에 대해 일시적 면제를 부여한 지 48시간 만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관세가 높을수록 미국 내 투자가 빨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통제된 맞불’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도 모두 보복 관세로 대응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반도체,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및 자석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대중 무역관세는 최고 245%까지 치솟았다.

전 주중 미국 대사 니컬러스 번스는 “이번 무역 충돌은 1979년 외교 정상화 이후 미중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 동정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중국은 국제 무역 질서의 최대 교란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과제는 “양국의 경제 디커플링을 피하기 위해 최고위급 소통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먼저 소통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관세 부과에 대해 사전 경고도, 회피 경로도 제공하지 않았다. 시진핑 역시 미국이 주장하는 “협상 희망국 75개국”에 자국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다. 물밑 접촉은 일부 이뤄지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를 지낸 최티엔카이는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조용한 대화를 시도했으며, 그는 미중 양측과 깊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처럼 미중 관계의 단절은 장기화되기 쉽고, 회복되더라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긴 어렵다.

대표적 사례는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대만해협 ‘중간선’ 상공 및 해상에 군을 파견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훈련은 강화되고 있다. 그해 겨울, 미국 영공을 가로지른 고고도 풍선(미국은 정보 수집 목적의 장비로 추정) 사건 역시 미중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고, 이후 양국 정상회담까지 몇 달이 걸렸다. 당시 바이든-시진핑 회담에서는 펜타곤 관련 협력과 핵무기 지휘 통제 시스템에 AI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 정도만 도출되었다. 이번 무역 전쟁의 파장은 더 클 수 있다. 이는 양국을 경기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으며, 대만, 남중국해, 필리핀 해상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대결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내부의 전략적 혼란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를 “멍청이”, “벽돌 한 자루보다 더 바보”라고 비난했으며, 나바로는 이같은 비난에도 “더 심한 소리도 들어봤다”며 이를 일축했다.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는 아르헨티나 방문 중 중국 관료가 “관세는 농담”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건 농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동시에 “이 정도 규모의 관세는

누구도 장기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제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안을 최우선으로 돌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선언할 것인가? (공개적인 발언으로 볼 때, 트럼프는 이에 대해 망설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니면 베이징과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프로젝트를 찾을 것인가? 중국처럼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행정부가 몇 달, 혹은 1년 이상 논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는 ‘중공’이라 불리던 당시의 중국에 대한 접근법을 수년간 준비했고, 이는 닉슨의 역사적인 방중과 이후 수년간 이어진 외교적 개방을 낳았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텐안먼 사태 이후 “베이징의 학살자들”을 비판하며 당선됐지만, 임기 말에는 중국의 WTO 가입을 주도했다. 조지 W.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에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 지도자들과 친밀하게 교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전략을 정립했고, 이후 중국의 핵심 반도체 및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마주한 상황은 그 어느 전임 대통령보다도 어렵다. 그는 미국 경제와 깊이 얽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대규모 경제 대결을 시작했다. 결국 트럼프는 불행한 동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결별을 선택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해방의 날’에 잠재한 세계의 무역질서 재편 구상의 성격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새로운 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전체적인 영향은 예측하기는 어렵다. 각국이 미국과 협상하여 관세를 낮추려 한다면 피해는 완화될 가능성. 하지만 전 세계가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 성장 둔화, 경기 침체, 심지어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관세는 세금이며,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가 줄어든다. 자동차 가격은 수천 달러씩 오를 것이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조차도 영향을 받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관세 장벽을 통해 소비자들에게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로 부의 이전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의 경쟁력을 점차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경쟁을 둔화시키는 관세는 독점적 이익을 초래하는 동시에 혁신의 필요성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1950~60년대 미국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기 전 겪었던 문제와 유사하다.

나. 미국 수출에 대한 타격

미국의 오랜 무역 목표는 자국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을 추진하며 이를 달성해왔다고 스스로 평가해 온 점도 사실이다. Apollo Global Management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매출 중 41%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암흑물질(Dark Matter)’¹⁰⁾라고 부르기도 한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는 전통

10) ‘암흑물질’ 개념은 하버드 대학의 페데리코 스투르체네거(Federico Sturzenegger)와 리카르도 하우스만(Ricardo Hausmann)이 만든 천체물리학에서 인용한 경제학 용어다.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미국의 공식 경상수지 추정치와 미국 순대외금융자산의 실제 수익률에 기반한 추정치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생산(GNP)간에 차이를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리킨다. 예컨대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2004년 미국의 순경상수지 적자가 2.5조 달러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스투르체네거와 그의 동료 하우스만에 따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실제로 그렇게 클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크다면, 미국은 부채에 대해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순수익은 여전히 300억 달러로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쌓기 시작하기 전인 1980년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두 저자

적인 글로벌 무역 협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은 물론, 미국 수출 품은 직접적으로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간접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한 무역 협정을 체결해 비(非)미국 기업에 우선권을 제공할 경우, 미국 수출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수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1기 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브라질이 대규모 콩 수출 기회를 얻은 사례가 존재한다.

다. 워싱턴 로비스트들의 배불림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은 그 비용을 피하려 할 것이다. 이는 워싱턴 로비스트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기업과 국가들이 특정 세금 면제를 얻기 위해 치열한 로비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치인들이 이를 선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의 날’이 실제로는 워싱턴 로비스트들에게 ‘새로운 요트 구입의 날’이 될 수도 있다.

라. 미국 경제 리더십의 종말

과거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했으나, 전쟁의 타격으로 그 역할을 상실했다. 미국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확대하며 세계 경제 리더십을 맡아 오면서, 미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가 간 경제 협력을 무너뜨리고, 자국 우선주의적 무역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각국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무역 시스템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930년대처럼 ‘근린국평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ies)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미국의 영향력 감소도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의 매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각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지만, ‘소프트 파워’도 중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라는 인식이 무너지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마. 중국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무역 정책은 오히려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을 포기했으며, 이후 중국은 해당 지역 국가들과 자체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공세는 다시 한 번 중국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며, 한국과 일본은 첫 번째 타겟이지만, 유럽도 중국이 노리는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긴밀해지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나 화웨이 같은 기업을 제재하는 데 동참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실제’ 누적 경상수지는 오히려 긍정적이었으며, 계산에서 상당한 규모의 (외국) 자산이 누락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Hausmann, Ricardo; Sturzenegger, Federico (January 2006). "Global Imbalances or Bad Accounting? The Missing Dark Matter in the Wealth of Nations" (PDF). CID Working Paper No. 124. Hausmann, Ricardo; Sturzenegger, Federico (November 2005). "U.S. and Global Imbalances: Can Dark Matter Prevent a Big Bang?" (PDF). CID Working Paper. Working Paper Series. doi:10.1920/wp.cem.2005.1105 (inactive 4 March 2025). hdl:10419/72009. Hausmann, Ricardo; Sturzenegger, Federico (December 7, 2005). "Op-Ed: 'Dark Matter' Makes the U.S. Deficit Disappear". Financial Times. Retrieved 1 October 2012. 및 위키페디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과 자국 제품에 대한 높은 신규 관세 부과 위협으로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러한 긴장을 이용해 국가들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 우려에 대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가장 가파른 관세에 직면한 유럽,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의 메시지는 “중국은 안정적인 무역의 원천”이라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베이징을 해독제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시 주석은 미국과의 관계에 깊이 얽혀 있는 나라들과의 오래된 무역 및 안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많은 지도자들은 한쪽에 치우쳐 보이는 것을 경계하며, 양측 모두에게 밟힐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전 세계와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여러 나라 시장에 넘쳐나면서, 일부 국가는 관세 및 반덤핑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중국이 무역 마찰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관계 개선을 경계하게 만든다. 유럽연합은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수출 중심 보조금 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 등도 유럽의 대중 관계 강화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최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 관세가 유럽 시장에 더 많은 값싼 제품이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분명한 점은 미국의 무역 혼란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게 일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다만 중국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까다로운 관계도 개선하려 했지만 성공은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일본 및 한국과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양국은 5년 만에 재개된 3자 무역 회담에서 구체적 결정은 없었다.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한중간에 민감한 영해 안보 및 자원개발 등의 문제에도 민감한 이슈를 스스로 자처한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이 지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민감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된 곳이다. 중국이 이곳에 이미 2기의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향후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¹¹⁾ 이밖에도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는 지난해 가을 양측은 2020년 유혈 충돌이 있었던 국경 순찰 문제에서 합의를 보면서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과의 갈등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중국에게 준 ‘황금같은 기회’에 중장기적 중국의 동맹외교의 새로운 전환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근시안적(myopic)’인 대외정책의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11) 한국 정보 당국은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제민일보,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2025. 1.10 기사 일부 인용.

5. 결론 및 시사점¹²⁾

소국들은 종종 대국의 묵인 혹은 무관심 속에서 선점자(first-mover) 이점을 활용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은 산업화의 선도자로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 지배는 오래가지 않았다. 영국의 산업 기술 확산 덕분에 독일과 미국은 훨씬 더 큰 규모를 달성할 수 있었고, 유럽 북서쪽 끝의 작은 섬나라를 능가하게 되었다. 1870년부터 1910년까지, 영국의 전 세계 제조업 점유율은 절반으로 줄었고, 미국과 독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철강 생산량만 봐도, 영국은 두 배인 650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독일은 다섯 배인 1,200만 톤, 미국은 여섯 배인 2,300만 톤으로 성장했다. 독일과 미국은 더 넓은 내수 시장, 자원 기반, 인재 풀을 활용해 한계 비용을 낮추고, 영국을 주요 산업들에서 밀어냈다. 이런 경제적 우위는 군사적, 기술적 우위로도 이어졌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영국의 점진적인 탈산업화와 쇠퇴로 이어졌다.

영국의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영국 역사가 존 로버트 실리(John Robert Seeley)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에서 “더 큰 규모로 고도로 조직된 국가들이(highly organized states on a yet larger scale,)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은 현재의 강대국들을, 16세기의 거대 국가들이 피렌체를 능가했듯,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영제국이 몰락하기 전부터 영국이 스페인과 같은 ‘순수한 유럽 강국’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 걱정했다. 실리는 자국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의 제국 영토와 더 긴밀히 통합하는 ‘그레이트 브리튼(Greater Britain)’ 전략을 통해 섬나라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규모와 효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늦었고, 일관성 없었으며, 결국 실패로 끝났다. 식민지들은 독자적인 길을 택했고, 영국은 결국 ‘규모’를 찾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런던은 훨씬 더 강력한 동맹국 워싱턴을 운 좋게 파트너로 둘 수 있었다. 미국은 그 규모 덕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 같은 규모는 적국에게도 분명했다. 전쟁 전, 히틀러는 “미국 연방은… 이전의 모든 국가 권력 질서를 전복할 만큼의 규모 있는 권력 요소를 창출했다”고 관찰했다. 일본 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자국이 “첫 6개월 혹은 1년은 제멋대로 활개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의 제조 역량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 역시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말했다. 추축국은 모두 미국의 산업 능력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양도 질의 일종임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그 위압적인 규모와 역량은 중국이 지니고 있다. 미국 전략가들은 자국이 100년 전의 영국과 같은 상황에 처할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영국의 경험은 교훈이자 경고를 제공한다: 제국 통합 시도는 너무 늦었고, 너무 작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규모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함으로써 영국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의 도전 과제는 분명히 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전략적 중요성은 종종 과장된다. 예를 들어, 인구 구조 문제는 장기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미국과의 경쟁에 더 밀접하게 연관된 중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마오 시절 베이비붐 세대의 손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에코 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15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로 2010년과 2020년 인구조사 사이에 이 연령대 인구는 3천만 명 이상 늘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Underestimating China: Why America Needs a New Strategy of Allied Scale to Offset Beijing’s Enduring Advantages, May/June 2025 Published on April 10, 2025. 일부 인용.

커졌다. 중국의 부양 비율(노인 및 아동 대비 성인 노동자 수)은 2050년까지 일본의 현재 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 산업용 로봇, 내재형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노동력 부족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채 수준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는 GDP의 300%로 사상 최고치지만, 인도, 일본, 영국, 미국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들도 비슷한 수준의 총부채를 지니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영역에서의 약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다른 영역에서는 전략적 강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베이징은 해당 부문에서 철수한 자금을 산업정책에 투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슷하게,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시가총액 순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경쟁사 퇴출을 목표로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단기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장기 전략을 실행 중이다.

설령 중국의 약점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진다 해도, 중국은 경쟁에서 핵심적인 지표상 과거의 어떤 미국 경쟁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워싱턴은 과거 독일, 일본, 소련을 과대평가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단지 규모 면에서만 아니라 여러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능가한 경쟁자다. 설사 중국이 정체되더라도, 베이징은 과거 그 어떤 도전자보다도 강력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쇠퇴론’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에는 일리가 있다. 강대국의 부침은 종종 잘못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소련 붕괴 전 외교전문지에서 주장했듯이, 쇠퇴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갱신을 촉진할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쇠퇴론이 아니라 안일함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 부족과 중국이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은 자국의 일방적 힘을 과대평가하고, 중국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참고문헌】

제민일보,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2025.01.10.

Alexandra Prokopenko, Putin's Unsustainable Spending Spree. How the War in Ukraine Will Overheat the Russian Economy, Foreign Affairs, January 8, 2024

David E. Sanger, Trump's Dilemma: A Trade War That Threatens Every Other Negotiation With China, NYT, 2025.04.14.

Hausmann, Ricardo; Sturzenegger, Federico, "Global Imbalances or Bad Accounting? The Missing Dark Matter in the Wealth of Nations" (PDF). CID Working Paper No. 124. January 2006.

_____, "U.S. and Global Imbalances: Can Dark Matter Prevent a Big Bang?" (PDF). CID Working Paper. Working Paper Series. doi:10.1920/wp.cem. 2005.1105 (inactive 4 March 2025). hdl:10419/72009. November 2005.

_____, "Op-Ed: 'Dark Matter' Makes the U.S. Deficit Disappear". Financial Times. December 7, 2005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Underestimating China: Why America Needs a New Strategy of Allied Scale to Offset Beijing's Enduring Advantages, May/June 2025 Published on April 10, 2025.

【특별분과 I】 발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미중관계

차 창 훈*

【목 차】

1. 서론
2. 트럼프의 귀환과 국제질서
3.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
4. 결론

【 초 록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과 그의 정책은 강대국 정치 논쟁을 불러왔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역설적으로 패권국의 역할과 책임의 회피이고 미국의 쇠퇴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둘러싼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안보 비용을 동맹국에게 전가하고, 아울러 통상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를 관세정책을 통해 복구하려는 거래적인 접근방법은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감당했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이를 전통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에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고립주의 경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 의미는 역사적인 경로의 추이가 진전되었을 때에 분명해질 것인 바,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이제 그 경로가 다시 개척될 시간이 도래했다. 트럼프는 그가 생각하기에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이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되는 하나는 무역적자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의 불충분한 방위 기여이다. 미중관계도 전략적 경쟁의 구도에서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키워드】 트럼프 2기, 자유주의 국제질서, 관세정책, 동맹국, 미중관계

* 제1저자.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chcha@pusan.ac.kr)

1. 서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과 그의 정책은 강대국 정치 논쟁을 불러왔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역설적으로 패권국의 역할과 책임의 회피이고 미국의 쇠퇴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둘러싼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안보 비용을 동맹국에게 전가하고, 아울러 통상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를 관세정책을 통해 복구하려는 거래적인 접근방법은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감당했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이를 전통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에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고립주의 경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 의미는 역사적인 경로의 추이가 진전되었을 때에 분명해질 것인 바,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이제 그 경로가 다시 개척될 시간이 도래했다. 트럼프는 그가 생각하기에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이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되는 하나는 무역적자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의 불충분한 방위 기여이다. 미중관계도 전략적 경쟁의 구도에서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의 정책을 뒷받침할 2기 외교안보 내각 주요직에 내정된 인물들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50),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53) 상원의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44)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젊고, MAGA를 추종하며, 기존의 관료적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반기독권/워싱턴 밖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의 재집권 전략으로 보고한 『리더십의 사명(Mandate for Leadership, 2023)』처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대외문제 적극 개입의 월슨주의와 글로벌 리스트를 배척한다. 이 세계관의 30년 결과로 중국 공산당의 배만 불리고 미국의 산업기반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무장관 내정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을 겨냥한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벳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대표적인 반중 매파 인물이다.

2. 트럼프의 귀환과 국제질서

이제 트럼프의 귀환은 규칙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언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압박, 국제기구 탈퇴 등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2기 행정부에서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 무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무역, 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기술 패권 경쟁 등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

트럼프는 국제기구와 다자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다. 2기 행정부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양자 외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 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약화시키고,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유무역제도는 관세정책으로 대체될 것이다. 유엔 프로그램의 많은 예산들이 삭감될 것이고, 세계보건기구, 국제환경협약, 국제이주협약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탈퇴도 예상된다. 자신의 정책방향성을 4년 임기동안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관료주의의 덫에 걸려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고, 연방대법원을 보수성향으로 채우게 될 예정이므로 트럼프 2기의 정책 속도는 더 빨라지고 그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보호무역 쪽으로 선회한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경시하고 대신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탈퇴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으로 대체했다. USMCA는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및 환경 기준 상향, 디지털 무역과 반부패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2026년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를 분기점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수정헌법 22조에 의거하여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는 트럼프에게 중간선거 승리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트럼프 편이 아니다. 1989년 이후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소속 정당이 연방상하원에서 다수당인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를 2년 동안 누리나, 중간선거에서 연방상하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유산을 남기려 한다면 초기에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지속하되, 중간선거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인상에 대해서 미국 내 대기업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교역 대상국들의 보복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의 이념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물가 인상을 비롯한 경제적 부작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민주당의 대중국 정책은 동맹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다.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가 중국에게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했을 때 사실 공화당의 지원도 있었다. 중국의 국력이 점차 신장함에 따라 외교정책을 둘러싼 공화당의 대민주당 공세는 테러리즘 혹은 중국 및 이란에 유약한 점을(soft on Terrorism or China or Iran) 부각시켜 왔다. 사실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지적했던 대로 강대국이 해외의 제국 건설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전략적인 과부하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중국은 이 틈을 타서 중국몽을 실현해 왔다. 트럼프는 이 점을 국내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 국제주의 혹은 글로벌주의가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허비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사실 민주주의 수출과 국가건설에 몰입하여 개입주의를 고집했던 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였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실패와 국제금융위기는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일깨웠고, 트럼프 행정부 1기는 관세를 매개로 일방주의적인 대중국 무역전쟁을 수행했다. 2018년에 시작된 이 전쟁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였다.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의 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사용하였고, 이후 품목은 해산물에서 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연방의회를 우회하여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통상적으로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의회의 입법 방식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환율조작, 불공정 무역, 지적재산권 도용, 보조금 지급,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국익을 훼손해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중국제품(전자, 철강, 의약품)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내 자산(부동산과 기업) 매입 금지,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금지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하거나 보편관세와는 별도로 중국에게 60-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해서 양국은 관세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의 실질소득 감소, 인플레이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지난 1기의 경우처럼 중국과 관세협정을 통해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AI, 반도체 장비,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는 지속하면서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이어받을 것이다.

3.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대만과 남중국해에서는 일종의 권력 공백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침공 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여러차례 공언했는데, 트럼프는 대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 부담을 대만정부로부터 받아낼 것이다. 따라서 대만이 독립추구를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양안관계의 긴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부담을 줄일 것이며, 이는 힘의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어 아세안 지역의 불안정이 우려된다. 또한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오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불확실하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등 동맹국들과의 방위조약을 근간으로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오크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협력관계를 이끌어왔는데, 진행되었던 아시아판 나토 혹은 소다자협의체 논의를 트럼프가 어떻게 진전시킬지 주목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출과 국방재정 부담의 증가는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의 친분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툽다운' 방식의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불확실하다. 북한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복귀를 반길 가능성이 큰데, 이는 사실상 '전략적 인내 2.0'의 입장을 취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대하기 쉽고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조기 미북협상 전망에는 3가지의 촉진요인과 3가지의 장애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촉진요인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을 상대해 본 경험과 자신감, 그에 대해 적절한 통제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모그룹의 부재, 그리고 미북 협상이 지니는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의 고려이다. 반면, 장애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및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 안정 등 대외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쟁점들의 존재,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당시에 형성되었을 불신,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북러 밀착의 관성을 들 수 있다. 즉,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동안 미북 채널의 복원 움직임은 분명 있겠지만, 이것이 조기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북한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해리스 승리 시 염두에 두었던 것보다는 낮은 정도의 핵전력 시위를 벌일 것이고,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초대형 핵탄두보다는 전술핵 능력 확보를 과시하는 형태를 택할 것이다. 또한, 주로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 수위를 자신들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에서는 1기에서 볼 수 있었던 미중관계가 재연될 것이다. 탈이념적이고 실리중심의 대중정책이 추구될 것이다.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자유주의 리더십은 훼손될 것이고, 중국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다. 중국은 아차리야(Acharya)가 강조하는 문명의 ‘멀티플렉스(multiplex)’ 개념과 상응하는 다극적 질서를 추구해왔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면서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브릭스(BRICS)와 글로벌 사우스 등의 개발도상국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탈달러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모색 중이다. 예견되는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이 중국의 국가전략을 크게 제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관세 무역 압박만 잘 이겨낸다면, 트럼프 2기는 중국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해주리라 예견된다.

【특별분과 I】 발표

트럼프 집권 2기 ‘하나의 중국’ 프레임과 중·미·대만 삼각관계의 정치역학

강 병 환*

【목 차】

1. 서론	2) 트럼프 시대의 하나의 중국 정
2.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함의	3) 라이칭더 집권기 대중국 정책
1) 베이징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4.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미 간의 마지노선
2) 하나의 중국’과 대만 정치의 딜레마	1)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전략적 모호성
3) ‘하나의 중국’과 국제사회	2) 대만문제와 중·미 간 전략적 이해관계
4) ‘하나의 중국’과 한반도	3) 트럼프 이후 대만의 전략적 가치 상승과 중·미 대립 심화
3. 미국의 양안정책	5. 결론
1) 트럼프 집권 이전 미국의 일중정책의 기본 틀과 내용: 3보1법과 6항보증	

【 초 록 】

본 논문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프레임을 중심으로 양안관계(兩岸關係)와 중·미·대만 삼각관계의 정치역학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양안은 과연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는가, 대만은 정말로 중국의 일부인가, 국제사회는 실제로 오직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하고 있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만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하나의 중국’ 문제는 단순한 양안 간 갈등을 넘어,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워싱턴의 ‘하나의 중국 정책’ 간의 미묘한 차이, 이를 둘러싼 중·미 전략경쟁, 동아시아 정세 변동,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 과정 등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대중 견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면서 대만 문제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하나의 중국’ 문제는 중·미 간 최종적인 전략적 대결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념적·지정학적 패러다임이 21세기에 들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양안관계, 중·미관계, 중·미·대 삼각관계의 구조적 긴장을 해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미 전략경쟁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도 이론적·정책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키워드】 하나의 중국, 양안관계, 대만문제, 중미관계, 전략경쟁, 동아시아 정세

* 제1저자.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sonamoo369@daum.net)

1. 서론

양안(兩岸)은 과연 모두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에 속하는가? 대만은 정말로 중국의 일부분인가? 국제사회는 실제로 오직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하고 있는가?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 즉 양안관계(兩岸關係)는 왜 ‘양국관계(兩國關係)’라고 불리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오랜 역사와 복잡한 정치적 맥락 속에 뿌리박고 있어 명확한 해답을 도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은 하나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곧 대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이며, 양안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만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의 중국’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기실 중국과 대만 간 통일과 독립을 둘러싼 모든 논쟁은 ‘하나의 중국(一中)’이라는 프레임에서 비롯되었으며, 대만의 국가 지위,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에 관한 논의의 본질 또한 이 개념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중국’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도록 만든 실질적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양안 간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시종일관 핵심적인 위치를 점해왔으며, 이러한 역할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베이징의 주요 상대는 대만 이라기보다 오히려 미국이며,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양안 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과 워싱턴의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 사이의 입장 차이,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베이징·타이베이·워싱턴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 동아시아 지역 정세의 변동, 양안 간 긴장과 완화의 흐름, 양안 교류의 온도차, 각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 더 나아가 양안 지도자들의 개인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치 환경 속에 얽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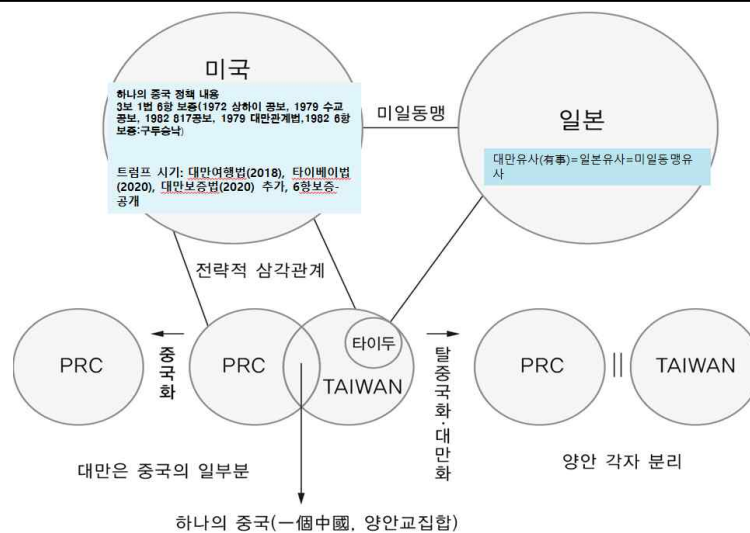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현재 워싱턴과 베이징의 최고지도자가 갈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대만이다. 바로 ‘하나의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며, 베이징은 미국을 비롯하여 기타 국가들에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의도를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비록 베이징이 “양안 문제는 내정의 문제”라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순수한 중국대륙 내부의 문제도 아니며 더구나 완전히 국제적인 문제도 아니다. 내부와 외부의 문제가 뒤섞여 엇갈리고 복잡하며, 베이징의 대만에 대한 장악능력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은 국제관계의 준칙(準則)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식(共識)으로, 베이징이 기타 국가와 관계 발전을 하는데 근본적 전제이며 정치적 기초로 작용했다.¹⁾ 더구나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은 국제적으로 규범적인 작용을 발휘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안 간 통일에 관해 발표된 일체의 이론은 양안관계 당사자 자체는 물론 국제적인 규범의 측면에서도 모두 하나의 중국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21세기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는 ‘중국의 부상(굴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이다.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이후 미국은 중국과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전, 과학기술전, 심리전을 진행한 바 있고, 트럼프 집권 2기에 들어서서는 보다 더 거칠게 중국에 대한 관세전, 과학기술

1) 王毅指出，一個中國原則，是公認的國際關係準則(中評社 張爽攝)，中評社北京5月27日電(記者 張爽)中國國務委員兼外交部長王毅於2018年5月26日下午在北京釣魚台國賓館同布基納法索外長巴里舉行會談並簽署《中華人民共和國與布基納法索關於恢復外交關係的聯合公報》。 <http://hk.crntt.com/doc/1050/8/1/9/105081935.html?coluid=93&kindid=15733&docid=105081935&mdate=0527001411>

전을 비롯하여 등 다방면에서 중국에 대한 전면적 견제를 본격화하였다. 이처럼 전면 충돌로 향하고 있는 중·미 간 전략 경쟁에서, 양국이 마지막 패를 꺼내 드는 결정적 쟁점이 무엇이 될지를 가늠하는 데 있어, 필자는 대만문제의 본질인 ‘하나의 중국’이 핵심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하나의 중국’ 담론은 냉전기 이후 중·미 관계의 근간을 이루어온 지정학적 패러다임이자,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영토 통합 논리를 뒷받침해온 이데올로기적 기제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담론은 다양한 차원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양안관계, 중·미관계 그리고 중·미·대 삼각관계의 구조적 긴장을 해명하고, 나아가 이것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성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도 도출하고자 한다.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치의 전체 역학구조



1. 하나의 중국원칙(구삼단론, 대외용)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다.

2. 하나의 중국원칙(신삼단론, 2002년 이후, 양안용, 대내용)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다. 대륙과 대만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은 분할을 용납하지 않는다

3.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3보1법과 6항보증에 기반을 둔 “OUR ONE CHINA POLICY”

트럼프 집권 1기 통과된 대만여행법(2018), 타이베이법(2020). 타이베이법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적 지위 강화를 적극 지원)

2.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함의

1) 베이징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대만, 홍콩, 신장, 티벳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에 관계되는 핵심 이익이다.²⁾ 즉 대만 문제의 본질인 ‘하나의 중국’ 문제는 국제사회와 양안 관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원칙이자 마지노선이고, 베이징 외교정책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다. 나아가 중국은 대만문제를 ‘백년 굴욕’의 세기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서 대만통일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중의 핵심이익이 걸린 문제며, 중국공산당의 3대 역사 임무 중의 하나다.³⁾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는 순간 베이징의 그 어떤 지도자도 청말 외세에 굴복하여 중국의 영토를 제국주의에 할양해 주었던 제2의 리홍장(李鴻章)이 될 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대륙 간의 영구적인 분열을 가져와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나아가 대만이 분열해서 나가는 것은 공산당의 정당성마저 위태롭게 만들게 되며, 그러므로 대만 문제에 대한 양보는 중공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는 가장 훌륭한 방안은 일국양제(一國兩制)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화평통일 일국양제(和平統一—一國兩制)」 구상을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월 2일 시진핑은 「고대만동포서(告臺灣同胞書)」 40주년 기념 담화에서 일국양제야말로 최적의 통일방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양제 대만 방안 탐색을 촉구했다.⁴⁾ 이른바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에서 ‘양제’는 홍콩의 사례처럼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베이징은 대만의 정치제도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⁵⁾ 일국양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제가 아니라 결국 일국(一國)이다. 일국은 곧 ‘하나의 중국’을 의미한다. 베이징은 타이베이와 베이징을 중앙과 지방 관계로 보고 있다. 가족관계로 비유하자면 부자 관계다. 이에 반해 국민당은 양안 관계를 상호 평등한 형제(兄弟)관계로 보고 있다.⁶⁾ 하지만 민진당은 양안관계를 남남관계 공산당과 민진당의 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양안의 정위(定位)를 둘러싼 공산당-국민당-민진당의 3당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관계 정립은 각기 다르다.

2) ‘하나의 중국’과 대만 정치의 딜레마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것은 ‘하나의 중국’은 대만의 대외관계와 국제 공간, 양안 간의 상호발전, 대만의 지위, 대만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타이두(대만독립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중국’은 대만의 미래를 읊아매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베이징이 ‘하나의 중국’이란 주문을 외우면 외울수록 타이두의 활동공간은 그만큼 제약된다. 이는 마치 손오공의 머리를 조

2) 特朗普在台灣南海搞事非不可能, <http://www.CRNTT.com> 2020-08-09 00:08:38

3) 장쩌민은 건당 80주년 기념 담화에서 덩샤오핑이 1980년대에 제기한 3대 임무 즉 현대화건설, 조국통일, 세계평화와 발전을 진일보 발전시켜 중국의 3대 역사임무로 천명했다. 시진핑 역시 2012년 11월 중공 18대 총서기로 취임한 후 첫 정치국 집체학습 주재시에 3대 역사 임무를 강조했다.

4) 习近平出席纪念会并发表重要讲话, 2019-01-02, https://www.gov.cn/xinwen/2019-01/02/content_5354209.htm

이른바 시5조(習五條/習五點)는 민족 부흥을 함께 추진하고 평화통일의 목표를 실현, ‘양제(兩制)’ 대만 방안을 모색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평화통일의 전망을 수호, 양안 간 융합 발전을 심화, 양안 동포 간의 마음의 교감을 실현하여 평화통일 정체성 증가.

5) 고대 중국의 일국양제는 진시황에서부터 출발한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군현제의 외환(外還)에 토사제도(土司制度)를 설치해, 소수민족은 각자의 풍속에 의거하여 생활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라는 경계가 그 어지고 나면 자치를 보장했다. 양안은 1949년 이후 각자가 견지하는 정치제도 속에서 살고 있으며, 더구나 양제는 이미 고대 중국 전통의 정치제도에서도 존재했었고, 대륙은 일국양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1997년 이후 홍콩의 일국양제는 성공적인 경험일 것이다. 물론 2019년 홍콩 시위를 비롯하여 2020년 홍콩보안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일국양제가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의 논리에서 본다면 오히려 일국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콩과 달리 1951년 티베트의 일국양제 실험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6) 현 대만의 헌법은 1946년 대륙의 난징(南京)에서 제정한 것이며, 현행 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중국대륙은 여전히 중화민국의 영토에 속한다.

이는데 사용되는 삼장법사의 주문, 즉 긴고주(緊箍呪)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두 당강을 채택하고 있는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이 대만의 집권당이 되면, 양안은 군사적으로는 긴장 상태로, 외교적으로는 대치국면으로 빠져들고, 국민당 시기에 그나마 이어져 오던 기존의 제도화된 협상은 중단되고 양안은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는 ‘하나의 중국’ 문제로 인해 발생한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의 출발점이 하나의 중국이듯이 그 종착점도 결국 ‘하나의 중국’에 관한 양안 간의 갈등과 마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현재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만약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민진당의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타이두 당강을 가진 민진당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2년 대만의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과 대륙의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 이하 공산당)은 홍콩에서 ‘하나의 중국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 회담에서 양당은 「92 공식, Consensus」을 도출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각자가 구두(口頭) 방식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표술(表述)한다”는 92공식(1992 Consensus)은 엄밀히 따져본다면 공통된 인식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많다. 국공 양당은 각치쟁의(擱置爭議, 쟁의성 있는 의제에 대해서 남겨두고 그 해결을 미래에 보류해 둬)의 형태로 ‘하나의 중국’에 대해 ‘타협 아닌 타협’ 즉 묵계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당과 공산당, 민진당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은 각기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 양안 삼당은 대만문제가 발생한 근원과 해결방법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고, 통일과 독립 문제 역시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삼당의 기본 입장은 이미 풀 수 없는 옴매듭이 되었다.

<표1> 1992년 당시 대만 정책결정자들의 92공식에 관한 견해

인물	당시 직책	92공식(Consensus) 인정 여부
리등후이	총통	불인정, 어린애(쑤치)가 역사를 왜곡 날조했다
황쿤웨이	대륙위원회 주임	불인정
구썬푸	해기회 회장	불인정, 92양해(諒解, 1992 Understanding)
마잉주	대륙위원회 부주임	당시 불인정, 후에 인정으로 입장 전환
* 천수이볜(2000-2008): 불인정, 공식 없는 공식이고, 92정신에 합당 * 시진핑(2019): 고대만동포서 40주년 기념 담화, 92공식은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공동으로 국가통일을 모색한다는 것이 일중(一中)의 본질이며 통일이지 각표(各表, 각자표기)가 아니다. * 차이잉원(2016~2024): 불인정, 92년 양안 회담 사실은 인정 * 라이칭더(2024~현재): 불인정		

민진당은 분명하게 독립을 추구하는 일중일대(一中一臺,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의 입장이 강하고, 국민당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은 실상 두 개의 중국(兩個中國,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가깝다. 중국은 ‘일중일대’와 ‘두 개의 중국’을 각각 A형 타이두, B형 타이두라 칭하며 분열 노선을 취하기에 그 본질은 같다고 인식한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산당의 셈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다. 대만은 ‘중국’의 한 개 성(省)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만에 있다. 원주민(原住民), 이민(移民), 식민(植民), 후식민(後植民)이라는 4민(民) 문화 정서가 그 밑바탕에 있고, 원주민의 터전 위에서 식민과 이민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대만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식민’이다. 식민의 경험도 네덜란드, 스페인, 명나라 정성공, 청

나라, 일본, 중화민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즉 대만의 식민은 연속식민이며, 다중식민에 해당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중화민국’이다. 식민이 종결된 시점이 탈식민(후식민) 인바, 대만은 여기에 대한 관점이 각 족군(원주민, 민남인, 객가인, 외성인)에 따라 다르다.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식민상태며, 민진당은 1999년까지 중화민국을 외래정권으로 보았다. 여기서 다시 여러 갈래의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38년 동안 지속된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까지를 동족(한족)에 의한 식민으로 보는 입장과 2000년을 후식민의 기점으로 잡는 부류도 있다. 당연히 외성인의 입장에서 대만의 후식민(식민 이후 시기)은 1945년 10월 25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복잡한 대만의 역사적 연원과 기억, 역사의 후유증, 대만 본토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부상한 대만의 새로운 정체성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착종(錯綜)의 내부관계에서 통일과 반통일, 타이두와 반타이두, 양안 교류와 반교류, 양안융합과 반융합, 시진핑이 강조하는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과 심령계합(心靈契合, 심령부합)의 대중국주의와 이에 반대하는 대만 민족주의의 투쟁, 중국인과 대만인의 정체성 투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베이징이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one china principle’이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다(世界上只有一個中國, 臺灣是中國的一部份, 中華人民共和國政府是中國的唯一合法政府). 즉 구삼단론은 1949년 신중국 성립부터 중공이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다. 여기서 삼단론이란 국가승인, 영토 승인, 정부 승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이후에는 하나의 중국원칙 신삼단론이 등장한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다.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은 분할을 용납하지 않는다(世界上只有一個中國, 大陸與台灣同屬於一個中國, 中國的主權與領土完整不容分割). 2000년 첸치첸(錢其琛) 부총리가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삼단론을 밝혔다. 2002년 전인대 제9기 5차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에서 공식화 했다.⁷⁾ 신삼단론은 내부용이며, 양안용이고, 대만 민중의 감정을 배려한 통일전선의 성격이 강하다.

3) ‘하나의 중국’과 국제사회

(1) 국제사회에 ‘하나의 중국’ 문제가 대두된 원인

그렇다면 ‘하나의 중국’ 문제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대두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이중적이고 냉엄한 현실국제정치가 놓여 있다. 닉슨과 마오쩌둥은 소련에 대한 견제라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있었다. 1971년 키신저와 저어언라이 간 세기의 비밀회담을 통해 중·미는 관계개선을 타진한다. 중·미가 관계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만 문제를 정리해야만 했다. 이어 1972년, 닉슨 정부는 중공과 연합하여 소련을 견제하려는 연중제소(聯中制蘇)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두개의 중국’ 정책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전환했다. 즉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 철군, 폐약(공동방어조약)을 거쳐 마침내 1979에 베이징과 수교하였다.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미국은 ‘인지(認知, acknowledge, 승인(recognize)이 아님)’한다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다. 당시 중·미 양국은 소련의 패권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아가

7) 朱鎔基總理在政府工作報中重申對台新三段論, 2002.3.6, <http://unn.people.com.cn/GB/channel2567/2608/2813/2814/200203/06/164626.html>

중·미 양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동맹 아닌 동맹’ 즉 준동맹 상태의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이면에는 베이징과 워싱턴 간에 대만 문제에 대한 타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중국’은 지금까지 중·미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적인 기초가 된 셈이다. 다시 말해 양국은 수교당시에 가장 큰 걸림돌인 대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그 국가적 지위를 포기시키고, 대만의 국가주권을 모호화 했으며, 대만문제의 해결을 먼 미래에 두었을 뿐 아니라, 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게 아니라 잠시 주변화 시켜 놓았던 것이다. 이른바 키신저 질서다. 이 질서는 중미 간의 관계개선에 바탕을 둔 질서로 지난 40년 간 동아시아는 이 질서 속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모두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양안 통일은 양안 ‘중국인’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양안 미래를 설계했다. 마오 역시 당장은 대만이 미국의 손안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백 년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는 원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⁸⁾ 하지만 미국은 대만에 병만 준 것이 아니라 약도 주었다. 중·미 수교 공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만관계법(Taiwan Act)을 통과시켜 대만 보호의 의무를 스스로 떠안았다. 미국은 교묘하게 양안 갈등의 복선을 깔아 놓았다. 즉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고는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안의 일은 양안 당사자인 ‘중국인’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미국의 일중정책처럼 애매모호한 정책은 사실상 드물다.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만약 베이징과 워싱턴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다면, 대만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즉 미국의 ‘일중정책 one china policy’와 베이징의 ‘일중원칙 one china principle’은 다른 것이다. 더구나 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해지고, 심지어 21세기에 들어선 후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 중 중국이 유일한 후보로 떠오른 시점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졌다.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대만 만큼 절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드물다. 미국에 있어서 대만은 언제나 동북아와 동남아의 중간에 떠 있는 불침의 항공모함(unsinkable aircraft)이었다. 맥아더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으며, ‘자유 개방의 인·태전략’을 내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한층 더 높아졌다. 중·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워싱턴은 대만카드를 사용하여 베이징을 제어하고자 하는 충동 역시 더 강렬해진다. 그러므로 대만문제는 현재 중미 간의 관계 정도를 짚 수 있는 확실한 온도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다.

<표2> 중화인민공화국과 기타 국가와의 수교공보에 나타난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

중국 주권의 내용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국가
승인(recognize) :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다.	승인(recognize) :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성, 혹은 불가분의 일부분	몰다이브, 네팔, 보츠나와, 볼리비아, 이스라엘, 바하마 등 : 39개국
대한민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장소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보 제3항

8) 키신저, 권기대 옮김, 중국이야기, 민음사, 2012, 377쪽.

승인(recognize) :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다.	인지(acknowledge) :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지한다. 그러나 베이징은 번역시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개 성, 혹은 불가분의 일부분으로 번역한다.	미국 ⁹⁾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태국, 피지, 서사모아 : 8개국
상동	유의(take note of) :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개 성 혹은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유의한다.	캐나다, 이탈리아, 칠레, 브라질 등 : 16개국
상동	이해와 존중(understand and respect) :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개 성(省)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 : 3개국
상동	수교 성명에서 대만문제를 언급하지 않음	북한, 헝가리 등 : 38개국
성명에서 중국주권 부분 무언급	무언급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 65개국

羅致政, 宋允文主編, 『解讀一個中國 : 國際脈絡下的政策解析』, 臺灣智庫, 2007, p.4 필자 재정리

4) ‘하나의 중국’과 한반도

16~17세기 해양시대 이후 대만과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 지대가 되어 긴밀한 지정학적 관계를 맺었다. 대만은 중국 동남 연안을, 한반도는 중국 동북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북한은 중국 동대문의 울타리로 기능했다. 네덜란드의 대만 식민지 통치와 하멜 일행의 제주도 표류 사건¹⁰⁾, 청의 천계령 시행¹¹⁾은 대만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대만 정씨 왕조와 청나라 간 대립¹²⁾, 청·프 전쟁과 대만 봉쇄, 청나라의 대만 성 편입 등 일련의 사건은 한반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¹³⁾ 1895년 청일전쟁은 조선이 중국의 권역에서 떨어져 나옴과 동시에 대만의 일본 할양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일본이 조선과 대만을 북진·남진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한 결과였다. 대만과 한반도는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항상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대만과 한반도에서는 권력의 진공상태가 발생한다. 권력의 진공상태를 서로 메우기 위해서, 대륙에서는 국공 내전이 발생했고, 그 결과 장제스는 패해서 대만으로 도망 왔다. 이어 한반도에서도 한국전쟁이 발생했다. 결국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9) 1972년 미국은 상해커뮤니케에서, The United States side declared: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s that all Chinese on either side of Taiwan Strait maintain there is but one China and that Taiwan is a part of Chin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challenge that position 이라고 밝혔다.

10) 1627년에는 안 반스 벨테브레(박연)가, 1652년에는 하멜(1652-1666) 일행이 도착한다. 이들은 바타비아(자카르타) 대원(大員, 대만) 나가사키로 가는 항로에서 태풍을 만나 표류한 것이다. 벨테브레는 조선에 귀화하여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병자호란에 참가했다. 홍이포(紅夷砲)의 제작법·조종법을 지도했다.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원 겸 서기로서 조선에 억류되어 탈출했다가 『하멜표류기』, 『조선왕국기』를 남겼다.

11) 천계령으로 인한 무역 위축으로 인해 중국 동남 연해가 봉쇄당하자, 조선의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갔다. 일본과 청의 중계무역 거점으로서 조선 연안 항로가 이용되자, 일본의 은이 조선으로 흘러와 조선은 특수를 누리게 된다.

12) 정씨 왕조와 청나라, 즉 양안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청나라의 협상 마지노선은 등록(대륙에 올 것), 청신(신하라 칭할 것), 변발이었다. 결국 변발이 문제였다. 정씨 왕조는 ‘조선의 예’를 내세워 변발만큼은 결코 물러 나지 않았다. 더구나 강희제 초기의 청나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 대륙에서는 몽고 중가르 부족, 중국대륙 남방에서 삼번(三藩)의 난(1673~1681년)이 일어났으며, 대만 정씨왕조의 명조(明朝) 부흥운동, 조선도 북벌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심지어 이들 대항세력은 결합할 여지도 있었다.

13) 청·프 전쟁의 발발로 인해 임오군란으로 조선에 주둔 중인 청군의 일부가 청·프전선으로 파견하게 된다

대만과 남한에서 일본이 떠난 권력의 진공상태를 메운 세력들은 미국이 지지하는 세력들이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소위 애치슨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을 발표한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대만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며,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저지하기 위한 선이다. 태평양에서의 지역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여 대만과 한반도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한국전쟁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뒤에 미 7함대가 대만해협에 개입하였다. 중공도 한국전쟁에 개입한다.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서 마오는 대만을 잃었고, 17만 대군과 그의 아들을 잃었다. 미국과 한국은 1953년, 미국과 대만은 1954년에 각각 방위조약을 맺었다. 양안과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된 것이다.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였으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공급망 안전,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중·미 전략 경쟁과 관련된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나 공감대를 형성했다.¹⁴⁾ 윤석열 정부는 보다 더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대중견제에 동참했다. 예를 들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시도를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역대 대통령들은 대만과 관련된 공개 언급을 자제하는 것과 달리 대만 문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¹⁵⁾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중국이 무력이나 강압적 행위를 통해 대만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상술한 역사를 보더라도 대만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지금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발할 화약고로서 가장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만 문제와 남·북한 문제에서 가장 큰 구조적 변수는 중·미관계다. 국제체제의 구조수준(structure system level)에서 본다면 미국 패권의 상대적 위축, 중국의 부상, 국제질서의 복잡화 등 동아시아의 근본적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다. 동아시아에서 중·미관계 갈등의 요체는 중국의 대국화 추진에 따른 미국의 적극적 억제에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양이익을 추구하고 군사력 투사범위를 늘려나가자 중·미 간에 패권 경쟁이 드러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만과 한반도 둘 중 어느 한 곳의 구조적 변동이 생기면 다른 한 지역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근대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안보 위기가 대만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했다.¹⁶⁾ 사실 대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시점부터 대만해협은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만 문제와 남북문제는 그 양상이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대만의 국제적 지위 문제와 대만인의 정체성 문제(국가정체성, 민족 정체성)는 우리의 남북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인식과 남북한 정체성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화될 가능성은 높다.

3. 미국의 양안정책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대만 문제를 이장제모(以蔣制毛, 장제스로서 마오쩌둥을 제어하고), 이

14) 呂春燕, 「拜登強化美韓同盟及對中韓關係影響」, 『和平與發展』, 第3期, 和平與發展研究中心, 2022, pp.60-78.

15) 주재현, 尹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국제 사회가 반대해야”, 2023-04-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D40LZM3>.

16) 신상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국가전략』, 제13권 3호, 세종연구소, 2007, p.74.

국제공(以國制共, 국민당으로서 공산당을 제어), 이독제장(以獨制蔣, 타이두로서 장제스를 제어), 이민제국(以民制國, 민진당으로서 국민당을 제어), 이대제중(以臺制中, 대만으로서 중국대륙을 제어)을 이해제육(以海制陸, 바다로서 육지를 제어)하는데 활용해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만 문제는 미국 문제이고, 중미관계의 가장 주요한 도전이며, 심지어는 중미 충돌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¹⁷⁾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은 ‘삼보일법, 즉 1972 상하이 공보, 1979 수교공보, 1982년 817 공보와 대만관계법’을 위주로 하고, 클린턴의 삼불¹⁸⁾과 ‘대만인의 동의’, 평화적 해결 등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트럼프 시기 통과된 대만여행법(2018), 타이베이법(2020), 대만보증법(2020) 등을 보완하여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삼는다.

양안 문제에서 중·미 간의 최대 공약수는 ‘하나의 중국’ 임이 분명하나, 하지만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과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다르다. 미국은 일중정책(하나의 중국 정책)을 칭할 때 항상 ‘우리의 일중정책, our one China policy’라고 말한다.¹⁹⁾ 미국은 통상적으로 “삼보일법에 기초한 것이 우리의 일중 정책의 기본 프레임”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대만관계법과 3개의 공보에 기초한 우리의 일중정책은 무엇인가. 미국의 일중정책 즉, ‘우리의 일중정책’은 정식으로 중화민국(대만)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대만관계법으로 대만과의 국방, 상업, 문화 기타 정규 외교관계의 법률적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중정책(하나의 중국 정책, one China policy)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타이베이와 베이징 편을 오갔다. 중·미관계가 호전되거나, 양안관계가 안정되면, ‘하나의 중국’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때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대만포기론도 거론되기도 하고, 「대만관계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중·미관계가 긴장되거나, 양안관계의 평형이 깨질 때는 미국 내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하나의 중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등장한다. 총체적으로 말해, 중·미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정책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보장했으며, 양안 간에 위기와 충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틀 속에서 평형과 안정을 유지했고,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은 양국을 안정시키는 밸러스트 스톤(ballast stone)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1기 이후 키신저 질서가 2017년부터 완전히 동요하기 시작했고 키신저의 말대로 중미관계는 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양안의 어느 일방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status quo)는 워싱턴의 양안 정책의 원칙이다. 하지만 ‘현상 유지’ 만큼 애매모호한 개념도 없다.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상’은 정태적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이며, 미국이 정의하는 현상이다.²⁰⁾

17) 鄧小平, 『鄧小平文選』第3卷, 人民出版社, 1993, p.97.

18) 三不, 대만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혹은 일중일대(一中一臺) 불지지, 대만이 국가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국제조직 가입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중공에 승낙함.

19) 2017년 2월 9일 목요일 밤, 트럼프와 시진핑은 45분 동안 통화했다. 시진핑은 5분간, 대만문제에 대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기를 희망한다.” 트럼프는 답했다. “당신의 요구에 응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백악관은 공보를 통해 양국 원수가 토론한 여러 주제 속에, 트럼프는 시진핑의 요구에, 우리의 하나의 중국정책을 신수하겠다고 동의했다.(President Trump agreed, at the request of President Xi, to honor our “one China” policy). 이후 세계 각지 백여 개의 신문매체들이 트럼프가 대만에 대한 지지를 포기했다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동의한 것은 중국의 일중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일중정책이다.

20)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이 정의하는 현상 유지를 변경시키는 일방적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unilateral moves that would change the status quo as we define it). James A. Kelly, Overview of U.S. Policy

즉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만이 독립해버리거나, 대만이 중국과 통일하면 그만큼 미국이 사용할 카드는 줄어든다. 그 결과 미국은 일방적인 양안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일단 미국이 타이두(대만독립)를 지지하게 되면 이로 인한 전쟁 발발과 이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양안 통일이 실현되면 중국의 굴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라는 각도에서 양안 간 어느 일방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하지만 중국의 굴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 양안 간의 경제, 사회, 문화융합이 심화되는 상황, 대만 측의 일방적인 현상변경(대만독립선포,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률 타이두를 포함하여)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제는 단지 중국이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할 가능성(무력통일을 비롯하여)이 더 커졌다. 이것이 트럼프 집권 후, ‘수정주의’ 국가로 중국을 지목한 배경이다. 그러므로 대만 해협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베이징의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억제하고 양안의 군사적 평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생긴다. 다시 말해 중·미관계의 구조적 모순이 상승하면 대만 문제 역시 수면으로 드러나서 피할 수 없다. 바로 ‘하나의 중국’ 문제를 둘러싼 게임이 중·미 양국의 기본적인 모순이다. 베이징의 조국통일 주장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제공, 대만관계법을 비롯한 각종의 대만 우대 법안 간 모순이 존재한다. 중·미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대만 문제는 필연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21세기 중국과 미국 사이, 즉 1등 국가와 2등 국가 사이에 가장 민감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 트럼프 집권 이전 일중정책의 기본 틀과 내용: 3보1법과 6항보증

1969년 1월 닉슨은 대통령에 취임한 데탕트(détente)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미관계의 관계회복은 무엇보다도 대만의 정치적 지위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했다. 결국 베이징의 문을 열기 위해 닉슨과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대만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두 개의 중국정책을 구사하던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베이징 역시 현실적인 소련의 위협도 존재했고, 무엇보다도 미국으로부터 대만을 떨어내기 위해 미국을 이용했다. 현재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은 이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정책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삼보일법’(三報一法)을 위주로 하였다. 삼보란 각각, 1972년의 상하이 공보(커뮤니케), 1979년의 중·미수교 공보, 1982년의 817 공보와 1979년 4월 미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만관계법(臺灣關係法)을 의미한다. 삼보일법은 닉슨 집권 이후 트럼프 집권 이전까지 양안정책에 대한 기초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역대 미국 정부는 약간의 공개적 승락과 선시(宣示)를 통해 대만양안정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즉 1982년 817공보 발표 후, 레이건이 대만의 장정귀를 달래기 위하여 구두로 전달한 6항보증(六項保證), 1994년 9월 클린턴 정부의 대 대만정책 검토, 1995년 8월 클린턴이 장쩌민 국가주석에게 보낸 친서에서 밝힌 삼불의 승락²¹⁾ 등을 정책에 보충하고 있다. 물론 이 승락은 클린턴이 1998년 6월 상하이에서 구두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삼불(三不)을 밝혔고, 1999년 7월 백악관에서 거행

Toward Taiwa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Testimony at a hearing on Taiwan,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April 21, 2004. <https://2001-2009.state.gov/p/eap/rls/rm/2004/31649.htm>. The U.S. does not support independence for Taiwan or unilateral moves that would change the status quo as we define it.

21) 대만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및 일중일대 지지하지 않음, 대만이 국가자격으로 국제조직 가입을 지지하지 않음

된 기자회견에서 대 중공정책의 세 가지 기둥, 즉 하나의 중국정책, 양안대화 및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만해협 정책의 기초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과거 30여 년 간은 분명 삼보일법을 위주로 하였지만 트럼프 취임후 대만에 대한 각양 각종의 우대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 대만보증법,대만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리아법(아시아재보증창의법,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등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기초도 기존의 삼보일법에서 삼보삼법으로의 이동하였다.

<표3>미국 일중정책의 기초:3보 1법 6항 보증-트럼프 시기 3법 추가

3보 1법, 6항보증	상하이 공보	1972년 2월 28일
	중미수교 공보	1979년 1월 1일
	817 공보	1982년 8월17일
	대만관계법	1979년
	6항 보증	1982(구두 승락)
트럼프 시기 3법 추가, 6항보증 공개화	대만여행법	2018년, 트럼프 집권1기
	타이베이법	2020(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 "TAIPEI" Act)
	대만보증법	2020.Taiwan Assurance Act, 무기판매 상시화
	6항 보증	아시아재보증창의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2018년 통과. 이 법안 조항에서 6항 보증 이행 규정. SEC. 209.

(1) 상하이 공보(Shanghai Commuike)

1972년 2월 닉슨은 베이징을 방문했다.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닉슨은 공보를 발표했다. 이른바 상하이 공보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는 사실을 승인한 공보다. 그러나 공보 발표 이전, 닉슨은 키선저의 중국방문 시의 5항 원칙을 표명하도록 했다. 1971년 키신저의 베이징 비밀방문에서 첫째,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둘째, 미국은 어떠한 대만의 독립운동도 지지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은 점진적으로 대만에서 철수하며, 아울러 일본이 대만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한다. 넷째 미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을 지지하며, 대만이 군사적 방법 및 반공대륙을 빌미로 하는 어떠한 기도도 지지하지 않는다. 다섯째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며, 대만문제가 관계정상화의 장애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합의가 있었다.²²⁾ 이미 이 당시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 조약 폐기, 철군이라는 중공의 요구를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미양국은 연합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The United States side declared: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s that all Chinese on either side of Taiwan Strait maintain there is but one China and Taiwan is a part of Chin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challenge that position.

22) 張曙光·周建明 編譯, 『中美解凍與臺灣問題：尼克森外交文獻選編』, 中文大學出版社, 2008, pp.604-605.

해협 양변의 모든 중국인은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지(acknowledge)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베이징측 성명은 영문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문구 또한 확연히 차이가 난다.

“中華人民共和國是中國的唯一合法政府；臺灣是中國的一個省，早已歸還祖國；解決臺灣是中國內政，別國無權干涉；美國武裝力量和軍事設施必須從臺灣撤收。中國政府堅決反對任何旨在製造「一中一台、一個中國兩個政府、兩個中國、臺灣獨立和鼓吹臺灣地位未定論的活動。”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고 대만은 중국의 한 개 성이며, 이미 조국에 귀환했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이므로 타국은 간섭할 권한이 없다. 미국의 무장력량과 군사시설은 반드시 대만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정부, 대만독립과 대만지위 미정론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견결히 반대한다.

상하이 공보는 닉슨의 베이징 방문의 주요한 성과다. 이로써 중·미관계는 긴장이 완화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공보의 가장 주요한 의의를 찾자면 베이징을 끌어 들여,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을 고립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중·소분열을 이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시킨 것이며, 중공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1969년 진보도 사건을 계기로 중난하이(中南海)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소련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중·미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만의 이익은 희생당했다. 당시 대만에 있던 중화민국정부는 성명을 내고 격렬하게 중공을 비판했다.

이른바 중·미의 상하이 공보는 대만 문제에 관계된 것이다. 대만은 엄중하게 비판했다. “공비(共匪)는 여전히 중국인의 공적(公敵)이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화근의 근원이다. 우리 정부와 해내외의 중국인민은 폭력통치하는 공비들을 뒤엎는데 분투를 다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 정부와 인민의 신성한 책임이고, 공비들이 하는 일체의 대화활동은 모두 통전(통일전선전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미국과 공비가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늑대를 제집에 끌여 들이는 격이다”²³⁾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중공의 덩샤오핑이 말하는 상하이 공보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not to challenge)는 점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라는 견해는 해협 양안 중국인들의 견해다. 미국의 입장 또는 주장이 아니다. 워싱턴은 단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며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중국을 승인(recognize)한다는 말은 없고 인식한다(acknowledge)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아울러 중국인 자신들이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거듭 천명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거부했다. 이는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세 개의 공보의 공통점이다. 만약 미국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라고 명확하게 발표했다면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간여는 그야말로 내정간섭이 된다.

(2) 중·미 수교 공보

1972년에 상하이 공보로 발표하고 그 후 7년 뒤에 중·미는 정식으로 수교하게 된다. 수교가 이렇

23) 〈美國尼克森總統與周匪恩來所來發表致聯合公報〉關聯的中華民國發表聲明, 1972.

게 늦었던 이유는 양국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국내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워싱턴에서는 워터 게이트로 사건으로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베이징 역시 문화대혁명의 막바지에 있었다. 카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년이 지나, 1979년 원단(元旦), 중·미는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연합공보를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미국은 이 공보에서 공식문서에서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국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승인했지만 대만과의 비관방왕래는 유지했다. 중·미 간은 오히려 하나의 중국 입장에 있어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이 범위 내에서 미국 인민은 대만인민과 문화, 상업 기타 비관방관계를 보지하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인지(acknowledge)한다. 즉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cknowledge** the Chinese position that there is one China and Taiwan is part of China)

나아가 중·미 양국은 어떠한 국가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추구를 반대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는 중·미 양국이 소련에 취하는 공동입장임을 암시한다. 이로써 베이징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합법성을 강화시켰고,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타이베이에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정부는 여전히 전중국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1971년 유엔에서의 축출과 더불어 외교적으로 또 다른 타격을 받았다. 결국 대만의 중화민국은 그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이는 대만독립을 표방하는 운동가들에게는 이 보다 더 좋은 명분이 없었다.

카터 정부 이후 미국의 대 대만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병주고 약주기’ 사이를 오고가는 이중정책의 정수를 보여준다.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만에 약을 주고 베이징을 의식한 정책에서는 대만에게 병을 주는 식으로서 이용했다. 이를 역으로 보면 중공에게도 ‘병주고 약주고의 정책’ 사이를 교묘하게 오갔다. 그 출발점이 카터 정부 시절이었으며, 그 대표적 출발점은 ‘대만관계법’과 ‘817 공보’가 그 원형을 드러냈다.

(3) 대만관계법(臺灣關係法)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대만은 대만관계법으로 표기하고, 베이징은 여대만관계법(與臺灣關係法) 표기)은 미국의 국내법이다. 미국은 대만에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단적인 예다. 단교는 대만에게 병이었고, 대만관계법은 약이었다. 대만관계법 4장에는 그 중점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대만과의 외교관계 혹은 외교승인이 부존재한다고 해서 대만의 대한 미국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미국 법률은 1979년 1월 1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적용한다고 강조한다.²⁴⁾ 대만관계법은 미국정부는 중화민국에 기타 주권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국가 간 형식으로 교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법의 형식으로 이를 제정하였다. 대만관계법의 목적은 이미 대만과 폐약을 했던 중미공동방위조약(Sino-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4월 10일 카터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이 법의 요지는 제2조에 있다. 이 법은 서태평양의 안전, 평화 및 안정을 돕는 데에 있다. 미국과 대만이 비관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다. 첫째 미국인과 대만인 간의 광범하고 밀접한 우호관계,

24) 臺灣關係法,第四條(A)項及(B)項, 美國在台協會, <http://www.ait.org.tw/zh/home.html>

상업, 문화 등의 각종관계를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서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이익에 부합된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평화로운 방식으로 양안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통일의 달성은 양안 간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²⁵⁾ 특히 이법은 만약 중공이 무력적 수단으로 대만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는 서태평양 지역과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대만에 미국재대협회(美國在台協會,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 실질적 대사관 역할 담당) 설치했다.²⁶⁾ 보다 주목할 점은 이 법의 제15조에 중미(대만과 미국)공동방어조약의 폐지를 대체한 점이다. ‘대만’은 대만 및 펑후열도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화민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진먼(金門), 우치우(烏坵), 마주(馬祖), 동인(東引), 동사(東沙), 남사군도(南沙群島)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주권 현상의 인정 및 미래 대만 귀속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단지 미국 정부의 대만정책을 규범 짓는 법률일 뿐이다. 그러나 베이징은 시종일관 이 법을내정간섭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4) 817공보

817 공보는 1982년 8월 17일 중·미 간에 서명한 공보(커뮤니케)다. 중·미 간 쟁의가 가장 많은 공보 중의 하나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중공은 미국이 이 공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줄기차게 비판한다. 그 중 대만군수에 대한 무기의 품질과 규정 외에 하나의 중국에 상관된 내용이 나타난다. 이 공보는 총 9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중국’과 관계된 내용은 1항, 3항, 4항, 5항 6항이다.

첫째, 1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가 1979년 1월 1일 발표한 외교 관계 수립의 연합공보 중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승인(recognize)하며 아울러 베이징의 입장, 즉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베이징의 입장을 인지(acknowledge)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쌍방은 장차 미국인민과 대만 인민이 계속해서 문화, 상업, 기타 비관방 관계를 보지하는데 동의하며 이러한 기초에서 중·미 양국관계는 정상화를 실현했다.

둘째, 3항은 주권과 영토 완정, 내정불간섭, 상호승인 등 중·미관계를 지도하는 근본 원칙이다. 이는 1972년 2월 28일 상하이 공보에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1979년 1월 1일 발효한 수교 공보에서 이러한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셋째, 4항은 베이징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임을 거듭 천명했다. 1979년 1월 1일 중공이 발표한 「고대만동포서(告臺灣同胞書)」에서 조국평화통일을 쟁취하는 대정방침(大政方針)을 선포했고, 1981년 9월 30일 중공이 제시한 9점 방침(九點方針)은 대만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진일보한 노력이다. 넷째, 5항은 미국 정부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아울러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할 뜻이 없고, ‘중국’에 대해 내정을 간섭할 뜻이 없음을 거듭 천명하며, 역시 ‘두 개의 중국’ 혹은 일중일대 정책을 추구할 뜻이 없음(had no intention of pursuing)을 거듭 천명했다. 다섯째, 가장 관건적이고 지금까지 중·미 간 격렬한 공방이 오가는 대만군수(軍售)에 관계된 6번째 항목이다. 즉 “중미 쌍방은 위의 성명들을 고려하여,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 줄이고 일련의 시간이 경과 된 후에 최후의 해결을 한다(逐步減少它對臺灣的武器出售, 並經過一段時間導致最後的解決)”는 입장이다.²⁷⁾ 물론 대만군수에 관해서 미국은 시간적으로

25) 臺灣關係法, 第二條.

26) 臺灣關係法, 第六條.

명확하게 언제까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것은 없다.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817 공보에서 미국은 대만문제에 관해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공의 입장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연유로 미국은 대만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6항 보증’을 구두로 장징궈에게 표시했다. 역시 병주고 약주고식의 이중정책이다. 트럼프 집권 1기에 대만보증법을 통해 이미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상시화 되었다.

(5) 레이건 시기 대만에 대한 6항 보증(Six Assurances)

레이건은 대만에 우호적인 대통령이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그가 임명한 국무장관 헤이그는 오히려 1982년의 817 공보를 주도했다. 물론 헤이그 역시 키신저의 충실한 문도였다. 817 공보는 베이징의 압력이 분명 존재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있어서 군사무기의 양과 질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줄여 나가며, 일단의 시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중미 양국의 공동된 성명이다. 이는 베이징에 대한 미국의 최대양보였고, 1979년 대만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필요한 양의 방어군사와 복무를 대만에 제공한다”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레이건은 헤이그의 월권을 견책하여 사임시키고, 동시에 AIT 소장 릴리(James Roderick Lilley)를 시켜 대만의 장징궈를 달래게 된다. 1982년 중·미는 세 번째 공보인 817공보에 협상했고, 동시에 대만을 달래기 위해서, 레이건 정부는 AIT를 통해 타이베이와 협상을 진행했다.²⁸⁾ 워싱턴과 베이징이 1982년 8월 17일에 817공보에 서명한 그 다음날인 8월 18일 타이베이의 중화민국 정부는 미국이 보증한 여섯 항목(六項保證, Six Assurances)의 내용을 대외에 공포했다.²⁹⁾ 레이건이 대만의 장징궈에게 해준 6항 보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종결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 둘째, 대만관계법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셋째,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결정하기 전에 베이징과 상의하지 않는다. 넷째, 대만과 중국대륙 간을 중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미국은 대만 주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대만의 주권에 대한 입장은 ‘중국어인’ 스스로가 평화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타이베이를 중공과의 협상에 나가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클린턴 정부 대만에 대한 발언: 삼불정책

클린턴 정부는 여전히 대만과 비정부관계라는 전제에서, 대만인들과의 상호교류에 편리한 약간의 조치를 취했고, 대만이 국가자격을 요구하지 않은 국제조직의 회원가입에 대해서는 지지하였다.

첫째, 1995년 8월 클린턴은 장쩌민에게 친서를 보내 삼불(三不) 승락을 하였다. 즉 대만독립 반대,

27) 「中華人民共和國和美利堅合眾國聯合公報」, 1982, 8.17.

28) 6항 보증은 AIT 데이비드 딘(David Dean)이 집필하고, 미국무원 대만사무과의 협조를 얻어 제임스 릴리가 7월 14일 장징궈에게 전달했다. 미국은 7월에 국회에 알리고, 제임스 릴리가 정식으로 대만에 통보했다.

29) 1. The United States would not set a date for termination of arms sales to Taiwan 2. The United States would not alter the terms of the Taiwan Relations Act. 3. The United States would not consult with China in advance before making decisions about U.S. arms sales to Taiwan. 4. The United States would not mediate between Taiwan and China. 5. The United States would not alter its position about the sovereignty of Taiwan which was, that the question was one to be decided peacefully by the Chinese themselves, and would not pressure Taiwan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China. 6. The United States would not formally recognize Chinese sovereignty over Taiwan. <https://www.taiwandocuments.org>

두 개의 중국 혹은 일중일대 불지지, 대만이 국가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국제조직가입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중공에 승락을 해준 것이다. 또 이 승락은 클린턴의 방중이 있었던 1998년 6월 상하이에서 공개적으로 구두로 천명했다. ‘삼불’은 리덩후이의 방미로 인해 양안 간 위기를 겪고 나서, 중공이 강렬하게 미국에 항의한 결과 비로소 미국으로부터의 승락을 받아냈던 것이다.

둘째,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1996년 5월 미 국무장관 크리스토퍼(Warren Minor Christopher)의 연설에서 표명한 것으로,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의 전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타이베이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1996년 대만 총통선거 기간, 중공은 동남해 및 대만해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런 연유로 미국은 베이징에 적당한 경고를 준 것이었다. 즉 평화적 해결로 대만문제를 처리하자 않는다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소위 말하는 대중국 정책의 세 기둥이다. 1999년 7월 클린턴이 발표한 것으로, 즉 하나의 중국 정책, 양안대화, 대만문제 평화해결이다. 이 세 기둥은 리덩후이가 1999년 발표한 특수양국론 이후 양안이 갈등을 경험한 후 나온 것이다.

넷째, 클린턴은 2000년 2월 24일 주도적으로 중공의 「대만백서」에 대한 이견을 피력했다. 중공이 무력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만인의 동의(臺灣人民贊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섯째, 부시 대통령은 2002년 동아시아 방문과정에서 미국은 대만 인민에게 한 승락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이 후 미국은 이른바 대만인들의 찬성과 양안이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대만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대만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반드시 2천 3백만 대만인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민주원칙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2) 트럼프 시대의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여행법과 타이베이법, 대만보증법 등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거래의 대상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 이중적이고 혼란한 상태에 있다. 첫째, 2025년 2월 미 국무부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³⁰⁾ 대신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둘째, 2025년 3월 14일 캐나다에서 거행된 G7 외교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중국(One China)’ 표현을 삭제하고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³¹⁾ 셋째, 2025년 3월 미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 비밀문서가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국가안보팀에서 유출된 이 문서는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프로젝트 2025와 겹쳐 있다. 즉 대만침공억제, 본토방어 강화, 동맹국의 방위 부담 증가는 국방부의 3대 핵심과제

30) “트럼프, 대만 지지 공식화?...미국무부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 『중앙일보』, 2025.02.16., <https://www.joonggang.co.kr/article/25314341>

31) “트럼프는 동맹 때리고 질서 깨는, 돈만 밝히는 대통령인가?”, 『조선일보』, 2025.03.2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29/IMD4SLSY2NDCXHZUPB4LD4QPYI/

와 중복된다. 다시 말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본토방어, 동맹 재조정과 공정한 분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견제 강화로 요약된다. 즉,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유일한 위협이며, 미 본토 방어 및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이란 위협은 유럽과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의 몫이며, 북한 위협은 한국과 일본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략지침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본토의 대만 침공을 ‘유일하게 최우선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배치를 집중해 중국의 위협과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전략적 위협은 유럽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³²⁾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곳을 책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동맹국은 자국 방위에 책임을 지기를 강요한다. 그러므로 EU는 러시아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은 이란을 감수하며, 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직접 개입 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줄이고 그래야만 중국 견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역(逆) 닉슨 정책과 닮아 있다. 넷째, 트럼프는 과거 대만을 싸인펜 끝의 한 점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충분히 거래할 가능성도 내 비추었다. 다섯째, 엘브리지 콜비는 미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만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고, “대만을 잃으면 미국의 이익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대만의 안보는 미국의 실존적(existential) 생존적 이해관계는 아니다.³³⁾ 톰 코튼 상원 의원은 그가 과거에 미국이 대만에 명확한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입장에서 후퇴했다고 질문했으나, 콜비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균형의 심각한 악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의 핵심 이익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패권을 쥐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³⁴⁾ 다음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 ‘하나의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통과된 법률이다.

(1) 6항 보증(six assurances)의 공개화와 문서화

이 보증은 본래 레이건이 장징궈에게 구두로 해준 것이다. 하지만 2016년 7월 18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당강을 통과시켰는데, 이 공화당의 당강에 6항보증을 삽입한 것이다. 당강에는 대만은 미국의 충실한 벗이며, 대만이 각항의 자유무역협정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견고히 지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디젤 잠수함 기술 등을 비롯하여 방어성 무기를 판매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항조약기구(ICAO)등 다자국제조직에서의 대만 참여를 지지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2017년 7월 미국의 상하 양원은 「88호 공동 결의안」과 「38호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켜 서면형식으로 6항 보증을 서술했다. 이 결의안에서 6항 보증과 대만관계법은 모두 미국과 대만관계의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6항 보증은 공식적·공개적으로 문서화되었다. 더는 구두 약속이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결의안은 미국 국회의 입장을 나타낸 것일뿐이며, 대통령의 서명을 요하지도 않는다. 물론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

32) 蘇泳霖, “美國台海政策的「脆斷時刻」”, 『中時新聞網』, 2025.03.31., <https://www.chinatimes.com/opinion/20250331003958-262104?chdtv>

33) 李正修, “柯伯吉戳破民進黨謊言”, 『中時新聞網』, 2025.03.15., <https://www.chinatimes.com/opinion/20250331003958-262104?chdtv>

34) 李正修, “柯伯吉戳破民進黨謊言”, 『中時新聞網』, 2025.03.15., <https://www.chinatimes.com/opinion/20250331003958-262104?chdtv>

(2) 대만여행법

트럼프 집권 1기, 취임전에 차이잉원에게 통화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16일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이는 대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미국의 두 번째 국내법이다. 지금까지 중국, 미국, 대만 삼자 간의 법률적 프레임은 삼보일법이었다. 삼보일법의 프레임은 근 40년간을 유지해온 베이징, 워싱턴, 타이베이 간의 정치적 기초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대만여행법은 탈냉전 후 미국이 제정한 첫 번째 대만에 관계된 법률이며, 더욱이 시진핑이 두 번째 임기 국가주석으로 당선된 날 이 법에 서명했다. 시간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목적을 지닌 정치적인 행동이었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 정부와 국회, 여론에서 미국의 공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만여행법이 통과됨으로써 미국과 대만 간 교류의 문턱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없어 졌다. 다시 말해 미국이 기존에 엄격하게 금지해오던 대만 고위관료의 워싱턴 방문은 이제 이 법률로 인해서 유명무실해졌다. 기존의 대만의 국방장관, 외교장관, 부총통, 총통의 미국 방문은 중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대만정부의 고위 관료의 워싱턴 방문을 자제시켜 왔다. 가령 1995-6년 양안 위기를 가져 온 리덩후이의 코넬대학 방문은 순수한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이제 대만여행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만약 대만의 최고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형식상의 제한들은 없어졌다. 낸시 펠로시 물론 베이징은 대만여행법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배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미 간에 이미 있었던 하나의 중국에 관한 합의를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가령 2022년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군사 대화 및 협력 채널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인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제4차 대만 해협 위기'로 평가하기도 했다.³⁵⁾

(3) 타이베이법

「타이베이법(TAIPEI Act)」은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으로, 2020년 3월 20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미국이 대만의 실질적인 외교 관계 증진을 지원하고, 대만의 국제적 지위 확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이 대만 총통으로 취임한 이후,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 7개 국가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이러한 외교적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리며, 미국과 대만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5) https://www.csis.org/analysis/speaker-pelosis-taiwan-visit-implications-indo-pacific?utm_source=chatgpt.com.

<표4> 2015년 이후 대만과 단교한 국가들

	내 용	비 고
단교 조치	상투메프린스페(2016.12), 파나마(2017.6), 도미니카(2018.5), 부루키나파소(2018.5), 엘살바도르(2018.8), 솔로몬 제도(2019.9), 키리바시(2019.9.20.), 니카라과(Nicaragua, 2021), 온두라스(Honduras, 2023), 나우루(Nauru, 2024)	나우루는 라이칭더 취임 2일 뒤 단교
단교 협박	팔라우(관광객 중단), 경제적 유인책 제공	
국제기구 배제	국제형사조직, 세계위생조직, 국제민항조직(ICAO)	옵저버 자격 취소
국제대회 취소	2019 동아시아청소년 경기대회(East Asian Youth Games).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대만에 규정 준수 요구	2020년 대만명의로 동경올림픽 참가 국민투표 서명 이유
기업체 압력	무인양품(無印良品 - Muji, 일본), 메리어트 호텔(미국), 85°C(대만), 44개 국제 항공사 등	대만을 국가지구로 표기 금지
연예인 탄압	송원화(宋芸桦) 사건, 쑤위(周子瑜)사건	대만을 국가로 발언하거나 대만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

* 2024년1월 총 12개국

유럽 - 바티칸 (1개국), 오세아니아 - 투발루, 마셜 제도 팔라우 (3개국)

카리브 제도 -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4개국)

중남아메리카 - 벨리즈, 과테말라 (2개국), 남아메리카 - 파라과이 (1개국) 아프리카 - 에스와티니 (1개국)

이 법률은 국가의 주권적 지위가 요구되지 않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회원 자격을 지지하고, 그 외 적절한 국제기구에서는 대만이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이를 옹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대만보증법

2020년 미국 의회는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20)」을 포함한 법안을 일괄 처리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일상화, 대만의 국제기구 의미 있는 참여 지지, 대만의 자위 능력 향상 지원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³⁶⁾ 「대만보증법」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기반으로 미·대만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만의 안보와 민주주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이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일상화를 촉구하며, 대만의 자위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대만관계법 및 6항 보증을 현재와 미래 대만 관계의 주춧돌로 삼는다고 밝히고 이를 법률화한 점이다. 2018년 효력이 발생한 대만여행법에 의거하여, 미국과 대만의 고위층급 관료의 상호방문 및 그 상대창구의 회담을 장려하고 있다. 대만은 미국의 자유개방 인태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밝히며, 대만에 대한 군수(軍售) 창타이화(常態化)하고, 대만의 비대칭 전력의 협조

36) “美國會通過「台灣保證法」”, 『自由時報』, 2020.12.23., <https://news.ltn.com.tw/news/politics/paper/1420707>

를 강화한다는 점이다.³⁷⁾

3) 라이칭더 집권기 대중국 정책

<표5> 92공식(1992 consensus)에 대한 각 당의 인정 여부

정당	인정여부	근거	비고
민진당	불인정	협정 문건 자체 비존재 당사자의 서명 無 문건은 전신과 편지뿐이다 「92공식」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중각표(一個中國, 各自表述)로 내용도 존재하지 않음	각자가 하나의 중국을 말하면 결국 ‘공식’ 없 는 공식’이다.
국민당	인정	편지도 환문(換文)의 일종이며, 국제사회에서 일상 적으로 통용 일중각표(一中各表), 각자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 술한다. 각자가 표기하면, 곧 하나의 중국은 중화 민국을 의미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각치쟁의의 내용이다.
공산당	인정	일중불표, “一中不表” 공산당은 쌍방의 교류는 사무 성이며, 정치협상이 아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 표술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중국은 정치적 함의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일중불표다.	2005년 이후 인정 후진타오 - 렌잔 성명
민중당	모호함	상황에 따라 인정과 불인정을 오감.	
녹색 진영 정당	불인정	민진당, 건국당, 시대 역량, 대만단결연맹 등	
남색 진영 정당	인정	친민당, 신당 각각 공산당과 연합성명	후진타오 - 송추위 성명 후진타오 - 위무밍 성명

2016년 대만독립(타이두)을 당강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교착에 빠졌고, 기존에 중국과 이어져 오던 모든 협상 채널은 중단되었다. 중국 내부에서 무력통일의 소리도 나오는가 하면, 인민해방군의 함정과 전투기가 대만 섬을 환도하고, 빈번한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취임 이후, 기존의 일중정책과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집권 1기 취임 전 차이잉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미국의 국회에서 대만을 지지하는 각종 법률이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여론까지 모두 대만과의 관계 강화가 일치된 목소리다.

차이잉원 정부는 8년 동안 ‘현상 유지’ 정책을 유지하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지지를 받더라도 성급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로운 양안 담론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베이징은 차이잉원을 리덩후이의 ‘양국론’ 실천자로 간주했다. 차이잉원에 이어, 2024년 1월 13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었다. 라이칭더는 대만에서의 8년 정당교체 주기설을 깨고, 이로써

37) 2019.04.02 미국 하원의원 앵겔(Eliot Engel)을 비롯하여 기타 초당파 하원의원들은 4월 1일 두 개의 대만우대법안을 제출했다. 미국 여러 상원의원 카튼(Tom Cotton), 메넨데스(Robert Menendez), 루비오(Marco Rubio)등, 과거 대만보증법 초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 법은 대만과 미국의 쌍방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지하기 위해서, 상원의원이외에도 하원에서도 당파를 초월하여 당지 시간 1일 하원판의 대만보증법 초안을 제출했다. 미하원 초당파 의원 모임 두 개의 대만관련 법안 제출 1일 민주당 앵겔(Eliot Engel), 셔먼(Brad Sherman), 공화당 맥카울(Michael McCaul), 요호(Ted Yoho)등. 이 법률안은 2020년 모두 통과됨

민진당은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되었다. 라이칭더는 ‘타이두’ 세력의 적통이며, 자신을 ‘실용적인 타이두 종사자(務實的臺獨工作者)’로 규정했고 친미·친일 성향의 정치인이다. 그 결과 베이징은 라이칭더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라이칭더의 대중 노선은 차이잉원 2.0판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기존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92년 양안 간 ‘하나의 중국’에 관한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진당이 ‘92공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92공식’을 인정하면 대만 독립의 이유는 사라지고 만다. 다시 말해, ‘92공식’의 인정은 대륙과 대만이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양안 간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타이두를 당강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진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설령 인정하고 싶어도 민진당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92공식’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2025년 3월, 라이칭더는 중국을 ‘경외(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 현 라이칭더 정부는 중국의 총공세에 직면해 있으며, 그는 ‘적대 세력’의 단점이 이미 대만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다고 인식했다. 둘째, 트럼프 2.0 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거듭 강조했듯이, “중국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도전이며, 냉전 시기보다 더 위협적이다”라는 인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³⁸⁾ 라이칭더 정부는 차이잉원 정부에 비해 더 친미 일변도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25년 4월 1일 대만 대륙위원회는 무력통일(武統)을 지지했다며 대만인 남편을 둔 중국인 인플루언서 자오찬(趙嬋)을 추방했다. 앞서 대만 남성과 결혼한 중국인 여성 류전야(劉振亞)와 장옌(張燕)이 쫓겨났다. “중국은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발표한 17가지 이적 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이다.³⁹⁾ 게다가 라이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TSMC의 미국 공장 설립, 국방 예산을 미국의 요구대로 늘리겠다고 재차 강조한다.

이러한 라이칭더의 조치에 반발해 중국과 국민당을 비롯한 남색진영은 이에 반발하고 비판하였다. 즉, 민진당은 언제나 “중국에는 강경하고, 미국에는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협상을 통해 피해를 줄이려는 최소한의 통로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에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TSMC 공장을 직접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 TSMC의 공장을 중국 손에 떨어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⁴⁰⁾ 이에 대해 민진당은 일언반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과거 미국산 쇠고기·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 TSMC 반도체 수출 등 모든 협상 카드들을 아낌없이 미국에 헌납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은 여전히 중국에서 돈을 벌고, 미국엔 ‘보호비’를 지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⁴¹⁾ 급기야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조치에 빗대, 라이칭더는 윤석열(헌법 파괴)과 젤렌스키(나치화로 사회 분열)의 결합체라고 비판했다.⁴²⁾

38) “境内外敵對勢力”, 『自由時報』, 2025.03.20., <https://talk.ltn.com.tw/article/paper/1697455>

39) “[신경전의 민감(敏感) 중국어] 무력통일”, 『중앙선데이』, 2025.04.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275>

40) “백악관 前 안보보좌관 “中 대만 침공시, 美가 TSMC 공장 파괴할수도””, 『아시아경제』, 2023.03.14.,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1409285839616>

41) 何溢誠, 美必軟, “境内外敵對勢力”, 『自由時報』, 2025.04.04., <https://talk.ltn.com.tw/article/paper/1697455>

42) 黃年, “大屋頂下／尹錫悅澤倫斯基合體 賴清德說清楚是否台獨”, 『聯合報』, 2025.03.30., https://udn.com/news/story/7339/8641100?from=udn-catelistnews_ch2

4.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미 간의 마지노선

1)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전략적 모호성

만약 대만이 주권국가가 아니라면 대만의 국제적 지위는 무엇인가? 만약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면, 미국은 대만관계법 및 대만에 대한 무기를 제공할 근거가 약해진다. 다시 말해 미국은 오랫동안 최소한 대만은 사실상(de facto) 주권독립국임을 묵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이 이른바 법률상(de jure)의 독립으로 나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대만해협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정책’은 ‘현재에 있지 않은’ 정책이다. 표면적으로는 양안은 미래에 ‘평화적 해결’해야 된다는 데에 영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만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양안의 통일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할 수록 그 장애도 클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⁴³⁾ 그래서 미국은 불통, 부독, 불전(不統, 不獨, 不戰)의 안정적인 상태 즉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한다. 이 상태가 곧 미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통해 이익을 획득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공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양안 관계에서 줄곧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戰略模糊)란, 양안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가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의미한다. 중공 역시 만약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출병 할 것인가지에 여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국의 마지노선을 시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끊임없이 이중억제(double deterrence)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타이베이에 대해서는 타이두(대만독립)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경고하고, 베이징에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경고한다. 미국은 중공의 대만에 대한 불무(不武)와 대만에 대한 부독(不獨) 정책이다.⁴⁴⁾

2) 대만문제와 중·미 간 전략적 이해관계

미국은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대만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성 무기를 공급해야하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타이두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양안 간에 실시한 평형정책은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 저울의 추가 과도하게 타이베이로 기울거나 아니면 베이징으로 기울시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미국은 때로는 양안 간에 대화의 촉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 시기 오바마부터 트럼프까지 미국의 양안정책은 타이베이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지금까지 미국이 공표한 정책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맥락을 지니고 있다. 삼보에서 미국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일부분임을 승인하지는 않았다. 대만은 ‘중국 China’의 일부분임을 인지(acknowledge, 베이징은 이를 承認으로 번역함)하고, 베이징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평화적 해결’ ‘양안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⁴⁵⁾ 등이 고작이다. 즉 미국의 일중 정책은 베이징과 타이베이에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식의 이중적인 정책이다. 특히 중공의 대만침공에 대한 미국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애매모함(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있

43) 「不統不獨, 不戰不和, 以獨制中」, 『海峽評論』, 186期, 2006.6月號의社論.

44) 羅致政·宋允文, 「美國的一中政策」, 『解構「一個中國」: 國際脈絡下的政策解析』, 台灣智庫, 2007.

45) 현재 대만의 주류 민의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칫 타이두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침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언제 ‘하나의 중국’을 전면적으로 부정할까? 하나의 중국의 부정은 곧 중국과의 단교며, 닉슨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역시 중미관계의 최저선인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파기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중국 역시 자신이 손에 쥔 모든 카드를 내 보일 것이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대만에 대한 전략은 모순적이다. 이 모순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와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강대한 영향력이 증가되면 아시아 및 세계정치와 군사역량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과거 교류와 억제라는 이중 책략을 사용했다. 이제 미래 중국발전의 방향과 절주(節奏)를 통제하고자하는 억제로 전환되었다. 비록 중국의 발전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전략체제로 편입시키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묶어 둘 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런 연유로 기실 미국이 과거부터 진행해 온 대중정책을 어떻게 형용하던지 간에 본질적으로는 억제가 핵심이다. 이른바 미국의 관여(engagement) 혹은 봉쇄(containment), 관여와 봉쇄를 결합한 위합(congagement)정책은 그 본질상 중국 대륙을 억제하는 것일 뿐이다. 단지 중국대륙에 대한 유연한 봉쇄(soft containment)와 강경한 봉쇄(hard containment)의 차이일 뿐이다.⁴⁶⁾

3) 트럼프 이후 대만의 전략적 가치 상승과 중·미 대립 심화

1972년 중·미 관계가 개선되고 난 후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대륙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만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잃어버린다면 미국은 서태평양상의 전략적 배치에 빈틈을 노출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주변국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면 장차 이 지역 시장에 대한 영향력, 남사군도와 대만을 잇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도 잃게 되며, 중국대륙의 굴기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연유로 대만문제는 중·미 간의 가장 민감하면서 핵심적인 그레이트 게임이 되었다. 그 결과 미국요소는 대만문제에서 가장 관건적인 중요한 국제적 요인이 되며 양안관계의 가장 핵심적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만 문제를 중·미관계의 프레임에서 하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학자들 간에 합의된 일반적인 견해다. 사실 대만은 중·미관계에 종속되었고 여태껏 주도적 지위를 지니지도 못했다. 이제껏 미국은 대만을 줄곧 중국대륙을 대항하는 바둑돌이나 한 장의 카드로 여겼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대만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졌다. 비록 타이두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중공의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경고하면서 점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서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경선 강령에서 관례처럼 해오던 일중정책과 중미 간 삼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만관계법 뿐만 아니라 6항 보증은 언급했고, 2018년 대만여행법, 2020년 타이베이법, 대만보증법을 통과시켰다. 라이칭더 역시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대미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대만과 미국의 군사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이미 라이칭더 정부는 대만의 군사예산을 대폭 증폭하고 미국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중·미 간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46) 林文程·林正義, 「美國與中國在亞太地區的衝突與合作」, 未發刊原稿.

서, 즉 중·미 간의 종속변수로서 대만과 미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대만 군수의 일상화, 대만에 대한 각종 우대 법률이나, 인·태전략에 대만을 참여시키려는 시도, 솔로몬 군도에서의 대만군과 미군 간의 합동 군사훈련 등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이 조정되고 베이징에 충격을 가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 미국은 베이징이 설정해 놓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중·미 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대만과 미국 관계의 승온(升溫)은 대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 외에도 외교와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대만해협에 불안정한 요소와 불확정한 요소를 증가시켰만,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저선(底線, bottom line)’을 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이후 미국의 대 대만정책은 삼법과 6항 보증에 기초를 두고 있고, 기존의 1법(대만관계법)에서 두 법이 더 추가되었다. 간단히 말해, 현 단계에서 미국은 양국이 공동으로 성명한 삼보와 일중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 대만을 이용하여 베이징을 억제하는 기량은 더해지고 있다. 이로써 대만해협의 장기적 분리 상태를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의 세가지는 미국의 대 대만 정책 전략 주요한 방향이다.

첫째, 현상유지 정책이다. 미국 국회와 펜타곤의 일치된 지지 속에서 트럼프는 거리낌 없이 중·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 남중국해 등의 문제에서 중국에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 내밀 수 있는 유효한 전략적 방안은 대만카드를 더욱 활용할 것이다.⁴⁷⁾ 양안 통일은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타이두는 미국의 단기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만해협 정책의 기본 입장은 현상유지다. 즉 불통, 부독, 불무(不統不獨不武, 통일도 독립도 무력사용도 안된다)의 입장이다. 이 기본입장에서 미국의 양안정책은 국제정세, 특히 중미 관계에 따라 불통, 부독, 불무 어디에 더 치중하는지 그 주안점(主眼點)이 정해진다. 2010년 이후 중국대륙의 종합국력의 증대에 따라, 미국은 중국대륙의 발전 추세를 막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10년은 양안 통일을 막고, 중국대륙의 굴기를 막기 위한 최후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향후 10년은 미국이 대만문제를 이용해서 중국대륙을 견제는, 필연적이고 보다 더 강렬해질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만카드 활용의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은 대만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구미에 맞게 카드를 치고 싶은 대로 패를 빼내 들었다. 대만카드를 통해 베이징을 양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 원인은 중공의 대만해협 정세 장악 능력도 과거에 비해 증강했고, 중공의 반타이두 능력도 이미 과거와 다를 뿐 아니라, 국제조직에서도 그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어, 대부분 국가들이 일중원칙을 인정함에 따라 베이징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또 다른 변화는 대만의 쇠퇴다. 최근 대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카드를 사용하는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효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셋째, 미국은 대만이라는 바둑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향후 대만에 더 깊게 관여할 것이다. 과거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국민당, 민진당의 핵심주장을 명확하게 이해하였으며, 이들 양당의 정치 엘리트들도 확실히 파악했다. 가령 대만 선거 시즌이 도래하면, 미국은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대만 민중의 양당 정치에 관한 불만 정서가 늘어났고, 전통적인 정치 엘리

47) 上海市公共關係研究院院長、研究員陳士良(中評社 海涵攝), 上海市公共關係研究院院長、研究員陳士良指出.

트들에 대해서도 점점 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은 대만에 대해 시종일관 지지와 제한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라이칭더 정부는 「92공식」을 불인정하므로 양안 관계가 교착에 빠졌는데도, 대만에 대해서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포상(褒獎)하고 동시에 최대한도로 대만카드를 이용하면서, 베이징과 거래하기 위한 칩으로 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만지지의 표현은 주로, 대만과의 군사 안보 협력, 미국과 대만의 정치관계 정상화 시도, 양안 수교국 쟁탈전에서 대만 지지, 한편으로 대만을 지지하지만, 중공의 마지노선을 대만이 넘지 말도록 대만에 대해서 압력 행사, 중공이 대만에 대한 강경한 반제조치를 취할 모험적인 거동을 하지 않도록 대만에 압력 등 미국은 브레이크 작용을 한다. 즉 대만을 어느 정도는 구속한다.

지난 20년 간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개의 요소에서 제한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첫째, 중국대륙의 굴기다. 대만의 미래에 관해서 베이징은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대만의 민주화다. 이 민주화는 대만인 스스로 대만을 다스린다는 당가작주(當家作主)를 의미한다. 자신이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 미국이 대만에 대해 예기치 못했던 요소를 만들어 낸다. 곧 대만정체성의 제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민주화를 통한 대만주체성이 제고되면서 대만인들은 중국인과 분리되는 대만인 정체성을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 대만의 주류 민의가 되었다. 중국인으로서 보다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로 인해 대만문제는 보다 더 복잡해졌다. 서로 상승작용을 거쳐 미국의 양안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즉 중국대륙의 굴기는 미국의 대중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중공의 대만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입지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만인의 자주적 결정은 탈냉전시대에 민주와 민족자결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중공의 대만에 대한 자의적 통일을 저지할 수 있게 만드는 국제적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만문제가 단순히 중·미 양국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만독립이 그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베이징이 설정한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중·미 관계 설정의 3원칙이 곧 중·미수교의 전제조건이다. 즉 대만과의 단교, 폐약, 철군이다. 만약 미국이 이 원칙을 어기고 대만과의 국교수교나 대만에 미군 전투기 혹은 미군 함정이 정박하거나, 아니면 대만에 미군이 주둔할 때 이는 중공이 설정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므로 베이징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이 주권 영토를 수호하는 의지와 능력에 대해 미국 역시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령 미국 국방부는 2019년 5월에 「중국군력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미국은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무력 동원의 7대 조건을 발표했다. 첫째, 대만독립 선포, 둘째,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일 때, 셋째, 대만 내란 발생, 넷째,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할 때, 다섯째, 양안 통일의 대화를 무기한 연기될 때, 여섯째, 외국세력이 대만의 내정에 간섭할 때, 일곱째, 외국 군대가 대만에 주둔할 때이다.⁴⁸⁾ 그러므로 만약 미국이 중미 수교의 삼대 원칙(단교, 철군, 폐약)을 명확하게 위배한다면 이는 베이징으로서 어쩔수 없는 선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20세기에 발흥한 중국민족주의가 리홍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중국 지도층에 의해서 21세기에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식 현대화’를 제창한 시진핑의 일인체제 하에서 중국몽이 위협을 받게

48) 미국방부, 「2019년 중국군력보고」

되는 것은 곧 시진핑 체제와 공산당영도 체제의 몰락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대만합병을 통한 중국굴기의 완성이 무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5. 결론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갈등은 단지 중미 간의 국제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중화권 내부에서의 정체성과 이념, 권력 구조의 재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홍콩, 마카오, 대만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중화 문명권이라는 공통의 문화적 기반 위에 존재하고 있다. 홍콩은 영국 식민통치와 ‘일국양제(一國兩制)’ 실험의 실패로 인해 현재 강력한 국가 통제를 받는 체제로 이행되었고, 마카오는 비교적 안정된 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중국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독특한 정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중화권 내부의 이질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대만 내부에는 통일을 위한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원심력은 민진당이 주도하는 ‘탈중국화’ 정책에서 비롯되며, 양안은 같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만은 중국과의 역사적·문화적 연속성을 단절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과서 개정, 사상 교육, 언론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만 내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양안 간 심리적 거리마저 더욱 벌어지게 만든다. 반면, 구심력은 대륙과의 경제적 통합에서 비롯된다. 수많은 대만 기업이 여전히 대륙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은 문화·언어·민족적 동질성 역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요소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심력은 정치적으로 의식되지 않거나, ‘통일론’이라는 낙인 속에 억눌리고 있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구심력과 원심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다. 대만 내부에서도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는 세력과 배격하는 세력이 공존하며, 중화권 전체의 통합 또는 분열 가능성은 이러한 내부 균열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중국’ 담론의 해체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관해서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담론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토적 통합성과 정통성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21세기 글로벌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흐름 속에서 점차 도전받고 있다. ‘하나의 중국’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 의해 정의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천적이고 철학적인 사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담론은 향후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첫째, 중국의 강력한 국력과 권위주의적 통제에 기반하여 기존 담론 즉 ‘하나의 중국원칙’이 더욱 공고화되는 길이다. 둘째,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대만이나 홍콩 등 주변 지역의 저항과 독자적 정체성 강화로 인해 담론 자체가 균열되고 약화되는 경로이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강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중화권 전체가 다원적 정체성과 공존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중화 연대’ 또는 ‘문명 공동체’ 담론으로 재구성되는 길이다. 이 중 어떤 길이 선택될지는 단지 중국의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그것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힘의 역학, 그

49) 王睿, “龙应台的潜台词: “台独”的时间不多了”, 『观察者网』, 2025.04.17., https://www.guancha.cn/wangrui/2025_04_17_772519_s.shtml

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세계사적 사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기에 ‘하나의 중국’ 문제가 우려되는 점은 지난 75년 동안 진화를 거친 ‘대만 문제’가 더는 양안 간의 상대적 실력 문제도, 정치 체제의 우열 문제도, 양안 간의 동근동문동종(同根同文同種)의 문화적 유대 문제도 아니다. 이제는 미국과 서구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지렛대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문제가 변모했다. 즉 대만 문제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의 주된 내용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다”는 쪽, 즉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동화(空同化)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대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문재인 시기에는 관례적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중국에 반대하는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등이 국가 간 공동성명에 들어갔고, 점차 대만 해협 문제와 우리의 안보가 긴밀히 엮이고 있다. 역사에서 보듯이, 조선에서 발생한 청·일 전쟁과 대만의 일본 할양,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미7 함대의 대만 해협 개입과 이로 인한 장제스의 기사회생 등 모두 그 시발점은 한반도였다. 단순히 대만 해협과 한반도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만 해협의 긴장과 한반도의 안보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비단 대만 문제는 대만 내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대만의 정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사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만 정책을 가만히 보면 거의 ‘전략적 인내’에 가깝다. 중국이 전략적 인내심을 단번에 포기하고 곧바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엔 현 단계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자칫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고, 초가삼간도 모자라 전 세계를 태울 수 있다. 왜냐하면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은 중국,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기타 주요 강국 모두 전쟁에 개입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과 일본도 대만 해협의 파고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은 이미 대만유사는 일본유사며 일본유사는 미일동맹유사라고 선언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베트남전 이라크전쟁에는 직접적으로, 아프간 전쟁에는 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설령 우리가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 전쟁에 개입을 꺼리더라도 주한미군의 개입 여부는 눈에 보듯 선하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침략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즉 중국이 그어 놓은 마지노선을 대만과 미국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특별분과 I】 발표

미국 기후변화 대응과 중국의 EV 산업

김 현 진*

【목 차】

1.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핵심 산업 변화
2. 美 기후변화 대응 및 EV 관련 정책
3. 중국 對미국 EV 산업 대응
 - 1) 중국 對멕시코를 통한 EV 시장 우회 수출
 - 2) 중국 對아세안 EV 수출시장 다변화
 - 3) 중국 對EU EV 관련 전(全)산업 생산라인 결합 및 공급망 구축
4. 결론

【 초 록 】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 기후위기 문제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채택되었다. 이에 각 국은 2050~2060년 탄소중립 기간 설정과 NDC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로운송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EV 전환 지원금으로 총 155억 달러 규모 지원 패키지 발표와 2030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 50%의 EV 전환 목표 등을 제시하며 EV 전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EV 의무화 정책 폐지 및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등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변화와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중국 EV 및 EV 배터리 산업의 對미국 대응을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은 對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로 미국 진출을 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중국의 멕시코 우회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의 對아세안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이다. 미국 시장진출의 어려움으로 중국은 아세안 국가 중 EV 보급에 적극적인 아세안 국가를 공략하여 對아세안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아세안 對중국 EV 완성차 수입이 2024년 10.8%를 기록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중국 對EU EV 관련 전 산업 생산라인 결합 및 공급망 구축이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강국인 對EU O FDI를 통해 EV 및 EV 배터리 기업 생산라인 구축을 시작하였다. 특히 동·서부유럽의 지리적 이점

* 제1저자.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furml@daum.net)

을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중국 EV 및 EV 배터리 기업의 생산라인 결합과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EV 산업 주도권 확보가 목표인 중국은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으로 EU의 EV 시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기후변화대응, 전기자동차(EV), 전기차 배터리,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중국, 유럽연합

1.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핵심 산업 변화

글로벌 기후위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이었다. 그러나 선진국만 대상이라는 문제제기와 미국의 탈퇴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2015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다소 적었기에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로 기후변화 문제는 더욱 주목받지 못하였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탈퇴하였던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재가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다. 이에 각 국은 2050~2060년 탄소중립 기간을 설정하면서, NDC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온실가스 주범인 도로운송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전환 지원금으로 총 155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2030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 50%의 EV 전환 목표와 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 등을 통해 EV 산업이 부상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대응으로 인해 신에너지자동차인 EV로의 전환 시기가 구체화 되면서 EV의 부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주요 국가는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정책과 EV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전환에 맞춰 발빠른 대응을 하였다.

특히 세계 시장점유율 80%를 기록하던 한·중·일 EV 배터리 산업은 세계 자동차 강국인 미국과 EU 등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글로벌 EV 기업과의 협력 시도, 해외 진출 및 기술력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이에 EV 배터리 산업 글로벌 시장점유율 1, 2위를 유지한 한국과 중국의 핵심 산업에 EV 및 EV 배터리 산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EV의 Up-Stream, Mid-Stream, Down-Stream 등 전(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비롯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기존 한국의 EV 관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EV 관련 산업이 추월하면서 중국 EV 관련 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변화와 미국 EV 시장진출을 고려하였던 중국의 對미국 EV 산업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2. 美 기후변화 대응 및 EV 관련 정책

미국과 EU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주요 국가들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COP26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기후변화대응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우기에 돌입하였다. EV 의무화 폐지 및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완화 등 다소 탄소중립과 멀어지는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의 기후변화 대응과 EV 관련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취임 후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화석연료의 미국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최소화로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곧바로 파리협정 재가입 성명을 제출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및 기후변화대응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운송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의 발표로 EV 산업이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 EV 산업의 부상으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과 해외우려국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¹⁾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후, 미국 對중국 EV에 25% 관세 부과 및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對중국의 EV 산업 제재가 심화되었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파리협정과 UN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며 기후변화정책 폐지와 친환경 정책 철회 의지를 표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그린뉴딜 종식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신종 녹색 사기(Green new scam)라며 비난한 IRA 법안의 폐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미국 내 총 362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공화당 프로젝트는 224개, 투자 규모 1,096억 달러, 83,115명 일자리 창출, 민주당 프로젝트는 118개, 투자 규모 195억 달러, 28,834명의 일자리 창출²⁾로 IRA 법안을 통한 공화당의 일자리 창출이 민주당 대비 약 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IRA 법안 폐지는 공화당 지역구 의원 반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법안 폐지보다는 수정 또는 명칭 변경 등 IRA 조항이 큰 폭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RA Section 30D³⁾의 EV 보조금 및 세액공제 우대 조치 철회와 각 기관 자금 지출 중단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EV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며 내연기관차량 판매 제한 가능한 주(州) 정부의 권한을 폐기하는 등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중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차가 아닌 모든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통해 해외 기업들까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 우려국(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2) 권도현, 「트럼프 행정부의 IRA 관련 정책 전망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 브리프, 2025.01.28.

3) IRA 제13401조에 의해 개정된 美 내국세법으로 IRA 제13401조 조건 충족 시, 총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표1> 미국 기후변화 대응 및 EV 관련 산업 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바이든 행정부(2021~2025)	트럼프 2기 행정부(2025~2029)
美 파리협정 탈퇴	美 파리협정 재가입	美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자립 추진	기후변화대응 우선 과제 설정	UN 기후변화협약 탈퇴
정청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폐기(발전소 탄소배출량 제한 정책)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차량 및 가전가구 에너지 효율 기준 완화
화석연료 美생산 및 수출 확대	청정에너지 전환	美 IRA 조항 변경 및 EV 관련 법안 변경
기후변화 대응 최소화 추진	환경보호청(EPA) 규제 강화	EV 보조금 및 세액공제 우대 조치 철회
-	美 인플레이션(IRA) 법안 및 해외 우려국가(FEOC) 발표	그린 뉴딜 종료 → IRA에 따라 책정된 각 기관 자금 지출 중단
-	중국산 EV 관세 부과 (기존 25%+추가 100%)	EV 의무화 정책 폐지 → 내연기관차량 판매 제한 가능한 주(州) 정부의 권한(Waiver) 폐기
-	공급망 내 멕시코 역할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	-	모든 수입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

자료: Inflation Reduction Act(2022) 제13401조 참고 및 황경인(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KIET) 자료 인용.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물가 안정,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목적의 IRA 법안을 발효하였다. 그 중, EV 관련 산업 세액공제 조건도 포함되어, EV 및 EV 배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EV 관련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IRA 법안 중 제13401조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최종 조립 요건은 북미에서 조립되어야 한다. EV 배터리 핵심 광물⁴⁾ 요건은 EV에 탑재된 EV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은 40% 이상⁵⁾이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수출 또는 가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 3,75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EV 배터리 부품 요건은 EV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⁶⁾ 50% 이상⁷⁾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 한해 3,750달러 상당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EV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이 FEOC에서 조달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제공받을 수 없다. 보조금 규정은 벤·SUV·픽업트럭은 8만 달러, 세단 등 이외 승용차는 5.5만 달러 이하만 모델만 혜택이 가능하다.

4)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흑연 등 약 50여 종 광물

5) 2023년 기준 비율이며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함.

6) 셀, 모듈, 전극활물질(양극재·음극재·음극기판), 전기적 활물질(솔벤트·첨가제·전해솔트(전해질))

7) 2023년 기준 비율이며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함.

<표2> IRA 제13401조 법안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적용 시기
최종 조립 요건	• 북미에서의 EV 최종 조립	2022.8.16.~ (발표 즉시)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	• EV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 40% 이상 (2023년 기준 비율 매년 증가)이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추출 및 가공 •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 3,750달러 상당 세액공제 혜택 有	2023.1.1.~
	• EV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해외우려집단(FEOC)에서 추출·가공, 재활용된 경우 세액공제 혜택 X	2025.1.1.~
배터리 부품 요건	• EV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은 50% 이상 (2023년 기준)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 3,750달러 상당 세액공제 혜택 有	2023.1.1.~
	• EV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이 FEOC에서 조달된 경우 세액공제 혜택 X	2024.1.1.~
보조금 규정	• 밴·SUV·픽업트럭 8만 달러, 세단 등 이외 승용차 5.5만 달러 이하 모델만 혜택 가능	2023.1.1.~
구매자 소득 상한	• 구매자 소득 조건 부부 합산 30만 달러, 가장 22.5만 달러, 개인 15만 달러 이하 혜택 가능	2023.1.1.~
제조업체당 보조금 적용 대상 한도 폐지	• 제조업체 당 보조금 지급 대수 20만 대 제한 규정 폐지	2023.1.1.~

자료: Inflation Reduction Act(2022) 제13401조 참고 및 황경인(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KIET) 자료 인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또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IRA 조항 변경 및 관세 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저, EV 의무화를 종료하고 소비자의 구매 차량 선택권 증진 등의 조항 변경을 통해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를 완화하였다. 특히, EV 우대 정책(세액공제 등)을 통해 개인·민간기업·정부 기관의 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보조금과 정부의 시장 왜곡 조치 중단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언급하였다. 그러나 IRA 법안은 공화당 반대가 강한 항목으로 예산 지원 중단보다는 예산 삭감 등의 조치 또는 조항 및 명칭 변경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10+10 정책으로 총 20% 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아울러, 멕시코·캐나다 등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멕시코를 통한 對미국 우회 수출 기업에 어려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25년 4월 3일,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로 對미국 EV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국가들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5년 4월 24일 기준, 자동차부품은 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⁸⁾이며, 면제가 확정되어도 수입 자동차 25% 관세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중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국이 對미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를 통한 우회 전략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발표로 중국은 미국 EV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 발

8) “백악관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검토’”, 파이낸셜 뉴스, 2025.04.24., <https://www.fnnews.com/news/202504240613499058> [2025.4.24.]

생할 수 있다. 이에 對미국 EV 진출이 어려울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표명과 내연기관차 제한 완화 등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중국도 미국 EV 시장진출 목적이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3> 트럼프 2기 행정부 예상 및 발표 정책

구분	세부 내용
IRA 조항 변경	● EV 의무 폐지 • 자체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가능한 주 정부의 권한을 폐기함으로써 EV 의무화를 종료하고 소비자 선택권 증진 • EV 우대를 통해 개인, 민간기업, 정부기관의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고 불공정한 보조금과 정부의 시장 왜곡 조치 중단 검토→공화당 반대가 강한 항목으로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有 ● 그린뉴딜 종식 • 각 기관의 자금 지원 즉시 중단
환경 규제 완화	• 온실가스 배출 기준 완화 •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완화
관세 정책	• 중국산 수입품 관세 10%+10% 추가 관세 부과=총 20% 관세 부과 •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 25% 관세 부과(자동차 관세 1개월 면제) (2025.3.4.~) • EU 수입품 25% 관세 부과 예정(2025.4.2.~) • 모든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주로 한국·일본·EU·멕시코·캐나다 생산 자동차 대상)(2025.4.3.~) • 주요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2025.5.3.~) (면제 방안 검토) • 한·중·일·EU 등 상호관세 25%, 34%, 24%, 20% 부과(2025.4.9.~) 등

자료: 최재희(2024), 트럼프 2기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트럼프 ‘4월 2일부터 수입車에 25% 관세’ 상호 관세 부과도 재확인”, 전자신문, 2025.3.27., <https://www.etnews.com/20250327000325> [2025.4.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및 EV 관련 정책을 살펴본 뒤, EV 관련 산업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V 보조금 및 관세 부과 정책을 비교하였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30D 조항에 FEOC 요건을 적용하여 중국의 공급망을 활용한 EV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제외하였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EV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였다. 또한, 중국산 흑연 사용에 예외 적용으로 2026년 말까지 중국산 흑연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0D 조항 삭제 의사를 밝혔다. 30D 조항이 삭제된다면 FEOC 요건도 자연스럽게 삭제된다. 30D 조항 폐지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경우, EV 세액공제를 줄이기 위해 흑연에 대한 예외 기준 적용을 가장 먼저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흑연 사용 예외 적용이 폐지될 경우, 중국 EV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는 한국 EV 배터리 기업도 對미국 수출에 있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도 흑연 대체국을 통한 수입으로 일부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흑연이 필수적인 EV 배터리 기업의 EV 배터리 가격이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 내 EV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EV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최혜국 대우로 인한 2.5% 관세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유지하면서 EV에 2024년 5월,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중국산 EV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가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

추가 관세 25%)에서 102.5%(기준 관세 2.5%+추가 관세 100%)로 상승한다. 이에 중국 EV 기업은 미국 수출 시 총 10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였다.

셋째, 중국산 EV 배터리 관세는 기존 10.9% (기존 관세 3.4%+추가 관세 7.5%)에서 추가 관세를 25%로 상승하여 총 28.4%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총 28.4%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EV 배터리에 대해 60%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가 60%까지 부과될 경우, 중국산 EV 배터리의 미국 시장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표4> 트럼프 2기 행정부 중국산 EV 보조금 및 관세 부과 정책 가능성

구분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EV 구매 세액공제	• FEOC 요건 적용→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EV 세액공제 혜택 범위 제외 • FEOC 요건 적용→중국 공급망을 활용하지 않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EV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30D 조항과 FEOC 요건 삭제 가능성 有
	• 2026년까지 중국산 흑연 예외 적용	• 흑연에 대한 예외 기준 적용 취소 가능성 有
EV 관세 부과	• 기본 관세 2.5%+추가 관세 100%	• 모든 수입 자동차 관세 25% 부과 발표
EV 배터리 관세 부과	• 기본 관세 3.4%+추가 관세 25%	• 추가 관세 60% 예고

자료: 최재희(2024), 트럼프 2기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3. 중국 對미국 EV 산업 대응

美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대응과 EV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EV 보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중국의 EV 산업 부상을 견제하여 對중국 제재가 강력하였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EV 전환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관련 정책 폐지, 조항 변경 등의 정책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구축, EV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은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對미국 EV 산업 대응을 첫째, 중국 對멕시코를 통한 EV 시장 우회 수출, 둘째, 중국 對아세안 EV 배터리 수출시장 다변화, 셋째, 중국 對EU 관련 전(全) 산업 생산라인 결합 및 공급망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1) 중국 對멕시코를 통한 EV 시장 우회 수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EV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 강국이었던 미국은 중국 EV 및 EV 배터리 산업의 부상을 우려하며, 미국 내 제조업 강화를 위해 IRA 법안 등을 통해 중국 EV 관련 산업 제재 방침을 발표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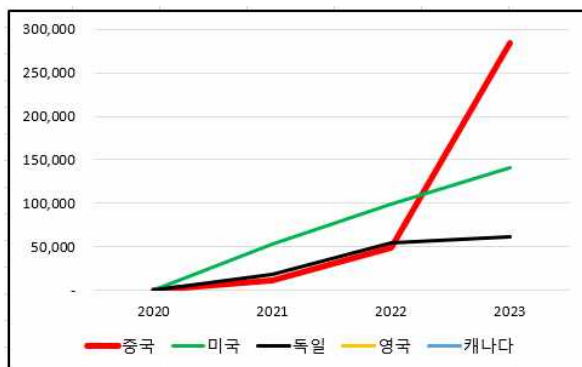
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로 중국은 對미국 EV 수출을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⁹⁾이 적용되는 멕시코를 통한 EV 우회 수출을 꾀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멕시코의 주요 5개국 EV 수입 추이이다. 2021년 對중국 EV 수입이 1,000만 달러, 2022년 4,000만 달러로 큰 증가 폭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IRA 법안이 발효된 이후, 2023년 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600% 급증하였다(그림 1 참조).

둘째, 미국 주요 5개국 EV 수입 추이이다. 미국은 對멕시코·對독일 EV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對멕시코 EV 수입은 2020년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2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3년 37억 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 2024년엔 82억 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9%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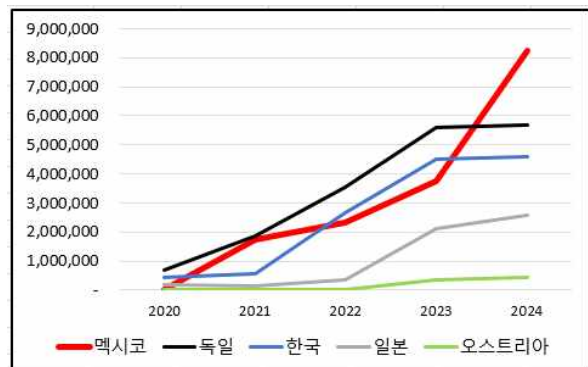
<그림1> 멕시코 주요 5개국 EV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그림2> 미국 주요 5개국 EV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Trade map (<https://www.trademap.org/Index.aspx>) (검색일: 2025. 3. 22)

미국 對독일 수입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존 미국의 EV 수입 1위국은 독일이었으나, 對멕시코 수입 증가로 인해 최근 2위를 기록하였다. 독일에 대한 수입 비중도 큰 규모이지만, 멕시코의 對중국 수입 증가 시기와 미국의 對멕시코 수입 증가 시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국 對멕시코 우회 수출을 통한 미국 진출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의 멕시코 우회 수출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2025년 4월 3일부터 미국 對멕시코 수입 EV에 25% 관세 부과 적용으로 중국의 對멕시코 우회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수입 EV에 25% 관세 적용으로 수입 EV는 대당 평균 가격이 6,875달러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¹⁰⁾ 아울러, 멕시코의 FTA 비체결국 수입 EV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2024년 9월 30일 종료되어 2024년 10월 1일부터 수입 EV 차종에 따라 차등적 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 중국의 對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로의 미국 EV 시장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9)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기준에 따라 멕시코산 제품은 0% 관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됨.

10)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Study Shows Auto Tariffs Leading to Dramatic Vehicle Price Increases, Job Losses and Economic Consequences", NADA, 2018.9.25., <https://www.nada.org/nada/nada-headlines/center-a-utomotive-research-study-shows-auto-tariffs-leading-dramatic-vehicle> [202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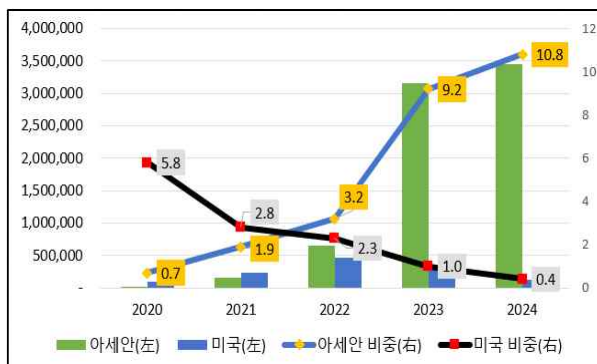
2) 중국 對아세안 EV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의 對아세안 EV 수출도 2022년 이후 급증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특히 2022년 중국 EV 전체 수출 비중에서 對아세안 수출 비중이 3.2%에 불과했으나 2023년 9.2%로 6.0%p 급증하였다. 2024년 10.8%를 기록하면서 2020년 미국의 5.8%를 추월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중국 對아세안 수출은 EV 보급 초기 단계인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아세안 주요국의 EV 보급과 생산라인 육성 정책 발표 시기와 비슷하여 아세안 EV 시장 내 중국 EV 기업의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아울러, 중국 기업도 수직계열화, 공급망 현지화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아세안 시장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對미국 수출 감소 시점과 對아세안 수출 증가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對아세안 EV 우회 수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 對미국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된다. 특히 중국 對베트남 우회 수출 의견은 존재하나, 아직 對아세안 EV 우회 수출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 급증은 수출시장 다변화로 해석된다.

다음은 중국 對아세안·對미국 EV 배터리 수출 및 비중 추이이다. 중국의 對아세안 시장 다변화 전략은 EV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對아세안 EV 배터리가 2022년부터 일부 감소 추세를 기록한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아세안 소비자들의 EV 구매 가격을 중요 요소로 여겨 제조 비용 절감을 고려하였다. 중국 기업 BYD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현지 생산과 중국 EV 배터리 기업 Guoxuan은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배터리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기에 EV 배터리 수출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 對미국 EV 배터리 수출은 2024년 25.1%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출 비중을 기록하였다(그림 4 참조). 미국 역시 EV 생산 시 저렴하고 성능 좋은 중국산 EV 배터리가 필요하며, EV의 핵심인 배터리와 기타 EV 소재 부품에 대해 중국 중심의 의존도가 높다. 즉, 미국은 흑연이 필수적인 EV 배터리의 수입 대체국을 단기간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FEOC 해당국의 흑연 사용 유예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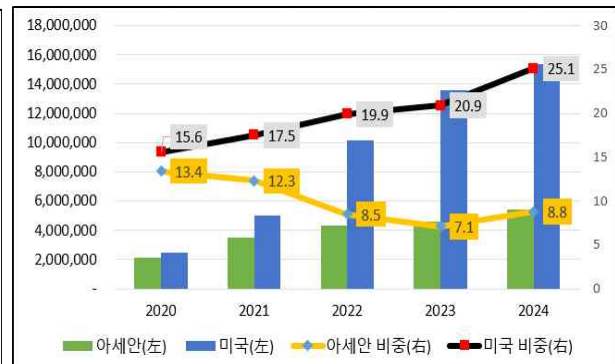
<그림3> 멕시코 주요 5개국 EV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그림4> 미국 주요 5개국 EV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Trade map (<https://www.trademap.org/Index.aspx>) (검색일: 2025. 3. 22)

11) 최재희, 「중국 전기차의 동남아 시장 선점 요인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포커스 24-19, 2024.05.08.

3) 중국 對EU EV 관련 전(全)산업 생산라인 결합 및 공급망 구축

중국은 미국의 EV 산업 제재 회피를 위해 세계 자동차 강국인 EU로의 EV 시장진출 전략을 가속화하였다. EV 산업 부상과 함께 미국의 IRA 법안 및 관세 부과 등 對중국 제재를 피해 중국의 EV 배터리 기업은 해외직접투자(OFDI: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한 對EU 진출로 법인 설립 등 해외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 중국 EV 배터리 기업인 CATL, Eve Power, Sunwoda 등은 對EU OFDI 진출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EU 역내 EV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EU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EV 모델 파악 등 다양한 시장 조사를 통해 EU의 EV 시장에 진출하였다. 특히 중국은 독일·헝가리·슬로바키아 등 對동·서부유럽 중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EU 시장에서의 중국 EV 배터리 기업의 생산라인 결합과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국 EV 관련 산업 OFDI가 미국 대비 EU로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중국 對EU OFDI 추이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5> 중국 주요 EV 배터리 기업의 對EU OFDI 현황(2018~2024)

년도	투자기업	국가	금액
2018	CATL	독일	2억 8,000만 달러
2021	Envision Group	영국	5억 6,000만 달러
2021	Envision Group	프랑스	8억 9,000만 달러
2021	CATL	독일	17억 7,000만 달러
2022	Envision Group	스페인	2억 9,000만 달러
2023	CATL	헝가리	37억 8,000만 달러
2023	Sunwoda	헝가리	1억 8,000만 달러
2023	Eve Power	헝가리	11억 8,192만 달러
2024	Guoxuan	슬로바키아	7억 달러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對EU EV 배터리 생산라인 진출로 EV 관련 생산라인 결합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EU는 EV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대응과 EU의 환경보호를 위해 EU의 신(新)배터리 규정(EU New Battery Regulation),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V 배터리를 포함한 FDI 심사 규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EV 보급률 확대와 더불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EV 배터리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EU의 신배터리법 규정을 발효하였다. 동 규정은 對EU의 EV 시장에 EV 배터리 판매를 위해 탄소발자국을 비롯하여 EV 배터리 생산의 모든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EU 신배터리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EU의 EV 시장에서 판매 금지 또는 퇴출된다. 아울러, CBAM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EU가 지정한 총 6가지 품목¹²⁾과 일부 전구체(Presursor)·나사·볼트 수입 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EU는 역내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FDI 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등 EU도 역내 공급망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자동차 강국인 EU 시장진출을 위해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중국은 탄소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EU 현지 생산을 통해 EU 신배터리 규정과 CBAM 정책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된

12)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기

다. 또한, EU 신배터리 규정인 EV 폐배터리 각 수거 목표 및 EV 폐배터리에서 추출된 재활용 사용 의무 비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EU에서 EV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이다. 중국 EV 배터리 기업은 FDI 심사 규제가 용이한 독일·헝가리 등 동·서부유럽 중심의 OFDI를 통해 EU에서 EV 배터리 생산부터 폐배터리 수거 작업, 소재 추출, 재활용까지 EV 전(全) 산업 생산라인 결합으로 EU 역내 공급망 구축이 목표로 해석된다.

4. 결론

美정부는 탄소중립 목표가 구체화 되면서 중국 EV 관련 산업 제재를 강화하였다.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시기, 對중국 EV 산업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진출을 꾀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및 EV 산업 정책의 입장차가 크게 존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를 통한 對중국 EV 관련 산업 및 핵심광물 제한 등 규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은 對미국 진출을 위해 기술 라이선스 형태로 진출하였고, 對멕시코 우회 수출 및 EU로의 OFDI 진출이 더욱 확대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의 對멕시코 우회 수출을 우려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IRA 조항, 탄소배출 기준과 내연기관차 사용 기한 완화 조치 등 미국 EV 보급에 다소 불리한 조항들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IRA 법안 관련 청정에너지 산업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 밀집해 있어 폐지하지 않고 변경 또는 명칭을 수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30D 지침 및 FEOC 요건 변경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중국 EV 및 EV 배터리 기업의 對미국 진출 완화 가능성이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공화당 우세지역은 IRA 법안 관련 청정에너지 산업과는 별개로 EV 보급률이 높지 않아 30D에 대한 지지도가 약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 규제 완화 등으로 중국의 對미국 진출 중요성 감소와 진입장벽이 강화되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EV 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목표인 중국은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고 정책이 구체화 되어 있는 EU 진출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딜 산업,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CBAM, EU 신배터리 규정 등 다양한 기후변화대응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중국은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완화된 미국보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EU의 EV 시장으로 현지 생산라인 건설, EU 자동차기업과의 합작 건설 등 다양한 형태의 OFDI를 통한 EU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한국의 기회로 첫째, 한국기업은 중국의 對미국 자동차 시장진출 규제를 기회요인 삼아 미국의 각 주(州) 별 EV 진출 전략을 위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인상, 對멕시코 EV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EV 의무 및 FEOC 요건 폐지 등으로 중국 對미국 진출이 어려워졌다. 미국은 현재 6개 주¹³⁾에서 2026년부터 신차의 35%를 EV만 판매하는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6개 주¹⁴⁾가 추가되어 총 12개의 주에서 EV 판매 의무화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각 주별 진출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 기(既)진출한 한국 EV 관련 기업 중 EV 배터리 핵심소재·부품에 대해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에게 일부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시장 개척을 위한 對아세안 생산라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對아세안 수출시장 다

13)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버몬트, 워싱턴 DC, 오리건

14) 몰로라도, 델라웨어, 뉴저지, 뉴멕시코, 로드 아일랜드

변화, 對EU 생산라인 결합 및 공급망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 EV 및 EV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EV 및 EV 배터리 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여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對아세안 EV 관련 산업 시장 개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분과 I】 발표

트럼프 2기 미중간 통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김 동 하**

【목 차】

1. 머리말
2. 트럼프 1기 무역 분쟁과 중국의 대응
3. 바이든 시기 중국의 대응 전략
4. 트럼프 2기 중국의 대응 전략
5. 전망 및 시사점

【 초 록 】

미중 양국은 트럼프 1기(2017-2020)에 이어서 바이든 시기(2021-2024)를 거쳐 트럼프 2기(2025-2028)에서도 무역 전쟁을 시작하였다. 트럼프 1기가 관세 전쟁이었다면, 바이든 시기에는 제재 조치에 집중했으며, 트럼프 2기에서는 총체적인 통상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트럼프 1기에 백악관 협상 테이블 합의서에 서명한 중국은 바이든 시기를 거치며 트럼프 2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본고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기 양국간 무역분쟁 현황, 미국의 대중국 조치,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중국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정부는 첫째, 내수 강화를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에 힘쓸 것이다. 여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론 이구환신 같은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원책 등이 포함된다. 둘째,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애국 주의 소비’가 확산될 전망이다. SNS가 주도하는 소비 시대에 중국 MZ 소비층을 주축으로 자발적인 국산품 소비 인증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셋째, 주변국 및 ASEAN, BRICS,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가진 구매력을 활용할 것이다. 2022년 7월에 중국 국영항공사들은 미국 보잉을 배제하고 EU 에어버스를 대량 구매했다. 최근 민항사들의 행보는 중국정부 가이드라인에 더해 수입관세와 對미달러 환율 부담이 더 큰 요인이다. 다섯째, RC EP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탈(脫)미국 공급망 구축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섯째,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것이다. 인민은행은 2025년 4월 8일,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을 7.2를 상회하여 고시하였으며 이는 1년 6개월만이다. 4월 17일에는 7.3을 돌파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 본고는 ‘2025 대한중국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2025.5.17)’ 발표용으로 완성(完整)하지 않으니 인용시 참고할 것.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dhkim@bufs.ac.kr)

이 제시된다. 첫째, 미중간 무역분쟁은 우리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트럼프 1기에 대한 분석결과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 역시 수출입 구조 다변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둘째, 미중 양국간 분쟁 합의는 2년이나 걸린 트럼프 1기 대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한 우리 통상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키워드】 미중 통상, 미중 무역, 통상 마찰, 무역 전쟁, 관세 전쟁

1. 머리말

미중 양국은 트럼프 1기(2017-2020)에 이어서 바이든 시기(2021-2024)를 거쳐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 전쟁을 시작하였다. 트럼프 1기가 관세 전쟁이었다면, 바이든 시기에는 제재 조치에 집중했으며, 트럼프 2기에서는 총체적인 통상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중국은 UN Comtrade 통계상 5000여개의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하는 세계 제조 및 수출 1위 국가이다. 2024년 중국의 대미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4.7%에 불과(2025년 1-2월간 14%)하다. 지금 미국의 소비구조¹⁾를 참고하면 이미 외국으로 떠난 전통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인건비와 제조 환경을 보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상용품을 파는 美 월마트 매장의 60%가 중국산이다. 2007년 국내에도 번역본이 나온 ‘메이드인 차이나 없이 살아 보기’에도 답이 있었다. 언론인 사라 본지오르니가 1년간 중국산 제품없이 생활을 해보려 했으나 실패했다. 애플은 인도로 공장을 옮기려 했지만 여전히 95%의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만든다. 수백개에 이르는 부품과 부품품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중국의 스마트폰 공급망은 한 두 해에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²⁾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왜 또 시작한 것인가? 트럼프 1기에 백악관 협상 테이블 합의서에 서명한 중국은 바이든 시기를 거치며 트럼프 2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본고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기 양국간 무역분쟁 현황, 미국의 대중국 조치,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중국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트럼프 1기 무역 분쟁과 중국의 대응

1) 분쟁 현황

트럼프 1기(2017.1.20-2021.1.20) 기간 진행되었던 미중간 무역마찰을 두고 여러 정치·경제적 해석

- 1) 미국 중산층은 중위 가계소득 2/3~2배 구간 가구임. 2021년 중위소득은 6.5만\$(9천만원)이며, 중산층은 4만3350달러(6천만원)~13만달러(1.9억원) 소득가구임. 오바마 행정부는 중산층 기준으로 주택·자가용 소유, 자녀 대학교육, 은퇴준비, 의료보험, 가족휴가 등을 꼽음. 美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비중은 48:43:8. 퓨리서치센터(2022).
- 2) 2024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4389억\$) 중 대부분은 휴대폰·노트북 등(22%), 가전(19%), 의류·신발(17%)이다. 애플은 트럼프 1기 중국 내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80% 넘는 제품이 중국에서 조립생산 중 이다. 2024년 아이폰·아이패드·iMac·아이팟의 미국 내 판매액 1250억 달러인데 이 중 56%가 중국산이다. 월마트가 조달한 제품 중 60%가 중국산으로 2023년에 조달한 제품만 300억 달러가 넘는다. (이투데이, 2025.4.16)

이 있었다. 미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대중 압박 여력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싸움에, 내수 주도로 바뀐 경제구조에서 위안화 국제화, 일대일로, 산업고도화 등으로 자신감을 가진 시진핑 주석이 양보없는 응수를 한 결과이다. 2018년까지가 1라운드였다면, 트럼프는 2019년부터는 2라운드 승리를 위해 금융(위안화 환율, 주가 등)과 산업고도화(중국제조 2025)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무력화시킬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이를 방증한다.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은 세차례 보복 관세를 주고 받았다. 이는 2017년 기준 미국의 對중국 수입 규모(5,056억 달러)의 49.4%에, 중국의 對미국 수입규모(1,497억 달러)의 73.5%에 해당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적자 축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첨단기술 유출방지 마련 등이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7년 2,563억 달러(전체의 32.4%)에서 2017년 3,752억 달러(47.1%)로 급증했는데, 그 원인으로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와 불공정 무역행위 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설명은 미국의 높은 소비성향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때문이다.

<표1> 2018-2019년간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 현황

	1차 (2018.7.6.)	2차 (2018.8.23.)	3차 (2018.9.24.)	협상 결렬 후 (2019.5.10./6.1)	2019.9.1
미국→중국	· 기계, 통신, 전기 기기 등 · 340억\$ 규모 (6.7%). 25% 관세 율	· 반도체, IT산업재 등 · 160억\$ 규모(3.2%). 25% 관세율	· 소비자재 등 광범위 · 2,000억\$ 규모(39.6%) · 9/24 10%에서 '19.1.1 25%로 단계적 인상 선언후 협상개시	· 2019.5.10.자로 2000억 \$에 대한 25% 관세 부 과	· 1120억\$ 규 모 제품에 15% 관세 부과
중국→미국	· 대두, 자동차 등 · 340억\$ 규모 (22.7%). 25% 관 세율	· 의료장비, 화학제품 등 · 160억\$ 규모(10.7%). 25% 관세율	· LNG, 항공기 등 600 억\$ 규모(40.1%) · 5~10% 차등부과 선 언후 협상개시	· LNG, 목재, 포도주 등 5140개 품목에 5~25% 4단계 관세 부과(자동차 부품 등 67개 품목제외)	· 750억\$ 규 모 제품에 5-10% 관세 부과

주: ()는 2017년 기준 상대국 전체 수입규모 대비 비율

자료: USTR 및 중국 상무부 공개자료 종합(2025.4)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구조(2017)를 보면 최종재 21.3%, 중간재 9.4%로 최종재 비중이 높아 기업 보다는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반면 중국은 2017년 기준 對미국 수입액이 미국의 1/3에 불과해 보복관세만으로 맞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수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국에게 생산감소도 부담이다. 중국 전체 수출 중 對미국 비중이 19%(2017)로 가장 높아 보복관세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2) 중국의 대응

미국의 추가 보복관세와 기타 압력(위안화·투자제한)에 대해서 중국 내 언론에서는 비관세 방법(중간재 수출제한, 중국 내 미국기업 제재 등)으로 보복을 거론한 적도 있으나, 모두 부작용이 커서 본격 실현 되지는 않았다. 중간재 수출 제한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내 생산기업의 희생도 따르며, 미국기업 제재 역시 중국 내 다른 외국기업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현재 중국 전체 수출의 40% 이상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트럼프 1기 동안 전면적인 보복보다는 미국의 제재에 견디면서 1대1 대응 전략(화웨이에 대응 페덱스 조사 언급 등) 혹은 관리 가능한 장기적인 모드로 관리해 왔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준비했다. 중국정부는 2017년 7월부터 1449개 수입 소비재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낮춘 데 이어 11월부터는 1585개 수입품목 관세율도 인하했다. 이는 소비자 수입물가 안정과 기업의 수입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2017년 11월 1일부터 수출부가세 환급 조건을 간소화했다. 즉 미중 무역갈등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해 세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강화했다.

트럼프 1기 미중 양국은 2년간의 분쟁과 보복 그리고 협의 결과, 미국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고 2020년 2월에 1단계 합의를 도출하였다. 동 협의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분야에 있어서는 진일보 한 협력이 있었다.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에너지, 공업제품, 서비스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2> 트럼프 1기 미국과 중국간 무역 협상 현황

분야	이슈	미국측 요구	중국측 대응	중국 수용도
무역	무역 흑자	대미 무역흑자 개선	미국산 상품·서비스 수입확대	100%
기술	기술이전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자기업 합법적 기술보호제도 확립	100%
	지식재산권 보호	지재권 보호 시행방안 마련	법제도 시행 및 보상체계 확립	100%
통상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철폐	상호주의 입각 장벽 수위 조절	50%
산업구조	중국제조 2025	국유기업 보조금, 불공정 행위 시정	중국제조2025 수정안 국유기업 개혁안 제시	10%
금융	환율 문제	환율조작 금지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위한 적정 환율 수준 검토	10%

자료: 중국경제금융연구소(2019.2.4)

중국 국무원은 2018년 9월 24일과 2019년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미중간 무역협상을 보는 중국 내 시각을 ‘백서’ 형태를 통해 중국정부 입장을 국민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첫 번째 백서³⁾가 미중간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정부는 미국에 고개를 숙이면서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두 번째 백서⁴⁾는 미중간 무역마찰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하라는 중국 내 각 경제 주체에 대한 경고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1기 때, 양국은 장기전을 회피하고자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5월 13일,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대상에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새로 포함하고 회토류, 제약품, 약품 원료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아킬레스건(회토류 등)을 중국에 보여주는 상황으로 중국과의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중국 역시, 2019년 6월 1일자 관세 부과에서 5%, 10%, 20%, 25% 등 4단계별 관세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자동차 부품 등 67개 품목은 제외했다. 이 역시 중국의 약점을 미국에 시험하는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중국은 보복관세 적용 제외 제도도 신설했는데, 기업의 신청을 받아 미국을 대체할 수입처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보복관세로 미국에서 반입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국내 공급망이 타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이다.⁵⁾

3) 国务院新闻办公室 《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 白皮书。(2018.9.24.)

4) 国务院新闻办公室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白皮书。(2019.6.2.)

5) 한국무역신문 (2019.6.2.)

3)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평가(2020.2)

2020년 1월 15일, 미중 양국의 1단계 무역분쟁 합의에 서명했다. 이는 지금 진행중인 트럼프 2기 통상마찰 협상 테이블 위에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큰 골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을 추가 수입하는 조건이었다. 합의이후 2년간(2020-2021년) 미국산 상품(공산품, 농산물, 에너지)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각각 1,621억달러, 379억달러씩 추가 구매하여 대미 수입을 2,000억달러 만큼 늘리기로 약속한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보호, 기술이전강요금지, 환율조작금지, 금융시장개방 등을 중국이 약속했다.

그러나 이유진(2022)⁶⁾에 따르면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률은 2년간 63%에 그쳤으며, 이는 중국이 약속한 금액 중 절반 수준에서만 추가 구매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미이행 사유는 COVID-19에 따른 강화된 봉쇄 조치로 인해 항구(상하이 등)와 공장 간에 원활한 물류망이 운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품별로 보면 농산품은 이행률이 78%로 비교적 높았으나, 공산품과 에너지는 이행률이 각각 63%와 47%에 그쳤다.

중국의 또 다른 주장은 전세계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국의 삼각무역구조로 인해 중국산 제품을 소비할 시장의 구매력 저하(COVID-19에 따른 세계 불경기)로 미국산 중간재 수입이 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 트럼프 1기보다 강화된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산업경쟁력 억제를 위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에 집중했다. 중국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한 USTR의 보고서(2018.3)에는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가 114번 등장했고, 미국 통상법 301조 관세부과 공고에서 USTR은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명시했다.

4) 미중간 무역분쟁 및 제재 조치 주요 일지 (2018.3-2025.4)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미중 양국간 야기되거나 합의된 무역 분쟁 주요 일지를 일시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⁷⁾

◎ 2018.1.20. : 트럼프 1기 시작 (~2022.1.20)

- ▷ 2018.3.22 : 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 2018.4.2 : 중국,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의 관세 부과
- ▷ 2018.4.3 : 미국,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
- ▷ 2018.4.4 : 중국, 미국산 대두·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 ▷ 2018.7.6 : 미·중,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상호 부과
- ▷ 2018.8.23 : 미·중,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상호 부과
- ▷ 2018.9.24 :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중국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에 5~10% 관세 부과
- ▶ 2018.10.30 : 푸젠진화(D램 제조사) 등 수출통제 리스트(Entity List) 등재로 미국산 반도체 장

6) 이유진(2022),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KITA통상리포트 Vol.8.』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p.5.

7) 국내외 공개자료 정리 (2025.4.21). 본문 중 ▶표기는 미국의 무역 및 기타 제재를, ◀표기는 중국의 무역 및 기타 제재를 의미함.

비 수출 금지 (푸젠진화는 미국 Micron사와 기술도용 문제로 분쟁중)

▷ 2018.12.1 : 미·중 정상,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 2019.2.24 :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

▷ 2019.5.10 :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

▶ 2019.5.16 : 화웨이, 수출통제 리스트 등재 (반도체 설계사 HiSilicon 등 68개 관계사)

▷ 2019.6.1 : 중국,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 5~25%로 인상

▷ 2019.6.28~29 : 미·중 정상, G20(일본 오사카)에서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 2019.8.5 : 미국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 2019.8.13 : 미국,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10%) 인상 12월로 연기

▶ 2019.8.19 : 화웨이 46개 관계사, 수출통제 리스트 추가 등재

▷ 2019.9.1 : 미국, 112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 / 중국,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0%, 5% 보복관세 부과

▷ 2019.10.10~11 : 미·중,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 미, 2천500억 달러 규모 관세율 인상 보류

▷ 2019.12.13 : 중국정부 1단계 무역합의 공식화. 트럼프 및 USTR 무역합의 발표. 미국, 12월 15일로 예정된 15% 추가관세 유예. 중국, 미국산 농산물 구매 대폭 확대 약속

▷ 2020.1.13 : 미국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복귀

▷ 2020.1.15 :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 참석하여 1단계 합의 서명식 개최

▷ **2020.2.14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발표**

- 향후 2년간 공산품 2520억\$, 농산물 1600억\$, 서비스 2100억\$, 에너지 755억\$ 수입. 증권사 외국지분 100%(2020.4), 보험·펀드매니저·선물 등 금융서비스에 외국지분 제한철폐 허용

▶ 2020.5.1 : 전력시스템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트럼프), 적성국으로부터 전력장비 조달 금지

▶ 2020.5.15 : 수출통제 범위와 대상 확대(美 기술·SW 이용 외국제품도 화웨이 수출 금지). 대규모 전력시스템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트럼프)

▶ 2020.6 : 미국 ‘위구르 인권정책법’ 제정. 인권 탄압 관여 인사 자산동결, 미입국 금지 조치

▷ 2020.6.17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COVID-19 확산 후 미·중 간 첫 고위급 회담... ‘1단계 무역합의 전면 이행 재확약’

▶ 2020.8.17 : 화웨이 38개 해외 관계사, 수출통제 리스트 추가 등재. 수출통제 범위와 대상 전면적인 확대(美 기술이 관여된 전세계 모든 제품의 화웨이 수출 금지)

◀ 2020.9.16 : 중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한 규정’ 발표하여 미국의 Entity List에 대한 맞대응 조치.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

▷ 2020.12.1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미·중 무역합의 바로 철회 안 할 것. 대중 지렛대 필요’

◀ 2020.12.1 : 중국 상무부,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발효. 미국의 ‘수출통제법(EAR)’ 대응. 자국 기술 유출 보호.

▶ 2020.12.18 : SMIC 등 77개사, 수출통제 리스트 등재(10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기술·장비 수출 금지) 8)

◀ 2021.1.9 : 중국 상무부,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공포. 미국 조치로 인한 자국기업 피해 보호·보상 차원.

8) 나노 숫자가 작을수록 공정이 미세하여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적합함. SMIC(中芯国际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임.

▶ 2021.1.16 : 미 에너지부, 중국산 전력장비 조달 금지(바이든 4/20. 명령 철회후, 보안강화 조치)

◎ 2021.1.20. : 바이든 임기 시작 (~2025.1.20)

▶ 2021.3 : 미국 통신위원회(FCC), 중국 5개사 ‘안보위협 리스트’ 등재(화웨이, ZTE, 하이테라, 항저우 하이크비전, 다화기술)

▷ 2021.4.28 :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

◀ 2021.6 : 중국,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제정후 대미 보복성 기존 상무부 규정들 통합

▷ 2021.10.4 : 바이든 행정부, ‘고율관세 유지·1단계 무역합의 준수’ 대중 강경책 고수 방침 확인

▶ 2021.11 : 미국 ‘보안장비법’ 제정. 화웨이 및 ZTE 통신장비 미국 수입 금지

▷ 2021.11.16 :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서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 2022.6 :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제정후, 증명서 없는 신장제품 미국수입 금지조치

▶ 2022.07 : SMIC 수출통제 확대(14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기술·장비 수출 금지)

▶ 2022.09 : AI 개발에 쓰이는 엔디비아의 A100, H100 반도체 대중 수출 금지. 이에 엔디비아는 저사양칩(A800, H800) 개발 후 2023년부터 대중 수출 개시

▷ 2022.9.8 : 바이든 대통령, 중국 제품 부과 고율 관세 철회 결정 보류

▷ 2022.11.15 : 바이든·시진핑 대면 회담...경제 문제 입장차 확인(G20. 인도네시아 발리)

▷ 2023.6.2 : 미국·대만, 중국 반발 속 ‘무역 편리화’ 협정 체결

▶ 2023.10.17 : 상하이 비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무어 쓰레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자회사 등 13개 중국업체 Entity List에 추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A800과 H800 수출 통제

▶ 2024.4 : 미국, ‘틱톡금지법’ 제정

▷ 2024.5.14 : 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로 대폭 인상

▷ 2024.11.15 : 트럼프 당선인, 중국에 10% 관세 추가 부과 예고

◎ 2025.1.20. : 트럼프 2기 시작 (~2029.1.20.)

▷ 2025.2.1 : 트럼프, 2월 4일 중국 관세 부과 개시 결정

▷ 2025.2.4 : 미국,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발효 / 중국, 10일부터 미국산 석탄·액화 천연가스(LNG)에 15% 관세 부과 및 원유·농기계·대형 자동차·픽업트럭에 10% 관세 부과 예고. 미국의 대중 관세 WTO에 제소

▷ 2025.2.4 : 중국, 반도체·전자제품 원료인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5종 희토류 수출 허가품목 지정(對美수출 견제). 美PVH그룹,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

▷ 2025.2.4 : 중국,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 시작

▷ 2025.3.9 : 중국, 미국에 농축산물 2차 보복관세 15% 부과

▷ 2025.4.2 : 미국 중국에게 총 54% 관세 부과, 중국 34% 보복 관세 부과

◀ 2025.4.4 : 중국, 희토류 7종(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 2025.4.5 : 중국, 듀폰(美화학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 시작. 미국·인도산 CT 기기용 X선 관(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실시. Shield AI, Sierra Nevada 등 美군수업체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고 수출제한, American Photonics, Novotech 등 12개 기업은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하며, 이중용도물품 수출을 금지 9)

9) 이중용도 물품: 민간 용도인 동시에 군사 용도(또는 군사 잠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품,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기술 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

- ▶ 2025.4.5 : 트럼프, ‘틱톡금지법’ 실시 75일 연기. (1/20. 1차연기). SNS홍보 및 대중 협상 목적.
- ▷ 2025.4.9 : 미국 중국에게 총 125% 관세 부과, 중국 총 84% 관세 미국에게 부과
- ◀ 2025.4.9. : 중국 국무원,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특정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¹⁰⁾’ 공포. 원칙적인 제재조치 천명
- ▶ 2025.4.9.: USTR, 엔비디아에게 중국용 저가칩 H20 對중국 수출금지 조치. 중국 선박 소유주 및 운항사에게 미국 항차 1회당 톤당 50달러 항만세 부과(중국사 선박 운항사에 추가 과금), 외국산 차량운반선에 톤당 150달러 부과. LNG 수출은 일정비율 미국산 선박 수송 의무화(2028년 4월부터)
- ◀ 2025.4.10. : 중국인의 미국 여행 자제(中문화여유부) 및 미 유학 유의 권고(中교육부)

3. 바이든 시기 중국의 대응 전략

1) 트럼프 1기 이후, 양국 무역구조 변화

양국간 2018년부터 본격화 된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한 해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비 12.5% 감소했을 뿐, 2020년부터는 7.9%, 27.5%(2021), 1%(2022)로 오히려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COVID-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선 다변화 등으로 전체 수출량을 확대한 영향에 기인한다. 하지만 중국 총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확연하게 줄어 2018년 19.2%에 달했던 것이 2019년에는 16.8%로 2.4%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이후 바이든 집정 시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4년에는 14.7%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최근 8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이는 중국이 트럼프 2기를 대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중국은 2023년 한 해를 제외하고 8년 내내 총수출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무역수지 역시 역대 최고치인 992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국 수입은 2019년에 전년비 20.9%나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소폭 증가(9.9%) 했으나 통상 마찰 시기 이전인 2017년 수입량 1539억 달러 대비 14.1%나 감소한 1349억 달러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트럼프 1기 초반 중국의 대미국 보복 관세에 기인한다. 2021년부터는 미중간 1차 합의에 따른 효과가 시현되어 대미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특히 대두, 천연가스, 원유의 대미 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대미국 제재 품목(보복 관세)이 아닌 상품들의 대미국 수입 비중은 2017년 8.4%에서 2021년 5.7%까지 축소되었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향후 분쟁을 염두에 두고 수입선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꾸었음을 나타낸다.

미국 통계를 기준으로 수입원산지별로 2017년과 2022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은 21.9%에서 17.3%로 4.6%포인트(pt) 감소했다. 반면 아세안 국가 비중이 3.3%pt 증가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증가 폭을 보면 베트남 2%pt, 대만 1%pt, 캐나다 0.8%pt, 인도 0.7%pt, 한국 0.5%pt 순이다. 즉 중국과 홍콩,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들 국가가 중국이 내어 놓은 미국 수입시장 공백을 메꾸었음을 보여준다. ¹¹⁾

10) 国务院新闻办公室, 《关于中美经贸关系若干问题的中方立场》白皮书.

11) 이유진(2022),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KITA통상리포트 Vol.8.」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지원센터, p.5.

<표3> 2017-2024년간 중국의 對미국 수출입 현황

구분	연도	對미국 (억\$)			전체 수출중 대미 비중 (%)			중국 총무역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흑자	흑자 (억\$)
트럼프 1기	2017	4,298	1,539	2,759	19.0	8.3	65.8	4,195
	2018	4,784	1,551	3,233	19.2	7.3	92.1	3,510
	2019	4,187	1,227	2,960	16.8	5.9	70.3	4,211
	2020	4,518	1,349	3,169	17.4	6.5	60.5	5,240
바이든	2021	5,761	1,795	3,966	17.2	6.7	59.2	6,704
	2022	5,818	1,776	4,042	16.4	6.6	48.2	8,379
	2023	5,003	1,642	3,361	14.8	6.4	40.9	8,221
	2024	5,247	1,636	3,611	14.7	6.3	36.4	9,921

자료: 중국경제금융연구소(2025.4.10), 중국세관 (2025.4), 김동하(2022) ¹²⁾

2) 바이든 정부의 제재 조치 확대와 탈(脫) 중국화 노력

트럼프 1기 주요 對중국 제재 수단이 관세였다면, 바이든 시기에는 반도체 등에 대해 수출통제 등 제재 조치에 주력했다.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수출통제 리스트(Entity List)¹³⁾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기관(기업·개인·정부 포함)을 지정한 목록으로 해당기관과의 거래를 규제한다.

2022년 9월 현재, 수출통제대상이 되는 중국기업은 498개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제재대상이 되고 있는 러시아(649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된 475건의 수출통제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07건으로 대러수출 통제(27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7년부터 2021년간 미국 BIS의 대중국 수출허가 추이를 보면 건수 기준으로 승인율이 2017년 82.5%(금액기준 97.4%)에서 2021년 67.4%(금액기준 42.1%)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반도체 수출은 저사양 위주, 자동차 반도체 위주로 그 금액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바이든 정부는 2023년 10월 17일 AI칩 규제 강화, 제재우회 차단, 중국기업 13곳 제재대상 추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A800과 H800 수출이 통제되었다. 이 칩은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A100칩의 성능을 낮춘 제품이다. 미국은 ‘최고급 칩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칩도 AI와 슈퍼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다’고 조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미국은 ‘회색 지대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중국의 제재 우회를 차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기업이 중국이면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수출이 통제된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이라크, 벨라루스 등 미국 무기 판매가 금지된 국가 21곳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에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장비 판매도 제한된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으로 재수출될 위험이 큰 40여개 국가로 수출할 때 추가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상무부는 다만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다분히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과 정저우의 폭스콘(아이폰 조립사)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은 바이든 시기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미국

12) 김동하(2022), 『현대 중국경제와 통상제도(제4판)』, 부산외대출판부, pp.335-336.

13)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에 민감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BIS의 허가가 필요하며,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한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해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다.

2022년 8월, 미국 내 생산기반(리쇼어링¹⁴⁾ 마련을 뒷받침할 ‘반도체와 과학법¹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¹⁶⁾’이 통과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 따라 美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28나노미터 미만) 투자가 금지된다. 이는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도 해당된다. 이후 중국 견제와 미국 내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종합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틱톡 금지법’ 등 대중 견제 입법은 발의된 법안만 376개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예상한 미국은 국방부를 주축으로 희토류 설비를 가진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트리얼스(Materials)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Lynas Rare Earths)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텍사스 지역 내 희토류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뉴스 보면 자금지원을 받은 중희토류 생산설비는 2025년에도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 한 해 지원금액은 3억 달러에 불과하다.

3) 바이든 시기, 중국의 대응

이 시기 중국정부는 ‘기술 자립화’와 ‘대응 제재조치’를 두 트랙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이에 반응하여 민관 공동으로 ‘애국주의 소비’ 운동이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2021년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대 6강으로 부상했다. 중국 국영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는 2019년 3분기부터 D램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중국산 제품에 다수 사용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 폰에 SMIC가 2022년에 개발한 7나노 반도체 칩(기린 9000)이 탑재되었다. 이를 두고 미 싱크탱크는 지금까지 미국이 가한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의 기술 자립 시기만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주요 제재 대상인 화웨이의 탈미국 공급망 구축도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생산장비, 반도체 소재 등 전 공정에 걸쳐 2021년에만 45건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 자립화’의 대표적 사례는 저사양 칩으로 만든 중국 AI기업 딥시크(2024.1.20)의 R1 공개였다.

중국은 2021년 6월, 미국에 대응하여 ‘반외국제재법’을 발효하였으나, 2022년 기준 제재 조치는 4건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중 ‘홍콩 내정간섭(2021.7.23)’ ‘신장위구르 제재 맞대응(2021.12.21)’ ‘펠로시 대만 방문(2022.8.5)¹⁷⁾’ 등에 대한 제재는 개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양국 무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대만에 대한 무기공급을 문제삼으며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테크놀로지 등 미국 군수기업을 제재명단(2022.2.21)에 올렸으나, 이들 기업은 중국과

14)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반대어 오프쇼어링.

15)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2022년 8월에 발효하고, 300억 달러의 직접 지원금과 250억 달러의 대출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원금이 중국 및 우려했던 국가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조항도 발표했다.

16) Inflation Reduction Act(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

17) 중국 세관총서는 펠로시 방문이후 대만 감귤류 과일과 냉장갈치, 냉동전갱이 수입을 중단(2022.8.3)한다고 공지하며, 그 근거로 유해생물 및 잔류물검출, COVID-19 양성반응 등 비관세조치를 활용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2022.8.11)도 검역 문제를 사유로 제시했다.

의 거래가 미미하여 사실상 제재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바이든 시기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제재에서는 최대한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3월, 신장 목화에 대해 미국과 EU가 강제노동을 문제 삼으며 중국 관료를 제재하자 중국은 H&M,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통한 경제보복에 나선바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중국 내 점유율이 각각 25%, 15% 수준을 유지하며 1,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으나, 신장 목화사건 이후 애국주의 구매운동까지 일어나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2021년 중국 토종 브랜드 안타(Anta)가 처음으로 아디다스를 제치고 2위를 탈환한 바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대항한 것이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不可靠实体清单, Unreliable Entity List)’이다. 이는 중국 상무부에서 2020년 9월 19일에 발표 및 시행했다. 여기에 등재된 기업은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중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이다. 동 명단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및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 등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미국기업 수는 총 72개(신뢰할 수 없는 기업 29개, 수출통제 명단 43개) 수준이다.

4. 트럼프 2기 중국의 대응 전략

이상 분석결과, 트럼프 2기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첫째, 본격적인 자원의 무기화에 나설 것이다. 2025년 2월 4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자원 보복을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 27개(HS 10단위)와 생산기술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5종류의 광물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재료, 화공 및 항공우주, 의료기기, 반도체 소자, 광학, 화학 촉매, 열전소재, 납 대체 무독성 합금, 의약품 등에 원료로 사용된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35.2% 수준이나 생산량은 61% 달한다.

<표 4>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 (2021)

매장량 (%)		생산량 (%)	
중국	35.2	중국	61
베트남	17.6	미국	16
브라질	16.8	미얀마	9
러시아	16.8	태국	3
인도	5.5	기타	11
호주	3.2	原data: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기타	4.9		

자료: 전병서(2025.3.29),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전략 경쟁을 보는 관점, 「한중저널 2025년 봄호. Vol.23」, p.17.

둘째, 기존 중국 법체계 안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꾸준히 시도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기존 법률인 ‘반독점법(2007년 8월 공포, 2022년 8월 수정)’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월 4일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20

06년 중국에 지사 설립 이후, 2010년 웹검색 서비스 사업은 중단됐으나, 광고·마케팅,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서비스, 해외 진출기업 대상 엑셀러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사업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고, 애플, 인텔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¹⁸⁾

셋째,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일본무역진흥공사 산하 IDE¹⁹⁾는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 흐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관세전쟁 기간 미국 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²⁰⁾를 경험한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을 늘렸는지에 주목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이 미국 기계·전자산업 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를 경험했으며, 그중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DE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이 오히려 중국의 세계 수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최종재 수출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중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와 원자재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중국의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이 관세 충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인민은행에 쌓아둔 미국 국채 평가절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2009년 3월 당시 인민은행 총재는 ‘트리핀의 딜레마²¹⁾’에 갇힌 달러 대신 IMF의 특별인출권인 SDR을 기축통화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2009년 4월달에 무역결제에 위안화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중국이 탈(脫)달러화를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 흘렀다. 중국은 ‘트리핀의 딜레마’를 해결하려 트럼프가 벌인 관세 전쟁의 해결책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선택할 것이다. 이는 2025년 4월에 불거진 미국 국채 문제로 인해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5. 전망 및 시사점

1) 전망

첫째, 2025년 3월 ‘양회’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내수 강화를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에 힘을 것이다. 여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론 이구환신(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원책) 적용 범위에 태블릿PC·스마트폰·스마트워치를 추가(4/17)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5% 성장한 2024년 GDP에서 순수출 기여율이 30.3%이고, 이중 대미 수출은 14.7%에 불과해 대미 수출이 제로가 돼도 GDP에 영향은 4.58%이다. 같은 해 소비의 GDP 기여율은 44.5%로 내수 소비를 10%만 증가시키면 대미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다. 게다가 5.2% 성장을 기록한 2023년 GDP 중 소비 기여율은 85.

18)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2025.2.10), 미국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

19) Kazunobu Hayakawa(2024.12.10), JETRO. www.ide.go.jp/English/Publish/Reports/Dp/946.html

20)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생산비 낮은 FTA 역외국에서 수입했던 상품이 생산비가 높은 FTA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수입국의 관세 이익이 감소하는 효과.

21) Triffin's Dilemma: 기축통화가 될려면 세계 거래량을 소화할 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달러가 두 가지 조건(기축통화와 국제수지 흑자)을 동시충족하기 어렵다. 미국이 경상흑자(수출>수입)를 기록하면 세계에 풀려있는 달러가 돌아와 달러 가치는 안정되나, 기축통화량과 무역량 감소로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진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지속(수출<수입)으로 달러가 과잉공급되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기축통화 신뢰가 붕괴된다. 결국,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은 진퇴양난이다. (1960. 로버트 트리핀, Gold and the Dollar Crisis).

6%(2024년의 약 두배)에 달해 중국정부는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애국주의 소비’가 확산될 전망이다. SNS가 주도하는 소비시대에 중국 MZ 소비층(바링·주링·링링허우)을 주축으로 스타벅스 대신 루싱커피, 나이키 대신 국산 브랜드 등 자발적인 국산품 소비 인증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셋째, 주변국 및 ASEAN, BRICS,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주변공작회의(4/9)에서 주변 국가와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베트남(4/15일), 말레이시아(4/16일), 캄보디아(4/17) 등 동남아 3국을 연달아 방문하기도 했다.²²⁾

넷째,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가진 구매력을 활용할 것이다. 2022년 7월, 중국 국영항공사(에어차이나·남방항공·동방항공)는 미국의 보잉을 배제하고 EU 에어버스를 대량 구매(A320네오, 292대 370억 \$)했다. 실제 트럼프 2기 기간(2025.4.13)에도 중국의 민항항공사인 지상항공(吉祥航空)은 미국 보잉사의 787-9 드림라이너 여객기 인도(1.2억\$) 일정을 무기한으로 미뤘다. 최근 민항사들의 행보는 중국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더해 수입관세와 對미달러 환율 부담이 더 큰 요인이다.

다섯째, RCEP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탈 미국 공급망 구축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에서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콩고는 전세계 코발트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콩고 광산의 80% 이상을 중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2022년 2월, 일대일로 참여를 선언한 아르헨티나는 리튬 생산대국 중 하나이다. 이는 바이든 시기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2023년 5월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²³⁾와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한국, 대만, 일본을 상대로 제안한 ‘Chip4 동맹’이 그 예이다.

여섯째,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것이다. 인민은행은 2025년 4월 8일,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을 7.2를 상회하여 고시 하였으며, 이는 2023년 9월 11일(7.2148)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이후 미달러화당 위안화 환율 흐름²⁴⁾을 보면 점차 평가절하되어 4월 17일에는 7.3을 돌파한 바 있다.

2) 시사점

첫째, 미중간 무역분쟁은 우리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트럼프 1기에 대한 분석 결과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 역시 수출입 구조 다변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2022)²⁵⁾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이후 미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 제품은 올라가는 공급망 재편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추가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4.12%p 하락했다. 반면 같은 종류의 멕시코산 제품 점유율은 1.63%p t, 한국산은 0.57%p 상승했다. 무역전쟁 직전 18개월과 이후 18개월의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한국이 본 이같은 혜택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에서 중간재 비

22)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25. 4.11), 「China Weekly」.

23)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중심의 경제통상협력체인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2023년 5월 23일 출범했다. IPEF는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과 한·미·일, 호주·뉴질랜드·인도·파키가 참여하고 있다.

24) (4/1) 7.1775→ (4/2) 7.1793→ (4/3) 7.1889→ (4/7) 7.1980→ (4/8) 7.2038→ (4/9) 7.2066→ (4/10) 7.2092→ (4/17) 7.3/\$

25) 국회예산정책처(2022.1.27),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5호)」, pp.113-119.

중이 큰 한국의 교역 구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산 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는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1년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한 비중이 79.6%에 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 전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1.8%(2021년)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역 구조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중 양국간 분쟁 합의는 트럼프 1기 대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한 우리 통상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중국의 수출과 미 국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양국은 무역분쟁 합의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4월 10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90일간 유예결정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10년물 4/4, 3.864%→ 4/9, 4.516%) 때문이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수십 년간 양국 간에 작동했던 균형추(중국-미국 달러 리사이클링)를 무너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행동을 자제했다. 중국이 미국에 값싼 제품을 수출해 거둔 무역흑자로 인해 싼 가격으로 소비를 늘리며 풍족해진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내게 된다. 대신 중국은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매입해 ‘달러 패권’과 낮은 미 국채 금리를 유지하도록 한다.²⁶⁾

2025년 1월 기준, 미국채 보유량은 일본이 1조 793억 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이 7608억 달러로 그 다음이다. 중국은 2013년 11월, 1조 3167억 달러로 피크를 기록한 후, 점진적인 축소 전략을 취해왔다. 이때까지 미국채 총 발행량은 26.7조 달러이며, 이는 2024년 미국 GDP 29.1조 달러의 91.8%에 달하는 비중이다. 2025년 4월초에 나타난 미국 국채 매각은 중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달러 가치 하락을 예상한 투자은행과 헤지펀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채 가격 하락은 금리 상승²⁷⁾을 의미한다. 미국채 금리 상승은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달러화의 가치를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의 산업구조는 서로 얽혀 있어 트럼프와 시진핑은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으면서 재고가 소진되는 3개월 안에 협상할 것이라는 예측²⁸⁾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미중간 합의에 2년이나 걸렸고, 중국 역시 최근에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2기에서 1차 협상 타결은 2026년 경에나 가시화 될 전망이다.

26) 헤럴드경제(2025.4.14.), ‘신동윤의 투자·지정학’.

27) 예를 들면 2026년 만기 액면가 100억\$ 국채(1년전 3% 금리로 97억\$에 구매)를 만기 전인 2025년 4월 9일에 팔려니 불경기 전망으로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1억\$ 손해를 보고 96억\$에 팔았다. 이를 만기 때 금리로 환산하면 4%(액면가 100억\$ 국채 96억\$에 매입)가 된다. 이렇게 오른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가 되어 국민 상환부담을 가중(소비심리 위축)시키고, 美정부의 국채이자 상환금도 늘려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

28) 중앙일보(2025.4.12), 세계시총 1위 Apple은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세계1위 전기차 Tesla는 40%를 중국에서 만든다. Walmart 판매의 60%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중국 내 생산이나 수입을 막으면 시가 총액 3.2조 달러가 영향을 받고, 이는 미국 GDP 11% 수준이다. [검색일자: 2025.4.13] www.joongang.co.kr/article/25328050.

【특별분과 I】 발표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와 중국 상하이 지역 경제 변화 — 전략적 충돌 속 중국상하이 경제의 구조 전환과 대응 전략

김 태 성*

【목 차】

1. 서론
 - 1)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상하이의 지정학적 위치
2. 본론
 - 1)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의 전개 양상과 중국의 대응 전략
 - 2) 상하이 경제 구조의 변화와 성장 전략
 - 3)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금융 제조업 기술 소비 부분 중심으로
3. 결론
 - 1) 도시 경제의 구조 전환과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
 - 2) 회복탄력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초 록 】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상하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무역, 금융, 소비 패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였다. 상하이는 중국의 대표적 경제 중심지로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미중 간의 갈등 심화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 결과, 대미 수출 감소, 외국인 투자 축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부정적 영향이 단기적으로 관측되었으며, 이는 제조업과 금융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내수 시장 육성 정책, 기술 혁신 투자, 무역 파트너 다변화 전략을 통해 상하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제적 전환 속에서 상하이 지역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적·산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장기적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키워드】 미중 무역전쟁, 상하이 지역 경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자립 전략

* 제1저자. 창신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외래 교수 (truthway88@naver.com)

1. 서론

1)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상하이의 지정학적 위치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서 기술, 안보, 통화, 가치관 등의 구조적 요인이 얹힌 양국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자국 기술 패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AI·5G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 주도의 기술 자립 전략을 전개하며, 무역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는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미중 무역 전쟁의 제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며,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전반에서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단기적 충동을 넘어 장기적 긴장 상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불안 등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동반하고 있다.¹⁾

기존 연구는 대부분 국가 차원의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지역 차원, 특히 중국 내 전략적 거점 도시의 반응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Shanghai)를 사례로 선정하여,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가 상하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구조, 소비 패턴, 투자 유입, 고용 환경 등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한다.

상하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금융업·유통업 등이 고도화된 도시로서, 미중 갈등에 따른 구조적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다.²⁾

본 논문은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중국 상하이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 및 도시 경제의 전환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중 무역 갈등의 배경과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상하이의 경제 전략 및 정책 변화, 산업 구조 재편 동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며, 나아가 중국 도시 경제의 미래 방향성을 조망한다. 본 연구는 상하이의 사례를 통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 지역 경제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의 전개 양상과 중국의 대응전략

2024년부터 강화된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25%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

1) World Trade Organization. Goods 『Trade Barometer. Geneva: WTO, Third World Network』 2024 보도자료 참조.

2)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2025 <http://www.shanghai.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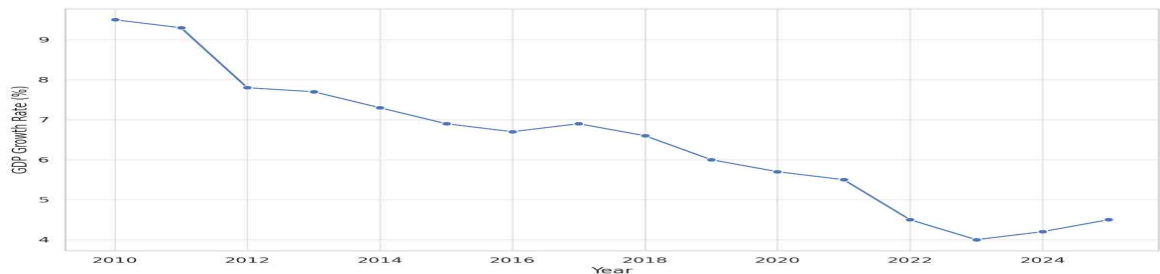
하는 조치로 나타났으며,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 배터리 등 첨단 산업군이 주요 타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18%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출처: WTO, 2024), 상하이의 제조업 및 항만 물류산업에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내수 중심 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ASEAN과의 무역 확대를 위한 FTA 재협상 및 일대일로 연계 강화, RCEP 활용 등을 통해 무역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2023년 기준 동남아와의 무역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³⁾하였다.

2) 상하이 경제의 구조의 변화와 성장 전략

2010년대 초반부터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쇼윈도"로 불릴 만큼 개방과 성장의 상징적 도시로 평가받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은 약 7.2%를 기록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22억 달러에서 175억 달러로 증가⁴⁾하였다.

<그림1> 상하이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2010~2025)



출처: Shanghai Municipal Bureau of Statistics, 202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2013년)과 글로벌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는 무역·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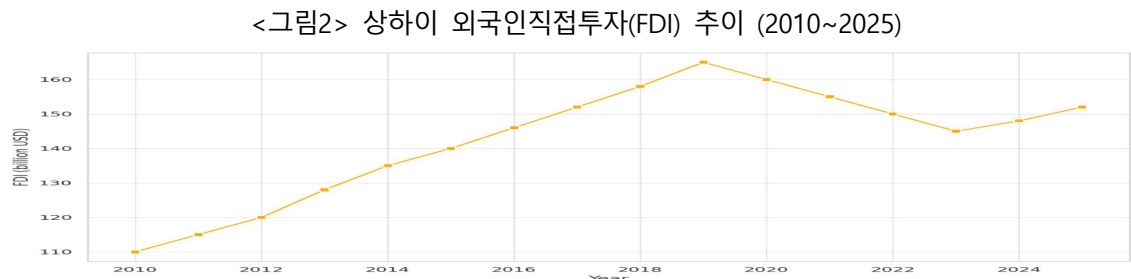
2019년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대미 의존도 축소와 산업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대미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상하이는 ASEAN, 유럽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무역 다변화를 추구했으며, 2023년 기준 상하이의 동남아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 및 투자 축소로 인해 자국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재편이 진행되었고, 반도체, AI, 신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되었다.

상하이는 R&D 클러스터 형성, 디지털 소비 시장 확대, 친환경 산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장기적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

3) "THE IMPACT OF ONGOING U.S.-CHINA TRADE TENSIONS ON GLOBAL SUPPLY CHAINS IN 2024" 발간 『International Trade Council』

4)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Shanghai announces steps to stabilize foreign investment [2025]』
<https://english.shanghai.gov.cn/>



출처: People's Bank of China, 2024

3)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금융 제조업 기술 소비 부분 중심으로

(1) 금융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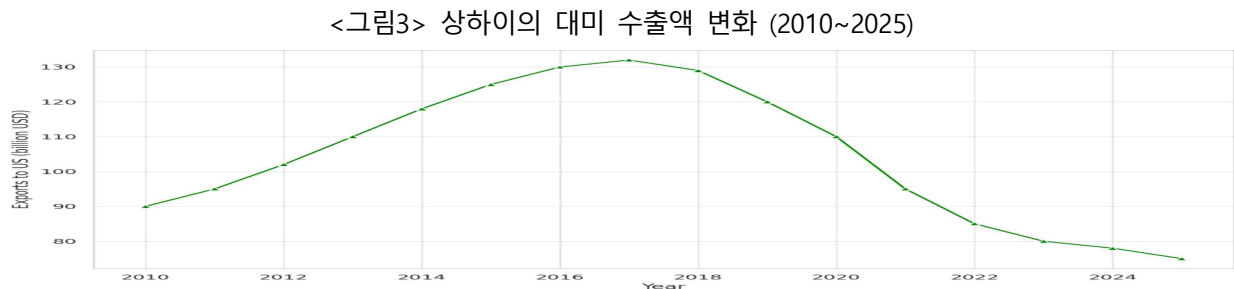
상하이는 중국의 대표 금융 허브로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본사가 집중된 지역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산 전략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철수 및 아시아 본사 이전이 감지되었고, 이에 따라 상하이의 금융 부문 외국인 FDI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2.3% 감소⁵⁾하였다.

위안화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하이 증시의 외국인 비중은 4%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보급, 내국인 투자 유도 정책,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2) 제조업 및 무역 산업

상하이는 전자, 기계, 화학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2024년 상반기 기준 대미 수출은 18.5% 감소하였고, 일부 제조기업은 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출처: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상하이 항만의 대미 물동량도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 제조기업 세제 지원, 기술 고도화, 상하이 제조업 전환 전략(2023~2028) 등을 통

5) 출처: 『중국 인민은행』 2024 <https://www.pbc.gov.cn/>).

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3) 과학기술·혁신 산업

미국의 반도체 및 AI 관련 제재로 인해 상하이의 첨단기술 기업들은 외부 의존도 감소와 기술 자립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SMIC, 화홍 반도체 등 기업에 대한 국유 자금 투입이 증가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2024년 기준 3,800억 위안을 투자⁶⁾하였다. 상하이는 AI·바이오·신에너지 분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R&D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 소비재 및 유통 산업

상하이의 소비재 및 유통 산업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외국 기업 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가 본격화된 2024년 이후, 상하이 소비 시장의 중심축은 해외 수입 브랜드에서 국산 브랜드 중심의 실용 소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해외 명품브랜드의 신규 입점은 급감하였고, 럭셔리 브랜드 샤넬·루이비통·프라다 등의 고가 제품은 고관세와 소비세 부담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였다. 반면 화웨이, 샤오미, 리닝, 안타 등 중국산 브랜드는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하이 도심 소비자들에게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산 브랜드의 전체 소비재 시장 점유율은 30%를 초과⁷⁾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상하이의 명품 소비 시장은 2023년 성장률이 4.7%로 둔화⁸⁾ 되었으며 고소득층의 자산 가치 하락, 금융 시장 불안정성, 해외여행 제한 등이 겹치며 전체적인 수요 위축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조정보다는 장기적 소비구조 재편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고급 소비보다 실용 소비와 가치 소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소셜 커머스 등 디지털 유통 채널의 확산은 소비 접근성을 강화 시키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시민의 63% 이상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활 소비를 한다는 조사 결과⁹⁾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소비 위축의 심화와 소비심리 저하 현상도 두드러진다. 상하이시 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소비자 신뢰지수는 91.7로, 팬데믹 이전 수준인 108.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 실질소득 정체, 주택시장 침체 등의 거시적 요인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유통업계의 수익성 악화,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은 유통 기반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상하이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적 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 강화, 공정 소비 환경 조성, 지역 상권과 대형 플랫폼 간 균형 전략 등이 요구되고 있다.

요컨대, 상하이의 소비재 및 유통 산업은 미중 갈등이라는 외생적 변수와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

6) 출처: 『중국 과학기술부, 정보 공개 및 통계 보고서』 2023년
<https://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kjtjbg/> [2024.10.02.]

7) 『중국 국가통계국』 2024.09. <https://www.stats.gov.cn/>

8) Bruno Lannes, Weiwei Xing 『China Luxury Goods Market: A Year of Recovery and Transition』
<https://www.bain.com/insights/2023-china-luxury-goods-market/> [2024.03]

9) 인천연구원 『최신중국동향』 『2024 상하이 디지털 소비현황』 제371호 202405 p.2

는 내생적 동인이 결합 된 복합 구조 속에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소비의 질적 전환과 새로운 유통 모델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도시 경제의 구조 전환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 제2라운드가 중국 상하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양상을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다. 상하이는 미중 간 갈등의 최전선에 놓인 대표적 글로벌 도시로서, 제조업, 금융, 소비재 산업 전반에서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급감,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글로벌 기업의 철수, 기술제재 강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하이 산업 생태계의 불안정성과 고용시장 위축을 심화시켰다.¹⁰⁾

소비 부문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고급 소비 둔화,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었고, 특히 실질소득 정체와 청년 실업률 상승은 내수기반의 위축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¹¹⁾ 이러한 소비 위축은 도시의 경제 회복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 진작을 위한 단기적 부양책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상하이 및 주요 전략 도시들의 산업 구조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기반의 고도화¹²⁾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재정지원, 고용유지 보조금 등의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 안정성과 소비 진작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경제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 디지털 위안화 보급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스마트 상권 조성 등의 정책은 상하이의 신소비 생태계를 형성하고 내수시장의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¹³⁾이 될 것이다.

넷째, 무역 다변화 전략은 중국의 외교적 선택지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같은 수출 의존 도시의 회복 전략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특히 RCEP 체제와 일대일로 정책을 실질적 통상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전략이 병행¹⁴⁾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 회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도시 내 중하위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청년 및 노령층 고용 확대, 공정 유통 생태계 조성 등이 이에 포함¹⁵⁾된다. 이러한 복합적 정책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상하

10) Zhou YuJie 「제2회 국제 비즈니스 및 정책 연구 학술대회 CONF-BPS」,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Economy of Shandong Province and Countermeasures』 2023 pp. 1169 - 1182

11) “재인용” 인천연구원 「최신중국동향」 『2024 상하이 디지털 소비현황』 제371호 202405 p.2

12) 한국무역협회 『北京大学经济学院』, 2024]

13)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2024년 4분기 중국 통화정책 보고서』 20250318, <https://www.pbc.gov.cn/en/3688229/3688353/3688356/5188141/5621959/2025031810171484852.pdf>

14)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Shanghai unveils comprehensive plan to boost consumption in 2025』, <https://www.shanghai.gov.cn/nw1234567/20250115/0001.html> [2025.01.15]

15) “재인용” 인천연구원 「최신중국동향」 『2024 상하이 디지털 소비현황』 제371호 202405 p.2

이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

향후 연구에서는 상하이 외에도 선전, 베이징, 충칭 등 중국 내 주요 도시들과의 비교를 통해 도시별 정책 효과와 지역 전략의 차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2025)의 분석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자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상호의존을 조율할 수 있는 다층적 협력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상하이와 같은 지역 경제의 구조 전환과도 맞물려 실증적 비교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 연구가 향후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별분과 II】 발표

중국의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 다극화 세계에서의 에티오피아 사례*

베텔 게브루** · 임기대***

【목 차】

1. 서론
2. 역사적 배경: 중국-에티오피아 관계
3. 중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협력 분야
4. 에티오피아의 대중국 파트너십에서의 주체성
5. 더 넓은 함의: 에티오피아의 경험이 보여주는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본질
6. 결론

【 초 록 】

이 논문은 중국-아프리카 관계와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의 광범위한 틀 속에서 중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발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분석한다. 중국의 인프라 중심, 비조건적 접근 방식이 에티오피아의 국가 주도 개발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탐구하며, 이는 거버넌스 개혁과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서구의 원조 모델과 대조되는 대안을 제공한다. 역사적 유대, 주요 협력 분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변화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대응을 특히 고려하여, 본 논문은 에티오피아가 점점 더 전략적 다원주의(strategic pluralism) 전략을 수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에티오피아가 다극화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주체성을 시험하는 사례로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활용하여 주권을 보존하고,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며, 자국의 조건에 따라 발전 경로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키워드】 아프리카 관계, 에티오피아, 전략적 파트너십, 미국 대외 정책,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남남 협력, 다극화, 개발 외교

* 2025년도 대한중국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를 위해 준비된 발표원고

** 제1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bethelg@gmail.com)

*** 공동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dlarleo@daum.net)

1. 서론

지난 20년간 중국은 글로벌 지정학의 중심적인 행위자로 부상하며, 특히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에서 국제 협력의 역학을 재구성해왔다 (Batsani-Ncube, 2025).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상당한 관심과 논쟁, 학문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인프라 개발에서 무역, 외교에서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이라 부르는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는 상호 발전과 정치적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MoFA, 2021). 이 가운데 에티오피아는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두드러진다.

중국의 아프리카와의 관계는 전통적인 서구의 개발 협력 접근 방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연결성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양자 채권자가 (전체 대외부채의 30%를 차지함)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대화 경로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UNDP, 2023).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서 에티오피아의 중요성은 그 전략적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야망을 반영한다 (Hairong & Sautman, 2023). 서구 파트너들과 달리, 중국은 국가 대 국가 협력, 인프라 중심 성장, 국내 정치 불간섭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모델을 제공하며, 이는 자국의 조건에 따라 급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틀로 작용하고 있다 (Brautigam, 2020; Liu, 2019).

중국-에티오피아 관계의 심화는 특히 미국의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변동하는 글로벌 권력 역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책은 지속성을 유지했으나 혁신은 부족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명백한 탈퇴 및 때로는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이는 에티오피아의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 분쟁과 관련하여 원조를 중단하거나 주요 아프리카 파트너들을 소외시키는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Taylor, 2020; Kassahun, 2020; Gavin, 2020).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은 아프리카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의 무대로 재구성하면서도 중국의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외교적 공백을 능숙하게 채우도록 하였고,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보다 일관되고 실용적인 파트너로 자리잡게 하였다.

중국의 매력은 에티오피아의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대응력에서도 더욱 강화되었다. 21세기 초반 동안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였던 에티오피아는 상당한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대륙에서 중국의 개발 모델을 실험하는 실험실 역할을 해왔다 (Corkin, 2013; Alden & Large, 2019).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 건설, 산업 단지 건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조-수혜 관계를 넘어서 더욱 깊고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중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본질과 그 함의를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탐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 중국과 에티오피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2. 이 파트너십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3. 에티오피아는 이 파트너십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고 있으며, 주체성을 행사하고 있는가?
4. 에티오피아의 경험은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더 넓은 패턴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방법론적으로, 이 논문은 학술 문헌, 정책 문서, 정부 보고서, 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질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중국-에티오피아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에티오피아를 사례 연구로 선택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외교 및 개발 이니셔티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증가하는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중국의 아프리카에서의 역할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지역의 정치적 역학, 국가 발전 목표, 그리고 글로벌 권력 변화가 현대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윤곽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실용주의와 주권에 기초한 에티오피아의 외교 전략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경쟁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2. 역사적 배경: 중국-에티오피아 관계

중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195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양국의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21세기 들어 에티오피아의 경제 개혁과 중국의 아프리카 내 역할 확대가 본격화된 이후이다.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로서 독특한 국제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민지 경험을 겪는 동안 에티오피아는 식민지를 면했으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강대국들과 강력한 외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

1960~1970년대 동안, 중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주로 냉전 역학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시기 베이징은 소말리아와의 갈등 동안 에티오피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에티오피아가 경제 개혁을 도입하고 양국의 정치적 환경이 변화한 이후였다. 2000년대 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투자와 외교적 존재감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이 천연자원 확보와 전략적 무역 경로 구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독특한 지정학적 및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아프리카 연합 본부가 위치한 대륙의 외교 수도로서 지역 안정과 정치적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중요한 해상 경로와 인접한 혼란스러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보안과 상업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글로벌 강대국들에게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다 (Berhane, 2025; Tadesse, 2024).

중국은 일찍이 에티오피아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대규모 인프라 개발, 무역 확대, 역량 구축을 기반으로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Brautigam, 2020; Tan-Mullins et al., 2010). 베이징의 에티오피아 접근법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나타나는 협력 모델의 핵심 요소를 반영한다. 즉,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 자금 지원, 국내 통치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성과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이다. 중국의 에티오피아 내 투자는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 동부 산업 단지(Eastern Industrial Zone), 화웨이(Huawei) 및 ZTE와 같은 기업을 통한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상징적인 프로젝트들을 포함한다 (Corkin, 2013).

이러한 실용적이고 개발 중심의 접근 방식은 서구 원조가 종종 정치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에티오피아 지도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인프라,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모델이 되었다.

서구의 전통적인 원조국들과는 달리, 중국은 정치적 자유화나 특정한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대출 및 개발 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불간섭(non-interference)' 원칙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인권 문제, 티그라이(Tigray) 전쟁, 그리고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 분쟁 등으로 인해 악화되면서 에티오피아에서 강하게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Kassahun, 2020; Berhane, 2025).

미국이 원조 및 외교적 협력을 내부 개혁과 연결짓기 시작하자, 에티오피아는 자국의 개발 목표를 지속하고 주권 정책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중국-에티오피아 파트너십의 주요 이정표

1) 초기 외교 및 1970년대: 초기 중국의 에티오피아 개입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선 연대 운동을 기반으로 했다. 1970년대,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Mengistu Haile Mariam)이 이끄는 에티오피아의 사회주의 정부는 중국과 연대하였고, 소말리아와의 오가덴 전쟁(Ogaden War)에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이는 양국 간 외교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2) 1990년대: 경제 개혁 및 협력 확대: 1991년 에티오피아 내전 종료와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 전선(EPRDF)의 집권으로 에티오피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아프리카 중시(Look Africa)' 정책은 자원 확보와 외교 및 경제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에티오피아는 중국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3) 2000년대~현재: 강력한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 2000년대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으며, 인프라, 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9년,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출처가 되었으며,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 건설은 양국 관계의 강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4)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 2013년에 출범한 중국의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는 에티오피아를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 계획 내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다. 인프라 프로젝트, 대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얻었으며, 중국에게는 중요한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트럼프 시대의 중국-에티오피아 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외교 정책은 아프리카와의 제한된 교류를 초래하였고, 특히 다자주의 후퇴, 외국 원조 축소, 민주적 거버넌스와 인권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더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에티오피아는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발을 우선시하면서, 정치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에티오피아의 발전 궤적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더 넓은 패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중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협력 분야

지난 20년간 중국과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인프라, 무역, 투자, 기술, 외교, 안보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다. 에티오피아에게 중국은 야심 찬 개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본, 기술, 전문성을 제공한다. 반면 중국은 점점 더 중요한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의미를 지닌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된 게이트웨이로서 에티오피아를 활용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 중국과 에티오피아 간 협력의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이다. 중국 정책 은행의 양허성 대출로 뒷받침된 중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도하였다. 여기에는 도로, 수력 발전 댐, 산업 단지, 통신 인프라가 포함된다.

특히,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Addis Ababa - Djibouti Railway)는 양국 간 협력의 상징적인 결과물이다. 이 40억 달러 규모의 전철화 철도는 중국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하였으며, 지부티를 통해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내륙국가인 에티오피아의 무역 물류에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다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로는 고속도로, 발전소, 통신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대부분 중국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영 기업들이 수행하였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은 에티오피아의 물리적 연결성, 산업 확장, 도시 현대화를 우선시하는 국가 주도의 개발 모델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 및 경제특구: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산업화 추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동부 산업 단지(Eastern Industrial Zone, Dukem)와 하와사 산업 단지(Hawassa Industrial Park)의 설립은 중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부문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산업 단지는 중국 및 기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제조 허브로 자리 잡고자 하는 목표를 뒷받침하였다. 비록 일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들 산업 단지는 에티오피아의 발전 서사에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농업 기반 경제에서 산업 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섬유, 가죽, 제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주요 출처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역 관계는 비대칭적인 경향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기계 및 제조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비록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서구 금융 및 시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에티오피아의 개발 전략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기술 및 통신 협력: 중국 기업, 특히 화웨이(Huawei) 및 ZTE는 에티오피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와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는 이러한 협력은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연결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협력은 디지털 주권과 감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당국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연결성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고 있다.

외교 및 안보 협력: 에티오피아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중국 관료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평화 유지 기여를 지원하고 보안 인력을 훈련하는 등 안보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위치(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 근처)는 베이징의 광범위한 해양 및 보안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전과 과제: 중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여러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일부 문제들이 존재한다.

중국의 대규모 대출로 인한 부채 부담은 에티오피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기술 이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중국 프로젝트가 현지 콘텐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중국과의 향후 대출 및 투자를 더욱 전략적으로 협상하여 국가 우선순위 및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비교: 중국의 접근 방식은 서구, 특히 미국과의 접근 방식과 크게 다르다. 미국의 원조

는 종종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거버넌스 프로그램에 집중되며, 민주주의 및 인권 문제를 강조한다. 반면 중국의 접근 방식은 인프라 외교 및 경제적 실용주의에 기반하며, 에티오피아의 개발 목표와 더 밀접하게 일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및 대테러 작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장기적인 개발 원조와 지역 외교 참여는 축소되었다. 특히 티그라이(Tigray) 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지연되고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은 아디스아바바의 관점에서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에티오피아의 개발 목표와 긴밀하게 맞아떨어지며,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의 철수와 거래적 외교 접근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중국의 인프라 중심, 비조건적 접근 방식은 에티오피아의 발전 목표와 더욱 긴밀히 부합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의 정책 후퇴는 에티오피아가 중국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 협력 관계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기, 에티오피아와 미국 간 관계가 긴장 상태에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성을 얻게 되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그의 행정부는 아프리카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의 전장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프리카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무역, 금융, 인프라 부문에서 이미 중국이 깊숙이 자리 잡은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의 상황을 무시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Prosper Africa'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아프리카 개입을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지만, 이는 에티오피아의 개발 맥락과 부합하지 못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에티오피아와 미국 간의 긴장은 특히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 협상과 같은 고위급 외교 사건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집트의 편에 섰으며, 이 사건은 에티오피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동시에, 워싱턴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에티오피아의 주권적 이익과 충돌한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반면, 중국은 정치적·재정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Africa CDC) 본부를 아디스아바바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이 두드러졌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금으로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외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인프라 우선', '비조건적 접근'은 점점 더 에티오피아의 개발 아젠다와 부합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정책이 점차 아프리카와의 거리 두기 및 거래 중심 외교로 전환되자, 에티오피아는 중국에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이해관계에 기반한 협력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 특히 제조업, 물류, 국가 주도 개발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은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으로 작용하였다.

4. 에티오피아의 대중국 파트너십에서의 주체성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교 관계에서 종속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중국과의 협력은 상당한 수준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에티오피아는 단순히 원조나 투자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중국의 자원을 자국의 개발 목표에 전략적으로 맞추어 활용하고 있다. 신중한 정책 기획과 국가 주도의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 에티오피아 당국은 인프라 확장, 산업화, 경제 변혁 등 국

내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양국 파트너십의 윤곽을 형성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때,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을 이유로 워싱턴이 선호하는 속도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결정은 아디스아바바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개발 전략에서 주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미국 정책의 변동성과 에티오피아의 대응

에티오피아의 대중국 접근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지만, 주로 대테러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관계는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Taylor, 2020).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외교 관계가 우호적이었지만, 아프리카는 미국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다. 에티오피아와의 관계는 주로 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춘 거래적인 성격이 강했고, 새로운 전략적 투자나 경제 협력은 제한적이었다.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급진적인 방향 전환을 보여주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정책은 아프리카의 중요도를 낮추고, 개발 협력을 노골적인 거래주의로 대체했다. 2020년, 미국은 에티오피아의 GERD(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협상 입장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조를 중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가 "댐을 폭파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Kassahun, 2020; Gavin, 2020; Tadesse, 2024). 이러한 발언과 보진,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한 주요 부문에 대한 예산 삭감은 정치적 강압일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주권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무시한 행위로 해석되었다.

AGOA 자격 박탈과 경제적 타격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2022년 티그라이(Tigray) 분쟁 중 발생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자격을 박탈했다. 이 결정은 특히 섬유 산업 부문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며 에티오피아의 수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물론 인권 문제는 정당한 우려 사항이지만, 이러한 조치의 조건성과 시기는 에티오피아 내부에서 미국 정책이 일관성 없고, 반응적이며,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는 인식을 강화하였다.

대중국 협력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인프라 투자, 개발 대출, 기술 협력을 제공하면서도 내정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았다.

외교적 지원: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주권을 존중하며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피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경제 협력의 지속성: 중국은 미국과 달리 경제적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아프리카 CDC 본부 건립 지원: 미국이 프로젝트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디스아바바에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본부 건립을 지원하였다.

에티오피아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접근 방식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 정책 후퇴와 비교하여,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루비오 국무장관 하의 미국의 압박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가 국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에티오피아에 대한 압박을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Kabeta, 2025).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건설적인 대화나 에티오피아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오히려 에티오피아의 대중국 기율기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조정 능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외교적 헤징과 전략적 가치 유지

에티오피아는 증가하는 지정학적 압력 속에서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하는 외교적 헤징(diplomatic hedging)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내부 안정 유지: 경제 개혁을 지속하면서도 국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이니셔티브 강화: 바다 접근 문제나 평화 유지 역할과 같은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글로벌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적 가치의 보존: 에티오피아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가치 있는 파트너로 남아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에티오피아는 단순히 중국의 영향력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을 자국의 발전 목표와 주권 보호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일관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에티오피아의 경험이 보여주는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본질

에티오피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중국의 아프리카 내 역할뿐 아니라 대륙이 글로벌 질서에서 점점 더 복잡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 관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요 강대국들 간의 경쟁 속에서도 자국의 개발 목표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에티오피아 접근 방식은 장기적 투자, 정책 일관성, 인프라 및 산업화에 대한 집중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서구의 개입과 비교할 때 매력적으로 여겨진다. 에티오피아의 사례는 특히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야심 찬 경제 목표를 추구하려는 아프리카 정부들에게 중국의 실용적이고 비조건적인 개발 협력 모델이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보여준다.

에티오피아의 사례는 21세기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강력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 사례는 장기적 계획, 국가 간 외교, 인프라 중심 성장이라는 특징을 지닌 중국의 대아프리카 접근이,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개발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정부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공감을 얻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모델은 조건부 서구 원조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에티오피아는 유연성과 일관성, 그리고 자국의 국가적 우선순위를 존중한다는 인식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환영해 왔다. 도로, 철도, 수력발전소, 디지털 시스템 등 중국 자금으로 추진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에티오피아의 경제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촉매 역할을 해왔다.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 산업단지 개발, 전기차 전환 등은 모두 중국 기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진행된 핵심 사업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에티오피아의 경험은 이 모델이 제공하는 기회와 한계를 모두 보여준다. 중국의 내정 불간섭 정책은 외교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거버넌스, 인권,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지기도 한다. 티그라이(Tigray) 위기 당시 중국은 침묵을 유지한 채 경제적 협력을 계속했으며, 이는 일부에게는 실용적 행보로, 다른 이들에게는 문제를 조장하는 태도로 해석

되었다.

더욱이, 중국의 투자는 현지에서 여러 비판도 받고 있다. 부채 지속 가능성, 중국 기업의 시장 독점, 제한적인 기술 이전, 임금 격차 등은 지속적인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 노동력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차관 조건을 재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볼 때, 에티오피아의 외교 전략은 새롭게 부상하는 다극적 실용주의를 보여준다. 미중 경쟁이 재점화되는 상황 속에서,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는 양자택일의 구도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여러 파트너와의 전략적 관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교한 외교 전략, 제도적 역량, 명확한 개발 비전이 필요하며, 이는 에티오피아가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들이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아프리카 관계에 있어 보다 넓은 함의를 지닌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그들은 선택을 하고, 조건을 협상하며, 결과를 형성해 나간다. 에티오피아의 중국과의 경험은,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도 전략적 명료성과 제도적 지렛대가 뒷받침된다면 아프리카의 주체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권력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의 정교한 외교 전략은 주권을 지키면서도 복잡해지는 세계 질서 속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접근 방식은 다극화 세계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떻게 주권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을 완화하며,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제공한다. 특히, 에티오피아가 지속적인 국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이니셔티브(예: 바다 접근권, 평화 유지 역할)를 글로벌 차원에서 유익한 방식으로 틀 짓는 능력은 앞으로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결국, 에티오피아의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글로벌 권력 경쟁 속에서도 어떻게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길을 개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6. 결론

에티오피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글로벌 권력 관계의 변화와 아프리카의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잘 보여준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인프라, 무역, 산업화 분야에서 국내 개발 목표를 추진하는 한편,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에도 능숙하게 대응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와 현재 모두는 미국-아프리카 관계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거래적 외교, 원조 축소, 그리고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은 에티오피아가 워싱턴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GERD 협상에서의 갈등,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본부 건설 강행 등은 에티오피아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전략적 선택을 좌우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맹목적으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연하고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면서,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자국의 우선순위를 통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에티오피아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유리할 때 협력하고, 과도한 압박은 저항

하면서, 자국의 조건에 따라 발전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에티오피아의 경험은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점점 더 다극적 세계에서 주체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전략적 균형 유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활용하면서도 자국의 주권을 보존하는 능력. 포용적 개발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며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

지역 외교에서의 리더십: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에서의 평화 유지 및 협력 증진을 주도하는 능력. 중국과의 심화된 파트너십은 아프리카의 글로벌 참여 방식에서 더 넓은 변화를 반영한다. 전통적인 서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다양화된 다극적 동맹이 대체하고 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산업 개발, 그리고 불간섭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종종 서구의 조건부 원조와 거버넌스 중심 접근과 비교되며,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몇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중국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에티오피아의 경제적 자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

현지화와 기술 이전의 한계: 많은 중국 프로젝트가 현지 콘텐츠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반면,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에티오피아 접근은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인도주의적 지원에서부터 강압적 외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보인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원조 중단, AGOA 자격 박탈, 자극적인 발언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민 여론 양측을 소외시켰다.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문제에 대한 압력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나 에티오피아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에티오피아를 중국의 영향력으로 더 깊이 밀어 넣을 위험이 있다.

글로벌 권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티오피아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에티오피아는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글로벌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서 에티오피아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정치적 종속을 피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포함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안보 협력과 지역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독립적인 개발 전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티오피아의 경험은 21세기 아프리카-중국 관계의 미래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사례는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기회와 복잡성을 모두 강조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자신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새로운 아프리카 외교 시대를 예고한다. 이는 자신감 있고, 다양화되며, 아프리카의 우선순위에 중심을 둔 외교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에티오피아의 균형 유지 전략은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주체성이 증가하는 더 넓은 경향을 반영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이상 외부 의제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며, 점점 더 글로벌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자국의 조건에 맞게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능력이 주권을 보존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사례는 다극적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특별분과 II】 발표

중국의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전략과 시사점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장 정 재*

【목 차】

1. 서론
2. 본론
 - 1)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개념
 - 2)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중요성
 - 3) 중국에 있어 글로벌사우스의 전략적 의미
 - 4) 미국 트럼프 2.0 시대 중국에게 있어 글로벌사우스의 의미와 아프리카 전략
 - 5) 중국 기업의 남아공 투자 및 전략적 가치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초 록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전략경쟁 격화는 글로벌사우스의 지정학적·경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자원 확보를 둘러싼 미중의 각축장이자 신흥 시장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 역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략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사우스 국가 및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본 논문은 중국의 글로벌사우스 전략 중 아프리카지역과 남아공 중심으로 분석하고, 성과와 당면 과제 평가 아래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사우스 전략에 대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키워드】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미국 트럼프 2.0 시대

* 제1저자.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allaa7@naver.com)

1. 서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정책을 분명히 한다. 이는 기존 동맹국과의 결속력 약화, 다자주의 붕괴, 국제원조 축소를 동반하며, 글로벌 사우스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글로벌사우스는 이 새로운 질서에서 협상자, 자원 보유자, 규범 창출자의 삼중적 지위를 획득하며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대응방안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중국은 기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 체제 공고화에 대한 대응으로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 측면에서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중국에게 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국가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글로벌사우스 전략 중 아프리카지역과 남아공 중심으로 분석하고, 성과와 당면과제 평가 아래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사우스 전략에 대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본론

1) 글로벌사우스 개념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는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 유행어로, 신흥 시장 국가와 개발 도상국의 집합을 가리킨다. 처음 BRICs 시작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4개국으로 시작해서 2010년에 남아공이 합류를 했다. 그리고 2023년 8월 BRICs 정상회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6개 국가의 새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였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는 1969년 정치 운동가 칼 오글스비(Carl Oglesby)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당시 진보 성향의 가톨릭 잡지인 커먼웰에 기고한 글에서 베트남 전쟁이 북부의 ‘글로벌사우스 지배’ 역사의 정점이었다고 서술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는지 여부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5000달러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사우스로 분류한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로프 트래거는 유엔에 있어서 ‘글로벌사우스’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손쉽게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사우스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으로 지칭되는 국가가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단, 단순화하기 어렵다. ‘글로벌사우스’가 일정한 기준이나 관점으로 묶인 집단은 아니며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을 일컫는다.

2)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중요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전략경쟁 격화는 글로벌사우스의 지정학적·경제적 가치를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자원 확보를 둘러싼 미중의 각축장이자 신흥 시장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 역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략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러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즉, 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 및 주요 도시들과 협력관계를 확대·강화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어서 특정 국가에 한정된 자매·우호 협력관계나 국제교류 활동을 이제는 남미·아프리카권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전환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의 지정학적 부상)미국의 고립주의 vs. 중국의 확장 전략:

트럼프 2기는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 요구, 중국과의 무역갈등 격화될 전망으로 인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은 만일 미국의 지원 감소에 대응해 실용적 협력 파트너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사우스를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 투자(일대일로), 광물 협정, 기술 표준 확산을 가속화 하는 등 적극적 협력 공세를 펼칠 것이다. 2023년 이후 중국은 자국이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 견제를 위한 연대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3) 중국에 있어 글로벌사우스의 전략적 의미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브릭스(BRICS) 정상 대화에서 세계적인 대변화 속에 브릭스 협력 메커니즘이 어떻게 국제질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 할애를 했다. 시진핑 주석은 ‘평화’, ‘발전’, ‘문명’이라는 핵심 단어 강조 속에 ‘3대 명제’를 제시했다. 첫째,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안보를 달성한다. 둘째, 개발을 활성화하고 (모두의)보편적 번영을 달성한다. 셋째, 함께 문명을 발전시키고 다양성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개발 구상, 글로벌 문명 구상의 진전된 이행 상황을 소개하고 중국이 ‘글로벌사우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여 국제 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일으켰다.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를 견제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세력권’ 구축으로써 목적이다. 중국정부는 인프라 투자, 금융 지원, 군사 협력, 기술 이전, 문화 교류를 결합한 ‘패키지형 전략’ 사용하는 방법론을 채택했다.

4) 미국 트럼프 2.0 시대 중국에게 있어 글로벌사우스의 의미와 아프리카 전략

미국이 글로벌사우스 일부 국가들(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과 개별 양자협상 통해 ‘反중국 전선’에 끌어들이려 하는 움직임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동맹국가에 대한 안보 역할분담 강화함에 따라 EU, 일본 같은 기존 G7 동맹국과의 긴밀성은 약화되는 반면에, 미국은 개별 자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사우스와 직접 거래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미국 중국 디커플링과 새로운 투자 이니셔티브 조성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사우스 국가와 친선 강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글로벌사우스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국제무대에서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 금융 지원, 군사 협력 등 다방면 전략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프리카 현지국가들에게는 부채위기, 정치적 종속, 반중 정서라는 중장기적 리스크를 함께 키우고 있다. 향후 중국은 아프리카 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현지국가들의 금융 부채 부담을 개선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자율성 존중이라는 방향 전환이 없이는 지속적인 전략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아공은 중국의 글로벌사우스 전략에서 핵심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남아공은 중국의 성장 동력을 일정 부분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 종속성, 정치적 논란, 사회적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향후 남아공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 또한 아프리카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지 수요를 존중하고, '상호이익' 원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중국 기업의 남아공 투자 및 전략적 가치

중국의 대남아공 누적 직접투자(FDI)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8억 4천만 달러, 남아공 내 중국 기업 수는 17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주요 투자 분야는 백금, 희토류 등 전략 광물 분야와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분야이다. 교통 인프라 투자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중국전력건설그룹(中国电力建设集团, Power China)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등 재생에너지 투자도 활발하다.

중국의 대표 전자회사 Hisense는 남아공 산업단지에 투자해서 연간 TV 100만 대, 냉장고 50만 대 생산한다. 남아공의 1,000명 이상 고용효과에도 기여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 규모, 정치적 안정성, 국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논의까지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채널이 된다.

금, 백금, 크롬 등 전략 광물의 주요 공급국으로 중국 제조업,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남아공을 통한 아프리카 대륙 시장 진출과 영향력 확장에 용이한 지역 허브 역할을 한다.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남아공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해 남아공의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밀리는 현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

고 있다.

남아공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현지 로컬기업에게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 등 현지화를 통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미국 단독 리더십 체제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글로벌사우스 역할은 극대화되는 경향으로 전개된다. 트럼프식 협상 모델(Deal Making)이 글로벌사우스에도 적용되는 협상형 외교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다.

트럼프 2기 시대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글로벌사우스가 국제질서의 핵심 변수이자 지정학적 경합지역(swing state)이다. 글로벌 초불확실성 시대에서 경제·기술·자원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선진국은 물론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지역과의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이 지역과의 협력을 소홀히 할 경우, 중국 등 경쟁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기술·경제 주도권 상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별분과 II】 발표

초국가적 이슬람 공동체와 국가 경계 연구
— 중국과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의 종교 실천과 공동체 연구

진 소 영*

【목 차】

1. 서론
2. 중국-아프리카 관계
 - 1) 역사적 배경
 - 2) 경제
 - 3) 외교
3.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
 - 1) 인구 분포 및 종교 실천
 - 2) 종교 실천과 공동체 구조
 - 3) 중국의 종교 규제와 대응 전략
4. 아프리카 내 중국인, 후이족 및 중국기업의 이슬람 접촉
5. 결론

【 초 록 】

이 연구는 중국과 아프리카 간 초국가적 이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종교 이주에서 보여지는 경제활동과 이주의 맥락과 환경을 고찰한다. 지금까지 중국과 아프리카를 다룬 연구는 주로 경제 협력과 정치 외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와 정착, 종교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와 아프리카 내 중국인 무슬림 혹은 중국인 공동체가 어떻게 이슬람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공동체가 양 지역에서 비공식 상업 활동, 신앙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본과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슬람이 단지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이주와 정착, 공동체 정체성, 경제 네트워크 형성 등 이주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키워드】 이슬람 디아스포라, 트랜스내셔널 공동체, 중국-아프리카 관계, 종교적 공간의 재구성

* 제1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jsy13907@naver.com)

1. 서론

21세기 들어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지난 2024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아프리카의 상생 협력 및 긴밀한 운명 공동체 건설’이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53개국¹⁾ 지도자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을 개최했다. 3,200명의 해외 인사가 참여했고, 그중 아프리카 국가원수는 40명, 정부 수뇌는 10명, 부국가원수 1명,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 AU) 집행장과, 아프리카 장관급 인사 240명이 참석했다²⁾. 상대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보다 일찍이 아프리카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일례로, 중국은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약 5만 명의 중국 기술자와 노동자를 투입하여 탄자니아-잠비아 간 1,860km를 잇는 Tazara 철도를 건설하였고, 이는 당시 아프리카 최대의 인프라 프로젝트였고,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은 이 철도 건설 요청을 거절했고, 소련 역시 군사 및 경제적 영향력에만 주력했지만, 기반 시설에는 소극적이었던 점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다³⁾.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王毅, WANG Yi)는 2025년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차드, 콩고공화국,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4개국을 순방하였다. 이는 지난 35년간 중국이 연초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상 주체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2025)에 따르면, 중국은 공적 개발원조, 인프라 건설, 개발 금융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채 부담 증가, 생태 환경 파괴, 자원 중속,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강화 등 잠재적 위험을 수반해왔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요구하며 투자 조건을 재검토하고 다자주의적 균형 있는 외교 등을 요구하고 있다⁴⁾.

중국과 아프리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경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의 이주 공동체를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와 아프리카 내 중국인 무슬림 혹은 중국인 공동체가 어떻게 이슬람적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양 지역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들 디아스포라는 중국의 제약에 어떻게 종교적 실천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아프리카 내 중국인 무슬림은 현지 무슬림 공동체와 어떻게 종교와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아프리카와 중국의 관계를 서술하고, 3장에서는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 공동체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아프리카 내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고찰하며 5장에서는 양측의 상호 작용 및 비교분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아프리카 국가 54개 중 에스와티니(Eswatini)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대만을 공식 승인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충하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에스와티니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2) 황규득, “[전문가오피니언] 2018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을 통해 살펴본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적 함의”, *EMERICS*, 2018.11.19.

3) Li, Yichao. *The Palgrave Handbook on China-Europe-Africa Relations*. Springer Nature. 2025, p.340.

4) Paul Nantulya, “What to Expect from Africa-China Relations in 2025”,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2025.01.07., <https://africacenter.org/spotlight/africa-china-relations-2025/> [2025.04.21]

2. 중국-아프리카 관계

1) 역사적 배경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아프리카 탈식민화 이후부터 본격화하였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회의에서 저우언라이(Zhou Enlai; 1898-1976)는 ‘평화공존 4원칙’을 발표하여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 상호불가침 · 내정불간섭 · 평등과 호혜의 원칙 ·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여 중국은 약소국들의 경계심을 해소하고 미국과 소련 냉전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비동맹 그룹’을 이끄는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아프리카 외교의 첫발을 디뎠다. 그 후 지금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 국가와 수교했다. 중국은 1950년대 말~1970년대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 Second Five Year Plan)과 문화대혁명(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의 혼란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멈추지 않았다⁵⁾. 1970~1975년 사이 중국의 차관으로 건설된 ‘Tazara 철도’가 대표적인데, 탄자니아 옛 수도인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과 잠비아의 카피리움포시(Kapiri Mposhi)를 연결하는 1,860km의 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은 9억 880만위안(약 1754억 원)의 무이자 차관을 제공했다⁶⁾.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은 1971년 유엔 총회에서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 회원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었는데, 이때 중국에 찬성표를 던진 76개국 가운데 26개국이 아프리카이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우수한 청년들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중국 대학에서 교육하여 친중 인맥을 형성해 왔다. 친중파가 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요직을 맡으면서 정치·사회적 지도자가 되고 친중 인사가 되었다⁷⁾.

2) 경제

중국은 과거 서구열강들이 무력으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적 지원을 명목으로 세력을 점차 확대해 왔다.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확대되었다⁸⁾. 2000년에 처음 설립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 - Africa Cooperation, FOCA C)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상대로 투자, 항만건설, 철도 교량 지원, 중국 지도자들 귀빈 초청 등 교류의 물꼬를 댔었다⁹⁾. 이후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발표하면서, 아프리카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¹⁰⁾.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 전략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건, 인종학살을 하건,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등을 표방한 서방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섰다¹¹⁾.

5) Van Ness, Peter.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3, p.29.

6) Vhumbunu, Clayton Hazvinei. "Enabling African Regional Infrastructure Renaissance through the China-Africa Partnership: A Trans-Continental Appraisal."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a Studies* 7.3 (2016), p.279

7) 지혜범, "중국 '돈, 백신' 싸들고 아프리카 공략하는 이유", 주간조선, 2021.07.21.,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91> [2025.04.15]

8) Muekalia, Domingos Jardo. "Africa and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African security review* 13.1 (2004): p.7.

9) Enuke, Chuka. "The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 A framework for China's re-engagement with Africa in the 21st Century." *Jurnal e-Bangi* 6.2 (2011): p.192.

10) Johnston, Lauren 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hat is in it for China?." *Asia & the Pacific Policy Studies* 6.1 (2019): p.43.

중국은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앙골라의 벵겔라(Benguela) 철도(앙골라의 중요한 철도로, 앙골라 로비토 항구와 콩고민주공화국 국경을 연결하는 1,344km 철도 노선),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756km), 몸바사-나이로비 고속철도(578km) 건설 과정에서 수만 명의 중국인 기술자와 노동자가 장기 파견되었다. 이들은 건설기지에 임시 모스크를 설치하거나 일부는 현지 무슬림 사회와 교류를 맺으며 소규모 후이족(Hui)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했다. 중국의 국유 건설기업(CSCEC, CREC 등)은 할랄¹²⁾ 식자재 공급과 라마단(Ramadan) 기간에 이프타르(Iftar)¹³⁾ 제공, 종교 휴무일 등의 방식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분적 수용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경제적인 투자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적 협상의 장이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할랄 상품 교역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후이족 기업은 할랄 인증 및 수출 절차에 특화된 민간 네트워크를 조직하였다¹⁴⁾. 특히, 나이지리아, 이집트, 수단 등 무슬림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산 할랄 식품, 할랄 의약품¹⁵⁾, 할랄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 상인들은 할랄 무역을 매개로 본국(기니, 말리, 세네갈 등)과의 역송금, 무역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카트, 하왈라 등을 포함한 종교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¹⁶⁾. 결과적으로 경제협력은 단지 물질적인 흐름을 넘어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 윤리를 매개로 하는 초국가적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은 인프라건설-무역-노동이주-할랄시장 등을 통해 종교적 실천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되었다. 아프리카 무슬림 이주자와 중국인 후이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활동과 종교활동을 접목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3) 외교

중국의 아프리카 외교는 ‘아프리카 국가 내정 불간섭’ 원칙과 ‘원조에 대한 정치적 조종 금지’를 핵심 원칙으로 해왔다. 서구 국가들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서 독재, 인권 탄압, 부패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전략을 펼쳐 중국과의 협력이 정치적 조건 없이 경제적 이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¹⁷⁾. 중국은 오랫동안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 대규모 원조와 투자를 앞세워 아프리카와의 외교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점해왔다. 특히, 무역에서 중국이 공산품과 기술을 수출하고 아프리카는 원자재와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중국이 경제적 이익과 협상 면에서 우위를 확

11) Parepa, Laura-Anc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continu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9.2 (2020): p.178.

12)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된 항목을 의미한다.

13)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로, 이 기간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도 금지된다. 이프타르는 라마단 기간 중 일몰 이후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무슬림이 먹는 첫 식사를 의미한다.

14) Marsden, Magnus. "Islamic cosmopolitanism out of Muslim Asia: Hindu - Muslim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Odessa and Yiwu." *History and Anthropology* 29.1 (2018): p.126.

15) 알약에 자주 활용되는 연결캡슐 원재료는 동물성 젤라틴이며, 대부분 돼지 피에서 추출 및 생산한다.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조 과정에서 돼지가 섞여서는 안 되고,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야 한다.

16) Jiang, Qiuyu. *The New Merchants of Canton: Navigating Legal Practices and Religious Networks among Sub-Saharan African Muslims in Guangzhou*. McGill University (Canada), 2019. p.16,116.

17) Parepa, Laura-Anc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continu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9.2 (2020): p.178.

보해 왔다¹⁸⁾.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채무 문제, 자원 착취 우려, 생태계 훼손, 내국인 고용 배제 등의 문제에 대해 점차 중국에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외교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2021년 9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2022년 4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2023년 3월) 등을 연달아 제창하며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왔다¹⁹⁾. 이러한 전략은 반동회의 이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간 연대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중 이슬람권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특히, 세네갈, 수단, 나이지리아 등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은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의 중국 이미지를 좌우하며, 이는 곧 현지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사회적 통합 및 종교적 수용 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중국은 이슬람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에서 할랄 문화, 종교 관용성을 강조하며, 중국 내 후이족 인력의 외교, 무역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3.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

1) 인구 분포 및 종교 실천

지난 20년간 중국과 아프리카 간 이주 규모는 1990년대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 무역의 성장으로 많이 증가했다. 아프리카 전역에는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중국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중국에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거대한 시장으로 부상하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인, 학생 등의 이주자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수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광저우로 몰려들면서 중국인들은 광저우(Guangzhou)를 ‘초콜릿 도시(Chocolate City)’라고 부르며, 샤오베이(Xiaobei)는 ‘작은 아프리카(Little Africa)’로 알려져 있다²¹⁾. 광저우는 역사적으로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아프리카 사업가들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이 지역에서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다음으로 이보어(Igbo), 밤바라어(Bambara), 월로프어(Wolof), 스와힐리어(Kiswahili)와 같은 언어도 상용되고 있을 만큼 아프리카 출신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상인에게 30일/90일 체류가 가능한 M비자라는 단기 사업 비자가 발급된다. 제한된 기간 안에 주문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까지 완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비자 만료일을 넘겨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 경찰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아파트에 숨거나 뇌물을 주어 문제를 해결한다. 보통 1만 위안을 제안하지만, 5,000위안의 벌금을 내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뇌물을 내는 경우가 있다²²⁾.

18) Tshedza, Sikhware Tshivhasa, and Yende Nsizwazonke Ephraim. "An Analysis of China's 'Dumping' of Cheap Products in South Africa in the Perspective of Import Substitution Policy." *Journal of African Foreign Affairs* 8.1 (2021): p.124

19) 이상만, “중국의 글로벌 대전략:글로벌 3축 이니셔티브 적실성 평가”, 중국전문가포럼, 2024.06.24.

20) Olakpe, Oreva, and Anna Triandafyllidou. "Migrations Between Africa and China: A Decentered Approach." *African Human Mobility Review* 9.2 (2023): p.6.

21) Paul Nantulya, "Africans Face Difficult Days In China's 'Chocolate City'", 『Worldcrunch』, 2024.01.04, <https://worldcrunch.com/in-the-news/africans-face-difficult-days-in-china39s-chocolate-city/> [2025.04.21]

중국 내 아프리카 상인들은 중국 단기 관광 비자로 체류하기 때문에 사업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상인들이 구매한 상품이 불량이라도 도움을 받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어렵고 일부 불법 이주자들은 추방을 피하고자 자신의 손실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²³⁾. 제한된 비자 정책으로 일부 중국 제조업체는 아프리카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 생산을 일부러 지연하여 품질이 낮은 상품을 넘기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구제책도 없이 방치되기도 한다²⁴⁾. 이러한 정책은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쳐 ‘반(反)아프리카 이민 캠페인’과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친(親)아프리카 정치’담론 사이의 괴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²⁵⁾. 하지만, 아프리카인들로 인해 광저우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사람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였다²⁶⁾. 광저우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사업은 아프리카와 광저우를 연결하고 아프리카와 중국의 발전을 활성화했다.

2) 종교 실천과 공동체 구조

중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주자들은 중국에서 개인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종교 실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재구성, 사회적 자본의 생산, 비공식 경제활동이라는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의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종교·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 내 대표적인 모스크(예: Saad Ibn Abi Waqqas Mosque, Huaisheng Mosque, Xianxian Mosque)는 아프리카계 무슬림 디아스포라에 신앙적 중심점이자 사회적 결속의 장소이다. 예배, 라마단 기간, 회생절 등의 예배는 단지 종교 의례가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 정체성 확립, 자카트의 계기가 되며, 예배 이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라마단 기간에서의 이프타르나 자카트는 이슬람 신앙 실천을 넘어 복지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일부 모스크는 자체적으로 자카트 위원회(Zakat committee)를 구성해 유학생, 경제적 활동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목표 기반 기금 분배를 운영하기도 한다.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들은 공식 종교 시설 접근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거지의 빈방이나 사무실 등 비공식적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예배 모임(할라카; Halaqa)을 운영한다²⁷⁾. 이러한 모임은 공간의 사적·공적 경계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꾸란(Quran) 암송과 하디스(Hadith) 및 디크르(Dhikr) 낭송 등으로 구성된다. 지도자는 주로 동향 출신 이맘이나 이슬람 교육을 받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맡는다. 실제로 광저우 등지의 아프리카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는 비공식 예배 공간과 기도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식 모스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이러한 비공식 모임은 중국 내 종교 규제의 감시를 일정 부분 피해 갈 수는 있지만 여

22) Mathews, Gordon, and Yang Yang. "How Africans pursue low-end globalization in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41.2 (2012): p.113.

23) Jiang, Qiuyu. "Faith-Based Business Ethics Among African Muslim Small-Scale Business Owners in Guangzhou, China." *African Human Mobility Review* 9.2 (2023): p.66.

24) Mathews, Gordon, and Yang Yang. "How Africans pursue low-end globalization in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41.2 (2012): p.113.

25) Abdou Rahlm Lema, "The contradictions of Africa-China in Guangzhou", Africa is a country, 2019.02.24., <https://africasacountry.com/2019/02/the-contradictions-of-africa-china-in-guangzhou> [2024.04.15]

26) Li, Mengfeiyang, Wei Kang, and Zongru Yang. "The Impacts of the Africans in Guangzhou." *2022 6th International Seminar on Education,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s (ISEMSS 2022)*. Atlantis Press, 2022.

27) Zhao Xu, "Answering the call to prayer", Chinadaily, 2014.04.17., <https://www.chinadaily.com.cn/a/201404/18/WS5a2a43a8a3101a51ddf8ff69.html> [2025.04.25]

28) Alice Su, "China's Separation Between Mosque and State", 2016.10.24., <https://pulitzercenter.org/stories/china/s-separation-between-mosque-and-state> [2025.04.21]

전히 단속의 위험이 존재한다²⁹⁾(Dong Niu 2018).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은 이슬람의 종교 활동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WeChat, Telegram, WhatsApp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할라카가 활성화되었으며, 여기서는 꾸란 음성파일, 이슬람 법학 강좌, 라마단 시간표, 하왈라 송금 정보, 디지털 자카트 QR코드 등이 공유된다³⁰⁾. 이러한 온라인 종교 활동은 시간적 유연성과 공간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전통적 예배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본국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자카트 기반 송금은 하왈라(Hawala)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식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송금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³¹⁾.

3) 중국의 종교 규제와 대응 전략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는 신앙을 실천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종교 규제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 종교 활동은 중국의 통제 아래에서만 허용되며,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른다. 중국은 5대 종교(불교, 도교,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만을 합법적 종교로 인정하였고, 반드시 국가 종교 단체에 등록된 성직자와 장소에서 활동만이 허용된다³²⁾. 이슬람의 경우 ‘중국이슬람협회’(China Islamic Association)가 인정된 기관이고 무슬림은 신앙 활동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체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종교 활동으로 간주한다³³⁾. 2025년 5월부터는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종교활동과 불법으로 간주하는 종교활동을 보다 상세히 규정했다³⁴⁾. 허가된 종교 시설에서만 집단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종교 모임을 진행할 시, 중국에 사전 신청 필수이며, 온라인상의 종교 콘텐츠 전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내 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가 공공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종교를 실천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공식화된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에 체류중인 아프리카 무슬림은 중국의 감시와 제도적 간섭을 피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고 있다. 모스크에서의 예배보다는 주거 내 할라카를 활성화하는데, 이때 주로 지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정과 장소는 비공개적으로 순환한다. 이때, 동일한 국적과 언어권 별로 분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교류는 제한으로 된다. 그리고 WeChat, WhatsApp, Telegram을 활용한 ‘온라인 Halaqa’가 주요한 신앙 실천 채널이 되며, 온라인 자카트는 ‘홍바오(전자봉투)’기능을 활용하거나 QR코드를 통한 익명 송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29) Chris Meserole, Brookings Institution, “Technological surveillance of religion in China”, 2020.07.22.,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echnological-surveillance-of-religion-in-china/> [2025.04.25]

30) Cabras, Giulia. “Technology-Mediated Communication and Representations of Islam in Northwest China: Insights from Visual Postings on Weixin.” *International Journal of Islam in Asia* 2.1 (2022): p.71.

31) Wang, Jing. “Networked Islamic counterpublic in China: Digital media and Chinese Muslims during global pandemic of COVID-19.” *new media & society* 26.6 (2024): 3068-3087. p.3070.

32) Xiong, Ping. “Freedom of religion in China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foreign religious bodies.” *ByU L. REV.* (2013): p.607.

33) Erie, Matthew S., and Allen Carlson. “Introduction to” Islam in China/China in Islam.”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1.12 (2014): p.4.

34) 권수현, “中, 외국인 무허가 설교 등 선교활동 통제…주중대사관 주의당부”, 연합뉴스, 2025.04.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4157600009> [2025.04.25]

4. 아프리카 내 중국인, 회족 및 중국기업의 이슬람 접촉

아프리카에서 중국 상인들의 존재감도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중국인이 거주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의 중국 이주민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도 다양하다. 대부분이 상인, 가게 주인, 기타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프리카로의 중국인 이주는 1990년대 후반 베이징의 ‘외국인 이주’ 정책과 일대일로 인프라 구축 사업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의 투자와 인프라 사업은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이주하는 인구 증가에 이바지했는데, 처음에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기 계약 노동자가 중심이었지만, 일부는 계약 만료 후에 아프리카에 정착하여 소매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점차 자율적, 비공식적 이주 형태로 확산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이족 무슬림 상인이 현지 무슬림 사회와 문화적 관계를 맺는 비공식 외교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후이족은 중국 내 최대 무슬림 집단으로, 종교적으로는 순니(Sunni)파이며, 문화적으로는 한족과 언어와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있다³⁵⁾. 아프리카에 진출한 후이족 상인과 기술자들은 할랄 음식을 공급하며, 라마단을 지키며, 금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아프리카에서 실천하고 있다³⁶⁾. 특히, CSCEC(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나 CREC등의 국영기업이 수행하는 아프리카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수천 명 단위의 중국인 노동자가 파견되는데, 이들 중 일부는 후이족이 포함되어 있다³⁷⁾. 알제리 대사관 프로젝트 사례처럼, 현장에는 임시 모스크 설치, 이맘 초청, 할랄 식당 제공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 기업이 현지 종교인 이슬람과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사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함이었고, 나중에는 일부 중국 노동자들이 계약 만료 후에도 아프리카에 남으면서 무역 목적으로 유입되었다³⁸⁾. 아프리카 국가의 부패와 이민법 부재는 중국 출신의 상인, 노동자, 관광객이 비자를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불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거나, 때로는 아프리카 브로커와 정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이민법을 우회하여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 내 중국인, 특히 후이족과 중국 기업은 현지 무슬림 다수 사회 속에서 종교 실천과 문화적 접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5. 결론

21세기 초 중국의 경제력 상승과 함께 아프리카인의 중국 이주가 증가했다. 특히 중국 최대 상업지인 이우와 광저우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소규모 자본, 규제되지 않은 시장, 불법 이주가 특징이었다. 중국은 값싸게 상품을 제공하여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 지역이

35) Friedrichs, Jörg. "Sino-Muslim relations: the Han, the Hui, and the Uyghurs."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7.1 (2017): p.5.

36) Wang, Yuting. "The making of China's "good Muslims" from middleman minority to cultural ambassadors." *China Review* 18.4 (2018): p.150

37) Belguidoum, Saïd, and Olivier Pliez. "Building a "Silk Road": A View from Below of the Trans-regional Links Between Algeria and China." *Jenseits etablierter Meta-Geographien*.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 Co. KG, 2018: p.3.

38) Daouda Cissé, "As Migration and Trade Increase between China and Africa, Traders at Both Ends Often Face Precarity",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21.07.21.,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migration-trade-china-africa-traders-face-precarity> [2025.04.05]

세계화³⁹⁾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⁴⁰⁾.

본 연구는 중국과 아프리카 간 종교적 접촉을 이슬람 디아스포라를 매개로 양방향에서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 아프리카 관계는 주로 경제 협력과 정치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실천과 공동체 형성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본 연구는 종교가 단지 신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주와 정착, 공동체 조직, 상호 신뢰, 경제 네트워크 형성 등 이주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적 기반임을 확인하였다.

중국 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무슬림들은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모스크, 주택 예배 모임, 디지털 할라카(Halaqa)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앙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구성해 왔다. 자카트, 하왈라, 할랄 식품 유통 등은 종교적 실천이자 실질적인 경제 네트워크로 기능하였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이들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들은 종교를 비가시화하거나 디지털화, 소규모 공동체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신앙 실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주민들, 특히 후이족 무슬림과 국영기업 종사자들은 이슬람 문화 속에서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다. 후이족은 종교활동으로 현지 이슬람 공동체와의 종교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영건설기업이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라마단 물품 지원, 종교시설 기부 등을 통해 이슬람 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허가된 장소와 승인된 성직자에 의해서만 집단 예배나 종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무슬림 공동체는 종교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슬람 신앙 실천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로 소규모 예배 모임인 할라카와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예배 활동의 활성화이다. 비공식적인 소모임과 온라인 예배는 단지 종교 활동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공동체의 전략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적 실천은 국가의 제약에 수동적으로 종속되기보다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재조직되는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자료와 사례 분석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슬림 공동체 간 네트워크 비교, 청년 세대 디아스포라의 신앙 실천 방식, 디지털 종교 공간의 형성과 변화 등 보다 심층적인 현지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39) Mathews & Yang(2012)은 애플, 노키아, 맥도날드, 코카콜라, 삼성 등의 '고급 세계화' 브랜드의 로고를 도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저가급 세계화 상품 제조함으로써, 남아시아,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저급 세계화'를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40) Mathews, Gordon, and Yang Yang. "How Africans pursue low-end globalization in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41.2 (2012): p.95.

【특별분과 II】 발표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 및 시사점 — 앙골라 사례를 중심으로

김 성 민*

【목 차】

1. 서론 1) 발표배경 2) 발표의 구성 2.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 1) 주요 수행기관 2) 대외원조 지원현황 3) 대외원조 전략 3. 중국의 앙골라 대외원조 사례 분석 1) 앙골라 현황	2) 중국과의 관계 3) 주요 대외협력 프로젝트 4) 프로젝트 사례 비교 분석 5) 성과와 한계 4. 기존 ODA와 비교 및 향후 과제 1) OECD DAC 국가의 ODA와 비교 2) 중국 대외협력의 향후 과제 5. 결론

【 초 록 】

본 발표문은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앙골라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국은 대외원조를 통해 일대일로 정책 추진, 경제협력,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수행기관은 중국국제개발협력청, 상무부, 외교부, 재무부,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이고, 무상원조, 양허성 대출, 인프라 중심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외원조 사례로 앙골라에서 석유 담보 차관(패키지딜)을 통해 신도시 건설, 철도 복구, 병원 건설 등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국의 지원은 앙골라 내전 후 인프라 재건과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국제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확화와 기술이전 부재라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기본적으로 중국 원조는 정치·정치적 조건이 없으며, 상호이익과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나 기존 OECD DAC의 ODA와 비교하면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중국은 지속가능성 제고와 현지 수요에 기반한 대외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키워드】 중국의 대외원조, 일대일로 연계, 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 자원 담보 대출 모델, 상호이익·불간섭 원칙, 앙골라 지원 사례, OECD DAC의 ODA 비교,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 제1저자.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기획관 (sungminquim21@naver.com)

1. 서론

1) 발표배경

지난 1950년대부터 중국은 개발도상국 간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원조(Foreign Aid)를 시작하였다. 2000년대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중국은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무조건성(unconditionality)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중국식 개발모델을 확산하는 형태의 대외원조를 전개함.

특히 중국은 기존 서방국가와 달리 대외원조 시 ‘공여국(Donor Country)’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파트너’라는 점을 중시해왔다.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정책과 최근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중국은 대외원조의 대상과 규모를 점차 확대 중.

현재 중국의 대외원조는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되어 자원 확보(Resource Security),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Geopolitical Influence) 등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UN의 SDG's와도 연계를 모색함.

하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나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천연자원이나 자국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는 ‘패키지딜(Package Deal)’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대일로 정책 역시 원조를 받을수록 빈곤해지는 부채함정외교(Debt-trapdiplomacy)이라는 다수의 비판에 직면함.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협력 현황 분석 및 일대일로 중점협력국인 앙골라의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 및 국제사회의 ODA 추진 시 시사점과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발표의 구성

본 발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 ①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
- ② 앙골라 사례를 통한 중국 대외원조 사례 분석
- ③ 기존 ODA와 비교 및 평가

연구방법은 발표자의 앙골라 EDCF 및 ODA 프로젝트 수행 시 경험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앙골라 타 중국정부 사업 사례를 보충하였음

2.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

1) 주요 수행기관

과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대외원조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를 주무부처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가 지원을 담당함.

중국은 2018년 3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대외원조를 통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일대일로 정책의 실제 이행을 위해 중국국제개발협력청(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CIDCA)을 설립함

<표1> 중국의 대외원조 수행기관

기관명	역할	기능	특징
중국국제개발협력청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 총괄 및 조정	정책 수립, 전략 기획, 대외원조 프로젝트 승인	기획, 조정 중심으로 실제 집행기능은 없음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대외원조 집행	무상원조, 기술지원,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여전히 대외원조사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대외원조와 외교전략 연계 및 조율	파트너국과 외교협상 및 원조 우선순위 설정	대외원조 시 외교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 조율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재정 운용 및 국제기구 협력	원조 예산 편성 및 재정지원 방식 검토	다자개발은행 협력
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정책금융 지원 및 상업성 대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장기 자금 지원	상업적 목적으로 원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발생
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of China)	양허성대출 지원	자원-인프라 연계 사업 저금리 자금 조달	중국식 (주로 아프리카) 인프라 원조의 핵심

2) 대외원조 지원현황

현재 중국은 자국의 대외원조에 관한 공식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국무원(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중국대외원조백서(中国的对外援助白皮书)”를 통해 지역 및 분야별 지원 정보를 추정할 수 있음

(1) 지역별 지원현황

중국의 지역별 대외원조 비율은 정치·외교 전략 및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음

아프리카(45~50%): 1950년대 남남협력부터 이어진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와 더불어 아프리카는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여 대외원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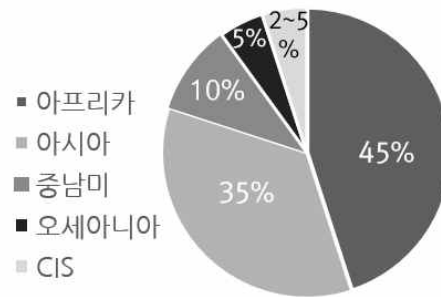
아시아(30~35%): 두 번째로 큰 수혜지역이고, 일대일로 참여국(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이 대외원조의 큰 비중을 차지

중남미(8~10): 주로 인프라 및 농업대한 양허성 차관 지원

오세아니아(5% 미만): 주로 외교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소규모 국가 지원

CIS 국가(2~5%): 일대일로 정책 연계 및 외교적 목적을 위해 지원

<그림1> 지역별 대외원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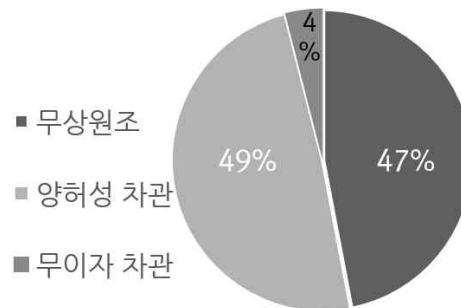


출처: 중국대외원조백서

(2) 유형별 지원현황

중국의 유형별 대외원조 지원은 양허성 차관(49%), 무상원조(47%), 무이자 차관(4%)로 현재까지는 양허성 차관 비중이 높지만 최근 무상원조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중

<그림2> 유형별 대외원조 비율(%)



출처: Zhang(2021)

3) 대외원조 전략

(1) 중국대외원조백서(中国的对外援助白皮书)

국무원은 2011년, 2014년, 2021년에 총 3차에 걸쳐 중국의 대외원조의 방향성, 원칙, 실행방안을 종합한 "중국대외원조백서"를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2> 제 1~3차 중국대외원조백서 주요내용 요약

항목	1차	2차	3차
발표시점	2011년 4월	2014년 7월	2021년 1월
지원원칙	- 평등, 상호이익, 불간섭 -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지지	좌동	- 인류 공동발전 - 일대일로 연계 강조
지원목적	- 수원국 자립역량 강화 - 남남협력 확대	좌동	- 글로벌 개발 동반자 관계 형성 - 공동 번영 추진

지원방식	- 무상원조 - 양허성 및 무이자 차관	- 무상원조 - 양허성 및 무이자 차관 - 민관 및 지역기구 협력	- 무상원조 비중 확대 - 양허성 및 무이자 차관 - 인도적 지원 확대 - 다자 및 삼각협력 확대
중점분야	인프라, 농업, 의료, 교육	에너지, 수자원, HRD	보건, 빈곤퇴치, 디지털, 친환경
중점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일대일로 협력국

(2) 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

중국은 개도국의 발전과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이 평가속화를 목표로 2021년 9월 UN 정기총회에서 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GDI)를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3> 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 주요내용 요약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아젠다 2030 이행
주요원칙	사람중심 철학, 발전 우선원칙, 혁신기반접근, 인류와 자연의 조화, 소외 되지않는 개발, 진정한 다자주의, 포용성 및 개방성, 행동중심(action-oriented), 기존 메커니즘과 시너지 창출
주요특징	글로벌이니셔티브 추진, 포괄적 개발협력지원 제시, 일대일로와의 차별화
접근방식	핵심과제(아젠다2030 이행) 중심, 사업기반, 포괄적 참여, 개발재원 확대, 전반적 협력, 핵심의 제집중
협력분야	빈곤감소, 식량안보, 보건(팬데믹 대응 및 백신), 개발재원, 기후변화와 녹색발전, 산업화, 디지털 경제, 연계성(Connectivity)

2. 중국의 앙골라 대외원조 사례 분석

1) 앙골라 현황

앙골라는 서남아시아 2위의 산유국이자 다이아몬드, 금, 철, 구리 니켈, 우라늄 등 가치 높은 광물 자원까지 보유하고있지만 2002년 4월 4일까지 약 27년간 내전이 이어지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대부분의 국가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음.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앙골라는 나이지리아 다음인 원유 생산국 2위¹⁾이며,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회원국이기도 하며 국가경제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절대적이며 국가 재정

1) 2016년 2, 4분기와 2017년 상반기 일시적인 기간이지만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서남부 아프리카 최대 석유 일산량을 기록함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고성장을 계속하던 앙골라는 2013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고, 석유 탐사에 대한 투자 및 개발 전략 부재로 최근 5년간 원유 일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앙골라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 원인은 국제 저유가 기조 지속,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해외 투자 감소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석유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에 있고,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경제다변화, 국가 재정 건성성 확보, 국가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는 미미함.

2) 중국과의 관계

앙골라와 중국은 독립부터 현재까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중국은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여 2016년과 2017년의 몇 달간은 앙골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대중국 최대 석유 수출국²⁾이 된 적이 있었음.

2018년 중국은 주앙 로렌수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중국 내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장 모두가 접견하면서 앙골라가 대아프리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점협력국이라는 점을 강조함.

현재 중국은 앙골라 대외원조 대부분을 수출입은행과 중국산업은행 차관을 통한 대규모의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무상원조 및 기술지원은 중국국제개발협력청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차관제공을 조건으로 전략자원이나 국유 인프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의 ‘패키지딜(Package Deal)’은 앙골라를 지원하면서 생겨났음.

중국은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도로·항만·철도·학교·병원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대신 앙골라산 원유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 국영기업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본국에서 기술, 장비, 기자재를 포함하여 단순 노동자까지 본국에서 조달하고 하여 현지 인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함.

3) 주요 대외협력 프로젝트

<표4> 앙골라 내 주요 중국 대외원조 프로젝트

사업명	기간	지원규모 (USD)	분야	목적	공여기관	수행기관	사업내용 요약
석유 담보 차관 패키지 (Oil-backed Infrastructure Loan Package)	2004~현재	약 200억	종합 인프라	전후 재건, 자원 확보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철도건설공사, 중국국영수력발전사 (Sinohydro)	석유를 담보로 한 차관 제공, 도로·학교·병원 등 인프라 건설
킬람바 신도시 건설 (Kilamba Kiaxi New City)	2008~2012	약 35억	도시개발	주거난 해소 및 수도 인구 분산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중신그룹유한회사 (국유 투자사)	루안다 외곽에 약 5만 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

2) 석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현재 앙골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내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 됨.

벵겔라 철도 복구 (Benguela Railway Reconstruction)	2005~2014	약 20억	교통	물류 개선 및 동서 연결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철도건설공사	내전으로 파괴된 1,300km 철도 복구 및 현대화
루안다 종합병원 건설 (Luanda General Hospital)	2010~2015	약 9천만	보건	의료 접근성 확대 및 보건 인프라 개선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건축공정총공사	현대식 종합병원 건립, 의료장비 및 기술지원 포함
직업훈련센터 및 농업 기술학교 (Vocational & Agricultural Institutes)	2015~현재	약 1억	교육	기술인력 양성, 청년 고용 촉진	중국국제개발협력청	중국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	직업훈련센터, 농업기술학교 건립 및 교재·기자재 지원
카쿨로 카바사 수력발전소 (Caculo Cabaça Hydropower Plant)	2017~2026	약 45억	에너지	전력 부족 해소 및 산업기반 확충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전력건설공사	앙골라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4) 프로젝트 사례 비교 분석

<표5> 한국과 중국정부의 앙골라 공공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 사례 분석

항목	EDCF 앙골라 치안고도화사업(한국)	앙골라 국가공공치안통합센터(중국)
공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정부
수행기관	KT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수원기관	앙골라 경찰청(내무부 산하)	앙골라 내무부
지원규모	약 4,000만불	약 7,000만불(추정)
사업기간	2015~2019년	2015~2019년
사업목표	한국형 ICT 기술을 활용한 공공치안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공공치안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통합 운영 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대상 범위	루안다	루안다 (다른 지방도시 확대 예정)
사업특징	- 소프트웨어 + ICT 기술도입 중심 -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로 지속가능성 확보 - EDCF+경찰청 무상 교육훈련 융합 지원	- 하드웨어 + 인프라 건설 중심 - 인프라 제공(운영은 수원국 중심) - 중국식 공공치안 모델의 수출 사례로 평가
주요과업	- 루안다 공공치안관제센터 구축 - 광케이블 및 CCTV망 구축 - 113 시스템 개발 및 ICT 장비 도입 - 디지털지도 개발 - 경찰청 역량강화	- 국가 공공치안통합센터 구축 - CCTV, 드론, 교통 감시 시스템 등과 연계된 중국식 감시 인프라 구축 - 치안 데이터 통합 저장, 분석 기능 탑재 - 경찰관 교육원 및 훈련시설 설립

5) 성과와 한계

<표6> 중국의 앙골라 대외원조의 성과와 한계 분석

성과	한계
1. 전후 복구 지원으로 국가 및 사회 안정화 기여	1. 자원담보 대출로 국가부채 비율 급증
2. 도로, 공항, 병원,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2. 중국기업 중심의 대외원조 사업 추진으로 실제 현지 인력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는 낮음
3. 대규모 차관 및 인프라 투자로 단기적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	3. 인프라 시공 시 부실시공과 낮은 품질의 기자재 공급으로 중국에 대한 현지인의 부정적 인식 증가
4. 조건 없는 대규모의 대외원조 제공으로 기존 공여국과 ODA 사업 추진 시 협상력 확정	4. 패키지딜로 인한 석유 의존도 증가로 경제다변화에 악영향

4. 기존 ODA와 비교 및 향후 과제

1) OECD DAC 국가의 ODA와 비교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소속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국가 개발,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규범을 기반으로 무상원조, 양허성 대출, 기술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수원국의 제도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 DAC 국가는 원조 제공 시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개선 등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고, 원조 통계와 계획을 OECD를 통해 대외적으로 성과 공유함.

중국의 대외원조는 수원국의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며, 경제협력과 상호 이익 추구를 중심으로 자국의 성장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인프라 중심 원조를 통해 자원 확보, 시장 확대,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함. 수원국의 정치체제나 인권 상황에 대한 개입 없이 원조를 제공하고, 대외 원조 관련 자료를 제한적으로만 공개중.

<표7> 기존 ODA와 중국의 대외원조 비교

항목	OECD DAC의 ODA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목적	빈곤퇴치, 국가개발,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협력, 상호이익 추구
지원원칙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선 역량강화 동반	내정 불간섭, 상호이익 증가 강조
지원방식	무상·유상원조, 기술협력 등	자원담보 차관 및 인프라 제공
제공조건	정치·경제적 조건 부과	조건없음
접근방식	인적자원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 및 하드웨어 제공
정보공개	OECD를 통한 정보 및 통계 제공	불투명 정보 및 제한적인 통계 공개
지속가능성	수원국 참여 유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제한적 기술이전

2) 중국 대외협력의 향후 과제

중국의 대외협력은 일대일로 추진과 더불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규모에서 질적 전환과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시급히 요구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존 대규모 차관 및 인프라 중심에서 다변화된 원조방식이 필요하고 U N의SDG's 목표달성에 동참하기 위해 기존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대외협력 시 파트너국 정부 및 국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수원국의 거버넌스 및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함.

【특별분과 Ⅲ】 발표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없는 사람들”*

— 대항해시대 아시아계 이주민

구 경 모**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아시아계 이주민과 ‘치노’의 형성
4. 아시아계 이주민의 타자화
5. 결론

【 초 록 】

본 연구는 대항해시대 갈레온 무역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치노(chino)’라는 단일 범주로 통칭되며 어떻게 타자화되었는지를 구성주의 종족성 이론과 에릭 올프의 “역사 없는 사람들” 개념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양한 출신지를 가진 이주민들은 식민 권력에 의해 인종적·문화적 다양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정체성으로 규정되었으며, 법적, 제도적, 감정적, 담론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경계 바깥의 존재로 재현되었다. 본 논문은 치노가 단순히 주변화된 대상이 아니라, 세레, 혼인, 장인 활동, 공동체 참여 등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교섭하고 생존 전략을 수행했던 능동적 행위자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주체성은 식민 권력이 설정한 규율과 위계의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작동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치노는 역사 서술에서도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치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초기 세계화 과정에서 잊혀진 비서구 사람들의 존재를 복원하고, 서구 중심적 세계사 서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학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아시아계 이주민, 치노, 타자화, 역사 없는 사람들, 갈레온 무역

* 본 발표문은 미완성 단계의 글로 저자의 허락 없이 인용을 금합니다.

** 제1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교수 (gmgu@bufs.ac.kr)

1. 서론

본 연구는 대항해시대 갈레온 무역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 유입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치노(chino)’라는 집단으로 인식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에릭 올프는 ‘유럽과 역사 없는 사람들’이라는 저서에서 유럽 중심적 역사서술이 주변부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비가시화해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들을 단지 ‘기록되지 않은 존재들’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형성에 깊이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유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역사 없는 사람들”로 바라보았다.¹⁾

“역사 없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 유럽인이 세계를 두 개로 구분하던 이분법적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시 유럽인들은 그들만이 문자를 가진 사람, 즉 ‘역사가 있는 사람들’로 인식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문자가 없는 비문명사회, 즉 “역사 없는 사람들”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유럽 이외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토대가 되었고, 역사 기록에서도 유럽 중심적인 서술이 당연시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식민 세력들은 원주민, 아프리카계 이주민, 아시아계 이주민 등을 비유럽인으로 낙인찍고 타자화하였다. 이 중 아시아계 이주민은 치노라 불렸는데, 이들은 필리핀,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 등지에서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로 건너온 사람들로 개별 출신 지역, 문화, 언어,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유럽인들에 의해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었다.²⁾ 이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와 구분되지 않은 채 ‘외부인’으로서 명명되었으며, 이러한 명명은 단순한 지칭이 아니라 식민지 사회의 제도적 권력, 사회적 위계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다.³⁾

본 논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치노의 타자화 과정을 종족성 이론 중 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구성주의적 접근은 종족성을 고정된 본질로 보지 않고, 사회적 실천과 권력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⁴⁾. 특히 바스를 비롯한 구성주의 시각의 학자들은 종족성의 핵심이 ‘내용’이 아니라 ‘경계 설정’의 사회적 실천에 있으며, 권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 범주가 정당화되고 유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치노의 정체성은 식민 권력이 부여한 타자화의 결과로, 단지 인종적 구분이 아니라, 법적 지위, 종교적 위치, 경제적 가능성, 감정적 반응 등을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범주였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동일한 인물이 ‘치노 노예’로서 매매되었다가 ‘기독교인 자유인’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성스러운 인물(Catarina de San Juan)로 숭배되기도 하는 등,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 제도, 담론, 감정이 교차하는 장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해체되었다.⁵⁾

이러한 점에서 치노는 단순한 주변인에 머무르지 않고, 식민 사회의 경계와 경합의 공간에서 정치·문화적 실천을 수행한 주체적 행위자였다. 동시에, 그들은 식민 담론의 재현 구조 속에서 상징

1) Wolf, E. R.,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3

2) Carrillo, R., 『Asians to New Spain: Asian Cultural and Migratory Flows in Mexico in the Early Stages of Globalization (1565 - 1816)』.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2011 &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3) Oropeza, M., 『Los “chinos” de Nueva España: La construcción de un estereotipo en el imaginario novohispano』,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2007. & Villamar, C., 『Asia en América Latina: Migraciones e imaginarios en el periodo colonial』, Quito: FLACSO Ecuador, 2022.

4) Barth, F.,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Little, Brown and Company, 1969. & Brubaker, R., 『Ethnicity without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5) Butler, J.,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 Ahmed, S.,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4. & Luis, D. J., 『The First Asians in the Americas: A Transpacific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적으로 구성된 존재이기도 하였다. 주목할 점은, 치노의 이러한 전략적 실천이 식민 권력에 의한 타자화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타자화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체성을 교섭한 행위자였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치노의 정체성 형성과 그들이 수행한 실천을 분석함으로써, 오랫동안 ‘역사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온 아시아계 이주민들의 경험을 역사적 서사 속에 복원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종족성 이론은 초기에는 인종이나 민족성을 고정되고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사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⁶⁾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특히 종족적 정체성을 단순한 혈통이나 생물학적 특성에서 벗어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바스가 종족 경계는 집단 간 ‘차이’ 자체보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유지되는 상호작용의 경계선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이래, 홉스봄⁷⁾과 앤더슨⁸⁾, 스미스⁹⁾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확장되었다. 이들은 종족성의 ‘발명(invention)’, ‘상상(imagination)’, ‘서사화(narrativization)’를 통해 정체성이 정치적 목적에 맞게 생성되고 정당화된다고 분석하였다.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누에바 에스파냐(현 멕시코)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다양한 출신(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 인도 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노(chino)’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분류되었다.¹⁰⁾ 식민지 권력은 종족성을 민족이나 문화적 내용보다는 국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특정 집단을 구분하고 위계화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아시아계는 법적으로 ‘인디오’로 보호받기도 했으나 대다수는 ‘치노’ 또는 ‘치노 노예(chino esclavo)’로 자유권이 제한되거나 아프리카계 혼혈로 간주되었다.¹¹⁾

버틀러¹²⁾와 브루베이커¹³⁾는 전통적인 구성주의 시각에서 나아가 한 집단의 정체성, 즉 종족성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과 실천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치노 정체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치노는 스페인 식민지배의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노예, 노동자, 장인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로 활용되면서 타자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였다.¹⁴⁾ 예를 들어, ‘치노’는 사회적, 법적 제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행했다. 실제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이주민들과의

6) Barth, F.,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Little, Brown and Company, 1969.

7) Hobsbawm, E.,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In E. Hobsbawm & T.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1-14.

8)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9) Smith, A. D.,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Blackwell, 1986.

10)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1) Hernández Cuevas, M. A., 『African Mexicans and the discourse on modern nati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2.

12) Butler, J.,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13) Brubaker, R., 『Ethnicity without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4) Oropeza, M., 『Los “chinos” de Nueva España: La construcción de un estereotipo en el imaginario novohispano』,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2007.

결혼, 세례와 같은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유지하려 노력했다.¹⁵⁾

이는 안잘두아¹⁶⁾의 논의처럼, ‘치노’의 정체성을 문화적 혼종성과 다중정체성의 틈새에서 존재하는 경계적 주체로 이해될 수 있는데,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원주민 혹은 아프리카계와의 혼인을 통해 종족 경계를 넘나드는 전략을 통해 살아남았다.¹⁷⁾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슬랙도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아시아계 이주민이 현지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창조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18세기 들어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사회적 지위와 법적 범주에서 유사했던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결혼과 노동 환경 공유를 통한 정서적 연대, 이교도라는 타자화를 통해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 즉 ‘흑인 집단’으로 분류되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¹⁸⁾

또한 세이하스¹⁹⁾에 의하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식민지 사회에서 ‘인디오’로 분류되면 인두세 면제, 노예 금지, 법적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전략적 혼인을 택했다고 한다. 치노들이 아프리카계 혹은 다른 집단과의 결혼보다는 원주민 여성이나 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했던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혼인 이후 자녀들이 공식 문서에서 ‘인디오’로 등록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당시 혼인 및 세례 문서, 법정 진술서, 노예 해방 문서 등을 살펴보면, 치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기독교도, 자유인, 또는 인디오로 규정짓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치노 정체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 압력과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치노의 종족성과 타자화는 단지 외부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된 억압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 치노 정체성은 다양한 학자들이 설명하듯이 사회적으로 협상되고 재구성된 다층적 범주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레온 무역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 유입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어떻게 치노라는 범주로 형성되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제도적 통제와 사회적 실천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힘으로써, 구성주의 종족성 이론이 치노의 역사적 경험을 해석하는 유효한 틀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3. 아시아계 이주민과 ‘치노’의 형성

아시아인의 라틴아메리카 이주는 16세기 중엽 스페인의 필리핀 점령과 함께 시작되었다. 1565년 레가스피(Miguel López de Legazpi)의 마닐라 점령 이후 스페인은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직접 연결하는 해상 루트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물자뿐 아니라 사람의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갈레온 무역으로 운반된 대표적인 물자에는 중국산 비단, 자수직물, 도자기, 향신료(정향, 계피, 후추), 도료,

15)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6) Anzaldúa, G.,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CA: Aunt Lute Books, 1987.

17)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18) Slack, E. R., Jr., 「The Chinos in New Spain: A Corrective Lens for a Distorted Image」, 『Journal of World History』, 2009, 20(1), pp.35-67.

19)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145.

종이, 칠기, 설탕, 코코넛오일, 카카오, 인도 면화 직물 등이 포함되었다.²⁰⁾ 이러한 물자는 마닐라에서 선적되어 멕시코 아카폴코에 도착한 후, 멕시코시티와 페루, 나아가 스페인 본토로 재수출되었으며,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 동양 물품에 대한 열광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1610년 아카폴코 세관기록에는 75톤 상당의 중국산 비단과 14,000개 이상의 도자기가 선적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상인들과 함께 이동한 아시아계 이주민들의 개인 화물이 있기도 했다.²¹⁾ 이와 같은 상업적 교류와 함께, 노예와 자유인의 형태로 인적 이동이 병행되었고, 이는 갈레온 무역을 단순한 상업 활동이 아닌 초기 세계화의 복합적 구조로 이해하게 해준다. 마닐라-아카폴코 간 갈레온 무역은 유럽-아메리카-아시아를 잇는 세계사적 교역의 핵심 경로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아시아계 사람들이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 필리핀, 일본, 말레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출발하여 마닐라에 집결한 후, 갈레온 선박에 선원, 노예, 통역, 무역 상인의 신분으로 승선하였다. 초기에는 필리핀 및 중국계 노예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스페인 식민 당국이나 상인의 사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아카폴코를 통해 뉴 스페인(현 멕시코)에 도착했다.²²⁾ 일부는 아카폴코에 정착했으며, 다수는 내륙의 멕시코시티, 푸에블라, 과달라하라 등지로 이송되어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유를 구입해 독립 생계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1610년에서 1670년 사이에만 최소 4,000명 이상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뉴 스페인에 도착했으며, 그 중 약 60%는 노예로 등록되었고, 나머지는 선원, 무역 보조인, 통역, 수공업자 등으로 갈레온 무역에 종사하였다.²³⁾ 이들은 아카폴코 도착 후 ‘팔렌케(palengke)’로 불리는 임시 시장이나 인신 거래소에서 판매되었으며, 일부는 수도자나 고위 관리가 구입해 가정 노동이나 교회 보조에 투입되었다. 노동 종류는 은광 노동, 설탕 및 코코아 농장, 직조 및 가내 수공업, 도시 내 점술이나 약초 치료 등 다양했으며, 일부는 정착 후 세례를 통해 자유 신분을 획득하고 자영업이나 노점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²⁴⁾

이주민들은 각자의 종교와 언어, 문화적 배경을 지녔으나, 스페인 제국은 이들을 일괄적으로 ‘치노(chino)’로 명명하였다. 이는 행정적 편의성과 사회적 통제 목적에서 만들어진 범주로, 실질적으로는 출신에 상관없이 아시아계 전체를 동질화시킨 인종적 구분이었다. ‘치노’는 노예, 노동자, 상인, 이발사, 점쟁이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나, 법적·제도적으로는 일종의 사회적 경계선 바깥에 있는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위치는 스페인 식민지 법체계에서 인종적 위계가 엄격히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라사스 코디피카다스(razas codificadas)는 백인, 원주민, 아프리카계, 메스티소 등의 혼혈을 포함하는 카스타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권리를 구분했으며, 아시아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불분명한 타자’로 남게 되었다.

세이하스²⁵⁾는 17세기 멕시코시티의 공공 문서에서 치노가 법적으로 ‘노예’로 분류된 경우가 빈번하였고, 교회 문서에서도 인디오나 메스티소가 아닌 별개의 분류로 취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

20)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Luis, D. J., 『The First Asians in the Americas: A Transpacific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21)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71.

22)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23)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92.

24)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25)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175.

이 치노는 사회문화적으로도 라틴아메리카의 주류 언어, 종교, 외모와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 결과 교회 형제단 가입, 공식 취임, 길드 활동 등 여러 사회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었다. 카리오²⁶⁾는 멕시코시티의 이발사 길드에 소속된 일부 치노 장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조차 공인된 길드 내에서 낮은 지위에 머물렀고, 공식 문서에 출신지를 반복적으로 '치노'로 표기한 점에서 이방인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고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사회, 특히 스페인 식민 엘리트와 백인 크리오요 사회는 치노를 이국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보았으며, 때로는 이교도적이고 신비한 존재로 환상화하였다. 이는 아메드²⁷⁾가 말하는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와도 연관된다. 예컨대, '동양적' 치노는 낯선 아름다움 혹은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각은 공식 문서, 법정 기록, 교회 세례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1625년 멕시코시티의 한 법정 문서에는 필리핀계 치노 남성이 '이교도 마법사'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는 그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신비화의 시선을 보여준다.²⁸⁾ 또한, 세례 문서에서는 치노가 자신의 이름을 '토마스', '후안' 등으로 개명하고 '기독교도'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출신 지역이 '치노'로 표기되어 지속적으로 외래인으로 분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²⁹⁾

이는 치노의 정체성이 공식 문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도화되고, 동화되기보다는 경계화된 타자로 남겨졌음을 시사한다. 치노들은 아시아계라는 인종적 구분으로부터 탈피하여 식민 사회에서 더 유리한 인종 집단으로 편입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가톨릭 세례를 받고, 원주민 또는 아프리카계와의 혼인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시도했고, 길드나 형제단(cofradía) 조직을 통해 내부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17세기 멕시코시티에서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솔레다드(Nuestra Señora de la Soledad)'라는 종교 형제단이 치노와 원주민, 아프리카계 혼혈 인구를 포함하여 결속을 다졌으며, 이 조직은 세례, 장례, 종교 축제와 같은 공동의례를 통해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였다.³⁰⁾ 또한 일부 치노 장인은 이발사 길드나 제화공 조합 등에 가입하여 전문 기술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인정 기반을 확보하려 했다.³¹⁾

혼인의 경우, 세이하스는 필리핀계 여성들이 스페인 또는 원주민 남성과 결혼하여 '인디오'로 분류되는 자녀를 낳고, 이들을 통해 계급 상승과 사회적 보호를 도모한 사례를 제시하였다.³²⁾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동화라기보다, 식민 제도와 정체성 범주를 교란하고 경계에서 생존을 모색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루이스³³⁾가 지적하듯,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성스러운 인물'로 숭배되기도 했지만, 이는 이들의 실질적 권력 상승이 아니라 문화적 타자화의 또 다른 형태였다.

치노 스스로의 자각은 당시 남겨진 자필 문서, 재판 증언, 세례 및 혼인 기록을 통해 부분적으로

26)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123 - 125.

27) Ahmed, S.,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4.

28)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424.

29)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27-28.

30)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p.30-32.

31)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p.33-35.

32)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428-430.

33) Luis, D. J., 『The First Asians in the Americas: A Transpacific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691년 멕시코시티의 한 혼인 문서에서 ‘도밍고 치노(Domingo Chino)’라는 남성은 자신을 “기독교로 개종한 자유 필리핀인”으로 명시하며 ‘노예’나 ‘치노 노예(esclavo)’라는 지칭을 명백히 거부했다.³⁴⁾ 또 다른 사례로, 1730년 푸에블라의 법정 기록에서는 한 치노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을 “카톨릭 세례를 받은 자유인으로서 인디오 여성”이라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바 있으며, 해당 문서에는 그녀가 반복적으로 ‘치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으로 자기 호명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다.³⁵⁾ 이는 치노들이 스스로를 단일 인종 범주가 아닌 복수의 종교적·사회적 정체성으로 구성하려 했으며, ‘치노’라는 명칭이 갖는 타자화의 함의로부터 벗어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아시아계 이주민의 타자화

치노(chino)로 불린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단지 노동력의 수입원이 아니라 식민 권력 하에서 적극적인 ‘타자화’의 대상이었다. 이들에 대한 타자화는 단순한 민족적 구분을 넘어서서, 제도적·담론적·감정적 방식으로 사회적 경계와 위계를 구축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울프의 “역사 없는 사람들” 개념과 구성주의적 종족성 이론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식민 행정체계는 인종적·지리적 기원을 무시하고 치노라는 명칭으로 아시아계를 획일화하였다. 이는 바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경계짓기’를 통해 집단 간 구별을 유지하려는 의도적 전략이었다. 실제로 같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대우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전혀 다른 출신임에도 일괄적으로 ‘치노’로 등록된 문서들이 다수 존재한다.³⁶⁾

이러한 분류는 법적 지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부 치노는 ‘인디오’로 분류되어 보호를 받았지만, 많은 경우 ‘치노 노예’로 간주되어 제한적 자유만을 누렸으며, 인두세(tributo)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³⁷⁾ 법적 분류의 기준은 일관되지 않았고, 이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시민권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행정 기록에서 ‘치노 노예(chino esclavo)’, ‘치노 자유인(chino libre)’, ‘치노 기독교인(chino cristiano)’ 등으로 세분화되면서도, 이들 모두는 사회적으로는 동일한 타자적 위치에 놓였다.

‘치노 노예(Chino esclavo)’는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마닐라를 경유해 누에바 에스파냐로 강제 이송된 아시아계 노예를 지칭하며, 이들은 광산, 대농장, 가사노동 등에 투입되어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간주되었다.³⁸⁾ ‘치노 자유인(Chino libre)’는 자발적으로 자유를 구입했거나, 세례를 통해 해방되었거나, 주인의 유언이나 왕실의 특혜에 의해 해방된 자유민을 의미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상업, 수공업, 노점 활동에 종사하며 제한된 권리만을

34)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428-435.

35)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p.27-28.

36)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437-439.

37)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p.17-19.

38)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p.16-18.

누렸다.³⁹⁾ ‘치노 기독교인(Chino cristiano)’은 가톨릭 세례를 받은 치노로, 이 명칭은 아시아계 이주민을 제도적으로 포섭하려는 식민 권력의 통합 전략 속에서 형성된 범주였으며, 종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하위 계층으로 분류되었다⁴⁰⁾ 이처럼 명목상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치노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타자화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는 구성주의 종족성 이론에서 말하는 권력에 의해 형성된 범주화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치노에 대한 타자화는 또한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를 통해 정당화되었는데, 식민지 멕시코에서 치노는 불신과 공포, 이국성의 감정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담론화되었다. 실제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폭동 사례는 1603년 마닐라뿐 아니라 멕시코시티에서도 발생했고, 이는 종종 종교적 이단, 음모론, 불신과 같은 문화적 낙인을 통해 촉진되었다.⁴¹⁾ 예컨대 1614년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노예 폭동 계획과 관련된 탄압은, 아시아계 집단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7세기 후반 푸에블라(Puebla) 지역에서는 치노들이 흑인 또는 인디오 노예들과 연합해 도망을 시도하거나, 밀집 주거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⁴²⁾

식민 멕시코의 교회와 왕실 행정은 아시아계 주민을 법적으로 ‘불확정 범주’로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치노들에게 세례와 혼인을 통한 ‘통제된 통합’을 장려하였다. 한편, 식민지 교회 문서에는 ‘치노’가 인디언, 아프리카인, 스페인인과의 혼인을 통해 카스타(casta) 체계 내 다양한 혼혈 범주로 흡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치노 여성의 경우, 특히 원주민 남성과 결혼하거나 귀족 가문에 유모로 고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예를 들어 18세기 중엽 푸에블라에서는 ‘치노 파르도(chino pardo)’, ‘로보 치노(lobo chino)’ 같은 새로운 하위 분류가 등장하였다. ‘치노 파르도(Chino o pardo)’는 주로 치노와 아프리카계 후손간의 혼혈로 형성된 인구를 지칭하며, 식민지 사회에서 피부색이 어두운 혼혈인을 포괄하는 범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인종적 혼혈에 따른 위계적 분류체계 속에서 치노가 아프리카계와 결합하면서 점차 사회적으로 하층으로 밀려났음을 반영한다.⁴³⁾ 반면 ‘로보 치노(lobo chino)’는 치노와 인디오 혹은 다른 혼혈인과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복합적 혼혈을 가리키며, 이는 인종 간 혼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식민지의 카스타 체계가 만들어낸 세분화된 분류의 한 형태였다.⁴⁴⁾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혈통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 납세 의무, 혼인 가능성, 거주 제한 등 다양한 사회 제도와 직결되며, 치노 정체성이 식민 권력 아래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위계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혼혈화 과정을 통해 치노가 점차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17세기 말 푸에블라 교회 세례 문서에는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María de los Ángeles)’라는 치노 여성이 귀족 가문의 자녀를 돌보는 유모로 고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녀는 후에 해당 가문

39)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74-77.

40) Luis, D. J., 『The First Asians in the Americas: A Transpacific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pp.5-6.

41) Slack, E. R., Jr., 「The Chinos in New Spain: A Corrective Lens for a Distorted Image」, 『Journal of World History』, 2009, 20(1), pp.58-59.

42)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p.34-36.

43)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23.

44)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92-93.

남성과의 혼인을 통해 법적 지위를 변경하였다.⁴⁵⁾ 또 다른 사례로, 멕시코시티에서는 치노 출신 여성인 ‘이사벨 치나(Isabel China)’가 원주민 남성과 결혼하여 ‘인디오’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자녀들은 공식 문서상 인디오 계열로 기록되었다.⁴⁶⁾ 이처럼 치노 여성은 혼인과 가사노동을 통해 제도적으로 통합되었지만, 동시에 감시와 구분의 대상이 되었다.

더 나아가, 루이스(2024)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도계 치노 여성 ‘카타리나 데 산 후안(Catarina de San Juan)’은 푸에블라에서 수십 년간 유모와 종교적 하녀로 살아가며 귀족 가문 여성 및 예수회와 긴밀히 교류하였고, 그녀의 독실한 생활은 식민지 사회에서 이상적인 외래 여성상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여성 치노의 독립된 주체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국성과 순종성을 이상화함으로써 감시와 통제 속에서만 가능했던 환상적 수용이었다.⁴⁷⁾ 이처럼 타자화는 배제와 통합, 위계화와 규율을 동시에 포함한 복합적 전략이었다.

한편 치노는 종종 성화된 타자 또는 신비한 존재로 환상화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로 ‘카타리나 데 산 후안(Catarina de San Juan)’은 인도에서 출생해 마닐라를 거쳐 멕시코로 온 여성으로 신비주의적 성녀로 추앙받았다. 그녀의 이미지는 당시 종교 회화, 순례 행렬, 민속 전설에까지 확산되었으며, 이국적 외모와 금욕적 삶은 식민 사회의 이상화된 ‘외래 여성상’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상은 치노 개인의 고유한 삶이 아니라 식민 사회가 투영한 ‘이국적’ 욕망의 결과물이었다.

더불어, 일부 기록에서는 치노들이 주문과 주술, 의약품, 향신료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민간지식을 현지에 전파하며 ‘불가해한 존재’ 또는 ‘이단적 지식인’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742년 멕시코시티 교회재판소 기록에는 한 치노 남성이 ‘필리핀식 약초 주술’을 사용해 여성의 병을 치유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그는 말레이시아 전통 약재와 향신료를 혼합해 연고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⁸⁾ 또 다른 사례로, 1767년 과달라하라에서는 한 치노 점쟁이가 ‘마카오의 점서’를 통해 귀족 여성의 운명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그의 점술 도구와 점서가 압수된 기록이 남아 있다.⁴⁹⁾ 이처럼 치노들이 전파한 민간 지식은 식민 사회에서 의료적·종교적 체계에 위협을 가하는 이단적 실천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치노를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타자화의 기제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18세기 교회 재판 기록에는 한 ‘치노 노예’가 불법적으로 ‘필리핀식 부적’을 판매하거나, ‘말레이의 저주’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들은 사회의 이질성과 신비성을 자극하는 타자로서 재현되었으며, 이는 식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이러한 타자화는 식민 권력이 치노를 통해 자국민과 원주민 사이의 위계를 명확히 했으며, 그들을 경계선상에 배치함으로써 사회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처럼 아시아계 이주민, 특히 치노는 식민지 라틴아메리카에서 문화적 정체성, 법적 지위, 사회적 역할의 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타자화되었다. 이러한 타자화는 단지 억압이나 차별의 표현이 아니라, 식민 권력이 수행한 종족성

45)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p.22-24.

46) Seijas, T., 『Asian Slaves in Colonial Mexico: From Chinos to Ind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90-92.

47) Luis, D. J., 『The First Asians in the Americas: A Transpacific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pp.183-185.

48) Luis, D. J., 『The First Asians in the Americas: A Transpacific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p.138.

49) Carrillo Martín, R., 『Asians to New Spain (1565 - 1816)』, Méxic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5, pp.42-43.

구성 작업이자 정체성 정치의 실천이었다. 이들을 “역사 없는 사람들”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권력 지식 체계와 타자화 담론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치노의 존재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역사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대항해시대 갈레온 무역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치노(chino)’라는 범주 아래 어떻게 형성되고, 식민 권력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자화되었는지를 구성주의 종족성 이론과 에릭 울프의 “역사 없는 사람들”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치노는 단순한 인종적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법적·제도적·담론적·감정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경계지어진 복합적인 타자적 주체였음이 드러났다.

이들 아시아계 이주민은 마닐라-아카폴코 항로를 따라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등지에서 유입되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 식민 사회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세례, 혼인, 직업 활동,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식민 행정체계는 이들의 다양성을 ‘치노’라는 명칭 아래 획일화하였고, 그 결과 이들은 지속적으로 감시, 규율, 신비화,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지 식민 사회에서 타자화된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 서술의 영역에서도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갈레온 무역은 초기 세계화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조명되지만, 그 안에서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며, 식민 사회에 기여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는 서구 중심의 무역사와 경제사 담론 속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들의 역사적 행위성과 존재는 축소되거나 침묵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세계사 속에서도 ‘역사 없는 사람들’로 주변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노라는 존재를 단순한 인종 범주가 아닌, 식민 권력이 구성한 정치적·제도적·문화적 프로젝트의 산물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과 실천을 복원하는 것이 곧 세계사 서술의 방향성을 재구성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갈레온 무역이라는 초기 세계화의 핵심 무대에서 아시아계 이주민들의 흔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식민주의적 서사 구조에 균열을 가하는 시도이자, 비서구 사람들이 세계사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실천해왔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치노는 식민 사회의 일방적인 규범과 위계 속에 수동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능동적으로 교섭하고 실천한 주체였다. 따라서 이들을 ‘역사 없는 사람들’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다층적 서사 속에 포함시키는 작업은 단순한 과거 회복을 넘어서, 오늘날 디아스포라와 종족성, 다문화 담론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갈레온 무역 속 아시아계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서구 중심의 세계사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분과 Ⅲ】 발표

라틴아메리카 은의 유입과 명 제국과 스페인의 쇠락

최 명 호*

【목 차】

1. 서론: 낯선 존재 간의 만남이 새로움을 낳는다.
2. 최초의 전 지구적 교역: 에스파냐 제국은 돈(은)을 수출하고 상품을 구매했다.
3. 은의 유입이 불러온 직간접적 영향과 예상치 못한 결과

【 초 록 】

교역을 통한 화폐 공급의 급증은 인류사에서 스페인과 명 제국 사례로 처음 관찰되었다. 이는 오늘날 양적완화(QE)와 유사한 현상이다.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 포토시 등지에서 대규모로 채굴한 은을 수출하며 최초의 전 지구적 무역망을 형성했다. 은은 아메리카를 거쳐 유럽, 아프리카, 인도, 중국까지 흘러갔으며, 특히 은 가치가 높은 중국은 세계 은의 최종 도착지였다. 금은비가의 차이로 인해 갤리언 무역은 엄청난 이윤을 보장했고, 향신료와 비단에 대한 유럽 귀족의 수요는 경쟁적 모방(competitive emulation) 심리를 자극해 대항해 시대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막대한 은 유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유럽에서는 가격혁명(Price Revolution)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는 자급자족형 농업 경제에서 보기 드문 급격한 변화였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경제적 역동성을 제공했지만, 명 제국의 상황은 달랐다.

명은 은 중심 경제 체제였고, 세수 역시 은으로 징수되었다. 초기에 외부 은 유입은 경제를 활성화시켰지만, 17세기 초 일본의 쇄국과 스페인의 무역 제한으로 은 유입이 급감하자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세수는 줄어들고 경제 불균형은 심화되었으며, 수출 중심 산업구조는 내수를 압박했다. 결국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이자성의 농민반란(1644년)이 발생했고, 명 제국은 붕괴했다.

스페인 역시 대량 은 유입 이후 산업 붕괴, 사회 불평등, 식민지 반란 등 부작용을 겪었으며, 이는 스페인 제국 몰락의 단초가 되었다. 두 제국의 사례는 무역과 화폐 공급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인류사적 교훈이다.

【키워드】 갤리언 무역(Galleon Trade), 은 경제(Silver Economy),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가격혁명(Price Revolution), 명 제국 붕괴(Collapse of the Ming Dynasty)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강사 (nadabh@gmail.com)

1. 서론: 낯선 존재 간의 만남이 새로움을 낳는다.



<사진1> 페이스북 페이지 España maravilla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0990358393>)

가끔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나 한 장의 그림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갤러언 무역이 야기한 전 세계적 변화를 다 묘사하는 것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지 않다. 한적한 오후, 멀리 보이는 건축물은 스페인의 자랑이라는 알람브라 궁전이며, 그 궁전을 내려다보며 스페인의 전통 디저트인 추로스(Churros)와 음료인지 소스인지 구분이 애매한 진한 초콜릿 음료 겸 소스가 있고, 아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라나다 스타일의 질그릇에 담겨있다. 알려진 것 처럼, 초콜릿의 원산지는 현재 멕시코 지역으로 아즈텍문명에서 카카오는 화폐이면서 동시에 쇼콜라틀(Xocolatl이라 불리던 음료의 재료였다. 이것이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으로 건너 온 것이고 추로스는 중국의 요우티아오(油条), 짜배기나 밀가루 튀김류 과자의 원조로 현재도 대륙의 수많은 사람의 아침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갤러언 무역을 통해 넘어온 것이다. 초창기 추로스의 맛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활성화된 이후 설탕을 뿌린 달달한 형태로 변화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막대형을 원형으로 바꾸고 짝어 먹는 초콜릿을 그 위에 코딩하듯 뿌려놓으면 우리가 던킨 등 도우넛 가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설탕 대신 소금으로 추로스에 간을 하고 초콜릿 대신 가열하여 농축된 달달한 우유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현재 중국에서 즐기는 요우티아오와 그리 다르지 않다. 가까이하지 않던 것이 가까이할 때, 계산할 수 있는 이윤이 남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낯선 것이, 결국 낯익은 것이 되어가고 문화변동이란 것이 서로 일어난다.

하지만, 낯선 두 세계의 만남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진 않는다. 또한 2025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듯이,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관계들이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적 관계에서 생산과 관련된 각종 요소를 공급하고 이를 통한 이익을 배분받아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에서 벗어난 상황, 예를 들어 화폐의 직접적 공급이 일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지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스페인과 명 제국일 것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역이란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국(一國)의 경제 체제에 화폐량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을 인류사에서 처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현재 우리가 부르는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경제사적으로 봤을 때, 양적완화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1년 3월 일본에서다. 당시 일본은 장기불황으로 금리가 이미 제로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없었고,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푸는 '통화확대정책'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막고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 돈을 마구 풀어대는 양적완화를 선택했다.¹⁾ 이 파격적인 통화정책은 현대 화폐 이론(Modern Monetary Theory)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했다.²⁾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세계 금융시장이 벼랑 끝에 몰린 지난 2008년, 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이 꺼낸 카드는 중앙은행이 돈을 시중에 마구 방출하는 '양적완화'였다. 일본의 양적완화는 플라자합의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자본으로서의 일본자본, 소위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현상을 야기했고, 미국의 양적완화는 트럼프 2.0 이전, 정확히는 관세전쟁 이전까지의 미 증시의 초호황을 야기했다. 심지어 거품이긴 하지만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골디락스(Goldilocks)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였다. 거시적으로 보면 양적완화가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 세력은 계속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스위스 등 유로존 국가 기준으로)의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양적완화가 갑자기 종료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 또한 에스파냐 제국과 명 제국의 사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초의 전 지구적 교역

: 에스파냐 제국은 돈(은)을 수출하고 상품을 구매했다.

현재 볼리비아 영토에 속하는 포토시(Potosí)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었다.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그 순간이 진짜 신대륙 혹은 14세기 흑사병의 재난을 겪어 인구의 1/3이 사망한³⁾, 다시 말해 어떤 관점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유럽인들에게 진짜 유토피아가 발견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유토피아는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살 수 있는 황금의

1) 최경선(2012), “버냉키의 극약처방”,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nara_yymm=201211&fcode=0000200040000100009&cid=8482&sel_year=2012&sel_month=11

2) 부의 재정지출에 제약이 없으며, 재정정책은 균형예산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목표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화정책도 소득분배의 합리화를 위해 고정된 영(0)의 기준금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포스트 케인스학과 내에서 여러 비판이 제시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Cfr. 조복현(2020), “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통화정책”, 『사회경제평론』, 2020, vol.33, no.2, 통권 62호 pp. 227-277

3)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도시 지역은 1/2의 사망률이라고도 한다.

땅 엘도라도였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은은 많은 지역에서 화폐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고, 또 주요 국제 상품으로 거래되었으며 전 세계 원거리 무역의 수단이었다. 특히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 생산이 급증하면서 16세기 이후 은은 국제상품으로 전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거래되었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은 수요의 급증으로 해외 무역으로 주역이 되었다.

세계적인 금속 본위제도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성립했던 금본위제도가 유명하지만, 금이 국제교역의 결제통화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이전, 특히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진출한 이른바 ‘대항해시대’(15~17세기)에서 세계 교역을 지탱한 귀금속은 금이 아니라 은이었다. 초기, 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화폐는 동전이었지만 점차 은에게 밀렸다. 결과적으로 금, 은, 동 3대 금속의 세계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는 은본위제로 나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은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이나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값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은본위제가 쉽게 정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초의 세계 교역에서 사용된 기축통화로서 단위 무게당 은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면, 흑사병이라는 절망적 경험과 면죄부와 관련된 종교적 배경 그리고 전통적인 선호로 황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처음에는 카리브 지역의 금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소량으로서 스페인에 본격적으로 귀금속이 유입된 것은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광산이 개발되면서부터였다. 1545년 페루 부왕령의 포토시에서, 그리고 1548년 멕시코의 사카테카스(Zacatecas), 그리고 이후 과나후아토(Guanajuato) 등에서 은광이 발견되면서 아메리카의 막대한 은이 스페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스페인으로 들어온 은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저지대 국가들로 유입되었고, 여기서 다시 은은 스칸디나비아 및 러시아로 들어갔다. 아울러 스페인령 아메리카산 은은 또 스페인에서 지중해를 거쳐 육로와 해로로 동진하여 레반트 지역에 도달했다. 인도는 수에즈와 홍해, 인도양을 통해 스페인령 아메리카 은을 조달하기도 했고, 육로로는 지중해 동단에서 터키, 페르시아를 거쳐 흑해를 통한 인도양으로 가져오기도 했다. 아니면 희망봉 항로를 따라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유럽에서 직송해 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은은 아카풀코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마닐라까지 동양으로 단번에 운반되기도 했다. 이렇게 은의 이동은 다양한 루트를 거쳤지만 어떤 경우에도 은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중국이었다. 이렇게 중국이 전세계의 은을 빨아들인 것은 당시 중국의 금은비가(金銀比價)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낮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은값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은의 공급 가격은 은이 흔한 지역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아시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16세기 초, 중국에서의 금은비가(金銀比價)⁵⁾는 1:6으로서, 인도(1:8), 페르시아(1:10), 유럽(1:12)과

4)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콜럼버스의 ‘항해일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신대륙 탐험가들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이 ‘황금의 추구’였다. 실제 콜럼버스는 신대륙 도착 이후 줄기차게 황금을 찾고 다니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았다.

5)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데 같은 단위 무게의 은과 금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비교해 중국에서의 은의 가치가 월등히 높았다. 1592년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중국의 광저우에서 금 은비가는 1:5.5에서 1:7이었던 반면, 스페인에서는 1:12.5에서 1:14였다. 중국의 은값은 스페인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았다. 갤리언 무역은 기본적으로 두 배의 이익이 담보된 거래였고, 은을 수출하고 금을 수입하여 두 배 정도의 이윤을 기대하는 거래는 당시 기준 최고의 가치였던 비단과 도자기 등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었다.

여기서 대항해시대는 지정학적 구조, 더 정확히는 경제 교역 구조에 의한 것이다. 중세 동방에서 수입되는 향신료는 귀족계급에 필수적이었고 유럽의 귀족으로 보이고 싶어 했던 이들의 경쟁적 모방(competitive emulation)으로 인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했다. 하지만 중세 유럽의 중심지는 현재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과 이탈리아의 로마, 정확히는 바티칸이었고 이베리아반도는 주변부였고, 이탈리아의 상인들, 오스만제국으로 대표되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도(면화), 중국(비단, 도자기) 등의 교역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이들을 피해 직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욕망은 스페인이 국가적 기틀을 잡은 1492년부터 본격화된다. 원 제국을 비롯한 몽골계통 제국에 대한 전설과 미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류의 환상적 이야기들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 인도와 중국이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인디오(인도인)이라 불린 것도 우연이 아니다.

3. 은의 유입이 불러온 직간접적 영향과 예상치 못한 결과

1500년대와 1800년대 사이에 멕시코와 남미(주로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15만 톤의 은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였다. 윌리엄 바렛(William D. Barrett)의 추산에 의하면 1545년부터 1800년까지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13만 3천톤의 은 가운데 10만 톤, 그러니까 약 75%가 유럽으로 들어갔다(Barrett 1990, p.237). 그리고 이 가운데 32%, 즉 아메리카에 생산된 은의 24%인 약 3만2천 톤이 아시아로 다시 실려 보내졌다. 아메리카 은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600년경부터로, 그 이후 유럽으로 반입된 은의 40%가 다시 아시아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1600년을 전후하여 유럽인 보유한 은은 모두 6만 8천 톤이었고, 아메리카가 보유한 은은 3만3천 톤이었다. 아메리카가 보유한 가운데 일부는 태평양 건너 아시아로 직접 수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페인 은의 세계사』를 집필한 카를로 치플라에 의하면 16세기 동안 스페인으로 유입된 은은 1만 6천 톤, 17세기에는 2만 6천 톤 18세기에는 3만 9천 톤 이상이라 한다(치플라 2015, p.35).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괴의 약 60% 혹은 그 이상이 중국 혹은 아시아로 유입되었다는 설도 있다⁶⁾. 8만 톤 이상이 스페인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면 중국과 아시아, 즉 갤리언 무역을 통해 12만 톤의 은이 유입된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국제교역에 대한 기록이 현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부정확하며 갤리언 무역이 공무역에 가까운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스페인 왕실이 중심이 되어 관리하기에는 너무 큰 스케일이었다는 점, 이런 문제로 인해 스페인이나 중국이나 공인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채굴된 은이 정제된 후, 은괴로 만들어져 태평양을 건너 마닐라로 전해지고 마닐라에서 전해진 중국산 비단, 도자기 등이 다시 갤리언 무역 루트를 통해 아카폴코에 전해지고 아카폴코에서 현재 멕시코,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을 통과하고 베라크루스에서 대서양을 건너 세비야로 도착하는 일련의 과정은 형식적으로

6) 1450 to 1750: The Emergence of the First Global Age, https://afe.easia.columbia.edu/tps/1450_cn.htm

스페인 왕실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해도 지구 반 바퀴가 넘는 과정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규모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고 당시 스페인과 중국에서 공인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여전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을 비롯한 이베리아반도와 현재 이탈리아 상인 그룹과 중국, 구체적으로 마닐라와 교역 관계에 있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기준, 유럽의 변두리 혹은 가톨릭을 믿는 유럽인으로 간주되기 어려웠던 이슬람/아프리카 접경 지역, 지중해의 가장자리에 엄청난 유동성이 유입되어 중삼부를 능가하는 구매력이 생긴 것이다. 이 결과 유럽의 가격혁명(Price Revolution이라 부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50년간 물가가 대략 6배 올랐으며, 매년 인플레이션 수치는 1-1.5%꼴이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높지 않은 수치이지만, 자급자족형 농업 구조에서 인플레이션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飢饉) 등의 원인이 없으면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변화임을 감안하면 역동적인 변화이다. 이 역동적인 구매력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결국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생산성 재고(再考)를 추동(推動)한 동인(動因)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 당시 명 제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신대륙 발견’ 혹은 ‘두 세계의 만남’ 이전과 이후를 다룬 『1941』, 『1943』의 저자 찰스 만에 의하면, 명 제국 또한 이 인플레이션의 뒷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게다가 중원을 잃어버리고 패퇴한 북원 잔존 세력의 계속된 침입로 인해 특히 북쪽 국경이 불안정했다. 홍무제(주원장)와 영락제(주체) 시대에 북원의 잦은 남침과 교전이 이어졌고, 정통제(1435~1449): 1449년 토목堡(투무보) 전투에서 오이라트족에게 황제가 생포되는 대참사(토목의 변)가 발생하면서, 북방 방어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성화제(1465~1487)때 본격적으로 재건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만리장성이 건설되었다. 바로 이 시기, 대규모 토목공사와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북방 군사력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비단과 도자기 무역을 통한 은의 유입은 그 총량은 논쟁적이라 해도 명 제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명나라는 초기에는 은화를 발행하지 않았고 소위 마제은(馬蹄銀)이라는 말발굽 모양의 칭량화폐(秤量貨幣, 무게로 환산되는 화폐로 은덩어리임)를 유통시켰다. 그러나 15세기경부터 중국의 생산력이 발전하고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저가의 동전은 가지고 다니기에는 불편해 점차적으로 은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은의 유통은 점차 동전을 웃돌아, 명, 청 시대를 통해 은은 중국의 기본 통화가 되었다. 그리고 국고 수입면에서 은납(銀納)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1580년대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세제인 일조편법(一條鞭法)이 실시되었고, 이런 은의 유통에 대응해 인두세(丁銀)와 지세(地方銀) 등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이렇게 명나라 중반에 은은 전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81년 이래 은은 점점 더 주요한 통화 수단이 되면서 은의 수요는 높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외부에서의 은 유입은 경제 활성화를 야기했고 동시에 스페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상대적으로 명 제국의 인플레이션은 언급이 덜 된 면이 있으나 세금을 내야 하는 민중 전부가 은이 필요했다는 점, 갈리언 무역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던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상당한 가격상승 압박을 받아야 했다. 이는 서민층의 삶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동시에 당시 화폐인 은의 안정적 공급이 명 제국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은의 공급이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은 제국의 상존(常存)하는 위협이 되었다. 1640년이 되면 이미 중국에서의 은의 가치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명 제국 내부의 인플레이션은 단위 무게당 은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명 제국은 은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위

무계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여 세수에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되어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연쇄적 결과를 낳게 되는데, 모자란 은을 더 확보하기 위해 캘리언 무역은 점점 더 중요해졌고 비단과 수출 차 등 수출산업의 비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해외에서 채굴한 은을 얻기 위해 명 제국의 산업 체제는 개편된 것이다. 수출 기반의 산업생태계는 내수를 압박하게 되었고 내수의 위축은 세수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제국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17세기 초 일본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쇄국 정책)과 스페인의 무역 제한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은 유입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 (Von Glahn 1996; Flynn & Giráldez 1995; Brook 1998) 아메리카의 은 못지않게 많은 은을 공급하던 일본이 630년대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사코쿠)으로 은 수출이 중단되었고⁷⁾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종교전쟁이었던 30년 전쟁과 포츠담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은광의 생산량 급감으로 중국 내 은 공급 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1644년, 이자성의 농민군이 북경(베이징)을 점령한 것이 명 제국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지만 경제적인 원인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명 제국은 대규모 은의 유입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변화가 야기되었고 은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의 은 유입이 급감하면서 은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커지고 수출주도 산업구조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식민지와 독점 교역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캘리언 무역을 통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상품이 아메리카로 유입되고 다시 스페인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도자기 및 비단 산업이 붕괴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후 30년 전쟁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인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부르봉 왕조로 왕위가 바뀌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은 고조되었다. 식민지에서 스페인 왕가에 대한 반감도 커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참조-1> 세계의 귀금속 생산

(단위:메트릭 톤)

기간	은			금				
	세계	아메리카	비율	세계	아메리카	비율	아프리카	유럽
1493-1600년	23,000	17,000	74%	714	280	39%	255	148
1601-1700년	40,000	34,000	85%	900	590	66%	200	100
1701-1800년	57,000	51,000	90%	1,900	1,620	85%	170	108
합계	120,000	102,000	85%	3,514	2,490	71%	625	356

출처: 워드 배럿은「세계 귀금속의 흐름(1450년~1800년)」

<참조-2> 스페인이 마닐라에 보낸 은의 양

연도	1598	1604	1620	1633	1723	1784
은의 양 (페소가치)	100만	205만	3백만	2백만	4백만	279만

출처: Sha Ding etc., *Breve historias de las relaciones entre China y América Latina*, p.70.)

7) 아메리카의 은이 중국에 들어가기 전 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은 생산국으로서 중국의 최대 은 공급처였다. 일본 은 1560~1600년엔 연간 50톤의 은을, 1600~1640년에는 연간 150~190톤의 은을 생산했고, 절정기인 1600년 초에는 200톤에 달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560~1640년 기간 중 은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일본의 생산량은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특별분과 Ⅲ】 발표

중국과 메소아메리카의 만남: 껌리온 무역 유물을 중심으로

정 혜 주*

【목 차】

1. 들어가며: 메소아메리카에서 처음 만난 아시아 유물
2.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만남
3. 새로운 문물의 탄생
4. 더 오래된 관계

【 초 록 】

메소아메리카와 중국은 넓은 태평양이 펼쳐있어서, 1492년 이후, 유럽에서 아메리카대륙의 존재가 알려지고, 범선이 개발된 후에 관계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미 오래 전에 중국에 나타나고, 사용되었고, 정신세계를 받치는 형상들이

발견되었다. 이 글은 중국과 메소아메리카 문화에 나타난 형상을 비교, 분석하여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키워드】 메소아메리카, 고대중국, 토기, 옥, 무역

* 경희사이버대 강사 (pztintin@gmail.com)

1. 들어가며: 메소아메리카에서 처음 만난 아시아 유물

고고학을 배우는 학교에 들어간 첫 학기에 선생님과 함께 유적의 지표조사를 하러 그 유명한 페오띠우아칸으로 갔다. 우뚝선 피라미드 위에 올라서 넓은 주위를 내려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멋진 피라미드는 멀리서 보고, 페오띠우아칸 주위에 있는 밭으로 갔다. 나를 포함한 학생들은 갈아 엮어놓은 밭을 뒤적이며 깨어진 사금파리들을 주워 모았다. 크고 작은 토기 조각은 엄청나게 많았다. 주황, 갈색이 대부분인 파편 속에서 문득 하얀 조각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도자기의 바닥 부분이었다. 그런데 한자가 써 있었다. 1400년대의 연대였다. 놀라서 선생님께 들고 갔다. 1400년대의 연대라니? 스페인 사람들은 1500년이 넘어서 나타나지 않았나? 선생님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멕시코와 중국의 교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에 알려진 1492년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을 돌아오고 가는 항로를 말하는 것이었다. 뜻밖의 사실이었다. 메소아메리카를 알고 싶어 태평양을 건너갔는데, 첫 조사 현장에서 아시아의 흔적을 만난 것이다. 과연 얼마나 두 대륙은 서로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2.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만남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이 만난 것은 아마도 1492년 이후일 것이다. 태평양은 옛사람이 건너기에는 너무 넓다고 여겨졌다. 10,000년전에는 얼어붙은 베링해를 걸어왔으나 정착하여 문명을 일으키고 산 것은 5000년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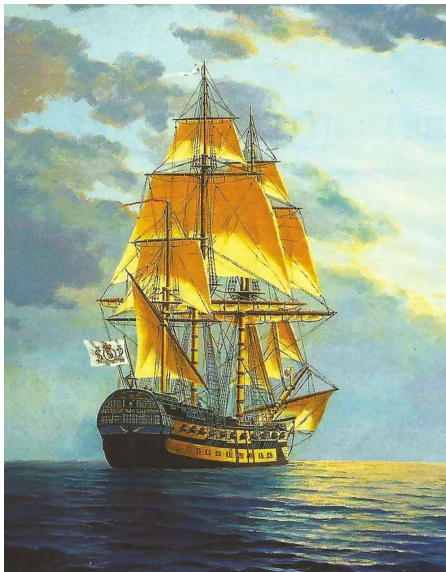
1519년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마젤란(Magellan) 함대가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 1521년에 필리핀의 마닐라를 발견,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는 새 항로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부 앞바다의 막탄섬에서 원주민에게 살해당하였다. 그리하여 마젤란의 여행은 1525년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다시 온 엘카노(El Cano)가 필리핀과 말루까제도에 도착하여 항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도 필리핀의 원주민을 복속하지는 못하였다. 1529년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가서 멕시코에 도착하는 항로를 찾고자 했으나, 범선으로 태평양을 건너게 해줄 동풍을 찾지 못했다. 1542년에는 멕시코에서 북쪽으로 향해하여 캄차카반도까지 이르렀다.

1559년에 새-에스빠냐(멕시코) 부왕은 필리핀을 정복하고, 향신료 등을 싣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받은 레가스피(Miguel Lopez de Legaspi)의 함대, 산-페드로(범선의 이름)는 1565년 멕시코의 아카폴코 항구를 떠나 태평양을 횡단하여 필리핀에 도달했다. 산페드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넌 범선이 되었다. 이 항해를 실제로 지휘한 사람은 우르다네타(Andres de Urdaneta)였다. 그는 바로 귀로에 올라 일본 방향으로 북상하여 북위 24도에 이르렀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북위 38도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를 만났다. 거기서 진로를 동쪽으로 잡았다. 마침내 북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에 도착하였고, 이어 캘리포니아의 멘도시노 곳에 도착,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1565년 10월 8일에 아카폴코에 도착하였다. 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에 있는 아카폴코에서 마닐라로 돌아가는 서쪽 항로는 동쪽 항로에 비해 한결 쉬웠다. 북위 10-14도 사이의 무역풍을 타고 순조롭게 항해하여 마닐라로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르다네타는 마닐라-아카폴코 항로를 열었다(서성철 (2017): 25-27; 조래성(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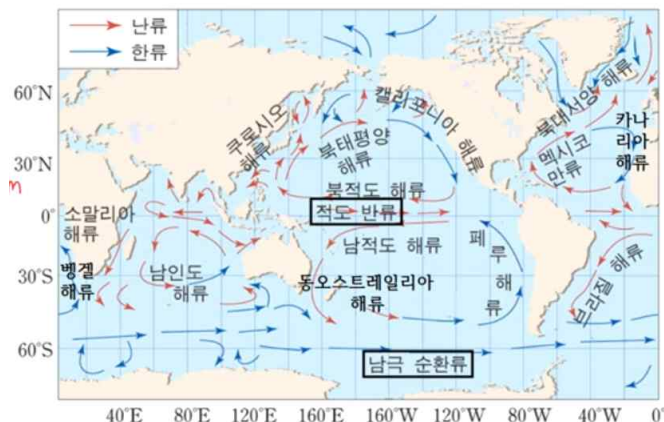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의 아카폴코와 필리핀의 마닐라와 연결하는 이 항로로 무역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멕시코와 필리핀 간의 무역이었으나 물품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왔다. 특히 비단은 중국에서 만들어 전 세계로 팔렸다. 따라서 비단선 또는 중국선으로 불렸다. 11월에서 이듬해 3월말까지는 아카폴코에서 마닐라로, 4-5월말까지는 마닐라에서 아카폴코로 범선은 항해했다. (범선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층 해류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은 같다.)

두 대륙사이의 무역은 1572년 중국의 물품을 실은 배가 마닐라항을 출발하며 시작하였다. 순조롭게 아카폴코 항구에 닿았고, 중국의 물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1574년에는 2척, 1575년 15척으로 무역품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 아카폴코에 도착하는 범선의 수가 늘어났다. 매년 1 또는 2회 마닐라 갤리온 무역이 이루어졌다. (1565년~1815년, 250여 년간 15000km, 400여 회, 4~6개월)

중국 쪽에서 오는 물건은 비단, 도자기, 인도의 면직물, 일본의 칠기, 또한 향신료(말루쿠 제도), 상아, 보석, 향수, 가구, 부채, 종이, 꽃병, 함, 가구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물품이 왔고, 멕시코에서는 은으로 물건값을 지급했다.



<그림1> 무역의 주인공 범선, 출처: 구글, 범선



<그림2> 해류의 방향, 출처: 조래성, <https://www.youtube.com/watch?v=7DCtqp7RYIo>

3. 새로운 문물의 탄생

1521년부터 스페인사람들을 비롯한 유럽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아메리카로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원주민의 생활장소, 전통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아메리카 북부(캐나다, 미국), 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의 팜파 일대 등과 같이 완전히 사라진 곳들도 적지 않았다.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 지역처럼 고대문명이 크게 발달하여 인구도 꽤 많고, 흔적도 많이 남아있던 곳에서는 여러 문명이 섞인 채 또 다른 양상의 문화로 가지 치게 되었다. 아메리카에서는 오래전부터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소통보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소통이 은근히 발달해 있었다(콘티히호의 탐험을 생각해 보심).

아메리카 뿐만아니라 아시아에도 발을 뻗은 스페인 사람들은 필리핀도 점령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개항한 마닐라 항구에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인도에서 온 물품들이 아메리카로 옮겨졌다. 아시아의 사치품(향신료, 도자기)이 주를 이룬 무역은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1815년까지 약 250여 년간 계속되었다. 밀려온 물품의 영향을 받아 멕시코에서도 원주민의 전통과 취향이 어우러진 새로운 스타일의 토기, 도자기 등을 만들어 내었다. 뿌에블라산 도자기들, 병풍, 칠기 등은 주로 치아빠스, 게레로, 미초아칸 주에서 생산하였다.

여기에 사치품이 아닌 우아라체 (일본 짚신, 와라지에서 온 이름), 코코넛 와인(필리핀 전통주 투바, 필리핀 사람들의 야자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망고나무도 심었다.)

물품만이 아니라 풍습도 들어왔는데, 뿌에르토리코에서 인기있는 닭싸움도 필리핀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남미의 문화를 규정하는 “혼종”, “메스미소”는 유럽문화와 석인 것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가로질러 온 풍습, 예술 등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스며들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뿌에블라 주에서 만드는 도자기들(그림3, 그림4)과 칠기(그림5)가 그것이다.

** 스페인으로부터 들어온 이후 독자적으로 발전한 물품들



<그림3> 딸라베라: 그림에서 매우 동양적인 느낌이 든다.

<그림4> 딸라베라 뿌에블라, 유럽풍의 주제같지만 독특하게 형성된 무늬가 잘 어울린다.

<그림5> 칠기로 만든 쟁반, 더운 지방 숲속에서 만날 수 있는 새들, 그러면서도 동양적이다

4. 더 오래된 관계

메소아메리카는 식민지시대 이후부터 문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스페인사람들이 오기 훨씬 전, 약3000년 전부터 전해오는 문명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준으로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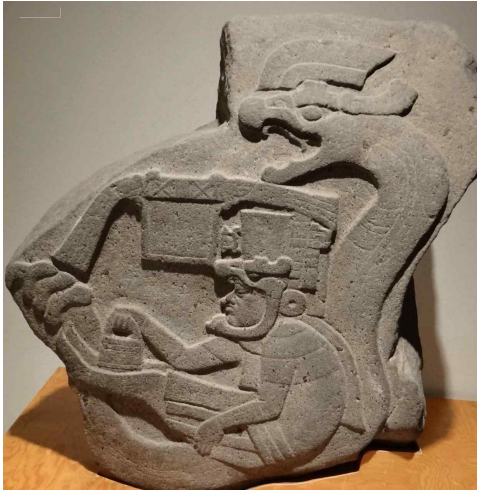
구석기 기원전 250만년 - 10,000년 ; 켄돌, 주먹도끼

신석기 기원전 10,000년 - 기원전 1500년 ; 간돌, 여신상, 옥기, 암각화, 흑요석...

청동기 기원전 1500 - 300년; 청동검, 방울, 거울

이런 유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유물들은 중국의 유물들과 상당히 닮았다. 다음의 예를 보면, 그림6은 멕시코, 따바스꼬 주에서 발견되었다. 그림은 관을 쓴 뱀이 둘러싸고 있는

향주머니를 들고 있는 사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검은색 옥으로 만든 뱀인데, 구부리고 있는 자세와 관을 쓴 모습이 유사하다. 뱀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 즉 비를 상징한다. 기우제를 주관하는 사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6> 기념물 19 라벤따, 따바스코, 멕시코



<그림7> 홍산문화 1기형 옥기 조천사상, 기원전 1320-1046년 출처: 선도문화 11권, 2009

한 사람이 앉아있고, 그를 뱀이 둘러싸고 있다. 뱀은 관을 쓰고 있다. 매우 특별한 옷을 입고, 손에 향주머니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올메카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메소아메리카문명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뱀의 표현. 뱀은 물을 상징하며 풍요, 식물과 인간의 풍요가 오게 한다. 뱀은 고개를 위로 들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본다. 비를 기다리는 형상.



<그림 8> 기원전 16-11 세기, 상



<그림 9> 출처: 하바드예술박물관.

두 유물 모두 출처가 불분명하고, 박물관에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다. 상나라 때로 추정한다. 휘어진 모습, 피부를 상징하는 듯한 점들, 만든 기술이 유사해보인다.



<그림10> 마야 고전기(500-900년) 출처: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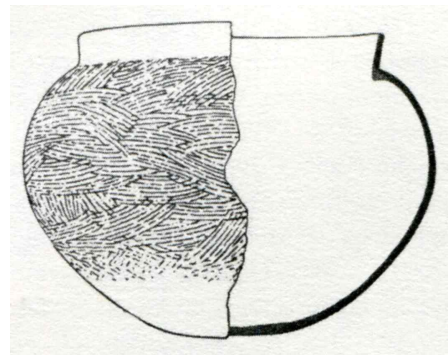


<그림11> 주 나라(기원전 1046-256년) 출처:

왼쪽은 마야 고전기의 흑요석으로 만든 의례용품이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오른쪽은 주나라 시절에 옥으로 만든 의례품이다. 두 유물은 생산연도가 1500년 이상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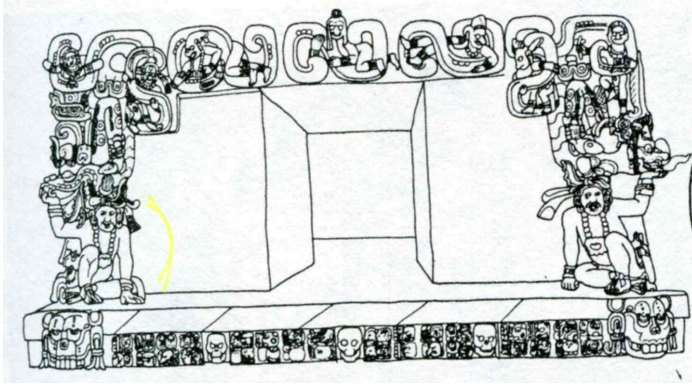


<그림12>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15,000년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그림13> 빗살무늬토기, 마야 후기고전기(900-1200년)

빗살무늬토기는, 놀랍게도, 한반도와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토기이다. 왼쪽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고, 오른쪽은 유카탄반도 북부 치첸이쯔아 유적 일대에서 발견된 것이다. 빗살무늬는 좌우, 위-아래로 매우 유사하다. 만든 연대는 천년 이상 차이가 날것으로 추정한다.



<그림14> 신전 22, 꼬빰, 온두라스, 고전기(600-900년)



<그림15> 상(? 기원전 1600-1046년) 출처: 소더비(Sotheby)

왼쪽은 고전기 마야유적인 온두라스 꼬빰에 있는 기둥과 대들보를 뱀이 휘어감고 있는 신전이다. 오른쪽은 소더비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 시대의 옥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 뱀을 기어오르고 있는 모습으로, 신전 22 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야문명에서는 이 기념물이 은하수와 별들의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2000년 전에도 그 하늘을 나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별분과 Ⅲ】 발표

중국 명·청 시대의 갈레온 무역이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

오혜정* · 서선영** · 김성자***

【목 차】

1. 서론
2. 갈레온 무역의 역사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변화
 - 1) 역사적 배경
 - 2) 사회문화적 변화
3. 중국계 메스티소의 형성과 글로벌 영향
 - 1) 중국계 메스티소의 등장
 - 2) 중국계 메스티소의 글로벌 영향
4. 중국 상품이 유럽 시장에 미친 영향
5. 결론

【 초 록 】

본 연구는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중국 명·청 시대 갈레온 무역이 대세계에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무역을 통해 형성된 중국계 메스티소(Mestizo)의 역할과 그들이 전지구적 문화 교류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갈레온 무역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연결한 최초의 글로벌 무역망이자, 초기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환태평양 교역 체계였다. 이는 스페인의 식민지 전략, 중국의 상업적 성장, 그리고 필리핀의 지정학적 중개지로서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탄생한 국제 상거래 네트워크였다.

연구 결과, 갈레온 무역은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 인적, 기술적, 문화적 요소의 장기적 순환을 이끌어 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계 메스티소라는 복합 문화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중국, 필리핀, 중남미, 유럽을 잇는 복합적 정체성과 문화 융합의 상징적 존재로 기능하며, 상업, 기술, 언어, 예술을 매개로 각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들은 유럽의 귀족 문화, 중남미의 종교 예술, 필리핀의 식민 도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문화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재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갈레온 무역이 단순히 상품 이동을 넘어 문화적 상징과 감각의 교류를 이끌어 냈음을

* 제1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지역통상전공, (20186016@bufs.ac.kr)

** 공동저자,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제분석센터장, (ssy2357@daum.net)

*** 공동저자,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전임연구교수, (darakb@hanmail.net)

밝히고, 중국계 메스티소를 단순한 혼혈 집단이 아닌 전지구적 문화 흐름을 만들어낸 문화 중개자로 재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근대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 문화의 보편성과 창조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구조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키워드】 갈레온 무역, 중국계 메스티소, 문화 교류, 명청시대, 초기 세계화

1. 서론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지속된 갈레온 무역(Galleon Trade)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최초의 무역망이자, 초기 세계화(globalization)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환태평양 교역 체계였다. 이 무역은 스페인의 식민지 전략과 중국의 상업적 성장, 필리핀의 지정학적 중개지로서의 위치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탄생한 국제 상거래 네트워크였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은은 필리핀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은본위 경제와 상품 화폐화를 촉진하였으며¹⁾, 동시에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와 같은 고급 소비재는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문화와 취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²⁾.

특히 중국은 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문화 및 경제 공급지로 기능하였고, 명·청 교체기의 동아시아 세계는 이 무역을 통해 급격한 내·외부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명대 후기 해금 정책의 완화와 푸젠성(福建省)과 광둥 연해 상인의 활약, 청대 초기 국제 무역의 확대는 모두 갈레온 무역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실현되었으며, 마닐라는 이 흐름의 핵심 거점이자, 중국계 상인과 기술자, 장인들이 진출하는 통로로서, 중국 문화의 확산 기지가 되었다.³⁾

갈레온 무역은 단순한 상품 교환에 그치지 않고 인적, 기술적, 문화적 요소의 장기적 순환을 이끌어 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계 메스티소라는 복합 문화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혼혈이 아니라, 중국-필리핀-중남미-유럽을 관통하는 복합적 정체성과 문화 융합의 상징적 존재로 기능하였다. 그들은 상업, 기술, 언어, 예술을 매개로 하여 각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의 귀족 문화, 중남미의 종교 예술, 필리핀의 식민 도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문화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재해석했다⁴⁾.

이러한 문화 확산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나드는 상품 이동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상징과 감각의 교류로 이어졌으며, 중국계 메스티소들은 단지 중개상인이 아니라, 자국 문화와 현지 문화, 식민지 권력과 주변 민중 사이에서 상징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존재였다.⁵⁾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기독교적 상징 체계 속에 불교, 도교, 유교적 장식과 도상, 그리고 중국식 길상 문양을 융합시

1) Flynn, D. O., & Giráldez, A.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Journal of World History*, 6(2), 1995, pp. 201 - 221.

2) Blair, E. H., & Robertson, J. A. 『The Philippine Islands, 1493 - 1898』. Cleveland: A. H. Clark Company, 1903 - 1909.

3) 郑德华. (1985). 马尼拉的巴利昂华人社区 (1582 - 1860). 《华侨华人历史论集》, 中山大学东南亚历史研究所.

4) 王丹韵. 「马尼拉大帆船贸易中的银丝贸易 (1565 - 1815)」. 浙江师范大学 석사학위논문, 2015.

5) 李德霞. (2020). 16 - 17世纪中拉海上丝绸之路的形成与发展. 《第五次东南亚历史货币暨海上丝绸之路货币研讨会论文集》.

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에서는 ‘시노아즈리(Chinoiserie)⁶⁾’ 혹은 ‘동양풍(Orientalism)’의 형성 및 소비에도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갈레온 무역을 통해 생성된 교류 양상은 오늘날 글로벌 문화의 기원을 조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계 메스티소의 활동은 콜럼버스 교환(Columbian Exchange)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간 생물·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시아발 문화와 물자가 아메리카와 유럽을 관통하며 교차하는 복합적 교환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교류가 아니라 미적 감각, 종교 상징, 실용 기술,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문화재편을 가능하게 했다⁷⁾.

본 연구는 이러한 갈레온 무역의 전개와 그 과정에서 활동한 중국계 메스티소 집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국이 초기 세계화 국면에서 필리핀, 중남미, 유럽에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들을 단순한 혼혈 집단이 아닌, 전지구적 문화 흐름을 만들어낸 문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초기 근대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 더 나아가 아시아 문화가 갖는 보편성과 창조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갈레온 무역의 역사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변화

1) 역사적 배경

갈레온 무역은 초기 세계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그 시작은 1565년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무역 네트워크는 중국 푸젠성 장저우 월강(月港)을 중심으로 중국과 필리핀, 멕시코의 아카폴코를 잇는 환태평양 무역로로 구성되었다⁸⁾.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주요 상품 중 비단은 주로 저장성 항저우와 쑤저우에서 생산되었으며, 도자기는 장시성 징더전(景德鎮)과 푸젠성 더화(德化)에서 제작되었다⁹⁾. 차는 푸젠성의 우이산(武夷山) 등지에서 채배된 고급 차가 수출되었고, 약재는 광둥성 및 쓰촨성에서 조달되었다. 금속제품에는 놋그릇, 거울, 촛대, 자물쇠, 철제 농기구와 조리도구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푸젠성과 광둥성의 수공업 중심지에서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¹⁰⁾. 이러한 중국 상품들은 중국의 해상 상인들과 화교 상인들의 주도로 필리핀 마닐라까지 운송되었으며, 이후 스페인 상인들과 현지 필리핀 상인들에 의해 멕시코의 아카폴코까지 선적되었다. 필리핀의 마닐라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중계지로 성장했으며, 아카폴코는 중국 상품을 소비하는 주요 시장이자, 유럽으로 향하는 상품의 출발점으로 기능하였다. 17세기 무렵에는 매년 약 200만에서 400만 페소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연결은 전 세계적 규모의 초기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¹¹⁾.

아메리카 은의 대량 유입은 명·청 시대 중국 사회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왔다. 첫째, 은은 국가의 조세 수납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국가 재정 운영이 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둘째, 은의 유통은 상업

6)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 유럽의 후기 바로크·로코코 양식의 미술에 가미된 중국풍의 미술품

7) Legarda, B. J. Jr. (1999). After the galleons: Foreign trade, economic change and entrepreneurship in the nineteenth-century Philippines.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8) Schurz, W. L. 『The Manila Galleon』. New York: E. P. Dutton & Co., 1959.

9) 张燮. (1981). 《东西洋考》. 中华书局.

10) 郑德华. (1985). 马尼拉的巴利昂华人社区 (1582 - 1860). 《华侨华人历史论集》, 中山大学东南亚历史研究所.

11) Boxer, C. R. (2001). Plata es sangre: Sidelights on the drain of Spanish-American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인 계층의 부상과 도시의 번영을 이끌었다. 셋째, 일부 지역에서는 은의 편제로 인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과 물가 불안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메리카 은은 중국의 화폐 경제를 강화하고 명말 청초 상품경제의 확산과 도시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무역은 단순한 상품 교류를 넘어 상호 문화적 교류를 촉진했다. 중국 도자기와 비단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생활양식과 미적 기준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청화백자 스타일을 모방한 도자기 생산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른바 ‘시노아즈리’라는 바로크 및 로코코 시대 유럽 귀족들의 장식 예술과 인테리어 양식에 널리 반영되었다¹²⁾. 벽지, 가구, 식기, 정원 설계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에는 중국풍 가구와 도자기를 소장하는 것이 귀족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¹³⁾.

중국 비단 역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의복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식 자수, 문양, 색채가 귀족과 상류층의 의복에 적용되었고, 멕시코에서는 중국산 비단을 활용해 전통 의상인 ‘레보조(rebozo)’나 스카프에 중국식 디자인을 차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중국산 차는 유럽에서 사교 문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영국의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 문화는 중국 녹차 및 홍차의 수입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회적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예술 양식은 중남미 지역, 특히 멕시코의 종교 건축과 공예품에도 반영되었다. 멕시코 ‘푸에블라(Puebla)’ 지역의 ‘탈라베라 도자기’는 중국의 청화백자 기법을 받아들여 지역화된 형태로 발전했으며, 멕시코 가톨릭 교회의 제단 장식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실크 천과 수공예품이 사용되었다. 필리핀에서도 중국식 용 문양, 박쥐, 모란 등 길상 문양이 교회 건축물이나 제단 장식, 의복 등에 등장하며 중국 문화의 깊은 영향을 보여준다.¹⁴⁾

이러한 문화적 수용과 융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전통과 혼합되어 독특한 양식을 형성했으며, 초기 세계화 시대의 다층적 문화 교류의 실례로 평가된다. 결국, 갈레온 무역은 상품과 문화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세계가 연결되고 융합되는 초기 글로벌 경제 및 문화 네트워크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¹⁵⁾

2) 사회문화적 변화

중국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현지 사회에 융화되고 혼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집단을 형성하였다. 초기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현재는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중국계 메스티소들이 18-19세기에 중요한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였다.¹⁶⁾ 이러한 중국계 메스티소는 현지 문화와 중국 문화의 융합,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계 메스티소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크게 세 가

12) <https://www.youtube.com/watch?v=z1eOmUg0EIQ> 영상 내용 참고.

13) Schurz, W. L. (1959). *The Manila galleon*. E. P. Dutton.

14) 刘芝田. (1979). 《中菲关系史》. 台湾正中书局.

15) Flynn, D., & Giráldez, A. (1995). Arbitrage, China, and world trade in the early modern period.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38(4), 429 - 448.

16) Hugo Capella Miternique, "Fusion in Multicultural Societies: Chifa food as a Means of Spreading Chinese Culture in the Hispanic World", *Asia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Volume 02 - Issue 05, October 2014.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혼합 문화의 형성이다. 중국계 메스티소는 중국 문화와 현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예컨대, 중국계 이주민들은 중국의 전통 의식주 문화를 현지의 문화와 혼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음식, 예술, 그리고 생활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융합은 현지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풍요로움을 가져오기도 했고, 중국계 메스티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Project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차원에서 아르헨티나(55%), 칠레(57%), 멕시코(55%)의 응답자 대다수가 중국의 사상과 관습이 자국에 전파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심지어 아르헨티나(68%)와 멕시코(56%)에서는 중국의 대중문화, 음악, 영화, 텔레비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칠레(75%), 아르헨티나(72%), 멕시코(61%)의 많은 인구가 중국의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진보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ciana Denardi는 ‘중국인의 존재’는 단순히 그 나라의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넘어선다고 하였다. 중국인의 정체성은 그들이 실천하는 관습이나 조상과의 연결을 통해 중국 문화에 속한다고 느끼는 것이다.¹⁷⁾

둘째, 사회적 다양성의 확대이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가져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먼저, 중국의 다양한 언어, 풍습, 예술 등을 현지 사회에 소개하면서 문화의 교류를 촉진했다. 예컨대, 페루의 ‘치파(Chifa)’ 음식문화는 중국-페루 문화 융합의 대표적 사례이다. 19세기 중국 이민자들이 현지 재료와 광둥식 조리법을 결합해 새로운 요리 문화를 만들었다. 현재 페루에서는 3,000개의 치파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페루의 일상적인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¹⁸⁾ 또 이들은 중국과 현지 사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경제, 교육,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그 지역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풍토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현대에는 중국-라틴 아메리카 간의 무역 증가로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 예술, 언어 교류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 센터들이 설립되고 있다.¹⁹⁾ 중국계 메스티소의 사회적 다양성 확대는 이민자들의 다채로운 문화적 배경, 언어, 그리고 전통이 지역 사회에 스며 들면서 촉진되었다. 예컨대, 중국계 공동체는 전통 명절, 예술, 요리, 그리고 관습을 공유하면서 사회에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류는 현지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중국계 이민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은 현지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중국계 메스티소와 현지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셋째, 경제적 영향이다. 중국계 메스티소는 무역, 농업, 음식 문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멕시코의 경우, 20세기 초 중국 커뮤니티는 식료품점과 소규모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농업, 광업, 철도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²⁰⁾ 먼저 중국계 메스티소는 중국과 현지 간 무역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교류를 촉진했다. 이들은 중국의

17) Pablo Baisotti, “Discovering the ‘Other’: Chinese Immigration and Established Community in Argentina,” in *Chinese Immigration in Latin America: Some Cultural Contributions*, ed. Pablo Baisotti (2020), 93,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2974979>.

18) Chifa Du Kang, “Chifa: The culinary legacy of Chinese immigration in Peru”, 2023.06.27., [https://chifadukan.com/blog/chifa-culinary-legacy-chinese-peru/\[2025.05.01.\]](https://chifadukan.com/blog/chifa-culinary-legacy-chinese-peru/[2025.05.01.]).

19) publicpolicyperu, “Chinese Influences on Peru”, 2022.08.30., [https://umdpolicyperu2016.wordpress.com/2017/04/02/chinese-influences-on-peru/comment-page-1/\[2025.05.02.\]](https://umdpolicyperu2016.wordpress.com/2017/04/02/chinese-influences-on-peru/comment-page-1/[2025.05.02.])

20) “Chinese Americans, countries apart”, 2022.08.20., [https://penntoday.upenn.edu/news/chinese-peruvian-tusan-immigrants-history\[2025.05.01.\]](https://penntoday.upenn.edu/news/chinese-peruvian-tusan-immigrants-history[2025.05.01.])

상품과 기술을 현지에 소개하고, 현지의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중국계 이민자들은 현지 농업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중국의 농업 기술과 작물 재배 방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중국계 메스티소는 음식 문화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현지에 중국 요리를 소개하고, 이를 현지 식재료와 결합하여 새로운 요리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적 교류와 혁신은 중국계 메스티소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현지 사회의 경제 및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3. 중국계 메스티소의 형성과 글로벌 영향

1) 중국계 메스티소의 등장²¹⁾

중국계 메스티소(Chino Mestizo)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인과 원주민 또는 유럽인 간의 혼혈 후손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중국 이민자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특히 아편 전쟁 이후 많은 중국인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했다. 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 식민지 노동 수요, 해외 무역 확대 등의 요인이 중국인 이주의 배경이 된다. 특히 푸젠(福建)·광둥(廣東)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해외 이주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노동력으로 사용되었고, 농업, 광업,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중국계 이민자들은 현지 원주민이나 유럽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이로 인해 중국계 메스티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19세기 후반 주로 페루, 쿠바, 멕시코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쿨리(Coolie)’²²⁾ 노동자로 건너간 광둥·저장 출신 화교들이 설탕·면화 농장에서 일하며 현지인과 혼혈이 이루어졌다. 페루의 ‘티촌(Tusán)’²³⁾ 커뮤니티가 대표적이다. 20세기 초 반둥(班東) 등지의 화교들이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정착하며 브라질에도 중국계 메스티소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이주 경로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형성되어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바바냐냐(Baba-Nyonya)’²⁴⁾ 문화는 중국계 남성과 말레이 여성의 결합에서 비롯된 독특한 전통으로 유명하다.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 식민지 시절(16~19세기) 푸젠성 출신 화교들이 필리핀에 정착하며 현지인과 혼혈이 증가했다. 현재도 필리핀 상류층 중 상당수가 중국계 혈통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주로 1570년대 이후 마닐라로 이주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마닐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인 면허’를 부여받아 ‘파리안(Parián)’이라 불리는 지정된 중국인 거주 구역에 정

21) 이에 관해서는 Romero, Robert Chao. *The Chinese in Mexico, 1882 - 1940*.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0; Gomez, Rocío. "Chinese Mexicans: Mexico's Forgotten and Overlooked Mestizos." *History in the Making* 10, no. 1 (2017): Article 4를 참고할 것.

22) 쿨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중국, 인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계 외국인, 이민자를 뜻한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F%A8%EB%A6%AC>[2025.04.30].)

23) 티촌은 페루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중국계 혼혈 또는 화교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용어로, 스페인어 "Tusán" (중국어 "투산(土生)"의 변형)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19세기 중후반 페루로 이주한 중국인 노동자들의 후손으로, 현지 문화와 중국 전통이 혼합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다(Arroyo, Eduardo. 2012. "Los Tusanes en el Perú". Lima: Editorial San Marcos.)

24) ‘바바냐냐’란 남성을 의미하는 ‘바바’와 여성을 의미하는 ‘냐냐’의 합성어로, 중국인 남자와 말레이 여자가 결혼하여 생성된 독특한 문화를 말함(주말레이시아대사관, 「바바 냐냐 (Baba Nyonya)」, 2019.10.13., https://www.mofa.go.kr/my-ko/brd/m_1951/view.do?seq=715856[2025.05.01].)

착하였다. 마닐라 파리안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중국인 이민자들의 상업 활동과 장인 노동의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상인 중 일부는 후에 ‘상업 귀족’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고, 스페인 식민당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통상 필리핀 현지 여성, 특히 타갈로그족(Tagalog)이나 카팜팡안족(Kapampangan) 출신 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이를 통해 혼혈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탕 쿤(唐昆)’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국 출신 상인은 17세기 마닐라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스페인 식민지 행정에 협조적이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상류 메스티소 계층으로 편입되었다.²⁵⁾ 중국계 메스티소들은 단순한 이민자의 후손이 아니라, 필리핀 식민사회에서 독특한 중간 계급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중국 상인 가문의 실용적 기술과 상업적 자본력, 그리고 원주민 혈통을 통한 지역 사회 내 연계성을 모두 지닌 존재로서, 중개상, 수공업 생산자, 운송업자 등 다방면에서 필리핀 식민지 경제에 기여하였다.

<표1>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중국인 이주민 인구 추정치: 1980-2010

	Year	Argentina	Brazil	Chile	CR	Ecuador	Mexico	Panama	Peru	Venezuela	TOTAL
1	1980	2,000	11,200	2,000	6,000	12,800	20,000	33,000	52,000	14,000	153,000
2	1990	20,000	10,000	13,000	22,000	15,000	20,000	100,000	500,000	15,000	715,000
3	2000	30,000	149,570	5,000	63,000	20,000	30,000	130,000	1,300,000	50,000	1,777,570
4	2008*	30,000	200,000	4,000	20,000	16,500	10,700	ND	ND	ND	281,200
5	2009*	70,000	300,000	7,000	60,000	50,000	ND	150,000	ND	130,000	767,000

1. Poston, Xinxiang Mao and Yu Mei-Yu, “Global distribution of overseas Chinese around 1990,” Population & Development Review.

This study presents findings from surveys conducted in 1980 and 1990.

2. “Shao Center Distribution of the Ethnic Chinese Population around The World,” Ohio University Libraries, 2010.

3. Biblioteca Nacional del Congreso de Chile, “La realidad de los chinos en Latinoamérica,” <http://asiapacifico.bcn.cl/reportajes/chinos-en-latinoamerica>, 11 Nov. 2008.

4. R. Evan Ellis, China in Latin America. The Whats and Wherefore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9.

ND = No Data; * = Date Published; CR = Costa Rica

출처: Mazza, Jacqueline. “Chinese Migration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American Dialogue, October (2016), 11의 표를 재인용.

주: 2행 1900년대 TOTAL 수치는 인용자료의 계산 착오로 저자가 다시 계산하여 수정한 수치임.

<표1>은 20세기 후반부터 9개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LAC) 국가들의 중국계 외국인 추정치의 광범위한 차이를 보여준다. 연도별 수치들은 중국계 이민자들의 누적 규모를 나타내지만, 중국 본토, 대만, 홍콩 출신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표1>에서 보듯이 페루는 중국인 이민자가 1990년 50만 명에서 2000년에 13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2009년 기준 브라질의 중국인 이주민의 누적 수는 30만 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전체 수치는 50만 명에 달했다.²⁶⁾

중국계 메스티소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및 유럽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음식문화, 언어, 전통 등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또 이들은 상업 및

25) 王丹韵. (2015). 《马尼拉大帆船贸易中的银丝贸易 (1565 - 1815)》. 浙江师范大学 석사학위논문.

26) Mazza, Jacqueline. “Chinese Migration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American Dialogue, October (2016), 11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현대에 들어서 중국계 메스티소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중국 음식, 축제, 예술 등에서 그들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중국계 메스티소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이들의 역사와 문화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중국계 메스티소의 글로벌 영향

갈레온 무역의 발전과 함께 많은 중국 상인과 기술자들이 필리핀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현지 원주민들과 결혼하여 '중국계 메스티소(Mestizo)'라는 독특한 사회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푸젠성 출신으로, 특히 장저우(漳州), 취안저우(泉州), 샤먼(厦门) 등 해안 지역에서 온 민남계 상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문화적으로도 중국계 메스티소 사회는 필리핀에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전파하였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전통 음식인 판싯(Pancit)과 롬피아(Lumpia)는 중국 요리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대표적인 음식이다. 또한, 중국의 명절과 풍습이 필리핀의 지역 축제와 융합되어 시놀로그(Sinulog) 등 다양한 혼합 문화 축제가 생겨났다.

갈레온 무역을 통해 필리핀에 정착한 중국계 메스티소는 단지 마닐라에 국한된 지역 공동체에 머물지 않았다. 일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중국계 메스티소 가문들은 중남미로의 확장을 꾀하였다. 이들은 갈레온 무역을 통해 멕시코 아카폴코, 푸에블라, 멕시코시티로 이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며 무역과 중개업을 지속했다. 18세기 중반 멕시코시티의 일부 시장에서는 중국계 메스티소 상인들이 필리핀산 실크와 도자기를 도매로 취급하며 현지 상업 인프라에 편입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스페인계 상류층과 통혼하거나 귀화하여 사회적 지위를 높였다.²⁷⁾

예를 들어, 멕시코 푸에블라 지역의 기록에는 '도밍고 차오'라는 이름의 중국계 혼혈 상인이 18세기 후반 교회에 중국식 도자기와 실크를 기증하고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했다는 사례가 남아 있다. 또한, 멕시코 항구 도시 아카폴코에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사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중국계 상인들과 필리핀계 메스티소들이 함께 조직한 상업 공동체인 '라 헤르만다드 데 산 이시드로(LA HERMANDAD DE SAN ISIDRO)'가 형성되었다. 이 공동체는 1680년대 초 필리핀계 메스티소 상인 '세바스티안 산토스(Sebastián Santos)'와 푸젠성 출신 화교계 상인 '리우 청(Liu Cheng)'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상인 조합으로, 주로 실크, 도자기, 제기류, 차, 향료 등의 거래와 유통을 관리하였다²⁸⁾. 이들은 아카폴코 항에서 마닐라 갈레온이 도착하는 시기에 맞춰 임시 시장을 개설하고, 멕시코 남부 및 과테말라, 페루 상인들과 중개무역을 수행했다.

필리핀계 메스티소는 통역과 지역 유통을 담당하고, 중국계 상인은 상품 조달과 품질 관리를 맡으며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현지 중남미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혼혈 결혼과 가톨릭 세례를 통해 문화적 융합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일부 상인들은 멕시코 현지 여성과 결혼하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여, 그 후손들은 '중국계 크리오요(Criollo Chino)'로 불리며 멕시코

27) Blair, Emma Helen, and James Alexander Robertson. (1903). "The Philippine Islands Scholarship and Context." JSTOR. Retrieved from <https://www.jstor.org/stable/42633940>.

28) 王丹韵. (2015). 《马尼拉大帆船贸易中的银丝贸易 (1565 - 1815)》. 浙江师范大学 석사학위논문.

의 지역 장인 조합이나 상인 조합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상인 조합들은 스페인 식민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공식 조직으로, 항만 무역 허가, 세금 감면, 시장 통제권 등 다양한 상업 특권을 부여받아 활동했다. 중국계 크리오요들은 초기에는 조합 외부인이었으나, 혼혈 배경과 가톨릭 세례, 지역 귀족과의 통혼을 통해 점차 정회원으로 편입되었으며, 특히 비단, 자수품, 도자기, 향료 등 고급 아시아 상품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도메스티카 도나시온(Domestica Donación)' 부문을 책임졌다.. 이들은 조합 내에서 아시아산 고급 상품 유통의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며, 멕시코 내 아시아 문화 소비 확산과 경제적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공동 상업 활동은 아카폴코를 통한 아시아-아메리카 교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유럽으로도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중국계 메스티소가 직접 유럽으로 이주한 사례는 드물지만, 마닐라-아카폴코-세비야로 이어지는 무역 경로를 통해 메스티소 상인이 중개한 중국산 상품과 혼합 문화 양식은 유럽 귀족 계층의 취향과 예술 감각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메스티소들이 접목시킨 중국식 문양과 유럽식 자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적 상징이 혼합된 장식 공예품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귀족 가문 수집품으로 인기를 끌었다.²⁹⁾ 대표적인 공예품으로는 자개를 입힌 상자(lacquered boxes), 진주나 비단을 덧댄 경전 보관함, 중국식 연화문(蓮花紋)과 유럽식 성모마리아상이 결합된 제단 장식, 성화를 감싸는 자수 성물함 등이 있다. 이들 공예품은 마닐라나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제작되어 세비야나 리스본을 통해 유럽의 귀족 가문으로 유입되었다.

이 공예품들은 실용적 목적 외에도 정치적 선물이나 외교적 상징물로 활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스페인 부르봉 왕가의 궁정에서는 아시아산 장식품이 외교 사절에게 수여되거나 궁정의 예배실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물품은 유럽 귀족들의 '지식과 취향'의 지표로 여겨졌으며, 아시아 상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이 교양과 권위를 상징하는 사회적 장치로 작동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수입은 유럽의 공예 및 예술에도 반영되어 18세기 중엽 영국의 윌리엄 홀랜드 가구 양식이나 프랑스 리모주 도자기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식민지 수탈과 문화 소비가 긴밀히 연결된 초기 자본주의적 문화 구조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혼혈 공동체가 형성한 새로운 문화적 주체로서 중국계 메스티소가 글로벌 교류의 매개자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4. 중국 상품이 유럽 시장에 미친 영향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잡았다. 이 시기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와 맞물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상품과 문화가 교류되는 시기로 갈레온 무역은 중국의 비단, 도자기, 직물, 생사 등의 상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며,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은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NP)에서도 세계 1/3에서 1/4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풍요로움은 중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서 은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가지게 된 배경이 된다. 명나라 시대에 중국은 지폐 정책을 폐지하고 은편을 발행하여 은이 기본 통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은의 유통이 확대되었다.

29) Schurz, W. L. 『The Manila Galleon』. New York: E. P. Dutton & Co., 1959.

반면, 이 시기에 스페인은 필리핀에 식민지를 구축하고,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멕시코 부왕령에서 필리핀으로 은을 송금했다. 당시 갈레온 무역은 스페인 왕실이 직접 관리했으며, 필리핀 식민지 유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투아도(situado)라는 적자보전금을 은화 또는 은괴 형태로 마닐라에 보냈고, 이렇게 보내진 은이 중국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중국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교역을 촉진하였다.

<표2> 스페인이 마닐라에 보낸 은의 양

연도	1598	1604	1620	1633	1723	1784
은의 양 (페소 가치)	100만	250만	300만	200만	400만	279만

자료: Sha Ding etc., Breve historias de las relaciones entre China y América Latina, p70. Hernández Contreras & Jiao Zhenheng(2007) 재인용

이에 앞서 중국과 필리핀은 오랜 역사적 교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3세기부터 중국인들은 필리핀으로 항해하였고, 송나라 시대부터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된다. 이후 명나라 시대에는 해금령 완화로 인해 중국의 무역선이 필리핀과의 교역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교역은 중국 상인들이 필리핀으로 수출을 확대하게 했고, 스페인인들이 아메리카에서 필리핀으로 보낸 은은 중국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다.

15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선을 통한 필리핀 교역은 급증했으며, 1589년에 대부분의 중국 정크선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필리핀과 보르네오의 동쪽 해상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에 힘입어 마닐라로 출항한 중국 선박의 수는 1580년 21척에서 1588년에는 48척으로 증가했다.

<그림1> 연간 마닐라로 출항한 중국 선박의 수



자료: Sha Ding etc., Breve historias de las relaciones entre China y América Latina, Editorial Popular de Henan, China, 1986, p57. Hernández Contreras & Jiao Zhenheng(2007) 재인용

갈레온선은 대규모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큰 선박으로 중국의 비단, 도자기, 향신료 같은 고급 상품을 스페인으로 운반하고, 유럽의 다양한 상품을 동아시아로 수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특히, 비단과 도자기는 핵심 상품으로 명나라 건국 이후 중국은 전란이 끝나고 내부가 안정되면서 농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전했다. 이후 명나라 후기에는 상인 경제가 번성하였으며, 도자기와 비단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중국의 수출품 중에서 비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단 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뽕나무 재배와 생사 생산이 증가하며 성장했다. 비단은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정교한 직조 기술과 고급스러운 재질로 높게 평가받아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스페인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다. 또한 비단은 단순한 의류를 넘어 유럽 패션과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문화적 변화를 촉진했다. 유럽에서는 중국 비단을 사용한 화려한 드레스가 제작되었고, 이는 고가에 거래되며 유럽의 방직업자들이 중국의 기술을 배우며 현지 비단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단 제품에는 벨벳, 태피터, 금·은을 입힌 비단으로 만든 의류와 생활용품 등이 포함되었다.

도자기 생산은 장시성의 경덕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도자가 생산되었다. 중국 도자기는 정교한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였으며, 특히 청화백자는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이를 소장하는 것이 부와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이러한 수요는 유럽의 도자기 제조업자들에게 중국의 기술을 연구하고 모방하게 만들었다. 독일의 마이센과 영국의 웨지우드 같은 브랜드는 중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중국 도자기의 섬세한 디자인과 색상은 유럽의 장식 예술에 영향을 미쳤다.

<표3> 중국 발전 시기별 갈레온 무역의 영향

구분		주요내용		비고
명나라	초기 (1368~1424)	내부 안정과 경제 회복	명나라 건국 후, 내부가 안정되면서 농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기 시작	상업경제 기초 마련
		비단 산업의 장려	정부가 뽕나무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비단 생산량 크게 증가	비단 산업의 성장 촉진
	중기 (1425~1580)	도자기 산업의 발전	장시성 경덕진을 중심으로 도자기 생산 발전	다양한 종류의 고급 도자기 생산 및 수출
		조선 산업의 활성화	해상 운송 사업의 발전으로 명나라 상품의 대외 무역 확대	갈레온 무역의 기반 마련
		은 수요의 증가	은이 주요 화폐로 사용되면서 은 수요 급증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은광 개발로 연결
	후기 (1581~1644)	무역의 확대	조선 산업의 번영과 함께 갈레온 무역이 활발	중국의 비단과 도자가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은의 유입	멕시코와 페루에서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	상품경제 발전 촉진
청나라	초기 (1644~1700)	왕조 교체기의 혼란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되면서 혼란	비단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비단과 은 무역의 지속	비단과 은의 교환은 계속	경제적 상호 이익 공유
	후기 (1700~1912)	문화적 교류의 확대	갈레온 무역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문화 교류	유럽과 아시아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
		상업경제의 번영	멕시코 페소가 중국 동남 해안 지역에서 유통	상업과 통화 경제의 발전 촉진

자료: 서성철(2017),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토대로 연구자 정리

결론적으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중국의 비단, 도자기, 향신료 같은 고급 상품을 스페인으로 운반하고, 유럽의 다양한 상품을 동아시아로 수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필리핀을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공간)으로 발전시켰다.³⁰⁾

갈레온 무역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중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문화

30) 스페인은 필리핀을 단순한 식민지 이상으로 보고 아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은 아시아와 유럽 간의 상업적 다리 역할을 수행함

적 교류를 활성화했다. 특히 스페인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무역로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의 부를 연결하는 경제적 구조를 구축하였고, 필리핀은 아시아의 중요한 상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관문으로써 기능하였다.

5. 결론

갈레온 무역을 통해 확산된 중국 문화는 단순히 아시아의 고급 소비재가 유럽과 아메리카로 수출된 경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간 상호문화적 전이를 유도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계 메스티소의 등장은 단순한 혼혈의 결과를 넘어, 문화 매개자이자 전지구적 문화 확산의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중국 문화의 영향력은 콜럼버스 교환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인 문화 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계 메스티소는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멕시코, 페루,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나 장인에 머물지 않고, 실용기술과 장식예술, 음식문화와 생활양식을 전파하는 문화적 중개자로 기능했다. 그 후손들은 크리오요 사회에 편입되어 상업조합과 교회 예술 후원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인적·문화적 가교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적으로 이들은 혼혈 결혼과 세례를 통해 가톨릭 사회 내부로 통합되었으며, 교육, 언어, 복식 등에서 유럽과 중국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메스티소 문화권을 형성했다. 특히 멕시코 푸에블라와 아카폴코의 교회 제단 장식, 성상, 종교 행렬에서 확인되는 중국식 문양과 기법은 이러한 문화적 융합의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경제적으로 중국계 메스티소는 마닐라-아카폴코-세비야를 잇는 삼각 무역의 중개자로 활약하며, 은-비단-향신료 루트의 핵심 고리를 형성했다. 이들이 유통한 중국산 도자기, 자수품, 공예품은 유럽 궁정에서 정치적 외교 선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상품이 단순한 사치품을 넘어 정치 권력의 상징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수입은 유럽의 예술사와 실용예술에도 반영되어, 18세기 중엽 시노아즈리(Chinoiserie) 양식, 자수공예, 건축미학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갈레온 무역이라는 경제 활동이 가져온 다양한 문화 교류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주목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중국계 메스티소를 단순한 혼혈 집단이 아닌 문화를 연결하고 전파한 주체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초기 세계화 과정 속 문화 융합의 구체적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중국계 메스티소는 초기 근대 세계에서 동아시아 문명이 서구 및 라틴아메리카 세계와 접촉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들은 단순한 상업 네트워크의 부산물이 아니라, 전지구적 문화 교환의 실질적 주체로서 아시아의 문화자본이 현지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양식과 질서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초기 세계화의 복잡성과 상호작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각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문화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심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까지 이어지는 중국계 메스티소 공동체와 그들의 문화적 지속성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레온 무역이 동아시아 전체의 무역 구조에 끼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역시 요구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초기 글로벌 교류의 복합적 성격과 현대적 함의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어학분과 I】 발표

『詞林韻釋』의 入聲 체계 및 이에 따른 성격 고찰

왕 옥 지*

【목 차】

1. 서론
2. 『詞林韻釋』의 入聲 체계
3. 入聲 체계에 근거한 『詞林韻釋』의 성격(音系, 成書 연대)
4. 결론

【 초 록 】

본 연구는 『詞林韻釋』 어음체계의 첫걸음 연구로, 입성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귀납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운서의 성격을 규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저자 미상의 『詞林韻釋』 入聲 體系는 入聲을 陽聲韻에 귀속한 中古 入聲 分韻法과는 달리 陰聲韻에 귀속하고, 入聲 韻尾 -p(-ㅂ), -t(-ㄷ), -k(-ㄱ)가 구분 없이 混合 현상, 즉 입성 운미(-p, -t, -k)의 喉塞韻尾(-?)化 그리고 -p 운미와 -t 운미가, -t 운미와 -k 운미가 혼합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入聲 分韻法은 南宋 말경 熊忠의 『古今韻會舉要』(1297년), 元代 朱宗文的 『蒙古字韻』(朱本: 1308년), 元代 周德清的 『中原音韻』(1324년)과 같다. 『詞林韻釋』과 『中原音韻』은 같은 體裁와 19韻部를 갖추고 있으며, 수록된 入聲字도 유사하며, 단 『中原音韻』에서는 平聲을 陰과 陽으로 구분하고 있다. 『古今韻會舉要』, 『蒙古字韻』은 『詞林韻釋』, 『中原音韻』과 다른 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古今韻會舉要』와 『蒙古字韻』 또한 각각 다른 시대를 반영한 독특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周德清的 『中原音韻』 目錄에는 一東鍾, 二江陽, 三支思, 四齊微, 五魚模, 六皆來, 七真文, 八寒山, 九桓歡, 十先天, 十一蕭豪, 十二歌戈, 十三家麻, 十四車遮, 十五庚青, 十六尤侯, 十七侵尋, 十八監咸, 十九廉纖 19韻部를 수록하고 있다.

3) 『詞林韻釋』의 체제, 구성, 어음체계, 성격은 『中原音韻』과 거의 일치하다. 그러므로 북방 曲韻을 반영한 운서는 유명한 『中原音韻』이외 著者和 成書 연대 未詳, 세간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詞林韻釋』도 있다.

4) 北曲을 반영한 운서로, 詞林이란 서명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詞林韻釋』의 成書 연대

* 제1저자.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부교수 (yuzhi3@hanmail.net)

는 元末 明初로 추정할 수 있다. 즉 元 정부의 衰退期 또는 明初 漢民族의 전통문화 회복이란 정부의 정책으로 蒙古風 文化에 대한 타도 하에 詞林을 서명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키워드】 詞林韻釋, 入聲, 喉塞韻尾, 古今韻會舉要, 蒙古字韻, 中原音韻, 曲韻, 韻書

1. 서론

『詞林韻釋』¹⁾ 跋文에 실려 있는 “『詞林韻釋』一卷一名『詞林要韻』”이란 말과 目錄에 실려 있는 ‘新增詞林要韻’, ‘校正詩韻’이란 말을 통해 『詞林韻釋』은 1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명 『詞林要韻』이라고도 하며, 『詞林韻釋』의 편찬 목적은 『詞林要韻』을 새롭게 증보하고, 詩韻을 교정하는 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인은 「『詞林韻釋』 소고」란 발표에서 『詞林韻釋』 跋文의 해석을 근거로 그 성격과 특징 그리고 체재, 韻書로서의 가치를 살핀 바 있는데, 詞林²⁾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와 목록에 있는 ‘校正詩韻’이란 말을 통해, 이 운서가 반영한 어음체계는 詞韻인가? 曲韻인가? 詩韻인가? 이 운서가 갖는 성격에 대하여 간단한 추론을 한 바 있다.³⁾ 그러나 그 발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詞林韻釋』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이 운서의 어음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음체계 연구의 첫걸음 연구로, 입성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귀납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운서의 성격을 규명하여, 한어 어음사와 문학사, 운서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詞林韻釋』의 入聲 체계

『詞林韻釋』 目錄 新增詞林要韻에 19韻部⁴⁾의 목차, 校正詩韻에 卷一 上平聲 15韻⁵⁾, 卷二 下平聲 15韻⁶⁾, 卷三 上聲 28韻⁷⁾, 卷四 去聲에 30韻⁸⁾, 卷五 入聲에 17韻⁹⁾의 목차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서의 실제적 구성과 체재에서는 新增詞林要韻에서 수록한 19韻部를 바탕으로 각 韻部에 해당

* 제1저자.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부교수 (yuzhi3@hanmail.net)

1) 저자 미상, 『詞林韻釋』, 臺灣 中華書局, 1980.

2) ‘시인 또는 문인의 문단과 사회’ 또는 ‘詩文을 모아서 엮은 책’이란 뜻.

3) ① 紹興 2年(1132년) 南宋 初期 이전에 완성되었다면 詞韻을 위한 운서로 당시의 사운의 分韻 體系가 곡운과 유사하였다는 것이다. ② 元末 明初에 완성된 운서라면 北曲을 위한 운서로 원 정부의 쇠퇴기 또는 명초 몽고풍 문화에 대한 타도와 한 민족의 전통문화 회복이란 정부의 정책 하에 曲이란 서명 대신 詞林이란 서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 一東紅, 二邦陽, 三支時, 四齊微, 五車夫, 六皆來, 七真文, 八寒間, 九鸞端, 十先元, 十一蕭韶, 十二和何, 十三嘉華, 十四車邪, 十五清明, 十六幽游, 十七金音, 十八南山, 十九占炎.

5) 一東, 二冬, 三江, 四支, 五微, 六魚, 七虞, 八齊, 九佳, 十灰, 十一真, 十二文, 十三元, 十四寒, 十五刪.

6) 一先, 二蕭, 三肴, 四豪, 五歌, 六麻, 七陽, 八庚, 九青, 十蒸, 十一尤, 十二侵, 十三覃, 十四鹽, 十五咸.

7) 一董, 二腫, 三講, 四紙, 五尾, 六語, 七麌, 八齊, 九蟹, 十賄, 十一軫, 十二吻, 十三阮, 十四旱, 十五潸, 十六銑, 十七篠, 十八巧, 十九咍, 二十舸, 二十一馬, 二十二養, 二十三梗, 二十四迴, 二十五有, 二十六寢, 二十七感, 二十八口.

8) 一送, 二宋, 三絳, 四真, 五味, 六御, 七遇, 八霽, 九泰, 十卦, 十一隊, 十二震, 十三問, 十四願, 十五翰, 十六諫, 十七霰, 十八嘯, 十九效, 二十號, 二十一箇, 二十二禡, 二十三漾, 二十四敬, 二十五徑, 二十六宥, 二十七沁, 二十八勘, 二十九豔, 三十陷.

9) 一屋, 二沃, 三覺, 四質, 五物, 六月, 七曷, 八黠, 九屑, 十藥, 十一陌, 十二錫, 十三職, 十四緝, 十五合, 十六葉, 十七洽.

平·上·去·入聲과 해당 한자를 수록하고 짧은 해석을 하고 있다.

『詞林韻釋』 19韻部 중 9개 韻部, 三支時韻, 四齊微韻, 五車夫韻, 六皆來韻, 十一蕭韶韻, 十二和何韻, 十三嘉華韻, 十四車邪韻, 十六幽游韻에서 아래와 같이 入聲字를 수록하고 있다.¹⁰⁾

1) 三支時韻 入聲作上聲에는 塞澁瑟 등 극히 적은 수(7개)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2) 四齊微韻 入聲作平聲에는 十拾射石寔實碩室濕溼拓食蝕什直帙擲植躋秩秩陟職織炙植秩緝輯卽寂耳藉瘠積疾夕惜析熄昔悉膝席襲習狄敵適及急吉激擊極或畫獲忽賊拂弼佛泌泌効覈赫黑核礫 등 약 13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上聲에는 只蛭執汁室郅劑質七漆戚磧匹闕孽悞癖劈霹鉦霹級吃屐奭螫拭軾識舍釋室濕蹠蹠績積畢蹠蹠壁逼逼幅珌鉞幅壁鼻瘕渴碼葯德得幘颯國比筆黑遶蹠蹠滌邳給吸噏歛滃翁乞訖泣詰乙赫嚇則 忒慝特 등 약 13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去聲에는 日昝尺斥赤密蜜覓沕縶默立粒笠歷礫栗力曆射亦液驛浥奕疫役域益逆億抑揖挹翼匿邑翊乙繹逸訖勒劇 등 약 90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3) 五車夫韻 入聲作平聲에는 獨讀毒續突族數輶甸復服伏軸逐蜀屬熟淑暴渤俗續術述佛局 등 약 7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上聲에는 谷穀骨告窟哭禿速縮腹幅覆不卜鞠鞠橘曲屈叔束竹竺築燭屬祝肅宿足卒促趣趨拂佛蓄畜觸屋沃別瀑猝聿咄 등 약 135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去聲 祿綠鹿六錄陸玉育欲慾浴粥獄沐牧睦目穆木勿物辱肉入 등 약 6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4) 六皆來韻에는 入聲作平聲에는 白帛宅擇澤翟劃畫獲 등 약 14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체로 -k 운미 入聲字 이다.

入聲作上聲에는 伯迫栢百策冊拆測客克剋拍魄隔假格革色索摘仄責幘擘擲 등 약 5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체로 -k 운미 入聲字이다.

5) 一蕭韶韻 入聲作平聲에는 濯濯濁鐸度學薄博泊涸作著縛杓 등 약 45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上聲에는 覺脚珏角卓琢啄數朔朴璞炤繳削爵託脫錯各閣廓擴郭鑠連確塊握喔幄 등 약 10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체로 -k 운미 入聲字이다.

入聲作去聲에는 樂鑰嶽岳約略弱若虐漠寞末抹沫摸漠膜畧掠弱若虐烙洛酪樂鰐鄂鏹惡鱣 등 약 50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체로 -k 韻尾 入聲字이고, 극소수의 -t 韻尾 入聲字도 있다.

6) 十二和何韻 入聲作平聲에는 合盒闔褐活括跋拔縛佛薄泊亳渤勃濁擢濯鐸奪度學 등 약 3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上聲에는 割轄鵠合葛撥跋喝活括渴脫析潑撮抹 등 약 5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去聲에는 岳藥樂約鑰莫幕末抹沫摸漠膜畧掠弱若虐烙洛酪樂鰐鄂鏹惡鱣 등 약 5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7) 十三嘉華韻 入聲作平聲에는 達踏沓撻猾滑狹匣峽罰乏伐闡雜 등 약 3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上聲에는 榻榻達搭塔殺札挿察八刮答撒押甲瞎介割軋 등 약 85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去聲에는 蠟拉刺臘內納壓鴨押抹捺 등 약 20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8) 十四車邪韻 入聲作平聲에는 協叶穴頤頤俠竭桀牒迭蝶疊諜經跌舌折涉攝別截睫掇掘趕絕 등 약 55

10) 저자 미상, 위의 책을 근거로 함.

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上聲에는 薛繼泄洩契屑竊妾漆切結潔訐接楫節血客接楫缺決厥訣鐵貼帖雪別說輟徹澈撤哲浙折設攝 등 약 100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入聲作去聲에는 捏聶攝滅蔑噎葉咽業額裂列獵烈熱月悅閱粵曰越劣 등 약 75여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9) 十六幽游韻 入聲作平聲에는 柚軸逐祝孰熟 6자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柚자를 제외하면 모두 -k 入聲字이다.

入聲作上聲에는 竹燭粥 3자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k 韻尾 入聲字이다.

入聲作去聲에는 六肉 2자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k 韻尾 入聲字이다.

3. 入聲 체계에 근거한 『詞林韻釋』의 성격(音系, 成書 연대)

傳統 韻書의 체제, 즉 分韻體系는 韻과 聲調를 묶어서 하나의 韻을 이루지만, 『詞林韻釋』은 운과 성조를 분리시켜 非傳統的 分韻法을 사용하고 있다. 『詞林韻釋』은 19韻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韻部別로 해당 平¹¹⁾·上·去·入聲으로 나누어 각 聲調에서 聲母를 구분해서 同音字(平聲字, 上聲字, 去聲字, 入聲字)를 수록하고 짧은 해석을 하고 있다. 『詞林韻釋』의 入聲 體系는 아래와 같이 그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1) 19韻部 가운데 9韻部 三支時韻, 四齊微韻, 五車夫韻, 六皆來韻, 十一蕭韶韻, 十二和何韻, 十三嘉華韻, 十四車邪韻, 十六幽游韻, 즉 入聲字를 陰聲韻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는 入聲字를 陽聲韻에 귀속시킨 中古 入聲 체계와는 다른 점이다.

2) 9개 韻部에서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으로 나누어 해당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의 入聲字를 수록하고 있는데 ① 三支時韻에는 入聲作上聲 7개 한자, ② 四齊微韻 入聲作平聲에는 약 130여개 한자, 入聲作上聲에는 약 130여개 한자, 入聲作去聲에는 약 90개 한자, ③ 五車夫韻 入聲作平聲에는 약 70여개 한자, 入聲作上聲에는 약 135여개 한자, 入聲作去聲에는 약 60여개 한자, ④ 六皆來韻 入聲作平聲에는 약 14개 한자, 入聲作上聲에는 약 50여개 한자, ⑤ 十一蕭韶韻 入聲作平聲에는 약 45여개 한자, 入聲作上聲에는 약 100여개 한자, 入聲作去聲에는 약 50개 한자, ⑥ 十二和何韻 入聲作平聲에는 약 30여개 한자, 入聲作上聲에는 약 50여개 한자, 入聲作去聲에는 약 50여개 한자, ⑦ 十三嘉華韻 入聲作平聲에는 약 30여개 한자, 入聲作上聲에는 약 85여개 한자, 入聲作去聲에는 약 20개 한자, ⑧ 十四車邪韻 入聲作平聲에는 약 55개 한자, 入聲作上聲에는 약 100여개 한자, 入聲作去聲에는 약 75여개 한자, ⑨ 十六幽游韻 入聲作平聲에는 6자, 入聲作上聲에는 3자, 入聲作去聲에는 2자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3) 각 운부에 귀속된 입성자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중고 입성자의 특징인 入聲 韻尾 -p(-ㅂ), -t(-ㄷ), -k(-ㄱ)가 구분없이 混雜 현상, 즉 입성 운미(-p, -t, -k)의 喉塞韻尾(-?)化를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 -p 운미와 -t 운미가, -t 운미와 -k 운미가 혼합되어 있거나, -k 韻尾字만 수록된 同音字도

11) 『詞林韻釋』 平聲字 처리는 校正詩韻의 “卷一 上平聲 15韻, 卷二 下平聲 15韻”과는 달리 平聲을 上과 下로 나누지 않고, 平聲으로 수록하고 있다.

있다. -p, -t, -k 入聲 韻尾의 혼합 현상에 대한 전면적 분석은 차후 과제로 남긴다.

4) 『詞林韻釋』의 入聲 體系는 陽聲韻에 귀속된 中古 入聲 分韻과는 달리 陰聲韻에 귀속되어 있고, 入聲 韻尾 -p(-ㅂ), -t(-ㄷ), -k(-ㄱ)의 喉塞韻尾(-?)化는 물론,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을 통해 入聲의 調(톤)의 소실을 나타내고 있다.

5) 校正詩韻에는 ‘卷五入聲’一屋, 二沃, 三覺, 四質, 五物, 六月, 七曷, 八黠, 九屑, 十藥, 十一陌, 十二錫, 十三職, 十四緝, 十五合, 十六葉, 十七洽, 17개 韻을 수록하고 있지만, 실제 입성 어음체계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개의 入聲 韻類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상 4)과 같이 통해 『詞林韻釋』의 入聲은 이미 소실되었으므로, 17개 운 또는 24개 운류는 의미가 없다. 단 17개 운과 24개 운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표1> 『詞林韻釋』의 入聲 특성

韻部	入聲字의 陰聲韻 귀속 및 入聲의 調(톤)의 소실	入聲 韻尾의 혼합현상
一東紅		入聲 韻尾 -p(-ㅂ), -t(-ㄷ), -k(-ㄱ)의 混合 현상, 즉 입성 운미(-p, -t, -k)의 喉塞韻尾(-?)化, -p와 -t가, -t와 -k 등의 혼합 현상
二邦陽		
三支時	入聲作上聲	
四齊微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五車夫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六皆來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七真文		
八寒閒		
九鸞端		
十先元		
十一蕭韶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二和何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三嘉華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四車邪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五清明		
十六幽游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七金音		
十八南山		
十九占炎		

이상에서 살펴본 『詞林韻釋』 入聲의 특성과 어음 체계를 근거로 이 韻書의 성격, 語音體系, 成書 연대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저자 미상의 『詞林韻釋』 入聲 體系는 入聲을 陽聲韻에 귀속한 中古 入聲 分韻法과는 달리 陰聲韻에 귀속하고, 入聲 韻尾 -p(-ㅂ), -t(-ㄷ), -k(-ㄱ)가 구분 없이 混合 현상, 즉 입성 운미(-p, -t, -k)의 喉塞韻尾(-?)化 그리고 -p 운미와 -t 운미가, -t 운미와 -k 운미가 혼합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入聲 分韻法은 南宋 말경 熊忠의 『古今韻會舉要』(1297년)¹²⁾, 元代 朱宗文的 『蒙古字韻』(朱本: 1308년)¹³⁾, 元代 周德清的 『中原音韻』(1324년)과 같다.¹⁴⁾ 『詞林韻釋』과 『中原音韻』은 같은 體裁와 19韻部를 갖추고 있으며, 수록된 入聲字도 유사하며, 단 『中原音韻』에서는 平聲을 陰과 陽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⁵⁾ 『古今韻會舉要』, 『蒙古字韻』은 『詞林韻釋』, 『中原音韻』과 다른 체재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古今韻會舉要』와 『蒙古字韻』 또한 각각 다른 시대를 반영한 독특한 체재를 갖추고 있다.¹⁶⁾

2) 周德清的 『中原音韻』 目錄에는 一東鍾, 二江陽, 三支思, 四齊微, 五魚模, 六皆來, 七真文, 八寒山, 九桓歡, 十先天, 十一蕭豪, 十二歌戈, 十三家麻, 十四車遮, 十五庚青, 十六尤侯, 十七侵尋, 十八監咸, 十九廉纖 19韻部를 수록하고 있다.

3) 『詞林韻釋』의 체재, 구성, 어음체계, 성격은 『中原音韻』과 거의 일치하다. 그러므로 북방 曲韻을 반영한 운서는 유명한 『中原音韻』이외 著者和 成書 연대 未詳, 세간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詞林韻釋』도 있다.

4) 北曲을 반영한 운서로, 詞林이란 서명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詞林韻釋』의 成書 연대는 元末 明初로 추정할 수 있다. 즉 元 정부의 衰退期 또는 明初 漢民族의 전통문화 회복이란 정부의 정책으로 蒙古風 文化에 대한 타도 하에 詞林을 서명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표2> 『詞林韻釋』 入聲 19韻部와 『中原音韻』 入聲 19韻部の 귀속

『詞林韻釋』 入聲 19韻部	『中原音韻』 入聲 19韻部	양 韻書 入聲字의 陰聲韻 귀속 및 入聲의 調(톤)의 소실
一東紅	一東鍾	
二邦陽	二江陽	
三支時	三支思	入聲作上聲
四齊微	四齊微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五車夫	五魚模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12) 黃公紹의 『古今韻會』(1292년)의 요약본이다.

13) 朱本 이전에 여러 관련 운서가 있었으나, 현재 모두 실전되었다.

14) 왕옥지, 「『蒙古字韻』과 『古今韻會舉要』의 關係 및 語音根據 考察」, 제12집, 부산경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論集』, 1997. 12. pp.10-11. 참조.

왕옥지, 「『蒙古字韻』研究」,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1997. 8. pp.103-104. 참조

15) 陳新雄, 『中原音韻概要』, 臺北: 學海出版社, 1985. 참조.

16) 『詞林韻釋』의 체재는 본 연구에서 살필 수 있고, 『古今韻會舉要』와 『蒙古字韻』의 체재는 왕옥지, 「『蒙古字韻』과 『古今韻會舉要』의 關係 및 語音根據 考察」, 제12집, 부산경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論集』, 1997.12., p.4. 참조.

六皆来	六皆来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七真文	七真文	
八寒閒	八寒山	
九鸞端,	九桓歡	
十先元	十先天	
十一蕭韶	十一蕭豪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二和何	十二歌戈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三嘉華	十三家麻	『中原音韻』: 入聲作平聲, 入聲作去聲 『詞林韻釋』: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四車邪	十四車遮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五清明	十五庚青	
十六幽游	十六尤侯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十七金音	十七侵尋	
十八南山	十八監咸	
十九占炎	十九廉纖	

4. 결론

『詞林韻釋』 入聲의 체재, 구성, 語音體系에 대한 규명 결과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저자 미상의 『詞林韻釋』 入聲 體系는 入聲을 陽聲韻에 귀속한 中古 入聲 分韻法과는 달리 陰聲韻에 귀속하고, 入聲 韻尾 -p(-ㅂ), -t(-ㄷ), -k(-ㄱ)가 구분 없이 混合 현상, 즉 입성 운미(-p, -t, -k)의 喉塞韻尾(-?)化 그리고 -p 운미와 -t 운미가, -t 운미와 -k 운미가 혼합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入聲 分韻法은 南宋 말경 熊忠의 『古今韻會舉要』(1297년), 元代 朱宗文의 『蒙古字韻』(朱本: 1308년), 元代 周德清的 『中原音韻』(1324년)과 같다. 『詞林韻釋』과 『中原音韻』은 같은 體裁와 19韻部를 갖추고 있으며, 수록된 入聲字도 유사하며, 단 『中原音韻』에서는 平聲을 陰과 陽으로 구분하고 있다. 『古今韻會舉要』, 『蒙古字韻』은 『詞林韻釋』, 『中原音韻』과 다른 체재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古今韻會舉要』와 『蒙古字韻』 또한 각각 다른 시대를 반영한 독특한 체재를 갖추고 있다.

2) 周德清的 『中原音韻』 目錄에는 一東鍾, 二江陽, 三支思, 四齊微, 五魚模, 六皆来, 七真文, 八寒山, 九桓歡, 十先天, 十一蕭豪, 十二歌戈, 十三家麻, 十四車遮, 十五庚青, 十六尤侯, 十七侵尋, 十八監咸, 十九廉纖 19韻部를 수록하고 있다.

3) 『詞林韻釋』의 체재, 구성, 어음체계, 성격은 『中原音韻』과 거의 일치하다. 그러므로 북방 曲韻을 반영한 운서는 유명한 『中原音韻』이외 著者和 成書 연대 未詳, 세간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詞林韻釋』도 있다.

4) 北曲을 반영한 운서로, 詞林이란 서명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詞林韻釋』의 成書 연대는 元末 明初로 추정할 수 있다. 즉 元 정부의 衰退期 또는 明初 漢民族의 전통문화 회복이란 정부의 정책으로 蒙古風 文化에 대한 타도 하에 詞林을 서명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중국어학분과 I】 발표

《三國志》裴松之注新詞研究*

黃 娟**

【目 錄】

1. 引言
2. 裴注新詞的語源研究
 - 1) 裴注新詞研究概況
 - 2) 裴注新詞考釋分析
3. 裴注新詞的特色與價值
4. 結語

【摘 要】

《三國志》裴松之注作為中古漢語文獻中極具語言學價值的資料，不僅對《三國志》正文起到了補充與考證的作用，更在詞彙系統方面展示出豐富的語言創造力與保存功能。前人已有一些研究成果，例如日本學者藤井守（1980），倪永明（2007、2006），王文暉（2004）等等。文章以裴注新詞為研究對象，具體指首次出現於裴松之注中的詞語，包括裴氏新創詞語與因其注釋活動得以傳世的稀見詞語。通過對此類詞語的系統梳理與語義分析，文章旨在揭示其詞源流變、構詞特徵及其在中古漢語詞彙發展中的地位。文章選取一些具體新詞進行考釋分析，分別是“虛封”“雞肋”“讀書百遍而義自見”“三餘”“不謀而同”“髀裏肉生”“髀肉皆消”“投醪”“投醪撫寒”“含蓼問疾”“哭竹生筍”，包括詞語，成語，諺語等，形式豐富，構詞多樣，體現出了鮮明的語體色彩。研究表明，裴注中的新詞不僅反映了中古時期的語言實態，也為後世詞彙系統的演化提供了關鍵線索，具有重要的語源學價值與歷時語言學意義。裴注提供詞源首見證據，為後世考釋其語源、構義及語義演變提供了歷史依據。裴注記錄了詞義演變階段性的歷時軌跡，呈現中古詞彙創生的語言動力。本文對裴注新詞的考察，有助於補足漢語詞彙史的空白，亦為漢語詞彙新生機制的研究提供了歷史語料支持。

【키워드】裴松之注，新詞，語源學，中古漢語，詞義演變

* 基金項目：中國國家社會科學基金重大項目“中、日、韓漢語音義文獻集成與漢語音義學研究”（19ZDA318）

** 黃娟. 慶星大學韓國漢字研究所 HK研究教授 (huangjuankate@qq.com)

1. 引言

《三國志》裴松之注(以下簡稱“裴注”)作為四大古注之一，歷來備受國內外學者關注與研究。其中不僅包含大量與史學相關的論述，亦涉及豐富的語言學內容，主要涵蓋語音、詞彙與文字三個層面。裴注在語言學方面的貢獻體現在注音、釋詞、釋字等多個方面，旨在疏通文義、補充語言知識，以促進後世讀者對原文的理解。裴松之在注釋過程中，不僅“上搜舊聞，傍摭遺逸”，更能引經據典，並憑藉其深厚學識對古漢語中晦澀難解的字詞加以詮釋，使其更具可讀性與學術價值。

《三國志》為記載中國三國時期曹魏、蜀漢、東吳歷史的紀傳體斷代史，為二十四史中評價極高的“前四史”之一，由西晉史學家陳壽(公元233年－297年)撰寫，《三國志》不僅在中國文獻學、史學及文學等諸多領域具有重要的學術價值，在語言學領域也展現著特殊魅力。除了陳壽本身斟酌詞句，體現出三國時期的語言特點，裴松之(公元372年－451年)的詳實注釋，引經據典，更加有助於讀者深刻理解文本內容，並為學界考證留下了確切證據。

陳壽歷經十年完成了巨著《三國志》，而130年後東晉、劉宋時期的官員、史學家裴松之奉敕給《三國志》做注，廣泛徵引歷代史籍與文獻資料，總數達二百餘種，其中包括《魏略》《江表傳》《世語》《漢晉春秋》等重要典籍。其注文內容詳實翔盡，部分篇章的注文字數甚至遠超原文數倍，極大地豐富了《三國志》的史料價值。由於陳壽撰寫《三國志》時行文簡潔，對重要歷史事件多僅略作記述，且部分記載存在前後矛盾之處，因此裴松之的補充與校訂在學術上具有極高的參考價值與說服力。尤為關鍵的是，裴注所徵引的諸多文獻多已亡佚，致使裴注成為後世研究三國時期歷史的重要依據。若無裴松之的補注，許多珍貴史料或已無法傳世，故其學術貢獻不可忽視。

此外，裴松之在注釋中時常以“臣松之案”“臣松之以為”“臣松之曰……”“臣松之謂……”等作為開始語，進行詮釋與評述，表達自己對史事的獨立見解。其所撰之注被統稱為《三國志注》，亦稱《裴注三國志》。裴注與《三國志》原文已形成有機整合體，成為後世研究該書時不可或缺的參考內容。學界普遍將二者結合考察，以獲取更為全面、準確的歷史認識。《三國志》國子監刻本¹⁾，已亡佚。現存的版本主要有三個²⁾，文章主要以百衲本為底本，兼參考其他幾個版本，對陳壽原文和裴注進行梳理歸類。

文章主要關注《三國志》裴注的詞彙學價值，可分為釋詞和新詞的產生兩大方面。裴氏做注時，常做出自己的判斷時，其用詞頗有特點，而且在注釋內容當中有較多關於詞彙的注釋。結合裴注案語研究的結果，對裴注用詞加以分析探索，可以挖掘出裴氏做注的理念及態度傾向。而對裴注釋詞進行梳理可以發現，裴氏為疏通文意，準確理解文章旨意，對詞彙、校勘、名物、地理、典故等方面進行了解釋說明，豐富了詞彙學的內容。裴氏對於生僻詞彙或意義不明的詞語所做的注釋，共80條，其具體價值在於出現了新詞新義，補充了漢朝至東晉時期的政治社會文化信息，便於後人參考研究。而新詞的產生，主要是指在裴注中首次出現的新詞語，這些詞語或是裴氏新造，亦或是依靠裴注才得以流傳於世，裴注中產生的新詞體現了極高的語源價值。

1) 《三國志》最早刻本為北宋咸平六年(公元1003年)國子監刻本，已亡佚。

2) 一、元大德十年(一三〇六)池州路儒學刻本(文中簡稱元刻本)元刻本《三國志》現存七卷，魏志卷十五至十九，蜀志卷十二、十三。二、明毛氏汲古閣本(簡稱毛本)。三、清乾隆御覽本四庫全書薈要本(文中簡稱四庫本)。詳見[晉]陳壽撰，[宋]裴松之注，《三國志》(《乾隆御覽本四庫全書薈要·史部》，浙江大學圖書館藏，2009)。專治三國史的學者盧弼撰寫的《三國志集解》(文中簡稱《集解》)，以毛本為底本，同時也參考金陵局覆刻毛本(簡稱局本)，歷朝官私刊本，及各家評校本，“余是書(《集解》)雖依據毛本，然局本校改之善者多從之。復以歷朝官私刊本，及各家評校本，參校分注於下。”詳見：盧弼，《三國志集解》，北京：中華書局，1982，第1頁總目。頗具權威性，具有很高的參考價值。

2. 裴注新詞的語源研究

新詞的產生與語源密切相關。語源是指詞語、短語的起源和發展歷程。包括該詞的原始形式，其從古至今的變化，以及由其他語言或方言借入或轉化而來的情況。語源不僅揭示了詞語的歷史背景，還能提供該詞當前意義的深入理解。從學術角度看，語源研究有助於對詞語進行溯源，並剖析凝結在其中的文化內涵，以及隨著時間的推移而產生的變化。

研究語源的學科為語源學，是語言學的一個分支，專門研究詞語的起源和發展，以及詞語是如何從一種語言轉移到另一種語言的。語源學通常結合歷史、文化、社會和地理等多種學科的相關內容，以揭示語言中詞語的起源和演變。探究語源，即追蹤詞語的起源，並發現詞語的歷史變化。有價值和內涵的詞語才能有頑強的生命力，在朝代更迭中保存下來，為今人所用。

(1) 裴注新詞研究概況

裴注作為經典古注，影響深遠。許多現代中文詞彙、成語和諺語都能在裴注中找到其起源或出處。在裴注中可以見到一些當時新創的詞彙，以及許多記載的事件和故事，這些在後世被廣泛傳誦，逐步演變並成為固定的語言結構。深入研究裴注，發現其在漢語詞彙史上，尤其是諺語和成語的形成中，擔當了關鍵的角色。

日本學者藤井守對於《三國志》及裴注中新出詞語做出了統計研究，於1980年出版《三國志語彙集》，1981年出版《三國志裴氏注語彙集》。《三國志裴氏注語彙集》按照部首編排，依照筆畫排序列舉出了裴注中出現的新詞語，並標明出處，如：世榮：（出處）輕官忽祿，不耽世榮 3-21-599-1b-1³⁾；備錄：以蕭、張之謀不備錄之 5-47-1126-2-24⁴⁾；忠武：文雅優備、忠武又著 2-11-343-1-15⁵⁾等等。倪永明(2006)對藤井守的兩部《語彙集》做出了統計研究，對其價值、特徵等進行了闡述，他指出“這兩本對《三國志》的專書詞彙研究成果，屬於日本昭和五十四年度文部省的‘六朝詞語研究’這一課題的重要組成部分。”並且“結合《大漢和辭典》、《中文大辭典》、《漢語大詞典》對這些詞語進行了全面分析。其中有120條不是詞，屬於明顯誤收。”⁶⁾例如“欲求”“欲望”等。此後，倪永明(2007)結合藤井守的兩部《語彙集》，“從成詞條件等角度對《大漢和辭典》（補卷）中的30個詞語進行考察後發現，其中11個詞語或因漢語和日語成詞標準的不同、或因古代典籍中用例較少而暫且不將其視作為詞，其餘19個詞語可以增補進《漢語大詞典》。”⁷⁾而且更新了統計數據“筆者統計出藤井守依據中華書局1959版標點本《三國志》，析出的認為是魏晉南北朝時期新出現的雙音節詞語共6377條，其中陳壽《三國志》（以下簡稱《陳志》）部分3692條，裴松之注《三國志》（以下簡稱《裴注》）部分3538條，兩者重複的853條。”⁸⁾由以上研究成果可知，《三國志》裴注中出現了大量的新詞，對於魏晉南北朝時期詞彙的發展，以及後世沿用產生了巨大貢獻。

3) 藤井守，『三國志裴氏注語彙集』，中國中世文學研究會，1981，p.10.

4) 藤井守，『三國志裴氏注語彙集』，中國中世文學研究會，1981，p.19.

5) 藤井守，『三國志裴氏注語彙集』，中國中世文學研究會，1981，p.71.

6) 倪永明，「中日〈三國志〉今譯與中古漢語詞彙研究」，上海：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2006，pp. 50-52.

7) 倪永明，「〈大漢和辭典〉（補卷）所錄〈三國志〉詞彙與〈漢語大詞典〉增補芻議」，『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4），pp.69-74.

8) 倪永明，「〈大漢和辭典〉（補卷）所錄〈三國志〉詞彙與〈漢語大詞典〉增補芻議」，『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4），pp.69-74.

倪永明(2007)對照《大漢和辭典》(補卷)對裴注中21個詞語“凶臣、列在、叡心、官威、幼豎、正複、微心、愆責、懸著、爾輩、經誥、罪網、藏在、軍征、辨定、釋去、除棄、顧賜、顯使、飛魂、驅去”從構詞角度進行分析⁹⁾。王文暉的《三國志》成語研究結果顯示：“《三國志》成語主要來源於以下幾個方面：第一，援用先秦已有的成語；第二，摘取先秦兩漢典雅詞句而成爲成語；第三，援用中古時期流行的一些詞語；第四，改造加工先秦兩漢典籍中的離散材料而成的成語。”¹⁰⁾其中出自裴注的成語來源在第二條和第四條有所體現，有些詞語在先秦兩漢典籍中出現過，但是裴氏引用對三國志進行注釋後，凝固成成語流傳到後世，如“投醪撫寒”“含蓼問疾”等。不僅如此，這些書籍文章中的記載因裴氏引用到《三國志》注釋中，對原文內容進行補充完善，成爲了《三國志》的一部分，與之成爲一個連貫的成體，所以其中詞語或記載或直接成爲成語，或凝練爲成語，完成了一種成語詞彙化的過程，且穩定存在，如“髀裏肉生”“髀肉皆消”“哭竹生筍”等。王文暉(2004)認爲：“成語是漢語詞彙的特殊組成部分，也存在著詞彙化的問題。何謂成語的詞彙化？成語的詞彙化當指一句話、一個語段或一個語篇固化爲一個詞組的過程，這個詞組一旦形成便具有極大的穩定性。”¹¹⁾總之，裴注對於完善和擴充漢語的詞彙和語言結構有著不可磨滅的貢獻，這些語言資源一直沿用至今，證明了其在語言文化史上的重要地位。

(2) 裴注新詞考釋分析

有很多詞語的起源和出處可以追溯到裴注，部分詞語沿用至今，具有很強的生命力。裴注中的內容或是所用詞語本身是新造詞，或是其典故、事件在後世流傳中凝結成了詞語，成語，諺語等。探其語源，可發現裴注對漢語詞彙史，諺語起源上有很大的貢獻，極大地豐富了漢語詞庫、語庫，並且沿用至今。文章選取一些主要示例，對裴注新詞考釋分析如下：

(1) 冬十月，始置名號侯至五大夫，與舊列侯、關內侯凡六等，以賞軍功。魏書曰：置名號侯爵十八級，關中侯爵十七級，皆金印紫綬；又置關內外侯十六級，銅印龜紐墨綬；五大夫十五級，銅印環紐，亦墨綬，皆不食租，與舊列侯關內侯凡六等。臣松之以爲今之虛封蓋自此始。¹²⁾(《武帝紀第一·魏書·國志一》頁46)

“虛封”一詞出自裴注案語，意爲虛授官銜、封號或領地，其封邑在他國境內。與“實封”相對。顧頡剛、史念海《中國疆域沿革史》中對“虛封”進行了解釋：“遙領者，不入版圖之地，而別於國內他處設刺史、郡守以轄之也。虛封者，則僅有封爵而無實土之謂也。”

(2) 夏侯淵與劉備戰於陽平，爲備所殺。三月，王自長安出斜谷，軍遮要以臨漢中，遂至陽平。備因險拒守。九州春秋曰：時王欲還，出令曰“雞肋”，官屬不知所謂。主簿楊脩便自嚴裝，人驚問脩：“何以知之？”脩曰：“夫雞肋，棄之如可惜，食之無所得，以比漢中，知王欲還也。”(《武帝紀第一·魏書·國志一》)

裴氏引《九州春秋》記載中有“雞肋”一詞，《辭海》釋：“雞肋：雞的肋骨。比喻無多大意味、但又

9) 詳見倪永明，「〈大漢和辭典〉(補卷)所錄〈三國志〉詞彙與〈漢語大詞典〉增補芻議」，《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4)，pp.69-74。

10) 王文暉，『〈三國志〉成語研究』，湖北人民出版社，2004，p.28。

11) 王文暉，『〈三國志〉成語研究』，湖北人民出版社，2004，p.215。「서유기 연구」

12) 爲區分原文與注文，引文中加下劃線處爲裴松之注文，無下劃線處爲陳壽原文，下同。

不忍捨棄的東西。”¹³⁾下引裴注內容如上示例。《漢語大詞典》亦收“雞肋”¹⁴⁾。後世沿用見宋楊萬里《曉過皂口嶺》詩句：“半世功名一雞肋，平生道路九羊腸。”明吾丘瑞《運甓記·辭親赴任》：“征舫已集，拜辭偷淚滴，只爲雞肋功名，把北堂杳隔。”

(3) 明帝時大司農弘農董遇等，亦歷注經傳，頗傳於世。……¹⁵⁾初，遇善治老子，爲老子作訓注。又善左氏傳，更爲作朱墨別異。人有從學者，遇不肯教，而云“必當先讀百遍”。言“讀書百遍而義自見”。從學者云：“苦渴無日。”遇言“當以三餘”。或問三餘之意，遇言“冬者歲之餘，夜者日之餘，陰雨者時之餘也”。由是諸生少從遇學，無傳其朱墨者。(《鍾繇華歆王朗傳第十三·魏書·國志十三》頁420)

裴氏此處引《魏略》中的內容補充董遇的事跡。有諺語“讀書百遍而義自見”，此諺語收錄於《語海》¹⁶⁾中，以及詞語“三餘”。“百”表示數量多，“見”意爲顯現，“讀書百遍而義自見”即表示讀書讀了很多遍，書中內容的意義和內涵就能夠顯現出來，即被人理解。後其形式引申爲成語“讀書百遍，其義自見。”後世常將此語當作讀書方法，教育後代。宋薛季宣《答沈應先書》有：“古人言‘讀書百遍，其義自見’，未易以淺近奪，信能反復涵泳，會當有得。”清錢泰吉《舅氏沈味蔗先生錄先宜人詩書後》：“古人云‘讀書百遍，其義自見’，又云‘思之思之，鬼神通之’，非虛語也。”

詞語“三餘”在4.2.1.2章節例(14)進行了詳細分析，“三餘”《辭海》¹⁷⁾有收錄。也有詞語“三餘讀書”。

(4) 胡果爭奔之，因發伏截其後，首尾進擊，大破之，斬首獲生以萬數。……¹⁸⁾行諫約，不欲令與超合。約謂行曰：“今諸將不謀而同，似有天數。”乃東詣華陰。(《劉司馬梁張溫賈傳第十五·魏書·國志十五》頁476)

成語“不謀而同”出自裴注，指兩人或多人事先沒有商量討論，但意見相合，行爲一致，也作“不謀而合”。後文《妃嬪傳第五·吳書·國志五十》亦有：“二人之言，不謀而同，於是開冢，衣服如之¹⁹⁾。”後世沿用，如唐韓愈《請上尊號表》：“考其所陳，中于義理，天人合願，不謀而同。”宋蘇軾《六一居士集序》：“自歐陽子之存，世之不說者，嘩而攻之，能折困其身，而不能屈其言，士無賢不肖，不謀而同曰：‘歐陽子，今之韓愈也。’”

(5) 曹公既破紹，自南擊先主。先主遣糜竺、孫乾與劉表相聞，表自郊迎，以上賓禮待之，益其兵，使屯新野。荊州豪傑歸先主者日益多，表疑其心，陰禦之。九州春秋曰：備住荊州數年，嘗於表坐起至廁，見髀裏肉生，慨然流涕。還坐，表怪問備，備曰：“平常身不離鞍，髀肉皆消。今不復騎，髀裏肉生。日月若馳，老將至矣，而功業不建，是以悲耳。”(《先主傳第二·蜀書·國志三十二》頁876)

此處裴氏引《九州春秋》，記錄了劉備的故事，兩個成語“髀裏肉生”“髀肉皆消”出自此，《語海》²⁰⁾

13) 辭海編輯委員會，《辭海》，上海辭書出版社，2019，pp.1924-1925.

14)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第十一卷下冊，上海辭書出版社，2011，p.861.

15) 此處裴注有所省略。

16) 見溫端政主編，《語海》，上海辭書出版社，2022，p.816.

17) 辭海編輯委員會，《辭海》，上海辭書出版社，2019，p.3729.

18) 此處裴注有所省略。

19) 此句爲裴注引《搜神記》內容。

20) 見溫端政主編，《語海》，上海辭書出版社，2022，p.177.

皆收錄。一、髀裏肉生。劉備失去領地後投靠劉表，某日劉表宴慰劉備。席間，劉備驚覺大腿肉增長，心中憂慮何時才能建成大業。於是劉備的話語中的“髀裏肉生”凝固成成語流傳下來。此成語反映了劉備時刻都在心繫光復漢室，成就一番大業，在做瑣碎的事情，通過細小的細節看出自身長時間過著悠閒自在的生活，毫無建樹，蹉跎歲月，故焦慮著急，憂心忡忡，急切渴望做出成就。

“髀裏肉生”也寫作“髀肉復生”“髀肉漸生”“髀裏肉增”。後世沿用，見宋楊億《舊將》：“髀肉漸生衣帶緩，早朝空聽汝南雞。”清董元愷《莊椿歲·蘆溝橋曉行》：“髀裏肉增，鬢邊絲減，車塵擾擾。幾陣清霜，一鞭殘月，西風古道。”

二、髀肉皆消。劉備回憶自己以前常常騎馬，不離馬鞍，所以大腿上的贅肉都消失了。常騎馬表示經常征戰沙場，顛沛流離，奔波操勞。“髀肉皆消”可寫作“髀肉消磨”“髀肉空銷”。見宋代孫覿《過慧山見舊題二首其二》：“髀肉消磨馬上鞍，塵沙滿眼路漫漫。”清曾國藩《題唐本說文本部應莫朗亭孝廉》：“四海幹戈驅迫忙，十年髀肉消磨盡。”宋魏了翁《木蘭花慢(孫靖州應龍生日八月八日)》：“鞍馬空銷髀肉，兜牟未換貂蟬。”清吳偉業《百花驄歌》：“英雄淚盡當陽阪，髀肉空銷劉豫州。”

(6) 比到當陽，衆十餘萬，輜重數千兩，日行十餘里，別遣關羽乘船數百艘，使會江陵。或謂先主曰：“宜速行保江陵，今雖擁大衆，被甲者少，若曹公兵至，何以拒之？”先主曰：“夫濟大事必以人爲本，今人歸吾，吾何忍棄去！”習鑿齒曰：先主雖顛沛險難而信義愈明，勢偏事危而言不失道。追景升之顧，則情感三軍；戀赴義之士，則甘與同敗。觀其所以結物情者，豈徒投醪撫寒含蓼問疾而已哉！其終濟大業，不亦宜乎！（《先主傳第二·蜀書·國志三十二》頁877-878）

詞語“投醪”，以及成語“投醪撫寒”皆出自於此。“醪”見《說文》：“汁滓酒也。从酉麥聲。”“酉”爲酒罈子，泛指裝酒的器皿，“醪”指濁酒，米酒，後指代酒類，作爲酒的統稱。有詞語“醪糟”。“投醪”表示把酒倒在江水裏，再舀起來與大家一起喝，即與大家同飲酒水，意爲與大家同甘苦，共患難。雖然最早的有關投醪行爲的記錄在《呂氏春秋》當中“有酒，流之江，與民同之。”但是詞語“投醪”最早出自於裴氏引用習鑿齒的話語當中。後沿用，見《晉書·劉弘傳》：“酒室中云：齊中酒、聽事酒、猥酒，同用麴米，而優劣三品。投醪當與三軍同其薄厚，自今不得分別。”唐李德裕《劉公神道碑銘》：“士懷挾纊之恩，人感投醪之醉，壺漿塞路，幼艾爭先，爰寫山河，存於繪事。”“撫寒”指安撫民眾，關心民眾是否吃飽穿暖，表示關心愛護，與民共渡難關，與“投醪”的內涵相似。故二詞爲並列結構，共同組成成語“投醪撫寒”，指與百姓同甘共苦，互相安慰。

成語“含蓼問疾”²¹⁾。“蓼”的本義是一種草本植物，莖葉辛辣可調味，全株入藥，也稱“水蓼”“辣蓼”。見《說文》：“蓼，辛菜，蒿虞也。从艸麥聲。”“含蓼”即口含蓼草，比喻艱辛的生活。這一行爲出自《吳越春秋·勾踐歸國外傳》：“越王念復吳仇非一旦也，苦身勞心，夜以接日。目臥，則攻之以蓼；足寒，則漬之以水。冬常抱冰，夏還握火。”“問疾”表示問候病人，探問疾病，語出《國語·吳語》：“王曰：‘越國之中，疾者吾問之，死者吾葬之，老其老，慈其幼，長其孤，問其病，求以報吳。願以此戰。’”二詞都是描述越王勾踐的行爲，疲倦了就口含辛辣味的草讓自己清醒，經常關懷慰問軍民的疾苦。合爲成語“含蓼問疾”，泛指君主不辭辛勞，勤勉不懈，關切民生疾患。

(7) 右大司馬丁奉、司空孟仁卒。……²²⁾楚國先賢傳曰：宗母嗜筍，冬節將至。時筍尚未生，宗入竹林哀嘆，而筍爲之出，得以供母，皆以爲至孝之所致感。累遷光祿勳，遂至公矣。（《三嗣主傳第三·吳書·國志四十八》頁1169）

21) 此成語《語海》收錄。見見溫端政主編，《語海》，上海辭書出版社，2022，p.1238.

22) 裴注此處有所省略。

裴氏在孟仁的記載下引《楚國先賢傳》，記述了孟仁的母親生病，寒冬時節想吃嫩筍，因無筍孟仁在竹林中哭泣，感動了竹子，地上即刻生出嫩筍。後凝結成成語“哭竹生筍”，並被元代郭居業收錄進了《二十四孝》當中，作為孝道的典範之一，流傳至今。雖哭竹生筍的事跡有神話色彩，但是這份孝心孝道是古人更看重的，對於晚輩的教育來說有其價值和意義，所以被採納。

3. 裴注新詞的特色與價值

裴松之注於《三國志》之上，不僅補足了史實的闕略，亦在語言層面上展現出鮮明的詞彙創造特色。其新詞之生成與保留，既體現了作者個人語言運用的能力，也揭示了中古漢語詞彙發展的若干內在規律。本章將從語言特徵、語用背景與語源學價值三方面，探討裴注新詞的語言學意義。

裴注所創或所引新詞，多呈現出中古漢語詞彙體系演化中的典型特徵。具體而言：1、雙音節化趨勢明顯。裴注新詞大多為雙音詞，與先秦至兩漢單音詞佔主導地位的語言格局不同，反映出中古漢語詞彙雙音化發展的重要階段。例如雙音複合詞，語義清晰，構詞穩定。2、構詞方式多樣。裴注新詞涵蓋偏正式、並列式、動賓式等多種構詞形式。這些複合詞不僅語義功能明確，亦體現出語義單元之間的語法結構關係。3、語體色彩鮮明。新詞多用於說理、評論或對人物性格的刻畫，語體層面偏於書面語、論說語，反映出裴注作為史注文本中高度語言意識的體現。

就詞彙創生的語用背景來說，裴松之注釋《三國志》之目的，在於補正史實、駁難虛妄、增益理解，故其新詞多產生於敘事補充與論述評論之中，帶有明顯的實用語用功能。其新詞創生主要源於以下語用需求：1、補充史實內容。由於《三國志》正文簡略，裴注需大量補充背景、細節，此一過程中產生諸多描述性詞彙，尤其是在軍事、制度、人物評價等領域。2、增強論述精密度。裴注不時對人物行為加以評論，或對史實提出懷疑、辯證，其用詞亦須更具邏輯性與概念性，因此常造新詞以精準表達論點。3、吸收並保存異文用語。裴注大量引書，其中部分詞語雖非裴氏創造，然若非其引用，則難為後世所見，裴注因此亦具詞彙保存與傳承的文獻功能。

裴注新詞在語源學與歷時語言學方面中具有以下重要價值。提供詞源首見證據，許多現代常用詞、成語或俗語，其最早可考的文獻記錄即見於裴注，為後世考釋其語源、構義及語義演變提供了歷史依據。觀察詞義演變的歷時軌跡，對比裴注中詞語的初始語義與後期文獻中的使用情境，可觀察其語義的擴張、轉移或弱化過程。呈現中古詞彙創生的語言動力，裴注新詞形成的語境與動因，揭示中古漢語在語法、語義、語用等層面的演進方向，亦可作為分析語言變化機制的實證資料。

總體而言，裴松之注中的新詞，不僅為補足史實之工具，更是中古漢語詞彙系統構建過程中不可忽視的實例。這些詞語在詞彙學、語源學、歷時語言學等領域均具有深遠的研究價值，充分體現出裴注作為語言學文獻的重要地位。

4. 結語

裴松之注作為《三國志》的重要補充，不僅在史學上具有不可替代的價值，更在語言學層面上提供了豐富的詞彙材料。其中詞彙學方面，裴氏在釋詞時，經常提供了關於原文或注文的背景信息和詳解。他不僅止於原文的字面解釋，還進一步闡述了當時的政治局勢、社會環境和日常生活背景，為後人留下深入洞

察當時歷史制度、地名變遷、姓名改易、文化風俗的寶貴資料。剖析這些釋詞條例發現，很多地名、姓名、官名改易的詞語反映出了當朝統治者的政治思想和管理思維，意在通過這些詞語的更替，鞏固自己的政權，維護國家的穩定發展。而其注中新詞的產生，不僅反映了五世紀語言生活的真實面貌，更體現了中古漢語詞彙體系中創新與繼承並存的特徵。無論是出於語用需要所創的新詞，還是藉由引書而保存的稀見詞語，皆成為研究漢語詞彙演變、語義發展與構詞機制的重要依據。

從語形構造到語義特徵，從語用背景到語源價值，裴注新詞所呈現的語言現象，不僅為我們提供了觀察中古漢語詞彙創生規律的窗口，也為構建漢語歷時詞彙學理論體系提供了可貴的實證資料。裴注作為一部語言與文獻並重的注釋典範，其詞彙創新活動應引起更為深入與系統的語言學關注。

未來研究可進一步拓展對裴注新詞與其他同時期歷史文獻及出土文獻中詞彙使用的比較分析，亦可從語法化、詞類轉化等視角切入，探索其對後世語言發展的潛在影響。透過多層次、多維度的詞彙研究，不僅有助於深化對中古漢語語言特質的認識，也可為漢語歷時詞彙學研究奠定更加堅實的學術基礎。

【중국어학분과 I】 발표

한국어의 문해력과 한자어의 상관성 고찰

김 정 필*

【목 차】

1. 서언	3. '자순도치(字順倒置)'와 인지구조의 시간성
2. 한국어 한자어 활용의 비논리적 언어 습관	1) '자순도치어'의 형성과 한.중 언어인지
1) 개체성과 통칭성의 변별	2) 한.중 역순동의어의 시간성 의미 해석
2) 지칭과 호칭의 변별	4. '이소(異素)동의어'와 인지구조의 확장성
3) 반말과 존댓말의 논리성	5. 결어

【 초 록 】

본문은 한국어 구성성분 중의 하나인 한자어가 어떻게 한국인의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해력 논란을 가져오는 한자어가 과연 한자어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한국인이 한자어를 잘못 이해하는 배경에는 한자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한국어 언어 습관, 즉 비유 관련 수식어나 경어법의 문제 등 비논리적 사고방식을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논리적 언어 습관을 통해 한국인의 언어 인지의 양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어 한자어와 현대중국어 사이에서는 나타나는 의미 차이의 원인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국어에서 한자 및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어 한자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중국어 학습에서 한자 본래의 속성과 파생 이후의 의미, 그리고 한국어 한자어 활용에서 어떠한 의미 차이가 문해력(文解力)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 논문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하되 10줄 내외)

【키워드】

1. 서언

최근 신문 지상을 달구었던 ‘심심한 사과’와 같은 문해력 보도는 한자어의 오용과 깊은 관련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필자 주변에서 들었던 한자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요인이 된 예로, 교수가 ‘금일(今日) 휴강’이라는 안내 문구를 올리자, ‘금일’을 ‘금요일’로 잘못 이해했던 학생들의 이야기 또한 심각한 한자어 문해력 부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사실 그 학생은 오늘이 아닌 ‘금요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밝혀졌던 이야기다.

사실 한국어의 단어 구성은 한글 어휘뿐만 아니라, 한자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비록 한국어가 한글을 기반으로 표기되지는 않지만, 기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는 특히 한자 혹은 한자어를 어근 형태소로 취하는 어휘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중국어가 한자 중심의 의미 해석과 구조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한국어에서는 한자(형태소)의 의미보다 어휘형의 한자어가 제시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어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세부적 의미까지 깊이 활용하지는 않으며, 특히 이음절 이상의 한자어의 경우에는 형태소로서 한자가 지닌 본의(本意)를 이해하기보다는 의미 파생을 통한 범주의 확장 이후의 의미에 천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 각종 매체에서 제기하는 한국인의 문해력 논란이 대부분 한자 의미의 몰이해로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나, 특히 청장년층은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들의 한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사실 한국인의 한자 및 한자어의 이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년층이나 노년층 또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장년층과 청소년의 대화 불통 현상은 한자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나 장년층의 현대 신조어에 관한 몰이해도 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에서 한자 교육은 수험(受驗) 방식의 교육이나, 또 한자의 일반적인 학습도 기본의미의 이해나 고전문헌 중심의 문장 해석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한자의 이해, 한문 강독 등의 수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짧은 시간과 학점에 매몰되어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비록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의 구성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글에 언어 인지의 기반을 둔 한국인들에게는 한자에 대한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한국의 한자어 학습은 한자 본래의 특성이 아닌 한국어의 어휘를 기반으로 교육되기 때문에, 두 언어의 인지구조가 지니는 차이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만약 고대에 사용된 한자어가 중국어나 한국어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틈은 없었다고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어에 오면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기본 구조의 틀이 상반된 각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중 한자어의 통시적 변화 과정에서 역순(逆順) 구조로의 전환이나 그러한 경향성에 관한 연구는 이미 20세기 70년대부터 한국의 국문학자나 한문학자를 중심으로 그 원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중국어 연구자나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중 한자어의 ‘동소(同素)역순어’의 고찰이나 ‘이소(異素)동의어’의 의미 파생 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한자어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문해력과 한자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각도, 즉 단순히 한국인이 한자어를 잘못 이해하게 하게 하는 한국어 언어 습관, 즉 비유 관련 수식어나 경어법의 문

제 등 비논리적 사고방식도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논리적 언어 습관을 통해 한국인의 언어 인지의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한자어와 현대중국어 사이에서는 나타나는 의미 차이의 원인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한국어에서는 단순히 한자어의 오용 문제보다도 수식어의 과도한 은유적 표현이나 경어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은 상호 간의 불통이나 논리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어에서 한자 및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어 한자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중국어 학습에서 한자 본래의 속성과 파생 이후의 의미, 그리고 한국어 한자어 활용에서 어떠한 의미 차이가 문해력(文解力)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어 한자어 활용의 비논리적 언어 습관

1) 개체성(個體性)과 통칭성(統稱性)의 변별

대개 한국어의 어휘 분류에서 ‘개체성’은 분리량과 연계되어 단·복수를 표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통칭성’을 지닌 어휘는 단수와 복수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래 외국어가 유입되면 일정한 개념을 지닌 명사로 귀납되는데, 한자어 또한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념화된 명사로 귀납된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등을 기능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특수한 접사나 서술형의 어법 형태를 부가하여 그 기능을 표현한다. 그래서 한국어 한자어의 사용에서 ‘개체성’과 ‘통칭성’의 변별이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개체성’과 ‘통칭성’의 변별을 위해서는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기본의미가 단수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느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사물 명칭을 기반으로 형성된 명사는 대체로 ‘개체성’을 띠는 것이 보편적이며, 직업이나 집단, 사건과 같은 추상성을 띤 개념을 지시하는 명사는 ‘통칭성’으로 인지된다. 대개 개체명사의 어법 기능에서는 ‘단수’와 ‘복수’로 구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통칭성’을 띤 명사의 의미는 형태소로 사용되는 한자어에서부터 한자어(어휘), 심지어 구절에 이르기까지 그 성질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되는 한자 중에 ‘통칭성’을 띤 것으로는 ‘民’, ‘族’ 등과 같이 집단을 대표하는 한자가 있고, 이러한 두 한자가 형태소로 조합한 ‘民族’ 또한 ‘통칭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이음절 한자어 ‘學生’, ‘教授’, ‘醫生’ 등과 같이 직업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어휘 등도 ‘통칭성’을 지니고 있으며, ‘술목구조’의 언어에서는 이들 통칭성의 어휘를 개체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관사나 양사를 사용한다. 즉 한자가 기호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 본의(本意)가 단수의 개체성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복수의 의미를 함유한 ‘통칭성’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했느냐에 따라 구문 활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學生’이라는 한자어는 개별 학생을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특정 수식어나 보충어의 설명 없이는 여전히 통칭(統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많은 학생’이나 ‘학생들’과 같은 복수형은 성립하지만, 두 개의 복수표지를 사용한 ‘*많은 학생들’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수(數)적 논리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서도 바로

‘學生’이 통칭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개인의 불편을 단체의 불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자어 사용에서 보이는 정치 및 사회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특정 개인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규칙이나 제도를 고치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의 문제 인식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民’을 형태소로 취하는 한자어의 쓰임에서 통칭성을 잘못 이해하여,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례를 들면, 공무원이 받는 ‘民願(민원)’은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로 사전적 정의가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민원의 주체가 개인이나 집단이나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개인이나 일부 단체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 무조건 가능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이러한 민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피해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 공무원의 행정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다른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民意(민의를)를 반영하지 못한 民願(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공무원도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民怨(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민원 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양한 민원의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이 얼마만큼의 民意(민의를)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2) 지칭(指稱)과 호칭(呼稱)의 변별

우리는 인간이나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을 인지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 각각 이름을 부여하고 ‘명명(命名)’을 하게 된다. 대개 ‘명칭(名稱)’이란 인간이 사람이나 사물 등 특정 대상을 ‘지칭(指稱)’하여 이름 지은 것으로 정의되며, 이것을 직접 대면하고 부를 때는 관계에 따라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일상의 교제 과정에서 ‘지칭’과 ‘호칭’은 호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명칭(名稱), 지칭(指稱), 호칭(呼稱), 칭호(稱號) 등 다양한 정의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 일정한 감정 색채가 부여된 ‘경칭(敬稱), 비칭(卑稱), 애칭(愛稱) 등 다양한 개념의 어휘를 사용한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 ‘호칭’은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방(제2인칭)을 직접 부를 때에 사용되는 용어로 상호 관계에 따라 다르게 불릴 수도 있으며, 이러한 ‘지칭’과 ‘호칭’은 대화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 그리고 지시 대상의 상호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정작 ‘지칭’과 ‘호칭’이 지니는 개념상의 차이나 논리, 감정 색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대화 환경이 어색하게 변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父子관계’에서 ‘아버지’는 가장 보편적인 ‘지칭’으로 ‘아들(자식)’과 대조되어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 ‘아버지’는 대개 보편적으로 지칭과 호칭을 호환하여 부른다. 이러한 지칭인 ‘아버지’를 호칭할 때는 그 관계에 따라서 아버님, 아범, 애비, 아빠 등 서로 다른 명칭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다양한 감정 색채의 차이 또한 드러난다. 즉, ‘아버님’의 경우에는 대개 성인이 되었거나 결혼한 아들, 그리고 며느리 등 아랫사람이 아버지를 존경의 감정을 넣어 부를 때 사용한다. 또 ‘아범’은 대개 부모가 결혼하여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사용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화자 개인 중심의 감정 색채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경칭(존댓말)

이나 하대(반말)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이 소통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한자어와 한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특히 아버지와 동년배거나 더 많은 외부인이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근황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아버님 잘 계시니?’ 등도 과연 논리적으로 적합한 표현인지는 의문이 간다. 또 다른 예로는, 한국어에서 대개 한자어는 한글보다 ‘경칭’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은데, 유독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한자어 ‘노인(老人)’은 ‘지칭’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한글에서 존칭으로 사용되던 ‘어른’이 점차 평칭(平稱)으로 격하되는 경향이 많으며, 존경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신’을 붙여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존칭에 또 존칭을 부가하는 것은 극존칭으로, ‘극존칭’이란 사전에 의하면, “가장 높여 이르는 말. ‘당신’, ‘이분’, ‘저분’ 따위가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중으로 존칭을 사용한 ‘극존칭’은 오히려 ‘비칭’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지칭(指稱)’을 써야 할 명칭(名稱)이나 표제어(標題語)에 극존칭이나 호칭(呼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노인(제가)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보이는 ‘어르신 유치원’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공공언어에서도 ‘어르신’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사실 존칭어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는 극존칭이 문제라기보다는 더 좋은 활용처럼 여겨지지만, 존칭어를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적 정의에서도 어린이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존칭과 극존칭 사이의 대상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모호한 문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극존칭 ‘어르신’과 존칭 어미 ‘-신’을 뺀 존칭의 ‘어른’은 대개 ‘직접 호칭(면칭)’의 ‘어르신’과 달리, 제3자(3인칭)를 부르는 간접 ‘지칭’의 ‘어른’은 상대방을 부르는 ‘직접 호칭’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호칭’은 대화 당사자나 지칭 대상인 제3자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인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존칭의 선택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또 일반적으로 어휘는 많이 사용하여 익숙해지게 되면, 점차 그 비중이나 인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한자가 한글을 대체하거나 혹은 한자어가 한글보다 존칭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이 보이는 것이나, 또 근래에는 여러 언어 환경에서 한글이나 한자어보다 더 외래어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근원적 이유는 한국인의 존칭, 호칭 및 지칭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의 인식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에 원인 있다고 하지만, 직접 호칭(중국어에서는 ‘面稱’이라고 한다)과 간접 호칭(지칭), 그리고 제시어나 표제어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 범주의 경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 교육과 한국인의 언어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수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공보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공고문 등의 공공언어에서도 이러한 비논리적 언어 사용이나 외래어를 남용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한국인의 문해력 논란은 단순히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이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어법 및 의미관계의 발화 등을 기반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언어 습관은 한자 및 한자어가 지니는 의미 범주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국어의 언어 습관에 연관된 좁은 의미에 천착하는 등 단순히 의미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어 표준 문법의 규칙을 설명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대개 이전에는 규칙을 정하고 그 용어를 기반으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입말 중심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예외에 대한 설명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호칭(呼稱)과 지칭(指稱)의 혼동, 접사의 오용, 존칭 표현 선어말 어미의 과도한 사용 등은 때론 듣기 어색하거나 거북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대개 한 번

이상 수정을 거쳐서 나오는 글말의 어휘나 구조 또한 수정되지 않아서 보편성을 저해하거나 혹은 논리에 맞지 않는 예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이러한 언어에 대한 몰이해는 대개 최근 대중매체의 자막이나 상점의 간판, 상표 등에서는 외래어나 무국적 언어가 필요 이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인이자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공공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홍보성 언어(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조차도 한자어나 외래어, 그리고 국적이 모호한 언어 기호가 사용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다.

3) 반말과 존댓말의 논리성

한국어는 문장의 구성성분, 즉 수식어와 중심어,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의미관계가 논리적이기보다는 수사적 기법을 통한 주관적 표현이 강하게 드러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착한 가격’, ‘나이를 먹다’ 등과 같은 표현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수식어와 중심어 사이의 논리 관계는 분명히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이러한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언어 현상은 유튜브, SNS나 등 매체에서 풍자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또한 비언어적 현상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SNS에서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반(半)말’과 ‘존댓말’의 풍자는 이러한 현상이 대화 당사자 사이에 소통이 아닌 싸움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반대로 경어(敬語)의 사용이 너무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반(半)말’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완전한 개념을 갖춘 용어가 아니며,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부정색채(否定色彩)’¹⁾를 담고 있어 상호 감정적 대립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어법학적 각도에서 ‘반말’은 명령문, 무주어문, 생략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어에서는 경어(敬語), 즉 존댓말의 상대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심지어 나이 어린 사람이나 하급자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과연 하급자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 질서에 적합하고, 또 의미의 부정색채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긍정·부정의 의미색채를 중국어에서는 이것을 포폄(褒貶)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부정 의미인 ‘폄의(貶義)’는 대화 과정에서 상호 감정적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용을 피 한다.

사실 의미의 부정적 표현은 어떤 대화이든 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한국어에서 나타난 ‘반말’의 본래 취지는 부정이 아닌 친근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작 존경하는 어른이나 부모님이 ‘반말’을 할 경우에 과연 부정의미로 인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취급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한국어에서 언어 질서의 비논리적 현상과 인식의 부조화 현상의 예의 하나로, 경어법의 과도한 사용을 들 수 있다. 소위 존칭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주체 행위가 긍정적인 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한국어에서는 부정적인 행위나 피동적 행위, 그리고 심지어 물체에도 존칭을 쓰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올라가십니다.”라든가 “선생님 수업이 계십니까?”, “냥이가 참 이쁘십니다” 등과 같이 사물 어휘에 존칭을 사용하는 비논리적 언어 현상은 이제

1) 본래 중국어에서는 ‘포폄(褒貶)’의 색채의미로 파악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감정/부정’의 대립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다.

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 은유적인 시적 표현을 고급 언어로 착각하는 한국인의 인식 사유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무조건 존칭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어에서 사람에 대한 경어법(존칭, 공손 등)의 구성에 많이 활용되는 의존명사 ‘분’과 접미사 ‘-분’은 특정 사람을 높여서 표현할 때 사용되며, ‘한 분, 두 분...’ 등 높이는 사람을 세는 ‘단위사’로도 활용된다. 그런데 양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는 단위사는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나 제3의 지칭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인간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불특정 다수나 복수형에는 사용하는 것은 의미관계의 대응이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경어로 사용되는 ‘분’이나 ‘님’과 같은 경우는 대화 당사자나 제3의 지칭 대상이 사회적으로 상위(上位)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나이의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3. ‘자순도치(字順倒置)’와 인지구조의 시간성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이음절 한자어의 ‘자순도치(字順倒置)’는 AB의 두 형태소를 BA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으로, ‘동소역순동의어’가 될 수도 있고 ‘동소역순이의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순도치’ 현상에 대해서는 한국어에서도 이미 20세기 70년대부터 한국 국문 및 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한·중 간 ‘동소역순동의어’ 현상은 아직은 동형어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현상이 특히 일반인들의 주의를 끌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점차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의 국문학자나 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후, 최근까지 이러한 ‘동소역순어’의 동의화 현상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경향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미래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연구 통계를 기반으로 미래의 경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한·중 ‘동소역순어’가 동형어보다 더 동의성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해 역사적 원인, 자체 언어의 변화, 일본어 영향 등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은 한자 내부의 변화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중 기본 구문 ‘목술’과 ‘술목’의 구조 방식이 어휘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목술’과 ‘술목’의 어순 대립을 시간성의 순행과 역행의 대립 관계로 보고, 이러한 언어 사유의 차이를 기반으로 구문과 어휘의 구조 방식이 동일한 한자어의 변화 양상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최근 몇몇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미 범주의 상대적 어순의 ‘대소(大小)관계’에 기반하여, 필자는 한중 간 어휘나 구절의 어순 대립을 ‘동정(動靜)의 대립’, ‘주객(主客)의 대립’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접근해 볼 수 있다.

1) ‘자순도치어’의 형성과 한·중 언어 인지

2) 한·중 ‘동소역순동의어’의 시간성 의미 해석

4. ‘이소(異素)동의어’와 인지구조의 확장성

일반적으로 ‘동의어(同義語)’란 ‘이형(異形)형태소’의 조합으로 형성된 어휘가 동의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크게 ‘동의형태소’의 ‘同素’를 포함하는 ‘부분이형형태소’와 동소를 포함하지 않은 ‘전부이형형태소’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음절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소 A와 B를 기준으로, A나 B 중 하나는 같고 하나만 다른 경우는 ‘부분異素동의어’로 명명하고, A와 B 둘 모두가 다른 경우를 ‘전부異素동의어’로 명명하고자 한다.

5. 결어

본 논문은 한국인의 문해력과 한자어의 상관성을 다루고 있으나,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사이에 어떤 동이성(同異性)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접근해 본 것이다. 우선 발표에서는 한국인의 한자어 활용에서의 언어 습관에서 보이는 비논리적 언어 표현이 문해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중 대조의 관점에서 한자 및 한자어의 의미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 것이다.

한자어의 구조변화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이음절화 현상과 자순도치, 동소역순어의 동질화와 이질화 등 다양한 언어 변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어 구조의 선형성 특징은 시간성 원칙에 따라 배열될 수밖에 없기에, 구문의 시간성을 기반으로 의미관계의 논리구조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 생활 속의 언어는 입말과 글말, 언어 습관과 규범 어법, 논리와 비논리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원론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리 회화 문법이 습관에 근거하여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더라도, 그 바탕에는 여전히 약정속성에 근거한 논리적 규범이 여전히 깔려있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중국어학분과 I】 발표

웹크롤링에 기반한 ‘X可以’의 사용 양상과 담화 기능 분석

김 은 주*

【목 차】

1. 들어가며
2. ‘X可以’의 사용 양상과 담화 기능
 - 1) ‘X可以’의 사용 양상
 - 2) 부사 결합 양상과 특징
3. ‘X可以’의 의미 확장에 대한 분석
 - 1) 언어 내적 요인
 - 2) 언어 외적 요인
4. 나가며

【 초 록 】

본고는 웹 크롤링 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微博), 샤오홍슈(小红书), 틱톡(抖音)에서 수집된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X可以’ 형식의 사용 양상과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X可以’ 형식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재구성되며,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는지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X可以’의 의미 확장 경로를 고찰하였다.

‘可以’는 본래 가능성, 허용, 가치 판단 등을 표현하는 조동사로, 주로 객관적 사실이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진술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 구어에서는 이 기능이 점차 화자의 판단, 가치 평가,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SNS 담화에서는 ‘可以’가 다양한 부사와 결합하여 긍정적 평가, 유희적 반복과 강조, 풍자 및 간접 비판을 아우르는 다기능 표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X可以’의 의미 확장은 주관화와 의미의 총위화, SNS의 구조적 특성과 밈(Meme)의 생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신조어, 웹크롤링, 可以, 정도 부사, 주관화, 의미 확장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piaoliangjin@hotmail.com)

1. 들어가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미 전달의 기능을 넘어, 화자 간 감정 교류와 관계 형성을 매개하는 정서적 수단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微博), 샤오홍슈(小红书), 틱톡(抖音) 등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며, 기존 어휘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의미를 재구성하는 다양한 신조어(网络流行语)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바로 ‘X可以’(很可以, 非常可以, 真可以, 太可以了 등)이다.¹⁾ 현대중국어에서 ‘可以’는 조동사로서 가능, 허용, 권유 등의 기능을 가지며, 형용사로서 ‘할 만하다’, ‘괜찮다’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²⁾ 그러나 최근의 SNS 담화에서 ‘可以’는 다양한 부사와 결합하여 단순한 가능성이나 허용을 넘어서, ‘완전 멋지다’, ‘제대로다’, ‘센스 있다’와 같은 긍정 평가, 감정 표현, 리액션 등의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신조어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X可以’ 계열 표현은 기존의 문법적 기능을 넘어, 담화 전략과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의미적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可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그 문법적 기능과 통사적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동사로서 ‘可以’는 가능성, 허용, 주관적 평가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데, 이러한 다의성 때문에 중국어의 양태 표현 체계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박재승, 2017). 그러나 ‘可以’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며, 일부 연구에서 ‘可以’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의 가치 판단적 용법이나 간접화행으로서의 기능도 언급되지만(박재승·신주현 2017), 이들 연구는 대부분 구문론적 설명에 머무르며, 실제 담화 맥락에서 ‘可以’가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고 확장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중국어 신조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은희, 2022; 신근영, 2023; 김미경, 2025). 특히 신조어의 형성 동기나 사회문화적 배경, 미디어의 영향력 등 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신조어가 실제 담화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되는지, 혹은 기존 어휘 형식을 바탕으로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어 확장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웹 크롤링을 통해 웨이보, 샤오홍슈,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X可以’가 포함된 실제 사용 예시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X可以’의 의미 기능과 담화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

1)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X可以’는 ‘정도부사+可以’ 형식으로 품사적으로는 형용사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2) 『现代汉语八百词』(1980)은 ‘可以’의 의미 기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① 조건 충족에 따른 물리적 가능성(例: 这间屋子可以住四个人。)

② 수단 활용 가능성(例: 棉花可以织布。)

③ 화자의 의지에 기반한 허용(例: 我可以试试。)

④ ‘…할 만하다’는 가치 판단 의미(例: 这个问题很可以研究一番。)

한편, 『现代汉语词典』(2016)은 ‘可以’를 조동사와 형용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조동사는 주로 가능성, 허용, 권유의 의미를, 형용사 용법은 구어에서 긍정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① 不会的事情, 用心去学, 是可以学会的。(가능성)

② 你可以走了。(허용)

③ 那篇文章写得不错, 很可以读一读。(권유·판단)

④ 这篇文章写得还可以。(보통 이상 평가)

⑤ 你这张嘴真可以。(적극적 칭찬)

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표현들이 SNS 담화에서 어떻게 의미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중국어에서 신조어의 생성 및 의미 확장의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X可以’의 사용 양상과 의미 기능

본 연구는 ‘X可以’ 계열 표현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웨이보(微博), 샤오홍슈(小红书), 틱톡(抖音)에서 해당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을 수집하였다.³⁾ 수집은 특정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용 맥락과 의미 기능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예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데이터는 Python 기반의 크롤링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X可以’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고, 게시글 본문 및 해시태그 내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이후 불필요한 문장(중복, 기타용법)은 제거하고, 의미 해석이 가능한 1,000여 개 문장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문장들은 엑셀 파일에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표1> 분석 항목 및 기준

항목	분류 기준	예시
표현유형	‘X可以’ 계열 표현의 구체적 형태	X可以, 真可以, 太可以了, 非常可以 등
동반 성분/반복	동반 반복 구조 여부	太可以了吧, 可以可以 등
사용맥락	해당 표현이 사용된 상황 또는 주제	패션, 외모, 콘텐츠 감상, 팬덤 등
출처	문장이 수집된 플랫폼 명	웨이보, 샤오홍슈, 틱톡 등
의미 기능	문맥 속 의미 기능	긍정 평가, 감탄, 유희, 비판·풍자 등

1) ‘X可以’의 사용 양상

‘X可以’ 계열 표현은 SNS에서 담화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조동사적 의미를 넘어, 화자의 정서 반응, 평가, 유희, 간접 비판 등을 드러내는 ‘다기능 표현(multi-functional expression)’⁴⁾으로

3) 웨이보(微博)는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트위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팔로우, 리트윗, 댓글, 좋아요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특히, 웨이보는 실시간 뉴스와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명 인사나 기업들이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주요 채널로 활용하며, 공적 논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비유되는 샤오홍슈(小红书)는 대표적인 라이브커머스(直播带货)로 블로그와 쇼핑채널을 결합한 종합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며 팔로우, 좋아요, 댓글 기능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콘텐츠를 공유한다. 이외에 틱톡(抖音)은 기존의 동영상과 차별화되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즉 숏폼(short form)이 주를 이루며,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

박민준, 「중국 소셜미디어 크롤링과 텍스트 분석」, 『시민인문학』, 제46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pp.42-43.

4) 다기능 표현 (multi-functional expression)은 하나의 표현이 다양한 의미적, 문법적, 혹은 담화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은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의미나 기능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Halliday(1994)는 언어가 표현적 기능 (ideational function), 상호작용적 기능 (interpersonal function), 구성적 기능 (textual function)을 통해 담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Halliday는 하나의 언어 표현이 이러한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의 표현이 여러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다기능 표현은 언어의 다층적 사용을 반영하며, 하나의 단어 또

활용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수집된 실사용 예문을 바탕으로, ‘X可以’가 수행하는 주요 담화 기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긍정적 평가

‘X可以’와 관련해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기능은 상대 또는 사물에 대한 명시적 칭찬과 긍정적 판단이다. ‘X可以’는 대상에 대한 짧고 강한 긍정 평가를 나타내며, 이는 특히 외모, 스타일, 태도, 실력 등에 대한 평가나 반응에서 자주 사용된다.

- (1) a. 裙子很可以。親愛的心愛的愛愛愛的怪獸大人! (微博)
이 치마 진짜 예쁘다. 귀염뽀짝 괴물님 등장!
- b. 他的每一点都很可以。写很多很多只专门写一个方面，可以写透，演戏或者访谈或者唱歌或者待人接物。 (微博)
그의 모든 점이 아주 좋아. 연기든 인터뷰든 노래든 다 퍼펙트해.

(1a)는 ‘很可以’가 외형적 스타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표현하는 예로, 일상적 칭찬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명료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과장된 수사 없이도 대상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X可以’는 짧고 일상적인 문장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반면, (1b)는 특정 인물의 외모, 능력, 태도 등 다방면에 걸친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맥락으로, 표현은 간결하지만 평가의 수준이나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X可以’는 팬덤 담화나 공감형 담화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화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적 연대를 드러내는 발화 전략으로도 기능한다.

(2) 감탄 및 정서 반응

‘X可以’는 단순한 평가 이외에도 화자의 감탄, 몰입, 또는 정서적 동조와 같은 내면적 반응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SNS 담화에서는 순간적인 감정, 강한 공감 등 화자의 감정 상태를 축약된 형태로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

- (2) a. 太可以了吧! 居然是她一个人剪辑的?! (抖音)
진짜 대박이야! 이걸 혼자 편집했다고?
- b. 我真的可以，太懂我了! (微博)
이건 진짜 못 참지... 내 마음을 완전 꿰뚫었어!

예문 (2a)의 ‘太可以了吧’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놀람과 감탄이 응축된 표현으로, 긍정 의미를 넘어 강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 이때 부사 ‘太’와 어기조사 ‘吧’는 감탄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X可以’ 형식은 감탄사나 어기조사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2b)의 ‘真的可以’는 특정 콘텐츠나 상황이 화자의 감정 상태나 취향을 정확히 충족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단순한 평

가라기보다 ‘이건 진짜 내 취향이야’라는 감정적 동일화의 표현이다. 이어지는 ‘太懂我了’는 감정적 일치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콘텐츠에 대한 공감 공유 방식으로 자주 출현한다.

(3) 유희적 반복과 강조

틱톡이나 샤오홍슈에서는 ‘X可以’가 밈(meme), 영상 리액션, 챌린지 콘텐츠 등에서 짧고 강한 긍정 표현 또는 유머적 코멘트로도 사용된다. 리듬감 있는 영상이나 행동, 위트 있는 연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사용되며, ‘可以可以’, ‘太可以了吧’ 등의 반복적, 과장적 구조가 사용되어 리듬감과 유희성을 강화하는 예가 많이 발견된다.

- (3) a. 可以可以太可以了! (抖音)
 좋아 좋아, 완전 대박!
 b. 非常可以非常可以非常可以, 点赞点赞! (抖音)
 최고 최고 최고야, 좋아요 눌러야지!

(3)과 같이 ‘X可以’는 공감 형성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화자는 ‘X可以’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할 때 유머적 효과를 강화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이는 정서적 공감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SNS에서의 소통을 보다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형태로 이끈다.

(4) 풍자 및 간접 비판

웨이보와 같은 공론적 공간에서는 ‘X可以’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비판적 태도를 담는 반어적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 (4) a. 你也真可以, 迟到了还这么理直气壮。(微博)
 너도 참 대단하다, 늦었는데도 당당하네?
 b. 这波操作很可以啊。
 이번 조치는 정말 대단하네요。(微博)

(4)의 예문과 같이 ‘X可以’는 청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전달하는 전략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특정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나타낸다. 이는 ‘의미 함축(implicature)’을 활용한 간접화행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반박이나 대립을 피하면서 의도된 비판적 의미가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⁵⁾

5) 의미 함축(implicature)은 Grice의 ‘협력의 원칙(Grice’s Cooperative Principle)’에 기초하여,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언급하지 않은 정보나 의미를 청자가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가 문맥을 바탕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5)의 예문은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고, 간접적으로 비판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X可以’가 풍자나 비판을 나타내는 경우 간접화행(in direct speech acts)을 수행한다.

2) 부사 결합 양상에 따른 특징

‘X可以’ 형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양한 정도부사와의 결합이다. ‘很’, ‘太’, ‘真’, ‘非常’, ‘挺’, ‘简直’, ‘好’ 등 다양한 정도부사가 ‘可以’의 앞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법적 수식을 넘어 화자의 평가 강도, 정서 표현, 발화 태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⁶⁾ 다음에서는 수집된 예문을 통해 각 부사와의 결합 유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5) a. 哇, 这个舞台太可以了!
와, 이 무대 진짜 대박이다!
b. 这张图真可以!
이 그림 정말 좋다!
c. 今天状态非常可以!
오늘 컨디션 완전 좋아!

(5a)의 ‘太可以了’ 형식은 주로 감탄의 감정이나 반응을 나타내며, 단순한 긍정을 넘어 화자의 강한 인상과 평가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특히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나 실시간 댓글, 팬 커뮤니티 반응 등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담화 환경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긴 설명보다는 간단하고 즉각적인 표현이 효율적이고, ‘太可以了’는 그런 환경에서 짧고 강렬한 감정 표현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다.

(5b)의 ‘真可以’ 형식은 ‘真的可以’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모두 긍정 평가를 전달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 형식에서 ‘真’은 화자의 평가나 태도에 진정성과 확신을 부여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명사 + 真可以’, 또는 ‘주어 + 상태 기술 + 真可以’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교, 추천, 평가, 피드백 등 화자의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며, 쇼핑 리뷰, 포스트, 사진·영상 콘텐츠에 대한 댓글, 피드백 기반의 짧은 회화 등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5c)의 ‘非常’은 ‘可以’와 결합할 때 화자의 평가를 보다 명확하고 강조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非常可以’ 형식은 특히 업무 상황에서의 피드백, 보고, 공식 계정의 콘텐츠 설명 등 공식적 상황에서도 사용되며, 댓글, 포스트 등 일상 담화 환경에서도 폭넓게 사용된다.⁷⁾

6) 본고에서는 수집된 약 1,000여 개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사와의 결합 양상에 대한 통계 분석(상대 빈도)을 병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량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수치나 통계 결과는 본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7) ‘非常可以’ 형식은 일상적인 담화뿐 아니라 공식적인 담화에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한데, 샤오홍슈(小红书) 내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这款联名系列的设计非常可以, 既有新意又实用.’은 제품(콜라보 디자인)의 기능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긍정 평가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非常可以’의 사용 범위가 다른 표현들에 비해 더 넓고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X可以’의 의미 확장에 대한 분석

1) 언어 내적 요인

(1) 주관화

소셜 네트워크가 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여러 플랫폼을 통해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신조어가 생산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기존에 없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点赞(‘좋아요’를 누르다)’, ‘宅文化(집콕문화)’처럼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에 있던 단어가 의미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후 의미의 일반화가 이루어지는데, 의미의 일반화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적 특징을 줄이면서 새로운 사용 방식을 만들어내고, 점점 더 많은 대상을 자신의 지시 범위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뜻한다(陈苗, 2023). 이러한 점에서 ‘X可以’ 형식은 기존의 단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SNS 담화 안에서 새로운 담화 기능으로 의미 확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문법 기능의 이동이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감정이 점점 더 언어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는 방향, 즉 의미 기능의 층위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이 흐름은 Traugott(1989)이 제시한 ‘의미적 주관화(subjectification)’ 이론에 부합하며, ‘X可以’가 다음과 같은 단계적 경로를 따라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2> ‘X可以’의 의미 확장 과정

단계	의미 기능 변화	화자 개입 정도	예시	주관화 지표
1단계	객관적 가능성 (modal possibility)	없음 (현실 조건 기반)	天气好了, 可以出门了。	객관적 가능
2단계	허용 (permission)	부분 개입 (화자의 의사 반영)	你现在可以走了。	의도 개입
3단계	긍정 평가 (evaluative approval)	명시적 개입 (평가 표현)	这篇文章还可以。	평가의 주관화
4단계	정서적 반응 (emotive reaction)	고도 개입 (감정 표출)	这个造型太可以了!	감정의 주관화

<표 2>에서 볼 수 있듯, ‘可以’는 ‘객관적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허용적 판단’, ‘긍정 평가’, 그리고 ‘정서·감탄 표현’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의미적 주관화의 전형적인 경로를 따른다. 이는 단어의 기능 변화 그 자체를 넘어서, 화자의 인식, 태도, 감정이 언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며, ‘可以’는 이러한 주관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담화적 역할을 획득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정도부사에 따른 의미의 층위화

‘X可以’ 형식에서 ‘很’, ‘太’, ‘真’, ‘非常’ 등 다양한 정도부사와의 결합은 단순한 문법적 수식을 넘어, ‘可以’의 감정적 해석 층위를 형성하고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언어 내적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사들은 단순히 긍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자의 평가 태도와 정서적 반응을 세분화하여 드러냄으로써, ‘可以’의 의미를 보다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의미 구성 방식은 Martin & White(2005)의 ‘Appraisal Theory(평가이론)’ 중에서도 ‘Graduation(강도조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Martin & White(2005)은 언어 사용자가 감정이나 평가를 표현할 때, 그 강도(intensity)와 범위(scalability)를 조절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조절 수단으로서 정도부사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다.

즉 ‘X可以’ 형식이 다양한 정도부사와 결합할 때, 화자의 평가적 입장, 감정 개입 정도, 표현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의미적으로 풍부하고 유연한 발화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NS와 같은 디지털 담화 환경에서는 감정과 평가의 강도를 섬세하게 조정하는 언어적 장치가 빠른 반응성과 공감 형성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X可以’ 형식이 정도부사와의 결합이 자유롭다는 점 역시 ‘X可以’가 담화에서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고 사용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언어 외적 요인

‘X可以’ 표현의 의미 확장은 언어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특히 SNS라는 매체 특성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 그리고 밈(meme)의 생산성과 전파력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 SNS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

중국의 대표적 SNS 플랫폼인 웨이보, 샤오홍슈, 틱톡 등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표현의 응축성과 파급력이 중요하며, ‘X可以’와 같은 간결하고 유희적인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재생산과 패러디를 쉽게 만드는 환경으로, 언어 표현의 창조성과 수용성이 결합되는 장을 형성한다.

(2) 밈(Meme)의 생산성과 언어 표현의 확장

‘X可以’ 형식은 밈화(meme-ification)를 통해 확산되는 특성을 지닌다. 밈은 단순히 반복되는 표현을 넘어서, 사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영상과 결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의미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러한 의미의 변용은 사회문화적 감수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수용자들의 집단적 공감과 반응 속에서 의미가 재정의된다.

특히 밈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응축해 전달하며, ‘X可以’의 형식은 그 전달 방식에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뉴스 사건에 대해 ‘这操作太可以了’라고 댓글을 달면, 이는 곧바로 다른 사용자에게 의해 반복되거나 이미지, 해시태그, 동영상 캡션 등에 활용되며 전파된다. 이처럼 ‘X可以’ 형식은 강한 밈의 특징을 지닌다. 인터넷 밈은 지속성, 생산성, 복제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김미경 2024: 277). ‘X可以’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파급력과 지속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중은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공감을 나누고 이를 확산시켰다. 이렇듯 ‘X可以’의 의미 확장과 확산은 언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본고는 ‘X可以’ 형식의 담화적 기능과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하고, 현대 중국어의 신조어가 디지털 담화 환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X可以’ 형식은 기존의 언어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담화적 요구에 맞추어 새롭게 의미가 확장된 사례로, 단순한 의미 확장에 그치지 않고 언중의 정서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언어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웹 크롤링 기법을 활용해 웨이보, 틱톡, 샤오홍슈 등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수집된 실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X可以’ 형식의 사용 맥락과 의미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대 중국어의 어휘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신조어 연구 및 담화 분석 연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어학분과 Ⅱ】 발표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의 양태 의미 기능

진 준 화*

【목 차】

1. 문제제기
2. 기존 논의의 쟁점
3. 문말조사 ‘了’의 양태 의미 기능
4. 결어

【 초 록 】

본고는 현대중국어 문말조사로 사용되고 있는 ‘了’가 ‘N(명사)+了, Adj(형용사)+了, Imp(명령)+了, 到.....了, (快)要.....了’ 구조에서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며, 또 이러한 의미 기능이 어떤 기제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본가 논의한 문말조사 ‘了’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발화 시점 이전의 상황 혹은 상태가 발화 시점의 상황 혹은 상태로의 변화에 대해 화자가 어떤 인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의 의미 기능은 ‘실제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증거와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발화 시점 이전 상태가 발화 시점 상황이나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양태적 장치’로 보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말조사 ‘了’의 어법 지위를 ‘증거 양태 조사’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바로 ‘화자 지향형 양태-증거 양태’인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了₂ 了₃ 了₄.....’이 존재한다는 견해도 일시에 해결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증거 양태, 화자 지향형 양태, 了, 증거성, 인식된 상황, 실제 상황, 변화된 상황

* 제1저자.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 조교수 (jjoonhwa@gmail.com)

1. 문제제기

현대중국어 문장에 사용된 ‘了’는 다음 예문과 같이 크게 2가지의 통사적 위치를 갖는다.

(1) 吃了饭去学校了。

위 예문을 보면 ‘了’가 2개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명사 뒤인 문장 말미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는 ‘了’는 중국어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완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상(Aspect)’으로 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¹⁾ 그렇다면, 문장 말미에 사용된 또 다른 ‘了’는 어떠한가? 이 또한 같은 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어법적 기능 즉,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까?

위 예(1)과 같이 문장 말미에 사용된 ‘了’가 동사 뒤에 사용된 ‘了’와 같은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면, 언어 경제성 원칙에 의해 잉여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의미 기능은 무엇일까? 현대중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장 문미에 ‘了’가 출현하는 여러 가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살펴보자.

(2) a. 刚才不下雨，现在下雨了。

b. 这个菜味道太好了。

c. 吃饭了! 吃饭了!

d. 他到韩国去了。

e. 快要结束了。

위 예(2)의 문장들을 보면, 모두 문장 말미에 ‘了’가 사용된 문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는 ‘N(명사)+了’의 구조를, b는 ‘Adj(형용사)+了’의 구조를, c는 ‘Imp(명령)+了’의 구조를, d는 ‘到.....了’구조를, 마지막으로 e는 ‘(快)要.....了’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구조에서 사용된 ‘了’는 같은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가? 만약 같은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면,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의미 기능 수행의 그 근본 기제는 무엇일까?

이에 본고는 이런 일련의 문제 해결에 접근해 보고자 다음 장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본고의 논의가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기존 논의의 쟁점

현재 현대중국어법학계 및 수 많은 어법 저서 그리고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문말조

1) 본고의 주요 논의는 현대중국어 문장 문말에 사용된 조사 ‘了’에 있으므로,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는 ‘了’에 대한 논의는 비교 제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논의를 자제하도록 하겠다.

사 ‘了’의 의미 기능은 ‘了₂’라는 명칭 하에 ‘새로운 상태/상황의 제시 혹은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현대중국어 어법학계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쟁점이 바로 이 ‘새로운 상태/상황의 제시 혹은 출현’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刘勳宇(2002)는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새로운 상태/상황의 제시 혹은 출현’은 화자의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청자가 모르고 있다는 가정하에 새롭게 변화된 상태나 상황을 상기해 주기 위해 ‘了’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刘勳宇(2002)는 문말조사 ‘了’가 현대중국어에서 ‘시제(Tense)’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시제표지(Tense Marker)’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중국어에 시제(Tense)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대전제격의 질문에 먼저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견해로는 Li & Thompson(1981)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Li & Thompson(1981)은 문말조사 ‘了’는 ‘현재 상태로의 변화’라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현재 상태로의 변화’는 기존의 상황 혹은 상태에서 발화 시점의 상황이나 상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了’를 사용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Li & Thompson(1981)은 ‘了’가 수행하는 의미 기능에 대해 ‘현재 상태 혹은 상황과의 관련’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了’의 의미 기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로 ‘了’의 근본적 사용 기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즉, ‘了’의 어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본고도 刘勳宇(2002)와 Li & Thompson(1981)이 제시한 것과 같이 문말조사 ‘了’가 ‘변화의 관점’과 ‘현재 상태 혹은 상황으로의 변화’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刘勳宇(2002)가 주장한 문말조사 ‘了’가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시제표지라는 어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비교적 많은 어법 논저에서 예(2)에서 제시된 예문의 구조에서와 같이 사용된 ‘了’에 대해 각각의 문장 구조별로 ‘了’가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각각의 의미에 따라 ‘了₂, 了₃, 了₄.....’등으로 ‘了’의 의미 기능을 세분화 하고 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了’가 모두 다른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면, 이는 교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본고는 다음 장부터 과연 문말조사 ‘了’가 어떤 의미 기능을 갖으며, 이러한 의미 기능을 갖는 그 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법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문말조사 ‘了’의 양태 의미 기능

먼저 앞서 제시한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자.

- (3) a. 刚才不下雨, 现在下雨了。
- b. 这个菜味道太好了。
- c. 吃饭了! 吃饭了!
- d. 他到韩国去了。

e. 快要结束了。

위 예문에서 사용된 ‘了’는 과연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까? 바로 양태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양태(Modality)는 ‘화자의 주관에 입각해 해당 발화 명제에 대해 화자가 갖는 관점이나 태도’를 나타낸다.²⁾ 진준화(2004a)³⁾는 현대중국어 양태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림1> 진준화(2024a)의 현대중국어 양태 체계

양태	명제 양태	인식 양태	화자 지향적 양태
		증거 양태	
	사건 양태	의무 양태	행위자 지향적 양태
		동적 양태	

진준화(2024a)는 현대중국어의 양태사(양태조동사, 양태부사, 양태조사)들이 갖는 의미 기능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위 그림1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보면, 그는 현대중국어의 양태 체계를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로 분류하고, 다시 명제 양태를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로, 사건 양태를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는 화자 지향적 양태로,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를 행위자 지향적 양태로 귀결시켰다.

진준화(2024a)의 양태 체계 구분은 매우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양태 체계 분류에 따라, 예(3)과 같은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러한 문장 구조에 사용된 문말조사 ‘了’는 ‘증거 양태’(화자 지향적 양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송재목(2016)이 제시한 증거성(Evidentiality)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에 따르면, 증거성은 주관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보의 출처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범 언어적 특징으로 정보의 진실성 혹은 신뢰성에 대한 발화자의 태도 및 관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진준화, 2023a:161). 송재목(2016)은 또한 이를 근간으로 증거는 상황에 따라 ‘실제상황/실체적 외부 세계/객관적, 인식된 상황/외부 세계로부터 인식/주관적, 발화된 상황/인식을 통한 발화/객관적+주관적’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진준화, 2023a:163).

여기서 말하는 ‘실제 상황’은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 혹은 상태를 화자가 직접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이고, ‘인식된 상황’은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벌어진 상황 혹은 상태에 대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상황을 의미하며, ‘발화된 상황’은 인식된 상황을 기반으로 화자가 외부 세계의 객관과 자신의 주관을 융합해 발화한 상황을 나타낸다(진준화, 2023a:163).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준화(2023a)와 Lyons(1977), Bybee et al(1994), Palmer(2001)을 참조 바람.

3) 진준화, 「현대중국어 양태 체계에 대한 소고」, 『2024년 대한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대한중국학회, 2024.05.

이를 기반으로 증거성에 대해 진준화(2023a)는 ‘실제 객관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화자의 주관적 감정 혹은 태도가 주입된 인식된 상황과 그에 따라 발화된 상황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고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가 어떻게 증거 양태로 기능을 하며 증거양태조사라는 그 어법적 지위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예(3) a를 살펴보자. 예(3, a)는 ‘명사+了’구조를 가진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화자는 조금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객관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외부 세계가 발화 시점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가 인식한 상황 혹은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청자에게 발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외부 세계의 상황 혹은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객/주관적인 인식의 증거로 ‘了’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了’의 사용은 화자가 외부 세계 상황 혹은 상태에 대한 객/주관적 인식(증거)을 기반으로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발화 시점 이전 상황에서 발화 시점의 상태나 상황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다음 문장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 (4) a. 刚才不下雨, 现在下雨。
b. 刚才不下雨, 现在下雨了。

‘了’가 사용되지 않은 위 예(4, a)는 단순히 실제 상황인 실제적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한 진술문이지만, 여기에 ‘了’를 삽입하게 되면 발화 이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화자가 실제 외부 세계로부터 현재 비가 내리고 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인식된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게 된다. 즉, 외부 세계의 객관적 상황에 화자의 주관적 관점 및 태도를 결합한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3, b)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예(3, b)는 예(3, a)와 달리 ‘형용사+了’의 구조를 가진 문장이다. 이 구조에서 사용된 ‘了’ 역시 예(3, a)와 같이 전체적인 의미 기능은 같다. 그러나 다른 점은 바로 형용사의 기능에 있다. 형용사는 그 자체로 비교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다음 예문을 다시 보자.

- (5) a. 这个菜味道太好。
b. 这个菜味道太好了。

예(5, a)는 ‘了’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고, 예(5, b)는 ‘了’가 사용된 문장이다. ‘了’의 사용 유무는 무엇을 위함일까? 예(5, a)는 화자의 비교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太’가 사용된 문장으로 단순 비교를 위해 사용된 문장으로 보아야 하고, 예(5, b)는 화자의 비교 인식의 정도를 넘어 발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음식 맛이 발화 시점 이전보다도 더 좋아졌다는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了’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식된 상황과 발화된 상황의 총합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좀 특수한 표현인 예(3, c)를 보자. 명령을 나타내는 이 문장은 식사 준비를 끝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발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때 ‘了’ 역시 실제 상황과 인식된 상황을 기반으로 현재 발화시점으로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발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장에 대해 彭利贞(2009) 이때 사용된 ‘了’는 양태 출현을 허가 혹은 암시하는 양태 민감 요소로서 기능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⁴⁾ 그러나 본고는 이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

4) 명령문 문미에 사용된 ‘了’의 의미 기능은 문장에서 양태 의미 기능을 하는 어휘가 출현을 유효화하는 기능을 한다

다. 왜냐하면, ‘了’ 이외에 양태를 나타내는 어휘가 문장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了’ 역시 증거성을 기반으로 한 증거양태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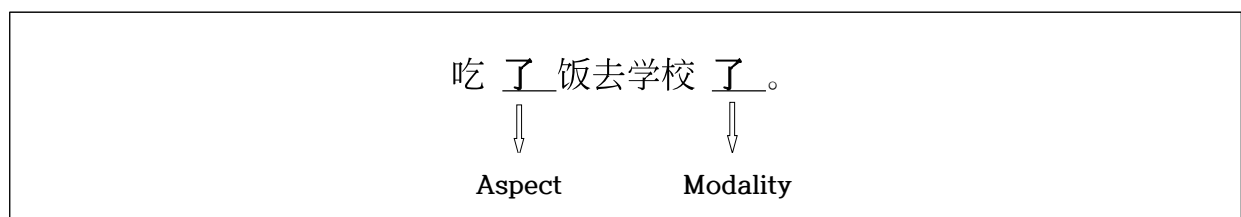
예(3, d)를 보자. 이 문장은 ‘到.....了’ 구조를 갖는 문장이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어휘는 ‘到’가 아닌 ‘了’이다. 이 역시 발화 시점 화자가 실체적 외부 세계를 통해 주관적으로 인식된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了’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객관적 실제 상황(증거)을 통해 화자가 인식한 변화된 상황을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了’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3, e)를 보자. 이 문장은 ‘(快)要.....了’ 구조를 갖는 문장이다. 이 구조는 양태를 나타내는 어휘가 2개 등장한다. 하나는 ‘要’이고 다른 하나는 ‘了’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要’의 사용은 ‘인식 양태’를 표현하기 위함이고, ‘了’의 사용은 ‘증거 양태’를 표현하기 위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가능성’에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증거성’에 대한 표현이다. 이때 ‘了’의 의미 기능 역시 객관적 실제 상황(증거)을 통해 화자가 인식한 변화될 상황을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함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을 보자.

(6) 吃了饭去学校了。

위 예(6)의 문장에서 ‘了’가 2개나 사용되었다. 동사(吃)뒤에 사용된 ‘了’는 ‘완료상(Perfect Aspect)’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명사(学校) 뒤 및 문장 문미에 사용된 ‘了’는 刘勳宇(2002)가 주장한 ‘시제(Tense)’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진준화(2023a)는 ‘실제 상황을 증거와 주관성을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증거 양태 속성이라고 하였다. 즉, ‘상황→인식→확인’의 과정 속에서 실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의 과정 사이에 증거성의 개념이 투영되 실제 상황을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증거 양태 속성인 것이다.

이로 볼 때, 본고가 논의한 문말조사 ‘了’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발화 시점 이전의 상황 혹은 상태가 발화 시점의 상황 혹은 상태로의 변화에 대해 화자가 어떤 인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의 의미 기능은 ‘실제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증거와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발화 시점 이전 상태가 발화 시점 상

고 하였고, 예(3, c)와 같이 ‘了’가 사용되었더라도 문장에서 양태어휘가 출현하지 않은 문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空情态词(0 양태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彭利贞(2009:511)을 참고 바람.

황이나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양태적 장치’로 보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말조사 ‘了’의 어법 지위를 ‘증거 양태 조사’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바로 ‘화자 지향형 양태-증거 양태’인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了₂ 了₃ 了₄.....’이 존재한다는 견해도 일시에 해결할 것으로 본다.

4. 결어

지금까지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가 갖는 양태 의미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대중국어 문장 문미에 사용되는 ‘了’는 ‘실제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증거와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발화 시점 이전 상태가 발화 시점 상황이나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양태’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언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문말조사 ‘了’의 어법 지위는 ‘화자 지향형 양태’인 ‘증거 양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중국어학분과 Ⅱ】 발표

중국어 의문사와 ‘了’ 공기 구문의 화용 의미 분석
— ‘是……的’ 구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인주* · 황산산**

【목 차】

1. 서론
2. ‘是……的’ 구문과 ‘了’의 대치에 대한 선행연구
3. 의문사와 ‘了’의 상호작용
 - 1) ‘의문사+VP+了’ 구문의 의미 초점
 - 2) ‘의문사+VP+了’ 구문의 담화 화용 의미
 - 3) ‘是……的’ 구문과의 화용적 기능 차이
4. 결론

【 초 록 】

중국어에서 “你什么时候来了?”와 같은 ‘의문사+VP+了’ 형식의 표현은 ‘是……的’ 구문의 오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는데, 사용 맥락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도 한다. 의문사와 ‘了’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是……的’와 비교해 볼 때, 초점 범위와 담화 전제에 차이를 보이며 본질적으로 상이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了’는 의문사 구문의 초점 구조를 재편성하며, 주로 ‘의외’와 ‘반문’의 의미를 함축한 간접화행으로 실현된다. 화용적 측면의 역할에 맞춰 ‘是……的’ 구문과 ‘의문사+VP+了’ 구문을 이해하자면, 전자는 정보의 전달에 초점이 있고, 후자는 감정과 태도의 전달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 담화적 필요에 의한 사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러한 분석은 학습자에게서 자주 보이는 ‘了’의 대치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차별적 활용 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법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화용적 맥락의 인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키워드】 의문사, ‘了’, ‘是……的’, 화용 의미, 담화 맥락, 초점, 의외성, 반문

* 제1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villagek@naver.com)

** 참여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shanshan0702@hanmail.net)

1. 서론

중국어에서 의문사와 ‘了’의 결합은 문장의 의미와 초점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주로 중국어 문법 항목 가운데 특정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 ‘是……的’ 문형을 소개할 때, 오류 유형의 하나로 다루어지곤 한다.

(1) 너 언제 왔어?

ㄱ. 你(是)什么时候来的? ㄴ. *你什么时候来了?

(2) 너는 누구에게 바둑을 배웠어?

ㄱ. 你(是)跟谁学棋的? ㄴ. *你跟谁学棋了?

(3) 너 어디에서 봤어?

ㄱ. 你(是)在哪儿看到的? ㄴ. *你在哪儿看到了?

통상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한 화제가 있고, 확인된 사건의 세부 상황 정보를 묻는 담화 맥락인 예문(1)–(3)의 한국어 문장에 대응하는 적절한 중국어 표현은 (1ㄱ), (2ㄱ) (3ㄱ)이다. 그러나 (1ㄴ), (2ㄴ), (3ㄴ)과 같은 문장이 언제나 비문은 아니며, 사용 맥락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도 한다.¹⁾ 중국어 학습자들이 ‘了’와의 대체 오류로 종종 비문을 만들어내는 과거와 관련된 사건에 쓰이는 ‘是……的’ 구문에 관한 연구는 날로 정교해졌다. ‘是……的’ 구문의 의미 특징, ‘了’와의 구분을 위한 학습 지도 방안과 관련한 주제로 여러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了’로 대체한 문장의 변별적 선택에 의한 실질적 사용 의미에 관해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능의 유사성으로 사용상 혼동을 빚는 “你什么时候来了?”와 같은 ‘의문사+VP+了’ 형식의 표현을 ‘是……的’ 구문과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일정한 표현이 쓰이는 경향을 밝혀 맥락에 따른 적절한 표현을 도출해 내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是……的’ 구문과 ‘了’의 대체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인 학습자들은 문법 교재를 통해 ‘是……的’ 구문을 습득할 때 일반적으로 ‘강조구문’, ‘강조용법’ 등으로 접하곤 한다. 관련 설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과거에 발생했거나 이미 완료된 사건을 전제로 하며, 동작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부분, 가령,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식, 주체 등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해설은 해당 구문의 사용에 적절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제 오류율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기정(2014)은 HSK작문말뭉치(HSK动态作文语料库)에 나타난 한국인의 문형 오류 유형 중 ‘是……的’ 구문의 오류 숫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 양상 가운데 ‘了’의 오용으로 인한 경우가 ‘的’의 누락에 이어 높은 빈도를 보인다.²⁾ 이에 기존의 해설이 학습자에게 해당 구문의 올바른 사용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1) 본 연구에 사용된 예문은 선행연구, 저서에서 인용한 경우에 각주를 통해 출처를 명시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CCL코퍼스(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와 BCC코퍼스(BLCU Corpus Center)에서 추출한 것은 별도의 표기를 생략하였다.

문제가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은경(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대응 표현인 ‘-었다’와 ‘-것이다’의 차이에 입각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是……的’ 구문을 ‘了’와 구별하여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령 “我们是上个星期去的长城.”와 같은 문장을 ‘-었다’ 구문으로 풀이하는 경우 “我们上个星期去长城了.”와의 차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것이다’의 해석이 갖는 직관적 특성을 교육방안에 접목하였다.³⁾ 하지만 ‘是……的’ 구문에 ‘了’의 대치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김선희(2014)의 연구에서는 ‘是……的’ 구문을 지도할 때 강조 용법이라는 소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吕必松(1982), 王光全(2003) 등의 관점을 다루며 ‘是……的’ 구문의 사용이 특정 상황에서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설명에 일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⁴⁾ ‘是……的’ 구조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관련해서는 문법적 강제보다는 담화적 필요에 의한 사용이라는 점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오용을 줄이는 데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是……的’ 구문과는 다른 정보구조를 지닌 의문사와 ‘了’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현은 문장의 의미와 초점을 변화시키는데, 화자의 발화 의도와 맥락에 따라 ‘是……的’ 구문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이에 ‘了’의 대치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외성’과 같은 ‘了’ 의미의 다의성에 관한 부분과 ‘了’ 사용의 담화 맥락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문의 3장에서는 의미 층위에서 ‘의문사+VP+了’ 구문이 지닌 감정, 태도 등의 화용적 함의로 인해 ‘是……的’ 형식으로의 변환이 불가한 경우를 함께 고찰함으로 ‘의문사+VP+了’만의 구분적 사용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3. 의문사와 ‘了’의 상호작용

1) ‘의문사+VP+了’ 구문의 의미 초점

일반적으로 의문사를 사용한 설명의문문에서 ‘누가’, ‘언제’, ‘어디’ ‘어떻게’ 등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문장의 초점 역할을 한다. 의문사의 의문점은 정보 전달의 핵심이 되며, 화자가 청자에게 답을 기대하는 부분이다. 이에 담화 상황에서 의문에 대한 답변 부분은 새로운 정보로 역시 초점이 된다. 초점과 중국어 의문사 간의 관계를 분석한 祁峰·陈振宇(2013)의 논의에서는 모든 의문 표현이 다 이러한 ‘의문 초점’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特指问’, 즉 의문사의문문만이 문장 구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의문사의 의미 자체로 ‘의문 초점’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기타 ‘판정의문문(是非问)’, ‘정반의문문(正反问)’, ‘선택의문문(选择问)’ 등과는 다른 초점의 양상인 것을 지적하였다. 祁峰·陈振宇(2013)는 ‘吗’를 사용한 질문의 경우 문장의 초점이 ‘吗’가 없는 서술문 형식일 때의 초점과 차이가 없다는 점, 선택의문문에서는 ‘是A 还是B’ 구조에서 ‘A’와 ‘B’ 두 항목이 쌍을 이루어 ‘대조 초점’을 이루는 점 등을 다음의 예와 함께 언급하였다.⁵⁾

2) 전기정, 「‘是……的₂’ 구문의 통사적 특징과 오류분석」, 『중국어학논총』, 제46집, 한국중국어문화학회, 2014, p.229.

3) 이은경, 「‘(是)……的’ 구문의 통사·의미와 한국어 대응관계를 통한 교육방안」, 『한중언어문화연구』, 제39호, 한국현대중국어학회, 2015.

4) 김선희, “(是)……的₂ ’구문 중 ‘的₂’의 문법 기능 및 상황 맥락 지도에 대한 연구」, 『중어중문학』, 제5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4, p.129.

5) 祁峰·陈振宇, 「焦点实现的基本规则——以汉语疑问代词为例」, 『汉语学报』, 第1期, 华中师范大学, 2013, pp.77-78.

- (4) 他去了上海吗?
 (5) 你是喝茶, 还是喝咖啡?
 (6) 张三昨天是去图书馆看书, 还是待在家里写论文?

강조 구문이라고 불리는 ‘是……的’ 형식 안에서도 의문사는 이러한 초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의문사+VP+了’ 구문에서 의문사의 특정 정보에 맞춰져 있던 의문 영역의 초점은 ‘了’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체 사건의 완료 또는 상황의 변화로 덮이게 된다. Lambrecht(1994)는 초점이 문장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따라 ‘좁은 초점(narrow focus)’과 ‘넓은 초점(wide focus)’으로 구분하였다. 넓은 초점은 문장 전체나 문장의 서술어 부분이 초점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전체 내용이 새로운 정보로 인식될 때를 가리킨다.⁶⁾

그렇다면 이때 의문사 본래의 소위 자연적 ‘의문 초점’이 단독 초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是……的’ 형식에서의 ‘的’과 ‘了’의 차이에 근거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的’의 사용은 ‘정적(静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화자와 청자 모두가 인지한 사건을 전제로 특정 측면과 관련한 상황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에 반해, ‘了’의 사용은 ‘동적(动态)’인 성격을 지닌다. ‘了’ 사용 문장은 어떤 상황 발생에 대한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건 과정에 따른 변화의 서술에 핵심이 있다.⁷⁾ 이렇듯 ‘의문사+VP+了’ 구문에서의 초점은 문장 전반에 걸쳐 있는 사건 전체와 관련이 있기에, 실제 담화 환경에서 ‘의문사+VP+了’ 형식의 질문에 이어진 청자의 대답은 종종 일반적으로 의문 초점이 바라는 ‘누가’, ‘언제’, ‘어디’ 등에 대한 핵심 정보에서 벗어난 다른 답변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 (7) 문: 你要是看不顺眼你就请回。谁请你来了?
 답: 你怎么突然对我不好了?
 (8) 문: 你什么时候结婚了?
 답: 女儿都两个了。

위의 예문(7), (8)의 질문에는 각각 ‘谁’, ‘什么时候’와 같은 의문사가 쓰였지만, (7)의 ‘누군가’와 (8)의 ‘언제’는 단독 초점 논항이 되지 못하고 전체 문장이 초점화되며, 이에 대한 청자의 대답에서도 누구와 언제에 관한 정보는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 ‘什么时候’의 경우 아래의 응답과 같이 ‘동적(动态)’ 의미를 함축한 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 (9) 문: 什么时候回来了?
 답: 回来两天了, 一直忙。
 (10) 문: 你什么时候调主席身边来了?
 답: 调来六年多了。
 (11) 문: 段老, 你们戏班子不是已停了半年多, 什么时候又唱起来了?
 답: 已恢复三个月了。

6) Lambrecht, K, “Mirativity: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7) 卢福波(2002)의 연구는 교육 전략 설계의 각도에서 ‘了’와 ‘的’의 선택적 사용에 주목했는데, 두 성분의 화용적 기능 차이를 논하며 언급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1. (动态与静态的差异), 2. 정보 전달의 차이(传信差异), 3. 서술과 설명의 기능적 차이(叙述与说明的功能差异). 卢福波, 「‘了’与‘的’的语用差异及其教学策略」, 『暨南大学华文学院学报』, 第2期, 暨南大学华文学院, 2002, p.60.

예문(9)-(11)의 대답에서는 특정 시점을 정하여 초점화하는 대신, ‘了’를 포함한 질문과 같은 형식을 채택해 ‘回来两天了’, ‘调来六年多了’, ‘已恢复三个月了’와 같이 응답하고 있다.

2) ‘의문사+VP+了’ 구문의 담화 화용 의미

실제 언어 환경에서의 ‘의문사+VP+了’ 구문의 변별적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 화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현 문맥과 화자의 발화 의도에 주목해 보면, 담화 맥락에 따라 ‘의외’ 그리고 ‘반문’ 크게 두 가지 화용적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是……的’ 구문과는 다른 기능으로 실현되는 것을 함축한다. 이때 의문사는 미지의 특정 정보를 요구한다기보다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한 놀람, 예상과 다른 정보에 대한 의문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이는 화자가 어떤 사실을 새로이 인식한 것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의문사+VP+了’ 구문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의외

‘의외성(mirativity)’이라는 개념은 화자가 예상치 못한 정보나 사건에 대한 놀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DeLancey(1997)에 의해 처음 언급된 문법 범주이다. 그는 다양한 언어에서 어미, 조사, 동사의 형태 변화 등의 특정한 문법 형태를 통해 ‘의외성(mirativity)’을 표현한다고 보았다.⁸⁾ 이혜정(2022)은 ‘了’의 의외성 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에 관해 다루었는데, 중국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적, 어휘적, 담화적 요소를 논하며 의외성 표지로 ‘怎么’를 언급한 바 있다.⁹⁾ 중국어에서 의문사 ‘怎么’는 주로 방식 또는 원인 묻는 역할로 쓰인다. 刘月华(1985)는 화자가 원인을 묻는 ‘怎么’를 사용한 경우 주로 의아함이나 놀람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또한 ‘怎么’의 이러한 쓰임에서는 방식을 묻는 ‘怎么’를 비롯해 통상 의문사 성분이 강세를 받는 것과는 달리 ‘怎么’ 뒤 또는 주어 부분에 강세가 오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지적하였다.¹⁰⁾ 특히 이때 ‘怎么’의 놀란 감정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 술어는 대개 단일 동사나 형용사 형식으로 출현하지 않는 것을 아래 예문과 함께 제시하였다.¹¹⁾

(12) ㄱ. *你怎么哭? ㄴ. 你怎么哭了?

(13) ㄱ. *你怎么嫉妒? ㄴ. 你怎么这么嫉妒?

刘月华(198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 용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12ㄴ)과 같이 문장 내 ‘了’는 청자에게 화자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어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외’의 화용 함의를 나타내는 ‘怎么’의 사용에서 ‘了’와의 공기는 다수 발견된다.

8) DeLancey, S, “Mirativity: The grammatical marking of unexpected information”, *Linguistic Typology*, Vol.1, 1997.

9) 이혜정, 「인식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말조사 ‘了’」, 『중국인문과학』, 제81집, 중국인문학회, 2022, p.150.

10) 刘月华, 「‘怎么’与‘为什么’」,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北京语言大学, 1985.

11) 刘月华, 위의 책, p.139.

- (14) 他怎么得罪您了?
 (15) 你怎么知道我上这儿来了?
 (16) 今天并不是礼拜, 你怎么回来了?

위의 예문(14)-(16)과 같은 발화는 사건에 대한 전제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체 문장이 새로운 정보로 인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때 ‘怎么’는 ‘是……的’ 형식으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나, 이는 방식을 묻는 표현이 되며, 해당 표현은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아래 ‘是……的’ 구문에서 ‘怎么’는 초점 정보로서 강세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 (14') 他是怎么得罪您的?
 (15') 您是怎么知道我上这儿来的?
 (16') 今天并不是礼拜, 您是怎么回来的?

이밖에 ‘谁’, ‘什么时候’, ‘哪儿’ 등의 의문사 역시 ‘의문사+VP+了’ 구문을 통해 이러한 ‘의외’의 화용적 의미를 구현한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谁

- (17) 谁让你不高兴了?
 (18) 咋了, 这么伤心! 谁欺负你了?
 (19) 谁看见我们了? 还是说谁听到了?

什么时候

- (20) 你什么时候又起来了?
 (21) 什么时候换成马桶了?
 (22) 呵, 小谈什么时候进屋了?

哪儿

- (23) 从哪儿给除名了?
 (24) 你在哪儿上班了?
 (25) 你从哪儿听来了?

위의 예문(17)-(25)에서 의문사는 단독 초점이 되지 못하며, 정보의 핵심도 아니다. 가령, 예문(18)과 같은 화자의 발화는 괴롭힌 이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누군가 상대를 괴롭힌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예문(24)의 경우 상대가 어딘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화자의 놀람, 의외의 감정이 담겨 있다. 의문사와 ‘了’의 상호작용하에 화용 층위에서 구현되는 의미 양상은 ‘是……的’ 구문에서 특정 성분이 초점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 반문

의문사의 사용이 모두 의문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예컨대 화자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어떤 답이나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닌 ‘반문’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반문’ 의미는 ‘是……的’ 구문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차이를 보이는 ‘의문사+VP+了’ 사용의 발화 목적 중의 하나이다. 유선영(2006)은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종의 간접언어행위로서 반문의 기능을 가지는 의문문을 매우 특색 있는 문형으로 보고 이러한 문장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으며, 통사, 의미, 화용상의 측면까지 다각도에서 고찰하였다.¹²⁾ 박재승·권선아(2009)의 연구에서도 문장 의미가 기호 의미와 동일하지 않은 반어문은 서술문이나 일반적인 의문문과 같은 직접화행이 아닌 화자의 발화 목적을 더욱 부각하고자 하는 간접화행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¹³⁾ 邵敬敏(1996)의 『现代汉语疑问句研究』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 쓰이는 의문문의 용법으로 실질적 의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과, 반문이라는 특정한 화용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들어 구분하였으며, 각각 ‘真性问’, ‘假性问’이라 명명했다.¹⁴⁾ 이렇듯 사실상 의문사를 수반한 의문문은 어조만으로 반문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¹⁵⁾ 하지만 ‘의문사+VP+了’ 형식으로 구현되는 경우 보통 반문의 발화 속에 대체로 상대의 인식에 대한 반박 또는 부정의 의미가 내포된 것과 더불어, ‘了’의 담화적 특징이 더해져 예상과 다른 상황에 대한 감정을 함께 전달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谁

(26) 谁问你了?

(27) 那就去呀, 谁拦着你了?

(28) 那就写上呗, 谁不让你写上了?

什么时候

(29) 我什么时候去河边了?

(30) 我什么时候弹琴了?

(31) 你什么时候打电话给我了?

哪儿

(32) 我哪里让你烦了?

(33) 我哪里表现出胆怯了?

(34) 没有没有, 我哪儿说我了?

怎么

(35) 我们怎么不体谅老人了?

(36) 我怎么不好好说话了?

(37) 怎么能就这么走了?

반문은 담화 맥락과 발화 의도에 의존도가 높는데, 邵敬敏(1996)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문문이 ‘假性问’으로서 실현될 때는 맥락과 의도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종종 반문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了’의 출현이 모든 반문의 표현에 있어 필요조건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며, 특히 ‘哪儿’, ‘哪里’, ‘怎么’ 등의 사용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了’를 제하면 화자의 반박, 부정의 어조가 명확히 드러나 보이지 않기도 한다. 가령, 예문(27)에서 ‘了’가 없으면 “那就去呀, 谁拦着你?”만으로는 반문의 의미가 약화되

12) 유선영, 「반어문의 의미 화용상의 이해」, 『중국어문학논집』, 제3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

13) 박재승·권선아, 「반어문의 통사적·화용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제19호, 한국현대중국연구회, 2009.

14) 邵敬敏, 『现代汉语疑问句研究』, 华东师范大学出版社, 1996, p.163.

15)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1, p.796.

는가 하면, ‘了’를 생략한 예문(28)의 “那就写上呗, 谁不让你写上?”과 같은 문장은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한편 예문(29)–(31) ‘什么时候+VP+了’의 경우 ‘了’가 없으면 반문의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了’는 필요조건에 가깝다.

(29) 我什么时候去河边?

(30) 我什么时候弹琴?

(31) 你什么时候打电话给我?

예문(29)–(31)은 특정한 문맥의 설정이 없이는 반문으로 해석되기보다 질문의 화행이 된다. 이에 위의 (29)–(31)의 문장과 대조해 볼 때 반문의 어조는 ‘了’가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상대의 인식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반박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에 ‘了’의 일정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반문에서 의문사는 변별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한 刘钦荣(1995, 2004)의 견해에 따르면, 반문의 의도로 실현된 발화에서는 의문사 간의 의미 대립이 약화되기에 상호 호환도 가능하다고 하였다.¹⁶⁾ 冯江鸿(2004)의 『反问句的语用研究』에서도 의문문의 사용 가운데 반문의 역할을 언급했으며, 주로 간접적 진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冯江鸿(2004)은 이때 의문사의 반박, 부정 등의 새로운 담화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본래의 질문 기능이 추상적, 논리적 차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았다.¹⁷⁾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의문사+VP+了’에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보통의 의문문 그리고 ‘是……的’ 구문에서 의문사가 특정한 의문 초점을 가지며 직접화행으로 실현된 것과는 달리, 화용적 진술로서의 화행인 데서 기인한 것으로 헤아릴 수 있다.

3) ‘是……的’ 구문과의 화용적 기능 차이

담화 층위에서 실현되는 초점이란 발화 의도와 관련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보이거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중국어의 초점 실현에 관한 논의에서 초점의 정의에 대해 다룬 이옥주(2007)에 의하면 초점은 화용적 개념의 것으로, 개별 담화 내에서 발화의 정보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였다.¹⁸⁾ 潘建华(2000)에서도 초점은 본질적으로 담화 기능의 개념으로서 화용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⁹⁾ 이러한 초점은 운율, 어순 또는 문법적 표지와 같은 방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是……的’ 형식은 중국어의 초점 구현 방식 중의 하나이다. 田泉(1996)에서는 ‘(是)新信息+旧信息(的)’와 같은 의미 구조를 들어 보이며 ‘是’와 ‘的’은 정보구조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是’가 이끄는 새로운 정보와 ‘的’과 함께 쓰이는 주어진 정보는 상호보완적 형식을 이루어 문장의 정보구조를 명확히 하고 담화의 화제를 분명히 한다고 했다.²⁰⁾

唐燕玲·石毓智(2009)는 ‘의문’과 ‘초점’ 두 가지 문법 범주 간의 내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의문

16) 刘钦荣, 「反问句和询问句句法结构间的关系」, 『沈阳师范学院学报』, 第4期, 沈阳师范大学, 1995, p.88. 刘钦荣, 「反问句的句法, 语义, 语用分析」, 『河南师范大学学报』, 第4期, 河南师范大学, 2004, p.108.

17) 冯江鸿, 『反问句的语用研究』, 上海财经大学出版社, 2004, pp.69-70.

18) 이옥주, 「표준중국어 초점 실현에 관한 연구 - 음향적 초점 표지와 초점 표지 是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회지』, 제23집, 중국어문학회, 2007, p.254.

19) 潘建华, 「每个句子都有焦点吗?」, 『山西师大学报』, 第3期, 山西师范大学, 2000, p.123.

20) 田泉, 「是, ‘的’合用及单用非句法功能初探」, 『汉语学习』, 第5期, 延边大学, 1996, pp.29-30.

사와 초점 표지는 유사한 인지적 기초를 지니는 점을 규명하였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언어 가운데 초점 표시는 자주 의문사와 함께 나타나는데, 의문사는 문장, 담화 내에서 중점 정보로 초점 표지와 결합을 이룰 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았다.²¹⁾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중국어의 초점 실현 방식인 ‘是……的’ 형식과 문장 내 초점이 되는 정보인 의문사 간의 결속 구조와 해당 표현의 해석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의문사가 요구하는 특정 정보는 문맥에서 주의를 끄는 핵심 요소로, ‘是……的’ 형식에서 초점 표지 역할의 ‘是’와의 결합 그리고 특정 요소를 초점화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는 전제 정보를 표시해 주는 ‘的’의 사용은 모두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선택되었으며, 담화 기능과도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是……的’ 형식과 ‘의문사+VP+了’ 형식은 각기 다른 초점을 가지며 화용적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문장의 전체 구조와 어우러져 발현되는 초점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명확히 한다. 요컨대, 초점은 발화 의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며, 발화 행위는 전제 요소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이에 ‘초점’과 ‘전제’는 두 구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유롭게 상호 호환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3)절에서는 의문사가 포함된 ‘是……的’와 ‘VP+了’ 구문 간의 교체를 통해 화용적 효과 차이를 고찰해 보고, 화행의 유형을 구분함으로 상황별 적용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4. 결론

‘是……的’ 구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是……的’ 구문의 사용 맥락에 대해 논하며 비교적 정형화된 용례를 다루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일부 동일한 조건 아래 ‘了’가 사용된 문장 중 화자의 의도에 의해 다른 담화 기능을 내포한 표현에 관한 해석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살펴보았다.

‘의문사+VP+了’ 구조의 문형은 ‘是……的’와 비교해 초점 범위와 담화 전제에 차이를 보이며 본질적으로 상이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了’의 사용은 동적 사건의 성격을 수반하는데, 이때 사건 발생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 된다. 따라서 의문사 의미는 전체 사건의 일부로 흡수되기에 단독 초점화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了’는 의문사 구문의 초점 구조를 재편성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에 “你什么时候来了?”, “我什么时候去河边了?” 등과 같은 문장을 대할 때에는 화자의 의도와 담화 맥락에 따라 선택 사용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용례를 통해 살펴본 ‘의문사+VP+了’ 구문은 주로 ‘의외’와 ‘반문’의 의미를 함축한 간접화행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화용적 측면의 역할에 맞춰 ‘是……的’ 구문과 ‘의문사+VP+了’ 구문을 이해하자면, 전자는 정보에 초점이 있고, 후자는 감정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의 이러한 연구는 ‘是……的’ 구문의 사용에 자주 발생하는 중국어 학습자들의 ‘了’의 대치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고, 문법 형태소, 통사 구조의 면면을 파악하는 데에 화용적 맥락의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21) 唐燕玲·石毓智, 「论疑问和焦点之关系」, 『外国语』, 第32卷, 上海外国语大学, 2009 참조.

【중국어학분과 II】 발표

“愚者之旅”与“易之变”*

— 塔罗大阿卡纳与《易经》六十四卦的过程结构比较研究

허로천**

【목 차】

1. 绪论
2. 塔罗“愚者之旅”的象征结构与人生过程观
 - 1) 塔罗的起源与结构概述
 - 2) 塔罗大阿卡纳的结构与易象对映
3. 《易经》的卦象结构与变化过程观
 - 1) 《易经》的成书与结构概述
 - 2) 《易经》的卦象对位与塔罗的牌义映照
4. 结论

【 초 록 】

本论文从“过程结构”的视角出发，比较分析塔罗大阿卡纳与《易经》六十四卦在象征系统与人生观念上的异同。塔罗二十二张大阿卡纳牌从“愚者”出发，以“命运之轮”为中轴，展现个体从外部探索到内在觉醒的成长路径；而《易经》则以阴阳构造出六十四卦，呈现宇宙运行与人生变化的周期性规律。文章提出塔罗中的“魔法师与女祭司”“审判与世界”等关键牌组，与《易经》中的“乾坤”“剥复”“坎离”等覆卦在象征意义上形成呼应。二者虽源自不同文化传统，却都通过图像、结构与数字，表达对命运、变化与生命圆融的理解。通过对比分析，本文指出：塔罗与《易经》皆以对立统一与循环展开为核心思想，展现了人类面对未知与变化时共同的文化心理与哲学追问。本文尝试以“结构节奏”的方式，将东西方两大占卜体系置于同一思想框架下比较，期望为跨文化象征研究提供新的理解路径。

【키워드】 象征结构；塔罗；易经；占卜；过程哲学；对立与统一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지원

** 허로천,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20206106@busf.ac.kr)

1. 绪论

在科学尚未建立体系的早期，人类便以直觉和经验探索自然与生命的循环。占卜正是这种探索最早的形式，借由象征媒介，在面对命运与无常时建立起意义秩序。从东方的蓍草、卦象到西方的塔罗、水晶球，占卜跨越文化，成为连接“天—人—命”的象征通道。

塔罗与《易经》作为东西方代表性的占卜体系，分别构建出完整的象征系统。塔罗牌共七十八张，其中大阿卡纳二十二张，以图像、数字与命名揭示宇宙与灵魂的奥秘；《易经》则以六十四卦构成结构清晰的哲学模型，藉由阴阳消长与爻变之理，演示人生的变化过程。

两者虽然形式不同，但皆以象征图像表达宇宙运行与人生抉择的逻辑。在结构方面，塔罗牌中的图像、数字、名称三位一体的组合，对应《易经》中“天、地、人”三才架构；塔罗牌分为大、小阿卡纳，《易经》亦有“大象”与“小象”之辨，皆呈现出象征层次的多重性。

本文选用影响最广的韦特塔罗为研究对象，并以传统《易经》六十四卦体系为参照。学界对塔罗研究多集中于心理学、艺术与图像叙事，对《易经》则以哲学义理与管理应用为主，而直接比较两者象征结构的研究尚属空白。因此，本文拟通过比较塔罗大阿卡纳牌与《易经》六十四卦中的结构形式与哲学思维，探讨两者如何以各自文化语境构建“人生过程”的象征系统，进而揭示其背后共同的宇宙观与生命理解路径。

2. 塔罗“愚者之旅”的象征结构与人生过程观

1) 塔罗的起源与结构概述

关于塔罗的起源，相关可考记录甚少，传说则众多。它曾被与古埃及的智慧传统、吉普赛民族的占卜术、摩洛哥的魔法实践等联系起来，但多属难以考证的传说。据现有实物记载，世界上最早发现的塔罗牌出现在15世纪的意大利¹⁾，早期塔罗实物多为贵族游戏所用，牌面为精美画作，并无数字与文字标识。

随着图像象征意义逐渐被意识到，塔罗从娱乐纸牌演变为富有象征性的工具。在炼金术士、神秘学家与宗教象征传统的推动下，塔罗牌被赋予数字与文字，逐渐发展为“涵盖艺术、心灵、神话乃至宇宙观的课程”²⁾。无论其源流为何，可明确的是：塔罗牌始终围绕“神秘”“宇宙”“灵魂”展开象征性建构，其核心在于“揭示奥秘”。

Rider-Waite-Smith塔罗牌共78张。大阿卡纳牌(Major Arcana)二十二张，牌面画着形象不一的人物与一些具有象征意义的宗教形象。每一张图片的上方印有它的代表数字。牌的下方写着这张牌的名称。从0号“愚者”开始，到21号“世界”牌结束。小阿卡纳牌(Minor Arcana)共五十六张，与现代的扑克牌结构较为相似。五十六张牌分为权杖、圣杯、宝剑和钱币四个元素，类似扑克牌中的梅花、红心、黑桃和方块。每种元素从一到十，共有四十张牌。除此以外还有代表四个阶段的侍从、骑士、皇后与国王，共十六张宫廷牌。

相比于更具日常性的小阿卡纳，大阿卡纳承载着塔罗系统的精神核心，是塔罗牌中最具哲学性、精神

1) 尹冠中，「塔罗与文学——『君士坦丁堡最后之恋』的塔罗叙事」，广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20，p.12.

2) Richel Pollack, 孙梅君译，『塔罗全书』，商周出版社，2012，p.26.

性与结构性的象征系统。其编号从0至21, 象征着个体从“愚者”出发、历经转折, 最终走向“世界”的旅程。大阿卡纳牌以其连贯的编号与象征图像, 构成了一个完整的精神成长过程——愚者之旅(The Fool's Journey)。这其中不仅蕴含着个体成长的心理轨迹, 也折射出文化中对命运、变化、觉醒等永恒主题的思考。

2) 塔罗大阿卡纳的结构与易象对映

前文已指出, 大阿卡纳牌并非松散无序的象征集合, 而是具备编号与精神历程的结构系统。对于这套体系的理解, 塔罗诠释者普遍持有两种主流观点: 一为“个体式解读”, 强调每张牌独立表达其所承载的数字理念; 另一则强调整体性, 将大阿卡纳视为一段连贯的象征旅程。其中较具代表性的是将0号“愚者”排除后, 将余下二十一张牌每七张划分为一组, 分别代表成长过程中的意识(外在经验)、潜意识(内在觉察)与超意识(灵性发展)³⁾。

本文则提出在以10号“命运之轮”为中轴的结构下, 将愚者之旅划分为外在建构与内在觉醒两个阶段, 20号“审判”与21号“世界”牌则象征终极的整合与新生的循环。此种划分揭示了塔罗系统中的“起—承—转—合”节奏, 并体现其与《易经》六十四卦在内在哲学结构与生命逻辑上的呼应。

(1) 10号“命运之轮”

10号“命运之轮”是愚者旅程中具有中轴意义的节点, 不仅因其处于大阿卡纳编号的正中位置, 更因其首次集中呈现出宗教象征与“命运不可违”的精神内涵。中国传统数理亦有类似理解。《易经·系辞传》云: “天数五, 地数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左传·庄公十六年》称“十”为“盈数”; 《说文解字》则从字形上解“十”的一竖一横寓意“四方中央”。这些都可以得知古人认为“十”代表了宇宙的圆满与具足⁴⁾。因此, 10号牌不仅象征阶段性的完成, 也标志着愚者从“自我构建”迈向“命运觉知”的转折。

这张牌的牌面图像也极富象征性。中心旋转之轮上刻有“TARO”、“TORA”等顺序可变的字母, 代表了“塔罗的生命之轮”⁵⁾; 四角描绘四位福音使徒, 手中各拿着一卷书卷, 象征学习与启示。轮环内圈还有四个炼金术的符号, 意味着“转化”。我们可以看到, 10号牌如同一个无法逃避的命运, 毫无预见地出现在愚者的人生中, 带来了人生中来自上天的第一个启示——转变。也正是从这个节点开始, 愚者的旅程开始从外部世界的实践转向内在意识的探索。

《易经》六十四卦亦分为上经三十卦与下经三十四卦。上经以“乾坤”为始, “坎离”为终, 象征宇宙秩序; 下经则从“咸恒”开始, 聚焦“男女之始, 夫妇之道”⁶⁾。焦点由宇宙秩序转向人伦, 进入人生实践的具体层面。这样的结构节奏正可与塔罗大阿卡纳以“命运之轮”为中轴的二元阶段形成呼应, 呈现东西方在象征体系中对“变”与“转折”的共同理解。

(2) 1号“魔法师”与2号“女祭司”

“愚者之旅”始于1号“魔法师”与2号“女祭司”两张牌, 它们分别象征绝对的男性与女性原型, 构成大阿

3)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p.38-41.

4) 히로친, 「『说文解字』部首体系之『周易』原理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51.

5) Richel Pollack, 孙梅君译, 『塔罗全书』, 商周出版社, 2012, p.82.

6) 孔颖达, 『周易正义』, 『十三经注疏』标点本, 北京大学出版社, 1999, p.10.

卡纳最基本的阴阳结构，正如《易经》以“乾坤”二卦开篇，开启万象之始。

1号“魔法师”牌中，一名男性一手指天、一手指地，高举法器于空中，象征“将最具创造力的生命能量形式导入实相界”⁷⁾。其前方法坛摆放代表宇宙四元素的象征物，构成“创造世界”的意象。其姿态亦呼应佛陀降生“一手指天一手指地”的经典形象，象征“我本自具足”的精神力量。魔法师头上的“∞”符号进一步暗示其调动的是宇宙原始之能，正与《易经》的首卦——象征阳刚、动能、创造的“乾卦”相契。

与之相对的2号“女祭司”代表纯阴原型。据Rachel Pollack的说明，2号牌原名为“女教皇”，至十八世纪改称“女祭司”⁸⁾。图像中，女祭司端坐于果实装饰的屏风前，身姿静穆，展现慈悲与智慧。在本应由男性主掌的“神之代理”之位上呈现女性形象，寓意将阳性权能与女性特质相融合，体现“上帝的两面性”——力量与爱。她面前的一黑一白两柱表面上代表了“二元性与对立”，但深层传达的却是“阴阳融合”，如太极之两点⁹⁾。其静坐对比魔法师的站立、柱子与魔杖的符号意涵，恰如《易经》卦相构成的基础符号阳爻“—”与阴爻“- -”的具象呈现。愚者之旅自此正式在“阴阳对位”中展开。

(3) 11号“正义”

11号“正义”牌出现在10号“命运之轮”之后，标志“愚者之旅”第二阶段的开启。图像中，一位人物正襟危坐于屏风前宝座上。在大阿卡纳中，虽有多位端坐者，但具屏风背景的仅有2号“女祭司”与11号“正义牌”，构成视觉上的结构呼应。

值得注意的是，“正义”牌中的人物性别模糊。Rachel Pollack指出，该牌原型来自古希腊律法女神席米斯(Themis)，其罗马名为“Justitia”，即11号牌名“Justice”之由来¹⁰⁾。此牌中，女神一手持剑指天，一手持秤指地，与1号“魔法师”的手势形成隐性呼应。她虽以坐姿示“静”，袍下却伸出一脚，好似随时站起身，以“静”中有“动”展现阴阳交融之意。她手中的“天秤”也象征了“二元”的平衡。这张牌的序列——“11”这个数字作为双数的起点，也隐含了阶段性的转化。Rachel Pollack认为，10号“命运之轮”是“对个人生命的洞察”，11号“正义牌”则象征“对这个洞察的理解”¹¹⁾。这标志着愚者从外在行动开始迈入内在整合。

如果我们观察《易经》，可以看出它在结构也能与此相呼应：上经以“坎离”终结，下经以“咸恒”开启——“坎离，男女也；咸恒，夫妇也”¹²⁾。换言之，“咸恒”不仅是下经之首，也象征着阴阳相交后的现实人伦秩序，是对上经“天地之道”的内在转化与行为落点。正如《序卦传》所言：“有男女然后有夫妇”。塔罗与《易经》在此皆展现由“宇宙秩序”向“人间秩序”的内化过程。

(4) 21号“世界”与0号“愚者”

21号“世界牌”描绘了一位裸身女性，手持两支魔杖，单脚站立、仿佛沉浸于舞蹈之中。这两支魔杖与1号“魔法师”手中的相同，象征阳性力量，此刻却由象征阴性的女性握持，形成“阳中有阴、阴阳交错”的统一形象。牌号“21”也可视为数字“1”与“2”的融合，代表“魔法师”与“女祭司”这对极性符号的终极整合。

Rachel Pollack将牌中人物称为“欢舞的灵体”¹³⁾，而非赋予明确性别，这正揭示塔罗结构在终点所传

7)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50.

8)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57.

9)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61.

10)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121.

11)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123.

12) 郑刚中, 『文渊阁四库全书·易说卷』第三册, 『周易窥余』, 2004, p.57

达的深层含义——对二元对立的融合与超越。图像四角再次出现10号“命运之轮”中的四位使徒，只是此时身旁已无书卷，象征“成长与完成”。灵体的外围着一圈巨大的绿色圆环，这圆环既是“世界”的边界，也是“0”的回归——愚者再次出现。他们既是同一个人，又已非原来的自己。愚者已经从“无知无畏”的“本初”发展为“全知全能”的“整合”，愚者之旅由此形成闭环，当然也并非真正的结束。

这也与《易经》的卦序设计产生了完美的呼应。《易经》终于“既济”与“未济”，它们并不简单地代表“完成”与“未完成”，而是一种宇宙运行与生命过程的哲学象征。正如《易经·序卦传》云：“物不可穷也，故受之以未济终焉。”即便至“既济”的圆满，仍蕴含下一轮“未济”的动能与可能。塔罗与《易经》皆以自身结构揭示生命非线性，而是循环往复的整合过程——圆道。塔罗与易经，在各自的文化语境中，通过不同的象征结构，殊途同归地展现了生命过程的循环性与整合性——这正是“过程结构”所指向的深层哲学共鸣。

3. 《易经》的卦相结构与变化过程观

1) 《易经》的成书与结构概述

《易经》作为中华思想传统中最具根源性的经典之一，经历了漫长的发展过程。据《汉书·艺文志》所载：“《易》之为书也，人更三圣，世历三古”。所谓“三圣”，即伏羲、文王与孔子。最早伏羲“仰则观象于天，俯则观法于地”¹⁴⁾，创立八卦；殷周时期，文王演八卦为六十四卦；春秋时，孔子及其后学撰《十翼》，使其发展为可卜、可象、可道的哲学体系。现今所称《易经》，是三部古“易书”中唯一存世者，被称为“中华文化的本源，也是传统文化的中枢”¹⁵⁾。

《易经》由上经三十卦与下经三十四卦构成，共六十四卦。每卦由六爻组成，仅以阳爻(—)与阴爻(--)两种符号构建。表面上看，《易经》的上下经卦数分布不均，但若从八卦两两相重的原理出发，实则内含严密结构。在六十四卦中，有二十八对上下颠倒的“覆卦”，如剥卦(䷖)与复卦(䷗)；另有四对阴阳相反的“变卦”，如乾卦(䷀)与坤卦(䷁)。换言之，六十四卦实质仅涉及三十六个卦体。孔颖达指出，《易经》结构可归纳为“两两相耦，非覆即变”¹⁶⁾。这三十六卦体于上下经各占十八个，呈现结构上的对称和平衡，体现“阴阳互补、对立转化”的内在逻辑。

《易经》的意义不止于结构之严整，更在于其哲学深度。三百八十四爻，皆由阴阳符号所构，“穷极变化都是阴与阳的相互运动、转化”¹⁷⁾。正如《系辞传上》言：“刚柔相推，变在其中矣。系辞焉而命之，动在其中矣。”其“六爻”之制，正因“兼三才而两之”，将“天、地、人”三才之理映入其中。所谓“爻者，效天下之动也。是故吉凶生而悔吝著也”¹⁸⁾，使得人们可以借由《易经》观象知变、趋吉避凶的占卜功能。在这套高度象征化的系统中，“覆卦”或“对卦”的特点最能体现《易经》“反中有正、正中藏变”的思维逻辑。下节将选取五组代表性卦相，并与塔罗大阿卡纳中若干对立牌组进行对照，展开跨文化的“过程结构”分析。

13)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178

14) 引自『易经·系辞传下』第二章

15) 韩广岳, 『周易易读』, 上海古籍出版社, 2012, p.9.

16) 孔颖达, 『周易正义』, 『十三经注疏』标点本, 北京大学出版社, 1999, p.334.

17) 히로친, 『说文解字』部首体系之『周易』原理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50.

18) 引自『易经·系辞传下』第三章

2) 《易经》的卦相对位与塔罗的牌义映照

本小节所选取的五对覆卦，虽并非等距排列于《易经》六十四卦的序列中，但在整体结构中各自处于极具转折意义的位置。它们以“天地交否”、“阳气剥复”、“险与明”、“感与守”、“盛与迁”的象征节奏，勾勒出了一条充满动态的卦序路线。这可以看成是《易经》所蕴含的“变化之道”的缩影，也与塔罗大阿卡纳所描绘的“愚者之旅”在结构上形成了某种共鸣。

将这五组覆卦依序展开，可见以下象征节奏：天地通达后(泰-否)，是结构上的瓦解与力量的回返(剥-复)。继而是穿越险途及光明的来临(坎-离)。在生死转换后，进入人与人之间的感应与秩序上的建立(咸-恒)。最终抵达人生经验的高峰及转向点(丰-旅)。在这样具有张力的象征链条中，可以清晰地呈现《易经》与塔罗在面对人类与生命、命运与意义这些主题上的共同回应。以下将依照卦序展开具体分析及探讨。

(1) 泰-否卦：天地之交

《易经》第十一卦“泰”(䷊)与第十二卦“否”(䷋)构成了一组象征意义极为鲜明的覆卦。“泰卦”为“地天泰”，坤上乾下；否卦为“天地否”，乾上坤下，二者仅上下卦位置互换，却呈现了截然不同的宇宙图式。

《彖传》曰：“天地交而万物通也”。在“泰”卦中，阴阳得位、二气交合，象征万物和顺、社会安定；而“否”卦则天地闭塞、阳不能下、阴不能上，“天地不交而万物不通也”，体现出一种“闭塞不通”的秩序崩坏状态。

从象征结构上来看，泰-否卦是《易经》中最具张力结构的一对覆卦。它们并非互为反义那么简单，而是呈现了一种“阴阳流动是否通畅”的宇宙图式。“泰卦”中的乾阳居下、坤阴居上，则在阳气上升、阴气下降之时，能够阴阳相交，动静相合，刚柔有序。而“否卦”中乾阳在上、坤阴在下，阴阳二气渐行渐远，最终陷入失衡与动乱。

“泰”卦的最后一爻“上六”爻辞曰：“城复于隍，勿用师。自邑告命，贞吝。”指城墙即将倾覆。这时不应挑起战乱，不听劝阻则易有闪失。因为天下没有永远的“通泰”，物极必返，而进入“天地闭塞”之象的“否卦”距其仅一步之遥。这样的结构与塔罗大阿卡纳牌中的14号“节制牌”与16号“塔牌”形成了深刻的象征性对话。14号“节制”牌中，一位天使双手持圣杯正在调和河水，同时一脚踏于水一脚立于地，呈现“调合、流动、相交”的平衡状态。Rachel Pollack将圣杯里的水解读为来自冥府的冥河之水¹⁹⁾，象征内外、动静之调和，正如“泰卦”中“天地交泰”的意象遥相呼应。

而16号“塔牌”图中，一座高塔塔顶被雷电击中，两人面露惊恐自塔上坠落。《圣经·创世纪》中描绘了一个人类共建塔通天，后因上帝介入，使人语言相异而建塔失败的神话故事。这座塔被命名为“巴别塔”，“混乱”之意。“16号‘塔牌’是否正暗示了那座因人类语言不通而毁于无形的巴别塔呢？”这张牌的意象也在于表达“在剧烈动乱时期，长期稳固局面的崩毁”²⁰⁾。正如“否卦”上九爻辞曰：“倾否，先否后喜。”即使极度闭塞、动荡压抑之时，仍然暗藏着转机。最终，阴阳隔离的局面终将迎来再度交合，而“否极泰来”。这一思想与16号“塔牌”象征意旨不谋而合。因为事物的发展永远处于变化之中。“塔牌”虽象征毁灭，但其意不在“终结”，而在提醒我们：当结构塌陷之时，真正的觉醒与重建也随之而来。

19)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142.

20) Richel Pollack, 孙梅君译, 『78度的智慧』, 商周出版社, 2010, p.157.

(2) 剥-复卦：极衰与返生

上文指出“泰-否卦”揭示了通与闭之间的动态张力，而“剥-复卦”则进一步体现了结构走向极限后的转机机制。它们位于《易经》第23与第24卦，构成典型的覆卦对，象征阴盛阳衰之后的转生契机。“剥卦”(䷖)为“山地剥”，艮上坤下；“复卦”(䷗)为“地雷复”，坤下震上。二者在卦象结构上互为颠倒，一静一动，代表由“阴剥阳”到“阳初生”的过程。“剥卦”中五阴一阳，阳爻居上，阳气几近被吞没，为“阴剥阳之象”²¹⁾；“复卦”则阳爻处于最低位，为“一元复始、万象更新之象”²²⁾。此处象征的，是一个结构在衰极之时潜伏的新生能量。

从生命经验来看，这对卦如同“生命力的耗竭”与“生命力的回归”。《彖传·复》曰：“复，亨。出入无疾，朋来无咎。”“复卦”位于初位的阳爻正是这种元阳之气复回的象征。类似的象征节奏在塔罗牌12号“吊人”与21号“世界牌”之间也可以找到。

“吊人”与“世界牌”不仅在编号上呈现“12”与“21”的相对，在图像中也展现出结构上的呼应：“吊人”为一名男子倒挂于T形树架，一腿直立，一腿后曲；21号的舞者也保持着单腿直立、另一腿后曲的姿态。同时，舞者双手持魔杖展开，吊人则双手藏于身后。这种“相反”很显然不是一种巧合，而是有意旨的设计。

T形树被解读为“象征生命的符号”²³⁾。吊人虽然被倒挂于树上无法动弹，呈现出的是一种“静”与“止”。但是他的姿态却是轻盈且自如的，就好似21号牌中的舞者，又是一种“动”与“生”。这种因被阴所抑的暂时停滞掩盖不住其内在动能的萌发，极似“剥卦”中阳刚受限、被迫隐伏的生命情境。

而21号“世界牌”作为塔罗结构终点，却也象征另一个新轮回的起点。舞者在绿色圆环中起舞，象征灵魂圆满后的回归与统一，最终所抵达的“宇宙之道”。正如《易经》中从“剥”到“复”的极衰转生，阳来复始，也是最黑暗处悄然绽出的正元之气。

(3) 坎-离卦：险途与光明

在剥-复卦所展现的“极衰后返生”中，我们已经看到了动能在看似停滞的生命过程中萌动初生。而在其之后的二十九卦与三十卦，作为上经的终篇，也呈现了一对极具代表性的对卦——坎(䷜)与离(䷝)。“坎卦”卦相为“水在水上”，象征身处重重困境之中。“离卦”则为“火在火上”，象征穿越黑暗之后的通达与觉知。“坎”的重水代表险难，“离”的双火则代表光明。两者不仅象征能量状态的极端反差，更是一个“穿越险境，走向通明”的哲学路径。

在塔罗大阿卡纳中，也正好有这样一险一明两张牌与“坎-离”起到了结构与哲学思考上的呼应。13号“死神”与19号“太阳”。在13号“死神”牌中，一位黑衣骷髅骑士骑着白马行进，他的面前有跪着的孩童和祈祷的僧侣，地上还有横倒的尸体。但死神自然无法代表生命旅程的终点，因为在牌面的最后方，还有缓缓升起的太阳，代表了希望与新生。这个太阳象征的就是通透后的觉醒、真理与重启。

当旅程来到了19号“太阳”，其象征意义就如同踏入了由两个火构成的“离卦”。大阿卡纳的19号牌上画着高悬的太阳，辉煌灿烂。太阳面前是一个赤裸身体的孩童骑在一匹白马上。这是对那张“死神”牌的呼应。与骷髅骑士此形成鲜明对比的是，象征着生命力的孩童，此刻张开双臂，带着天真无邪的笑。这种绽放的生命带来的“火”，正与“离卦”之义相合。《彖传》云：“离者、丽也，为日、为火、为光、为明”。当

21) 韩广岳，《周易易读》，上海古籍出版社，2012，p.187.

22) 韩广岳，《周易易读》，上海古籍出版社，2012，p.191.

23) Richel Pollack, 孙梅君译，《78度的智慧》，商周出版社，2010，p.121.

光明之道从内而外绽出，就能成为照耀世界的力量。“离卦”象征的正是人生被照耀的时刻。

然而，这一切的基础皆需要历经在“坎卦”所带来的重重险阻上。《象传》曰：“习坎，重险也。“坎”作为“月之象”，在性质上是属“阴”的，是人生至暗时刻。就如同13号“死神”所象征的死亡与黑暗。但是若能明白“穷则变，变则通，通则久²⁴⁾”的道理，就一定了解黑暗的来临是为了更好地迎接光明。正因坎险极深，阳气得以潜藏其中并最终突破，走向“离”的光明。阴阳之间的相生相克、升降循环，正是《易经》与塔罗共同描绘的核心象征。

(4) 咸-恒卦：感应与秩序

在穿越了生死，人生从险入明后，《易经》进入了下经的开篇——咸卦(䷞)与恒卦(䷟)，标志着人在完成内在觉醒后，进入与他人、与秩序之间的互动。“易”之道就是古人在观察宇宙与自我之间关系的基础发现总结的，因此一切“易道”最终都会回归为与人的关系²⁵⁾。“咸卦”为“兑上艮下”，象征山泽相感。《彖传》曰：“咸，感也。柔上而刚下，二气感应相与。”此卦讲求以柔动刚，以情动人，是阴阳交感、人际关系发生的起点。

在塔罗大阿卡纳中，8号“力量”牌上画着一名温柔的女性在驯服一匹雄狮，以和缓的方式达成对内在本能的掌握。这名女性并不以权力或暴力对狮子施以压制，而是运用情感与信念的感通，用她的双手柔和地在狮子脸上安抚。这是“以阴抑阳、以柔制刚”的典型象征。和“咸卦”所主张的“感而不争”有着一致的内涵。

“恒卦”则转向稳定与道的持守，强调在感应后建立持久之道。《彖传》曰：“恒，久也。刚上而柔下，雷风相与，巽而动”。在“感应”后，“恒”强调的是关系的稳定、秩序的建立与可持续的道德规范。在塔罗大阿卡纳中，5号“教皇”就代表了一种规范、教义、制度、道德结构。图象中，一位头戴三重冠冕的男性端坐于圣座，面前各有左右两个教士跪拜。这位身位教皇的男性代表了精神世界的权威，象征的是知识和伦理的传承。这张牌强调人必须在某种秩序中定位自己，并建立行动与信念的准则。这一精神意象与“恒”卦所强调的“久而有序”在哲学上达到了一致。同时，5号“教皇”与8号“力量”以一男一女的相反性别同“咸-恒”卦意旨的“柔与感”、“刚与恒”产生了象征性上的共鸣。

(5) 丰-旅卦：盛境与迁徙

咸(䷞)-恒(䷟)卦作为正经的开篇提示了人与秩序之间的稳定关系。而人生也在这里开始重新踏上新的一程。位于《易经》第五十五与五十六卦的“丰-旅”卦正位于此结构之中，象征着盛极之后的转向，内在整合之后的再次出发。在塔罗体系中，也能够找到这样一组对应，代表着人生在新的层面上迎来的转换与流动——3号“皇后”与9号“隐士”。

“丰卦”为“雷火丰”，充盈盛大，光明之极；“旅卦”则为“火山旅”，脱离归属，独自远行。意味着人在外在成就之后，总是需要重拾再次出发的勇气。这对卦象提示出盛极之中蕴含不安定的因素，而真正的智慧往往生于不断前行之中——旅是未止之道，是重新出发的契机。

塔罗的3号“皇后”画着一个女皇，坐于富饶大地之中，周围硕果累累。这张牌是愚者在自然与社会层面完成的“成果”阶段，也是大阿卡纳中“富饶”与“丰盈”的象征。其所处的序列“3”，不仅在塔罗数理体系中

24) 引自『易经·系辞传下』

25) 허로진, 「『说文解字』部首体系之『周易』原理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47

代表着“完成与丰收”，也与东方思想中的“三生万物”哲学观念相当契合。3号牌以女性形象表述正是因为女性也是孕育生命的代表。《道德经》有云：“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万物”。3号皇后的前两张正是极具“阴阳”象征意义的魔法师与女祭司。这更加凸显了3号皇后在这里的意涵——有天地而后万物生。因此，皇后牌代表的正是这种“创造与滋养”，无一不与“丰卦”的象征意义达成一致。

但当光明达到定点，也意味着衰退即将来临。“旅卦”为“离上艮下”，是“漂泊于野之象”²⁶⁾。《卦辞》曰：“小亨，旅贞吉”。说的就是我们在获得一个阶段的成功之后，往往容易流连在这种状态里不愿重新上路。但只有在离开熟悉的地方、脱离常规之境后，人才更容易面对真实的自己。不断整装待发，迎向更高的挑战。塔罗牌在9号“隐士”牌中，也传达了这样一种“盛境之后的自我召唤”。图像中，一位老者手持灯盏，独自站在雪山之巅。灯光微弱，但能感受到他的坚定。老者在这里象征的不仅是知识和智慧，更是对内在真理的不懈追寻，就像“旅卦”勾勒出的一个总是在路上的旅人。

尤其值得一说的是，9号“隐士”正是愚者之旅由外在世界转向内在探寻的重要节点，是以10号“命运之轮”作为中轴后，愚者人生第一阶段的最后一张牌。这一安排在大阿卡纳牌中具有分水岭的意义——第一段旅程已经走到尽头，但人生依旧未尽，灵魂之路仍需前行。也正因此，“隐士”与“旅”遥相呼应：一个结束的节点，亦是一段新旅程的开始。

这一结构象征不仅回应了“丰-旅”卦所展现的盛极而动、转境而行的精神节奏，也为愚者之旅的整体结构在哲学层面做了收束与回环。旅不在终，而在于不断地重新开始。终点也是起点——这正是塔罗与《易经》共同揭示的宇宙之道。

4. 结论

在人类文明尚未建立科学体系之初，占卜便已作为人类与世界之间建立意义联系的一种方式而存在。它源于对宇宙运行法则的认知，是在面对未知与不安中，用象征体系建立秩序、追问方向的文化实践。从龟卜、蓍草到塔罗、星盘，占卜不只是技术性的行为，更是人类赋予世界意义、建构自我存在方式的精神投影。

《易经》与塔罗作为东西方最具代表性的象征系统，各自发展出了完整且带有深刻意涵的象征与结构体系。《易经》以阴阳符号作六爻，形成两两相对的六十四卦，构成了象征宇宙与人事变化的模型系统。这种上下颠倒、正反互成的深层结构，不仅是对对立统一规律的深度把握，也与塔罗大阿卡纳中牌与牌相反相成象征关系形成了呼应。

塔罗中的二十二张大阿卡纳牌则通过“愚者之旅”的结构，呈现出人类成长与意识觉醒的过程性旅程。本研究将命运之轮作为结构中轴，将愚者的人生旅程分为前后两大阶段。并阐述了其在结构框架下与《易经》六十四卦所体现的哲学思想上的契合统一。而大阿卡纳中的许多意旨相对的牌，也恰好能与《易经》的一些覆卦或对卦找到哲学上的共鸣。

当我们将东西方这两个不同的占卜体系放在结构与宇宙观的层面上进行比较时，不难发现：无论是塔罗的图像结构还是《易经》的卦象逻辑，都在以各自的文化语言传达着相似的宇宙观与人生观——世界是一个充满张力与变化的整体。而个体则在其中将不断经历生成、转化、失衡与重构的过程。而在这个过程中，“对立中的统一”、“动中求稳”、“终中见始”成为贯穿东西方占卜体系的精神主轴。《易经》与塔罗虽

26) 韩广岳,『周易易读』,上海古籍出版社,2012, p.307

然生于不同的文明，但它们皆以象征的方式构筑出了“人如何在无常中理解自我与世界”的桥梁。二者不仅是各自文化的智慧结晶，更是在全球化语境下为人类提供重新审视命运、变化与存在之道的共通的符号系统。

在这场跨文化的象征之旅中，本文想要探究的并不是两种占卜工具的异同，而是人类在面对生命本质时所表现出的结构性思维、象征表达与精神渴望的惊人一致。这也许正是人类不同文明之间最深的共鸣与意义所在。

【중국어학분과 II】 발표

문법구문과 수사구문 상호 관계의 인지, 기능적 해석 — ‘X是一種Y’을 중심으로

신 근 영**

【목 차】

1. 문법구문과 수사구문
2. 중화권 구문 연구 성과와 동향
3. ‘非常/很+N’의 수사 구문
4. ‘X是一種Y’의 수사 구문
5. 문법 구문과 수사 구문의 상호 관계 연속성

【 초 록 】

주지하다시피, 의사소통 가운데 통사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듯한 표현들이 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문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劉大爲(2010:10)는 이러한 구문을 전형적인 구문에서 파생된 수사 구문으로 보았으며 전형적인 구문은 문법 구문이라고 칭하였다. 의사소통 가운데 특정 언어 상황에 따라 전형적인 문법 구문은 비전형적인 수사 구문으로 파생된다. 그로 인해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수사적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한동안 인터넷에 자주 출현했던 구문인 “哥吃的不是面, 是寂寞”, “哥炒的不是股票, 是寂寞”, “我們買的不是保險, 是安心” 등이 있다. 선택 관계 구문인 ‘不是X,是Y’에서 ‘X’와 ‘Y’는 전형적으로 같은 의미 범주의 단어들이며, 앞에 출현한 ‘吃的’, ‘炒的’, ‘買的’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위치해야 한다. 하지만 위 예문들에 사용된 ‘X’와 ‘Y’는 다른 의미 범주에 속해 선택 관계 구문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Y’에 위치한 단어들은 모두 ‘吃的’, ‘炒的’, ‘買的’와 어울리지 않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수사적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이를 수사 구문이라고 한다. 수사 구문에는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생산된 몇 구문이 반복 사용되어 유행어로 남는 구문이다. 다른 하나는 언중들에게 장기간 고빈도로 사용되어 생산성이 높은 구문이다. 이는 기존의 전형적인 문법 구문에서 수사 구문으로 파생되는 과정에서 이분화된다. 이 두 수사 구문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는 [±지속] [±빈도] [±생산성] 등의 대립적 자질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非常+N’ 구문을 중심으로 두 유형 중에 어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49531)

** 저자.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강사 (tlrmsdud85@naver.com)

유형에 속하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문법 구문, 수사 구문, 개념적 은유, 주관화, 문법화

1. 문법구문과 수사구문

의사소통 가운데 통사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듯한 표현들이 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문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劉大爲(2010:10)는 이러한 구문을 전형적인 구문에서 파생된 수사 구문이라 칭했으며, 전형적인 구문은 문법 구문이라 하였다. 그는 수사적 관점으로 특정 언어 환경에서 전형적인 문법 구문이 비전형적인 수사 구문으로 파생된다고 보았다. 수사 구문은 창의적이지만 수용성이 낮으며 예측 불가능성이란 특징을 갖는다. 그로 인해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수사적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구문으로 “哥吃的不是面,是寂寞”¹⁾이 있다. 선택 관계 구문인 ‘不是X,是Y’에서 ‘X’와 ‘Y’는 전형적으로 같은 의미 범주의 단어들이며, 앞에 출현한 ‘吃的’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위치해야 한다. 하지만 위 예문에 사용된 ‘X’와 ‘Y’는 다른 의미 범주에 속해 선택 관계 구문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寂寞’는 ‘吃的’와 어울리지 않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수사적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이를 수사 구문이라고 한다.

문법 구문과 수사 구문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연속체로써 서로 분명한 상호 보완적인 또는 공생 관계를 가진다. 비전형적인 수사 구문은 전형적인 문법 구문에서 파생되어 생성된 것이다. 수사 구문에는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생산된 몇 구문이 반복 사용되어 유행어로 남는 구문이다. 다른 하나는 언중들에게 장기간 고빈도로 사용되어 생산성이 높은 구문이다. 이는 기존의 전형적인 문법 구문에서 수사 구문으로 파생되는 과정에서 이분화된다. 이 두 수사 구문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는 [±지속] [±빈도] [±생산성] 등의 대립적 자질로 보고 있다. ²⁾

2. 중화권 구문 연구 성과와 동향

구문문법 이론은 1990년대 말 중국에 도입된 이후 중국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구문문법은 새로운 이론으로서 고립어인 중국어 구문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이라 여겼다(張柏江 1999, 沈家煊 2000, 陸儉明 2004 등). 이는 중국어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연구의 내포와 외연을 넓혔다. 吳俠(2019)에 따르면 中國知網(CNKI)에 등재된 ‘核心期刊’³⁾을 범위로 ‘構式’을 관련어로 검색하면, 중국어학 분야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 160편에 달한다.⁴⁾ 특히 2008년을 기

2) 자료는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百度(<https://www.baidu.com/>)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준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구문 연구의 시각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도입된 구문문법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어와 영어를 대조하는 연구가 많았다(陸儉明 2004, 張建理 2006 등). 또한 ‘把’자문과 ‘連’자문 등과 같은 중국어 특정 구문에 구체적으로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張柏江 2000, 劉丹青 2005 등). 이뿐만 아니라 인지, 심리적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탐구하였다(張翼 2011, 王寅 2011, 施春宏 2012, 冯奇·吴海波 2015 등).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중국의 몇몇 학자를 중심으로 구문 이론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하였다(劉大為 2010, 陸儉明 2016). 劉大為(2010)는 기존 구문 연구에서 다루던 전형적인 구문의 의미 범주에서 벗어나, 실제 언어생활 가운데 광범위하게 다량으로 사용되는 비전형적인 구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문은 전형적인 구문에서 파생되어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창조된 구문으로 수사 구문이라 하였다. 수사 구문이 파생된 원래의 전형적인 구문을 문법 구문이라 하였으며, 이는 수사학과 문법학의 융합으로 ‘사용’ 중인 언어의 규칙을 객관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탐구는 향후 중국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켜 수많은 후속 연구를 남겼다(霍四通 2013, 吳春相 2015, 陸儉明 2016 등). 이러한 성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국의 구문 연구 동향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실에 입각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응용할 뿐 아니라 인접 학문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

3. ‘非常/很+N’의 수사 구문

우선, 단기간 고빈도로 사용된 수사 구문의 예로 ‘非常+N’이 있다. ‘非常’은 정도 부사로 통사적으로 뒤에는 형용사가 이어진다. 하지만 ‘非常+N’으로 ‘非常’ 정도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현상이 특정 언어 환경에서 종종 발견된다.

- (1) 混混!哈哈!非常内涵!内涵!
- (2) 非常时期!
- (3) 我妹妹现在大学还没毕业,非常青春!
- (4) 感觉像“永和”牛肉面很中国,
- (5) 它的设计很中国,
- (6) 它叫“福临门酒店”, 名字很中国。

통사적으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非常’ 정도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非常+N’ 구문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유행어로 사용되며, 이러한 표현들은 화자가 특정 현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수사적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된다.

4. ‘X是一種Y’의 수사 구문

이와 반대로 장기간 고빈도로 사용되어 생산성이 높은 수사 구문의 예로 ‘X是一種Y’ 구문이 있다. 언중들에게 장기간 고빈도로 사용되어 생산성이 높은 구문으로 ‘X是一種Y’가 있다. ‘X是一種Y’ 구

문에서 ‘X’와 ‘Y’의 전형적인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한 의미 범주에서 ‘X’가 ‘Y’에 종속되는 상하 의미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蘋果是一種水果(사과는 과일의 일종이다)”가 있다. 하지만 실제 언어 자료를 살펴보면 ‘X’가 ‘Y’에 종속되지 않거나 한 의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출현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7) 习惯是一种力量⁵⁾(습관은 일종의 힘이다.)

(8) 愛是一種承諾(사랑은 약속의 일종이다.)

(9) 秒贊⁶⁾是一種美德, 回贊是一種道德(신속한 좋아요는 미덕의 일종이고, 돌려주는 좋아요는 도덕의 일종이다.)

이러한 구문들은 온라인 언어 환경에서 수많은 표현으로 창조되어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 이는 향후 그 용법이 일반화(관습화)되어 언어 체계 안에서 안정화되어 새로운 문법 구문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수사구문에는 임박태 구문 ‘要X了’도 있다. 임박태 구문은 동작의 발생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要X了’에서 ‘X’는 전형적으로 동사가 위치한다. 하지만 특정 언어 환경에서 명사 또는 형용사, 의미상 임박태 구문과 적합하지 않는 동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10) 要悲劇了⁷⁾

(11) 要涼了

(12) 要掛了

(13) 要死了

예(10)은 ‘X’ 자리에 명사인 ‘悲劇’를 사용하여 “要悲劇了(불행을 당할 것 같다)”와 형용사가 위치한 예(11) “要涼了(잘 안될 것 같다)”등의 표현이 이에 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임박태 구문에 의미상 적합하지 않는 동사와 결합된 예(12) “要掛了(죽을 거 같아)”, 예(13) “要死了(죽을 거 같아)” 등이 있다. 전형적인 임박태 구문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표현들은 화자 자신의 상태가 힘들다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수사적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한다.⁸⁾

5. 문법 구문과 수사 구문의 상호 관계 연속성

劉大為(2010)와 陸儉明(2016)을 중심으로 구문을 문법 구문과 수사 구문으로 나누어서 개별적 현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구문을 단지 이분화하는 연구에 그치고 이 두 구문 간의 상호 관계 및 변화의 기제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법 구문과 수사 구문의 상호 관계에 대한 탐구와 더 나아가 구문이 변화되는 기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문의 상호 관계에 대해 단계별로 나누어 해석하고자 한다. 문법 구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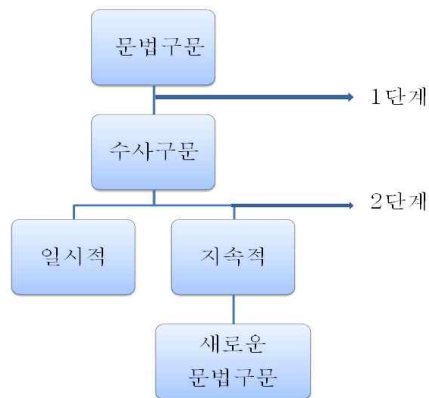
5) 자료는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百度(<https://www.baidu.com/>)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6) 微信(WeChat) 모멘트에 올린 내용에 ‘좋아요’를 신속히 누르는 행동.

7) 이어지는 자료들은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百度(<https://www.baidu.com/>)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8) ‘要X了’ 구문에서 파생된 여러 비전형적인 수사 구문의 의미를 언어 사실을 통해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대다수로 발견된다.

서 수사 구문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문법 구문으로의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단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 문법 구문에서 수사 구문 다시 새로운 문법 구문

우선 1단계는 문법 구문에서 수사 구문으로 파생되는 과정이다. 전형적인 의미 범주에 속한 문법 구문은 주관화와 개념적 은유의 기제로 수사 구문으로 파생된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파생된 수사 구문이 두 유형으로 분리된다. 파생된 수사 구문의 사용 빈도와 기간, 생산성에 따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사 구문과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수사 구문으로 나뉜다. 이 두 수사 구문의 의미 범주는 본래 전형적인 문법 구문의 구체적인 의미 범주에서 점차 추상화되는 문법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 두 단계의 기제에 대해서 주관화와 개념적 은유, 문법화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 구문의 수사적 현상 규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문법 구문과 수사 구문 간의 상호 관계와 그 기제의 규칙도 해석하도록 하겠다.

【중국어교육분과】 발표

신HSK 교육용 한자와 토픽 교육용 한자 관련성 기초 연구

独海峰*

【목 차】

1. 들어가기
2. 선정과정
3. 설문조사
4. 설문조사 결과
5. 교육용 한자 선정

【 초 록 】

이 논문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행 양국교육용 한자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기초 연구이다. 줄고는 신HSK 교육용 한자와 토픽 교육용 한자어 속의 한자를 추출, 대조함으로써 제2 외국어로서 한중 양국 언어 학습에서 현행 언어 환경에 적합한 한자 목록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 이후 나라별 중국어교육 연구 추세가 드러나면서 한자권 내의 한자 통용화 연구들이 대두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황정희(2000), 전향란(2014)를 비롯해 한국 “기초 한자 1800자”와 “HSK 교육 한자” 사이의 연관성 중심으로 전개해 왔다. 한국 측에서 오성애(2008)를 대표로 한자어에 나타난 한자를 교육 활성화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어느 쪽이든 한자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가 회피할 수는 없다. 첫째, “기초 한자 1800자” 속에 중국 측에서 상용한자이지만 한국 측에서는 한문 교육용 한자에만 포함되어 있는 한자가 있다. 둘째, 한국 측에 토픽어휘집 안에 출현한 한자는 약자와 번체자 공존의 상황이고 중국 측에서는 HSK 교육은 간체자 중심이지만 본 국민 대상으로 한 문언 교육은 번체자를 완전히 회피하지는 않았다. 셋째, 2009년 신HSK가 등장했고 시험난이도도 상 크게 변화가 생겼으며 2021년 중국 교육부에서 <국제중문교육중문수평등급표준>을 새로 반포했다. <표준>에 따르면 HSK 교육 한자는 ‘이해 한자’와 ‘표현 한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상 배경으로 한중 교육용 한자 간의 연관성을 재검토하고 특히 현행 교육용 한자의 차원에서 한중 간체자와 번체자 간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한자 목록, 토픽, 간체자, 번체자, 한국인, 중문수평등급표준

* 제1저자. 고려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강사 (hkjy2002@daum.net)

1. 들어가기

이 논문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행 양국교육용 한자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기초 연구이다. 줄고는 신HSK 교육용 한자와 토픽 교육용 한자어 속의 한자를 추출, 대조함으로써 제2 외국어로서 한중 양국 언어 학습에서 현행 언어 환경에 적합한 한자 목록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 이후 나라별 중국어교육 연구 추세가 드러나면서 한자권 내의 한자 통용화 연구들이 대두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황정희(2000), 전향관(2014)를 비롯해 한국 “기초 한자 1800자”와 “HSK 교육 한자” 사이의 연관성 중심으로 전개해 왔다. 한국 측에서 오성애(2008)를 대표로 한자어에 나타난 한자를 교육 활성화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어느 쪽이든 한자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가 회피할 수는 없다. 첫째, “기초 한자 1800자” 속에 중국 측에서 상용한자이지만 한국 측에서는 한문 교육용 한자에만 포함되어 있는 한자가 있다. 둘째, 한국 측에 토픽 어휘집 안에 출현한 한자는 약자와 번체자 공존의 상황이고 중국 측에서는 HSK 교육은 간체자 중심이지만 본 국민 대상으로 한 문언 교육은 번체자를 완전히 회피하지는 않았다. 셋째, 2009년 신HSK가 등장했고 시험난이도 상 크게 변화가 생겼으며 2021년 중국 교육부에서 <국제중문교육중문수평등급표준>¹⁾을 새로 발표했다. <표준>에 따르면 HSK 교육 한자는 ‘이해 한자’와 ‘표현 한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상 배경으로 한중 교육용 한자 간의 연관성을 재검토하고 특히 현행 교육용 한자의 차원에서 한중 간체자와 번체자 간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래는 본 연구에서 한자 선정 방향을 소개한 것이다.

(지면 문제로 중심 내용만 정리함)



2. 선정과정

<표1> 한자 선정 과정

① 객관 조사를 통해서 토픽 어휘 목록 (초급) 중의 한자 추출
② EXCEL, Gephi를 이용해서 빈도조사 및 도시화 대상: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어휘(초급) 출처: 국립국어연구원
③ 경험적으로 1차 목록 선정
④ 설문조사를 통해서 목록 검증:이해 가능한 한자, 표현 가능한 한자 목록, 중국 상용한자 500자 참조 ²⁾
⑤ 최종 한자 목록 선정

1) 중국교육부(2021),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登记标准』,

2) <https://zidian.900cha.com/changyongzi.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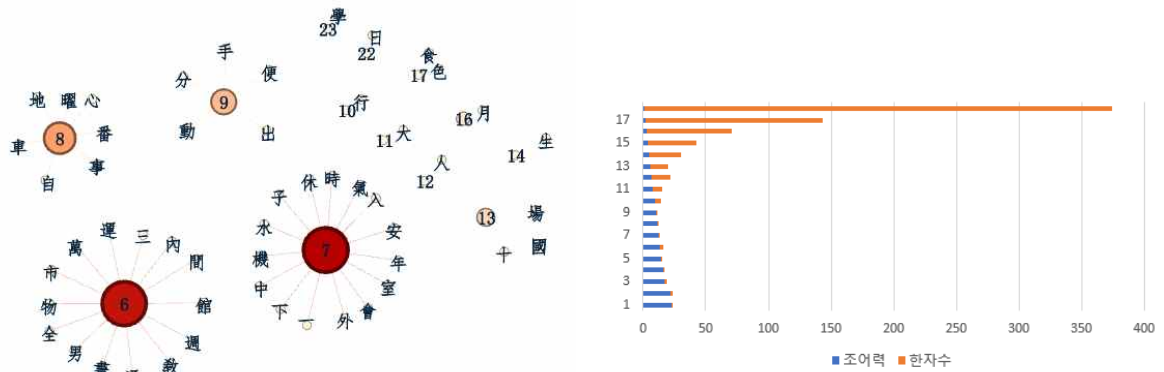
3.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목적: 중국인 번째자 장악한 상황이 어떨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번째자로 설문지를 만들어 점검하려고 한다.

설문 대상: 중국 대학교 학부생 (중국어 학과 학생 제외)

설문 범위: 토픽 초급 한자어 중의 한자 (제출 양식은 단자‘单字’, 혹은 한자어 형식)

<그림1> 토픽 초급 한자 조어력 추세도 (일부)



4. 설문조사 결과

그림2 응답자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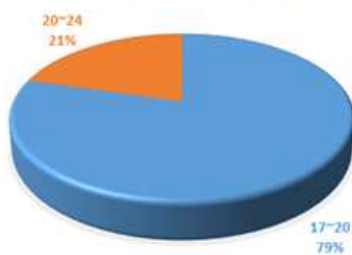


그림3 응답자 연령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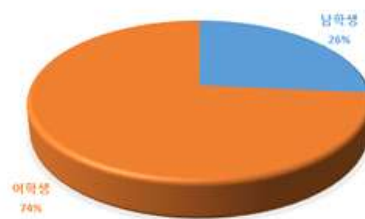


그림4 응답자 출생지 분포



그림5 번째자 접하는 시기



그림6 무엇을 통해 번째자를 알게 되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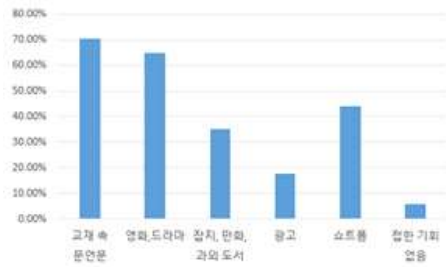


그림7 교재 문헌문 원문 번째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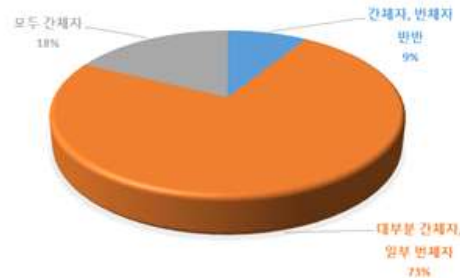


그림8 번째자 응용 능력



그림9 “結婚、國人、學員、每日、惠恩、運動場、氣溫、時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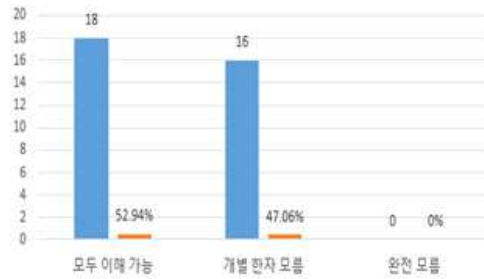


그림10 한자 “通、道、退、訪、話”의 의미 파악 상황



그림11 한자 “絶、號、間、費、冊、風”의 의미 파악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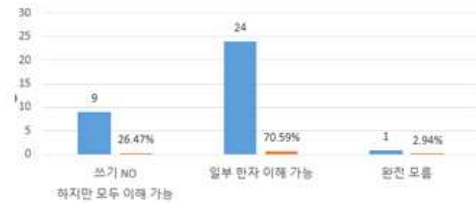


그림12 한자어 “單語、看護士、汽車票”의 의미 파악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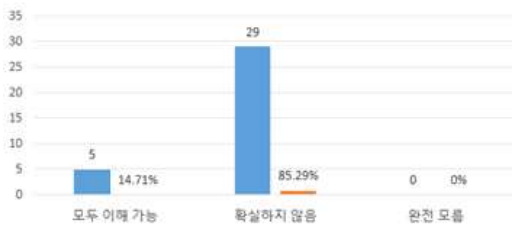


그림13 “機會、教師、業、漸漸、轉、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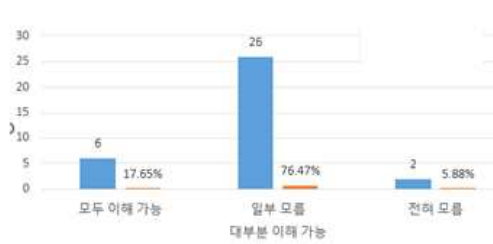


그림14 “薔薇、職員、豫約、關係、適當、試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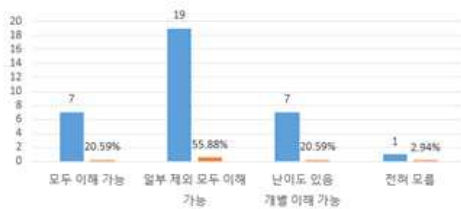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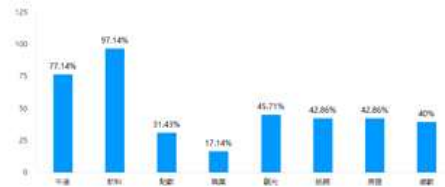


그림15 午後 飲料 點數 職業 觀光 紙類 房證 歲數



문항 16부터 문항 21까지는 다답형 문제로 한자, 한자어의 이해도를 고찰한 것이다.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그림 16처럼 의미 이해도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배열한다. 먼저 90% 이상의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자·한자어를 보기와 같이 정리 한다.

표 현 한 자	歌 ¹	康 ²	介 ¹	客 ²	距 ³	健 ²	巾 ³	缺 ³	境 ³	景 ³
	警 ³	季 ³	告 ¹	古 ²	故 ²	姑 ³	苦 ³	困 ²	功 ³	校 ²
	球 ¹	禁 ³	汽 ¹	寄 ²	男 ¹	女 ¹	努 ²	答 ¹	待 ³	豆 ³
	旅 ²	留 ²	未 ³	母 ³	木 ¹	味 ²	密 ³	博 ³	拍 ³	班 ²
	倍 ³	配 ³	病 ¹	普 ²	服 ¹	福 ³	夫 ²	父 ²	富 ³	秘 ³
	士 ³	舍 ³	夕 ³	席 ³	姓 ²	洗 ¹	授 ³	宿 ³	食 ²	申 ³
	神 ³	室 ²	失 ³	央 ³	言 ²	演 ³	映 ³	泳 ³	英 ³	午 ¹
	牛 ¹	危 ³	留 ²	宜 ²	椅 ²	移 ³	字 ¹	材 ³	典 ²	田 ²
	店 ¹	停 ²	弟 ²	足 ²	酒 ¹	止 ²	茶 ¹	菜 ¹	初 ³	招 ³
	秋 ²	祝 ³	充 ³	趣 ³	致 ³	糖 ³	痛 ²	板 ²	票 ¹	航 ³
	幸 ³	兄 ²	湖 ²	婚 ³	休 ¹	希 ³				
	家 ¹	各 ²	看 ¹	感 ²	江 ²	强 ³	性 ²	建 ³	格 ³	界 ³
	高 ¹	工 ¹	公 ²	空 ²	果 ¹	光 ³	交 ²	口 ¹	具 ³	局 ³
	今 ¹	金 ³	期 ¹	己 ²	器 ³	技 ³	年 ¹	老 ¹	能 ¹	多 ¹
	段 ²	大 ¹	度 ²	同 ¹	等 ¹	列 ¹	例 ²	路 ¹	料 ³	流 ²
	利 ²	理 ²	每 ¹	名 ¹	明 ¹	目 ²	文 ¹	物 ²	美 ²	民 ²
	半 ¹	反 ²	方 ¹	百 ¹	法 ²	北 ¹	不 ¹	查 ²	社 ²	山 ¹
	算 ²	三 ¹	上 ¹	想 ¹	商 ²	色 ²	生 ¹	西 ¹	先 ¹	成 ²
	性 ³	世 ³	小 ¹	少 ¹	所 ¹	消 ³	手 ¹	水 ¹	市 ²	始 ³
	新 ¹	身 ¹	信 ²	心 ²	十 ¹	安 ²	年 ¹	然 ¹	五 ¹	完 ¹
	王 ²	外 ¹	要 ¹	料 ³	用 ¹	容 ³	元 ²	月 ¹	有 ¹	由 ²
	六 ¹	育 ²	音 ²	意 ¹	二 ¹	人 ¹	引 ³	一 ¹	日 ¹	入 ²
	子 ¹	自 ²	作 ¹	在 ¹	的 ¹	前 ¹	全 ²	切 ³	接 ²	正 ¹
	定 ²	整 ³	程 ³	第 ¹	族 ³	住 ¹	主 ²	周 ²	中 ¹	重 ²
	地 ¹	指 ³	次 ¹	千 ²	出 ¹	就 ¹	取 ²	治 ³	七 ¹	太 ¹
	特 ²	八 ¹	平 ²	包 ¹	表 ²	品 ³	必 ²	下 ¹	海 ²	行 ¹
	向 ¹	彤 ³	火 ¹	花 ¹	化 ²	活 ²	回 ¹			

6. 결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보완할 예정이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 확장. 중국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도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정조사 표본 수도 확장할 예정이다.

둘째, 기타 통용 한자 모형과 더 비교해서 중국과 한국 실제 언어 사용 환경을 반영하고자 한다.

셋째, 설문조사의 문항 형식을 더 다양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한자 표현 방식, 어휘 선정에도 개선할 공간이 남아있다.

【중국어교육분과】 발표

‘(是).....的’의 의미 항목과 교육 방안 모색

진 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3. ‘(是).....的’의 구분 분류와 통사적 제약
4. 결론

【 초 록 】

본 논문의 목적은 교육적 관점에서 중국어의 ‘(是).....的’ 구문을 단순한 강조의 의미가 아닌 초점과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중국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어의 ‘(是).....的’ 구문이 교재나 문법서에서 ‘강조’ 기능으로만 제한적으로 설명되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초점(focus),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라는 의미 범주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是).....的₁’은 과거 동작의 특정 성분(시간, 장소, 방식 등)에 초점을 부여하며, 형용사나 조동사와 공기하지 않고 부정사는 ‘是’ 앞에 위치하는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반면, ‘(是).....的₂’는 화자의 주관적 확신과 판단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이며, 형용사 및 양태 동사와의 결합이 가능하고 부정사는 ‘是’ 뒤에 온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 문법 설명의 모호함을 보완하며, 학습자가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서 해당 구문의 기능과 제약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 연구 및 교육 표준안 분석을 통해 ‘(是).....的’ 구문에 대한 기존 설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문법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어 문법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是).....的 구문, 초점, 인식 양태, 기실현(已然), 중국어 문법 교육, 통사적 제약

* 제1저자. 영남대학교 글로벌통번역학부 (jinhyunkr@ynu.ac.kr)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교육적 관점에서 중국어의 ‘(是)……的’ 구문을 단순한 강조의 의미가 아닌 초점과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중국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국어 학습에서 ‘(是)……的’ 구문은 매우 자주 등장하는 문법 구조로서 한국의 대부분 중국어 교재에서도 필수 문법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문의 의미를 ‘강조’로만 국한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습자에게 ‘(是)……的’가 실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 他是昨天来的。(吕必松, 1982)

(2) 他昨天来了。(吕必松, 1982)

(3) 他的手艺是很高明的。『现代汉语八百词』

예문(1)은 기존 중국어 문법서에서 주로 ‘昨天’이라는 특정한 시간 성분을 강조하는 구문으로 설명된다. 만약 ‘강조’ 의미를 나타낸다면 화자가 ‘강조’를 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他是什么时候来的?’라는 질문에 강조 표현이 아닌 객관적 표현인 예문(2) ‘他昨天来了.’라고 하면 비문이 된다. 또한 ‘강조’란 학문적 용어가 아니다.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자만, ‘(是)……的’의 ‘문법 의미’는 ‘초점’ 부여 구문이다. 목적어 등 문말에 오는 초점을 동사 앞에 위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강조란 ‘초점’이 나타내는 결과일 뿐이다.

예문(3)의 ‘是……的’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관적인 판단과 확신 또한 문법적 용어가 아니다. 문법 의미를 도출하자면 이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뒤 ‘是……的’를 초점을 나타내는 ‘(是)……的₁’과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是)……的₂’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是……的’에 대한 의미 구분과 그에 따르는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교재와 표준안에 나타난 ‘(是)……的’ 분석

다수의 한국 내 중국어 교재에서는 ‘(是)……的’ 구문을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도구 등을 강조하는 기능으로만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신개념중국어』, 『신공략 중국어』, 『스마트 중국어』, 『중국어의 신』 등은 모두 ‘(是)……的₁’ 구문을 다루면서 ‘강조’ 의미만 다루었다. 이를 ‘초점’으로 제시한 예는 한 건도 없다. 화자의 주관적 확신을 나타내는 ‘(是)……的₂’를 다루 교재는 한 건도 없었다.

谢福(2008)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되는 교재 ‘汉语教程’(1999년), ‘初级汉语课本’(2003년)과

대만에서 사용되는 교재 ‘實用視聽華語’(2005년)에도 ‘시간, 장소, 방식, 목적, 대상’ 등을 강조하는 ‘是……的’만 소개가 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 교육 표준안 세 가지를 살펴본 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2014: 123), 『新汉语水平考试大纲』(2015: 13),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大学成人段)』(2024: 15, 29, 47) 모두 ‘(是)……的’ 구문을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 외현적 요소를 강조하는 항목으로 제시하며, 화자의 태도나 견해와 같은 인식 양태적 기능은 포함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2021)만이 3급 항목에서 화자의 견해와 태도를 나타내는 용법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是)……的’를 초점과 인식 양태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是)……的’ 분류 분석

赵元任(1968)은 ‘是……的’ 구문의 초기 분석을, 朱德熙(1978)는 이를 판단, 강조, 어기(语气)로 구분하였다. 吕必松(1982)은 구문을 과거 사건의 초점 강조와 화자의 주관적 확신 표현으로 나누었다. 田泉(1996)은 부정사의 위치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정 위치에 따라 초점 부정과 인식 부정을 구분하였다. 刘月华(2001)는 초점 기능과 어기 표현으로 기능을 나누었으며, 齐沪扬(2002)은 ‘的’가 높은 확신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로 기능한다고 분석하였다.

袁毓林(2003)은 문말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에 초점을 이동시키는 표지로 보았다. 王文颖(2018)은 초점의 범위를 좁은 초점과 넓은 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전기정(2014)은 판단, 강조, 확신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鄧守信(2021)은 이 구문이 시간, 장소, 방식 등 다양한 성분에 초점을 명확히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是)……的’ 구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기능적 특징을 밝혀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한계를 보인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학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정교하나 아직 국제중국어 교육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되기 어렵다. 특히 ‘是’와 ‘的’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식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둘째, ‘강조’나 ‘긍정적 확신’, ‘평가’ 등의 표현은 문법적 용어가 아닌 일반 언어 표현이므로, 문법 교육에서는 문법 의미를 추출한 뒤, 문법적 용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是……的’ 구문 구문이 지닌 인식 양태적 기능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다.

넷째, 의미적 분류에 통사적 제약 조건이 결합되지 않아 분석의 자의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점과 인식 양태로 ‘(是)……的’를 분류한 뒤 이에 따르는 통사적 제약을 밝히려고 한다.

3) 인식 양태의 개념과 유형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는 화자가 명제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문법적 범주로, 주로 명제의 사실성이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믿음을 나타낸다. Lyons(1977)는 이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로 보았고, Coates(1983)는 명제가 참일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나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Palmer(2001)은 양태를 인식양태와 사건양태로 나누고, 인식양태를 가능성(possibility), 개연성(probability), 확실성(certainty)으로 세분화하였다.

Bybee et al.(1994)는 인식 양태를 가능성, 개연성, 추론된 확실성으로 분류했으며, 彭利贞(2005)은 중국어 양태동사를 의미별로 확실성(一定), 개연성(应该), 가능성(可能)으로 나누었다. 박재연(2006), 박진호(2011), 송재목(2009) 등도 이와 유사하게 인식양태를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 범주로 정의하며, 세분화 기준으로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손혜옥(2016)과 임동훈(2008) 등이 논의했으며, 인식 양태는 화자의 심리적 믿음이나 추론을 나타내는 장치로 이해된다. 종합하면, 인식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강도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며,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인식 양태는 화자가 명제의 사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갖는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며,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의 정도로 구분된다. 이는 화자의 신념, 태도, 정보의 근거에 따라 달라지며, 명제에 대한 인지적 확신을 문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인식 양태를 주로 동사(情态动词) 혹은 부사의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 중국어 양태 동사는 영어의 조동사처럼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표지다. 직관적이고 발견하기도 쉽다. 아마도 조동사라는 찾기 쉬운 표지로 양태가 구현되다 보니 찾기 어려운 문법화한 표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 한 것 같다. 그래서 ‘是……的’를 인식 양태로 분석한 예가 없는 것 같다.

3. ‘(是)……的’의 구분 분류와 통사적 제약

1) ‘(是)……的₁’: 초점 강조 및 기실현

袁毓林(2003)은 동사가 핵심 술어로 작용하는 문장을 사건문(事件句), 문장 끝에 ‘的’가 오는 문장을 사태문(事态句)으로 구분하였다. 사건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나 부사어에 초점이 부여되지만, 사태문에서는 주어나 부사어 등 다양한 성분에 초점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점’이 ‘(是)……的₁’의 중요한 문법 의미로 간주하고 이것과 ‘강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是)……的₁’는 ‘是’ 뒤에 오는 시간, 장소, 방식, 대상, 목적 등에 화자의 초점이 놓인다.

- (4) 那本教材是1958年编写的。(시간) (刘月华等, 2001)
- (5) 我是从农村来的。(장소) (刘月华等, 2001)
- (6) 我们是坐公共汽车去的。(방식) (刘月华等, 2001)
- (7) 这些字是谁写的?(대상) (吕必松, 1982)
- (8) 我是来学习的, 不是来享受的。(목적) (吕必松, 1982)

위의 예에서 시간, 장소, 방식, 대상, 목적에 화자의 초점이 놓인다. 초점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1958년이 아닌 시간, 농촌이 아닌 장소, 버스가 아닌 방식, ‘学习’가 아닌 대상은 배제된다. 이런 배타성은 X가 아닌 모든 것을 배제하기도 하고 대비가 되는 상대만을 배제하기도 한다. 이런 초점의 기능 때문에 ‘강조’ 의미가 부각되게 된다. 만약 ‘(是)……的₁’가 아닌 ‘了’를 사용하면 어떻게 다를까?

- (9) a. 他是什么时候来的? (吕必松, 1982)
 b. 他是昨天来的。 (吕必松, 1982)
- (10) a. 他昨天来没来?
 b. 他昨天来了。 (吕必松, 1982)
- (11) 三妹已经到家了, 是昨天晚上九点多到的, 路上也都顺利… (刘月华等, 2001)

예문 (9a)의 초점은 ‘什么时候’에 있기 때문에 (9b)처럼 대답해야만 한다. 여기서 동작의 발생은 구정보이고 동작 발생의 장소, 시간 등이 신정보가 된다. 신정보이자 초점이 ‘昨天’ 오기 때문에 ‘(是).....的₁’구문을 사용해야만 한다. ‘(是).....的₁’의 문법 의미는 ‘초점 부여’이고, ‘강조’는 문법 의미인 초점 부여의 결과로 발생하는 느낌, 어감이다.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10a)의 초점은 신정보인 ‘来’에 있기 때문 (10b)처럼 대답해야만 한다. (10a)는 이미 발생했거나 완성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부다. 그래서 초점이 ‘昨天’에 있는 ‘他是昨天来的’를 사용할 수 없다. ‘강세(重读)’도 (9b)는 ‘昨天’에 있고 (10b)는 ‘来’에 있게 된다 (吕必松, 1982; 刘月华等, 2001). 예문 (11)은 ‘了’가 사용된 문장과 ‘(是).....的₁’구문의 기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了’를 사용해서 동작이 완성 및 구정보화한 뒤, ‘(是).....的₁’로 신정보인 ‘昨天晚上九点多’를 나타낸다(刘月华等, 2001).

‘(是).....的₁’는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데 ‘기실현(已然)’을 나타낸다. 위의 예들은 모두 시간 의미에 있어서 ‘기실현(已然)’을 나타낸다.

‘(是).....的₁’는 통사적 제약을 받는데 부정사의 위치가 ‘是’ 앞에 있다.

- (12) 那本教材不是1958年编写的。
 (13) 我不是从农村来的。
 (14) 我们不是坐公共汽车去的。
 (15) 我是来学习的, 不是来享受的。

‘(是).....的₁’는 양태 동사와 공기할 수도 없고 ‘是.....的’를 생략할 수도 없다.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 (16) *那本教材会是1958年编写的。 / *那本教材1958年编写
 (17) *我是要从农村来的。 / *我从农村来
 (18) *我们是可能坐公共汽车去的。 / *我们坐公共汽车去
 (19) *这些字是可能谁写的? / *这些字谁写?

‘(是).....的₁’는 또한 형용사와 공기하지 않는다. 형용사와 공기하는 모든 ‘(是).....的’는 ‘(是).....的₂’가 된다.

앞서 언급할 것처럼 ‘(是).....的₁’는 화자가 초점을 이동시키기 위한 표지다. 초점을 이동시켜 다른 성분에 둔다는 것은 이미 일정 정도 화자 주관성을 의미한다. 이 주관성이 더욱 강화되어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것인 ‘(是).....的₂’라고 할 수 있다.

2) ‘(是)……的₂’: 인식 양태

‘(是)……的₂’는 여러 학자들이 개념 정리를 했다. 예를 들어 화자의 특정 태도, 화자의 긍정(肯定)적 확신, 화자의 명제에 대한 확인(肯定)과 명확한 태도, 주어에 대한 평가나 묘사, 화자의 주관적 확신과 관련된 어기(语气)를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朱德熙, 1978; 吕必松, 1982; 田泉, 1996; 刘月华, 2001; 전기정, 2014).

본 연구에서는 ‘(是)……的₂’를 인식 양태라고 분석하였다.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란 화자가 자신의 말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 명제가 참인지에 대한 확신의 정도, 사실적 지위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표시하는 범주, 정보의 성격에 관한 화자/청자의 주관적인 한정(qualification), 명제에 대해 화자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려는 ‘확신의 정도’를 문법적으로 표현,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참일 확률에 대한 화자의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라고 할 수 있다(Palmer, 1986; Bybee & Fleishman, 1995; Saeed, 2003; 박재연, 2006; 송재목, 2009; 박진호, 2011).

인식 양태에 대한 정의로 미루어 볼 때, ‘(是)……的₂’에 대한 이전 연구자들의 기술은 인식 양태라고 정의하지 않을 뿐, 사실은 인식 양태를 기술하고 있었다. 다음은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20) 他的手藝是很高明的。	『现代汉语八百词』
(21) 鱼是挺新鲜的。	『现代汉语八百词』
(22) 我问过老吴的。	『现代汉语八百词』
(23) 这个问题是可以解决的。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
(24) 这道题是很简单的。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
(25) 那样的事情是绝对不会发生的。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

위의 예를 보면 ‘(是)……的₂’에서는 ‘是’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是)……的₁’에서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없다. 위의 예들은 모두 화자의 주관성이 대단히 강하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 긍정을 나타낸다. 대신 초점 의미와 배타성이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시간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바꾸어 말해 ‘기실현(已然)’ 등 시간 의미가 사라진다.

‘(是)……的₂’는 인식 양태의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중에서 확실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彭利贞(2007)이 분류한 중국어 인식 양태의 예시다.

- | |
|---|
| (26) 확실성: 那别很野蛮的运动, 要伤身体的。(阿城《棋王》)(彭利贞: 2007) |
| (27) 개연성: 要是往日, 他会要她们重报的。件淑敏《补天石》)(彭利贞: 2007) |
| (28) 가능성: 他可能太累了!(肖复兴《面的司机》)(彭利贞: 2007) |

예시에서 드러나듯이 확실성은 명제에 대해 화자의 확신 정도가 100%에 가깝다. 개연성은 확신 정도가 5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是)……的₂’도 확신 정도가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성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라고 볼 수 있다.

초점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시간 의미도 사라지고, 화자의 주관성이 강해지면서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공기할 수도 있게 된다. 彭利贞(2007: 372-437)에 따르면 중국어 양태 동사들은 서로 다양한 양상으로 공기한다. 인식 양태인 ‘(是)……的₂’도 다른 양태 동사와 공기가 가능하다.

(29) 这个手机应该早换的。

(30) 他一定会来的。

(31) 他要走的。 《现代汉语八百词》162쪽

위의 예들은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동사 ‘应该’, ‘会’, ‘要’가 ‘(是).....的₂’와 공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是).....的₂’는 통사적 제약을 받는데 부정사의 위치가 ‘是’ 뒤에 위치한다(刘月华等(2001: 777)).

(32) 他的手藝是不高明的。

(33) 鱼是不新鲜的。

(34) 我是不问过老吴的。

(35) 这个手机是不应该早换的。

(36) 他是不一定会来的。

(37) 他是不要走的。

‘(是).....的₂’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확신, 확인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은 명제에 대한 부정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양태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양태 성분 앞에만 위치해야지 ‘是’ 앞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齐沪扬, 2002: 144)에 따르면 정보 전달 기능에서 ‘了’와 ‘的’ 모두 발화자의 확실성을 나타내지만 ‘的’가 더 높은 확신(高度确信)을 나타낸다. 그래서 ‘了’는 일반적으로 주관성이 강한 양태 동사 혹은 부사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 예를 들어 ‘能, 会’, ‘一定, 必然’, ‘是’ 등은 ‘了’와 함께 쓰이는 일이 드물다.

(38) 他可能会来的。 --> *他可能会来了。 (齐沪扬: 2002)

(39) 他要参加考试的。 --> *他要参加考试了。 (齐沪扬: 2002)

예문 ‘他要参加考试的’와 ‘他要参加考试了’에서 ‘要’는 동일한 ‘要’가 아니다. 전자는 양태 동사고, 후자는 부사로 ‘장차 ~할 것이다’는 뜻이다.¹⁾

‘(是).....的₂’는 ‘是.....的’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생략하면 화자의 확실성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 사실을 전달하게 된다.

(40) 他会来参加我们的婚礼的。 鄧守信(박용진 외, 2021)

(41) 他会来参加我们的婚礼。 鄧守信(박용진 외, 2021)

예문(37)은 결혼식에 올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문(38)은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만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是).....的’는 ‘(是).....的₁’에서 이미 일정 정도 주관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是).....的₂’에서 주관성이 더욱 강해져 인식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 齐沪扬은 ‘要’가 ‘장차 ~할 것이다’는 의미로 쓰일 때 그 품사를 부사로 보았다. 이를 부사로 볼지 아니면 양태 동사로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 연구의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검토를 생략한다.

‘(是)……的’의 문법 의미와 통사 제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是)……的 ₁ ’	‘(是)……的 ₂ ’
문법 의미	문법 기능	초점 부여	인식 양태
	시간 의미	‘기실현(已然)’	시간 의미 없음
통사 제약	부정사 ‘不’ 위치	‘是’ 앞	‘是’ 뒤 ²⁾
	조동사 공기	불가능	가능
	형용사 공기	불가능	가능
	‘(是)……的’ 생략	불가능	가능

‘(是)……的₁’는 형용사와 공기가 불가능하다. 물론 ‘他是帅的’와 같은 예문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화 표지로,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是)……的₂’는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 양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是)……的’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他的手艺是高明的’를 ‘他的手艺高明’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생략하면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 양태는 사라진다.

2) 부정사 위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吕必松(1982: 27) 참고.

【중국어교육분과】 발표

对外汉语教学语法系统再思考：以补语为例

何 宝 璋*

【 초 록 】

在教授外国人学习汉语时，对汉语语法现象进行介绍及解释必不可少也至关重要。尽管近年来对外汉语教学作为一个独立学科在科研和教学方面都有了长足发展，但笔者认为仍存在一些不足之处。尤其是在教学语法方面，尚未完全找到自己的独特路径。虽然被称为对外汉语教学语法，但与教本族人的教学语法和理论研究的专家语法相比，并没有明显的差别和针对性，因此也不够实用。纯粹的本体研究成果可以为实际的对外汉语教学服务，使教学更加事半功倍，有的放矢。显然，对外汉语教学语法应当从本体研究中获益，但需要进行适当的取舍。此外，对外汉语教学语法的研究课题很多都直接源自实际课堂教学，因为问题起源于教学实践，研究结果也会直接使实际课堂教学受益。本文通过课堂实例探讨对外汉语教学语法与专家的理论语法的相同与异同，并提出了对外汉语教学语法如何并且应该找到自己路径的思考。

【키워드】 对外汉语教学, 对外汉语教学语法, 汉语句法

* 제1저자. [美]圣十字学院荣誉教授, 台湾国立东华大学客座教授 (bhe@holycross.edu)

我们以不同的语法对汉语“补语”的不同处理方式为例，提出对外汉语教学语法应该如何走自己的路，使其实用性更强，更易于实际课堂教学。这样做的结果对完汉语教学语法自然有别于教本族人的教学语法和专家们的理论语法。

汉语语言学中“补语系统”是比较复杂的。理论语法、教学语法对“补语”的处理也是不一样的。

我们首先来看一下王还先生（1994）主编的《对外汉语教学语法大纲》是如何处理“补语”的。在《对外汉语教学语法大纲》中，“补语”有八个种类，分别为：结果补语、趋向补语、可能补语、程度补语、数量补语、动量补语、时量补语和介宾词组补语。

以朱德熙先生的《语法讲义》（1982）为代表的汉语本体研究的理论语法为例，汉语的补语有五种：结果补语、趋向补语、可能补语、程度补语和情态补语。

二者不同的地方是《对外汉语教学语法大纲》中的“数量补语、动量补语、时量补语”在《语法讲义》中被列为“准宾语”。《语法讲义》中的“程度补语”和“情态补语”在《对外汉语教学语法大纲》中归为一大类“程度补语”。而“程度补语”可以细分为带“得”和不带“得”的两小类。

下面我们看看，在对外汉语作为单独的学科、对外汉语教学语法研究有了一定的成果以后，“补语”是如何处理的。《对外汉语教学语法》（齐2006）把“补语”分为五类；结果补语、趋向补语、程度补语、状态补语、和数量补语。《对外汉语教学语法》认为“结果补语”和“趋向补语”有其可能式，从而减少了“可能补语”这一类。《对外汉语教学语法》把《对外汉语教学语法大纲》中合并了的“程度补语”又重新分为“情态补语”和“程度补语”两大类。《对外汉语教学语法》的“数量补语”包括两项；“动量补语”和“时量补语”，《对外汉语教学语法大纲》中“数量补语”在《对外汉语教学语法》中不在补语的行列。

各家对补语的分类不同，自有各家的道理，孰优孰劣，在这里不做评论。我们感兴趣的是，在实际课堂上或教科书中是怎样处理“补语”的。

所谓的“结果补语”在实际教学中是以复合词的形式最先介绍的。在英语注释的汉语教材中所用的名词是 RVC, (resultative verb compound, not resultative verb complement)。每一个动结复合词以单词的形式出现，附有英文注释。这样的做法便于学生理解记忆。在学生对基本概念、形式和用法有一定的了解掌握以后再展开介绍。“趋向补语”在教学中的引进与“结果补语”类似，也是以复合词的形式介绍的。动结和趋向复合词的共同点是都具有“可能式”，也就是以往的“可能补语”。

关于所谓的“情态补语”和“程度补语”，就其名称上来讲，对初学汉语并且没有一般的语言学常识的学生来说是比较费解的。“情态”是从语义角度讲的，而且学生学的形容词有限，很难体会出“情态”来。另外，“情态”就没有“程度”吗？反过来形容词加“极了”、“死了”、“透了”很难看出其“程度”来。教学中的实际做法是把所谓的“情态补语”称之为“程度补语”来教，也就是王还先生书中的“带‘得’的程度补语”。而以往的“程度补语”作为固定结构来教给学生。那就是“形容词+极了/死了/透了”。这些固定格式，无需多加解释，学生很容易掌握。

下面来看“数量补语”、“动量补语”和“时量补语”的实际课堂教学。先看“数量补语”。“数量补语”，如“大三岁，长两寸”是“比”字句的一部分，在实际教学中一般不会单独拿出来教给学生的。用“比”来做比较的教学的顺序是：

A 比 B +形容词	他比我大。
A 比 B +形容词 + 得多	他不我大得多。
A 比 B +形容词 + 具体数量	他比我大三岁。

在实际教学中，老师不会给学生讲解或分析“大三岁”的语法结构，而是帮助学生如何用好比字句。

“动量补语”的教学一般是学生第一次接触到动量词，教师介绍动量词及如何表示某一动词发生的次数。动量词使用的难点在于什么时候动量词放在动词宾语的前边，什么时候放在动词宾语的后边。一般教科书或语法书的规则比较多，但实际上是由宾语定指程度的多少来决定的。请参见拙作在这里不做详细讨论。

“时量补语”表示某一持续性动作持续的时间，或瞬时性动作发生后到某一时间点的时间。在实际教学中都是以固定句型的形式介绍给学生的。

持续性动词在没有宾语的情况下：

动词+时段 看三个钟头。

持续性动词在有宾语的情况下，两种形式；

动宾+动词+时段 看电影看三个钟头
动词 + 数段 (的) + 宾语 看三个钟头的电影。

瞬时性动词，时段放在动词的后边；

毕业三年了。

从上边的讨论中可以看出在实际课堂教学中，“数量补语”、“动量补语”和“时量补语”都是以固定句型表达某种情况进行教学的，如动作的延续和次数／频率。语法点的引入是从功能、用法、句型入手的。具体是不是补语，是什么补语，老师不讲，也没有必要讲，学生当然不知道，也没有必要知道。下边的表格总结了前边对“补语”的不同处理。

不同的语法对汉语补语处理的对比：

	王还	齐沪扬		朱德熙		对外汉语教学	
结果补语	✓	✓	可能式	✓		复合词	可能式
趋向补语	✓	✓		✓		复合词	
可能补语	✓			✓			
程度补语	✓	✓		✓		✓	
情态补语		✓		✓			
数量补语	✓	?		准	数量宾语	固定结构	
动量补语	✓	数	量补语	宾语	动量宾语	固定结构：动作次数	
时量补语	✓	量			时量宾语	固定结构：动作长度	
介宾词组补语	✓						

以“补语”为例，对外汉语教学语法与理论语法及教中国人的教学语法在处理方面有很大的不同。正是因为如此，笔者认为对外汉语教学语法应该走自己的路，重教学重实用，重本土化。

对外汉语教学作为一个独立的学科在最近的二三十年里各个方面都取得了很大的成绩。其中对外汉语教学语法的研究不断向纵深发展，研究越来越精细，但笔者认为对外汉语教学语法在大的方向上还没有完全走出自己的路，脱离不开专家语法或教本族人的教学语法，所以在实际课堂教学上针对性差，也不够实用。我们需要的是以本体研究为基础、课堂教学为目标、国别化的实用对外汉语教学语法。在这方面，我们实际上是刚刚起步，任重道远，仍需同仁共同努力。

【중국어교육분과】 발표

汉语二语教学中古为今用之道

— 以传统启蒙教材的应用为例

孟 柱 亿*

【목 차】

1. 引言
2. 传统教育内容的主要来源
3. 传统启蒙教材用于汉语教学的可能性
4. 《增广贤文》作为第二语言教学教材的意义
 - 1) 语言要素方面
 - 2) 修辞方面
 - 3) 文化知识方面
5. 结论

【 초 록 】

中国传统启蒙教材到了现代曾经一度被人们遗忘了,近年来重新受到广泛的重视,在越来越多的中小学被搬进语文课堂里,还有广大家长也把传统启蒙教材当作课外读物让学生背诵。重新受到重视的主要原因,是这些书在伦理道德及人格修养方面有传统文化教材的意义。

目前在中国传统启蒙教材开始发挥积极的作用,也有人尝试在第二语言教学当中导入,但在此领域里还没有正式探讨传统启蒙教材的应用问题。这些传统启蒙教材对第二语言学习者(非母语者)来说,也会对提高语言水平和培养跨文化交际能力有积极的意义。传统启蒙教材可以成为口语、现代汉语和书面语、古代汉语之间的桥梁,也是反映中国传统精神文化的道德教育教材。我们可以从跨文化交际角度汲取非常丰富的语言与文化方面的知识,这样有利于增强跨文化交际能力。本文拟探讨传统启蒙教材在当今国际汉语教学中的应用方案。

【키워드】

* 제1저자. 国立东华大学 访问教授 (mzy99@hanmail.net)

1. 引言

中国传统启蒙教材到了现代曾经一度被人们遗忘了,近年来重新受到广泛的重视,在越来越多的中小学被搬进语文课堂里,还有广大家长也把传统启蒙教材当作课外读物让学生背诵。重新受到重视的主要原因,是这些书在伦理道德及人格修养方面有传统文化教材的意义。

目前在中国传统启蒙教材开始发挥积极的作用,也有人尝试在第二语言教学当中导入,但在此领域里还没有正式探讨传统启蒙教材的应用问题。这些传统启蒙教材对第二语言学习者(非母语者)来说,也会提高语言水平和培养跨文化交际能力有积极的意义。传统启蒙教材可以成为口语、现代汉语和书面语、古代汉语之间的桥梁,也是反映中国传统精神文化的道德教育教材。我们可以从跨文化交际角度汲取非常丰富的语言与文化方面的知识,这样有利于增强跨文化交际能力。本文拟探讨传统启蒙教材在当今国际汉语教学中的应用方案。

2. 传统教育内容的主要来源

传统启蒙教材是古时候传统启蒙教育所用的教材,又称“蒙学书”、“蒙养书”、“小儿书”,常见的有《三字经》《百家姓》《千字文》《增广贤文》等。《三字经》《百家姓》《千字文》这三部影响大而流行广,经常合称为《三百千》。《增广贤文》也是流传非常广泛,人称“读了增广会说话”。

《三字经》的成书年代被认为是宋朝以前,已有七百多年历史,是古代儿童开始读书最初学习的教材,可谓家喻户晓,脍炙人口。它短小精悍、琅琅上口,共一千余字,三字一句的韵文极易成诵,其内容涵盖了中国传统的教育、历史、天文、地理、伦理和道德以及一些民间传说等,广泛生动而又言简意赅,所谓“熟读《三字经》,可知千古事”。《三字经》是中华民族珍贵的文化遗产。《三字经》所讲的内容不少是过于简略的,似乎是概括的缩略形式,这些内容是可以根据学习者的接受能力灵活处理的,但这样编写就起着框定学习量(知识范围)的作用。因此《三字经》虽篇幅有限,但是所涉及的内容实际上是庞大的。至今《三字经》依然有着生命力。

《百家姓》成书于北宋初年,是集中400多中国姓氏(后增补到500多)为四言韵语的识字读本。“赵钱孙李”成为《百家姓》前四姓,是因为百家姓形成于宋朝的吴越地区,宋朝的皇帝的姓是赵氏,“赵”自然成为那时“天下第一姓”。《百家姓》汇聚的不是日常生活上的常用字它有着与社会匹配的价值和意义。所反映的是中国人重视血缘的传统价值观。古人把它当识字教材,正是体现了从小对孩子进行传统文化教育的意义。

《千字文》是南朝梁武帝时期(502年至549年)成书的,是由一千字组成的韵文,作者是员外散骑侍郎周兴嗣。《千字文》以儒学理论为纲、穿插诸多常识,用四字韵语写出,很适于儿童诵读,后来就成了中国古代教育史上最早的启蒙教材。《千字文》是一千五百年前的作品,作者周兴嗣用一千个不重复的汉字进行排列组合,写出了这样一篇音韵谐美、朗朗上口的四言长诗,更难得的是,其内容包括天地、历史、人事、修身、读书、饮食、居住、农艺、园林、祭祀等各种社会文化活动等。从这一千个字中,我们能够看到中国文化的完整轮廓。但由于时代久远,相当多的内容已不容易理解。

《增广贤文》于明代万历年间之前成书,后来经过明、清两代文人的不断增补,才形成了现在的面貌。《增广贤文》辑录了多种不同来源的语料,采用三言、四言、五言、六言、七言,也包含不少散文的

语料,甚至还有长句和短句混合的杂言句式排列,灵活多变。传统启蒙教材一般很重视押韵,但《增广贤文》换韵自由,只要能让人读起来抑扬顿挫、琅琅上口,就尽量做到内容表达上的生动活泼,因此在形式上实与其他启蒙教材有明显的区别。《增广贤文》不是某一个人所创的著作,而是以组合方式汇集而成的。选取了经史子集和语录等里的圣贤的嘉言懿行、诗词、小说、戏曲等文学作品中的片段或在民间流传的格言、谚语、家训等,故释道儒各方面的思想均有体现。有些是直接引用原文的,有些是加工的。加工的有删除原文前后半截的,也有把两三句合成一句或把一句拆成两句的,还有一些是稍加改动的引用。虽然选取了许多不同原文的字句,但一律没标出处。这跟稍微早些问世的启蒙教材《明心宝鉴》很多句子标出处的引用相比,也许显得不够严谨,但鉴其作为通俗读物的属性,更容易接近广大的读者,方便读者吸收各家的哲学思想的精华。《增广贤文》在古代读书人的眼里被视为名不见经传的通俗读物,但它对中国老百姓的影响非常大。《增广贤文》记录了许多反映生活哲理的格言,这些内容不仅儿童喜欢,就连成年人也乐于阅读,以致于其中许多格言至今仍广为流传,常被人们挂在嘴边,这正是传统文化的力量所在。旧时代有这样的一句口头禅:“读了《增广》会说话。”这是民间对《增广贤文》的评价。《增广贤文》曾被人们奉为“做人的准则,处世的法宝,交际的妙术,治家的秘诀”(陈振桂,2011)。该书虽然没有诸子百家的经典地位,但起着对广大人民传播传统语言知识和文化修养的作用。

3. 传统启蒙教材用于汉语教学的可能性

《三字经》、《百家姓》、《千字文》等古代的启蒙教材一般采用韵文和短句式,所以按照“三字格”或“四字格”的形式编写,《三百千》(三种启蒙教材的合称)这样的形式有利于儿童的诵读和背诵。这三种教材开头部分的形式如下:

人之初,性本善。性相近,习相远。苟不教,性乃迁。……(《三字经》)

赵钱孙李 周吴郑王 冯陈褚卫 蒋沈韩杨 朱秦尤许……(《百家姓》)

天地玄黄,宇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张。……(《千字文》)

但这些启蒙教材存在着句式单一刻板的问题,这就使教材的内容受到严重的形式上的束缚,所以直接适用于现代汉语的教学有较大的局限性。而且《三百千》是古代编成的,距今有700年至1500年以上的时差,从跨文化交际的角度说,能适用于现代汉语教学的空间也有限。《三字经》是珍贵的文化遗产。不过《三字经》所讲的内容中不少是缩略形式,这样编写就起着框定学习量(知识范围)的作用。因此《三字经》虽篇幅有限,但是所涉及的内容实际上是庞大的,足以作为文化知识的教材,但是由于缩略形式的句子不少,所以可读性较差,因为这些部分作为语言的符号带有暗码的性质。《千字文》是1,500多年前编成的,但其中的不少汉字并非现代汉语的常用字,且有些汉字对多数中国人来说都十分生僻。二语学习者学习《千字文》,对他们的汉字学习并没有太大的帮助,反而可能会让他们有种学无所用的感觉,影响汉字学习的兴趣。内容涉及到中国古代的历史、地理、思想、农业、学习等多方面的内容。其中很多内容已经变为化石般的文化知识,多数中国人都不甚了解,所以可成为文化知识的教材,但是对现代汉语教学的实用性、针对性都比较弱。

《三字经》和《千字文》的每个字几乎都相当于现代汉语的一个词。现代汉语双音节词占优势,对于学习现代汉语的二语者的语言学习不太适合,尤其《千字文》的古代汉语表达方式在现代社会基本不用

了,因而对于一般水平的二语者没有较高的实用价值,对水平较高的二语者才有应用空间。《百家姓》与时代背景无关,仍然有它的实际交际上的意义,但它的使用效果只限于姓氏,能直接适用姓氏用字的学习。与《三百千》相比,《增广贤文》有较大的不同。如前所述,在形式上有灵活性,在内容上有丰富性。这点对汉语二语者来说,有利于掌握、运用语料的内容,尤其对水平较高的二语者有十分实用的教材意义。此书时隔已久,至少有四百多年的历史,但是由于广泛流传的普遍性和巨大的生命力,具有与一般经典截然不同的实用性。其中大部分句子至今还是人们嘴上常说的俗语、谚语或格言,具有很大的实用价值。这点对学习者来说,无疑是有利于激发学习动机的特点。例如:

知己知彼,将心比心。
画虎画皮难画骨,知人知面不知心。
路遥知马力,日久见人心。
谁人背后无人说,哪个人前不说人?
长江后浪推前浪,世上新人赶旧人。
近水楼台先得月,向阳花木早逢春。
先到为君,后到为臣。
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

从应用于现代汉语教学的视角考虑,对水平较高的学习者而言,《增广贤文》的直接应用的可能性最大,《三字经》和《千字文》的直接应用与《增广贤文》相比,显得就有相当大的局限性。对入门阶段的学习者而言,《百家姓》没有时代的差异,而且全文都是以一个字为单位的排列,所以就有实际应用价值。

4. 《增广贤文》作为第二语言教学教材的意义

因为《增广贤文》的直接应用的可能性最大,所以可以把教材整体当独立的教材用。下面主要以《增广贤文》为主要对象探讨应用于第二语言教学的方案。

《增广贤文》不但在形式上自由,而且在语体上也不拘泥于传统蒙学书贯穿始终的书面语体。因为吸收了民间流行的小说、戏曲、语录体文章以及格言、谚语等的语句,所以采用了大量的口语体要素,更容易为大众所接受。再从内容的角度看,除了“时来风送滕王阁,运去雷轰荐福碑”一处之外,不必需要具备典故等特殊的背景知识,可以根据语言符号的意思理解全篇的意思。这是《增广贤文》深入民间的原因之一。

1) 语言要素方面

不过,如前所述,《增广贤文》因为本来辑录了经史子集、诗词等文献的语料,所以同时含有丰富的古汉语书面语的成分。结果在语体方面看,成了口语体的句子和书面语体的句子混合的语料了。这对从现代汉语口语入门的二语者来说,是可以根据他们的现代汉语口语的基础有效地吸收书面语诸多要素的语料。书中到处呈现出来的书面语的要素如下。

(1) 常用虚词

知己知彼，将心比心。

以、用

无钱方断酒，临老始读经

才 才

你急他未急，人闲心不闲0 世上万般皆下品，思量惟有读书高。

不 都

当时若不登高望，谁信东流海洋深？

如果

黄河尚有澄清日，岂能人无得运时？

尚且、还 怎么（表示反问的副词）

(2) 常用实词

有钱道真语，无钱语不真。

说 没有

逢人且说三分话，未可全抛一片心。

遇见、碰见

酒逢知己饮，诗向会人吟。

喝

易涨易退山溪水，易反易复小人心。

容易

光阴似箭，日月如梭。

像 像

流水下滩非有意，白云出岫本无心。

不是 没有

若登高必自壘，若涉远必自迤。

低处 近处

知己知彼，将心比心。

自己 他

2) 修辞方面

修辞是通过对语言的调整和修饰，使所表达的话或文章更正确，明白、生动、有力的方法。简而言之，是提高语言表达效果的方法。一般对二语者主要要求遵守语法方面的规则，但尽早开始让他们同时注意修辞是全面培养语感和跨文化交际能力的合理方针。

《增广贤文》常用的修辞格是对偶。使用对偶修辞格的两个文句“字数相等，结构、词性大体相同，

意思相关”。这种对称的语言结构，形成表达形式上的整齐和谐和内容上的相互映衬，具有独特的艺术效果。同时，从第二语言习得的角度看，对偶这一修辞格还能起到非常有意义的作用，即有利于自主学习。全书几乎都用了对偶的修辞方法，其中严式对偶约占55%，其余45%是宽式对偶（多种版本所引起的结果）。从这个角度说，《增广贤文》常用对偶的语料的最大特点是组句方式富有克拉申(Krashen)所说的输入假说(input hypothesis)中的可理解的输入(comprehensible input)效果。该书除了一处的“时来风送滕王阁，运去雷轰荐福碑。”之外，没有使用难以理解的典故，都是用通俗易懂的句子组成的平实的内容。对偶句绝大多数是单句对偶，只有一些地方偶尔用了偶句对偶。

(1) 严对

结构关系完全相同，各个组成部分的词性也相同。

来如风雨，去似微尘。
守口如瓶，防意如城。
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
一家之计在于和，一生之计在于勤
先到为君，后到为臣。
钱财如粪土，仁义值千金。
近水知鱼性，近山识鸟音。
运去金成铁，时来铁似金。
莫信直中直，须防仁不仁。
长江后浪推前浪，世上新人赶旧人。
责人之心责己，恕己之心恕人。
易涨易退山溪水，易反易复小人心。
有意栽花花不发，无心插柳柳成荫。
贫居闹市无人问，富在深山有远亲。

(2) 宽对

这是求整体上对偶成句，不强求整齐划一。宽对可分为两类：

① 前后结构相似的

前半截和后半截形式上基本对应，只有部分结构或部分词语的词性不同。这类约占14%。

古人不见今时月，今月曾经照古人。
酒逢知己饮，诗向会人吟。
有钱道真语，无钱语不真。
士者国之宝，儒为席上珍。
只恨枝无叶，莫怨太阳偏。
虎身犹可近，人毒不堪亲。

马行无力皆因瘦，人不风流只为贫。
求人须求大丈夫，济人须济急时无。
久住令人贱，频来亲也疏。
酒中不语真君子，财上分明大丈夫。

② 结构相异，但易于意会的

只有字数相同，前半截和后半截形式上基本不对应，但是前半截和后半截的连接符合常理，或逻辑上衔接自然。这类约占31%。

当时若不登高望，谁信东流海洋深？
相逢不饮空归去，洞口桃花也笑人。
若要断酒法，醒眼看醉人。
欲求生富贵，须下死工夫。
出家如初，成佛有余。
饶人不是痴汉，痴汉不会饶人。
读书须用意，一字值千金。
相识满天下，知心能几人？
逢人且说三分话，未可全抛一片心。
莺花犹怕春光老，岂可教人枉度春？
有酒有肉多兄弟，急难何曾见一人？
平生不做皱眉事，世上应无切齿人。
莫道君行早，更有早行人。
来说是非者，便是是非人。

3) 文化知识方面

古人把蒙学书当伦理道德修养的教材，因此蒙学书在中国长期持续不断的流行，对文化认同感的形成方面也起到了不可低估的作用，是广大的中国老百姓的识字读本兼为人处世的依据，自然含有丰富的文化内容。语言是文化的载体，代表着使用某种语言的群体的民族文化，伦理道德代表的是某个民族社会的精神文化。《增广贤文》虽然没有登大雅之堂的地位，但是实际上在民间对传统文化的传承和传播立下了赫赫功勋。

此书已有悠久的历史，其中大部分句子至今却还是脍炙人口的格言或俗话。虽然是古时候的启蒙教材，但是由于巨大的生命力具有诸多经典所不具备的实用性。所以此书是现代的汉语二语者了解中国传统文化尤其是传统精神文化的宝藏，无疑是有利于激发学习和应用动机的特点。由于历史的原因，难免含有一些封建观念、迷信、宿命论等消极的因素，但只要有了分辨时代的眼光，就不难剔除糟粕。

长期以来《增广贤文》是广大的中国老百姓的伦理道德教材，反映了儒释道各家的思想境界、价值取向、为人处世的道理等精神世界的面貌以及风俗习惯、人情世故等中国社会的深层文化。汉语二语者能通过此书了解中国的传统文化和国情。

(1) 精神世界的面貌

跨文化交际中了解华人群体的精神世界有对汉语学习者的交际有深刻影响与重要作用。本书所展现的华人精神世界面貌的情况如下。

劝善：

必寿老，恶必早亡。
善有善报，恶有恶报，不是不报，时候未到。
人恶人怕天不怕，人善人欺天不欺。
择其善者而从之，其不善者而改之。
一毫之恶，劝人莫作。
一毫之善，与人方便。

克己让人：

宁可人负我，切莫我负人。
忍得一时之气，免得百日之忧。
忍一句，息一怒，饶一着，退一步。
得忍且忍，得耐且耐，不忍不耐，小事成灾。

防患未然：

得宠思辱，居安思危。
念念有如临敌日，心心常似过桥时。
常将有日思无日，莫把无时当有时。
宁可信其有，不可信其无。
年年防饥，夜夜防盗。

珍惜光阴：

枯木逢春犹再发，人无两度再少年。
未晚先投宿，鸡鸣早看天。
少壮不努力，老大徒伤悲。
记得少年骑竹马，转眼又是白头翁。

劝学：

读书须用意，一字值千金。
世上万般皆下品，思量惟有读书高。
积金千两，不如明解经书。
人学始知道，不学亦徒然。
一举首登龙虎榜，十年身到凤凰池。
十年寒窗无人问，一举成名天下知。
学者是好，不学不好

宽以待人：

知己知彼，将心比心。。
责人之心责己，恕己之心恕人。
饶人不是痴汉，痴汉不会饶人。
将相场中堪走马，公侯肚内好撑船。

诚实守信：

一言既出，驷马难追。
人而无信，不须礼之。
万事劝人休瞒昧，举头三尺有神明。

知足：

知足常足，终身不辱；
知止常止，终身不耻。

以诚待人：

相逢不饮空归去，洞口桃花也笑人。
在家不会迎宾客，出门方知少主人。
客来主不顾，应恐是痴人。

明哲：

近水楼台先得月，向阳花木早逢春。
富贵多忧，贫穷自在。

孝亲敬老：

羊有跪乳之恩，鸦有反哺之情。

厉行节约：

由俭入奢易，从奢入俭难。
富从升合起，贫困不算来。
近河不得枉使水，近山不得枉烧柴。

笃行不怠：

欲求生富贵，须下死工夫。
勤奋耕锄收地利，他时饱暖谢苍天。
击石原有火，不击乃无烟。
口说不如身逢，耳闻不如目见。

慎思明辨：

求人须求大丈夫，济人须济急时无。
知音说与知音听，不是知音莫与谈。

洞悉人心：

易涨易退山溪水，易反易复小人心。
画虎画皮难画骨，知人知面不知心。
路遥知马力，日久见人心。

明察世道：

有钱道真语，无钱语不真。不信但看筵中酒，杯杯先劝有钱人。
有酒有肉多兄弟，急难何曾见一人？
人情似纸张张薄，世事如棋局局新。
贫居闹市无人问，富在深山有远亲。
谁人背后无人说，哪个人前不说人？
衙门八字开，有理无钱莫进来。

谨言慎行：

守口如瓶，防意如城。
若要人不知，除非己莫为。

重义：

钱财如粪土，仁义值千金。

金钱观：

财上分明大丈夫。
君子爱财取之有道。

此外还有不少至理名言，如下：

因风吹火，用力不多。
万金良药，不如无疾。
良田万顷，日食一升。
大厦千间，夜眠八尺。
慈不掌兵，义不掌财。
良药苦口利于病，忠言逆耳利于行。
莫将容易得，便作等闲看。
已覆之水，收之实难。

(2) 中国社会的面貌（国情）

跨文化交际中了解中国的国情有对汉语学习者交际有助于全面把握中国社会各方面的基本情况，从而提升交际的有效性和针对性。本书所展现的中国的基本情况如下。

地理：

时若不登高望，谁信东流海洋深？

长江后浪推前浪，世上新人攒旧人。
黄河尚有澄清日，岂能人无得运时？

天文：

天上众星皆拱北（，世间无水不朝东。）

度量衡：

但存方寸地，留与子孙耕
富从升合起，贫困不算来。

宗教：

平时不烧香，急来抱佛脚
竹篱茅舍风光好，道院僧房终不如。

农耕：

学者如禾如稻，不学如草如蒿。

动物：

羊有跪乳之恩，鸦有反哺之情。

植物：

牡丹花好空入目，枣花虽小结实多。

喜庆：

洞房花烛夜，金榜题名时。

科举：

十年寒窗无人问，一举成名天下知。
一举首登龙虎榜，十年身到凤凰池。

医学：

黄芩无假，阿魏无真

5. 结论

如前所述，传统启蒙教材在漫长的岁月里起着传承中国传统精神文化的作用，但是由于时空的差异和编写目的的不同，在当今的汉语教学平台上直接搬用却有一定的局限性，因此需要积极寻找古为今用的有效办法。启蒙教材的应用方案要根据学习者的接受能力合理决定，还要根据教学的需要和目的灵活处理。

《百家姓》可以从入门阶段导入，这不但适合于音节的发音练习和汉字读音的掌握，而且有活学活用

的意义，能应用于实际人际交往中。《三字经》和《千字文》虽然篇幅不大，但是在理解上含有不少难点，这些难点主要是带有暗码的属性，要具备大量的古代文化知识才能理解。因此这两种教材适合于根据教学的需要节选，让学习者宣读部分内容讲授。如果把这两本书的全文当教材用，也可以在研究生阶段当作古代历史、文化、哲学等科目的辅助教材用。《增广贤文》在从中级过渡到高级的阶段，具备作为一门独立课程教材的充分实用性。可以帮助学习者熟悉书面语体的语言要素和修辞，还可以帮助学习者积累丰富的中国传统文化知识。甚至有一些由常用字构成的句子比较简单的句子或，可以在初级阶段也进行碎片式的教学。

【중국문학분과 I】 발표

冷戰感性
— 公孫嬾文學中的戰爭與迷霧

翁智琦*

【목 차】

1. 研究緣起
2. 研究動機
3. 霧：邊界與曖昧的感官體驗
4. 結論：戰爭與自然的交織，感覺結構的建構

【 초 록 】

本文探討反共文藝在國家戰爭與軍事治理下的動員與管制，並指出其政治背景和體制性格常成為研究焦點，本文認為其中的情感表現尚有重新想像與詮釋的空間。本文以公孫嬾的文學作品為中心，從感覺結構的角度討論冷戰經驗如何透過文學被繞射而出，並探討這些經驗如何以情感和感官的方式跨越公眾與私密疆界，形成冷戰經驗的共時與共享性。公孫嬾的文藝在基調上雖能呼應反共政策，但伴隨戰爭而來的道德、倫理與秩序的崩毀，為其文藝創作帶來了掙扎體驗。在公孫嬾所描寫的戰地地景中，本文認為霧是最具顯著特色的自然之一。霧是公孫嬾所派駐島嶼的自然象徵，霧的不可預測性、曖昧性與邊界性讓公孫嬾在戰爭中發揮感性的抒情可能。本文探討公孫嬾在反共文藝的地景敘事中佔據較多篇幅的「霧」，將之置於冷戰脈絡，梳理其中的文化經驗與感覺結構，並探討在具戰爭意涵的反共文藝中，如何透過公孫嬾文學展現感性思維，呈現特殊的冷戰記憶與島嶼經驗。

【키워드】 反共文藝, 戰爭書寫, 感性自然, 冷戰經驗, 情感研究

* 제1저자. 國立台北教育大學台灣文化研究所 助理教授 (angtiki@mail.ntue.edu.tw)

1. 研究緣起

反共文藝作為國家在戰爭與軍事治理下的政治宣傳品，其政治背景與體制性格常是研究焦點，但這種單一視角限制了對反共文藝的詮釋能量。反共文藝所反映的戰爭經驗中，其中所涉及的感覺表現，實有重新詮釋的空間。本文此處所指出的反共文藝，指的是以反共抗俄及反攻復國為基本前提，描繪在共黨佔據大陸後，人民生活、個人自由和人性價值普遍受到扭曲，民族的生存基礎遭到破壞的文學。除此之外，針對共黨政權接受蘇俄帝國主義、抹殺民族固有傳統價值的罪行，進行強烈批判和討伐，也是反共文學的另一重要內容。早在大陸與共產黨進行體制上的競爭時期，擁護民族固有傳統思想，即是國民黨一路走來所堅持的一貫理念，而這種理念，也體現在三民主義理論範疇內的民族主義文藝論和文藝政策當中。不僅如此，1949年國民政府全面撤退到臺灣之後，為與對岸政權的社會主義國際性路線抗衡，也為與左翼文學唯物論和階級鬥爭互別苗頭，確保固有傳統和中國性的延續傳承，而積極推動各種高舉民族精神和固有文化旗幟的文藝活動。¹⁾

前述所指的感覺，具有情緒感知意涵，是內心產生的心理反應。然而感覺不僅源自個人，也來自公共意向的投射與流傳。如雷蒙·威廉斯(Raymond Williams)的「感覺結構」(structure of feeling)概念所示，情感雖在微妙、不明確處運作，卻構成特定時期的文化、社會經驗，與思想、論述相關，並蘊含獨特歷史記憶。²⁾當情感成為對國家的「柔軟感覺」時，其如何成為一種形式，甚至指向國族想像與政治欲望，³⁾情感邏輯的運作便成重要課題。

本文以公孫嬭文學為中心，從感覺結構思考冷戰經驗如何透過文學被繞射而出，這些經驗又如何以情感、感官方式，跨越公私疆界，銘刻成群島(舟山島、金門群島、台灣島等)的時代記憶，形成冷戰經驗的共時性。選擇公孫嬭文學作為討論案例的原因有：(一)公孫嬭為著名將軍作家，活躍於文壇、軍旅與外交場，其文學展現個人情感與公共經驗、國際權力關係之交織。(二)他是少見曾於不同群島有戰爭經驗且致力留下文學紀錄的反共文藝作家。(三)他北平時即文壇成名，文學風格強調唯美、浪漫，為戰鬥文藝中能兼顧國策與情感的特殊作家。(四)在反共文藝研究中，情感論述屬新興領域。

2. 研究動機

公孫嬭1949年隨軍來台，同年駐軍舟山群島。1951年駐防金門與澎湖，1954年再度駐防金門，任五十二軍野砲第三連連長、營長，九三砲戰期間於烈嶼任大虎部隊長。砲戰後轉居台灣，歷任菲律賓、伊朗、美國等地軍事武官，也曾任馬祖砲兵指揮官，1981年退伍。他的作品遍及舟山、台灣、澎湖、金門、馬祖等島嶼，類型包含詩歌、散文、小說與報導文學，其中思母懷鄉散文〈破毛衣〉曾入選國中國文課本。他的創作大量描寫駐防金門經驗，是「金門文學」的重要參與者。

本文從公孫嬭作品如《海的十年祭》、《大兵謠》、《倚炮集》等，探討冷戰下戰鬥文藝的文化邊界與主體想像，分析戰爭經驗如何影響身體、社會與歷史的複雜交互作用，從感官與情感層面提供自然想像

1) 崔末順，「反共文學古典詮釋——50年代台灣文藝雜誌所反映的民族主義文藝論」，《民國文學與文化研究第三輯》，秀威經典，2016.12.，Pp.140.

2) Raymond Williams, "Structures of Felling."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132-133.

3)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4. Pp.1.

的新可能。

自然在此與地景乃至群島的想像息息相關。群島指一群大小島嶼聚集分布於海面。戰爭時期，群島因軍事、戰略限制而產生經驗斷裂，但在政令宣傳下又可能建立共享經驗。1949年後，中華民國政府的歷史教育將台灣地區劃分為台灣、澎湖、金門、馬祖及政府統治權所及之其他地區，創造台澎金馬共同體認識。然而，此認識建立於台灣島中心論上，使台灣島經驗凌駕於其他島嶼。1980年代後，文化本土化趨勢使彭、金、馬等地方論述逐步建立，舟山島、大陳島等國共戰爭關鍵島嶼也有了相關研究。

近年人文學科視野從陸地中心轉向關注陸地間及陸地外區域的連結。如高橋哲哉(Takahashi Tetsuya)的《犧牲的體系：福島・沖繩》探討日本群島間軍事與政經權力關係；布萊恩·羅伯茲(Brian Russell Roberts)與蜜雪兒·史蒂文斯(Michelle Ann Stephens)於2017年主編《群島美國研究》(Archipelagic American Studies)一書，指出傳統的美國研究，基本上僅圍繞著美洲大陸空間展開，然而美國事實上是由島嶼、群島、海岸線、大陸、海洋等組合構成，因而希望能以更具關連、更動態的方法，重新思考美國的地理、文化和政治主張；⁴⁾中研院學者李育霖則以「前沿地帶」作為台灣理論關鍵詞，試圖產事前沿地帶的反抗力量能以何種樣態存在與被理解。⁵⁾中國比較文學學會(ACCL)與台灣大學中文系於2020年籌備「文學－海洋－島嶼」國際學術研討會，以文學進行各種跨海航線性質之研究。⁶⁾台灣大學台文所黃美娥教授則於2020年開設臺灣島嶼文學研究課程，透過將島嶼視角引入台灣文學研究範疇，討論台灣及其周邊島嶼的豐富關係，並希望能建立聯繫台灣本島與離島之間的「台灣大文學史」的可能性。此外，台灣人文學社也於2023年舉辦「元島嶼」年會論壇，企圖擴充群島想像與論述可能。

本文認為公孫嬾的反共文藝具有「繞射」功能。「繞射」原指波遇障礙物時偏離直線傳播的物理現象。公孫嬾文學透過地景敘事展示的情感能量，部分偏離了反共文藝的原始設定。雖基調呼應反共政策，但戰爭帶來的道德、倫理與秩序崩毀，為公孫嬾帶來必須繞道而行的掙扎體驗，這構成本文認識、補償、慰藉反共文藝的路徑。

公孫嬾以文學記錄島嶼印象，細緻描寫島嶼人文地理及戰後墾殖生活。即使部分作品因應1955年戰鬥文藝運動而生，如《火線上》、《大兵謠》等，但除了戰爭及反共民族精神外，作品中的島嶼經驗與生活情感繞射出另一幅戰地風光，其中霧與海佔據最多自然地景描述篇幅。海是公孫嬾移動於群島間的路徑，霧則是駐島的自然象徵，霧的不可預測性、曖昧性與邊界性讓他在戰爭中找到抒情可能。礙於篇幅，本文暫以「霧」為感性象徵，探討公孫嬾如何在冷戰結構與戰鬥文學框架下，接受群島想像啟發，展開反共文藝新詮釋。

本文所指地景是文化實體，由文化群體從自然地景創造而來。所有地景都具象徵性，表現文化價值與社會行為，結合風土與象徵，詮釋日常經驗。這些地景透過公孫嬾的抒情文學再現，不僅是理性實利物質，也具精神情感面向。當精神情感轉換為反共宣傳的文化貨幣，從個人空間流通至公共領域，情與物難以切割。這些物質場景傳達情感與文化想像，展現概念化情感性，不僅是個人抒發，更是打造群島內外前線士兵對戰爭記憶的重要路徑。

因此，本文探討公孫嬾反共文藝中「霧」的地景敘事，將之置於冷戰脈絡，梳理其文化經驗與感覺結構，分析一向被賦予以理性的戰爭形象如何透過文學展現感性思維，以及這種感性思維如何藉由群島間的霧，呈現特殊的冷戰記憶與島嶼經驗。

4) Brian Russell Roberts, Michelle Ann Stephens Ed., *Archipelagic American Stud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7.

5) 參王驥懋、史書美、李育霖、周素卿、林亞婷、林芳玫、林建光、邵立楷、洪子惠、紀大偉等著，《『台灣理論關鍵詞』》，聯經，2019。

6) 該國際學術研討會受covid-19全球疫情影響，延至2022年6月20-22日以實體與線上視訊會議形式共同舉辦。

3. 霧：邊界與曖昧的感官體驗

金門、馬祖多霧已是氣候常識，霧是讓能見度降低的一種水氣凝結漂浮於地表之現象。當冷熱氣流相遇並形成凝結時，通常會因溫差而形成霧。霧不是煙霧，煙霧是含有顆粒物質的霧。霧不是煙，煙是燃料燃燒產生的滾滾污染雲。霧、薄霧和雲都是同一原理的變體：凝結，它們的位置和密度決定了它們的本質。此外，霧也不是薄霧，儘管霧和薄霧之間的技術分界線顯然是一個以人類為中心的定義：區別僅在於我們能看得多遠。英國氣象局將霧定義為能見度低於一公里的狀態，他們有所謂的「霧點」(fog points)，即特定區域的特定溫度點，加上適當的風、濕度和缺乏雲，會導致霧。⁷⁾

也就是說，霧的物質特性除了影響我們所看到的周圍世界的方式、它的存在以及它對我們感官的影響，比如賦予它象徵意義之外，霧同時具有無形性和物質性，因而就意義上而言，霧具有可移動性、多重性和變化性。因此，霧可以透過多種感官體驗直接感知，但它仍然難以捉摸。這些特質賦予了霧特殊的意義。⁸⁾

公孫嫵筆下的霧，相當多樣，如山霧、海霧、煙霧等，但大部分來自自然之霧，尤其海霧，指的是溫暖海面遇上南下冷空氣，水氣飽和所形成之自然現象。金門、舟山、馬祖所分布的地區，即時常有濃霧現象。這些濃霧，稠密濃厚，不僅在視覺上形成迷霧，也是想像、感受的迷霧，在感覺上頗為曖昧、幽暗不明，甚至充滿各種具創造性的想像與超脫現實的限制意涵。

霧在文學文化上的解析，在英語現代文學研究部分已有諸多評論者提出精彩解析，如沃爾弗雷斯(Julian Wolfreys)針對狄更斯(Charles Dickens)的《荒涼山莊》(Bleak House)中的倫敦霧指出那是表現倫敦的一種可見與不可見性；⁹⁾泰勒(Jesse Oak Taylor)從人類世角度出發，研究19世紀末至20世紀初，狄更斯至吳爾芙(Virginia Woolf)的小說中的倫敦霧，他指出這樣的倫敦霧其實是工業現代化造成的人工煙霧(smog)，造就了倫敦的天空，也意味某種自然的崩潰，而他要找出的是這種人工現象如何在文學作品中交叉出許多思考線索。¹⁰⁾

前述著作頗能協助本文從文學文化層面解讀公孫嫵描寫群島的霧，然而公孫嫵所駐紮的群島畢竟不是倫敦，這些群島並未發生倫敦的工業化進程與建設。假設如泰勒所指出之倫敦的天空是工業化進程剩餘後的加工品，公孫嫵筆下的群島天空又是如何呢？這些群島被賦予了守護自由中國政權的政治任務，在這種由國家推動的政治倫理價值之下，公孫嫵究竟「創造」了什麼樣的群島天空？透過公孫嫵對霧的描寫，可見到他對金門、馬祖、舟山等群島及正在發生的戰爭、駐軍生活的部分面貌，卻也因霧的特質造成各種感官與感知上的不確定、模糊性以及這些感官與感知交叉出的企圖超越國家命令與軍事世俗桎梏的情感。

公孫嫵駐軍島嶼期間，描寫過舟山、金門及馬祖的霧，這些霧雖都是在表現公孫嫵的駐軍生活場景，卻也因霧的文化意涵，夾帶了許多情感與想像。

不同於英語文學研究中在探討倫敦霧因工業文明帶來的批判理性論述，公孫嫵描寫的人造之霧帶有良善之感，這裡良善因在戰爭前線以安居展現而帶有一種日常之美，而這樣的日常之美是透過一名軍人以八倍望遠鏡的理性物質捕捉而成。敘述者所陳述的「說不出的愁人」不只透露他對於人造之霧的嚮往與欣賞，而作為一名離鄉的軍人，家屋吹送的生活之煙，無非催生並感化出他的思鄉之情以及感知在戰地中得以安

7) Jenniifer Lucy Allan, "Foggy notion". *Sound Effects*, 8:1, 2019. Pp.55.

8) Jenniifer Lucy Allan, "Foggy notion". *Sound Effects*, 8:1, 2019. Pp.56.

9) Julian Wolfreys. "Dickensian Architectures or, the City and the Ineffable." *Writing London: The Trace of the Urban Text from Blake to Dickens*. New York: St. Martin's, 1998. Pp.160-161.

10) Jesse Oak Taylor. *The Sky of Our Manufacture: The London Fog in British Fiction From Dickens to Woolf Virginia*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6.

居，彷彿是在危險中最為巨大的美德。

公孫嬾在文學中對金門的情感展現，也成為金門文學相當具代表性的抒情軍旅文學。¹¹⁾誠如他曾寫給金門文藝工作者楊樹清的信件指出：

我的最寶貴的一段青春歲月就是在金門度過的，那是任基層幹部，跑遍金門的每一處，因為那時金門不如現在繁華進步，而我駐防又是最偏僻的地方，地廣人稀，除了白天砲戰，夜晚只有聽海濤、讀書、寫文章以遣情懷，這都是二十多年前的事了，所以我與金門有一種特殊的情感，無論身在海外何處，每每會懷念到金門的人和事。¹²⁾

公孫嬾在書信中所提到的特殊情感究竟可以怎麼理解？或者公孫嬾退伍後在1983年的自述提供我們一些後見之明的詮釋方向。

公孫嬾在〈春雨寒舍花題記〉回憶戰火期間的生活時指出：

一個決心赴義的人，心情是平靜的。除了每天例行的砲戰之外，白天我生活在陣地中，東奔西跑。砲戰過後天一黑，海島之上剩下一片靜謐。於是在碉堡中、在油燈下，我攤開紙，寫我的情感與心聲。我自況那是與生命賽跑，也許活過了今天，明天就完了，我為甚麼不在有生之年時，多多寫下一點甚麼呢？¹³⁾

正是置身於戰爭框架中，公孫嬾意識到自己生命之脆弱性，是隨時可能遭受抹除了一種倫理基礎，因而兩次「預立遺囑」，¹⁴⁾並持續以寫作作為脆弱生命的紀錄與實踐。

作為前線駐軍，公孫嬾既是最基層的執行戰爭者，也是被迫面對戰爭之人。軍事上，公孫嬾所代理的戰爭暴力及其背後之權力系統的確需要更繁複的探討，然而在他作為一位將生命暴露於砲彈面前的士兵而言，他如何服從命令的同時也意識到自身生命遭受到的威脅，也相當值得關注。劉亦以「妥協性」來總述公孫嬾在馬祖時期已沒有能量再去經營金門時期的大量作品與火線抒情的文學特質。劉亦認為公孫嬾受黨國機器壓制後仍具有想書寫的欲能，因而在作品呈現的是往往是「客觀」、籠統的資訊，以及私我的經驗閉合。¹⁵⁾本文同意劉亦對公孫嬾文學的妥協性觀察，然而本文認為，公孫嬾文學中的「妥協性」，在其金門時期其實已有所展現，只是因為作家生命歷程及戰爭節奏的變化，使得「妥協性」也隨之呈現出複雜面貌。

本文認為，公孫嬾正是意識到將「忠義」與「愛」奉獻給國家的同時¹⁶⁾，他必也得承擔自己成為可見的脆弱生命之風險，因而讓寫作成為面對威脅的責任，並進而隱隱有著挑戰反共文藝的戰鬥姿態對於生命、死亡及其社會意義的理解，並呼籲對所有生命的尊重與認可，尤其是在面對暴力之時。比如〈烈嶼〉一文回憶駐軍小金門時的一次砲彈，公孫嬾當日經歷軍中同袍「遭砲彈破片射殺，當場陣亡。日落才結束砲戰，不久聽說勞軍團已啟航自金門出發了。趕快把屍體抬走，告訴弟兄們洗掃地上的鮮血，不要現出痕跡。」¹⁷⁾公孫嬾顯然不滿於死亡同袍的哀悼被迫因勞軍團的到來而嘎然而止，然而礙於他的軍人身分，因而選擇當日不面見至陣地拜訪的勞軍團作為消極呼籲與幽微的抵抗。

11) 黃克全思考金門當代文學的定位及其範疇時，將其分為三個區塊：金門僑鄉文學、金門軍旅文學、金門本土文學，其中公孫嬾即為軍旅文學之代表作家。參黃克全，「流離共同體：《金門當代文學大歷史》序」。收於黃克全主編，《金門當代文學大歷史》，情書出版社，2024，Pp.13。

12) 楊樹清，「火線抒情者公孫嬾」。收於黃克全主編，《金門當代文學大歷史》，情書出版社，2024，Pp.105-106。

13) 公孫嬾，「題記」，《春雨寒舍花》，黎明文化，1983，Pp.300。

14) 公孫嬾，「題記」，《春雨寒舍花》，黎明文化，1983，Pp.300。

15) 劉亦，「小島說話：當馬祖遠離戰地，成為自己」，離島出版，2024，Pp.50-51。

16) 公孫嬾，「題記」，《火線上》，亞洲出版社，1956，Pp.1。

17) 公孫嬾，「烈嶼」，《公孫嬾自選集》，黎明文化，1981，Pp.28-29。

馬祖的霧是公孫嫵的群島霧氣書寫篇幅最多的部分，一方面這攸關馬祖多霧的自然地景，另一方面也可能由於馬祖是公孫嫵在經歷國共戰爭與金門砲戰多年之後的駐紮之地，基本上較少激烈軍事活動，同時也是累積諸多豐富駐島記憶與經驗的階段。比如寫於1974年的〈蜈蚣雞〉¹⁸⁾，回想公孫嫵與部隊初到金門、小金門的生活，由於當地飼養土雞多以有毒蜈蚣餵食，因而該種雞隻被稱為蜈蚣雞，當時軍營飼養的蜈蚣雞除每日下蛋提供駐軍營養外，也陪伴了公孫嫵度過炮火連天的艱辛時光。後來公孫嫵離開金門，駐紮馬祖時，曾經的下屬送來烹飪好的蜈蚣雞，引發他的感慨。公孫嫵因為下屬的善意，回憶起金門與小金門的駐軍生活，以及那隻曾陪伴他的蜈蚣雞，一時間千頭萬緒，於是離開狹小的居室，至室外透氣。下一刻便見他描寫馬祖的霧：

現在正當馬祖的霧季，三四月間經常伸手不見五指。人站其中，如騰雲駕霧。尤其是門一開，濃霧似白雲湧入，頓使燈光黯淡，蔚成奇觀。站在這一片茫茫中，竟像是遺失了自己。

霧是蠕動的，還帶著一股鹽腥味。此刻真是天地混沌，漆黑而潮濕，我勉強做了次深呼吸，感到一陣輕寒。¹⁹⁾

引文第一句就揭開時間與馬祖的特殊氣候，這是總在晚春出現的霧季。晚春作為乘時而進、把握時機的文化隱喻，本應是各種生命爭奇鬥艷的景觀²⁰⁾；然而敘事者在晚春時期卻遇見霧季，那「伸手不見五指」的視覺描寫，揭開敘事者在馬祖度過晚春的特殊不可見與不可遇。儘管如此，視覺上的不可見，並未限制敘事者的想像創造力，因為下一句的「人站其中，如騰雲駕霧」，描寫了敘事者身處霧中的感受，「如」的聯繫動詞用法，讓「騰雲駕霧」不受制於現實經驗。當想像力勃發時，敘事者又讓霧產生了方向性，「門一開，濃霧似白雲湧入」，並且在室內產生「奇觀」。即便霧是馬祖常見自然地景，然而這種濃霧湧入的狀況，卻也造成罕見而奇特的景觀，日常的霧在此被異化成另一幅特殊景象，再次呈現敘事者的「想像創作」，接續則是敘事者在這奇觀中，「遺失了自己」。這裡的「遺失自己」，頗有讓敘事者藉由霧，脫離世俗社會、軍事日常的作用。除此之外，霧更是具有生命力的，它會「蠕動」，且帶有「鹽腥味」，而這存於世間、湧入敘事者居室的「生命」在此提醒正在「遺失自己」的敘事者回歸到生活軌道，回到這潮濕黑暗陰冷的駐軍之地。

類似的馬祖霧氣描寫，還可在〈雙驛馬〉、〈煙雨堡記〉中讀到。比如霧在有「說來就來」²¹⁾的立即發生性，喻示命運的機巧靈動與難以預測。以及「潮濕」、「厚重」的物理特質。尤其公孫嫵在馬祖的居室位於低凹處，因而濃霧凝聚難散²²⁾，再加上馬祖地理環境具有曲折聳立的海崖，海岬、海灣遍佈，地形高低起伏較大，因而馬祖的霧總是「可以睜眼看著它冉冉起降，又似細網一樣的灑滿天地」²³⁾或「看起來縹緲若雲若煙，歷久不散會變成細雨霏霏，混合在煙雲中，紛紛下落。」²⁴⁾公孫嫵認為，馬祖的霧，縹緲如雲煙，凝聚難散總像是細網、霏霏細雨。在這裡，縹緲如雲煙的創造性想像，一方面是有其現實依據，另一方面也在其中可見「雲煙」所具有的事物消逝極快速的文化指稱，而細網、霏霏細雨，則讓人聯想到網的捕捉性、交織包覆性及約束性，及霏霏的感傷感，這細緻的感傷、包覆與約束究竟意味著什麼呢？公孫嫵在文中指出這是馬祖給他的深刻感受，是會讓他難以分辨世界的一種渾沌不清感，但同時也為他帶來澄明感。

曾在馬祖服役的作家童偉格在憶及馬祖時也提到「霧」，並引發出近乎寂寞的感傷情感。童偉格指出：

18) 「蜈蚣雞」於1974年4月21日刊載於『中央日報』副刊，後收入於『大姐·小姐』，九歌，1980。

19) 公孫嫵，「蜈蚣雞」，『大姐·小姐』，九歌，1980，Pp.13。

20) 比如唐代知識份子韓愈於〈晚春〉一詩中所描寫之哲理意境。

21) 公孫嫵，「雙驛馬」，『公孫嫵自選集』，黎明文化，1981，Pp.30。

22) 公孫嫵，「煙雨堡記」，『公孫嫵自選集』，黎明文化，1981，Pp.66。

23) 公孫嫵，「雙驛馬」，『公孫嫵自選集』，黎明文化，1981，Pp.30。

24) 公孫嫵，「煙雨堡記」，『公孫嫵自選集』，黎明文化，1981，Pp.70。

「在獨自返回連隊寢室的深夜裡，當海霧上襲，浸潤全島伊時，我格外不覺得對我而言，馬祖是什麼初履乍訪的異鄉。也許，僅是因為我自己，也來自一個對多數人顯得偏遠，也貼山靠海，時不時，也會籠罩莫名雨霧的孤島型村鎮。」在童偉格的經驗中，馬祖的霧使他的身體感受到他在台灣島的原鄉，因而牽引出「辨識自己」的感知，然而那樣的感知卻又來自於某種「一個國家的掘礦之地與戰防之地的封閉相似性」之感傷。²⁵⁾

也許我們難以直接指出公孫嫵因為馬祖的霧而引發的渾沌不清感與澄明感是否與他的戰爭記憶有直接相關，然而這樣豐沛的感性特質，其實顯示公孫嫵具有強烈的文化危機，因而以霧作為感覺媒介，讓他得以抒發懷舊情感，進而領導自己的道德與心靈，再次強調自己的人性所在，那股經驗渾沌不清之後的澄明感，也許是一種讓這個世界正向發展的一股力量。²⁶⁾

公孫嫵曾受西洋文學，尤其浪漫主義文學的影響，而他的文學也被研究者視為具有浪漫主義特質²⁷⁾，從他如何描寫霧氣即可見這樣的研究觀察頗為精準。然而，當這樣的浪漫主義特質遇上戰鬥文藝對軍中作家的索求，公孫嫵的浪漫與感性就蒙上了一層具硝煙氣味的雲霧。本文認為，霧作為公孫嫵駐軍生活的日常景觀，除了具有作為標誌島嶼的地理位置與自然特質之外，也作為敘事者在戰爭前線記錄日常、想像日常，甚至超越日常的重要媒介。

如同伊果頓在討論浪漫主義文學時指出，浪漫主義強調想像的獨立自主，崇高超越。如果想像的「超凡脫俗」這一特質是在挑戰患貧血症的理性主義，它同時也替作家提供一個可以撫慰心靈、不受拘束的選擇，得以擺脫歷史本身。²⁸⁾然而，當浪漫主義遇上戰鬥文藝時，往往被創作者寄託微言大義的自然，則反而為作家在特殊的時代提供了隱蔽功能。本節所討論的「霧」，即是透過霧的曖昧、渾沌卻瀰漫與空氣中的「不輕易屈服」特質，讓位居戰爭前線、死亡險境的公孫嫵得以投射自我，一方面貼合戰鬥文藝的政治號召，另一方面卻也得以協助其掩飾在國家暴力與戰爭的框架之下，危脆生命如何表現剩餘或衍生而出的倫理異議。

4. 結論：戰爭與自然的交織，感覺結構的建構

米契爾 (W. J. T. Mitchell) 在《地景與權力》中曾指出，地景不是一種藝術類型而是作為人類與自然、自我與他者之間，同時也是表達文化的重要媒介。²⁹⁾公孫嫵文學中的地景，作為表達群島文化的重要媒介，在未經公孫嫵的文學描繪之前，本身已經是一種再現，它是一種物質的、多重感官的媒介。透過這個媒介，群島文化的意義與價值被符碼化，無論它們是自然形成的地方，或者由於農耕、軍事、紀念、標記等需求被打造、改變位置置放在那裡。

誠如米契爾所言，地景蘊含著文化符碼，因此當公孫嫵在觀看前線島嶼地景時，其實即是在進行地景的意義解碼，而意義解碼取決於公孫嫵自身的文化意義與價值，這些群島地景受到公孫嫵的刻意剪裁，並經

25) 童偉格，「一個台灣人的馬祖」，收於陳詠翰、廖億美、黃開洋著，《戰地之框：從漁村到預備戰地的魔幻時光，在軍管實驗下成為馬祖人》，春山出版，2024，Pp.48。

26) 柯林·坎貝爾 (Colin Campbell) 著，何承恩譯，《浪漫倫理與現代消費主義精神》，五南圖書，2016，Pp.153-154。

27) 相關論述可參：高姝妮，「文學創作的變奏與啟蒙觀念的博弈——以淪陷時期北平文壇的「色情文學」論爭為中心」，《湖州師範學院學報》，45:9, 2023.9., Pp.81-109。高姝妮，「灰暗歲月的凝視與詩心的明照——論《中國文藝》的散文創作」，《合肥師範學院學報》，41:4, 2023.7., Pp.11-15。高姝妮，「論四十年代公孫嫵的「色情小說」」，《許昌學院學報》，41:4, 2022.4., Pp.33-38。

28) 泰瑞·伊果頓 (Terry Eagleton) 著，吳新發譯，《文學理論導讀》，書林，1993，Pp.34。

29) Mitchell, W. J. T. "Imperial Landscape." *Landscape and Power*. Chicago: Chicago UP, 1994. Pp.5.

歷作者經驗與書寫之間的時間、寫實與想像落差，等於說這些群島地景已是二度再現。然而本文所要指出的是，這些二度再現，事實上透過公孫嬾反覆觀看、閱讀、比對、驗證及文本生產與傳播、流通的過程，繞射出集體對群島的共同感覺。美國文化理論學者貝蘭特（Lauren Berlant）在討論冷戰後樂觀情感時指出，情感氛圍是共享的，並非孤立的，是身體不斷判斷周遭環境，並對其所處的氛圍做出的反應。³⁰⁾ 本文認為，公孫嬾筆下的島嶼與圍繞著島嶼而發生的戰爭，不只是意味著軍事侵略、佔領或相互對抗的過程，在面對戰爭、等待戰爭的過程，也因為其中所產生的後果而帶來嶄新、前所未有且獨特的時代感受。

本文探討了群島的霧的特性及其在公孫嬾文學中的意義。霧在自然科學上是冷熱氣流相遇形成的現象，而在文學中則具有多重象徵意義。公孫嬾筆下的霧，包括山霧、海霧和煙霧，常常反映出駐軍生活的情感和想像。霧的描寫不僅展現了戰爭的殘酷和士兵的內心世界，也揭示了公孫嬾對自然和戰爭的複雜情感。霧在他的作品中，既是自然景觀的描寫，也是情感和文化的象徵，反映了他在戰爭中的高昂、沉迷與感化之情。也如同他對他的戰地書寫的宣告：「我要把戰地的一切……都敷上一層美。」³¹⁾ 霧在公孫嬾的文學中，是歷史事實也是故事所在，甚或因其曖昧特性，帶著謎一樣的存在，是為迷霧。撥開迷霧，不只意在「看見」什麼？還在於「撥開」的感覺與「走進」迷霧中的體驗。

30) Lauren Berlant著，吳昊譯，《殘酷的樂觀主義》，中國工人出版社，2023. Pp.20.

31) 公孫嬾，「題記」，《春雨寒舍花》，黎明文化，1983, Pp.302.

【중국문학분과 I】 발표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분석
—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을 중심으로

정혜원* · 최진아**

【목 차】

1. 서론
2.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의 유형 분류 및 분석 방법
 - 1) 유형 분류의 기준과 전제
 - 2) 분석 대상과 방법론
3.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의 의미 분석
 - 1) 인귀연애형
 - 2) 파괴응징형
 - 3)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의 중첩 사례
4. 결론

【 초 록 】

본고는 『태평광기』 ‘귀부(鬼部)’에 수록된 여성귀신 고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귀신이 서사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감정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이라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귀연애형은 귀신과 인간의 정서적 교류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며, 사랑의 지속성과 상실, 욕망의 초월적 실현이라는 정동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반면 파괴응징형은 여성 귀신이 복수 또는 유혹을 통해 응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이는 억압된 욕망의 분출과 사회 질서의 전복이라는 상징적 구조를 내포한다. 특히 두 유형이 중첩된 사례에서는 감정의 유대가 파멸로 전환되는 전이 구조가 나타나며, 귀신은 감정의 대상에서 응징의 주체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 분석은 여성귀신 서사의 반복적 구조와 감정 표현 양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해당 텍스트가 단순한 공포나 교훈의 장치를 넘어 당대의 정서 구조와 젠더 질서를 반영하는 문화적 상징체계로 기능함을 드러낸다. 더불어 여성귀신은 서사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응징의 수행을 통해 서사를 이끄는 행위자로 형상화되며, 감정과 윤리의 충돌을 통해 인간과 죽음, 규범과 욕망이 교차하는 복합적 의미망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동시대 설화 자료 및 타 문헌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귀신 서사의 문학적·문화사적 함의를 더욱 확

* 부산대학교 석사과정 (fj06062000@naver.com)

** 지도교수, 부산대학교 부교수 (chjina@pusan.ac.kr)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 인귀연애형, 파괴웅징형, 서사 유형화, 감정 구조

1. 서론

귀신은 동아시아 고전 문헌에서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는 상징적 존재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으며, 특히 여성귀신은 생전의 억압과 죽음 이후의 복수, 인간과의 감정적 교류를 통해 복합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반복적으로 소환되어 왔다. 이들은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여성 인식, 생사관, 윤리 질서를 반영하는 상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太平廣記』는 송대 대표 설화집으로, 그중 ‘귀부(鬼部)’는 귀신 이야기에 집중하여 서사적 응집력을 보여주며, 특히 여성귀신 고사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감정 구조, 윤리 질서를 드러내는 독특한 서사 양상을 담고 있다.

최근 여성귀신의 상징성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평광기』의 여성귀신을 중심으로 한 유형 분류와 의미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귀부’에 수록된 여성귀신 고사들 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귀연애형’과 ‘파괴웅징형’이라는 두 유형에 주목하여 서사적 특징과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유형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 전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며, 각각 감정 중심 서사와 윤리 중심 서사의 대표적 구조를 형성한다. 특히 ‘인귀연애형’은 귀신과 인간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통해 사랑, 상실, 욕망 등의 감정을 서사적으로 구체화한다. 반면, ‘파괴웅징형’은 억울하게 죽은 여성귀신이 사후에 복수를 통해 사회 질서의 부조리에 대응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 두 유형은 서로 다른 서사적 동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일부 고사에서는 감정과 윤리의 충돌이 중첩되어 사랑과 복수, 유혹과 공포가 교차하는 복합적 감정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여성귀신은 단순한 공포나 교훈의 도구를 넘어서, 서사를 능동적으로 이끄는 주체적 존재로 형상화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유형이 단순히 이야기의 반복 구조가 아닌, 여성귀신이 갖는 서사적 주체성과 행위성, 그리고 당시 사회의 정서 및 윤리 질서에 대한 상징적 반응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귀연애형’과 ‘파괴웅징형’이라는 대표적 서사 유형을 중심으로, 그 반복성과 구조적 특징, 그리고 중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에 반영된 당시의 여성 인식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의 유형 분류 및 분석 방법

1) 유형 분류의 기준과 전제

『태평광기』에 등장하는 여성귀신 서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감정 교류나 억울함에 대한 복수

의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張亞平·孫惠欣¹⁾은 인간과 귀신의 만남이 지닌 서사적 기능을 분석하였고, 韓瑜²⁾는 여성귀신이 감정의 주체로서 결혼 제도의 억압에 저항하는 양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王立³⁾과 曾禮軍⁴⁾는 복수 서사를 통해 여성귀신이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존재임을 제시하였으며, 譚正壁⁵⁾은 여성귀신 서사를 봉건 사회의 여성 억압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陳名琛⁶⁾은 귀신과 인간의 관계 유형을 분류하면서 여성귀신의 원한이 중심 서사로 작동함을 지적하였고, 박완호는 『태평광기』 인귀연애 고사를 통해 여성귀신의 욕망과 감정 주체성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여성귀신을 감정적 주체이거나 복수의 실행자로 해석하며, 연애, 원한, 억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주제 중심 해석이나 기능적 상징 분석에 머물렀으며,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의 반복적 서사 구조, 즉 감정의 기원, 인간과의 관계 형성 방식, 서사의 귀결에 기반한 체계적 유형화 시도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고는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를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전자는 귀신이 인간과 감성적 유대를 맺으며 서사가 전개되는 구조이고, 후자는 억울한 죽음이나 부당한 상황에 대한 복수를 서사의 동력으로 삼는 구조이다. 이 두 유형은 감정의 기원, 관계의 양상, 결말 구조라는 세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화는 여성귀신 서사의 반복 구조를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여성귀신이 공포나 교훈의 상징을 넘어 감정과 사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사적 주체로 기능함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 분석 대상과 방법론

본고의 분석 대상은 『태평광기』 귀부에 수록된 여성귀신 등장 설화 중, 앞서 제시한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 유형에 해당하는 총 75편이다. 이 가운데 인귀연애형 서사는 총 41편으로, 감정의 성격에 따라 ‘애정형’(26편)과 ‘해원형’(15편)으로 나뉜다. 파괴응징형 서사는 총 34편이며, ‘복수형’(9편)과 ‘유혹형’(25편)으로 구분된다. 각 고사의 줄거리는 3장에서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각 유형별 대표 고사 3~4편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방법은 각 유형의 서사적 특성과 감정 구조의 차이에 따라 달리 설정하였다. 먼저 인귀연애형은 반복적인 이야기 구조와 감정의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유형으로, ‘서사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귀신의 출현 배경, 인간과의 감정 교류 방식, 결말 구조 등을 중심으로 유형 내 반복되는 서사 패턴을 도출한다.

반면, 파괴응징형은 서사 내에서 여성귀신이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며, 복수 또는 유혹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억눌린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 본 논문은 이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적 접근⁷⁾’과 ‘욕망 이론⁸⁾’, 그리고 ‘여성학적 분석⁹⁾’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귀신 서사

- 1) 張亞平·孫惠欣, 「敘事學視野下的《太平廣記》人鬼遇合小說探析」, 『六盤水師範學院學報』, 大連大學文學院, 08, 2023.
- 2) 韓瑜, 「唐代人鬼相戀故事的幾種模式」, 『湖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浙江警官職業學院, 02, 2011.
- 3) 王立, 「象徵性復仇與鬼靈文化——中國古代復仇文學主題側議」, 『黑龍江社會科學』, 遼寧師範大學中文系, 05, 1998.
- 4) 曾禮軍, 「《太平廣記》人鬼遇合故事的主題類型與文化蘊涵」, 『遼東學院學報』, 浙江師範大學江南文化研究中心, 04, 2013.
- 5) 譚正壁, 『中國女性文學史』, 百花文藝出版社, 1991.
- 6) 陳名琛, 「唐代小說中的人鬼交往類型及其文化」, 『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 福建兒童發展職業學院公共教學部, 51, 2008.
- 7)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무의식과 욕망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해 창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서울: 열린책들, 2003)에서 제시된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 개념과 융(Carl Gustav Jung)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서울: 한길사, 2001)에서 제시한 ‘아니마(Anima)’ 개념을 활용한다.

속 억압된 욕망의 분출, 규범적 성역할에 대한 전복,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 등의 상징 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들은 『태평광기』 속 여성귀신 서사가 감정적이거나 윤리적 교훈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정과 사회, 개인과 제도, 서사와 상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담론 공간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3.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의 의미 분석

1) 인귀연애형

인귀연애형 고사는 단순히 초월적 사랑을 다루는 서사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감정과 성적 욕망이 환상이라는 서사 장치를 통해 발현되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여성은 생전에는 사회적 규범과 도덕, 신분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귀신이라는 비현실적 존재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사랑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예컨대 「정충」¹⁰⁾에서는 죽은 여인이 생전 남편을 찾아와 감정을 나누고 조용히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며, 「이영」¹¹⁾에서는 귀신이 된 여인이 인간과 가정을 꾸리는 환상적 서사가 전개된다. 또한 「왕광본」¹²⁾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혼이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 현실적 경계를 드러내는데, 이는 억눌린 욕망이 현실의 제약을 우회하여 환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 역시 귀신과의 연애를 통해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이상화된 감정의 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욕망을 귀신이라는 환상적 존재에 투사하게 된다. 이처럼 인귀연애형 서사는 남녀 모두가 억압된 감정과 욕망을 환상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현하는 욕망 서사로, 현실의 억압과 도덕적 통제를 우회하려는 구조를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이 유형은 초월과 현실, 욕망과 규범, 환상과 제약이 교차하는 복합적 담론 구조로서, 환상을 억압된 욕망의 재현 기제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서사로 해석된다.¹³⁾ 이때 환상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현실과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욕망 사이의 긴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유동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인귀연애형 서사에서는 대체로 ① 우연한 만남, ② 감정의 발전, ③ 이별 혹은 죽음이라는 반복적 서사 구조가 나타나며, 귀신과 인간의 감정 교류는 현실 사회의 제약을 넘어서려는 서사적 욕망의 실현 방식으로 작용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사랑의 주체로서 여성귀신이 등장하는 ‘애정형’ 고사를 우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용하여, 여성귀신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감정이 표출되는 방식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8) 욕망 이론은 라캉의 철학적 정신분석에 바탕을 두며, 주체의 결핍과 환상을 통해 욕망이 구조화된다는 전제를 가진다. 본 논문은 유혹형 고사에서 남성이 환상적 여성귀신에게 욕망을 투사하는 구조를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자크 라캉(Lacan Jacques), 『욕망 이론』, 서울:文藝出版社, 1994.

9) 여성학은 젠더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서울:을유문화사, 1994)에서 제시된 ‘타자로서의 여성(남성이 주체(Subject, Self), 여성은 타자(Other))’ 개념을 중심으로, 귀신 서사가 남성 중심 사회 질서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10) (宋)李昉等撰, 『太平廣記』卷15, 北京:中華書局, 2000, p48.

11) (宋)李昉等撰, 『太平廣記』卷14, 北京:中華書局, 2000, p323.

12) 同上, p137.

13) 환상은 단순한 도피적 장치가 아니라,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과 당대 사회 질서의 충돌을 문학적으로 드러내는 유동적 구조이다. 최진아, 「唐代愛情類傳奇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1) 애정형

<표1> 「태평광기」 속 애정형 인귀연애 서사의 유형 및 특징

유형	제목	줄거리	권(卷)
애정형 (재회형)	鄭總	죽은 첩이 나타나 차를 달라고 부탁하고 작별을 고함.	卷15
애정형 (재회형)	李瑩	죽은 여성과 인간 남성이 사후에 결혼.	卷14
애정형 (명혼형)	王乙	인간과 귀신이 저승에서 결혼.	卷14
애정형 (명혼형)	季攸	혼례를 치르지 못한 채 죽은 여인이 서리와 결혼 후 합장됨.	卷14
애정형 (이별형)	劉鷺	죽은 여동생이 계속 나타났으나 결국 62세에 완전히 사라짐.	卷15
애정형 (이별형)	王光本	귀신이 잠시 남편을 만나고 떠남.	卷14

애정형 서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귀신과 인간의 감정적 교류 방식과 서사적 전개 구조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 再會型은 죽은 여성이 생전의 연인을 찾아와 재회하는 이야기로, 애정형 서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冥婚型은 인간과 귀신이 사후에도 결혼을 맺는 이야기로, 초월적 사랑이 강조되는 유형이다. 셋째, 離別型은 인간과 귀신이 감정을 나누지만 결국 함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별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처럼 애정형 서사는 사랑의 지속성, 결혼의 의미, 이별의 정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며, 각 유형에 따라 귀신과 인간의 관계가 다르게 전개된다. 그렇다면 먼저 재회형 애정 서사를 살펴보자.

재회형 서사¹⁴⁾는 죽은 여성이 생전의 연인을 다시 찾아와 재회하거나, 사후에도 사랑이 지속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서사는 죽음 이후에도 감정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초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¹⁵⁾ 귀신이 된 이후에도 감정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귀신과 인간의 만남은 단순한 공포나 저주가 아닌, 생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감정의 연속성으로 형상화된다.

「정충」에서는 죽은 아내가 다시 나타나 남편과 차를 마시며 마지막 감정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날 밤, 정충이 깊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죽은 첩이었다. 정충이 그녀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앉게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그녀는 ‘좋은 차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정충이 직접 차를 끓여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차를 다 마셨다. (...) 정충이 잠든 아들과 딸을 깨워 그녀를 만나게 하려 했으나, 첩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 저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그녀는 말을 마친 뒤 인사하고 떠났으며, 문을 나서자마자 사라졌다.”

(夜深, 偶未寐, 聞室外有人行聲. 開戶觀之, 乃亡妾也. 召入室而坐, 問其所要, 但求好茶. 總自烹與之, 盡飲. (...) 總以小兒女共睡, 欲呼與相見. 妾曰: 『不可. 渠年小, 恐驚之. 』言訖辭去, 經出門, 不見.)¹⁶⁾

14) 「태평광기」 속 재회형 서사는 총 13개로, 표에서 언급한 고사 외에 張禹, 袁無忌, 顏潛, 桓道潛, 韋氏子, 崔書生, 長洲陸氏女, 韋璜, 韓重, 李章武, 王坤고사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애정형 서사의 대표성을 고려해 감정적 유대의 지속성과 결합의 한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정충」과 「이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15) 周瀟, 「論《剪燈新話》中的“人鬼戀”及其文化意義」, 『東方論壇』, 青島大學師範學院, 03, 2014

16) 「桓道潛」, 『太平廣記』卷15, p48, 中華書局, 2000.

이는 단순한 재회의 의미를 넘어서,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애정의 지속성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다. 「정충」 고사에서 귀신이 되어 나타난 여인은 차를 요청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행위를 통해, 생전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차 한 잔이라는 일상적 행위로 전달하며 정서적 결속을 완성한다. 특히 자녀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은, 죽은 이후에도 모성적 감정이 지속됨을 드러낸다. 이는 귀신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감정의 연속성과 윤리적 판단 능력을 지닌 주체로 그려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영」 고사에서는 귀신이 된 여성이 인간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실제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서사가 전개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감정의 지속을 넘어, 귀신과 인간의 현실적 결합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여인의 실체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그녀는 인간 세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다. 이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현실에서 좌절된 결합 욕망이 환상적으로 실현되었다가, 끝내 사라지는 운명을 갖는다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실제로 「이영」 고사에서 여성귀신은 자식을 출산하는 등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귀신의 존재는 일상 속에서 점차 불안정해지고, 결국 현실의 경계를 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 이는 욕망이 실현되는 동시에 좌절되는 이중 구조로서, 인귀연애형 서사의 핵심적 긴장을 보여준다.

명혼형 서사¹⁷⁾에서는 귀신과 인간의 결합이 단순한 감정의 지속을 넘어서, 죽음을 초월한 서약과 정서적 연합으로 형상화된다. 이 서사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혼인이나 사랑이 사후 세계라는 환상적 공간에서 실현되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현실의 제약을 넘어서고자 하는 감정의 완결성과 욕망의 충족에 대한 서사적 환상을 드러낸다. 예컨대 「계유」에서는 죽은 여성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혼인을 사후에라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미련이나 한의 표현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사랑이 환상 속에서 정당화되고 완성되기를 바라는 욕망의 투사로 해석된다. 이때 혼인은 개인적 감정의 해소를 넘어, 죽음을 경계로 억압된 감정이 환상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혼인을 허락받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양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이에 저승에서의 혼례를 치르고, 두꺼운 관을 마련하여 동쪽 교외에 합장하였다.

(蒙恩許嫁, 不勝其喜。今日故此親迎楊郎。”言畢, 昏暴卒。乃設冥婚禮, 厚加棺飾, 合葬於東郊。)¹⁸⁾

비슷한 구조는 「왕을」 고사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귀신과 인간이 저승에서 결혼을 이루며, 죽음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상징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명혼형 서사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 현실의 규범으로부터 배제된 감정과 결합의 욕망이 초월적 공간에서 실현되는 형식을 취한다. 결국 명혼형 서사는 억눌린 사랑의 욕망이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만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압과 욕망, 규범과 환상의 긴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문학적 구조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별형 서사¹⁹⁾에서는 귀신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거나 재회하지만, 결국 현실이라는 경계

17) 「태평광기」속 명혼형 서사는 총 5개로, 표에서 언급한 고사 외에 寶玉, 崔鹹, 崔茂伯 고사들이 존재한다. 「계유」와 「왕을」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혼인 관계와 생전의 한을 사후에서 해소하려는 초월적 의지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어, 명혼형의 주요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대표 고사로 선정하였다.

18) 「季攸」, 『太平廣記』卷14, p228, 中華書局, 2000.

19) 「태평광기」이별형 서사는 총 8개로, 표에서 언급한 고사 외에 沈警, 李叔霄, 唐儉, 呼延冀, 魏朋, 李茵 고사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다룬 「유즐」과 「이숙제」는 이별형 서사의 핵심인 만남의 일시성과 단절의 불가피성을 잘 보여주기에 대표 고사로 선정하였다.

를 넘지 못하고 이별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서사는 감정의 깊이와 애절함에도 불구하고, 귀신과 인간의 결합이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유즐」에서는 죽은 여성이 생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완전히 사라진다. 이 장면은 귀신과 인간이 재회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의 지속성이 현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점차 약화되어 소멸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그녀가 62세가 되어 소멸하는 설정은 귀신이 단순한 유령이 아닌 인간의 시간성과 현실성 속에서 점차 소멸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공존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유사한 서사 구조는 「왕광본」에서도 확인된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진 왕광본 앞에 그녀의 혼이 나타나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머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떠난다. 이별을 앞두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애정 어린 말을 남기며, 귀신과 인간의 사랑이 일시적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사람과 귀신은 그 길이 달라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으니, 이것이 더욱 한스러울 뿐입니다.”
(人鬼道殊, 不宜久住, 此益深恨。)20)

이처럼 이별형 서사는 귀신과 인간이 일시적으로는 서로를 인식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을지라도, 현실과 사후 세계가 완전히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만남은 결국 소멸로 귀결되는 일시적 환상의 구조임을 강조한다.21) 즉, 이 유형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감정과 결합의 욕망이 환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실현되지만, 그 실현은 지속될 수 없다는 ‘욕망의 불완전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애정형 서사에서 여성귀신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남성의 감정적·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존재로 형상화되며,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난 이상적 연인의 모습을 구현한다. 현실의 여성들은 신분과 윤리적 규범에 의해 통제되었지만,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사회적 구속에서 자유로우며, 남성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바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구조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형성된 이상적 여성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남성의 연애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귀신과 인간의 사랑은 결국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남성들이 귀신과의 사랑을 꿈꾸면서도, 그러한 사랑이 현실 세계에서는 용인될 수 없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애정형 서사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구현하면서도, 사랑과 이별이라는 감정의 양면성을 동시에 형상화하며, 인귀연애형 서사의 정서적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해원형

해원형 서사22)는 단순한 연애 서사를 넘어서, 귀신이 인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억울

20) 「王光本」, 『太平廣記』卷14, p137, 中華書局, 2000.

21) 曾禮軍, 「《太平廣記》人鬼遇合故事的主題類型與文化蘊涵」, 『遼東學院學報』, 浙江師範大學江南文化研究中心, 15, 2013.

22) 해원형 서사는 15개로, 표에서 언급한 7개의 고사 외에 糜竺, 郝惟諒, 廬江馮媼, 唐儉, 馬震, 劉照, 王驍之, 唐珣 고사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선정한 사례들은 문학을 통한 해원, 귀신의 도움을 통한 긍정적 영향, 귀신과 인간의 협력을 통한 한의 해소 등 다양한 서사 구조를 통해 해원형의 핵심적 특성을 가장 입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

한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유형에서 귀신은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억울함이나 한을 인간에게 알리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하며, 그 방식은 문학적 표현과 상징적 행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정경라」, 「양온중」, 「장하」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 문학적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환기하고 한을 풀어가는 서사 구조가 전개된다. 이때 문학은 현실과 사후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귀신은 시를 남기거나 글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한다. 그 결과 인간은 이를 통해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죽은 자의 감정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는 현실에서 억압되었던 감정과 목소리가 사후의 글쓰기라는 환상적 장치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감정 해소의 욕망이 문학적 행위를 통해 완성되는 구조로 읽을 수 있다. 또한 귀신이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조합」과 「호복지」에서는 귀신이 자신의 한을 해소한 뒤 인간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고 떠나며, 이는 해원이 복수를 넘어서 인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구조는 귀신의 존재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윤리적 또는 감정적 치유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한편, 「유봉거」와 「이적녀」의 서사는 귀신과 인간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해원 방식을 보여준다. 「유봉거」에서는 귀신이 인간을 유혹하지만, 이별을 택하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떠난다. 「이적녀」는 귀신과 인간이 연대하여 억울함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협력과 공감의 해원 구조를 드러낸다.

<표2> 「태평광기」 속 해원형 인귀연애 서사의 유형 및 특징

유형	제목	줄거리	특징 (비고)	권(卷)
해원형	鄭瓊羅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 문학을 통해 한을 품.	문학을 통해 억울함을 표출한 사례.	卷14
해원형	臧夏	한이 맺힌 여성이 시를 통해 존재를 드러냄.		卷14
해원형	胡馥之	귀신이 한을 풀고 인간에게 도움을 줌.		卷13
해원형	柳鵬舉	유혹한 여인이 죽고 다시 나타났으나 결국 떠남.		卷15
해원형	趙合	죽은 여인의 유골을 고향으로 옮겨주고 신비한 능력을 얻음.	귀신이 도움을 받은 인간에게 보답함.	卷14
해원형	楊蘊中	꿈에 나타난 여인이 억울함을 담은 시를 전해줌.	귀신이 시를 남겨 존재를 드러냄.	卷15
해원형	李勤	꿈속에서 부인의 혼을 만나 혼란에 빠지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卷14

이처럼 귀신과 인간이 협력하여 억울함을 해소하는 구조는, 해원형 고사가 단순한 복수 서사를 넘어서 감정의 교류와 서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형임을 보여준다. 귀신은 단지 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의 소통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주체로 그려진다. 특히 여성귀신의 해원 과정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적 서사 구조를 암묵적으로 강화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여성귀신은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니라, 남성의 정서적 개입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해원을 완성하는 존재로 설정되며, 이는 서사 내 남성의 역할을 중심화시키는 전형적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해원형 고사는 귀신과 인간의 관계를 응징과 피해자라는 대립 구도가 아닌, 감정과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유동적 상호작용의 구조로 재구성하며, 그 안에서 억눌린 욕망과 감정이 환상적 방식으로 해소되는 문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인귀연애형 고사는 단순한 초월적 사랑 이야기로 한정되지 않으며, 죽음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문학적으로 탐색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이 서사는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감정적 욕망과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귀신을 헌신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연인으로 형상화하여 남성 중심적 서사 안에서 여성 주체의 욕망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성귀신은 남성의 연애 판타지를 반영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주도하고 남성을 돕거나 보호함으로써 도덕적·사회적 제약을 초월하려는 행위자로 등장한다. 나아가 인귀연애형 고사는 명혼형과 이별형 서사와의 비교를 통해 초월적 사랑의 가능성과 동시에 그 한계를 함께 드러낸다. 명혼형은 죽음을 넘어서는 관계를 통해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지만, 결국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별형은 귀신과의 정서적 교류가 가능하더라도 생사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구조를 따른다. 반면 해원형 서사는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인간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정의 실현과 감정 해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인귀연애형 서사는 초월과 현실, 감정과 규범, 사랑과 죽음이 복합적으로 얽힌 서사 구조로, 당시 사회의 억압과 인간 내면의 욕망을 동시에 반영하는 문학적 공간으로 작동한다.

2) 파괴응징형

파괴응징형 서사에서 여성귀신은 억압된 감정과 욕망을 응축한 존재로 등장하며, 복수형과 유혹형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회 질서에 균열을 가한다. 복수형은 생전의 억울함을 명확한 응징 행위로 표출하는 구조를 가지며, 유혹형은 직접적인 원한을 넘어서 보다 확장된 방식의 파괴를 실행한다. 먼저 복수형부터 살펴보겠다.

(1) 복수형

<표3> 「태평광기」 속 복수형 파괴응징 서사의 유형 및 특징

유형	제목	줄거리	특징 (비고)	권(卷)
복수형	王文明	죽은 부인이 원혼이 되어 남편과 여종을 저주해 몰살시킴.	가족 전체가 몰살	卷13
복수형	呂順	원혼이 재혼한 남편과 새 아내를 저주해 결국 죽게 만들.		卷13
복수형	鄭奇	귀신과 함께한 남자가 극심한 복통 끝에 사망하게 됨.		卷13

복수형 고사²³⁾는 생전에 억압받았던 여성의 감정과 욕망이 사후 귀신의 형태로 표출되며,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하고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는 서사 구조를 지닌다. 「왕문명」의 서사는 대표적인 복수형 고사로, 정신분석학의 ‘반복 강박’ 개념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왕문명의 부인은 생전 남편이 여종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자신을 배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녀는 사후에 귀신이 되어 원령으로 등장하며, 남편과

23) 복수형 고사는 총 9개로, 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華妃, 胡熙, 王垂, 袁乞, 楊準, 何四郎 고사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선정한 세 가지 고사는 복수형 서사의 주요 특징인 억압된 감정의 귀신화, 성적 욕망의 실현,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응시를 서사적으로 집약하고 있어, 복수형 고사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였다.

여종에게 응징을 가한다. 이에 대해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왕문명은 이전에 부인의 부리던 여종을 사랑했는데, 그녀는 임신하여 해산날이 가까웠다. 부인의 장례를 치르는 날, 왕문명은 여종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묘소로 갔다. 장례 대열이 떠나자마자 부인이 곧장 문으로 들어와 여종을 때렸다. 나중에 왕문명의 딸들이 부친을 위해 밥을 짓고 닭을 잡았는데, 이미 털을 뽑고 깨끗이 씻고 난 후에 닭이 갑자기 [살아서] 뛰어오르더니, 목을 치켜세우고 길게 울었다. 왕문명은 얼마 후 죽었으며, 아들들도 연달아 죽었다.”

(文明先愛其妻所使婢，婢身將產。葬其妻日，使婢守屋，餘人悉語墓所。部伍始發，妻便入戶打婢。其後諸女爲父辦食，殺雞，剝洗已竟，雞忽跳起，軒首長鳴。文明尋卒，諸男相繼哀亡。)²⁴⁾

당시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 구조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은 죽은 뒤 귀신이 되어 응징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며, 이는 무의식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억압의 형태로 읽힌다. 이러한 분석은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 개념이 적용된 사례로, 생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사후 귀신의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신이 된 여성은 남편과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생전에 침묵했던 감정의 재현과 응징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과정은 억눌린 여성의 무의식이 사후의 귀신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구조로 해석된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정기」 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사에서는 여성이 죽은 후 귀신이 되어 남성을 유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서사가 전개된다. 이는 단순한 공포나 유혹의 서사가 아니라, 생전에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성적 욕망이 사후에 귀신이라는 형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었던 욕망이 환상 속 존재인 귀신을 통해 구현되며, 이는 당시 사회의 성적 규범과 억압 구조를 우회하여 감춰진 욕망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기」의 여성귀신은 억눌린 욕망의 환상적 실현체로 등장하며, 남성의 죽음을 통해 사회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로 작용한다. 이처럼 여성귀신은 단순히 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 억압된 감정과 욕망이 환상적 형상으로 되살아나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순」 고사는 복수형 고사를 여성학적 시각, 특히 보부아르의 ‘타자화’ 개념을 중심으로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생전 남편의 재혼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사망한 여순의 아내는, 자신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타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사후 귀신이 되어 반복적으로 무덤을 무너뜨리며 억압된 감정과 목소리를 표출하는 ‘주체’로 전환된다. 이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의 억압된 위치를 드러내고, 이를 서사적으로 전복하며 사회적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²⁵⁾ 이처럼 복수형 고사는 현실의 억압을 환상의 영역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서사 구조를 지니며, 귀신이라는 비현실적 존재를 통해 감춰진 욕망과 염원이 실현된다. 이는 단순한 공포담이 아닌,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메시지를 환상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달하는 서사적 장치로 작용한다.

24) 「王文明」, 『太平廣記』卷13, p727, 中華書局, 2000.

25) 熊九潤, 「唐代女性形象與社會訴求——以《太平廣記》中的女仙(神)、女鬼、女精怪爲中心」, 陝西師範大學中國史碩士學位論文, 2013.

(2) 유혹형

<표4> 「태평광기」 속 유혹형 파괴응징 서사의 유형 및 특징

유형	제목	줄거리	권(卷)
유혹형	吳祥	아름다운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떠났으나, 그녀의 집은 무덤이었다	卷13
유혹형	道德裏書生	아름다운 여인의 초대로 밤을 보냈으나, 시체가 가득한 석굴이었다.	卷14
유혹형	李赤	한밤중 찾아온 여인에게 홀려 글을 쓰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	卷14
유혹형	薛矜	한눈에 반한 여인의 얼굴을 벗기자, 흥측한 요괴가 드러났다.	卷14
유혹형	崔羅什	무덤 속 여인과 인연을 맺고, 10년 후 그녀의 부름에 죽음을 맞았다.	卷14

유혹형 고사²⁶⁾는 남성이 여성귀신의 유혹에 빠진 이후 맞이하는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혹을 받아들인 남성이 파멸에 이르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극단적 귀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며, 유혹을 도덕적 경계를 넘는 위험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최라집」에서는 10년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 여인을 기다리던 최라집이 ‘소식을 듣자마자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한 하녀가 나와 최라집에게 말했다. “아가씨께서 최랑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 최라집은 계속해서 여자와 함께 한나라와 위나라 당시의 일에 대해 논했는데, (...) 최라집이 평상에서 내려와 작별 인사를 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여자가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틀림없이 다시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 최라집이 정원에서 살구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의 소식을 알리러 왔습니다.” 잠시뒤에 그 사람이 떠나가자 최라집은 살구 한 개를 다 먹기도 전에 죽었다.”

(忽見朱門粉牆，樓閣相接，俄有一青衣出，語什曰：“女郎須見崔郎。” (...) 什遂前，什說林坐，其女在東坐，與什紆溫語，室內二婢焚燭，女呼一婢，令以玉鉤陳其前。什素有才藻，與燕議話，雖疑其非人，亦悅以好也。(…)什上馬行數十步，回顧，乃見一大家。什屈歷下，以馬不祥，遂躑躅，以環布施。(…)什在園中食杏，忽見一人雲：“報女郎信。”俄即去，食一杏未盡而卒。) ²⁷⁾

이처럼 유혹은 단순한 기대나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남성 주체가 자신이 걸땀된 욕망을 여성귀신이라는 환상에 투사하고, 그 환상이 무너질 때 생명의 위협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따른다. 「도덕리 서생」 역시 서생이 유혹에 빠져 하룻밤을 보낸 후 ‘겉에 있던 것이 차가운 시체였음을 깨닫고 며칠 후 숨을 거두었다’는 묘사를 통해, 현실과 환상이 혼재된 상황에서 욕망이 파국을 초래하는 서사 구조를 드러낸다. 이러한 고사들은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anima)’²⁸⁾ 개념으로도

26) 유혹형 고사는 총 25개로, 표에서 언급한 5개의 고사 외에 鄒濤, 鄭紹, 李鹹, 등 20개의 고사가 더 존재한다. 본 고에서 언급한 고사들은 각각 유혹의 극단적 귀결로서의 죽음, 정신적·육체적 손상, 미완의 감정으로 남는 그리움을 중심으로 욕망의 다양한 서사적 양상을 가장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있어, 유형별 대표 고사로 선정하였다.

27) 「崔羅什」, 『太平廣記』卷14, p25, 中華書局, 2000.

28) ‘아니마(anima)’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요소로, 자아와 무의식의 깊은 층을 연결하는 내적 인격이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이상화된 이미지를 투사하며 내면의 욕망과 마주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김혜정,

해석될 수 있다. 여성귀신은 남성 주체의 무의식 속 여성적 욕망이나 이상화된 여성상을 투사한 존재로 등장하며, 이는 내면적 충돌과 파멸의 계기를 형성한다. 즉, 귀신과의 만남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남성 주체가 내면의 무의식적 욕망과 마주하며 자기 정체성을 위협받는 심리적 과정이다. 또한 이 유형은 라캉의 욕망이론, 특히 ‘결핍의 구조’와 ‘욕망의 대상’ 개념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라캉에 따르면 욕망은 현실 속에서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항상 상징적 환상을 통해 구성된다.²⁹⁾ 이때 여성귀신은 남성의 결핍을 보완해줄 것이라 믿고 욕망을 투사하는 이상화된 존재로 작동하지만, 결국 그 환상이 현실과 충돌하며 파국을 맞이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유혹형 서사는 억압된 욕망이 환상 속 대상을 통해 실현되기를 갈망하지만, 그 욕망은 궁극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귀결되는 욕망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서사로 읽힌다.

둘째, 유혹에서 벗어나지만 정신적 혹은 육체적 피해를 입는 유형이다. 이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지 않지만, 유혹의 경험이 남성의 심신을 황폐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설궁」은 여인의 얼굴이 변하는 순간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이적」에서는 유혹 이후 이상한 글을 반복해 쓰다 정신이 붕괴된다. 특히 「이적」 고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강박적 반복’의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며, 유혹 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글쓰기 행위는 무의식 속 억압된 욕망이 강박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고사들은 유혹시 단순한 감정적 흔들림을 넘어, 무의식적 불안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표출하는 구조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유혹은 인간의 주체성과 이성을 무력화시키는 내적 위협으로 기능하며, 억압된 욕망이 현실 질서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균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예시로 볼 수 있다.

셋째, 유혹을 경험했으나 결국 살아남아 여인을 그리워하는 유형으로, 유혹이 처벌보다는 미완의 감정으로 남는 서사 구조이다. 「오상」에서는 하룻밤을 보낸 여인이 실은 사망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그리움과 허망함만이 남는다. 이 고사에서는 유혹이 끝내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흐리며, 남성의 내면에 정착된 상실과 감정의 흔적을 환상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유형의 서사는 유혹이 파멸이나 공포로 귀결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감정이 환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구현되었다가 사라지는 구조를 갖는다. 여성귀신은 남성 내면의 욕망과 결핍이 반영된 존재로, 현실에서 이를 수 없었던 미완의 감정으로 남는다. 이러한 서사는 유혹의 서정성과 감정의 결핍을 환상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내면적 공허와 이상화된 욕망을 드러낸다.

이처럼 유혹형 고사는 단순한 공포 서사를 넘어서, 현실에서 통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이 환상적 형상으로 실현되어 남성 주체를 파괴하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구조를 지닌다. 여성귀신은 외적 존재이자 내적 투사의 결과로서, 도덕적 경계와 심리적 균형을 시험하는 존재로 기능하며, 유혹형 서사는 욕망과 규범의 충돌을 환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한다. 정리하자면, 유혹형 고사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규제하려는 사회적 기제를 반영하는 서사로,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유혹을 둘러싼 도덕적 긴장과 규율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유혹의 주체이자 심판자로 나타나며, 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어떻게 억압되었는지를 서사적으로 드러내는 기제로 작용한다. 대부분 남성 작자에 의해 기록된 이 서사에서, 남성 주인공은 반복적으로 몰락하는 결말을 맞는다.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당시 남성들의 성적 불안, 도덕적 긴장, 그리고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여성귀신의 응징은 긴장과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욕망 절제의 교훈을 통해 남성 중심 질서의 복원과 통제를 정당화

「C.G.옉의 아니마/아니무스와 여성성」, 『정신분석심리상담』,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No.-, 2020.

29) 자크 라캉(Lacan Jacques), 『욕망 이론』, 서울:文藝出版社, 1994, p.19-20.

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3)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의 중첩 사례

중첩은 분류의 혼란이 아니라, 귀신 서사의 복합성과 유동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증거이다. 특히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의 중첩은 감정의 유대가 파멸로 이어지는 전환 구조를 통해, 귀신을 단순한 감정의 대상이 아닌 사회 윤리 질서를 재조정하는 행위자로 제시한다.

<표5> 「태평광기」 속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의 중첩 사례

유형	제목	줄거리	특징 (비고)	권(卷)
鄭奇	인귀연애형	파괴응징형	연애 관계 후 파멸, 정체 확인 없이 죽음에 이르는 구조	卷13
楊準	인귀연애형	파괴응징형	연애 후 귀신 정체 확인 → 저항 → 분노로 죽음 초래	卷14
王坤	인귀연애형	파괴응징형	연애 감정 후 귀신의 세계로 끌려가듯 파멸, 공포 유도	卷14

『태평광기』 속 여성귀신 서사 중 일부는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의 성격이 유기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들 고사³⁰⁾에서는 초기의 연애적 감정 교류가 후반부에 이르러 응징과 죽음이라는 파괴적 결말로 전환되며, 여성귀신의 다층적 존재성과 서사적 전략성이 강화된다. 대표적인 예로 「왕곤」 고사는 초기에는 죽은 여종과의 정서적 교감과 추억 회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장소가 무덤으로 밝혀지는 순간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결국 왕곤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전환 구조를 보여준다. 이 고사는 귀신이 처음에는 사랑받는 존재로 나타나지만, 점차 공포와 파멸을 유도하는 존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연애와 응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또한 「양준」에서는 남성이 귀신 여성과 정을 나누다 그녀의 정체를 인지하고 관계를 거절하면 서, 귀신이 분노하여 다시 나타나 남성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서사에서는 귀신이 애정을 나누는 존재에서 심판의 주체로 전환되며, 인간의 감정 거절이 응징으로 이어지는 교차 구조가 드러난다. 이는 귀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감정과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한편 「정기」의 경우, 아름다운 여인과의 동침 장면으로 시작되는 인귀연애형 전개는 이후 갑작스러운 신체적 통증과 죽음을 맞으며 파괴응징형으로 전환된다. 이 고사에서 사랑의 행위는 곧 죽음을 초래하는 응징의 기제로 작용하며, 귀신은 감정을 매개하는 동시에 남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처럼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의 중첩 사례는 사랑과 파멸이라는 정서적 극점이 하나의 서사 안에서 연속적으로 작동하며, 귀신이 애정의 주체에서 응징의 주체로 전이되는 감정의 전환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귀신이 단순한 감정의 대상이거나 초자연적 위협이 아니라, 인간 사회 내부의 윤리적 질서와 정서적 균형을 재조정하는 행위자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서사적 구조이자,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첩 구조는 단순히 두 서사 유형의 결합에 머무르지 않고, 서사의 다각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0)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의 중첩 사례 고사는 총 12개로, 표에서 언급한 고사 외에 長孫紹祖, 崔羅什, 崔鹹 등 9개의 고사가 더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의 특징이 유기적으로 교차하는 구조를 통해, 여성귀신의 다층적 존재성, 감정의 교류와 파괴의 전환성, 응징의 주체로서의 서사적 권력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鄭奇, 楊準, 王坤을 대표 고사로 선정하였다.

중첩된 고사들에서 귀신은 애정의 주체, 응징의 집행자, 감정적 판단자, 윤리적 심판자 등 복수의 역할을 교차 수행하며, 서사의 전개 또한 단순한 로맨스나 공포가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감정적 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는 서사 구조를 감정의 층위별로 입체화하며, 인물 간의 관계와 감정의 변화를 통해 독자에게 복합적인 정서 경험을 제공한다. 즉, 귀신의 존재는 단일한 기능에 고정되지 않고, 서사 내 역할과 감정의 구도가 유동적으로 재편되는 중심 축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첩을 중심 기능과 부차 기능의 서사적 결합으로 이해하며, 중심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유지하되, 그 안에 포함된 부차 기능의 역할과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유형 분류는 고정된 틀로서가 아니라, 서사의 다양한 작용 양상을 드러내는 분석적 프레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귀신 설화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으며, 인간과 죽음, 기억과 책임, 윤리와 감정이 뒤얹힌 서사적 장이다. 따라서 유형 분류는 그 복잡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중첩은 그 복잡성의 가장 극적인 증거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중첩과 다각화의 서사 구조는 현대 귀신서사의 모태가 되는 전통적 서사 전략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요재신편》이나 《호텔 텔루나》 같은 최근 드라마·영화 속 여성귀신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감정과 복수, 연민과 파괴가 공존하는 정서적 구조는 『태평광기』의 중첩 고사들이 마련한 서사 전략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루었으며, 본고에서는 그 가능성의 단초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태평광기』 ‘귀부(鬼部)’에 수록된 여성귀신 고사들을 대상으로, 귀신이 서사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감정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인귀연애형’과 ‘파괴응징형’,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중첩 사례로 서사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태평광기』 여성귀신은 단순한 초자연적 존재나 수동적 피해자가 아닌, 감정의 주체이자 사건의 기획자로서 능동적으로 서사를 이끄는 행위자임을 밝혀냈다.

특히 인귀연애형 서사는 여성귀신이 남성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생전 억압되었던 욕망과 감정을 초월적으로 실현하는 서사 구조를 보여주고, 파괴응징형은 도덕적 결함이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응징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재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두 유형이 중첩되는 서사에서는 사랑이 파멸로 전환되고, 감정과 윤리가 충돌하는 극적인 서사 흐름을 통해 여성귀신의 이중적 정체성과 감정의 역동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은 『태평광기』 여성귀신 서사가 단지 공포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의 여성관, 성적 윤리, 감정 구조를 반영하는 복합적 문화 상징체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귀신 서사는 감정의 억압과 욕망을 문학적으로 표출하고 해방하는 통로로 작용하며, 동시에 사회적 억압과 금기에 대한 은유적 저항의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또한 여성귀신 서사가 단순한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전에 표현되지 못한 감정과 억압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로 기능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포는 독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의 금기나 억압된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며, 여성귀신 서사는 이입과 해방, 공포와 위안이라는 감정적 양가성을 통해 독자와 시대를 관통하는 문

화적 공명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태평광기』의 여성귀신 서사는 고전문학 속 여성 주체의 재현 양상을 다층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며, 귀신이라는 존재를 매개로 당대의 정서와 윤리, 젠더적 긴장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태평광기』 외의 동시대 설화 자료와의 비교 분석, 혹은 유형 내 감정 구조의 세밀한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귀신 서사의 문학적, 문화사적 의미를 더욱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문학분과 I】 발표

송대의 道統意識과 시대정신의 역사문화콘텐츠 세계

김 현 정*

【목 차】

1. 머리말
2. 송대의 道統意識과 역사관
3. 경학과 역사의 해석
4. 역학과 사학의 조우
5.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의 합목적적 지평
6. 나오는 말

【 초 록 】

송대 사대부들은 內憂外患의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사명감을 안고 있었다. 사대부들은 각 시대의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면서도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의 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혁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송대 사대부들의 도통 의식과 역사관, 경학을 통한 역사 해석, 그리고 역학과 사학의 조우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사대부들은 變法을 통한 개혁과 변혁이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가운데 역사적 정신과 시대적 정신을 결합하여 국가 공동체의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시대적 과업에 접근함에 있어 역사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일종의 대화로서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이 교차하는 역사문화 콘텐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른바 신유학(Neo-Confucianism)은 역사철학의 지속 가능한 지평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지평 위에서 그들은 革故鼎新의 역사적 사명감과 經世致用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內聖外王의 이상적 목표, 특히 內聖의 내면적 세계를 심화해 나갔다.

【키워드】 도통의식, 역사정신, 역사철학, 시대정신, 역사문화콘텐츠

* 제1저자. 국립공주대학교 동양학 박사, 역사철학 전공 (england2015@naver.com)

1. 머리말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문화, 역사, 예술 등의 분야에서 창작된 결과물을 지칭할 때, ‘작품’이나 ‘문헌’ 보다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접근해 왔다. ‘콘텐츠’라는 용어는 문화, 역사, 예술 등의 분야와 관련된 원본 자료나 문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은 ‘콘텐츠’라는 상위 개념 아래에서, 문화의 실천, 역사의 해석, 예술의 행위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며, 이는 다시 narrative, storytelling, media, image 등과 같은 하위 개념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자면, historytelling은 역사적 사실과 서사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변형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가치의 관계에 따라, 역사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 속에서 각 시대의 가치 지향적 지평을 열어가며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과거의 시대는 현재에 축적되며 미래의 시대는 현재를 통해 열려간다.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전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필연적으로 맞물리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이 교차한다.

송대의 사대부들은 內憂外患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시대적 요청과 사명감에 직면하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사대부들은 역대에 걸쳐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전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개혁과 변혁을 추구해왔다. 그들은 유가의 전통적 사고에 의해 제약받고 그 한계에 갇힌 道義와 正義를 명분으로 삼는 사고 방식을 넘어, 국가의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역사철학의 영역이 형성되었다. 당시 變法이라는 개혁과 변혁이 실패와 기대 사이에서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사대부들은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을 결합하여 국가 공동체의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역사철학의 가치지향적 관점에서, 송대 이후 유가 철학의 특징인 이른바 신유학(Neo-Confucianism)은 革故鼎新的 역사적 사명감과 經世致用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內聖外王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유교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관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전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 속에서 道統 意識의 정통성을 모색하고 국가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개혁의 실질을 구현하며 經世致用的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중대한 과업은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을 아우르는 역사철학의 가치지향적 지평을 열어가는 데 있다.

2. 송대의 道統意識과 역사관

송대의 사대부들은 유학을 부흥하고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문화의 전통은 역사의 발전적 맥락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역사의 발전은 문화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道統 意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유가 이념의 절대정신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유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시대정신의 강령을 모색하며, 이 강령이 바로 유가정신의 항구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역사의 맥락 속에서 문화의 합당성을 찾아낸 결과이다.

道統 意識은 송대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는 역사의 서사에서 중요한 논제로 다뤄졌다. 道統의 統은 역사를 계승하는 統緒 또는 맥락을 의미한다. 도통 의식은 內

聖外王의 표방 속에서 內聖의 문제에 주목하며 유가의 계보를 탐구하였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장력으로 작용하며 도의 추락을 상징하는 내부적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도통의 重建은 유가의 정통성과 학문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 문화적 필수 전제가 되었다. 따라서 道統은 본질적으로 聖學의 전통적 흐름 속에서 송대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사대부의 정립이 선결해야 할 문제였다. 道統의 統은 역사를 계승한다는 의미의 統緒 혹은 역사적 맥락을 지칭한다.

당시 內憂外患의 급박한 정세는 사대부들의 의식세계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국내적으로는 范仲淹과 王安石 등이 變法운동을 전개하면서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국외적으로는 여진족과 몽골족의 위협과 침입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난세 속에서도 사대부들은 학파의 정통성과 학맥의 전승을 고집스럽게 중시하며 굳건히 지켜나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자를 비롯한 유가의 聖人을 존중하고 그 계보의 역사, 즉 聖人史觀에 입각하여 道統의 원류¹⁾를 추적하고 학문의 전형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²⁾ 특히 程朱學派는 理學의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고 이를 학문적 정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유가 경전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거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道統의 계보에서는 統의 정통성을 근거로 道의 권위성과 배타성이 정당화되었다. 그들은 학문, 사상, 문화 등 전반적인 활동을 총괄하고 규제하였으며, 나아가 인간의 의식마저도 규범화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은 내우외환이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을 아우를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과제는 역사적 重建과 시대적 전환의 양립 가능성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유가의 道統의 연속성³⁾과 正統의 통일성이 밀접하게 연관됨을 의미한다. 도통의 관념은 처음에 文官의 정치문화 속에서 송 왕조를 정당화하고 찬미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북방 이민족의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사대부들은 송대 문화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道統 意識의 사상적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3. 경학과 역사의 해석

역사의 서술은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다. 역사의 해석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의 법칙을 추출하고, 그 속에서 역사적 가치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역사의 실재와 이에 대한 서술 사이의 간격이 채워지거나 해소된다. 이 간격을 연결하는 고리는 역사적 사건들의 因果的 관계를 시간적 순서에 맞춰 서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敍事主義的(narrativistic) 해석을 통해 구성의 통일된 맥락을 창출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구체적 사건들의 연속적 전개 속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세계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재의 역사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다.

여기에는 역사가의 가치지향적 관점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란 서사주의적

1) 도통의 유래, 용법 및 역사적 맥락 등에 관해 蘇費翔/田浩, 『文化權力與政治文化 - 宋金元時期的《中庸》與道統問題』, 「附錄」, 中華書局, 2018, 209-231쪽 참조.

2) 예를 들어, 공자의 권위에 의존하는 학문적 경향 속에 『역전』을 공자의 저작이라고 생각하거나 『중용』을 공자의 손자인 子思의 저작이라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漢代의 학문은 도통의 계보에서 제외시켰다. 歐陽修, 蘇軾, 葉適 등은 한대의 학문을 비판하면서 유가경전에서 모순되거나 상충된 내용이나 가치에 의문을 가지면서 비판하였다.

3) 주희가 『中庸章句』의 서문에서 제시한 유가의 정통적 계보는 堯, 舜, 禹, 商湯, 文王과 武王, 孔子, 顏回와 曾子, 子思, 孟子, 二程(程顥와 程頤)이다. 여기에는 漢代의 董仲舒와 같은 인물은 빠져있다.

맥락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로부터 역사적 가치를 조망하는 歷史觀⁴⁾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역사가의 관점을 통한 역사 서술의 해석 방법론은 서사주의적 맥락화에 기반한 역사 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사주의적 맥락화는 인간의 행위성, 시간성, 공간성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서술의 논법이다. 역사 콘텐츠의 서술 논법을 통해 역사의 해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상호 대화를 시도한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건의 다양한 면모를 탐색할 수 있으며 시대정신에 기반하여 그 본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 해석은 역사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구성해 가는 역사 콘텐츠의 차원을 지니며, 역사철학의 지속 가능한 지평을 한층 더 폭넓고 심화된 방식으로 확장시킨다.

예를 들어, 孔子라는 인물을 해석할 때에는 실재로서의 공자와 역사 속에 구성된 공자, 즉 ‘역사의 공자’가 구분될 수 있다. 실재의 공자는 그의 생애, 행적, 업적 등 사실적 내용과 관련된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孔子像을 의미한다. 반면, 역사의 공자는 후대의 기억과 상상에 의해 재구성된 변형된 공자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시대적 요청이나 시대정신에 따라 다양한 孔子像이 만들어질 수 있다.⁵⁾ 또 하나의 예로 秦始皇을 거론할 수 있으며, 그는 역사 해석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재구성되어 왔다. 당시 진나라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실재의 진시황 외에도 제2, 제3의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가상의 역사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처럼 서술로서의 역사는 구성의 통일적 맥락화를 통해 끊임없이 스토리텔링 기반의 역사 콘텐츠를 생성해 나간다. 즉 사건이나 인물의 진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과 요청에 따라 역사정신을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역사의 해석은 시대마다 복잡다단한 상황과 다양한 조건의 가능성 위에 열려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사실에 근접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과적인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해낸다. 역사철학은 이러한 가능성의 문제를 방법론적 차원에서 다룬다. 그 방법론에서 전제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역사적 양립 가능성, 즉 필연성과 우연성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역사에서도 필연성과 우연성은 양립 가능한 요소로 존재한다. 이러한 양립 가능성의 틀 속에 서, 역사철학은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이 교차하는 최적의 지점을 모색한다.

역사의 해석은 역사적 사실을 서사적 이야기로 구성하여 의도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기능한다. 이른바 역사문화콘텐츠에서는 역사적 사례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역사 서사를 폭넓게 창출해 나간다. 이러한 역사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례에 관한 풍부한 콘텐츠의 소재를 유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을 시사적으로 결합해낸다.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는 역사의 通時性和 시대의 共時性이 교차하는 통일된 맥락 속에서 역사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이러한 역사문화콘텐츠는 과거에는 사학의 학문적 영역에 국한되었던 역사 서술을, 이제는 역사철학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

4. 역학과 사학의 조우

역사문화콘텐츠는 전통적으로 經學과 史學, 철학과 사학, 易學과 사학이 상호 연결된 관계속에서

4) 여기에는 정통사관, 성인사관, 영웅사관, 민족사관, 식민사관 등이 있다.

5) 王學典, 「導論, “歷史”是“往事本身,”也指“對往事的記錄”」, 王學典 主編, 『史學引論』, 北京大學, 2008, pp.12-13.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철학의 존재와 가치, 역사의 사실과 가치, 그리고 역학의 판단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들 분야의 상호 연계 속에서 특히 역학의 판단과 사학의 사례가 만나는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易學의 이치를 밝히는 데 史學의 정신을 활용하거나 史學의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는 데 易學의 번역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역사의 해석에 해당한다. 역사의 해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대화이다. 즉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공간에 적용되면서 현재의 흐름을 이끌고 동시에 미래의 전망을 열어 둔다. 이러한 대화는 역사적 사실을 서사의 이야기로 재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사문화콘텐츠의 영역을 확립하게 된다.

남송 시대에 경학의 발전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 시대는 북송 시대보다 憂患意識이 더욱 깊어지고 대중화되었다. 사대부들은 우환의식과 經世致用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의존하였으며 그 안에서 역사적 교훈을 추구하였다. 지식층은 사학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인식과 문제의식을 표명하며, 이를 통해 역학과 사학이 만나는 통합적인 지평을 열어갔다. 당시 경학은 경전의 의리를 해석하는 경향이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학은 그 특성상 시대적 요청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경학과 사학이라는 두 가지 영역은 송대라는 독특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났다. 특히 引史證易의 서술 방식은 송대 사회가 직면했던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식 속에서 정치적 이상과 경학의 변천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정이천의 『程氏易傳』에서는 引史證易의 서술 방식과 明易達史의 본체론적 논법을 통해 역사적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이는 李光, 楊萬里 등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에 의리역학의 영역을 史事易學의 경향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⁶⁾ 남송 시대에는 특히 의리역학의 사사역학적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이천의 역학에서는 『주역』의 義理的 해석을 통해 變易의 원리를 사회의 時代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역학과 사학의 접점인 引史證易의 방법은 이들 간의 내재적 연관성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통찰하는 데 중요한 통로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즉 역사적 사례를 통해 『주역』의 이치를 해명하고 반대로 그 이치를 통해 역사정신에서 도출된 교훈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후대에 역사적 인식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한편, 역사정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리역학의 방법론은 경학, 역학, 사학 간의 상호 연계성과 통합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전제는 역사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의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역사 인식의 대상이 무엇이며, 역사 의식의 주체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식과 의식의 상호 관계를 통해 패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와 직결된다. 『주역』에서는 복희, 문왕, 공자 3명의 성인 혹은 복희, 문왕, 주공, 공자 4명의 聖人을 중시한다. 이른바 의리역학은 역학의 원리를 성인의 역사적 행적과 업적에 기초하여 해석하며, 이러한 해석은 성인사관의 관점에서 사유되고 발전하였다.

유학자들은 경전 속 義理를 해석하는 가운데 역사로부터 경험과 교훈을 길어 올렸고 그것을 토대로 시대를 다스렸고 나라를 경영하는 치국의 도리를 모색하였다. 특히 정이천의 정치사상은 그 이념적 기초에 있어 맹자의 仁政論과 王道論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으며, 이를 시대적 현실에 맞추어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정이천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仁政의 기초가 군주의 마음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군주의 정직한 마음을 治道の 근본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천하

6) 續曉琮, 『南宋史事易學研究』, 人民出版社, 2016, p.55.

의 治亂은 결국 군주의 仁의 덕성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군자의 도덕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해석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그는 폭정과 霸道를 거부하고 仁政에 바탕을 둔 王道정치를 존중하였다.

정이천은 다른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堯舜시대의 太平治世를 이상적인 大同사회로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卦名의 강령 속에서 卦象과 卦爻辭의 의미 있는 관계를 해석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義理역학의 관점에서 聖人史觀을 수용한 것이다. 유가의 경전에는 성인의 활동과 공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역사적 경험의 사례로 삼아 그 안에서 계도와 교훈의 강령을 도출해낸다. 따라서 경전을 해석하는 것은 곧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며 역사의 흐름을 이끄는 주체는 경전 속 성인로서의 주체이다. 따라서 경전은 성인의 역사이며 역사는 경전의 내용을 반영한 실천적 현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이천은 유가의 경전, 특히 四書의 관점으로써 『주역』의 경문과 전문을 해석하였다. 이는 의리역학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주역의 해석을 유가의 이론적 틀 속에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경전의 의미를 시대적 요구와 결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에는 성인의 도 네 가지가 있다.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숭상하며 행동으로써 하는 사람은 그 변함을 숭상하며, 기물을 만드는 사람은 그 상을 숭상하며, 점치는 사람은 그 점을 숭상한다. 길흉이 줄어들고 커지는 리, 나아가고 물러나며 생존하고 망하는 도는 말에 갖추어져 있으며, 말을 미루어 패를 고려하여 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과 점이 그 속에 있다.⁷⁾

패효사는 길흉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사건이나 상황이 처음에는 작거나 불리하게 시작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장되거나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치를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통해 사물의 변화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일어남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占筮는 곧 인간 삶에 있어 예측과 판단의 통로로 기능하는 것이다.

5. 송대의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의 합목적적 지평

漢代 이후의 유교사회는 시대마다 현재의 현실 속에서 과거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전망을 아우를 수 있는 개혁과 변혁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점에서 역사철학은 그 사유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宋代사회의 시대적 과업 또한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다. 개혁과 변혁의 성공과 좌절이 엇갈리는 격동의 시대에 사대부들은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의 통합을 통해 국가공동체가 당면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신유학(Neo-Confucianism)은 역사철학의 지평에서 역사정신으로서의 혁고(革故)의 의지를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서의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천적 지향을 탐구하였다.

송대는 내외의환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는 위축되었으나,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왕성한 발

7) 『河南程氏文集』, 「易傳序」, “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尚其辭, 以動者尚其變, 以制器者尚其象, 以卜筮者尚其占. 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備於辭, 推辭考卦, 可以知變, 象與占在其中矣.”

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송대는 경학에 대한 해석의 심화와 함께 역학의 사유 또한 깊이를 더해 고도로 정립된 시대로 평가된다. 사대부들은 유가 경전을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들은 육경 가운데서도 특히 『주역』과 『춘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주역』의 卦爻辭는 聖人の 업적과 공적을 통해 인간의 도리와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고, 『춘추』의 역사적 사례는 성인의 계도와 교훈을 토대로 정치적 도리와 사회적 변화를 제시한다. 그들은 ‘경학이 곧 역사’라는 인식을 근거로 역학과 사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였다. 그 방법은 卦爻辭의 서사를 해석하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열거하여 논증하는 것이다.⁸⁾ 이와 같은 서사적 해석과 역사적 논증을 통해 그들은 역학의 지혜를 근거로 사학의 지식을 확장하며 역사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하였다.

특히 經世致用의 학풍과 擬古變經의 사조가 경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疑經, 變經, 易經과 같은 용어들만 보아도 경학의 학문적 분위기가 매우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들은 이러한 풍조에 동참하여 역사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들은 憂患意識과 經世致用의 시대정신에 따라 사회 개혁과 혁신을 목표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찾으려 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역사는 모두 因果的 관계에 기반하여 시간의 不可逆性和 非重複性を 특징으로 한다. 자연의 역사에서는 원인이 존재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반면에 인간의 역사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객관적 가능성으로 제시되며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역사는 결정론의 범주 내에서 진행되는 반면 인간의 역사는 결정론과 선택론이 교차하는 궤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궤도 속에는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이 교차하며 형성하는 하나의 변용된 시간성이 시간성이 존재한다. 인간은 不可逆的 시간의 굴레에 얽매이면서도 可逆的 시간의 궤도를 연장해간다. 이러한 변용된 시간적 궤도에서 역사철학의 지속가능한 지평이 확장된다.⁹⁾

역사철학은 ‘과거를 의미하지 않는 과거’의 내용을 지닌다.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은 이미 발생하여 객관적 사실로 고정된 만큼, 그 자체로는 불변적이고 역사적 실재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역사가에 의한 역사의 서술이 이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고정된 표본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살아 움직이는 개방적 구조 속에서 불확정적인 역사성과 시대성이 긴밀히 결합된 역동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역사가란 자신의 주관적 선호도에 따라 역사적 자료를 선택하고 가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제나 줄거리, 그리고 서술의 취지 등도 의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존재다. 그는 역사적 사실과 서술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역사 전개 of 법칙성을 도출하고, 그 속에서 역사정신의 보편적 원리를 모색한다. 그렇다면 역사의 서술이란 단순한 과거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의미하지 않는 과거’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를 의미하지 않는 과거’라는 말은 역사철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시사한다. 서술의 역사는 과거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과 歷史觀 또는 역사의식과 관련된다. 역사는 因果 관계에 따른 시간적 순서를 특징으로 한다. 역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의 연속적 관계를 설정한다. 역사가 과거의 현재라면 현재는 미래의 역사이다. 또한 과거가 확정된 역사라면 현재는 진행 중인 역사이고 미래는 다가올 역사이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간은 사실에 있어 不可逆的 시간성을 지니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可逆的 시간성도 지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거의 불가역적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 과거의 가역적 시간을 되새긴다. 따라서 서술의 역사에서 不可逆的 시간이 可逆的 시간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역사의 사실과 가치가 통합된다. 이러한 통합적 차

8) 林忠軍, 『易學源流與現代闡釋』, 上海古籍, 2012, pp.251-267.

9) 김연재, 「양만리의 誠齋易學과 革故鼎新의 역사콘텐츠 - 시대와 역사의 變奏」, 『철학논총』 제115집 제1권, 2024, pp.25-29.

원에서는 시대정신과 역사정신이 어우러져 역사철학의 지속 가능한 지평이 열려 있다. 그 지평에서 비로소 역사정신의 보편적 원리와 같은 가치 지향적인 목표를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의 역사는 과거의 기억이지만 ‘과거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 과거’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6. 나오는 말

역사의 해석은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이 만나는 과거, 현재, 미래 사이를 오가는 일종의 대화이다. 그 대화에서 과거의 시간성은 현재의 공간화로 전환되며 시간의 공간화를 통해 역사를 현재화하는 통로가 열려 있다. 역사의 해석은 역사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구성하는 역사 콘텐츠의 차원을 지닌다. 역사문화콘텐츠의 관점을 통해 역사철학의 영역이 더 넓고 깊이 있게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정이천의 역사철학적 세계는 역사의 선순환적 발전을 바탕으로 국가공동체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는 자연계가 진화하는 데 생명의 이법이 작용하는 것처럼 사회가 발전하는 데 天理의 이법이 작용한다고 본다. 천리의 이법은 역사적 사명감을 정당화하고 시대적 책임감을 합리화하는 통치 이념의 가치 지향적 강령에 해당한다. 그것은 시대적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의 창조적 역량으로 발휘된다. 그는 천리의 이법에 따른 서사주의적 맥락 속에서 역사의 因果論的 법칙을 隨時變易의 방식으로, 역사의 本體論的 원리를 體用一源의 논법으로 접근한다. 여기에서 역사정신과 시대정신을 아우르는 理史統一의 역사철학적 지평을 조망할 수 있다.

역사철학의 세계에서 역사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속적 과정이다. 그것은 不可逆的인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각 계기마다 可逆的으로 활용한다. 인간은 不可逆的인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계기마다 可逆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으로 삼는다. 이러한 시간적 경험에서 주목할 점은 역사의 可逆的 시간성이다. 그것은 변화하는 상황 속의 사실들 속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 움직인다. 인간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不可逆的 시간성을 인지하고 이를 시대정신의 흐름에 따라 可逆的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간다.

【중국문학분과 II】 발표

林希逸《莊子口義》論蘇軾與莊子

簡 光 明*

【목 차】

1. 前言
2. 論《莊子》對蘇軾文學的影響
 - 1) 東坡一生文字只從《莊子》悟入
 - 2) 蘇軾〈異鵲詩〉與莊子〈馬蹄〉「至德之世」相似
 - 3) 蘇軾「人生識字憂患始」與〈肱篋〉「焚符破璽」、「剖斗折衡」皆憤世之辭
 - 4) 蘇軾形容畫竹近於〈田子方〉「解衣槃礴」
 - 5) 蘇軾「逝者如斯而未嘗往」有見於〈知北遊〉「扁然而萬物自古以固存」
 - 6) 蘇軾〈稼說〉仿〈徐無鬼〉「長梧封人」寓言
3. 蘇軾〈稼說〉仿〈徐無鬼〉「長梧封人」寓言
 - 1) 莊子陽擠陰助孔子之說
 - 2) 辨《莊子》之真偽
4. 結語

【 초 록 】

莊子在中國文學史與思想史上均占有一席之地。北宋以前的文學家常表示對於《莊子》的喜愛，可惜在《莊子》注疏中，並未看到有注家提及。歷來高士皆將《莊子》視為思想之書，不論「義訓」或「索隱」，都是就思想的闡釋而言，並未能從文學觀點去注解《莊子》。宋代開始從文辭的角度注解經典。南宋林希逸繼承艾軒一派論文學血脈的傳統，使得《莊子口義》成為第一本從文學觀點注解《莊子》注疏。林希逸論《莊子》的文字血脈舉蘇軾為例最多。蘇軾讀《莊子》，自言莊子道出其口不能言的見解，故林希逸指出「東坡一生文字只從此(《莊子》)悟入」、「東坡言因讀《莊子》而悟作文之法」，實有依據。林希逸論《莊子》對蘇軾文學的影響，整體而言，能夠就莊子思想與蘇軾文學的契合處立論，確實有所見。林希逸論蘇軾〈莊子祠堂記〉對《莊子》的解讀，主要有二：(一)莊子陽擠陰助孔子之說，(二)辨《莊子》之真偽，林希逸大方向繼承蘇軾的觀點，細節上略有修正。林希逸開始從文學觀點注解《莊子》的視野，開啟南宋以後以文學觀點注解《莊子》的風氣，其論蘇軾與莊子為文與思想的契合，也為後代「以文評莊」的注家所繼承。

【키워드】 林希逸, 莊子口義, 蘇軾, 莊子

* 제1저자. 臺灣屏東大學 中文系 教授 (kmchien@gmail.com)

1. 前言

莊子是先秦時期重要的文學家與思想家，在中國文學史與思想史上均占有一席之地。從中國學文史的發展來看，歷代文士受莊子思想啟迪者眾，阮籍〈達莊論〉說莊周：「述道德之妙，敘無為之本，寓言以廣之，假物以延之，聊以娛無為之心而逍遙於一世。」嵇康〈與山巨源絕交書〉說：「老子莊周，吾之師也。」陶淵明〈擬古〉說：「路邊兩高墳，伯牙與莊周。此士難再得，吾行欲何求。」唐代白居易〈讀莊子〉說：「去國辭家謫異方，中心自怪少憂傷。為尋莊子知歸處，認得無何是本鄉。」韓愈〈進學解〉提到其文章所以能夠「閱其中而肆其外」的原因在於「沉浸醲郁，含英咀華」，從「上規姚姒」到「下逮《莊》《騷》」，可見《莊子》也是其創作的泉源之一。蘇軾〈送文與可出守陵州〉說：「逍遙齊物追莊周。」王安石〈無營〉說：「莊周吾所愛。」北宋以前的文學家常表示對於《莊子》的喜愛，他們的文學作品中常受到莊子的影響，可惜在《莊子》注疏中，並未看到有注家提及這一現象。

從《莊子》注疏的發展來看，《晉書·向秀傳》說：「莊周著內外數十篇，曆世才士雖有觀者，莫適論其旨統也，秀乃為之隱解，發明奇趣，振起玄風，讀之者超然心悟，莫不自足一時也。」可見從漢代到魏晉，才士將《莊子》視為思想之書，主要在論其旨統，「隱解」所闡發的言外之意，則可以使讀者思想受到啟迪，能夠超然心悟，自足於一時。唐代成玄英〈南華真經疏序〉說：「自古高士，晉漢逸人，皆莫不耽翫，為之義訓；雖注述無可間，然並有美辭，咸能索隱。玄英不揆庸昧，少而習焉，研精覃思三十年矣。依子玄所注三十三篇，輒為疏解，總三十卷。雖復詞情踈拙，亦頗有心跡指歸；不敢貽厥後人，聊自記其遺忘耳。」可見歷來高士皆將《莊子》視為思想之書，不論前人「義訓」與「索隱」的耽翫方式，還是成玄英的「心跡指歸」，都是就思想的闡釋而言。

就學術的發展而言從古文運動以後、文家論文，歸準於六經。所謂「文以載道」，雖以道為主，六經的文辭之美，也在古文家「因文以明道」的過程中被發掘並獲闡揚。六經成為文章最高的典範，諸子當然也就不必僅自義理上去尊崇，而可以從文辭的角度立論。此一影響，造成文人或經學家能夠從文學觀點來討論高文典冊，六經既能用以論文，《莊子》自然可以從文章的章法句法字法來說，此一趨勢，從宋朝開始，即已相沿成風，至宋朝晚期逐漸定型。¹⁾在如此氛圍之中，南宋林希逸把《莊子》也當作文學作品，欣賞其文辭之妙，探討其為文之法，細論其文字血脈，說明莊子對歷代文士的影響，實亦時勢所趨。這使得《莊子口義》成為第一本從文學觀點注解《莊子》注疏。²⁾

從林希逸的師承淵源來看，其「因樂軒而聞艾軒之說，文字血脈稍知梗概」(〈莊子口義發題〉)，艾軒一派以文藝見長，與南未道學家往往輕視文事大不相同，明代郭萬程說：「自道學興，辭命多鄙，光朝之門，獨為裴然。」³⁾林希逸因有師門之教，知文章血脈，而自負為「精論文者」，故於注解《莊子》時，不忘去闡明莊子的為文之法。所謂「文字血脈」實際上就是把文章當作人的身體，文章的結構就如同人體流通血液的脈絡，唯有掌握文章的血脈，才能欣賞到莊子的行文之妙。

林希逸論《莊子》對於文學家的影響，最常徵引的就是蘇軾的文學；蘇軾〈莊子祠堂記〉對於《莊子》有新穎的見解，常被林希逸所引用。故本論文以「林希逸《莊子口義》論蘇軾與莊子」為題，分析「以文評《莊》」的新方式。

1) 詳見龔鵬程，「細部批評導論」，《中國國學》，17期，1989.11.，pp.95-121。論文收入龔鵬程，《文學批評的視野》，大安出版社，1990。

2) 楊文娟認為，有意識地、系統地從文學角度解莊評莊，林希逸《莊子口義》乃濫觴之作。楊文娟，「林希逸《莊子口義》的散文評點特色」，《諸子學刊》，第三輯，上海古籍出版社，2009.12.，pp.321-340。

3) 李清馥，《閩中理學淵源考》，卷八。

2. 論《莊子》對蘇軾文學的影響

1) 東坡一生文字只從《莊子》悟入

林希逸在《莊子口義》的序文說明《莊子》是一部不可不讀的經典時，蘇東坡受到《莊子》的影響就是其中一個理由。林希逸說：

若莊子者，其書雖為不經，實天下所不可無者。郭子玄謂其「不經而為百家之冠」，此語甚公。然此書不可不讀，亦最難讀，東坡一生文字只從此悟入，《大藏經》五百四十函皆自此中紬繹出，左丘明、司馬子長諸人筆力，未易敵此，是豈可不讀。（〈莊子口義原序〉）

《莊子》的語言是「謬悠之說，荒唐之言，無端崖之辭」（〈天下〉），在其寓言之中，又多有批評孔子的言論，所以郭象〈莊子注序〉認為《莊子》荒誕不合常道（「不經」）；然而寓言只是「寄言以出意」（〈山木注〉），在莊子批評孔子的故事背後有其言外之意，若能夠「忘言以尋其所況」（〈逍遙遊注〉），就能夠了解《莊子》一書的主旨在「通天地之統，序萬物之性，達死生之變，而明內聖外王之道。」（〈莊子注序〉）因此才說《莊子》「不經而為百家之冠」。林希逸認同郭象的觀點，故以其論述甚為公道。

在郭象論點的基礎上，林希逸舉出三件事情說明不可以不讀《莊子》：一是從文學的觀點說，宋代大文豪蘇東坡一生創作的文章，都從《莊子》得到領悟而發展起來的；二是從宗教的觀點說，佛教《大藏經》五百四十函都是從《莊子》紬繹出來的⁴⁾；三是從史學的觀點說，左丘明與司馬遷的筆力不容易與莊子匹敵，那麼《莊子》的價值就不是《左傳》與《史記》所可以比擬。林希逸的觀點容或有過度讚揚之嫌，不過，就蘇軾而言，其文學確實與《莊子》有不可解之緣。《宋史》卷三百三十八〈蘇軾傳〉說：

比冠，博通經史，屬文日數千言，好賈誼、陸贄書。既而讀《莊子》，歎曰：「吾昔有見，口未能言，今見是書，得吾心矣。」

蘇軾讀《莊子》，覺得莊子所提到的思想都是自己說不出來的觀點，那麼，蘇軾所說出來的觀點難免受到莊子的影響。〈蘇軾傳〉裡，蘇軾的話，使得林希逸所謂「東坡一生文字只從此悟入」有所憑證。⁵⁾

2) 蘇軾〈異巢詩〉與莊子〈馬蹄〉「至德之世」相似

「至德之世」是莊子的理想國⁶⁾，人類與萬物和諧地共處在天地之間，〈馬蹄〉說：「至德之世，其行

4) 釋迦摩尼的時代早於莊子，不可能受到莊子的影響。林希逸的意思，主要是指禪宗思想來自《莊子》，而不是原始佛教思想受到莊子的影響，宋代的士人如朱熹、羅大經等，多有此類主張，顯見是當時普遍的觀點。

5) 林希逸注〈繕性〉「繕性於俗學，以求復其初；滑欲於俗思，以求致其明，謂之蔽蒙之民」說：「文字起語最難，如此喝起三句，方說古之治道者，真是好文字。東坡言因讀《莊子》而悟作文之法，履之而後知也。」（〈繕性口義〉卷5頁47）林希逸未舉蘇軾的作品說明其如何繼承莊子的起語，〈莊子口義發題〉所謂「東坡一生文字只從此悟入」，應該是指「悟作文之法」。

6) 「至德之世」在《莊子》出現三次，〈胠篋〉說：「當是時也，民結繩而用之，甘其食，美其服，樂其俗，安其居，鄰國相望，雞狗之音相聞，民至老死而不相往來。若此之時，則至治已。」此一描述明顯從《老子》●八十章來。〈天地〉說：「至德之世，不尚賢，不使能；上如標枝，民如野鹿；端正而不知以為義，相愛而不知以為仁，實而不知以為忠，當而不知以為信，蠢動而相使，不以為賜。是故行而無跡，事而無傳。」至德之世主要相對於儒家忠信仁義。〈馬蹄〉所描寫的景況，最具代表性。

填填，其視頗頗。當是時也，山無蹊隧，澤無舟梁，萬物羣生，連屬其鄉，禽獸成羣，草木遂長，是故禽獸可係羈而遊，鳥鵲之巢可攀援而闚。」林希逸注「至德之世」說：

山無蹊隧，路未通也。澤無舟梁，水路未通也。人各隨其鄉而居，自為連屬。一鄉之中，自有長幼上下相連屬也。禽獸羣居深山，去人尚遠，無害之者。草木各遂其生長，未有斧斤之禍也。羈係禽獸而遊，攀引鵲巢而闚，人與物相忘也。東坡《雜說》有「少時所居書室，鳥雀巢於低枝，桐花鳳四五日一至」，頗與此處相似，見《詩集》二十八卷〈異鵲〉詩注。以此觀之，上古之時必是如此。禽獸可與同居，萬物可與同聚，又安有君子小人之分？（〈馬蹄口義〉卷3頁59-60）

「異鵲」二字出於《莊子·山木》「莊周遊於雕陵之樊，睹一異鵲自南方來者，翼廣七尺，目大運寸，感周之類而集於栗林」。蘇軾〈異鵲〉描寫柯述（仲常）到漳州賑災，期間有兩隻喜鵲棲息在廳事，柯述離去，喜鵲送之。詩中有「家有五畝園，么鳳集桐花。是時鳥與鵲，巢穀可俯拏。」「主人若可信，衆鳥不我遐。」「仁心格異族，兩鵲栖其衙。」⁷⁾ 施元之注：

《東坡雜說》少年時所居書室前，有竹柏雜花叢生滿庭，衆鳥巢其上。武陽君惡殺生，兒童婢僕皆不得捕取。數年間，鳥雀皆巢於低枝，其鵲可俯而窺也。又有桐花鳳四五日一翔集其間，此鳥羽毛至為奇異難見，而能馴擾，殊不畏人，閭里間見之，以為異事，此無他，不伎之誠，信於異類也。有野老言，鳥雀去人太遠，則其子有蛇鼠狐狸鳴雀之憂，人既不殺，則自近人，蓋欲免此害也。由是觀之，異時鳥雀巢不敢近人者，以人為甚於蛇鼠之類也，苛政猛於虎，信哉！⁸⁾

鵲音寇，鳥卵也。鳥巢築於低枝，故得以俯窺其鵲。人無害鳥之意，若能信於異類，鳥不畏人，可以免除蛇鼠狐狸之憂，自然願意近人。施元之以蘇軾散文注解〈異鵲〉，林希逸熟讀《莊子》與蘇軾詩文，甚至蘇軾詩文之注解，故能順手拈來，點出其間的關聯。

3) 蘇軾「人生識字憂患始」與〈胠篋〉「焚符破璽」、「剖斗折衡」皆憤世之辭

〈胠篋〉論「聖人不死，大盜不止」，原因就在於聖人治天下，大盜竊天下：聖人為之斗斛以量之，大盜則並與斗斛而竊之；聖人為之權衡以稱之，大盜則並與權衡而竊之；聖人為之符璽以信之，大盜則並與符璽而竊之；聖人為之仁義以矯之，大盜則並與仁義而竊之。因此，得出的結論是：絕聖棄知，大盜乃止；擿玉毀珠，小盜不起；焚符破璽，而民朴鄙；剖斗折衡，而民不爭。殫殘天下之聖法，而民始可與論議。林希逸舉東坡之說為例，說明莊子這類的寓言屬於憤世之辭，往往過當。林希逸說：

擿玉毀珠，焚符破璽，剖斗折衡，皆是激說以結「絕聖棄知」之意，非實論也。殫殘者，毀削也，盡去聖人之法，民始純一，可與言道也，故曰「民始可與論議」，此皆憤世之辭。故人每以剖斗折衡，焚符破璽之事議之，其實即《老子》「不貴難得之貨，則民不為盜」之意，但說得過當耳。東坡曰：「人生識字憂患始」，豈欲天下人全不識字耶？⁹⁾

7) [宋]蘇軾，《東坡志林》，卷18，p.6。

8) [宋]施元之，《施注蘇詩》，卷28，p.15。蘇軾〈不伎之誠信於異類〉、〈記先夫人不殘鳥雀〉二文有相關記載，見《東坡志林》。

9) 「胠篋口義」，《莊子口義》，卷4，p.5。〈大宗師口義〉說：「莊子之所謂君子者，有譏侮聖賢之意在於其間，蓋以禮樂法度皆非出於自然，必剖斗折衡，使民不爭，而後為天之君子也。此亦憤世疾邪，而有此過高之論。」（《莊子口義》卷3

《老子·第三章》說：「不尚賢，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使民不為盜。不見可欲，使民心不亂。是以聖人之治，虛其心，實其腹，弱其志，強其骨；常使民無知、無欲，使夫智者不敢為也。為無為，則無不治。」所謂「為無為」就是「以無為為之」，具體的做法為：不尚賢，不貴難得之貨，不見可欲，而達到的效應則為：民不爭，民不為盜，使民心不亂，這就是「無不治」。在林希逸看來，撻玉毀珠，焚符破璽，剖斗折衡，就是「不貴難得之貨」，大盜乃止，小盜不起，民朴鄙，民不爭，就是「民不為盜」。就義理而言，其思想確實是一貫的。

蘇軾〈石蒼舒醉墨堂〉說：

人生識字憂患始，姓名粗記可以休。何用草書誇神速，開卷驚慌令人愁。我嘗好之每自笑，君有此病何年瘳。自言其中有至樂，適意無異逍遙遊。（《東坡全集》，卷2頁13）

「至樂」與「逍遙遊」皆為《莊子》的篇名，也是莊子的重要思想，可見蘇軾對《莊子》之熟稔。識字是知識累積的開始，智識則由知識轉化而來，然而「吾生也有涯，而知也無涯，以有涯隨無涯，殆矣」（〈養生主〉），在無窮無盡的追求知識過程中，人就會離生命的本質愈來愈遠，憂患也隨之日增。東坡與莊子不是要全天下的人都不識字，其意在於要人保持純朴的本性，《老子》所謂「使民無知、無欲」，就不會迷失在慾望的盲目追求中。因此，林希逸認為莊子〈胠篋〉與蘇軾〈石蒼舒醉墨堂〉都「說得過當」，都是希望「民始純一，可與言道」。

4) 蘇軾形容畫竹近於〈田子方〉「解衣槃礴」

〈田子方〉著名的「解衣般礴」寓言。宋元君將要畫圖。所有的畫師都來了，受命揖拜後，就站在一起，他們嘴裡咬著筆尖，手裡調著墨掃，還有一半在外面。有一個畫師後到，態度舒閑，沒有小步快走，受命揖拜，並不站在那裏，而是直接到畫室去了。宋元君派人去看他，正在解去衣服，箕踞盤坐。宋元君說：「可以了，他才是真正的畫師。」林希逸認為莊子關於畫家的形容，可與蘇軾形容畫竹子參看：

此言無心於求知，乃真畫者。東坡形容畫竹與杜詩曰「神閒志定始一掃」亦近此意。（〈田子方口義〉，卷7頁12）

林希逸所謂「求知」乃求知於人¹⁰⁾，亦即在眾人之間求得聲名榮譽。「解衣般礴」者乃「無心於求知」，不在乎外在的聲名，故為真畫者。相對而言，眾史有心於求知，不敢特立獨行，非真畫者。林希逸認為蘇軾形容畫竹與畫者解衣般礴相近，應指〈晁補之所藏與可畫竹〉：

與可畫竹時，見竹不見人。豈獨不見人，嗒然遺其身。其身與竹化，無窮出清新。莊周世無有，誰知此凝神。¹¹⁾

頁23)其論點與此相同，可以參看。

10) 林希逸〈林君合詩四六跋〉說：「學貴自知，求知於人，未必以情告我。」（《竹溪鬳齋十一藁續集》，卷13頁8）〈天下口義〉說：「物惟無知，則無是己之患，亦無容心之累，動靜皆順，故不離於理，不求知於人，欲終身而無譽，惟其無譽，所以無咎。」（《莊子口義》，卷10頁42）知於人則有譽，不求知於人則無譽，學貴自知，故不須求知於人。

11) 蘇軾〈文與可畫篋谷偃竹記〉同樣提到文與可畫竹：「竹之始生，一寸之萌耳，而節葉具焉。自蝸腹蛇蚓以至于劍拔十尋者，生而有之也。今畫者乃節節而為之，葉葉而累之，豈復有竹乎？故畫竹必先得成竹於胸中，執筆熟視，乃見其所欲畫者，急起從之，振筆直遂，以追其所見，如兔起鶻落，少縱則逝矣！與可之教予如此。」所謂「得成竹於胸中」，

文與可精神專注，見竹不見人，落筆時物我兩忘，不見人而遺其身，人與竹合而為一，故能其身與竹化。文與可從「不見人」開始，經過「遺其身」，最後「與竹化」，其實就是經過「凝神」、「物化」的過程，與道冥合，能夠掌握竹子真精神，從而讓清新的意境無窮無盡地在筆下展現。在林希逸看來，〈田子方〉中的真畫者能不拘形跡，展現自由的創作精神，這與蘇軾筆下文與可畫竹凝神而遺其身的意思相近。¹²⁾

林希逸認為杜詩「神閒志定始一掃」跟莊子形容〈田子方〉的真畫者、蘇軾形容文與可畫竹的意思相近。其實，該詩句不是杜甫的作品，而是王安石的作品，〈虎圖〉：「固知畫者巧為此，此物安肯來庭除。想當槃礴欲畫時，睥睨衆史如庸奴。神閒意定始一掃，功與造化論銛銖。」（《臨川文集》，卷5頁6）王安石的詩句本來就拿〈田子方〉「解衣槃礴」寓言來說明「虎圖」，故其意相近。郭象注〈田子方〉「是真畫者也」說：「內足者神閒而意定」（《莊子注》，卷7頁25），王安石「神閒意定始一掃」的「神閒意定」乃是用郭象《莊子注》語¹³⁾，而林希逸「神閒志定始一掃」中的「志定」應依郭象《莊子注》改為「意定」。

5) 蘇軾「逝者如斯而未嘗往」有見於〈知北遊〉「扁然而萬物自古以固存」

林希逸注〈知北遊〉「今彼神明至精，與彼百化，物已死生方圓，莫知其根也，扁然而萬物自古以固存。」說：

神明至精，言妙理也。百化，百物之化也。上彼字在天底，下彼字在物底，物之或生或死，其生也或方或圓，皆神明至精者為之，既已有矣，孰能究其根極之地，故曰物已死生方圓，莫知其根。扁然即翩然也，有去而不已之意，便是「逝者如斯」。萬物之化相尋而去，無所窮已，而其造化常存，東坡所謂「逝者如斯而未嘗往也」，若非有所見亦不能道及此。（〈知北遊口義〉，卷7頁22-23）

《老子》說：「有物混成，先天地生，寂兮寥兮，獨立而不改，周行而不殆，可以為天下母。吾不知其名，字之曰道，強為之名曰大，大曰逝，逝曰遠，遠曰反。」（〈二十五章〉）¹⁴⁾「道」具有「獨立而不改」的性質，永恆不變；道的運行是「周行而不殆」，周行是循環，由逝而遠而返正是循環，隨時都在變動。莊子對於「道」的理解繼承老子有關「道」不變與「道的運行」隨時在變的思想，〈知北遊〉中，「道」（造化、根）不變而常存，莫能究之，莫知其根；「道的運行」（百物之化、萬物之化），隨時變化，去而不已，無所窮已。蘇軾了解「道」與「道的運行」，〈赤壁賦〉說：

客亦知夫水與月乎？逝者如斯而未嘗往也，盈虛者如彼而卒莫消長也。蓋將自其變者而觀之，則天地曾不能以一瞬；自其不變者而觀之，則物與我皆無盡也，而又何羨乎！（《東坡全集》，卷33頁13）

蘇軾從「水」與「月」分別說明其「變」與「不變」，水從天而降，落到地面，流進海裡，蒸發之後又回到天空，

即「見竹不見人」，「其身與竹化」，可以參看。

12) 參考曾祖蔭《中國古代美學範疇》第二章形神論，臺北：木鐸出版社，1987年。徐復觀〈宋代的文人畫論〉說：「必須先有虛靜如古井水之心，然後能身與竹化，身與竹化，實際是竹在自己精神之內，呈現出活生生地竹，而將其表現出來」，「因為是虛靜之心，竹乃能進入於心中，主客一體。此時不僅是竹擬人化了，人也擬竹化了，此即《莊子》〈齊物論〉中的所謂『物化』。」（《中國藝術精神》，臺北：臺灣學生書局，1984年）。

13) [宋]胡仔《漁隱叢話後集》說「《藝苑雌黃》云：予頃與荊南同官江朝宗論文，江云：前輩為文皆有所本，如介甫〈虎圖〉詩語極道健，其間有『神閒意定始一掃』之句，為此只是平常語，無出處，後讀《莊子》『宋元君畫圖，有一史後至，僮儻然不趨，受揖下立，因之舍。解衣盤礴贏，君曰：是真畫者也。』郭象注：『內足者神閒而意定。』乃知介甫實用此語也。」（卷25頁3-4）

14) 王淮，《老子探義》，臺灣商務印書館，1985，p.104.

再落到地面，水是流動的，循環的規律卻是不變的；月亮從圓而缺而圓，就現象而言是變動的，就循環的規律而言是不變的。因此「自其變者而觀之」與「自其不變者而觀之」，才能了解現象與本質。從變的觀點來看，天地隨時在變動；從不變的觀點來看，人與物的生生死死維持天地的穩定循環，天地無盡，人與物也就無盡。¹⁵⁾

林希逸所謂「若非有所見亦不能道及此」，可以就蘇軾〈赤壁賦〉「逝者如斯而未嘗往也」而言，也可以說是就莊子〈知北遊〉「扁然而萬物自古以固存」而言，兩人對於「不變」與「變」的觀點均有所見，而且所見略同。

6) 蘇軾〈稼說〉仿〈則陽〉「長梧封人」寓言

〈則陽〉裡，長梧封人建議子牢：處理政事不可以粗心，治理百姓不可以草率。長梧封人的建議來自其耕種莊稼的經驗，鋤草輕率馬虎，得到的成果也就輕率馬虎；來年改變態度，深耕土地，勤於鋤草，得到的成果是稻禾繁茂，收穫豐盛。莊子聽到長梧封人對子牢的建議，覺得當時人治理形體與修養心性的道理也是一樣的：用粗疏魯莽的態度來面對，逃避自然，背離天性，泯滅真情，喪失精神，物慾罪惡就像萑葦、蒹葭蔽遮禾黍那樣危害人的本性，形體就會長瘡流膿。林希逸認為蘇軾也有這類的作品：

封人因耕而喻政，莊子又以喻學，東坡〈稼說〉實倣此也。……此一段所以戒世人之縱情慾而不知學道者，終必殺其身也。（〈則陽口義〉，卷8頁42）

耕種莊稼，處理政事，學習修道，雖然是三件事情，但是道理是相通的，用輕率馬虎的態度去面對，就會導致災禍，用謹慎認真的態度去面對，就能有豐碩的成果。長梧封人能夠從耕種莊稼聯想到處理政事，莊子則能夠運用到學習修道。蘇軾如何仿效莊子「因耕而喻政，又以喻學」的為文？〈稼說〉說：

曷嘗觀於富人之稼乎？其田美而多，其食足而有餘。其田美而多，則可以更休，而地力得完。其食足而有餘，則種之常不後時，而斂之常及其熟。故富人之稼常美，少秕而多實，久藏而不腐。今吾十口之家，而共百畝之田，寸寸而取之，日夜以望之，鋤耰鉅艾，相尋於其上者如魚鱗，而地力竭矣。種之常不及時，而斂之常不待其熟，此豈能復有美稼哉？古之人，其才非有以大過今之人也，其平居所以自養而不敢輕用以待其成者，閔閔焉如嬰兒之望長也。弱者養之以至於剛，虛者養之以至於充。三十而後仕，五十而後爵，信於久屈之中，而用於至足之後；流於既溢之餘，而發於持滿之末，此古之人所以大過人，而今之君子所以不及也。吾少也有志於學，不幸而早得與吾子同年，吾子之得，亦不可謂不早也。吾今雖欲自以為不足，而眾已妄推之矣。嗚呼！吾子其去此，而務學也哉！博觀而約取，厚積而薄發，吾告子止于此矣。子歸過京師而問焉，有曰轍、子由者，吾弟也，其亦以是語之。

蘇軾用富人與窮人在耕種莊稼上的差別，拿來說明古之人與今之人在為學上的差別。富人的田地多而肥沃，可以更休，保養地力，耕種及時，可以等莊稼成熟再收成，果實飽滿，收成有餘而且可以久藏；窮人的土地過度耕作，無法更休，耕種常不及時，還沒等到成熟就急著收割，果實不飽滿，收成不足而且無法久藏。古之人的學習就像富人的耕種，從容修養，所以能夠「信於久屈之中，而用於至足之後；流於既溢

15) 蘇軾「自其變者而觀之，則天地曾不能以一瞬；自其不變者而觀之，則物與我皆無盡也」應該是從〈德充符〉「自其異者視之，肝膽楚越也；自其同者視之，則物與我皆一也」轉化而來，蘇軾從「變」與「不變」的方面看，「變」者「異」，「不變」者「同」，可見其淵源應該來自《莊子》。

之餘，而發於持滿之末」，就像莊稼成熟才收成。蘇軾只說「今之君子所以不及也」，換句話說，今之君子就像窮人的耕種，可以省略不說。今之君子應該效法古之人，為學的態度應該要「博觀而約取，厚積而薄發」。

林希逸認為蘇軾因耕而喻學的為文方式仿自莊子〈則陽〉因耕而喻政，又以喻學，從論述的結構來看，非常有見地，顯然林希逸對於《莊子》與蘇軾文學作品都非常熟稔，才能發現蘇軾繼承莊子為文的脈絡。

3. 引用蘇軾〈莊子祠堂記〉對《莊子》的解讀

宋神宗元豐元年(1078年)，蒙縣令秘書丞王兢想要為先前大思想家莊周建祠堂，當時蘇東坡擔任江蘇徐州知州，文藝妙絕，名滿天下，王兢乃請求蘇軾寫一篇文章記述建造莊子祠堂之事。蘇軾寫了〈莊子祠堂記〉，立論大膽，觀念新穎，成為莊子學史的名篇。林希逸註解《莊子》，非常重視蘇軾的觀點。

1) 莊子陽擠陰助孔子之說

司馬遷《史記·莊子列傳》定位莊子思想的根本要旨歸於老子之言，莊子「詆訾孔子之徒，以明老子之術」，〈莊子傳〉是中國莊學史上最常被徵引的文獻，其論點受到相當廣泛的支持。蘇軾批評司馬遷只看到《莊子》的表層意涵，沒有看到深層意涵，〈莊子祠堂記〉說：

此知莊子之粗者，予以為莊子蓋助孔子者，要不可以為法耳。楚公子微服出亡而門者難之，其僕操箠而罵曰：「隸也不力。」門者出之。事固有倒行而逆施者，以僕為不愛公子則不可，以為事公子之法，亦不可。故莊子之言皆實予而文不予，陽擠而陰助之。其正言蓋無幾也。至於詆訾孔子，未嘗不微見其意。其論天下道術，自墨翟、禽滑釐、彭蒙、慎到、田駢、關尹、老聃之徒，以至於其身，皆以為一家，而孔子不與，其尊之也至矣。¹⁶⁾

《莊子》一書以「寓言」為表達方式，所謂「寓言」就是「言在此而意在彼」，用故事來表達思想，「言」是故事（言內之意），屬於表層的意涵；「意」是思想（言外之意），屬於為深層的意涵。蘇軾所謂「莊子之言」就是指「寓言」，將「言在此而意在彼」與「實予而文不予，陽擠而陰助之」搭配來看，所謂「不予」、「陽擠」（莊子詆訾孔子），屬於「文」，也就是表層意涵的「言」；所謂「予」、「陰助」（莊子幫助孔子），屬於「實」，也就是深層意涵的「意」。

蘇軾以自創的「楚公子微服出亡」寓言來說明莊子對孔子「陽擠陰助」，其對應關係是：僕人操箠打罵公子，是倒行逆施的事情；莊子詆訾孔子之徒，也是倒行逆施的事情。僕人操箠打罵公子，是為了助公子；莊子詆訾孔子之徒，也是為了助孔子。「以僕為不愛公子，則不可；以為事公子之法，亦不可」，意即：以莊子為不愛孔子，則不可；以莊子詆訾孔子之徒為事孔子之法，亦不可。

所謂「莊子詆訾孔子之徒」之說，在蘇軾看來，那是因為只讀到《莊子》的表面的意涵，而未了解深層意涵，所以批評司馬遷「知莊子之粗者」。「粗」就是表層意涵。就像看到僕人操箠罵楚公子就以為僕人不愛

16) 蘇軾著，孔凡禮點校，《蘇軾文集(第二冊)》，中華書局，1986年，p.347.

楚公子，那是只看到表面的動作，僕人操筆罵楚公子的真正用心是幫助楚公子出亡，同樣的道理，莊子詆訾(擠)孔子的真正用心就在於幫助(助)孔子。〈天下〉篇綜論天下道術，從墨翟、禽滑釐、彭蒙、慎到、田駢、關尹、老聃，甚至於莊子，都列一家，而孔子不列於一家，在蘇軾看來，那是莊子對孔子的極致推崇，此一觀點可以呼應莊子陰助孔子之說。

蘇軾從〈天下〉篇談莊子尊孔子，林希逸注〈天下〉首段，順著蘇軾的脈絡解說：

自「天下之治方術者多矣」至於「道術將為天下裂」，分明是一箇冒頭，既揔序了，方隨家數言之，以其書自列於家數之中，而鄒魯之學乃鋪述於揔序之內，則此老之心亦以其所著之書，皆矯激一偏之言，未嘗不知聖門為正也。讀其揔序，便見他學問本來甚正，東坡云：莊子未嘗譏夫子，亦看得出。(卷10，頁28)

〈莊子祠堂記〉所謂「莊子陽擠陰助孔子」與「莊子尊孔子之至」，林希逸將之濃縮成為「東坡云：莊子未嘗譏孔子」，「譏」其實就是詆訾。「陽擠陰助」，所以可以說「未嘗譏」；「尊孔子」，當然更是「未嘗譏孔子」。林希逸繼承蘇軾的觀點，進一步發揮：莊子的學問本來甚正，所以能夠知道聖門為正；既知聖門為正，當然不會譏孔子了。¹⁷⁾

2) 辨《莊子》之真偽

司馬遷〈莊子列傳〉說莊子：「作〈漁父〉、〈盜跖〉、〈胠篋〉，以詆訾孔子之徒，以明老子之術。」從〈漁父〉、〈盜跖〉的寓言來看，顯然有憑有據。蘇軾既然主張「莊子陽擠陰助孔子」與「莊子尊孔子」，勢必不能無視於這幾篇文章對於孔子的批判。〈莊子祠堂記〉說：

然余嘗疑〈盜跖〉、〈漁父〉，則若真詆孔子者。至於〈讓王〉、〈說劍〉，皆淺陋不入於道。反復觀之，得其〈寓言〉之意，終曰：「陽子居西遊於秦，遇老子。老子曰：『而睢睢，而盱盱，而誰與居。太白若辱，盛德若不足。』」陽子居蹴然變容。其往也，舍者將迎其家，公執席，妻執巾櫛，舍者避席，煬者避竈。其反也，舍者與之爭席矣。」去其〈讓王〉、〈說劍〉、〈漁父〉、〈盜跖〉四篇，以合於〈列禦寇〉之篇，曰：「列禦寇之齊，中道而反，曰：『吾驚焉，吾食於十漿，而五漿先饋。』」然後悟而笑曰：「是固一章也。」莊子之言未終，而昧者剿之以入其言。余不可以不辨。凡分章名篇，皆出於世俗，非莊子本意。

《莊子》一書，司馬遷〈莊子列傳〉說有十餘萬言，班固《漢書·藝文志》說有五十二篇，郭象《莊子注》則分為三十三篇，可見蘇軾看到的《莊子》是經過整理的，不是莊子的本意。蘇軾認為〈寓言〉與〈列禦寇〉本來是一篇，愚昧無知者將「真詆孔子」的〈盜跖〉、〈漁父〉與「淺陋不入於道」的〈讓王〉、〈說劍〉剿之《莊子》。蘇軾的觀點在莊子學史上引起非常多的評論，支持者眾，批判者也不在少數。

林希逸接受蘇軾的觀點，在〈《莊子口義》〉中進行篇章的辨偽：

東坡謂〈讓王〉以下四篇，非莊子所作。此見極高，四篇之中，〈盜跖〉尤甚，而太史公〈莊子傳〉但謂作〈漁父〉、〈盜跖〉、〈胠篋〉以詆譏孔子之徒，略不疑其文字精粗異同，何也？豈子長之意且以其非議夫子為言，不暇及其文字乎？不然，則此書此篇在漢而後，或因散軼，為人所竄易，亦猶今《列子》

17) 林希逸注〈在宥〉篇末段說：「此莊子中大綱領處，與〈天下篇〉同。東坡以為莊子未嘗譏孔子，於〈天下篇〉得之。」(卷4，頁36)可見林希逸對於蘇軾觀點的重視。

也。¹⁸⁾

林希逸認為蘇軾有關《莊子》辨偽的見解極為高明，故給予非常高的評價。司馬遷依據〈漁父〉、〈盜跖〉、〈胠篋〉三篇斷定莊子「詆譏孔子之徒」，蘇軾批判司馬遷只知《莊子》之粗，而不知莊子尊孔子，林希逸順勢指出司馬遷預設「莊子詆譏孔子之徒」的立場，因此沒有時間關注《莊子》文字的精粗異同，未能分辨真偽。¹⁹⁾

4. 結語

林希逸《莊子口義》是第一部從文學觀點注解《莊子》注疏，而其論文字血脈舉蘇軾為例最多。蘇軾讀《莊子》，自言莊子道出其口不能言的見解，故林希逸指出「東坡一生文字只從此(《莊子》)悟入」、「東坡言因讀《莊子》而悟作文之法」，實有依據。

林希逸論《莊子》對蘇軾文學的影響，共有五處：(一)蘇軾〈異鵲詩〉與莊子〈馬蹄〉「至德之世」，(二)蘇軾「人生識字憂患始」與〈胠篋〉「焚符破璽」、「剖斗折衡」，(三)蘇軾形容畫竹近於〈田子方〉「解衣槃礴」，(四)蘇軾「逝者如斯而未嘗往」與〈知北遊〉「扁然而萬物自古以固存」，(五)蘇軾〈稼說〉與〈徐無鬼〉「長梧封人」寓言，整體而言，能夠就莊子思想與蘇軾文學的契合處立論，確實有所見。

林希逸論蘇軾〈莊子祠堂記〉對《莊子》的解讀，主要有二：(一)莊子陽擠陰助孔子之說：林希逸〈莊子口義發題〉莊子之言雖然跌蕩戲劇，然其思想之大綱領大宗旨未嘗與孔子相異，因此對於蘇軾「莊子陽擠陰助孔子」、「莊子尊孔子」之說相當能夠接受。(二)辨《莊子》之真偽：在大方向上，林希逸認同蘇軾辨偽的觀點；在具體篇章段落上，林希逸認為蘇軾所要刪去篇章的若干段落有其好處，不全然為偽作。

林希逸開始從文學觀點注解《莊子》的視野，開啟南宋以後以文學觀點注解《莊子》的風氣，其論蘇軾與莊子為文與思想的契合，也為後代「以文評莊」的注家所繼承。

18) 『莊子口義』，卷10，p.42-43。林希逸〈列子序〉說：「愚意此書必為晚出，或者因其散軼不完，故雜出己意，且模仿《莊子》以附益之，然其真偽之分，瞭如玉石，亦所不可亂也。」(《列子膚齋口義》)林希逸所謂「猶今《列子》」意指《莊子》與《列子》都因散軼而為人所竄易，故有真有偽。

19) 林希逸〈漁父口義〉說：「自〈讓王〉以下四篇，其文不類莊子所作。〈讓王〉篇中猶有一二段，〈漁父〉篇亦有好處，〈盜跖〉篇比之〈說劍〉又踈直矣。据〈盜跖〉篇「今謂宰相曰」，戰國之時未有稱宰相者，此為後人私撰明甚。《前漢·藝文志》「《莊子》五十二篇」，其篇數與今不同，《唐書》只四十卷，即今行於世者，不知所謂五十二篇者，更有〈讓王〉、〈說劍〉之類乎？抑猶有莊子所作而不傳者乎？」(《莊子口義》卷10頁9-10)順著蘇軾的觀點辨偽，惟不認為蘇軾所要刪去的四篇全為偽作，因為其中若干段落還是有其可觀之處。

【중국문학분과 II】 발표

被压缩的“苦闷”

— 许广平与鲁迅1925年通信中的性别意识与女学生处境

辜 知 愚*

【목 차】

1. 引言
2. 女师大风潮的经过
3. 许广平与鲁迅通信中对“女性文章”的讨论
 - 1) 关于《两地书》
 - 2) 何为“女士式文章”
4. 代结语：许广平的“苦闷”

【 초 록 】

本文以1925年北京女子师范大学（女师大）风潮为背景，聚焦鲁迅与许广平通信中关于“女性文章”的讨论，分析许广平作为当时女性知识分子所面临的语言与身份的双重困境。文章首先梳理了女师大风潮的历史过程及舆论争议，指出风潮中对校长杨荫榆的女性身份的关注和女学生自身性别认同的关系；随后，文章通过细读鲁迅与许广平的私人书信，并比对原信和《两地书》的差异，揭示鲁迅在书信修改过程中对许广平文体的规训作用，与《两地书》中未被完全反映出来的许广平的主体意识，凸显了知识权力与性别话语之间的互动关系。本文进一步指出，许广平在书信中对自身文体特征的反思与挣扎，实际上反映了她在现代文体规范与性别意识之间的张力和困惑。这种困惑或可通过许广平书信中“苦闷”这一关键词显现，并折射出1920年代中国女学生群体独特的历史处境与精神状态。本文试图提供一个新的视角，深入理解中国现代文学与性别话语的交织互动。

【키워드】 女师大风潮，许广平，鲁迅，《两地书》，女性书写

* 제1저자. 日本长崎外国语大学 讲师 (gu@tc.nagasaki-gaigo.ac.jp)

1. 引言

1925年3月,鲁迅(1881-1936)收到了时为国立北京女子师范大学(以下简称“女师大”)学生许广平(1898-1968)的来信。当时,女师大正发生驱逐校长杨荫榆(1884-1938)的学生运动(史称“女师大风潮”),许广平在信中表达了她在这场运动中感受到的苦闷。此后,鲁迅与许广平持续通信,对她提供精神上的支持,但并未就校潮进行公开表态。直到5月7日“国耻纪念日”¹⁾的演讲会上,学生拒绝杨荫榆登台主持并将她赶出会场,事后包括许广平在内的六名学生被开除,鲁迅才开始与其他几名教员联合起来公开支持学生一方。这一事件还引发了鲁迅与周作人等人的“《语丝》派”与以陈源(笔名“西滢”,1896-1970)为首的“《现代评论》派”论争,因此成为鲁迅研究与中国现代文学史上一个重要的时间节点。

笔者在过去的研究中,曾就围绕杨荫榆形象的言论演变进行过探讨。²⁾杨荫榆1923年从美国哥伦比亚大学留学归国后,被视为北京女高师(女师大前身)理想的校长人选。然而在社会思想新旧交替、军阀混战、教育经费不足的情况下,杨荫榆无法满足对高等教育有着更高追求的女师大学生们的期待。随着后来鲁迅的介入,他留下一系列批判杨荫榆的文本,加之1949年后毛泽东对鲁迅的高度评价,阶级斗争色彩下的鲁迅研究,这些因素使得杨荫榆作为“反动校长”留在了官方的历史记忆中。1980年代以后,中国近代史书写中的现代化和民族主义叙事逐渐取代阶级斗争叙事,而近年,学界开始尝试重新评价杨荫榆作为女性教育先行者的历史地位。

然而笔者始终认为,仅仅是对杨荫榆的重新评价并不足以化解关于女师大风潮的历史叙事中“校长”与“学生”的二元对立。在过去对女师大风潮的叙事中,对学生“进步性”与校长“反动性”的强调埋没的不仅仅是校长的真实形象,还有当时受高等教育的女学生所面临的真实困境。女师大风潮在中国现代文学史中还有一个重要意义,即一般认为它促成了鲁迅与许广平的师生情谊转化为爱情。滨田麻矢曾经注意到,这一段曾经被视为打破封建枷锁的文坛佳话背后,是许广平本人社会事业抱负的压抑。³⁾而在本文中,笔者试图聚焦她与鲁迅通信中关于“女性文章”的讨论,探寻许广平的性别意识,并探讨私人书信中的性别与知识权力关系。

2. 女师大风潮的经过

1924年11月,女师大文学预科的三名学生因东南军阀战乱返校迟到了两个多月,被校长杨荫榆处开除。与此同时,哲教系的两名缺课两个多月的学生却被允许参加考试,这种处理引发了学生自治会的不满,于学期末的1925年1月18日召开会议决定发起“驱杨运动”。学生自治会致信杨荫榆要求其辞职,并采取赴教育部情愿、媒体舆论战等行动。北京各大媒体中,《京报》明显表现出支持学生的立场,而《晨报》的报道则持相反立场。

这场风潮中,杨荫榆的女性身份成为争议的核心之一。在杨荫榆当校长前,当时的学生自治会(与发起风潮的成员世代不同)曾积极支持一位“女校长”主持女子高等教育,并将其视为女性解放的象征。⁴⁾

1) 该纪念日源于1915年5月7日日本向袁世凯政府发出“二十一条”最后通牒,5月9日政府被迫允诺,激起全国强烈反响。此后数十年间,社会各界每年自发以‘五七国耻’或‘五九国耻’之名举行纪念。

2) 拙稿,『鲁迅に罵られた女——楊蔭榆像の変遷』,『叙説』,44,2017;『中国の近代化と女性をめぐる言説の研究』,奈良女子大学博士学位論文,2022。

3) 参见濱田麻矢,『少女中国——書かれた女学生と書く女学生の百年』,岩波書店,2021;中文版:濱田麻矢著,高尚/乔亚宁译,『少女中国——“女学生”的一百年』,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2025,第二章。

3月21日,《現代評論》上刊登了一篇署名“一個女讀者”的文章,為楊蔭榆辯護。文中強調她是“充任大學校長的唯一一個中國女子”,不應受到排擠攻擊:

第一,女師大的紀律與教務,在它過去的一切男校長任內,是否較優於這個女校長就任以後?第二,女師大是中國唯一的女子大學;楊氏也是充任大學校長的唯一一個中國女子;如果她的教育訓練,不在女師大歷來的官僚校長之下,而她的校務行政,又無重大的過失,我們應否任她受教育當局或其他任何方面的排擠攻擊?我們女子應否自己還去幫着摧殘她?⁴⁾

然而這種以性別為依據的辯護,却未必能喚起女師大學生的同感。許廣平在1925年3月24日的《京報副刊》上以“正言”的筆名發表《評現代評論〈女師大的學潮〉》一文,回應這一性別化言說。她在文章中说:“我們對於她的來去,視其能否勝任校長之職,而不以其為‘男校長’,‘女校長’,而於教育上發生門戶之見。‘一個女讀者’呀!雖則你是個‘女流’,可惜你未認真你還是加入‘人’的群內的一員,或者你在家裏關得腿太軟了!你在‘人群’內還未曉得立足吧!”⁶⁾許廣平認為,不能因為楊蔭榆是女性就支持她,也不能因為反對她就被視為“反對女性”。判斷應基於能力與人格,而非性別。這一立場實際上反映出新文化背景下,女學生希望擺脫“女性”作為象徵身份的羈絆,追求人格與能力本位的價值判斷。

風潮的轉折點發生在5月7日“國恥紀念日”。當日原本北京學生聯合會呼喚各校學生上街遊行,女師大學生也想參與,但事先收到教育部指令的楊蔭榆禁止學生上街,並在校內舉行演講會。當楊蔭榆試圖登台主持,遭學生集體阻止,並將其趕出會場。當日,楊蔭榆召集七名評議員召開評議會,決定開除學生自治會的蒲振聲、許廣平、姜伯諦、張平江、劉和珍、鄭德音六名學生。此舉引發更大規模抗議,自治會的學生封鎖校門與校長室,阻止楊蔭榆入校辦公。

在校方開除六名學生之後,5月21日,學生自治會也召集了支持學生一方的教職員,召開了校務維持會議。其中馬裕藻、沈尹默、周樹人(魯迅)、李泰棻、錢玄同、沈兼士、周作人六名教員聯名在5月27日的《京報》上發表了支持學生的宣言⁷⁾。

魯迅自5月開始,陸續發表了一系列文章議論女師大風潮,批判楊蔭榆,以及支持楊蔭榆的《現代評論》同人。這些文章包括《忽然想到(七)》(《京報副刊》5月12日)、《“碰壁”之後》(《語絲》6月1日)、《並非閑話》(《京報副刊》6月1日)、《我的“籍”和“系”》(《莽原》6月5日)、《咬文嚼字(六)》(《京報副刊》6月7日)、《流言和流語》(《莽原》8月7日)、《女校長與男女的夢》(《京報副刊》8月10日)等。

這一風潮到了7月底至8月初,以楊蔭榆強制解散學生自治會及四個班級的舉動達到高潮,楊蔭榆引入的軍警與拒不離校的学生產生激烈衝突,更加引發了社會輿論的關注。最後,或許是再無力收拾校潮,楊蔭榆於8月6日辭去校長一職。教育部宣布停辦女師大,學生繼而將鬥爭的焦點轉向教育總長章士釗(1881-1973)。教育部在停辦女師大之後,將其改組為國立北京女子大學,與此同時一部分學生與教員在校外以女師大的名義繼續上課。直到同年12月,國民黨的易培基(1880-1937)就任教育總長後,女師大復校,六名學生的退學處分才得以取消。這場風潮最終以學生一方的勝利而告終。

女師大風潮的演變,既是一場關於教育權力的鬥爭,也是一場關於“女性形象”的輿論戰爭。楊蔭榆從最初被贊譽為“女教育家”的典範,到後期被批判為“女人壓迫女人”的象徵⁸⁾,其形象變化反映了當時社會

4) 「北京女子高等師範自治會宣言:我們為甚麼歡迎楊蔭榆?」,『京報』,1923年7月21日。「北京女子高等師範自治會宣言:我們為甚麼歡迎楊蔭榆?(續)」,『京報』,1923年7月22日。

5) 一個女讀者,「女師大的學潮」,『現代評論』,1925年3月21日。

6) 正言「評現代評論『女師大的學潮』」,『京報副刊』,1925年3月24日。

7) 「對於北京女子師範大學風潮宣言」,『京報』,1925年5月27日。

对于“女性掌权”复杂而矛盾的印象。

而作为当事者的女师大学生们对杨荫榆的同性身份并不认同，反而因此向她投去更为尖锐的目光。许广平在风潮中的发声，是一个典型的例证。在下一章中，笔者将聚焦风潮期间她与鲁迅的书信往来，探寻她的性别意识。

3. 许广平与鲁迅通信中对“女性文章”的讨论

1) 关于《两地书》

鲁迅与许广平自1925年3月11日开始通信，后来发展为恋人关系。1933年，鲁迅将他们从1925年至1929年的通信集修改编辑，题为《两地书》，由青光书局出版，后来又收入《南腔北调集》。鲁迅在序文中如此写道：

回想六七年来，环绕我们的风波也可谓不少了，在不断的挣扎中，相助的也有，下石的也有，笑骂污蔑的也有，但我们紧咬了牙关，却也已经挣扎着生活了六七年。其间，含沙射影者都逐渐自己没入更黑暗的处所去了，而好意的朋友也已有两个不在人间，就是漱园和柔石。我们以这一本书为自己纪念，并以感谢好意的朋友，并且留赠我们的孩子，给将来知道我们所经历的真相，其实大致是如此的。

书信本是私人之物，而公开出版意味着将私人情感公诸于世。在20世纪二三十年代，出版情书并不罕见，例如章衣萍的《情书一束》（1925），庐隐与李惟建之间的《云鸥情书集》（1931）。但经鲁迅修改编订的《两地书》并非原貌，鲁迅修改出版的目的是呈现其与许广平之间由师生逐步过渡到恋人的关系，以回应当时的流言蜚语，并表达特定的自我形象。

1984年，鲁迅与许广平之子周海婴遵循许广平的遗言，在王得后的帮助下编辑了《鲁迅景宋通信集——〈两地书〉原信》（以下简称《原信》），由湖南人民出版社出版。通过比对《两地书》与《原信》，可以发现《两地书》中对鲁迅和许广平的书信都有所修改，但相比之下对鲁迅的书信修改较少，而对许广平的书信存在着大量的删节与修改，使得《两地书》中的书信强化了鲁迅——导师，许广平——受教学生的印象。

在有关鲁迅与许广平通信中对“女性文章”的讨论方面，已有研究如钱江涵的《女学生如何讲述“女学生”：论女师大风潮论争中的性别话语——以许广平为中心》⁹⁾指出了鲁迅对“女性文章”的命名与阐释，许广平所被动承受的女性与学生这两个身份之间的张力，并探讨了许广平等女学生是如何以话语实践积极参与对“女学生”的形象建构。本文在承认这种话语权力关系的同时，更希望通过对比《两地书》和原始书信，强调许广平未被完全表达出来的主体意识，试图呈现出她在性别规训与个人表达之间的复杂挣扎。

8) 此种论调可见鲁迅《忽然想到(七至九)》（《京报副刊》，1925年5月12日）；风先(章衣萍)《女人压迫女人》（《京报副刊》，1925年5月15日）；静农(台静农)《压迫同性之卑劣手段》（《京报副刊》，1925年5月24日）等。

9) 钱江涵，「女学生如何讲述“女学生”：论女师大风潮论争中的性别话语——以许广平为中心」，《鲁迅研究月刊》，(05)，2018，pp.82-90.

2) 何为“女士式文章”

如上一章所述,许广平在3月21日的《现代评论》上读到“一个女读者”所写的《女师大的学潮》后,以“正言”的笔名在《京报副刊》上反驳其说,并在3月26日写给鲁迅的信中道:“她也许是本校的一位牧羊者,但是她既承认是‘局外人’我就‘以子之矛攻子之盾’的放肆的反驳她一番,用正言的名义——我向来投稿恒不喜重复同一名字。我自知文甚卑浅裁夺之权一任编辑者,我绝不以什么女士……等妄冀主笔者垂青,所以我的稿子常常也白费心血,附之虚掷,但是总改不了我不好用重复名字的毛病。”¹⁰⁾她猜测“一个女读者”是女师大中一位“牧羊(慕杨)者”,或许是她身处女师大中,深感同学间立场各异,并不能团结起来对抗杨荫榆,而有感而发。

许广平的前一篇关于女师大风潮公开发表的文章是以“持平”为笔名在《妇女周刊》上发表的《北京女界一部分的问题》,后又以“正言”笔名向《京报副刊》投稿。1920年代正值知识分子对妇女问题抱持强烈关心的年代,当时报刊上多有“女士”投稿,有时甚至是男性假托女性身份书写以迎合编辑与读者偏好。许广平特意使用中性的笔名,或许是不屑于利用“女性”身份,或许也出于她本人对周围“女性”群体的不认同。这点,从她3月26日的信中,对同学的这一段描述可以看出:

学生历世不久,但南北人士,同学相遇,亦不乏人,求其头脑清醒者有几?明白大势者有几?数人聚首,不是谈论衣饰,便谈宴会,谈出入剧场,热心做事的人多半学力差,学粹功深的人,就形如槁木,心如死灰,踢也踢不动,每一问题发生,聚众讨论时,或托故远去,或者看人多举手亦从而举手之赞成反对,意见毫无也,或功则攘诸身过则诿诸人真是群居终日言不及义,心死莫大之哀。今日青年,尚复何望!!?¹¹⁾

在许广平的眼中,周围的同学总是谈论衣饰、宴会、出入剧场,却无人可以共事,这种心灵上的孤独使她发出“今日青年,尚复何望!!?”的感叹。而鲁迅由于身处立场不同,对她的心境并不能感同身受,只是就事论事地回复道:“据我看来,女学生还要算好的,大约因为和外面的社会不大接触之故罢,所以还不过谈谈衣饰宴会之类。至于别的地方,怪状更是层出不穷,东南大学事件就是其一,倘细细剖析,真要为中国前途万分悲哀。”信中“东南大学事件”应是指1925年1月东南大学校长郭秉文被免职的事件,鲁迅从一教育者的立场,看出当时全国教育界中各方势力博弈的局面,反而认为女学生与外面社会少接触,未尝不是一件好事。而许广平则对女校中的生活感到闭塞,一心向往更广阔的社会,这种处境的不同使他们二人的交流始终无法完全同频。

鲁迅在信中接下来的文字中针对许广平对“一个女读者”的看法,写道:“即如《现代评论》的‘一个女读者’的文章,我看那行文造语,总疑心是男人做的,所以你的推想,也许不确。”¹²⁾又说:“你投稿虽不写什么‘女士’,我写信也改称为‘兄’,但看那文章,总带些女性。我虽然没有细研究过,但大略看来,似乎‘女士’的的说话的句子排列法,就与‘男士’不同,所以写在纸上,一见可辨。”¹³⁾鲁迅从第一封回信开始就将许广平称为“广平兄”,据他本人所述,他将较亲近的朋友和直接听讲的学生一律在写信时称为“兄”¹⁴⁾。这种对平辈及晚辈表示客气的“兄”字称呼,是一种男性文人间的传统,他将这一称呼也用于女学生,意味着将男性文人的传统泛用于女学生这一新兴群体。他对许广平行文风格“与‘男士’不同”的指摘,却在无意

10) 『鲁迅景宋通信集——《两地书》原信』,长沙:湖南人民出版社,1984, p. 19.

11) 同上.

12) 同上书, p.21.

13) 同上书, p.23.

14) 同上书, p.11.

之中暗示出近代以来女学生这一新知识群体的尴尬处境——既外于旧式女性，也外于男性知识分子的异质性。这种尴尬的处境，是许广平苦闷的来源，也是以她一己之力无法破除的困境。

许广平在4月6日的回信中写道：“‘一个女读者’的文章，先生‘总疑心是男人做的’，这自然有一种见解在里头，其实《现代评论》执笔的人物，他的背景是英美派，在前几期中也有一篇关于风潮的带色彩的论调，的确我也听见人说某大那一派的人很替她出力，我想自然有一点蛛丝马迹之可寻，但是学校中一部分的人确也有‘一个女读者’的那种不通之论，所以我的推想，错中也不全是无的放矢的。”¹⁵⁾

这段话中“这自然有一种见解在里头……但是……”的说法，其实是表示对老师的敬意的同时，委婉引出自己见解的一种语言策略。许广平道出《现代评论》的英美派背景，这显示出她对社会大局的了解。但这段话在《两地书》中被简化成：“‘一个女读者’的文章，先生疑是男人所作，这自然有一种见解，我也听说过《现代评论》执笔的人物，多与校长一派，很替她出力的话。但校中一部分的人，确也有‘一个女读者’的那种不通之论，所以我的推想，错中也不全是无的放矢的。”修改后的版本实际上弱化了许广平的个人见解和主张，呈现出一种“被动受教的女学生”形象。或许是因为原文的一句话太长，修改后的版本将“但是……”后的内容隔在了句号后面，这种断句的确似乎更符合现代规范，却也隔开了许广平语意中的连续感，使这种委婉表示自我主张的语言策略不易被察觉。

许广平在同一封信中又写道（划线部表示与《两地书》中版本差异较大之处）：

言语就是表示内心的一种符号，自己写和说出来的，总带有他的个性，但是环境的熏染，耳目所接触，那么“说话的句子排列法”，自然“女士”与“男士”有多少不同，我愿意免掉“酒壶式”的说话，其余词句末节，似乎无多大关系。所可虑者，恐不免昔日“妇人之见”，识者所讥，是以放大眼光，开拓思想，深造学问的途径，还乞吾师千万“不屑教诲”，又“女士”的说话的句子排列法，就与“男士”不同，是因为她们好用唉，呀，哟……的字眼，还是她们纯带诗词的句法而无清白的主脑命意在说话的词句中，还请先生指示出来，以便改善。¹⁶⁾

而这一段在《两地书》中被删改成：

言语是表示内心的符号，一个人写出来，说出来的，总带着这个人的个性，但因环境的熏染，耳目所接触，于是“说话的句子排列法”，就自然“女士”与“男士”有多少不同。我以为词句末节，倒似乎并无多大关系，只很愿意放大眼光，开拓心胸，免掉“女士式”的说话法，还乞吾师教之。又，“女士”式的文章的异点，是在好用唉，呀，哟……的字眼，还是太带诗词的句法而无清晰的主脑命意呢？并希先生指示出来，以便改善。¹⁷⁾

原文中“酒壶式”的说话，应该是指断断续续、零碎松散的表达方式。许广平认为自己的表达能力存在不足之处，但她同时也认为“其余词句末节，似乎无多大关系”，这意味着她对于“女性”文体的看法有自己的主见，在“乞吾师教之”的同时，也不惮于表达自己的见解。她认为更重要的是“放大眼光，开拓思想，深造学问”，使语言背后的思想足够开阔。她对女性式表达的不满似乎在于“纯带诗词的句法而无清白的主脑命意在说话的词句中”，也就是说类似旧式诗词，而不符合现代表达规范的词句。除去这些之外，即使男女之间有不同的语言习惯，也不需要特意去改掉“词句末节”。这一段修改后简化为许广平希望“免掉‘女

15) 同上书, p.23.

16) 同上书, p.28.

17) 『鲁迅全集』, 第11卷, 人民文学出版社, 2005, p.38.

士式’的说话法”，实际上隐去了许广平复杂的思考与微妙的挣扎，使她的形象更贴近一个被动接受规训的女学生。

鲁迅在4月8日的回信中写道：

我所谓“女性”的文章，倒不专在“唉，呀，哟，……”之多。就是在抒情文，则多用好看字样，多讲风景，多怀家庭，见秋花而心伤，对明月而泪下之类。一到辩论之文，尤易看出特别。即举出对手之语，从头至尾，一一驳去，虽然犀利，而不沉重，且罕有正对“论敌”的要害，仅以一击给与致命的重伤者。总之是只有小毒而无剧毒。好作长文而不善于短文。¹⁸⁾

鲁迅在信中所用的“女性”一词，在1920年代的语境下，与今日指“女”这一性别群体的集合名词的用法不同，而是意指“女性特质”。鲁迅认为“女性”的文章不在于语气词，而在于文章题材。正如Wendy Larson在“The End of ‘Funü Wenxue’”一文中指出，1916~1925年间基于抒情性建构起来的“妇女文学”这一性别文类，在1925年后，随着左翼文学批评的兴起，开始被视为带有“情绪化”“资产阶级个人主义”倾向的文学类型，而逐渐被边缘化，直至“终结”¹⁹⁾。鲁迅对“女性文章”的批评，正可视为这一时代转向的缩影。

鲁迅的这一段意见似乎颇能引起许广平的共鸣，她在4月10日的信中，对这一段进行回应道：

“讲风景”是骚人雅士的特长，“秋花明月”是儿女子的病态。四海为家，何用多怀，今之怀者，甚么母亲怀中……摇篮里，想是言在此意在彼，满篇“好看字样”的“抒情文”，（主脑命意何在？）的确是今日女文学家（？）的特徵——最显的例子，评梅的文诗，晶清的诗，冰心，庐隐，廷玫，俱带此种色彩。好在我还未有文学家的资格和梦象〔想〕对于这类文章一个字也哼不出来。²⁰⁾

她在这里列举的“今日女文学家”的名字有石评梅、陆晶清、冰心、庐隐、廷玫，其中石评梅和庐隐是女高师的毕业生，而陆晶清是当时女师大的在校生，正与石评梅共同编辑《京报》的《妇女周刊》。在当时，女高师辈出新文学女作家，许广平对于母校的这一传统却似乎并没有多少认同感。她自述“我还未有文学家的资格和梦想”，或许是体现出对当时社会高度评价的女性文学特征的不适感。鲁迅所道出的对辩论之文的审美，与当时社会基于抒情性建构的“妇女文学”特质不同，恰好给对“妇女文学”缺乏认同的许广平指引了追求的方向。

鲁迅在下一封回信（4月14日）中，又坦承道：“文章的看法，也是因人不同的，我因为自己爱作短文，爱用反语，每遇辩论，辄不管三七二十一，就迎头一击，所以每见与我的办法不同者便以为缺点。”²¹⁾这段文字，或许也说明了，在出版《两地书》时，为什么以他的文体审美对许广平的文字进行了大幅的修改。

20世纪20年代，正值白话文代替文言文成为正统书面语的时代。当时距离1920年教育部下令国民学校一二年级全面改用白话文教科书也不过过去五年，正处于文体转换的时期。从文言文到白话文这一文体的转变，背后是社会知识权力的重构。当时虽不乏庐隐这样得益于白话文运动而崭露头角的新文学女作家，但根本上，白话文体与新文学规范的确立，还是来自以鲁迅为首的男性知识分子。“修改文章”这一行

18) 『鲁迅景宋通信集——《两地书》原信』，湖南人民出版社，1984，p.31.

19) Larson, Wendy. “The End of ‘Funü Wenxue’: Women’s Literature from 1925 to 1935”, in Tani E. Barlow eds., *Gender Politics in Modern China: Writing & Femin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pp.58-73.

20) 『鲁迅景宋通信集——《两地书》原信』，湖南人民出版社，1984，p.37.

21) 同上书，p.38.

为本身，已蕴含了语言权力的不对等，鲁迅对许广平书信的删改，或许使她的行文看起来更为简洁通顺，与鲁迅的书信风格统一，却削弱了本人的声音。

通过上述对鲁迅与许广平通信细节的分析，可以看出“女性书写”并不仅仅是单纯的个人文风问题，而是涉及性别、文化权力与文体规范之间的复杂互动。在这种规训与抵抗的张力下，许广平对自身语言风格的质疑与挣扎，为我们理解当时女性知识分子面临的语言与身份的双重困境提供了一个新的理解视角。

4. 代结语：许广平的“苦闷”

许广平在写给鲁迅的第一封信中，说“苦闷之果是最难尝的”²²⁾。在随后的书信中，也反复出现“苦闷”一词，在4月10日的信中，更是说：“无处不是苦闷，苦闷、苦闷、苦闷、苦闷、苦闷……”²³⁾连用了六个“苦闷”。“苦闷”一词实际上可以理解为她和鲁迅之间的一种暗号，因为当时鲁迅正将自己翻译的厨川白村《苦闷的象征》一书的内容作为讲义，在北大及女师大等校宣讲。

王汎森曾指出：“1920、1930年代青年的文字中最常出现的是‘苦闷’二字，苦闷似乎是当时中国、日本等国青年的用语。刊物中常常出现的是‘中学毕业以后，我莫名其妙地感觉苦闷’这一类的字眼。”²⁴⁾他认为这反映了新文化运动之后青年之中普遍的烦闷与虚无的精神状态。不过，联系1920年代《苦闷的象征》一书在中国的风靡²⁵⁾，“苦闷”一词的流行应当也与《苦闷的象征》的影响脱不了关系。只不过，无论如何，以王汎森为代表的对当时青年“苦闷”状态的研究基本聚焦于男青年，对女学生这一群体特殊而尴尬的处境导致的“苦闷”却少有提及。本文以许广平与鲁迅的通信作为切入口，对女师大风潮中许广平的心境与性别意识进行了探讨。可以说，她的“苦闷”，来源于她的社会理想与现实的差距，来源于同窗中少有共鸣的孤独，也来源于寻求指引的师长并不完全能解答她的困惑。在今后的研究中，将对女学生这一群体的“苦闷”心境进行进一步探讨。

22) 同上书, p.2.

23) 同上书, p.33.

24) 王汎森, 『思想是生活的一种方式』, 北京大学出版社, 2023, p.128.

25) 《苦闷的象征》最初由日本文艺评论家厨川白村(1880-1923)在报刊连载, 1924年由改造社结集出版, 鲁迅和丰子恺分别在1924年和1925年翻译出版, 在青年中风靡一时。参见工藤贵正, 『中国語圈における厨川白村現象：隆盛・衰退・回帰と継続』, 思文閣出版, 2010.

【중국문학분과 II】 발표

儒家思想下中国河南大调曲子的传承与思考

— 基于文化基因与音乐形态的双重维度

王 铮*

【目 录】

1. 河南大调曲子的历史演进与儒家思想渗入
 - 1) 起源与发展脉络
 - 2) 儒家思想对大调曲子的深层影响
 2. 音乐形态的儒家伦理表达
 - 1) 曲牌结构中的秩序性
 - 2) 唱词文本的道德教化功能
 - 3) 表演实践中的身体伦理
 3. 当代传承困境与儒家思想的现代转化
 - 1) 传承危机的多维透视
 - 2) 创新路径的探索
- 结语

【 초 록 】

中国河南大调曲子作为大俗大雅的民间艺术，自明清以来便逐渐形成其表演形式，并衍生出多个曲种，历久弥新。作为中原地区最具代表性的传统曲艺形式之一，其联曲体结构、雅俗共赏的唱腔形式等均受到儒家思想的浸润和熏陶。然而，大调曲子的发展历经多个时期，并在现代化的冲击下，其传承与发展面临多重困境，本文基于文化基因与音乐形态的双重维度，厘清大调曲子的发展脉络，并分析大调曲子在曲牌结构、唱词文本与表演实践中呈现出的儒家思想，从而为大调曲子的当代传承提出创新性思考，通过儒家“乐教”思想与现代音乐教育的融合，助力大调曲子的现代传承，实现大调曲子在数字技术赋能下的活态传承与在跨文化对话中的价值再发现。

【키워드】 中国河南大调曲子；儒家思想；音乐形态

* 浙江师范大学艺术学院 副教授，硕士生导师，中国音乐家协会古筝学会理事，中国民族管弦乐协会古筝专业委员会理事，(461067447@qq.com)

中国河南大调曲子作为中原地区最具代表性的传统曲艺形式之一，承载着明清以来中国民间音乐文化的活态记忆。其以联曲体结构、雅俗共赏的唱腔及深厚的文学性著称，并于2006年被列入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名录¹⁾。然而，在全球化与现代化的冲击下，大调曲子面临传承人断层、表演空间萎缩等困境²⁾。值得关注的是，该曲种在中国河南南阳地区的存续过程中，始终与儒家传统文化有着深厚的联系，从曲词内容的忠孝节义主题到表演仪轨的“礼”文化体现，均渗透着儒家思想的伦理内核³⁾。这种文化基因的植入，使大调曲子不仅成为音乐形态的集合，更是儒家价值观的实践载体。

基于中国河南大调曲子的地域属性及其传习特征，学术界有关于大调曲子的研究主要集中在国内，研究内容主要集中于大调曲子的音乐形态研究、田野调查与非遗保护三个方面。其一，音乐形态学研究，涉及唱腔结构、曲牌分类及伴奏乐器特征。如中国学者李海萌基于河南大调曲子板头曲的流变分析其唱腔结构特征及三弦演奏技法⁴⁾；中国学者宋光生作为板头曲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传承人，携家人及曲友⁵⁾编著的『河南大调曲子全书(全八册)』，从多个方面对河南大调曲子进行了探析和结集，第二册对大调曲子的曲牌进行了详细分类，包括大牌子曲牌、常用曲牌、非常用曲牌等⁶⁾。其二，文化人类学视角的田野调查，关注传承群体的社会网络与表演仪式。如学者马奇通过田野调查，探讨传承人网络与大调曲子存续的关系，强调儒家“乐教”传统的社会功能⁷⁾；学者杜亚雄与周李清基于田野调查，探讨大调曲子表演仪式中的儒家伦理规范，如“礼”的实践与曲友互动模式⁸⁾。其三，河南大调曲子非遗保护实践的探讨，强调活态传承的路径。如学者王斐斐深入剖析河南大调曲子中所蕴含的人本主义、崇德重礼以及“中和”等中国传统文化精神，对传统曲艺文化内涵与价值研究有重要意义，旨在引发更多人对传统曲艺的关注，推动其传播与繁荣⁹⁾。现有研究为理解河南大调曲子的艺术特征提供了重要基础，也为其传承与发展提供可行性路径。然而，无论是基于音乐形态学、文化人类学还是传承保护的视角，中国传统文化精神仅作为外部文化背景，河南大调曲子中所蕴含的传统文化的深层影响并未充分挖掘，诸如儒家文化如何形塑大调曲子的音乐形态、曲牌联套结构中的层级性与儒家“礼”的秩序观关联等问题并未有系统解答。除此之外，河南大调曲子作为中国传统文化的文化基因与其音乐形态的互动机制仍需进一步探讨。已有文献对大调曲子的文化内涵与艺术形式的关联性分析较为碎片化，缺乏跨学科的理论框架。

可以看到，基于当下中国河南大调曲子所面临的传承困境，及当前学者对大调曲子的研究现状，本文通过解码儒家思想在大调曲子中的文化基因，不仅为理解中国传统音乐的伦理功能提供新视角，也为非遗保护提供理论支撑。在实践层面，研究成果可指导传统音乐在现代社会的创造性转化，例如通过数字技术重构“乐教”传统，或借助跨文化对话激活儒家音乐伦理的当代价值。未来研究可进一步拓展至其他受儒家影响的地方曲种，构建中国传统音乐伦理研究的理论体系，为中国传统民乐的传承与保护提供理论支撑。

1) 张杰.「大调曲子在非遗名录中的归类问题研究」,『文化遗产』,2024,(04), pp.18-27.

2) 马奇.「南阳大调曲子传承与发展的思考」,『四川戏剧』,2010,(04), pp.105-108.

3)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p.93-96.

4) 李海萌.「浅谈河南大调曲子板头曲三弦演奏的若干特点——兼谈三弦演奏风格的分类」,『中央音乐学院学报』,2006,(03), pp.118-123+140.

5) 曲友:旧时对爱好唱曲、听曲人的尊称。因大调曲子的传承特性及“自娱”性,大调曲子的传承人更加认同“曲友”而非“艺人”的身份。

6) 宋光生.『河南大调曲子全书(全八册)』,北京:中央音乐学院出版社,2023.

7) 马奇.「南阳大调曲子传承与发展的思考」,『四川戏剧』,2010,(04), pp.105-108.

8)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p.93-96.

9)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 pp.74-78.

1. 河南大调曲子的历史演进与儒家思想渗入

在中国河南大调曲子的发展与演进中,儒家思想对曲友、唱词及表演仪式的影响是显而易见的。从明清时期至今,南阳地区的繁荣富足也为大调曲子的发展提供“温床”,虽在战乱年代出现中断,却仍能传承至今。因而,在梳理大调曲子的起源及发展脉络的基础上,分析儒家思想在大调曲子的唱词内容、表演仪式及音乐审美等方面的渗入与影响,更加利于大调曲子的现代化传承与创新。

1) 起源与发展脉络

(1) 明清时期: 中原文化与儒家伦理的交融

中国河南大调曲子原称“鼓子曲”或“河南大调曲子”,其起源并无明确记载,部分学者基于“鼓子曲”与宋代“鼓子词”名称上的相近,进而推断其起源于宋代。然而,在对鼓子曲的曲牌、句式及音乐体制等方面的考证中,明代小曲曲牌与河南大调曲子有着诸多相近之处。在杨荫浏、张长弓、辛秀、长溪等学者的考证中,现存鼓子曲保留与明代小曲同名的曲牌不在少数,可见其与明代俗曲的渊源无需存疑¹⁰⁾。明清时期,中原文化以儒家思想为核心,强调伦理道德和社会秩序。大调曲子在发展过程中,吸收了《诗经》的叙事传统和儒家的伦理观念,形成了独特的艺术风格。首先,河南大调曲子受《诗经》传统的影响。《诗经》作为中国最早的诗歌总集,包含了大量反映社会生活和伦理道德的内容。河南大调曲子在叙事方式和主题选择上与《诗经》有着相似之处,如对忠孝节义、伦理道德的宣扬,体现了中原文化与儒家伦理的交融¹¹⁾。其次,儒家伦理渗入大调曲子的曲调、故事之中。儒家思想强调“仁”、“义”、“礼”、“智”、“信”,这些思想在大调曲子中得到了充分体现。例如,大调曲子中的许多曲目以历史故事和民间传说为题材,通过讲述这些故事,宣扬儒家的伦理道德观念,如「桃园结义」中的“义”、「拉荆笆」中的“孝”等¹²⁾。

此外,最能体现中原文化与儒家伦理交融的部分在于大调曲子的演唱规矩。大调曲子的演唱者或者演奏者,在唱曲时可着便装,无需化妆,无需肢体表演,纯属清唱,清唱与闹唱相对。明代魏良辅《曲律》中,对清唱的解释是:“清唱,俗语谓之冷板凳,不比戏场锣鼓之势,全要闲雅整肃,清俊温润。”由此可知,在场面清静的情形下,唱而不演的叫清唱。清唱最忌的乐器是大锣大鼓。大调曲子的乐器与唱奏,符合清唱条件。虽是清唱,但多年来大调曲子也有相沿成习的演唱规矩,他们讲究礼仪文化,注重内涵,雅俗共赏。以当地方言讲,叫“能坐客房台儿”。所谓“能坐客房台儿”,即应邀到达官贵人厅堂弹唱,亦可理解为唱堂会。此类弹唱,因主家有女眷列坐厢房隔帘欣赏,因此演唱者总是闭目端坐而歌,以避瓜田李下之嫌。久而久之,这种特殊的演唱习惯便成了曲友约定俗成的规矩,世代相传。在“坐客房台儿”的时候,曲友通常先合奏「高山流水」,致敬俞伯牙钟子期,以表达高山流水遇知音之意。之后唱曲的选择,主要看曲词,曲词有吉庆寓意,方能演唱。如「一门五福」、「吉庆词」之类,不可演奏「陈杏元和番」、「思情」等哀怨之乐曲,以及「曹操逼宫」、「打渔杀家」等不敬之乐曲。另外,无论在什么场合,若有远道而来的曲友或者客人在场,不可演唱「鸿门宴」、「蒋干盗书」、「火焚纪信」等不尊之乐曲,由此可见,大调曲子的规矩旨在利于大家的团结与和谐,可谓是民间活态的和合音乐文化。

10) 朱敬修.《南阳大调曲子研究》,河南大学出版社,2003, p. 2.

11) 宋光生.《河南大调曲子全书(全八册)》,北京:中央音乐学院出版社,2023.

12)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 pp.74-78.

(2) 清代至民国：文人参与下的雅化过程

清代至民国时期，文人开始参与河南大调曲子的创作和表演，推动了大调曲子的雅化进程。文人在大调曲子的创作中融入了自己的文学素养和审美情趣，使大调曲子的文学性和艺术性得到了提升。例如，一些文人将自己的诗词作品改编成大调曲子，使大调曲子的内容更加丰富，意境更加深远¹³⁾。雅化后的河南大调曲子在音乐风格、曲牌结构和表演规范等方面都发生了变化。音乐风格更加优雅、含蓄，曲牌结构更加严谨，表演规范更加严格，体现了文人对艺术的追求和对儒家审美思想的传承¹⁴⁾。

在联曲体结构的动态发展中，曲牌加“垛”的变格处理成为文人实践儒家“中庸”美学的重要载体。曲牌加“垛”是指在既定的曲牌之外，因故事叙述未完、曲意不尽，再插入另外曲谱。以「诗篇」、「鼓子头」、「鼓子尾」三个核心曲牌为例，其即兴插部的设计既突破了传统曲式的框架，又通过规范化的结构约束实现“过犹不及”的平衡：第一，「诗篇」的对称化扩展。曲牌「诗篇」通常为四句。若在四句话里叙述不完，或演唱不尽兴，便可在上两句与下两句之间，加“垛”。“垛”不限定篇幅长短，由演唱者“垛”入任意长短的篇幅。但“垛”入「诗篇」的词句，却有一定的规矩，通常为三言或者四言。如「黛玉叹月」的「诗篇」，有演唱者加“垛”如下：“千不怨，万不怨，只怨我命。无依无靠，冷冷清清……”演唱者在加“垛”之时，歌者的唱腔旋律会周而复始，循环往复。第二，曲牌「鼓子头」加“垛”，又与「诗篇」不同。「鼓子头」加“垛”的唱腔，安排在第三句之后。如「不第还乡」的「鼓子头」：“苏玉子游学去一载还乡，进机房暗探贤良，悲切切地说，季子岂做薄幸郎。”演唱者加“垛”，会在“悲切切地说”后面，“垛”入唱腔“妻呀，也是我误了你的好时光，因为我懒学归故乡”。下文继续接“季子岂做薄幸郎”。「鼓子头」加“垛”时，对唱腔的字数并无要求，但每句末尾一字，旋律落音要在“5”上，以便旋律启上承下。曲牌「鼓子尾」加“垛”，又与前两个曲牌有所不同。它有软“垛”、硬“垛”之区分。「鼓子尾」原本就两句，若曲意不尽，便可加“垛”。“垛”入的句子，差不多都是两两相对形式。有七、七，或五、五，或十、十，或八、七等。不管字数多少，不管形式如何，凡是唱腔第二句的末尾一字，落音在“1”上，便称软“垛”；落音在“5”上，便称硬“垛”。此类变格处理并非简单的即兴发挥，而是文人基于儒家美学原则的创造性实践。通过规范化的垛句结构（字数、落音、句式），既突破了传统曲牌的单调性，又通过“有限度的自由”维护了音乐形态的秩序性，使大调曲子在雅化过程中保持了“礼”的内核与“乐”的灵动。这种动态平衡，正是儒家“中庸”思想在音乐形态中的具象化表达。

(3) 新中国成立后的传承转型与中断

新中国成立后，河南大调曲子经历了从政府主导的系统性保护到文革时期的全面中断，再到改革开放后现代性冲击的复杂历程。这一阶段的发展轨迹不仅折射出国家文化政策的变迁，更凸显了传统音乐在现代化进程中的适应性困境。1950年代，国家推行“百花齐放、推陈出新”的文艺方针，河南大调曲子被纳入民族音乐遗产保护体系。河南省文化局组织专业团队对散佚曲谱进行抢救性整理，建立“大调曲子改进会”（后更名为“邓县曲艺改进社”），系统记录传统曲目达1252个（含传统曲目1040个），其中「陈杏元和番」、「三国故事」等经典曲目通过记谱、录音等方式得以保存¹⁵⁾。国家级传承人曹东扶受聘于中央音

13)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93-96.

14) 李海萌.「浅谈河南大调曲子板头曲三弦演奏的若干特点——兼谈三弦演奏风格的分类」,『中央音乐学院学报』,2006,(03), pp.118-123+140.

15) 南阳地区文化局.『南阳地区曲艺志』,郑州:河南人民出版社,1994.

乐学院,将板头曲纳入专业音乐教育体系,其改编的「高山流水」、「打雁」等曲目成为河南筝派的奠基之作。1956年,南阳专区成立曲艺说唱团,首次将大调曲子搬上专业舞台,通过「王婆骂鸡」等剧目的改编,尝试融入话剧表演元素。然而,这种“坐唱改立唱”的革新却引发了争议,支持者认为其突破了传统清唱的局限,反对者则批评其丧失了“雅派”特质¹⁶⁾。1962年,河南省戏曲工作室编印『大调曲子初探』,首次从音乐形态学角度解析曲牌结构,为后续研究奠定基础¹⁷⁾。这一时期的保护工作呈现出“双重性”特征,一方面通过行政力量将民间艺术纳入国家文化体系,另一方面在改编过程中逐渐消解其原生性。例如,专业剧团对「李豁子离婚」等剧目的改编,在强化戏剧冲突的同时弱化了方言特色,导致部分曲牌的地域文化内涵流失。文革期间,大调曲子被定性为“封资修”艺术,遭受毁灭性打击。在红卫兵运动中,南阳地区的民间艺人遭到批斗,如国家级传承人曹东扶被遣返原籍,其珍藏的300余首板头曲谱遭尽数焚毁。与此同时,专业剧团全部解散,传统曲目「三国」、「水浒」等被禁演,取而代之的是「红灯记」、「沙家浜」等样板戏的改编版本。据『南阳地区曲艺志』记载,1966-1976年间,全区80%以上的曲谱、乐器被毁,132名民间艺人被迫转行,大调曲子的活态传承濒临断裂¹⁸⁾。这一时期的文化专制不仅导致艺术形式的单一化,更造成代际传承的断层,青年一代对传统曲牌的认知几乎完全被政治化的文艺宣传取代。1978年后,大调曲子进入“复苏-转型”期。政府恢复专业剧团建制,南阳曲剧团等机构重新整理传统剧目,如「陈三两爬堂」、「风雪配」等经典作品复排上演。1982年,全省专业曲剧团增至43个,民间自乐班也在城乡迅速恢复。改革开放后,随着社会的发展和现代化进程的加快,河南大调曲子面临着现代化的冲击,年轻一代对传统的大调曲子失去了兴趣,观众群体逐渐萎缩,大调曲子的传承和发展面临着新的挑战。

2) 儒家思想对大调曲子的深层影响

(1) 唱词内容中的忠孝节义主题

河南大调曲子的唱词题材广泛,涵盖历史故事、民间传说与道德教化等内容,其中忠孝节义主题尤为突出,深刻体现了儒家伦理思想。以「关公挑袍」与「岳母刺字」为例,如「关公挑袍」中,通过关羽拒绝曹操厚禄、挂印封金的故事,塑造了“义薄云天”的忠臣形象。唱词中“匹马单刀辞汉相,忠心赤胆保刘王”直接点明关羽的忠义精神,其对刘备的忠诚与对曹操的知恩图报,正是儒家“义”的核心体现¹⁹⁾。「岳母刺字」讲述岳飞之母姚氏在其背上刺下“精忠报国”四字,激励其保家卫国的故事。唱词“刺字训儿忠报国,精忠肝胆照乾坤”强调家国情怀,将“忠”与“孝”结合,反映儒家“修身齐家治国平天下”的理想²⁰⁾。这些曲目通过叙事与抒情,将儒家道德规范转化为具体的艺术形象,使听众在欣赏音乐的同时接受伦理教育。大调曲子的唱词多采用代言体,通过角色对话传递价值观,如「三娘教子」中的“忠孝节义”主题,既符合儒家“文以载道”的传统,又满足民间审美需求²¹⁾。曲词中的衬词是一类特殊的词语,它们在大调曲子中扮演着重要的角色。衬词并非曲子内容的直接表达,而是由语气词、形声词、谐音词或特定称谓等组成,用来增强表达力和艺术效果。衬词通常与正词²²⁾没有直接的语义关联,甚至

16) 胡贞宇.「非遗视角下南阳大调曲子的发展困境与抢救性承」,『戏剧文学』,2019(7),pp.134-139.

17) 辛秀,长溪.『大调曲子初探』,郑州:河南省戏曲工作室,1983.

18) 南阳地区文化局.『南阳地区曲艺志』,郑州:河南人民出版社,1994.

19)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pp.74-78.

20) 宋光生.『河南大调曲子全书(全八册)』,北京:中央音乐学院出版社,2023.

21)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pp.93-96.

有的可能含义模糊。然而，当它们与正词结合成完整的曲子旋律时，却能发挥出强烈的感情色彩，成为不可分割的组成部分。大调曲子常见的曲词衬词有以下六个曲牌：「太平年」、「蛮莲花」、「茨儿山」、「莲花落」、「蛮垛」、「老剪剪花」。「太平年」曲词为七言四句一节，凡遇第三句，加唱衬词“太平年”；凡遇第四句，加长衬词“年太平”；若有不加唱衬词“太平年”、“年太平”的唱法，则是用与正词相关联的衬词代替，大调曲子界称之为「十字太平年」。

河南大调曲子通过「关公挑袍」「岳母刺字」等经典曲目，将儒家忠孝节义思想转化为具象的艺术表达。「关公挑袍」以「银钮丝」曲牌的委婉唱腔与三弦“大撮”技法，在三眼清板的节奏中塑造关羽“义薄云天”的忠臣形象；「岳母刺字」则借「诗篇」四句式结构与「慢垛」拖腔，通过“点分解”节奏控制，将“忠”“孝”伦理要求编织进叙事，实现“声灌始终”的道德教化。这种音乐化表达既遵循『乐记』“乐者，德之华也”的理念，又通过代言体叙事与身体记忆实践，将儒家“文以载道”传统融入民间审美，形成“雅俗共赏”的伦理传播机制。这些曲目不仅承载了中原文化的伦理内核，更通过活态传承成为儒家价值观的实践载体，在传统音乐生态中发挥着“以乐化人”的社会功能。

(2) 表演仪式中的“礼”文化体现

不仅唱词内容，大调曲子的表演仪式也渗透着儒家“礼”的精神，从开场仪轨到师徒传承制度，均体现出对社会秩序与伦理规范的维护。首先，在开场仪轨中，曲友聚会时遵循严格的礼仪程序，如开场前合奏「高山流水」以敬知音，演唱前拱手谦让，或因主家有女眷列坐厢房隔帘欣赏，因此演唱者总是闭目端坐而歌，以避瓜田李下之嫌。外地曲友先唱、长者优先的座次安排，体现“长幼有序”“以礼待人”的儒家原则²³⁾。其次，大调曲子虽无严格的师承关系，但曲友间通过“传帮带”延续技艺。例如，老艺人通过示范演唱与演奏，向晚辈传授技艺，并强调“三稳”（嘴稳、手稳、身稳）的行为准则，要求曲友“诚信以待”、“中正无邪”。这种非制度化的传承方式，既保持了艺术的纯粹性，又通过道德约束维护了曲友群体的和谐²⁴⁾。此外，曲友在婚丧嫁娶等场合演唱特定曲目，如「一门五福」「吉庆词」等，通过音乐表达对“礼”的尊重，将艺术活动与社会仪式紧密结合，强化了儒家“礼乐相济”的理念。

由此可见，河南大调曲子的表演仪式通过三重维度构建了儒家“礼”的实践场域。开场仪轨以「高山流水」合奏敬知音，遵循“长者优先、客位先唱”的座次礼仪，通过拱手谦让与闭目端坐的身体规训，将『论语』“克己复礼”思想转化为具体行为范式；传承过程中虽无严格师承制度，但通过“传帮带”模式与“三稳”行为准则（嘴稳、手稳、身稳），将“诚信中正”的道德要求融入技艺传授，形成非制度化却高度自律的传承生态；社会仪式中，曲友通过「一门五福」「吉庆词」等特定曲目，将音乐活动嵌入婚丧嫁娶等民俗场景，以“乐”载“礼”，实现『乐记』“礼者为异，乐者为同”的教化功能。这种“仪式性实践”不仅维系了曲友群体的和谐秩序，更通过代际传承使儒家伦理内化为地方文化基因，在活态传承中延续了“礼乐相济”的文化传统。

(3) 音乐审美中的“中和之美”

大调曲子的音乐形态以“中和”为审美核心，体现在调式、节奏与结构特征中，与儒家“乐以和其

22) 正词即直接承载大调曲子核心思想的词语。

23)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93-96.

24)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 pp.74-78.

声”的思想高度契合。第一，调式与音阶。大调曲子以宫调式与徵调式为主，融合雅乐音阶（含变徵音），形成“刚柔并济”的音乐性格。例如「春景」中“绿柳垂锦”一段，通过宫调式的平稳旋律与变徵音的游移（如“#4”），既展现自然之美，又暗含情感节制²⁵⁾。第二，节奏与速度。唱腔节奏讲究“快慢有度”，根据曲情调整速度，避免“过燥”或“过懈”。例如「陈杏元和番」中的散板段落，通过三眼清板的缓慢节奏表现哀婉情绪，而「王婆骂鸡」中的“二六板”则以紧凑节奏增强戏剧性。第三，结构与套曲。大调曲子采用联曲体结构，通过曲牌联缀实现情感递进。例如「凤凰岭上凤凰飞」以「鼓子头」起，中间插入「阴阳句」、「坡儿下」等曲牌，最终以「鼓子尾」收束，形成“起承转合”的中和之美²⁶⁾。套曲中“头-身-尾”的组合方式，既遵循儒家“有序”原则，又通过灵活变奏体现“和而不同”的审美追求。这种音乐审美不仅体现在听觉层面，更通过“声韵饱满”、“强弱有致”的演唱技巧，将儒家“中庸之道”转化为可感知的艺术体验。

因而，河南大调曲子以儒家“中和”美学为内核，构建了调式、节奏、结构三位一体的审美体系。宫调式与徵调式的主导运用，结合雅乐音阶中变徵音的游移性（如「春景」中“#4”的装饰性使用），既展现自然之美又暗含情感节制，体现『乐记』中“刚柔相济”的审美理想。联曲体结构中“头-身-尾”的套式组合，如「凤凰岭上凤凰飞」既遵循儒家“有序”原则，又通过曲牌间的灵活变奏达成“和而不同”的艺术效果，与『论语』“礼之用，和为贵”的哲学思想形成互文。这种审美实践不仅通过听觉感知传递“中庸之道”，更通过“声韵饱满”、“强弱有致”的演唱技法，将儒家美学转化为可体验的身体记忆，最终实现“乐以和其声，礼以导其志”的文化功能。

可见，河南大调曲子作为中原文化的活态载体，其艺术形态与儒家伦理传统形成深度互文。唱词内容以「关公挑袍」「岳母刺字」等经典叙事为载体，通过「银钮丝」委婉唱腔与「诗篇」四句式结构，将“忠孝节义”的伦理要求转化为可感知的音乐符号，既遵循『乐记』“乐者，德之华也”的教化理念，又通过代言体叙事实现“文以载道”的民间传播。在表演仪式中，开场仪轨的「高山流水」合奏与“长者优先”的座次安排，将『论语』“克己复礼”思想具象化为身体实践；“传帮带”模式与“三稳”行为准则，则通过非制度化传承维系曲友群体的道德自律。在音乐审美层面，宫调式与徵调式的主导运用、三眼清板与二六板的节奏辩证，以及联曲体“头-身-尾”的套式结构，共同构建了“刚柔相济”、“和而不同”的中和美学体系，与『乐记』“乐以和其声”的哲学思想形成深层呼应。这种多维渗透使大调曲子超越了单纯的艺术形式，成为儒家价值观在民间的实践样本，其“以乐化人”的文化功能，至今仍在传统音乐生态中延续着“礼乐相济”的文化基因。

2. 音乐形态的儒家伦理表达

作为曲友之间相互传习的民间艺术，大调曲子的传承承载着文人的思想与精神追求。如何通过表演呈现出曲友的精神理念与追求，这在大调曲子的发展历程中也逐渐形成规范，如曲牌结构中呈现的秩序性、唱词文本的道德教化功能及表演实践中的身体伦理都呈现出儒家伦理在音乐形态上的表达，是对儒家礼乐文化的有效实践。

25) 王宇琪.「中原荆楚汇佳音——南阳大调曲子唱腔特色研究」,『音乐创作』,2014,(06),pp.165-167.

26) 李海萌.「浅谈河南大调曲子板头曲三弦演奏的若干特点——兼谈三弦演奏风格的分类」,『中央音乐学院学报』,2006,(03),pp.118-123+140.

1) 曲牌结构中的秩序性

(1) 联曲体与“礼”的层级性关联

在曲牌结构中,中国河南大调曲子的联曲体结构深刻体现了儒家“礼”的层级性特征。联曲体以核心曲牌为框架,通过不同曲牌的联缀形成严谨的音乐体系,如鼓子套曲、码头套曲等套曲形式,其“头-身-尾”式结构与儒家“君臣父子”的等级秩序形成隐喻性对应²⁷⁾。例如,鼓子套曲以「鼓子头」开篇定调,中间插入「阴阳句」「坡儿下」等曲牌叙事,最终以「鼓子尾」收束,这种首尾呼应的结构不仅强化了音乐的完整性,更暗含“礼之用,和为贵”的儒家思想(『乐记』)。除此之外,联曲体的层级性还体现在曲牌的功能分工上。核心曲牌如「满江红」「码头」作为“主调”,象征权威与主导地位;辅助曲牌如「银钮丝」「汉江」则承担叙事或抒情的补充作用,形成主次分明的层级关系。这种结构与儒家“贵贱有等,长幼有差”的伦理秩序高度契合,通过音乐形式将社会等级转化为可感知的艺术表达²⁸⁾。

可以说,河南大调曲子的联曲体结构通过“头-身-尾”套式与曲牌功能分工,构建了儒家伦理秩序的音乐化隐喻体系。以鼓子套曲为例,其「鼓子头」定调、中间曲牌叙事、「鼓子尾」收束的结构,不仅形成首尾呼应的音乐完整性,更暗含『乐记』“礼之用,和为贵”的哲学思想。联曲体通过音乐形式将社会等级转化为可感知的艺术表达,既维系了曲牌联缀的严谨性,又以隐喻方式强化了儒家伦理的层级性特征,使大调曲子成为“礼”文化在民间音乐中的具象化载体。这种结构不仅是音乐美学的体现,更是儒家价值观通过艺术实践实现社会整合的文化机制。

(2) 板眼节奏与“中庸”美学的契合

河南大调曲子的板眼节奏体系作为儒家“中庸”美学在音乐中的实践,通过节奏布局的辩证平衡与演奏细节的精微控制,构建了“过而不偏、节而不滞”的艺术范式。其核心在于通过板式结构的功能性划分与微观节奏的弹性调控,实现情感表达与形式规范的动态统一,既避免节奏松弛导致的涣散,亦杜绝过度激越引发的失衡,最终达成『乐记』“乐而不淫,哀而不伤”的审美理想。作为典型的舒缓律动形式,三眼清板(4/4拍)以“一板三眼”的结构为基础,通过延长音与拖腔的适度运用,将情感张力控制在“中和”范畴内。如「陈杏元和番」中表现哀婉情绪时,尾音拖腔常延续至2小节以上,但强拍位置的稳定周期性如同伦理框架,将悲痛限定在“怨而不怒”的尺度内,避免陷入失控的宣泄。这种“慢而不断”的设计,暗合『论语』“中庸之为德”的哲学内核,以节奏的秩序性映射社会伦理的有序性。与之相对,二六板以“一板一眼”的紧凑形态营造戏剧张力,如「王婆骂鸡」通过密集的八分音符(占比超60%)和垛句插入推动情绪,但始终以板位强拍为基准点,确保“快而不乱”。即便在局部通过“加垛”突破句式结构,如「诗篇」中插入三言短句,旋律落音仍严格回归主调式音(如徵调式落“5”),体现“变中守常”的中庸智慧。

在具体的演奏实践中,“点分解”方法将四分音符细分为前、中、后三个微观节奏位置(每点约十六分音符时值),通过起唱时机的精准把控实现情感的细腻调节。踏前点(强拍前1/4位置起唱)用于「战潼关」等紧张场景,以半拍内的提前切入制造紧迫感,却不破坏整体节奏框架;依中点(强拍正拍起唱)适用于「春景」类叙事段落,严格对齐板位以呈现“中正平和”;拖后点(强拍后1/4位置起唱)则在「黛玉焚

27)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p.93-96.

28)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 pp.74-78.

稿」的哭腔中延迟发声,以不超过半拍的延宕形成“欲言又止”的张力,均恪守“适度”原则。可以说,大调曲子的板眼节奏以“中庸”为内在逻辑,将儒家的伦理追求转化为可听可感的时间艺术。它既非对情感的压抑,亦非对形式的放任,而是在“板”的规矩与“眼”的灵动、“快”的张力与“慢”的舒缓、“点”的精准与“拍”的稳定之间,找到文化基因的共振点。这种节奏智慧不仅是中原音乐文化的活态样本,更为当代艺术创作提供了在技术理性中守护人文精神的可能路径。在演唱过程中,曲友们以点分解,依音乐情绪选择恰当的节奏位置,从而使听众在同频的旋律里产生共情或者共振。

2) 唱词文本的道德教化功能

(1) 儒家经典的音乐化转译

在唱词文本中,河南大调曲子通过唱词文本将儒家经典中的伦理思想转化为可感知的艺术表达,实现了“文以载道”的教化功能。这种转译不仅体现在对儒家核心概念的直接引用,更通过叙事重构与音乐化处理,将抽象哲理转化为具象的艺术形象。第一,『论语』典故的戏曲化表达。例如「琴棋书画」中唱词“入则孝出则悌,温良恭俭让”直接引用『论语·学而』的经典论述,通过「鼓子头」与「阴阳句」的联缀,将“孝悌”、“温良”等儒家德行融入叙事。这种处理方式既保留了经典文本的权威性,又通过音乐节奏与唱腔的起伏,使伦理说教转化为情感共鸣²⁹⁾。第二,历史典故的伦理重构。「关公挑袍」以关羽辞曹归刘的故事为载体,将『论语』中“义”的思想具象化为人物行动。唱词“匹马单刀辞汉相,忠心赤胆保刘王”通过「银钮丝」的委婉唱腔,将“义”的抽象概念转化为可感知的英雄形象,实现了对儒家伦理的审美化诠释³⁰⁾。第三,经典意象的音乐符号化。「春景」中“绿柳垂锦,绣出来阳春景象”化用『诗经』比兴手法,通过「坡儿下」的舒缓旋律,将自然意象与“天人合一”的儒家生态伦理相联结,使道德说教隐于审美体验之中。

(2) 叙事中的伦理评判机制

在叙事体系中,大调曲子通过善恶报应的叙事模式,构建了一套以儒家伦理为核心的价值评判体系。这种机制不仅体现在情节设计中,更通过音乐结构与唱腔设计强化道德训诫。第一,因果报应的情节框架。「拉荆笆」讲述逆子弃母、最终遭报的故事,通过「鼓子头」与「鼓子尾」的首尾呼应,将“孝”的伦理要求转化为因果律。唱词“乌鸦反哺把恩报,为人子何不孝顺爹妈”在「罗江怨」的悲怆旋律中,形成对不孝行为的道德审判³¹⁾。第二,角色命运的伦理隐喻。「陈杏元和番」以陈杏元的牺牲为主线,通过「汉江」的委婉唱腔与「打枣杆」的急促节奏对比,将“忠君爱国”的伦理选择转化为戏剧冲突。陈杏元投江殉国的结局,既是对儒家“舍生取义”思想的践行,也是对背德者的隐性批判³²⁾。第三,音乐符号的道德象征。在「王婆骂鸡」等讽刺性曲目,「蛮垛」的诙谐节奏与「老剪剪花」的轻快旋律被用于刻画市侩形象,而「慢阴阳」的低沉曲调则用于表现悔过场景。这种音乐符号的二元对立,将道德评判转化为听觉体验,使听众在笑声中接受伦理规训。

29)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 pp.74-78.

30)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p.93-96.

31)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 pp.74-78.

32) 王宇琪.「中原荆楚汇佳音——南阳大调曲子唱腔特色研究」,『音乐创作』,2014,(06), pp.165-167.

这样看来,河南大调曲子唱词文本的道德教化功能主要通过儒家经典的音乐化转译与叙事中的伦理评判机制实现。在音乐化转译层面,一方面,将儒家经典中的抽象伦理概念,通过艺术化的叙事重构,转化为生动的人物形象与情节,以通俗化的方式传递传统价值观;另一方面,借助曲牌音乐的独特韵律与节奏,赋予儒家思想音乐符号化特征,使听众在艺术审美中自然接受道德熏陶。在叙事伦理评判机制上,其一,依托传统的善恶报应叙事逻辑,构建起符合儒家伦理的价值评判体系,强化民众对传统道德规范的认知与认同;其二,通过对角色命运的戏剧化处理,将忠、孝、义等伦理准则具象为人物的行为选择与结局,形成道德示范效应;其三,巧妙运用音乐元素的表意功能,以不同曲牌的旋律风格隐喻人物善恶属性与道德情境,实现听觉层面的道德教化,使听众在艺术欣赏中潜移默化地接受伦理规训。由于唱词文本与儒家思想教义在表达方式上的共通性,因而道德教化内容能够自然融入唱词之中。然而,在大调曲子的实际表演过程中,儒家思想的传递则主要依靠表演者的演绎与伴奏的选择来实现。

3) 表演实践中的身体伦理

(1) 手势、身段与“克己复礼”的身体规训

在河南大调曲子的表演实践中,身体动作被纳入儒家“礼”的范畴,并通过严格的规训实现“克己复礼”的伦理目标。演唱者与伴奏者的肢体语言、姿态和动作均体现了儒家对“中正无邪”的追求。第一,身体姿态的规范性。演唱者遵循“坐如钟”的原则,闭目端坐、目不斜视,双手执檀板置于胸前,保持脊柱挺直但不僵硬。这种姿态不仅是对“礼”的外在表现,更通过身体的稳定传递内心的“中和”。例如,在「陈杏元和番」的散板段落中,演唱者通过三眼清板的缓慢节奏(4/4拍)配合身体的微倾,表现哀婉情绪,同时保持头部端正,避免夸张动作,这一表演要求体现了“乐而不淫,哀而不伤”的儒家审美³³⁾。第二,手势与情感表达的克制。在大调曲子的表演中,伴奏者的肢体动作同样受到规范。三弦演奏者左手按弦、右手拨弦时,强调“指节如锥”、“手腕如弓”,动作幅度较小且精准³⁴⁾。例如,在「高山流水」的轮指段落中,演奏者通过指尖的快速颤动与手臂的平稳控制,既展现音乐的流动感,又保持“刚柔相济”的儒家美学。第三,身体规训的道德隐喻。曲友间的“三稳”原则(嘴稳、手稳、身稳)将身体动作与道德修养结合。例如,演唱者在接腔时仅以头部微颌示意,避免肢体接触,体现“男女有别”的伦理要求³⁵⁾。这种身体规训不仅约束行为,更通过长期实践内化为“克己复礼”的自觉意识。

在实际的表演交流中,河南各地大调曲子曲友们会在每年冬季与春季两个季节相互交流,以曲会友,彼此学习。曲友交流时,也有特殊的规矩。以南阳为例,在曲子场上,凡是有外地曲友在座,板头曲演奏过后,会请远道而来的外地曲友先唱,客人开唱前,会与本地乐队相互礼让,相互赞美,然后再端正坐下,拿起檀板,根据自己所选择的曲目打出第一板³⁶⁾,主奏乐器三弦会根据开板情绪演奏前奏部分,待前奏部分结束后,外地曲友会再次起身,双手捧板向大家施礼,并说“献丑了”,与本地曲友再次寒暄一番后,才正式入座演唱。外地曲友演唱即将结束时,在乐曲结尾处,众人会根据尾声节奏齐呼一声“好”,以示友好与捧场。

33) 王宇琪,「中原荆楚汇佳音——南阳大调曲子唱腔特色研究」,『音乐创作』,2014,(06), pp.165-167.

34) 李海萌,「浅谈河南大调曲子板头曲三弦演奏的若干特点——兼谈三弦演奏风格的分类」,『中央音乐学院学报』,2006,(03), pp.118-123+140.

35)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93-96.

36) 第一板的讲究:慢曲开板弱而缓,快曲开板强而疾。

(2) 伴奏乐器的象征意义

伴奏乐器在大调曲子中不仅承担音乐功能,更承载儒家伦理的象征意义,成为“礼”的物质载体。第一,三弦作为“礼”的秩序性象征。三弦作为主奏乐器,其“一弦为君,二弦为臣,三弦为民”的传统定弦法³⁷⁾暗合儒家“君臣父子”的等级秩序。演奏时,三弦的“左手操五音,右手执五味”技法要求左右手的协调配合,隐喻“君使臣以礼,臣事君以忠”的伦理关系。例如,在「关公挑袍」的「银钮丝」段落中,三弦通过“大撮”与“小撮”的交替演奏,既突出旋律主线(君),又以装饰音为辅(臣),形成主次分明的音响结构³⁸⁾。第二,古筝作为“中和”的审美载体。古筝在大调曲子中常以“清、虚、淡、远”的音色营造雅乐氛围。其“按滑揉颤”的技法³⁹⁾要求演奏者“指实掌虚”,通过指尖的细腻控制实现音色的虚实相生,与儒家“致中和”的哲学思想相契合。例如,「春景」中古筝的轮指段落以均匀的节奏和舒缓的旋律,象征“天地之和”的理想境界。第三,乐器组合的伦理隐喻。三弦、古筝、琵琶的合奏形式被称为“碰八板”,要求各乐器在“你中有我,我中有你”的协作中保持独立性。这种“和而不同”的演奏方式,既是儒家“群而不党”伦理原则的音乐化表达,也通过乐器间的呼应实现“乐以和其声”的教化功能⁴⁰⁾。

可见,大调曲子在河南各地,尤其是南阳一带,是较为普及的一种曲艺,且具有文人音乐的一些礼仪特征。经过悠久的历史发展与推进,其演唱形式有不少约定俗成的行规与音乐特点,表演者的表演规矩与伴奏乐器融入了儒家思想对个人与社会的道德规训,更是社会价值观的具体体现和延伸。在身体层面,表演者以规范性姿态、克制性手势及“三稳”准则,将“克己复礼”的道德要求转化为身体语言,曲友交流中的礼仪规范也处处彰显儒家“礼”的内涵;在乐器层面,三弦象征等级秩序,古筝承载“中和”美学,乐器组合隐喻“和而不同”的伦理原则,实现了“礼”与“乐”的交融。二者共同构建起以儒家思想为内核的表演体系,既赋予艺术形式深厚的文化底蕴,又在实践中达成道德教化与审美体验的统一。

3. 当代传承困境与儒家思想的现代转化

在科技快速发展与娱乐业盛行的当下,“自娱”性的大调曲子的传承依旧依赖于曲友之间的口传心授,一方面大调曲子的传承方式难以适应现代社会的发展,另一方面其表演方式难以吸引年轻一代的观众与传承人,大调曲子的传承面临传承人断代与市场化冲击的双重危机。因而,探索大调曲子的现代创新路径,实现其数字化时代的活态传承与儒家思想的现代化转化刻不容缓。

1) 传承危机的多维透视

(1) 传承人断层与文化认同消解

作为中国传统文化,河南大调曲子的传承危机首先表现为代际断层与文化认同的弱化。大调曲子的传

37) 李海萌.「浅谈河南大调曲子板头曲三弦演奏的若干特点——兼谈三弦演奏风格的分类」,『中央音乐学院学报』,2006,(03), pp.118-123+140.

38)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 pp.74-78.

39) 王宇琪.「中原荆楚汇佳音——南阳大调曲子唱腔特色研究」,『音乐创作』,2014,(06), pp.165-167.

40)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p.93-96.

统传承依赖“曲友”间的口传心授，强调“师徒如父子”的伦理关系。然而，随着老艺人相继离世，年轻一代因现代化生活方式的冲击，对传统曲牌、唱腔及表演规范的掌握严重不足。据『中国曲艺志邓县卷』的数据显示，邓州的大调曲子传承谱系在三代时仍有14人，至四代时锐减至6人。⁴¹⁾这种断层不仅导致技艺流失，更使“礼乐相济”的儒家精神失去实践载体。然而，大调曲子文化认同的消解主要体现在两个层面。其一，年轻群体对大调曲子的历史渊源与文化内涵缺乏认知，将其简单视为“老旧艺术”，忽视其承载的忠孝节义等伦理价值⁴²⁾；其二，非遗名录将大调曲子归类为“曲艺”，与曲剧（小调曲子）相混淆。曲剧（小调曲子）虽是在大调曲子的发展与曲艺化演变中的产物，但仍会导致其作为传统音乐的独立文化身份被模糊，学者张杰在对大调曲子传承人的调研中发现，在他们眼中，“老艺人”并非是对他们身份的尊称，“曲友”与“艺人”的称谓对他们来说完全不同⁴³⁾。可见，将大调曲子归类为“曲艺”已见弊端，曲友群体内部对“雅派”与“俗派”的分歧⁴⁴⁾，进一步削弱了文化认同的统一性。

(2) 市场化冲击下的伦理价值重构难题

在现代社会的加速发展中，市场化进程对大调曲子的伦理根基形成双重冲击。一方面，传统雅集的“自娱性”原则⁴⁵⁾被商业演出取代，部分曲友为迎合市场需求简化唱腔、改编曲目，导致“献艺不卖艺”的儒家伦理被边缘化。例如，南阳曲艺厅的售票演出虽扩大了受众，但板头曲却因“不够热闹”逐渐从舞台消失⁴⁶⁾。另一方面，现代娱乐方式如短视频、流行音乐的冲击导致观众老龄化，曲友为吸引年轻群体尝试加入舞蹈、电子音乐等元素，却面临“过度创新”的争议⁴⁷⁾。这种冲击本质上是传统“礼乐”价值观与现代功利主义的冲突。大调曲子原有的“中和之美”⁴⁸⁾与“克己复礼”的身体规训，在市场化中难以与消费主义逻辑兼容。例如，「王婆骂鸡」等讽刺性曲目为适应短视频传播，被简化为片段化表演，丧失了原有的道德批判深度。那么，如何在保持艺术本真性的同时重构伦理价值，成为当代传承的核心挑战。

2) 创新路径的探索

(1) 儒家“乐教”思想与现代音乐教育的结合

在儒家思想中，“乐教”思想强调音乐的道德教化功能，主张通过“乐”培养人的“中和”人格。『乐记』云：“乐者，德之华也。”这种思想与现代音乐教育的人文价值高度契合。在大调曲子的传承中，可将儒家“乐教”理念融入课程设计，构建“以乐化人”的教育体系。例如，在高校音乐专业开设“大调曲子专题课”，通过分析「关公挑袍」「岳母刺字」等曲目，引导学生理解忠孝节义的伦理内涵；在中小学音乐课程中引入“曲牌联套”实践，让学生通过参与式学习感受“礼”的秩序性与“乐”的和谐性⁴⁹⁾。这

41) 邓县文化局.『中国曲艺志邓县卷』, 南阳:邓县文化局, 1989, p.181.

42)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 『曲艺』, 2023,(09), pp.74-78.

43) 张杰.『大调曲子在非遗名录中的归类问题研究』, 『文化遗产』, 2024,(04), pp.18-27.

44) 李海萌.『浅谈河南大调曲子板头曲三弦演奏的若干特点——兼谈三弦演奏风格的分类』, 『中央音乐学院学报』, 2006,(03), pp.118-123+140.

45)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 『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 2017,(04), pp.93-96.

46) 张杰.『大调曲子在非遗名录中的归类问题研究』, 『文化遗产』, 2024,(04), pp.18-27.

47) 胡贞宇.『非遗视角下南阳大调曲子的发展困境与抢救性承』, 『戏剧文学』, 2019 (7), pp.134-139.

48) 王宇琪.『中原荆楚汇佳音——南阳大调曲子唱腔特色研究』, 『音乐创作』, 2014,(06), pp.165-167.

种结合需突破传统师徒制的局限,借鉴现代教育技术。例如,利用慕课(MOOC)平台开发线上课程,通过动画演示曲牌结构与儒家伦理的关联;设计沉浸式教学场景,让学生在角色扮演中体验“雅集”的礼仪规范,实现“知行合一”⁵⁰⁾。此外,可参考德国奥尔夫音乐教育体系,将大调曲子的节奏型转化为互动游戏,如将“三不各”的复杂节拍融入学生的互动游戏中,使抽象的“中和”美学具象化为可感知的教学活动。

(2) 数字技术赋能下的活态传承

数字技术既为大调曲子的传承带来挑战,同时也为大调曲子的活态传承提供了新路径。一方面,可构建“虚拟传承人”系统,通过3D动作捕捉技术记录老艺人的表演细节,如手势、身段与呼吸控制,结合AI算法模拟其演唱风格。例如,基于曹东扶演奏的「高山流水」,开发交互式程序,用户可通过调整参数生成个性化演奏版本,同时保留“左手操五音,右手执五味”⁵¹⁾的传统技法。另一方面,AI辅助谱曲可突破曲牌联套的创作瓶颈。利用机器学习分析『南阳大调曲子全书』中的134首板头曲与252首牌子曲,提取“起承转合”的结构规律与调式转换模式,生成符合传统美学的新曲谱⁵²⁾。例如,AI可自动识别「陈杏元和番」中三眼清板的情感特征,为现代歌词适配传统旋律,实现“旧瓶装新酒”的创新⁵³⁾。

(3) 跨文化对话中的价值再发现

通过与西方音乐剧的比较研究,可揭示大调曲子的独特美学价值。例如,大调曲子的“一人唱众人”与音乐剧的合唱形式形成对比,前者强调集体参与的“礼”文化,后者侧重个体情感的戏剧化表达⁵⁴⁾。在叙事结构上,大调曲子的善恶报应模式,如「拉荆笆」与音乐剧「悲惨世界」的道德批判形成跨时空对话,凸显儒家伦理的普世性⁵⁵⁾。毋庸置疑,这种对话需建立在文化自觉的基础上,例如,将大调曲子的“三稳”原则(嘴稳、手稳、身稳)与西方表演训练中的“斯坦尼斯拉夫斯基体系”相比较,可发现二者对身体规训的不同路径,前者通过“克己复礼”实现内在修养,后者通过“体验派”方法达到情感外化。这种比较不仅有助于深化对大调曲子的理解,还可为音乐剧创作提供东方美学启示。

4. 结语

河南大调曲子作为中原文化的活态载体,其存续与发展始终与儒家伦理传统深度交织。通过对历史演进、音乐形态及表演实践的双重维度剖析,本文揭示了该曲种如何以联曲体结构隐喻“礼”的层级性,以板眼节奏诠释“中庸”美学,以善恶叙事承载道德教化功能,最终形成“礼乐相济”的独特艺术范式。这种文化基因的植入,使大调曲子超越了单纯的音乐形态集合,成为儒家价值观在民间的实践样本。

49) 杜亚雄,周李清.「礼导其志乐和其声从演唱大调曲子礼俗看儒家之“礼乐观」,『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17,(04), pp.93-96.

50) 董鸣苑.「南阳大调曲子的传承保护刍议」,『南阳理工学院学报』,2022,14(05), pp.120-123.

51) 李海萌.「浅谈河南大调曲子板头曲三弦演奏的若干特点——兼谈三弦演奏风格的分类」,『中央音乐学院学报』,2006,(03), pp.118-123+140.

52) 张杰.「大调曲子在非遗名录中的归类问题研究」,『文化遗产』,2024,(04), pp.18-27.

53) 王宇琪.「中原荆楚汇佳音——南阳大调曲子唱腔特色研究」,『音乐创作』,2014,(06), pp.165-167.

54) 胡贞宇.「非遗视角下南阳大调曲子的发展困境与抢救性承」,『戏剧文学』,2019(7), pp.134-139.

55) 王斐斐.「浅析河南大调曲子的中国传统文化精神」,『曲艺』,2023,(09), pp.74-78.

在当代语境下，大调曲子面临的传承危机本质上是传统“礼乐”体系与现代社会的价值冲突。传承人断层与文化认同消解，折射出农耕文明向工业文明转型中的文化断裂；市场化冲击下的伦理重构难题，则暴露出消费主义对艺术本真性的侵蚀。然而，大调曲子的发展困境中亦蕴含着创新契机，儒家“乐教”思想与现代教育的融合，为传统音乐的价值再生提供了理论框架；数字技术赋能的活态传承，使文化基因的数字化保存与创造性转化成为可能；跨文化对话中的价值再发现，则为传统音乐的现代诠释开辟了新路径。本文不仅深化了对大调曲子艺术特质的理解，更拓展了中国传统音乐伦理研究的理论维度。未来，可进一步将研究视野扩展至其他受儒家思想影响的地方曲种，构建基于文化基因的传统音乐传承理论体系。同时，通过多学科交叉研究，探索儒家音乐伦理在当代社会的创造性转化，为非物质文化遗产的活态传承提供更具普适性的方法论启示。这种探索不仅关乎音乐形态的保存，更是对中华优秀传统文化精神的当代诠释与延续。

【중국문학분과 II】 발표

루쉰의 「그림자의 작별(影的告別)」
— 어둠을 향해 없는 땅에서 방황하는 처연한 영혼

김 언 하*

【목 차】

1. 문제 제기
2. 형체를 떠나는 그림자
 - 1) 그림자와 형체의 관계
 - 2)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는 이유
3. 어둠을 향해 없는 땅에서 방황하기
 - 1) 그림자의 처연한 운명
 - 2) 그림자의 이상한 선물
4. 나오며

【 초 록 】

「그림자의 작별(影的告別)」(1924)은 루쉰의 산문시집 『들풀(野草)』에 실린 23편의 시 가운데 「묘비문(墓碣文)」(1925), 「이런 전사(這樣的戰士)」(1925)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난해한 시의 하나로 꼽힌다. 우리가 “시화된 철학”이라는 말로 『들풀』 전체의 의미를 요약할 수 있다고 할 때, 루쉰의 사상을 해명하는 자료로서 이 세 편의 산문시보다 더 좋은 것은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묘비문」, 「이런 전사」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화된 철학”이라는 『들풀』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텍스트 분석과 사상적 해석을 고도로 융합시키는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는 첫째, 이 산문시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그림자와 형체(인간) 사이의 대립적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에는 이 대립적 구조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루쉰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그림자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는 질문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그림자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我不願住)”, “난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我不如彷徨于無地)” 그리고 “난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我不如在黑暗里沉沒)”라는 구절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표현들이 지닌 의미의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셋째, 그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wuwuzhanshi@naver.com)

림자가 형체(인간)에게 작별을 알리고 떠나면서 인간에게 주었던 선물, 즉 “어둠과 공허(黑暗和虛空)”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는 앞서 말한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 “난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 “난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라는 구절과 더불어 그림자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 시어임에도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넷째, 예술성의 측면에서 「그림자의 작별」이 지닌 반어적 성격에 관한 고찰의 문제이다. 이는 「묘비문」과 더불어 해당 산문시 속에서 루쉰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하는 논쟁을 집중적으로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그림자의 작별, 시화된 철학, 텍스트 분석, 사상적 해석, 극단적 대립, 반어적 성격

1. 문제 제기

「그림자의 작별(影的告別)」(1924)은 루쉰의 산문시집 『들풀(野草)』에 실린 23편의 시 가운데 「묘비문(墓碣文)」(1925), 「이런 전사(這樣的戰士)」(1925)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난해한 시의 하나로 꼽힌다. 우리가 “시화된 철학”이라는 말로 『들풀』 전체의 의미를 요약할 수 있다고 할 때, 루쉰의 사상을 해명하는 자료로서 이 세 편의 산문시보다 더 좋은 것은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루쉰의 철학이 이처럼 산문시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장르의 특성상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또한 시를 통해 구현된 그의 사상이 그 비범한 깊이로 인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묘비문」, 「이런 전사」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화된 철학”이라는 『들풀』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텍스트 분석과 사상적 해석을 고도로 융합시키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즉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 편의 산문시 「그림자의 작별」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난해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는 첫째, 이 산문시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그림자와 형체(인간) 사이의 대립적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에는 이 대립적 구조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루쉰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그림자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는 질문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그림자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我不願住)”, “난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我不如彷徨于無地)” 그리고 “난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我不如在黑暗里沉沒)”라는 구절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표현들이 지닌 의미의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셋째, 그림자가 형체(인간)에게 작별을 알리고 떠나면서 인간에게 주었던 선물, 즉 “어둠과 공허(黑暗和虛空)”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는 앞서 말한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 “난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 “난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라는 구절과 더불어 그림자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 시어임에도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넷째, 예술성의 측면에서 「그림자의 작별」이 지닌 반어적 성격에 관한 고찰의 문제이다. 이는 「묘비문」과 더불어 해당 산문시 속에서 루쉰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하는 논쟁을 집중적으로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형체를 떠나는 그림자

산문시 「그림자의 작별」은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가 형체(사람)에게 작별을 알리고 떠나가는 사건이 주된 모티프로 제시되고 있는 작품이다. 우선 인간의 형체에 종속되어 있는 그림자가 주인인 인간의 몸을 떠난다는 설정 자체가 상당히 터무니없는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이런 설정 자체가 지닌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만일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예술적 구상이 어떤 의미심장한 내용과 연결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애초의 표면적 인상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그런 작품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루쉰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과 의미심장한 것을 고도로 융합시키는 작품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으므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독보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6년 전 자신의 출세작 『광인일기狂人日記』(1918)에서 우스꽝스러운 광기와 심오한 사상의 대응 관계를 광의의 상징주의를 운용하여 절묘하게 그려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그림자와 형체의 관계

우선 형체(사람)와 그림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뛰어난 루쉰 연구자 가타야마 토모유키(片山智行)는 이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 따른다(形影相隨)’”는 이런 관계에 놓인 ‘그림자’가 와서 주인에게 절교를 선언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작가가 이런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대개 자신의 내면세계의 분열, 즉 일상생활 속의 작가(‘형체’)와 잠재의식 속의 작가(‘그림자’)의 분열일 것이다. 쑨위스孫玉石가 지적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작가는 여기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모순과 그들을 해부하고” 있는 것이다.”¹⁾ 가타야마 토모유키는 형체(사람)를 루쉰의 현실적 자아-‘일상생활 속의 작가’로, 그림자를 심층적 자아-‘잠재의식 속의 작가’로 간주하고, 이 작품의 의미를 쑨위스의 견해를 빌어 작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모순과 그들을 해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형체를 루쉰의 현실적 자아로, 그림자를 루쉰의 심층적 자아로 간주하는 관점 역시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루쉰이 형체-현실적 자아의 입장에서 그림자-심층적 자아의 입장을 부정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루쉰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은 형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루쉰이 그림자-심층적 자아의 입장에서 형체-현실적 자아를 부정했다는 것, 즉 루쉰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그림자의 사상이 너무 어둡고 허무주의적이라서 루쉰이 이미 부정하고 극복한 과거의 사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그림자의 사상이야말로 일상성의 한계에 갇힌 현실적 자아를 비판하는 심층적 자아의 것이며, 루쉰 사상의 깊이와 독창성을 대표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1) “有着“形影相隨”关系的“影”来向主人宣称绝交，这本身已经相当难以理解了，但作者通过这种描写所要表现的，大概是自身内面世界的分裂。即日常生活中的作者（“形”）和潜在意识里的作者（“影”）的分裂。正如孙玉石所指出的那样，作者在这里是“解剖着自己内心深处的矛盾和阴影。” 片山智行著/李东木译，『鲁迅《野草》全释』，吉林大学出版社，1993，p. 20.

물론 위와 같은 시각에서 작품을 읽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산문시의 제목 자체가 「그림자의 작별」이고, 시인 루쉰이 그림자의 입장에서 형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백하고, 아울러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림자의 처연한 운명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루쉰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이며, 「그림자의 작별」 역시 「묘비문」, 「이런 전사」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루쉰 사이의 극단적 대립에 대한 묘사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대립에 대한 관점과 그 해석이 「그림자의 작별」이 지닌 예술적 차원에서의 반어적 성격과 사상적 차원에서의 고도의 난해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작품에서 나타난 형체를 세인(世人)으로, 그림자를 시인(詩人) 자신으로 간주하고, 작가가 세인과 시인의 극단적 대립을 그려내고 있다고 파악할 때 이 작품에 대해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2)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는 이유

여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루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그림자라고 간주하든 아니면 형체(사람)라고 간주하든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림자가 왜 자신의 주인인 형체, 즉 인간을 떠나려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형체에게 작별을 고하고, 형체를 떠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점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자의 작별」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이 어느 때인지 모르게 자고 있을 때, 곧 그림자가 작별하러 와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천당에 있다면 난 가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지옥에 있다면 난 가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신들 미래의 황금세계에 있다면 난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바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친구, 난 당신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네,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

난 그리고 싶지 않아!

아아, 아아, 난 그리고 싶지 않아. 난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²⁾

그림자가 사람을 떠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시인은 이것을 “내

2) “人睡到不知道時候的時候，就會有影來告別，說出那些話——

有我所不樂意的在天堂里，我不願去；有我所不樂意的在地獄里，我不願去；
有我所不樂意的在你們將來的黃金世界里，我不願去。

然而你就是我所不樂意的。

朋友，我不想跟隨你了，我不願住。

我不願意！

嗚呼嗚呼，我不願意，我不如彷徨於無地。” 魯迅，「影的告別」『野草』，『魯迅全集2』，人民文學出版社，1981，P. 16

5. 이하 「影的告別」에서 인용한 문장은 출처를 생략함.

마음에 들지 않는 것(我所不樂意的)”이라고 감정을 절제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여전히 친구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작별을 알리는 결연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我不想跟隨你了)”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은 그 이유를 상황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지닌 근본적 문제는 그가 “어느 때인지 모르게 자고 있기(人睡到不知道時候的時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인간이란 물론 각성한 정신이 없는 인간에 대한 비유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루쉰은 당시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거나, 장님이거나 또는 눈을 감고 잠들었다거나 하는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 「그림자의 작별」(1924.9)에서는 “어느 때인지 모르게 자고 있는(睡到不知道時候的)” 사람이 나오고, 『외침(吶喊)·자서(自序)』(1922)에서는 “쇠로 만든 방(鐵屋子)”안에 갇혀 “죽음의 비애(死的悲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는 “깊이 잠든 사람들(熟睡的人們)”이 나온다.…… 눈먼 장님과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사물의 진상을 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계열에 속한다. 따라서 영속적인가 일시적인가 또는 강도(強度)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경우 모두 각성하지 못한 정신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인지 루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눈을 뜨고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을 논함(論睜了眼看)」(1925.8.3) 같은 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³⁾

각성한 정신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그림자와 반대로 “머무르고 싶어 하는(願住)”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곳은, 공간적으로는 “천당”과 “지옥”으로 대표되는 이원적 대립의 세계이고, 시간적으로는 이런 대립이 해소된 “미래의 황금세계”와 같은 정신적 도피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원적 대립 가운데 천당을 좋아하고 지옥을 싫어하며,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를 선망한다. 하지만 그림자는 천당과 지옥, 그리고 미래의 황금세계 모두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그림자가 이 모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가타야마 토모유키가 지적했듯이 그것이 일종의 허망한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⁴⁾ 그림자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람을 따르기를 결연히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자가 한탄을 섞어가며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알 수 있다.

그림자의 사상은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금강경金剛經』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을 참고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되,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⁵⁾ 여기서 핵심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3) 김언하, 「루쉰의 「묘비문(墓碣文)」 -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한 자의 자화상」, 『중국학』(85집), 2023. p. 247.

4) “천국”이든 “지옥”이든 막론하고, 작가는 이 세계에 원래 허망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작가에서 분리된 “그림자”라 할지라도 쉽사리 그곳으로 가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미래의 황금세계”라 할지라도 환상이라는 위치에 있어서는 “천국”, “지옥”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不論是“天國”還是“地獄”, 作者均看作在這個世界上本來不存在虛妄的東西。即使是作者分離出來的“影”, 也未曾想過要輕易去那里。即使是“將來的黃金世界”, 在幻想的位置上, 和“天國”、“地獄”不存在區別。)” 片山智行著/李東木譯, 『魯迅《野草》全釋』, 吉林大學出版社, 1993., p. 20.

5) “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清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色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법륜,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정토출판, 2012., p194.

이고, 이는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데, 그것은 육조 혜능 대사가 그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가 깃들여 있는 구절이기 때문”⁶⁾이다. 다시 말해서 수행자는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 육근 六根 그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직 머무르는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기관이나 정신은 물론이고 그것에 의해 포착된 모든 대상까지도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즉 세상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곳, 즉 “있는 땅(有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림자가 즉 시인이 머무르고 싶지 않아 홀로 가려는 곳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곳, 즉 “없는 땅(無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정한 매뉴얼이 있는 안전한 “있는 땅”과 달리 그림자가 지향하는 불안한 “없는 땅”은 어떤 매뉴얼도 없으므로 방향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길 찾기는 부단한 모색과 탐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패할지 아니면 성공할지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방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사람의 입장과 그림자의 입장을 대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있는 땅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고, 그림자는 없는 땅에서 방황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림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사람의 몸을 떠나 “난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我不如在黑暗里沉沒)”는 표현이다. 이 역시 사람의 지향과 상반된다. 시인이 파악한 세인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는(彷徨于明暗之間)” 존재이다. 여기서 빛과 어둠은 여러 가지 비유적 의미와 연결될 수 있지만, 우선 앞서 나왔던 천당과 지옥의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은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싫어하며, 천당을 좋아하고 지옥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쉽사리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살다 보면 빛을 좋아하지만 뜻밖에 어둠에 빠지고, 천당을 좋아하지만 난데없이 지옥에 떨어진다. 빛을 만나면 즐거워하다가 어둠을 만나면 실의에 빠진다. 천당에 오를 때는 기뻐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슬퍼한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황에 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루쉰은 이런 미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흐릿한 핏자국 속에서(淡淡的血痕中)」(1926)에서는 이렇게 적었다. 달콤쌉쓸한 한 잔의 “술을 마신 사람은 울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다. 정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취한 것 같기도 하다. 뭘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더욱 모르게 된 것 같기도 하다. 죽고 싶어지기도 하고, 살고 싶어지기도 한다.(使飲者可以哭, 可以歌, 也如醒, 也如醉, 若有知, 若无知, 也欲死, 也欲生。)”⁷⁾

그림자 또한 사람에게 종속된 존재이므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실적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람과 달리 이런 현실을 결연히 거부하고 “난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는 길을 선택한다. 여기서 그림자가 선택한 어둠은 빛과 대립되는 상대적 의미의 어둠이라기 보다는 빛과 어둠의 이원적 대립 자체를 떠난 어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어둠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을 빛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이다. 곧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는 그런 어둠과 빛을 말한다. 하지만 이원적 대립 속에 갇힌 사람의 시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것이므로 시인은 이를 편의상 어둠이라고 부른 것뿐이다. 앞에서 그림자가 사람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땅 전체를 거부하고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고 했듯이, 이번에는 그림자가 사람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이원적 가치판단 전체를 거부하고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고 말한다. “없는 땅”은 공간적 표상이고 “어둠”은 시간적 표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은 모두 “있는 땅”

6)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정토출판, 2012., p194.

7) 魯迅, 「淡淡的血痕中」 『野草』, 『魯迅全集2』, 人民文學出版社, 1981, P.221.

과 “빛”의 부단한 생성과 소멸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자가 추구하는 것은 “없는 땅”에서 방황함으로써 새로운 “있는 땅”을 개척하는 것과 “어둠”에 잠김으로써 “빛”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 어둠을 향해 없는 땅에서 방황하기

1) 그림자의 처연한 운명

그림자의 운명을 터무니없고도 처연하게 그린 것, 이것이야말로 「그림자의 작별」이 『들풀』의 다른 시편들과 구별되는 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정리한다면 「묘비문」은 터무니없고도 비장하게 그린 것이고, 「이런 전사」는 터무니없고도 담담하게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즉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세상의 관습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중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림자는 자신이 결단을 내리는 지금이 만약 역사의 황혼이라면 “검은 밤”이 자신을 삼킬 것이고, 만일 역사의 여명이라면 “대낮”에 의해 사라질 것임을 예감하고 있다. 이는 검은 밤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그림자는 충분히 어둡지 못한 존재이고, 대낮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그림자는 충분히 밝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인의 관습은 각자 그 처지와 입장은 상반되지만 자신이 놓인 동일한 이원적 대립에 기초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인은 이원적 대립에 기초해서 상대를 적대시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하려는 동일한 논리와 동일한 행동 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자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는” 대신 “어둠 속에 잠기는(在黑暗里沉沒)” 외로운 선택을 감행한다. 시인은 그림자가 내린 이런 결단을 그림자의 입장을 옹호하여 비장하게 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동조하여 처연하게 그리고 있다. 이는 앞에서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없는 땅”에서 방황하는 외로운 선택을 감행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방식이었다.

친구, 난 당신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네,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아아, 아아,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

아아, 아아, 만약 황혼이라면 물론 검은 밤이 나를 잠기게 하겠지. 아니면 나는 대낮에 의해 사라지겠지, 만일 지금이 여명이라면.⁸⁾

사람이 보기에 그림자의 결단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므로, 시인은 그림자의 운명을 이토록 처연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는 그림자 스스로 자신의 결단이 지닌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갓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我不過一個影)” 것으로 폄하하는 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자의 한탄이 섞인

8) “嗚呼嗚呼，倘若黃昏，黑夜自然會來沉沒我，否則我要被白天消失，如果現是黎明。”

독백은 일종의 반어적 서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자가 정말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비록 세인들의 눈에는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림자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루쉰은 자신의 관점이 세인과 극단적으로 상반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세인의 어리석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어적 주인공인 인간(형체)을 내세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넌지시 전달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다.

루쉰이 이처럼 자신을 처연한 존재로 묘사한 것은 「광인일기」 이전의 텍스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그림자의 작별」에서 자신을 한갓 인간의 “그림자(影)”로 자처한 것에 상응하는 이미지이다. 인간의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고독하게 떠도는 혼백이나, 인간의 신체를 떠나고 싶어 하는 보잘것없는 한갓 그림자로 스스로를 폄하한 것은 1918년 이후에 쓰여진 루쉰의 글에서야 발견되는 특징이다. 루쉰이 1908년을 전후하여 “정신계 전사(精神界之戰士)”의 출현을 부르짖었을 때와 비교하면 이는 확실히 달라진 변화이다. 자신을 ‘미치광이(狂人)’, ‘떠도는 혼백(游魂)’, ‘그림자(影)’라고 부른 것은 모두 반어적 의미를 일정하게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것은 동시에 자기에의 덧에 걸려 자신을 이상화하여 바라본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냉철한 시선을 빌려 포착한 자신의 객관적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⁹⁾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묘비문」에서 반어적 주인공이자 시적 화자인 “나”를 내세워, 무덤 주인의 사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만든 경우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림자가 사람을 떠나 “없는 땅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 잠기는” 결단을 내린 것을 두고, 이것이 당시 루쉰의 정신적 방황이나 퇴행을 반영한다고 보는 관점에 관한 것이다. 가타야마 토모유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이런 관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가 「그림자의 작별」을 쓴 1924년은 바로 이른바 5.4의 퇴조기이고, 작가 자신에 대해 말하더라도 “방황”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혁명 시대” 폭풍 전야의 과도기이며, 진보세력의 활동은 모두 정제되었던 것이다. 작가는 이 시기에 또다시 청년시기 『신생』 잡지가 유산되었을 때 느꼈던 그런 “적막”을 느꼈으리라. 『들풀』의 전체 작품은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고, 작가는 늘상 “허무”, “적막”, “퇴폐”와 같은 단어로 이 시기의 심정을 표현했다. “그림자”가 “어둠 속에 잠기리라”고 한 것은 물론 작가의 이런 심정이 그 속에 반영된 것이다.¹⁰⁾

대다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가타야마 토모유키도 루쉰에게 있어서 『들풀』 시기가 그의 방황 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광인 일기』를 통해 드러났던 루쉰의 제2차 각성¹¹⁾ 또는 최후의 각성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유명한 용어를 빌리자면 이미 “회심” 또는 “문학적 정각正覺”¹²⁾에 도달한 루쉰이 시대 상황에 따라 정

9) 김언하, 「루쉰의 「묘비문(墓碣文)」 -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한 자의 자화상」, 『중국학』(85집), 2023. p. 250.

10) “作者写《影的告别》的1924年，正是所谓的五四退潮期，对作者自身来说也是“彷徨”的时代。这一时期是“大革命时代”狂飙前的过渡，进步势力的活动是整个停滞的。作者此时再次感受到了青年时代《新生》杂志流产时所感受到的那种“寂寞”吧。《野草》的全部作品就是在这种情况下动笔的，作者常常以“虚无”、“寂寞”、“颓唐”这些词语来表达这一时期的心情。”影“”沉没在黑暗里了”，当然有作者的这种心情反映在其中。”片山智行著/李东木译，『鲁迅《野草》全释』，吉林大学出版社，1993., p. 20.

11) 루쉰의 제2차 각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언하, 「『광인일기(狂人日記)』와 『꿈하늘(夢天)』 비교 연구-작가의 정신적 재탄생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37집, 대한중국학회, 2010.12., p.226. 참조

12) “그래서 문학가 루쉰은 현재적으로 성립한다. 계몽가 루쉰의 다채로운 현현(顯現)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내가 루쉰에 대해 회심, 문학적 깨달음(正覺)이라고 말한 것은 그림자가 빛을 토해내듯이 토해져 나온 것이다.”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 『루쉰』, 문학과지성사, 2003., pp. 130-131.

신적 고양 또는 퇴행을 보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루쉰이 루쉰이 되는 근본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청년시기 잡지 『신생』이 유산되었을 때 느낀 “적막”과 『들풀』 시기 루쉰이 표현한 “적막”의 질적 차이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유학시기 청년 루쉰은 중국인의 국민성을 개조하고 중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적막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했지만, 귀국 이후 오랜 방황과 침잠을 거친 후 마침내 제2차 각성에 도달한 장년 루쉰은 5.4의 퇴조기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적막을 느끼고 방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서라도 이 적막과 어둠을 깨트려 보고자 끊임없이 “투창을 집어 들고(舉起了投槍)” “없는 물건”의 진법(無物之陣) 속을 누비며 “속이 텅 빈(其中無物)” “한 벌의 외투(一件外套)”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다고 볼 수 있다.¹³⁾ 만일 루쉰이 세상의 태평이나 적막에 따라 자신도 태평하고 적막한 삶을 살고, 변혁운동의 퇴조에 따라 자신도 투쟁을 접었다면, 대체 어디에서 루쉰의 독자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림자의 방황과 사람의 방황은 용어가 같아 혼동하기 쉬운 위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자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의 방황을 거부하고 빛과 어둠의 구분을 무화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어둠” 속에 잠기려고 한다. 이런 어둠은 차라리 일종의 빛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있는 땅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달리 새로운 차원, 즉 “없는 땅”에서 방황하려고 한다. 이런 방황은 차라리 일종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세인의 눈에는 사람의 방황과 그림자의 방황이, 또 사람의 어둠과 그림자의 어둠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므로 시인은 세인의 시각을 빌어 동일하게 방황과 어둠이라는 시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 방황과 어둠이라는 용어가 지닌 반어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이다.

2) 그림자의 이상한 선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그림자가 사람에게 주고 떠난 이상한 선물에 관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선물, 이것이 그림자의 딜레마이다. 운명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할 친구 같은 사이인데, 마음에 들지 않기에 이별을 알리고 떠나려 하고 또 그러면서도 마지막 못해 선물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상한 선물이 되어버렸다.

친구, 때가 가까왔네.

내 장차 어둠을 향해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

당신은 아직도 내 선물을 바라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만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전히 어둠과 공허일 따름이네. 하지만 난 어둠이 흑시라도 당신의 대낮에 의해 사라지길 바랄 뿐이네. 공허가 결코 당신의 가슴을 차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¹⁴⁾

그림자가 친구인 사람에게 준 선물은 “어둠”과 “공허”이다. 그런데 이 선물은 친구가 탐탁해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아니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좋아할 까닭이 없는 터무니 없는 선물이다. 그래

13) 魯迅, 「這樣的戰士」『野草』, 『魯迅全集2』, 人民文學出版社, 1981, p.214. 참조

14) “朋友, 時候近了。

我將向黑暗里彷徨于無地。

你還想我的贈品。我能獻你甚麼呢? 無已, 則仍是黑暗和虛空而已。但是, 我願意只是黑暗, 或者會消失于你的白天; 我願意只是虛空, 決不占你的心地。”

서 그림자는 이 선물이 친구에 의해 거부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난 어둠이 혹 시라도 당신의 대낮에 의해 사라지길 바랄 뿐이네. 공허가 결코 당신의 가슴을 차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그림자는 자신의 선물인 “어둠”은 친구에 의해 사라지고, “공허”는 친구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그림자가 친구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친구의 바람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그림자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런 인간의 “대낮”에 의해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¹⁵⁾, “있는 땅”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인간에게 “공허”는 필연적 귀결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자는 사람과 달리 “난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 “난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는 자신만의 분명한 지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세인이 보기에는 일견 허무하고 무서워 보이는 “없는 땅”과 “어둠” 속에 생명과 자유, 진리와 정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자기 나름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림자의 선물을 터무니없고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이며 따라서 격렬하게 거부할 것임을 알기에 자신의 소망을 반어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자가 “홀로 멀리 떠나가네(獨自遠行)”라고 두 번이나 외친 것은 이런 생각을 공유할 사람이 드물다는 시인의 고독감을 표현한 것이다. 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다른 그림자조차 없는 어둠 속으로, 오직 나만이 어둠에 의해 잠겨버려,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속하는 그런 세계로.(不但沒有你, 并且再沒有別的影在黑暗里。只有我被黑暗沉沒, 那世界全屬於我自己。)” 멀리 떠나가겠다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시인의 확신과 결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없는 땅”, “어둠”, “공허”라는 시어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 계열—사람들이 잘 모르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대상—to 속하는 것이므로, 시인은 가장 이해하기 쉽고 함축성이 풍부한 “어둠”이라는 시어로 자신의 고독한 지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4. 나오며

필자는 이상에서 「그림자의 작별」에 대해 「묘비문」, 「이런 전사」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화된 철학”이라는 『들풀』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텍스트 분석과 사상적 해석을 고도로 융합시키는 시도를 해보았다.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산문시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그림자와 형체(인간) 사이의 대립적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필자는 이 작품에서 나타난 형체를 세인世人으로, 그림자를 시인詩人 자신으로 간주하고, 루원이 세인과 시인의 극단적 대립을 그려내고 있다고 파악할 때 이 작품에 대해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그림자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我不願住)”, “난 차라리 없는 땅에서 방황하리라(我不如彷徨于無地)” 그리고 “난 차라리 어둠 속에 잠기리라(我不如在黑暗里

15) “지금의 이른바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실 모두 환경에 적응하는 많은 기계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성맞춤으로 각각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이런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에 이런 때가 있을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미래의 황금세계에도 반역자를 사형에 처하면서 뜻밖에 모두가 황금세계라고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现在的所谓教育, 世界上无论那一国, 其实都只不过是制造许多适应环境的机器的方法罢了。要恰如其分, 发展各各的个性, 这时候还未到来, 也料不定将来可有这样的時候。我疑心将来的黄金世界里, 也会有将叛徒处死刑, 而大家尚以为是黄金世界的事。)(『양지서兩地書』44)(1925) 참조. 여기서는 片山智行著/李東木譯, 『魯迅《野草》全釋』, 吉林大學出版社, 1993., p. 20.에서 재인용.

沉沒)”라는 구절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필자는 그림자가 사람을 떠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근본적 문제는 시에서 “어느 때인지 모르게 자고 있는(人睡到不知道時候的時候)”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각성한 정신이 없는 인간에 대한 비유라고 보았다. 또 각성한 정신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그림자와 반대로 “머무르고 싶어 하는(願住)”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곳은, 공간적으로는 “천당”과 “지옥”으로 대표되는 이원적 대립의 세계이고, 시간적으로는 이런 대립이 해소된 “미래의 황금세계”와 같은 정신적 도피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원적 대립 가운데 천당을 좋아하고 지옥을 싫어하며,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를 선망한다. 하지만 그림자는 천당과 지옥, 그리고 미래의 황금세계 모두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그림자의 사상은 “난 머무르고 싶지 않아(我不願住)”라는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는 『금강경金剛經』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의 경계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람은 있는 땅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고, 그림자는 없는 땅에서 방황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이고, 그림자는 어둠 속에 잠기기를 바라는 존재이다. “없는 땅”은 공간적 표상이고 “어둠”은 시간적 표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은 모두 “있는 땅”과 “빛”의 부단한 생성과 소멸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자가 추구하는 것은 “없는 땅”에서 방황함으로써 새로운 “있는 땅”을 개척하는 것과 “어둠”에 잠김으로써 “빛”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셋째, 그림자가 형체(인간)에게 작별을 알리고 떠나면서 인간에게 주었던 선물, 즉 “어둠과 공허(黑暗和虛空)”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그림자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대낮”에 의해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있는 땅”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인간에게 “공허”는 필연적 귀결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림자의 선물을 터무니없고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이며 따라서 격렬하게 거부할 것임을 알기에 자신의 소망을 반어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예술성의 측면에서 「그림자의 작별」이 지닌 반어적 성격에 관한 고찰의 문제이다. 루쉰은 자신의 관점이 세인과 극단적으로 상반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세인의 어리석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어적 주인공인 인간(형체)을 내세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넉넉히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림자의 운명을 터무니없고도 처연하게 그린 것, 이것이야말로 「그림자의 작별」이 『들풀』의 다른 시편들과 구별되는 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문화·영화분과】 발표

세기 전환기 중국 영화의 민족성 탐색
— 영화 <귀신이 온다>를 중심으로

유효 만*

【목 차】

1. 1980-1990년대 중국의 항일전쟁 영화
2. 영화 <귀신이 온다> 속의 외적 타자 재현
3. 영화 <귀신이 온다> 속의 내적 타자 재현
4. 세기말 중국 영화시장과 <귀신이 온다>

【 초 록 】

1990년대 이후 중국 5세대 영화가 국제 영화 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이래, 중국 본토, 홍콩, 대만 지역의 영화는 ‘화어권 영화(華語電影)’라는 개념 아래 통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 중 하나는 바로 ‘중국성(Chineseness)’의 형성과 재정의 문제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문(姜文)이 연출한 <귀신이 온다>(2000)는 독특한 서사 구조와 블랙코미디 미학을 통해 항일전쟁이라는 국가 중심의 주선을 항일전쟁 서술을 전복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중국 민족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타자’ 이미지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였다. 이 작품은 세기 전환기 중국 영화가 세계 영화계에서 차지한 중요 위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부터 캐묻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물음에 응답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 영화는 중국 주류 영화 시장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국가 이데올로기, 세계화 시장 경쟁, 영화 검열 제도 등과 얽힌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영화 <귀신이 온다>에서 드러나는 민족적 ‘타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작품이 어떻게 국가 주류 서사에 도전하면서도, 세기 전환기 중국 영화가 ‘중국성’을 새롭게 구성해나가는 전략과 시각을 제시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중국성(Chineseness), <귀신이 온다>, 민족 정체성, 타자 재현, 항일전쟁

* 제1저자. 서울대학교 비교문학전공 문학박사 (lxm1990@snu.ac.kr)

1. 1980~1990년대 중국의 항일전쟁 영화

중국에서 항일전쟁(1937~1945)을 논할 때, 주요 논의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뉜다. 항일 주력으로 자리 잡은 공산당, 고통받는 인민, 그리고 일본군이다. 건국 이후 17년 동안 제작된 항일전쟁 영화는 주로 인민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지도자인 공산당을 영웅으로 묘사했다. 예를 들어, 영화 <계모신(鸡毛信)>(1954)은 일본에 대항하는 팔로군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영화 <랑야산 오장사(狼牙山五壮士)>(1958)는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이야기를 담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웅 서사에서는 적과 인민 모두를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영화사에서 보이지 않는 공백으로 남았다. 1980년대 중후반 5세대 감독이 내놓은 전쟁영화들은 이러한 공백에 채우는 역할을 했다.

예컨대 영화 <잡혈흑곡(喋血黑谷)>(1984)은 중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당 군대의 항일전쟁을 정면으로 묘사했다. 또한, 난징대학살 현장의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도성혈증(屠城血证)>(1987)은 흙 속에서 몸부림치던 두 손이 마지막 장면으로 등장하며 전쟁의 잔혹함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이와 같은 반전(反戰)적 시각은 1980년대 중반 문예계에서 일어난 베트남과의 전쟁에 대한 반성을 배경으로 한다. 금기된 주제로 만든 영화들이 쉽게 대중과 만날 수 없으나 항일전쟁에 관한 영화들에 반전적인 시각이 뚜렷히 드러나고 있지만 어떻게 항일 속에 민족을 재현하는지에 대한 난제를 피할수 없었다.

영화 <붉은 수수밭>에서 민족적 항일 행위는 화자인 ‘나’의 할아버지라는 인물에 의해 이뤄진다. 여기서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가마꾼이나 양조장의 일꾼으로 묘사된다. 그는 세속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할머니와 자유롭게 사랑을 맺고, 그녀를 위해 도둑과 싸우며 심지어 살인도 불사하는 인물이다. 배우 강문이 연기한 이 캐릭터는 전쟁 시기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 등장한 ‘범외자’로서, 혼란한 시대의 무림 협객이자 사회 혁명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실제로 그는 농촌의 비극을 목격한 후, 공산당 로한(罗汉)이 주도한 항일 노선을 이어받아 가족들을 전쟁터로 이끈다. 즉, 규율과 조직이 있는 항일 국가주의의 초기 형태에 포함됨으로써 ‘범외자’인 할아버지가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 <붉은 수수밭>이 보여준 항일 민족 재현 모델을 계승한 강문 감독의 영화 <귀신이 온다>(2000)는 전쟁과 민족 재현 문제에 대해 다른 역사 성찰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영화 심의로 인해 중국에서 상영이 금지되었다. 다음으로는 영화 <귀신이 온다>에서 강문 감독이 제시한 전쟁과 민족에 대한 새로운 반전 시각을 분석함으로써 1987년부터 2000년까지 13년 동안 중국영화 체제와 시장에서 유통된 전쟁영화의 역사적 논리 변화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영화 <귀신이 온다> 속의 외적 타자 재현

영화 <귀신이 온다>는 유펑웨이(尤凤伟)의 중편소설 『생존(生存)』(1996)에 기반한 작품이다. 그러나 영화제작 과정에서 원작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각색되면서, 원작 작가와 제작진 사이에 법적 분쟁까지 발생했다. 이 점은 영화가 원작의 해석에서 벗어나 강문 감독의 독자적 시각으로 완전히

재구성된 작품임을 보여준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지만, 원작 소설과 영화의 서사적 틀은 오에 겐자부로(小宮 貞二郎)의 단편소설 「사육」(1958,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영화판 1962년 개봉)과 유사한 점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외국 군인(「귀신」이 농촌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된다. 그러나 「사육」에서 일본 농촌 사람들이 미국 흑인 병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공포보다는 호기심이 주를 이루는 반면, <귀신이 온다>에서는 일본군에 대한 농촌 사람들의 공포가 뻗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 「사육」처럼 그를 직접 처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화 <귀신이 온다>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다. 이야기의 중심은 농민 마다싼(馬大三)이 정체불명의 인물 ‘나’로부터 일본군 포로와 중국인 통역관 두 명을 맡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으며 시작된다. 그러나 ‘나’는 약속한 날에 포로를 데리러 오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 이에 마다싼과 농촌 사람들은 이 부담스러운 포로들을 처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일본군 포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을 일본 육군 부대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 일본 육군은 걸으로는 포로를 돌려준 농촌 사람들에게 곡물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며, 근처에 주둔한 일본 해군과 함께 농촌에서 연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연회 도중 일본 육군 장교는 농촌 사람들이 포로를 숨긴 것을 비난하며, 일본 병사들에게 농촌 전체를 학살하고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연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임신한 아내를 찾으러 간 마다싼은 학살된 농촌 사람들의 복수를 위해 국군의 일제 항복 명령을 무시하고 일본군 부대에 침입해 다수의 일본 병사를 죽인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풀어준 일본 포로에게 목이 잘려 처형당한다.

이처럼 영화 <귀신이 온다>의 이야기 구조는 영화 <붉은 수수밭>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두 작품 모두 평범한 중국 농민들이 어떻게 항일의 길에 서게 되는지를 다룬다. 항일은 민족주의적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영화 <붉은 수수밭>이 농민(혹은 도둑 출신)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설정하고, 일본군을 악마적인 존재로 상징화했다면, 영화 <귀신이 온다>는 농촌 주민들을 순박하면서도 무지한 존재로, 일본 군인을 인간성과 야수성을 동시에 지닌 이중적 존재로 묘사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영화 <붉은 수수밭>에서 공산당의 화신인 로한이 술 양조장을 돕고 농촌 주민들을 계몽하며 항일 전쟁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영화 <귀신이 온다>에서는 그 역할을 정체불명의 인물 ‘나’가 대신하며, 항일전쟁에서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그들의 계몽과 지도적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영화 <귀신이 온다>에서 ‘나’는 사건의 발단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릴지언정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장이머우 감독의 영화 <홍등>에서 여인들이 서로 질투하며 경쟁하도록 만드는 대상이자 가부장적 권위의 상징인 그녀들의 남편이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나 그의 권위가 영화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방식과 유사하다. 영화 <귀신이 온다>에서도 유사하게, 농촌의 촌장이 “산에 사는 자들, 물 위에서 온 자들, 모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외부 권력에 대한 무력감을 드러낸다.

영화 속 일본군은 매일 농촌을 지나가며 농촌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과 닭고기를 대접받고, 아이들은 줄을 맞춰 서서 사탕을 받으며 일본군의 우월감과 가식적인 자비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사람들은 일본군의 폭압에 익숙해지며, 자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동시에 공산당과 국군의 동원 논리에 무심코 편입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또한, ‘나’라는 인물은 그의 신원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촌 사람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상징한다. 원작 소설에서는 ‘나’가 실

제로 오대장(五隊長)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오대장이 해당 사건을 부인하고 농촌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떠넘긴다. 이로써 일본군 포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림1> <귀신이 온다>: 1차 심문



<그림2> <귀신이 온다>: 2차 심문



특히 일본군 포로에 대한 두 번의 심문 장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 심문은 ‘나’를 대신해 정보 획득을 위한 심문이고, 두 번째는 농촌 사람들과 포로 사이의 협상이다. 두 장면을 통해 포로와 농촌 사람들 간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한다. 첫 번째 심문에서는 포로가 입이 막힌 상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며, 심문은 농촌 사람들의 일방적인 질문으로 진행된다. 이때 촬영기법은 <그림1>처럼 농촌 사람들의 전신이 담긴 장면과 포로를 배경으로 한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며, 심문관과 포로 사이를 가리는 막이 등장한다. 어두운 조명 효과로 인해 막에 비친 농촌 사람들의 모습은 실물보다 크게 왜곡되어 나타나며, 포로들은 그림자처럼 부각되지 않고 배경에 머문다. 이 막은 루원이 언급한 ‘환등기 사건’¹⁾을 연상시키며, 당시 중국인 간첩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구경하던 중국인 관객들과 영화 속 중국 농촌 사람들이 공유하는 무력함과 방관적 태도를 상징한다. 이러한 장면은 관객들에게 환상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고 각성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 속 농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형성한 주관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심문이 끝난 후, 춘장이 막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나는 너희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이다. 너희는 아직 어린애다”라고

1) 루원이 환등기 사건에 대해 묘사한 내용은 소설집『외침(吶喊)』의 자서(自序)와 수필 「후지노 선생(藤野先生)」에서 두 번 등장한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일본 유학 중 한 강의에서 풍경이나 사회이슈에 관한 환등기 슬라이드가 상영되었고, 그중 한 장면은 일본군이 러시아 간첩을 처형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해설에서는 처형된 간첩이 중국인이었으며, 구경하는 군중 또한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설명되었다. 이 환등기 사건은 루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가 의학을 버리고 문학으로 전향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말할 때, 농촌 사람들의 친절과 선의는 일본군 포로, 특히 병사 하나야(花屋)의 입장에서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욕설로 이를 표현하며, 양측의 권력 차이를 실감한다.

<그림2>은 농촌 사람들이 일본군 포로 하나야를 두 번째로 심문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는 이전 심문 장면에서 존재했던 막이 사라지고, 양측 간의 대화가 처음으로 주고받는 구조를 이루며, 카메라는 농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앵글에서 포로들을 올려다보는 앵글로 전환된다. 이러한 시각적 변화는 대화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그 다음 장면은 포로를 송환하고 곡식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 체결 장면이다. 이때 카메라는 손도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한 후, 손도장을 찍은 농촌 사람들과 포로들의 얼굴 표정을 차례로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과 포로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주인공 마다싼은 어딘가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협상의 성사가 믿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닥칠 운명을 예감한 것인지 그의 속마음은 쉽게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심문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협상은 군국주의와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농촌 사람들이 일본군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협약을 체결하려는 모습은 어리석은 착각에 가깝다. <그림12>와 <그림13> 두 장면 모두에서 농촌 사람들은 항상 빛 속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포로들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이는 농촌 사람들이 솔직하고 순박하지만, 결국 간사하고 입으로는 달리 행동하는 일본 군국주의에 패배할 운명을 암시한다. 하나야는 자신을 “일본에서도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민”이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마다싼 같은 중국 농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야가 일본 농민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마 같은 일본 병사로, 그리고 마다싼이 손에 피를 묻힌 복수자로 변모하는 과정은 단순히 전쟁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 내부에서 생겨난 ‘귀신’이라는 괴물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중국인에게 일본군은 과거 청나라 말기 침입하는 연합군의 ‘양귀자(洋鬼子)’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귀자(鬼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외부 침략자에 대한 공포와 경계의 상징이다. 이를테면 ‘귀자’, 즉 ‘귀신’이란 주체에 의해 규정되고 배제되는 이질적 존재-타자를 의미한다. 영화 <귀신이 온다>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귀신 오기 전’과 ‘귀신 온 후’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일본 군인의 잔혹성과 악랄함을 부각한다. 하나야가 포로가 된 초반에 오직 죽음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은, 일본 군인으로서 중국 농민에게 포로가 된 상황이 천황과 일본군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다싼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오해하며, 마다싼과 농촌 사람들을 이불을 두른 무사단으로 상상한다. 이 상상은 하나야가 병사로서 무사도 정신을 주입받았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가 이불을 덮고 갇혀 있던 초라한 처지를 반영한다. 이 장면의 블랙 코미디는 그가 가장 악랄한 중국어를 배워 저주하겠다고 결심했지만, 통역관의 비굴함으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아첨하는 희극적 대사로 바뀌는 데서 드러난다. 결국, 이 희극적 대사가 농촌 촌장의 처형 장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도화선이 되는 점은 이 영화의 비극성을 더욱 극대화한다.

하나야가 군국주의 선전에 의해 ‘귀신’으로 변했던 상태에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6개월의 포로 생활 동안 세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농촌에 주둔한 일본 해군 부대 병사 두 명이 농촌으로 들어와 하나야가 구조 요청에 성공할 뻔한 순간이고, 두 번째는 하나야와 통역관이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며 탈출을 시도했던 때다. 마지막으로 하나야가 거의 죽을 뻔했던 일도 그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도유(一刀流)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표면적으로는 큰 비중이 없어 보이지만,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도유를 찾는 과정은 일본군의 통제를 받는 도시의 삶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거리에는 노래

를 부르거나 장사를 하는 중국 민중, 일본군에게 매달리는 위안부, 그리고 일본군에게 체포된 혁명 인사(아마도 ‘나’로 추정)까지 등장한다. 거리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는 듯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일도유 자체도 영화 속에서 이중적인 반어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일도유를 연기한 배우는 1950년대~1960년대 중국 전쟁영화에서 주로 악역을 맡아왔던 배우 진창(陳強)이다. 그는 영화 <백모녀(白毛女)>(1950)의 황세인(黃世仁)역과 영화 <홍색낭자군>(1961)의 남패천(南霸天)을 연기했다. 강문 감독은 이 배우를 캐스팅해 과거 중국영화에서 전형적으로 얼굴이 정형화된 악역의 이미지를 자신의 영화에서 해체하고 전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강문의 전작 <햇빛 쏟아지던 날들>에서도 일본군 역할로 유명했던 배우 방화(方化)를 ‘주석’ 역할로 캐스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영화 속에서 일도유는 청나라 말기, 서태후 곁의 팔대신(八大臣)²⁾과 백일유신(百日維新)을 이끈 담사동(譚嗣同)의 목을 친 사형집행인이지만, 정작 일본군 앞에서는 참수에 실패하고 황급히 도망치는 익살스러운 인물로 그려진다. 이때 일도유가 실제로 참수 기술을 보유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백일유신 운동가와 일본군을 참수 대상으로 나란히 배치한 설정이다. 영화국이 영화 <귀신이 온다>를 심의하며 제시한 의견에서도 이러한 설정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원래 각본의 34페이지에서 일도유는 자신이 참수한 대상이 ‘간통한 내시’라고 말했지만, 영화의 1177컷에서 1199컷까지는 그가 참수한 대상이 ‘서태후 곁의 팔대신’과 ‘백일유신을 주도한 담사동’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설정은 새로운 정치적 함의를 부여했고, 참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과시하는 장면을 통해 일본군 참수에 실패한 뒤 ‘일생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진다(英名一世, 毀於一旦)’이고 탄식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수백 년 동안 중국인이 외세에 저항하기보다 자국민을 공격하는 데만 익숙했다는 암시를 준다.³⁾

위의 심의내용을 보면 영화 심의관들의 정치적 민감도가 대단히 높다는 점은 감탄할 만하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풍자한 내용을 전체 중국 민족에 대한 폄하로 해석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도유 에피소드 자체는, 청나라에서부터 국민정부에 이르기까지 내란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외세 침략에는 무력했던 중국 정부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강문 감독은 이러한 블랙 코미디적 설정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민족적 아이러니를 교차시키며, 전쟁과 민족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탐구하고 있다.

일도유는 농촌 사람들의 생사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야에게는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후, 하나야는 농촌 사람들과 식량을 교환하자는 진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군대로 돌아간 뒤 그는 다른 일본 병사들로부터 국가의 수치라는 이유로 고립되고, 그로 인해 인간성과 군국주의 사이에서 갈등한다. 특히 농촌 주민들과 일본군이 함께 연합 행사를 열었을 때, 하나야는 농촌 주민들이 일본 군대의 지휘관과 동등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군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큰 모욕감을 느낀다. 이로 인해 그는 군국주의 무사도 정신으로 되돌아가고, 농촌 주민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 팔대신(八大臣)은 서태후(慈禧太后)가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함풍황제(咸豐皇帝)가 남긴 여덟 명의 대신들을 축출하거나 처형한 사건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희태후는 구세력을 제거하고 수렴청정을 시작했으며, 이 역사적 사건은 신유정변(辛酉政變)으로 불린다.

3) 啟之 編, 「附錄1: <關於《鬼子來了》的審查意見及審查會名單>」, 『姜文的「前世今生」: 鬼子來了』, 新銳文創, 2011, pp.7-8.

다. 학살 후에도 그는 자결을 통해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려 한다. 이때 그의 상관은 그를 제지하며, 천황이 이미 항복 선언을 했고, 더 이상 ‘귀신’으로서의 삶이 의미 없음을 알려준다.

이 과정을 통해 영화는 하나야가 어떻게 인간에서 ‘귀신’으로 변하고 다시 인간성을 되찾는 듯하다가 군국주의에 의해 다시 ‘귀신’으로 후퇴하는지를 보여준다. 영화는 하나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일본 군대가 ‘일본 귀자(鬼子)’로 불리게 된 이유를 탐구한다. 이는 단순히 전쟁이라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군국주의가 그들의 인간성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했는지를 드러낸다. 군국주의 선전이 없었다면, 일본 해군의 장교는 음악 애호가인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야는 중국 농민들과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는 일본 군국주의의 대표적인 군가 「군함행진곡(軍艦行進曲)」⁴⁾을 반복적으로 삽입함으로써 군국주의의 유령 같은 존재를 청각화한다. 이 군가는 일본군이 농촌에 들어오거나 학살을 벌이는 장면마다 등장하며, 일본인을 ‘귀신’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출로 인해 영화 <귀신이 온다>는 일본에서 상영하는 동안 호평을 받았으며 일본인이 묘사할 수 없는 일본군의 ‘악’과 추태를 진실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본의 영화평론가 사토 타다오(佐藤忠男)는 이 영화를 두고 “일본인이 직면하지 못했던 자신의 악과 추한 모습을 직시하게 한 작품”⁵⁾이라고 평했다.

3. 영화 <귀신이 온다> 속의 내적 타자 재현

일본군을 ‘귀신’으로 묘사하는 것 외에도, 영화 <귀신이 온다>는 중국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내재적 ‘귀신’을 풍자한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마다썬이 처형되기 전, 국민당 장교는 그를 질책하며 “중화 민족의 미덕이 네게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너는 중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심지어 사람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말한다. 이를 만약 항일을 위해 동원된 민족주의적 구호로 풀이한다면, ‘중국이 없다면 중국인도 없다’는 논리가 된다. 즉, 먼저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 있어야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 장교의 발언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는다. 그의 논리에서 중국은 ‘민족(nation)’이 아니라 ‘국가(state)’의 의미로 해석된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중국인이 아니며, 중국인이 아니라면 사람으로서의 권리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가 문학을 풍자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를 떠나서 단순히 국민당 정부와 민중의 관계를 재현한 내용을 분석하면,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해진다. 민족 내부의 귀신이 생겨난 것은 백성을 착취하는 정치체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당 장교가 지프차를 타고 농촌으로 들어설 때, 민중들이 “빨리 도망쳐라”라고 외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일본 귀신이 떠난 뒤 국민당 귀신이 온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국민당 장교 옆에 서 있는 두 명의 미군은 또 다른 귀신의 존재를 암시한다.

다시 인물관계를 정리하자면, 영화 속에는 신분이 불명확한 ‘나’, 일본군, 국민당 장교, 그리고 마다썬 같은 중국 농민이라는 네 가지 인물 유형이 등장한다. 이는 루쉰이 언급한 ‘쇠로 된 방’ 안의 네 가지 인물 유형⁶⁾, 즉 주인, 노예, 바보, 그리고 총명한 사람을 완벽히 영상화한 것이다. 전쟁 속

4) 「군함행진곡」은 도리야마 게이(鳥山啓)가 작사하고 세토구치 후지요시(瀬戸口藤吉)가 작곡한 해군 군가에, 오토모 요모타치(大伴氏言立)와 도기 스에토미(東儀季芳)의 곡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행진곡이다. 일본 제국 해군과 해상 자위대의 공식 행진곡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대의 공식 군가로도 채택된 바 있다.

5) 佐藤忠男, 「日本人寫不出來的日本人」, 『姜文的「前世今生」: 鬼子來了』, 新銳文創, 2011, p.172.

농민들에게 일본군과 국민당 장교는 분명히 ‘주인’의 모습으로 보인다. 반면에 ‘노예’인 그들도 스스로를 억압하는 체제의 일원이 된다. 한편, 매국노라는 이유로 총살당한 통역관도 본질적으로는 노예다. 다만, 그는 ‘총명한 사람’의 특성을 지닌 엘리트이며, 전쟁 속에서 ‘쇠로 된 방’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진정한 ‘바보’나 ‘광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마다싼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인의 시아버지이다. 그는 철저히 주인에 대한 반항을 본능적으로 각인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들만으로는 저항을 조직할 힘이 없다. 그렇다면, ‘쇠로 된 방’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영화 <붉은 수수밭>처럼 공산당원의 모범적인 역할을 통해서일까? 아니면 영화 <황토지>와 <아이들의 왕>처럼 실의에 빠진 시선을 원시 자연의 언어로 돌리는 방식일까? 또는 영화 <황하절연>처럼 위대한 가족애와 사랑으로 심지어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을 감화시켜 항일로 이끄는 방법일까?

레이 초우는 루쉰이 ‘환등기 사건’을 통해 받은 시각적 충격이 글쓰기 언어보다 영화 같은 시각 매체가 훨씬 더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힘을 가졌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한다.⁷⁾ 이처럼 영화는 그 혁명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신중국의 정치 운동에서도 ‘독초(毒草) 영화’를 비판하며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다. 영화 <귀신이 온다>는 영화 속에서 농촌 사람들을 각성시키려는 작위적 설정 대신, 마다싼의 죽음, 정확히는 그의 잘린 머리를 통해 스크린 안팎의 중국인들을 일깨우려 했다.

영화 전편에서 가장 폭력적인 시각적 충격과 강렬한 반어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은 마다싼이 포로였던 하나야에게 처형당하는 결말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성벽 위에 서서 멀리서 관람하는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며 하나야는 마다싼의 목이 베이기 직전 그의 목에 기어가던 개미를 털어내고, 마치 냉혹한 인간형 무기처럼 일본도를 높이 든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마다싼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비춘다. 이는 단 한쪽 눈으로 날카롭게 망나니를 노려보는 남자의 얼굴이다. 이 장면은 곧 이어질 주관적 시점과 중첩되며, 하나야의 함성과 일본도 휘두르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는 마다싼의 목이 베여 땅 위로 구르는 모습을 담는다. 목이 떨어져 나간 마다싼의 시점에서 보이는 화면은 검고 회미하게 깜빡이기를 반복하다가, 화면이 멈춘 후 갑작스럽게 컬러로 전환된다. 기울어진 45도 하단 우측에서 올려다본 화각으로, 일본도를 장교에게 건네는 하나야의 모습이 보인다. 마다싼의 눈이 한 번 깜빡이고, 화면이 온통 붉은 색으로 물든다. 카메라는 이후 마다싼의 고독한 머리를 클로즈업하며 그의 입가에 어렴풋이 드러난 미소에서 멈춘다.

영화가 흑백으로 촬영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컬러로 전환되는 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영화에서 컬러는 현실을, 흑백은 과거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화 <햇빛이 쏟아지던 날

6) 루쉰은 「총명한 자와 바보와 노예(聰明人與傻子與奴才)」(1926년 발표 후 산문집인 『야초(野草)』에 수록)라는 글에서 노예적 심리를 풍자적으로 묘사한다. 한 노예가 자신의 고충을 총명한 사람에게 털어놓자 그는 동정과 위로를 받았고, 바보에게 털어놓았을 때 바보가 주인을 비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바보를 쫓아냈고, 주인과 총명한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았다. 이 이야기는 영화 <귀신이 온다>에서 마다싼과 같은 중국 농민이 권력에 복종하는 노예적 심리를 해석하는 데 단서를 제시한다.

7) 레이 초우는 시각 매체와 글쓰기 매체의 이분법적 전제하에, 루쉰이 ‘환등기 사건’을 통해 신형 시각 매체의 폭력성과 혁명성을 목격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녀는 루쉰이 결국 더 전통적인 글쓰기를 선택한 것을 제3세계 남성 지식인의 자기모순적 입장의 결과라고 보았다. 본 논문은 레이 초우의 견해를 대체로 수용하지만, 루쉰이 글쓰기를 선택한 것은 당시 영화가 성숙한 대중 매체로 발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글쓰기가 그의 국민성 개조 문화 프로젝트에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루쉰 자신이 영화 애호가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영화의 교훈(電影的敎訓)」과 같은 잡문을 통해 영화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바 있다. 루쉰의 소설에는 구경하는 관중과 이들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 등 이중적인 응시의 시점 재현도 시각매체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 <귀신이 온다>는 루쉰이 문자로 언급했던 환등기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이 초우 저,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 이산, pp.26-31)

들>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회상 부분을 컬러로, 현재는 흑백으로 설정해 과거에 얽매인 현재를 강조했다. 그러나 영화 <귀신이 온다>에서는 이와 반대로 과거의 흑백 세계가 마다싼의 죽음 이후 컬러로 전환된다. 감독은 “마지막 장면만으로도 영화를 흑백으로 촬영할 가치가 있었다”⁸⁾고 밝히며, 마다싼이 죽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세계의 참모습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컬러로 표현된 이 세계는 마다싼의 마지막 시선에 담긴 세 가지 진실을 상징한다.

첫 번째 진실은, 자신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던 하나야가 결국 다시 전쟁이라는 살육 기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진실은, 마다싼이 결눈질로 바라보며 드러낸 분노에서 엿볼 수 있듯, 일본군에게 중국인을 처형하라는 책임을 부여한 국민당 장교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다. 이는 민중을 억압하는 강권의 실체를 상징한다. 마다싼은 마지막 유언 대신 나귀 울음소리를 내뿜으며 냉소적인 메시지를 남긴다. 세 번째 진실은, 마지막 정치화면 속 머리에 담긴 의미다. 붉은 화면 중앙에 놓인 잘린 마다싼의 머리는, 눈은 감고 있지만 어렴풋이 미소를 띠고 있다. 이 웃음은 단순히 고통 없이 죽어서 느끼는 안도감이나 복수를 달성해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람자들을 향한 냉소적 조롱이며 사건을 방관하거나 외면했던 마다싼 자신뿐만 아니라 스크린 안팎의 구경꾼과 관객 모두를 겨냥한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냉소적 미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극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영화 <귀신이 온다>의 창작 의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하기 위해서⁹⁾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나’는 마다싼에게 일본군 프로를 맡겨준 실체적 인물이 아니라, 마다싼과 농촌 사람들 마음 속의 내재적 ‘귀신’을 가리킨다. 이는 동시에 하나야를 인간에서 인간형 전쟁 도구로 변화시키는 ‘귀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과 국적을 초월하여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정치적 입장, 즉 이데올로기의 구속 아래 인간성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가”¹⁰⁾를 탐구한 영화 <귀신이 온다>가 2000년 5월 제53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 이 영화의 상영이 장기간 금지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로 남아 있다.

1996년에 제정된 『영화관리조례』에 따르면, 강문 감독은 다음의 규정을 위반했다. 첫째,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각본을 수정하지 않았다. 둘째, 촬영 중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임의로 추가해, 원래부터 부적합했던 대본을 더 부적합하게 만들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위반 사항으로, 영화국의 허가 없이 영화제를 위해 이 영화를 출품했다는 점이다.¹¹⁾ 1990년대 <인생>, <푸른 연> 등 많은 영화가 상영 금지된 것도 이 세 번째 조항이 주요 근거였다. 하지만 앞선 두 조항은 본질적으로 예술 창작에 대한 행정적 간섭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논란을 낳는다. 이러한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예술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감독들은 국제영화제 출품과 해외 배급이라는 선택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장이머우와 강문 감독처럼 해외 자본

8) 菲利普皮亚佐, 「封面人物姜文」, 『我的摄像机不撒谎』, p.74.

9) 장위안산(張遠山)은 영화 속 ‘나’를 황권을 상징하는 ‘짐(朕)’으로 해석하며, 영화의 항일 이야기는 2,000년에 걸친 중국 전체주의 역사가 낳은 필연적 결과를 폭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영화가 국제 영화계에서 최고 영예인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판이 단순히 중국 전체주의를 넘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인권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국민”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이는 영화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권력 구조와 그에 따른 비극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張遠山, 「我’是誰-〈鬼子來了〉的寓意核心」, 『姜文的「前世今生」: 鬼子來了』, 新銳文創, 2011, p. 94)

10) 焦雄屏, 『映像中国』, 复旦大学出版社, 2005, p.320.

11) 丁兆江, 「獎大? 法大? -談姜文的知法犯法」, 『姜文的「前世今生」: 鬼子來了』, 新銳文創, 2011, p.3.

의 투자를 받아 작품을 제작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감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중국 체제와 시장 내에서 생존해야 하는 다른 감독들은 국가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주선율 영화제작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국주의 영화는 상업적 논리와 정치적 자기검열의 논리를 결합한 산물로 자리 잡았다.

4. 세기말 중국영화 시장과 <귀신이 온다>

영화 <귀신이 온다>가 제작되던 1999년은 중국의 WTO 가입 및 중미 협정 체결로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이어진 대륙-대만 관계의 긴장과 같은 내부적 위기, 그리고 1999년 5월 중국 영사관 공군기 폭격 사건 같은 외부적 도전 속에서, 세계화된 현실을 직면한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마주했다. 이 시기 민족주의의 정당성 기반은 1990년대 초 문화 보수주의에서 강조된 중국의 고유 역사와 문화, 인문 정신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 건설로 전환되었다. 중화민족의 상징도 더 이상 고대 중화 문명이 아닌, 강력하고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주의로 변모했다.¹²⁾ 이러한 배경에서 중화주의적 국가주의가 부상했다.

예컨대 평샤오닝 감독의 영화들은 영화 <붉은 수수밭>의 항일 민족 재현 방식을 계승한 점에서 영화 <귀신이 온다>와 유사한데 항일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재현했지만, 두 영화의 결론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영화 <홍하곡>(1996)에서 티베트 인민은 외부 인물, 즉 혁명당으로 보이는 세얼(雪兒)의 오빠의 도움을 통해 침략자에게 저항하며, 이를 통해 한족-티베트 민족 통합의 국가를 이룬다. 한편 영화 <황하절연>(1999)에서는 팔로군의 임무를 확고히 수행하는 산적의 딸이자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녀는 황하 문명을 상징하는 중국 여성으로서 미국 비행사의 존경과 사랑을 얻는다. 이 초국가적 사랑은 팔로군이 이끄는 항일전쟁과 그 결과로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서사는 5세대 감독들이 오랫동안 비판받아 온 ‘자기 동양화’ 시각을 애국주의와 결합하며, 공산주의 역사 서술의 정당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예다잉 감독은 영화 <홍앵두>에서 <홍색연인>까지, 공산당 항일 역사를 이국적 시선에서의 낭만적 서사로 변환했다. 심지어 초국적 시각을 강조했던 우즈뉴 감독조차 1999년에 국가주의적 영화인 <국가(国歌)>를 제작하며, 1930년대부터 민족 공동체의 항일 과정을 담은 신중국 국가의 탄생을 다룬다. 그러나 영화 <국가>는 문혁 시기 1930년대 만든 국가(国歌)가 금기시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따라서 우즈뉴 감독의 영화도 전쟁 속 금기 소재를 반성하는 뉴웨이브 영화에서 국가 주도의 주선율 역사영화로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영화들이 중화주의로 지칭된 이유는, 1990년대 중국 경제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행한 ‘중국 위협론’에 맞서 중국 내에서 미디어의 선동으로 ‘중국은 NO라고 말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중국의 부상은 서구 자본주의적 근대성 외에 또 다른 근대성 모델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¹³⁾. 비록 세계화와 중화성에 대한 민족 영화 논쟁에서 다원적 근대성 모델이 명확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홍색 혁명’ 영화에서는 공통된 역사서술의 방식이 발견된다. 이는 역사 이야기를 서구인의 시각에 맞춰 전개하며, 중국을

12) 許紀霖, 『中國時刻：從富強到文明崛起的歷史邏輯』, 香港城市大學出版社, 2019, p.313.

13) 張法 等, 「從“現代性”到“中華性”-新知識型的探尋」, 『文藝爭鳴』, 第2期, 1994. pp.10-20.

소수민족인 여성 혹은 여전사 이미지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동서의 차이를 무릅쓰고 타자의 사랑으로 고양된 ‘중화성’ 역사서술은 1990년대 말 5세대 영화의 ‘진시황 콤플렉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주샤오윈 감독의 영화 <제국(秦颂)>(1996), 천카이거의 <시황제 암살(荆轲刺秦王)>(1999), 장이머우의 <영웅>(2002)과 같은 작품들 역시 암살자가 진시황을 ‘죽이지 못했음’에서 ‘죽이지 않음’으로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며 문화적 민족주의에서 정치적 국가주의로 전하는 역사서술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21세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중국 영화시장은 ‘지금-여기’의 현실을 외면한 자기 만족적 ‘홍색 혁명’ 영화와 오락영화가 주류를 이루며, 과거를 단순히 미화하거나 소비 지상주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말까지 중국 뉴웨이브 영화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보여주었던 대항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서술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문화·영화분과】 발표

문화생태주의에서 본 中原의 공간과 天下의 통치권력적 세계
— 공간적 진화

김 연 재*

【목 차】

1. 문제의식의 실타래
2. 소자(Soja)의 공간적 전환과 문화생태주의
3. 中原의 지역성과 시간적 공간화
4. 大一統의 정통성과 공간적 진화
5. 中原天下論과 문화생태주의의 이념적 공간
6. 문제해결의 실마리

【 초 록 】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세계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는 중원의 지역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성이란 역사적 시간과 지리적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역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역사성과 지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발현해왔다. 여기에는 과거의 시간성에서 현재의 공간화로 전환하며 시간의 공간화를 통해 역사를 현재화하는 일정한 문화생태주의적 통로가 열려져 있다.

중원의 세계는 中原의 古都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간적 공간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진화가 진행되었다. 중원의 관념은 지역의 지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 시간을 통해 시간적 공간화에 따라 공간적 진화를 거듭해왔다. 시간적 공간화는 지역적 공간에서 의식적 공간으로, 궁극적으로 이념적 공간으로 진화하였다. 이는 역대의 통치권력의 지형도를 조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중원 지역을 장악한 역대의 왕조는 통치의 공간적 실천 속에 권력의 시간적 흐름을 타고 대의명분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확보해갔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화의 과정은 중원의 가상적 현실과 현실적 가상이 다채롭게 굴절되는 프리즘의 세계를 창출해왔다. 천하의 세계는 중원의 현실이 가상화되고 중원의 가상이 현실화되는 문화생태주의적 공간을 형성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 천하를 통치하거나 통일하기 위한 대의명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원의 지역성은 현실적 인식과 가상적 염원이 교차하는 문화생태주의적 시선에서 中原天下論의 지속가능한 지평을 열어갔다.

【키워드】 문화생태주의, 중원천하론, 시간적 공간화, 공간적 진화, 대일통, 통치권력의 세계

* 제1저자. 중국 북경대학 철학박사 (yonjae333@hanmail.net)

1. 문제의식의 실타래

동아시아의 지역성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난 3,000여 년간 역사와 지리의 시공간에 따라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형태로 집약적으로 축적되고 자리잡아왔다. 이는 역사의 시간적 흐름과 지리의 공간적 전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역사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리의 공간이 전개되고 지리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역사의 시간도 흘러왔다. 동아시아의 지역성은 특히 지역의 通時的이고도 共時的인 구조 속에 특화된 正體性을 갖고서 민족, 국가, 집단 등의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였다. 공동체는 민족, 국가, 집단 등의 성격을 지니는데, 특히 국가공동체는 동아시아의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세계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는 중원의 지역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성이란 역사적 시간과 지리적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역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역사성과 지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발휘해왔다. 공동체의 의식은 이처럼 역사와 지리의 시공간적 관계 속에 동질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유대감을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과거의 시간성에서 현재의 공간화로 전환하며 시간의 공간화를 통해 역사를 현재화하는 일정한 문화생태주의적 통로가 열려져 있다.

중원의 세계는 中原의 古都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간적 공간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진화가 진행되는 문화생태주의적 시선에서 접근할 수 있다. 중원의 관념은 지역의 지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 시간을 통해 시간적 공간화에 따라 공간적 진화를 거듭해왔다. 시간적 공간화는 지역적 공간에서 의식적 공간으로, 궁극적으로 이념적 공간으로 진화하였다. 이는 역대의 통치권력의 지형도를 조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중원 지역을 장악한 역대의 왕조는 통치의 공간적 실천 속에 권력의 시간적 흐름을 타고 대의명분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확보해갔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화의 과정은 중원의 가상적 현실과 현실적 가상이 다채롭게 굴절되는 프리즘의 세계를 창출해왔다. 그 세계는 천하의 용어로 은유된다. 천하의 세계는 중원의 현실이 가상화되고 중원의 가상이 현실화되는 문화생태주의적 공간을 형성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 천하를 통치하거나 통일하기 위한 대의명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원의 지역성은 현실적 인식과 가상적 염원이 교차하는 문화생태주의적 시선에서 中原天下論의 지속가능한 지평을 열어갔다.

2. 소자(Soja)의 공간적 전환과 문화생태주의

오늘날 문화시대에 과학기술과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문화 전반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선 중에 문화생태주의(cultural ecologism)¹⁾의 시선이 있다. 문화생태주의는 문화의 성격이나 특징을 투사한 다각도의 입체적 관점이다. 그것은 문화 전반에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가 깔려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는 생태학의 자연과학에서도 출현한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문화현상 전반에 적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열린 관점은 생활방식과

1) 문화생태주의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가 있다. 문화제국주의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가리거나 종속시키는 사고이다. 그것은 신념, 사고,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적 차이를 우월성이나 미개성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보는 편파적 입장이다.

관련한 문화 전반의 총체적 흐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태학적 지식의 통로를 제공하면서도 인간사회의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지혜도 담고 있다.

문화생태주의의 기저에는 共感의 정서가 깔려있다. 공감은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자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인간사회는 공존, 소통, 공생 등의 유대감을 통해 공감의 정서가 흐르면서 조정과 통합의 합리적 방식이 작동하며 삶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하면서 조화와 화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간다. 그러므로 공감의 정서는 사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인간의식의 차원을 지닌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생태주의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명력의 지속가능한 흐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문화생태주의의 관점은 본질과 현상, 주체와 객체 등과 같은 이분법적 경계를 해소하고 화해의 통합적 경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탈경계적 성격을 지닌다. 그 속에서 인간이 존재의 변화가능성 속에 살아가면서 인식의 실천가능성을 구현하고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삶의 총체적인 지평으로 열려져있다. 그러한 인간사회는 새로운 가치의 체계나 새로운 문화의 영역을 창조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시공간의 연속적 변화에서 공간의 영역을 따로 분리해서는 인간의 삶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의 급변하는 현대적 추세에서는 장소, 지역, 세계, 경계 등과 같은 공간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의 지역성과 그 생태적 여건에 주목하면서 도시의 공간과 그 문화적 특성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삶의 터전은 전통적으로 역사의 시간성에 따른 지리의 공간성을 특징으로 한다. 지리의 공간은 역사의 시간에 수반되는 영역으로서, 불변적인 靜態的 지역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 현대사회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전통적 사고와 차이가 있다. 최근에 도시행정과 관련한 지리학의 영역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에서 공간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특수성 속에 대량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실시간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공간은 유기적이며 유동적이며 왕성한 활력의 場이다. 그것은 자연현상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사회적 연결망으로 확장되며 시간의 흐름 속에 공간의 경계를 창조적으로 확충하는 문화생태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1980년대²⁾ 이후에 현대도시는 정보화, 지구화, 포스트포드주의, 탈산업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추세와 맞물려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공간의 터전은 글로벌화, 정보화, 포스트모던적 흐름 속에 도시의 건설적인 해체와 건전한 재구성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최근에 문화도시의 관념은 이러한 지역성을 공간적으로 특화시키려는 일환이다. 도시의 공간적 특화는 현대의 도시지리학에서 에드워드 소자(1940-2015)가 설파한 현대적 도시화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공간적 전환(Spatial Turn)’³⁾은 역사의 시간성과 지리의 공간성의 관계에서 지리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공간적 특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도시의 공간적 특화는 중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방법론적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의 구호 하에 도시현상에 대한 지리학적 방법론을 주장한다.⁴⁾ 그

2) 일반적으로 1980년대부터 현대도시의 특성이 드러난다. 현대도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매체를 통해 도시가 다원적이고 다양하게 구성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이성백, 「공간적 선회: 도시연구의 신 패러다임 - E. 소자의 포스트모던 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pp.361-362.

3) 일반적으로 사회나 문화의 분야에서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도 지리학의 영역에서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다.

Crang, M and Thrift, N (eds), 최병두 역, 『공간적 사유(Thinking Space)』, 에코리브르, 2013.

4) 그는 지리학과 도시연구의 분야에서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인물이다. 그는 『포스트메

구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전개와 같은 기존의 역사적 패러다임과 달리 공간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의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현대적 도시의 관념에 접근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공간적 전환은 고정불변의 법칙이 없는 탈경계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지배이데올로기적 기조 하에 현대의 도시이론의 방법론적 성과를 대변한다.

소자는 현대의 자본주의의 흐름에서 시간성에 공간성을 결합하고 공간의 사회적 생산에 주목한다. 여기에는 시간에서 공간으로의 의미있는 전환이 중요하다.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노동시간이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에 중요한 원천이었다. 여기에는 시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는 자본 생산의 여건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국적 성격을 지니므로 시간성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그에 따른 상대적 잉여가치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었다. 지구촌의 의식은 공간의 사회적 생산은 전지구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공간적 전환은 20세기 후반에 자본주의의 변화된 현실과 포스트모던의 문화적 사조 속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시야를 제공한다.

소자가 보건대, 특정의 대상을 파악할 경우에 역사성이나 사회성과 함께 공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실의 실재에서 물리적 혹은 물질적 현상은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의 공간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역사성, 사회성 및 공간성의 이른바 ‘존재의 삼중변증법(Trialectics of Being)’을 주장한다. 이른바 ‘공간적 전환’은 도시의 공간, 역사적 맥락 및 사회적 생산을 연계하는 공간, 시간 및 사회의 삼중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공간적 전환이라는 말은 시간성과 공간성의 대립적 관계에 사회성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속에 시간성만큼 공간성도 중요한 영역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도시화의 특성은 모더니즘적 성향과 포스트모더니즘적 성향의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성향에 속한다고 본다. 이는 푸코가 말한 헤테로피아(heteropia)의 공간 개념에 착상한 것이다. 헤테로피아는 이질적인 구성요소들이 공존하는 이질성의 공간을 가리킨다. 헤테로피아의 공간은 초시간적 공간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탈경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더 나아가 소자는 공간의 영역을 세 가지 공간, 즉 지각된(perceived) 공간, 인식된(conceived) 공간 및 체험된(lived) 공간으로 세분화한다. 이 공간들은 각각 제1공간, 제2공간 및 제3공간으로 명명하고 ‘공간성의 삼중변증법(Trialectics of Spatiality)’으로 설명된다. 특히 제3의 공간은 지각된 공간과 인식된 공간 사이에 함께 아우르는 체험의 공간이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론과 결합되어 차이성을 지닌 혼종의 공간, 타자화된 공간, 새로운 정치의 시작으로서의 공간으로 설명되었다.⁵⁾ 특히 체험적 제3의 공간은 가상적 현실과 같은 인간의식의 탈경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의 공간을 창출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중원의 관념에서 공간의 진화는 에드워드 소자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는 도시지리학의 문제의식을 갖고서 도시공간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논법에 따르면, 공간은 제1공간인 지각된(perceived) 공간, 제2공간인 인식된(conceived) 공간 및 제3공간인 체험된(lived) 공간으로 구분된다. 제3의 공간으로서 체험된 공간은 지각된 공간과 인식된 공간을 모두 함께 아우르는 현실적 영역에 해당된다.

트로폴리스 도시와 지역에 대한 비판적 연구(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2000)에서 로스엔젤리스의 도시공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시론을 주장하였다.

5) 홍용진, 「에드워드 소자의 ‘지리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연구』, 제9권 1호, 도시인문학연구소, 2017.04., pp.258-259.

중원의 공간을 소자의 도시공간이론에 적용하면, 중원의 지역적 고도는 지각된 공간에 해당되고 국가의 공동체는 체험된 공간에 해당되고 천하의 지평은 인식된 공간에 해당된다. 국가의 공동체의 공간은 지정학적 영역에 해당된 것으로서, 중원의 지역적 공간과 천하의 인식적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가상적 현실의 세계이다. 이러한 관념론적 공간에는 사회성을 넘어 국가의 집단의식 속에 천하의 공동체적 의식의 지평이 펼쳐져있다.

3. 中原의 지역성과 시간적 공간화

중원의 지역성은 현대적 의미에서 문화생태주의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문화생태주의는 사회의 정서적 공감대 속에 자연스레 다양성과 통일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삶의 총체적 양식을 특징화한 것이다. 문화생태주의의 차원에서 중원의 지역성은 시간적 공간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진화를 거친다. 中原의 공간적 진화는 그 지역성의 제한적 영역을 넘어 國家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세계를 확보하면서 天下의 가치지향적 경계로 열려져있다.

중국의 상고시대를 조감하면, 龍山の 문화로부터 中原의 문화를 거치면서 周代의 통치적 질서를 거쳐 禮樂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에서 어떻게 통치적 질서의 체계를 확립하면서 문명의 가치관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西周시대에 통치적 질서의 의식은 어떻게 天下의 관념체를 형성하는가 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당시에 통치의 영역은 中原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의 지정학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특히 중원의 지역성이 자연적 지리에서 인문적 지리로 확장되는 일련의 과정⁶⁾은 혼돈으로부터 개벽으로 나아가는 통일적 질서의 과정에 해당한다. 그것은 중원의 지역이 중국의 중심 혹은 천하의 중앙으로 자리잡아가는 문명화와 관련된다.

中原의 古都를 이해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그 특수한 지역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원지역은 광활하고도 굴곡진 지리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파란만장하고도 유구한 역사적 성격도 지닌다. 중원은 자연지리적으로 하남성의 지역이나 황하강의 중하류의 지역까지 포함된다. 또한 그것은 그 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인문지리적으로 역사, 정치, 문화 등의 분야 전반과 관련되며 심지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관계까지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중원은 중국의 문명 혹은 문화의 원조인 夏, 商, 周의 三代왕조의 발원지이며, 역대로 대략 2,000여 년 동안에 20여 개의 왕조의 수도였다. 특히 하남성 지역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8개 首都 중에 무려 4개의 수도가 위치해있다. 즉 상대와 은대의 수도인 安陽, 六國의 수도인 鄭州, 13개의 왕조의 中京인 洛陽, 7개 왕조의 東京인 開封이 있다.⁷⁾

또한 중원은 上古시대에 중국대륙의 지리적 중심의 활동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과 문화에서 역사적으로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에 따른 파급의 원심력을 발휘해왔다. 盤古, 女媧, 三皇과 五帝, 河圖와 洛書 등과 같은 신화나 전설의 근원지이며 裴李崗文化, 仰韶文化, 龍山文化, 二裏頭文化 등의 고대문화의 원류이다. 중원은 지리적 환경, 역사적 전통성 등의 특수한 지역성 때문에 중국,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 특히 유교사회에서 사상과 문화의 발원지이자 원천

6) 중원지역의 자연적 지리와 인문적 지리의 관계에 관해 唐曉峰, 『從混沌到秩序 - 中國上古地理思想史述論』, 中華書局, 2010, pp.7-8 참조.

7) 陳偉濤, 『中原農村伏羲信仰』,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3, p.20.

지로 평가되었다.

우선, 중원은 어떠한 지역적 성격을 지니는가? 그 용어의 유래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중원의 뜻은 『시경』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 중원을 보니 그 큰 것이 많다”⁸⁾ 혹은 “중원에 콩이 있는데 백성들이 따고 있다.”⁹⁾ 여기에서 중원은 평원의 중앙지대를 가리킨다. 후대에 중원은 황하강의 중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면서 결국에 중원지역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갖게 되었다.

中原이라는 말에서 ‘中’ 개념은 원래 많은 별들이 북두칠성을 주축으로 회전한다는 천문학적인 사고에서 유래되었다. 『설문해자주』에는 “중은 위와 아래로 통한다”¹⁰⁾고 정의한다. 후대로 가면서 그것은 上天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수단이 되었고 더 나아가 특정의 중앙 혹은 중심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것은 점차로 ‘中心’이라는 人文地理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이 개념은 농업의 활동에 기반한 부족사회에 촌락의 형태, 즉 거주와 그 안에서 활동하는 공간의 구조적 개념¹¹⁾에 반영되었다. 中 글자는 갑골문 등의 형상글자를 살펴보면 중앙을 세우는(建中) 깃대 혹은 깃발 혹은 旗幟를 가리킨다. 그것은 씨족부락의 부족장이 부족민들을 모을 때에 중앙에 깃발을 세워놓아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깃발과 같은 일종의 수단이었다. 그것은 집회 장소에서 중앙 혹은 중심을 나타내었는데 부족장의 권위성이나 통치력을 상징하는 토템의 성격도 함께 반영되었다.¹²⁾ 그러므로 ‘중’ 개념은 천문학적인 天象과 지리학적인 形狀이 자연스레 합치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세계의 통일적 질서가 반영되면서 사회적 규범의 가치론적 범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것은 후대에 天人合一의 이념과 그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세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주나라의 사람들은 陝甘고원에서 흥성하기 시작하여 涇渭평원에서 규모있게 발전하였다. 그들은 중원¹³⁾과 그 주변의 일대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자신들의 시야를 넓혀갔으며 더 나아가 동쪽으로 진군하여 은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도읍을 雒陽¹⁴⁾에 정하여 이른바 東周시대를 열었다. 그 이후로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활동의 무대가 점차 확장되면서 통치의 형태를 갖춘 국가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므로 중원의 古都는 구체적인 장소¹⁵⁾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성의 경계를 확장하게 되었다. 문화생태주의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는 중원의 지역성이 천하의 중심으로 진화되어 가는, 시공간적 질서를 확보해가는 일련의 시간적 공간화의 과정인 셈이다.

중원의 지역은 지리의 전개 속에 역사의 흐름을 진행하며 역사의 시간 속에 지리의 공간을 확보해간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적 공간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시간적 공간화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공간적 진화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왕조마다 시대마다 정치권력이 중원 지역을 지배하는가의 여부와 그 통치의 추세와 맞물려있다. 공간적 진화에는 물리적 시간에서 의식적 시간으로 확장

8) 『詩經』, 「小雅」, “瞻彼中原, 其祁孔有.”

9) 『詩經』, 「小雅」, “中原有菽, 庶民采之.”

10) 段玉裁, 『說文解字注』, “中, 上下通也.”

11) 장소는 관념적 의미에서 보면 공간을 가리키고 추상적 의미에서 보면 지리를 가리킨다. 공간은 고대 그리스에서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topos) 개념에서 유래되었다. 토포스 개념에서 유토피아(utopia) 개념이 생겨났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사회를 가리킨다. 공간적 전환과 그 공간의 범주에 관해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의 지리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한국학논집』, 제42집, 한국학연구원, 2011, pp.9-15 참조.

12) 董根洪, 『儒家中和哲學通論』, 濟南: 齊魯書社, 2001, pp.31-33.

13) 중원의 지역과 그 유래에 관해 陳全方, 『周原與周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pp.5-8 참조.

14) 이 도읍은 오늘날의 洛陽이다. 그것은 成王이 동쪽의 은나라 땅을 견고히 통치하기 위해 周公의 통솔 하에 건립했던 곳이다.

15) 장소는 자연의 환경과 차별되는 인간 활동의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동양의 장소와 서양의 장소에 관해서는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2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pp.171-173 참조.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즉 중원의 물리적 장소가 지역적 공간화를 거쳐 이념적 공간화로 확충된다. 중원의 도시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 물리적 공간의 틀을 벗어나는 탈공간화를 거쳐서 국가 공동체의 의식으로 전환하면서 천하통일의 이념으로 고양된다.

이른바 시간적 공간화는 통치의 지침에 따른 지배권력의 지형도로 비유할 수 있다. 각 왕조 혹은 각 시대마다 지배권력은 통치지침의 나침반을 따라 중원지역의 讀圖法을 파악하고 실제로 통치지형의 등고선을 따라 통치의 공간을 찾아내고 국가권력의 좌표를 설정하여 天下經綸의 지평선을 찾아가는 것이다. 시간적 공간화의 지형도에서 중원의 지역은 통치권력의 지정학적 기점으로서, 국가체제의 공동체적 지표에 맞추면서 궁극적으로 천하경륜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바라다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원의 공간은 상상력의 나래를 타고 서사의 이야기 속에 원대한 포부의 관념체로 진화하였다.

4. 大一統의 정통성과 공간적 진화

고대 중국에서 역대 왕조들은 그 유역에 여러 古都들을 건립하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통치력을 공고히 하면서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중원의 지역성은 통치권력의 중심부로서, 九州의 행정구획을 갖추어 국가의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천하통일의 지속가능한 경계를 지향하였다. 천하의 경륜이나 통일은 중원의 지역성을 토대로 하는 국가공동체의 의식적 공간에 기반한다. 그것은 중원 지역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계관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유역에서 여러 古都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의 영역을 중원지역이라고 부른다. 중원지역에서 西高東低의 지리적 특징은 역사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간적 진화를 거듭하는 입체적 경로를 만들어갔다.

동아시아의 지역성은 중원의 古都와 그 지역성에 기초하며 또한 그 지역적 특수성은 동아시아적 가치지향성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중원의 고도는 周代부터 통치권력의 중심지로서 지정학적 경계의 결집체였다.

역대로 중원의 지역성은 통치의 중앙이라는 공감대 속에 그 주변의 지역과의 위계질서와 같은 결속력을 강화하고 국가공동체적 유대감을 고양시켰다. 국가공동체적 의식 속에 중원은 왕조의 수도라는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의 지정학적 영역을 확장해갔다. 중원의 지역은 지리의 공간에 역사의 시간을 결합하여 통치권력의 결집체로 진화하였다. 이 진화의 과정에서 중국민족의 의식을 고양시켜 중국의 민족을 중심으로 하고 그 변방의 부족들을 오랑캐로 간주하여 배척하는 中華민족의 자의식적 세계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중원의 지역적 공간에서 역사적 인식 하에 중원의 세계라는 가상적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궁극적으로 天下經綸의 經世主義的 지평을 지향하였다.

중원의 관념과 그 지역성은 고대의 중국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형세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중원은 중국대륙에서 역대의 왕조나 정권의 수도들이 위치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중원의 지역성은 왕조개창이나 통치권력의 합당한 명분을 대변하였다. 그것은 중원의 古都를 중심으로 하여 왕조나 제후의 생존경쟁이 가속화되고 중앙집권의 통치구조가 재편되었던 흥망성쇠의 현장이었다.

중원의 지역적 공간과 그 의식적 영역은 주대의 역사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낙읍으로 옮긴 이후에 중원의 지역은 역대로 왕조들이 천하를

장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천하를 쟁취하기 위한 상징적 각축장이었다. 西周시대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원을 내다보면서 東周시대, 춘추시대로 시공간의 영역을 확충하였다.

漢代부터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거나 국가의 체제가 확립되면 통치의 정당한 대의명분은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 천하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주왕실의 권위에 의존하는 왕조의 개창, 정통성, 체제는 중원의 지역을 장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었다. 중원의 고도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은 공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의명분의 공간성을 모색하는 지정학적인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서 중원의 고도는 道義와 正義의 명분을 내세우는 이념적 공간으로 확충되었다. 공간적 전환의 차원에서 중원의 이념적 공간은 대의명분의 공동체적 의식의 산물이다.

漢代에 동중서는 儒家의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면서 국가공동체적 의식을 강화시켰다. 그는 한왕조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통치를 합리화하는 시대적 과제를 떠맡았다. 동중서는 “백 가지 학파를 물리치고 오직 유가의 학술만을 존중한다(罷黜百家, 獨尊儒術)”는 기치 하에 유가의 사상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여 官學化하고 윤리도덕의 三綱五常說¹⁶⁾을 정립시켰다.¹⁷⁾ 그는 春秋公羊學의 비판정신을 갖고서 大一統의 역사의식을 통치의 이념과 국가의 체제에 맞게 변용하였다. 그는 大一統의 역사의식 속에 德治의 王道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공동체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天下經綸¹⁸⁾의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 속에 중원의 위치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동중서는 天人感應說에 입각하여 立元正始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大一統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그 논점은 국가는 왕권을 기반으로 하고 왕권은 天意를 반영하며 천의는 元의 근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立王正始의 정당성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체제를 위한 새로운 왕조의 명분을 인정하는 新王의 정통성이나 대의명분과 관련된 정치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정치의 윤리화 혹은 윤리의 정치화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통성의 문제는 司馬遷이나 班固의 史學的 영역에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¹⁹⁾

그 이후로 大一統의 역사의식은 통치권력의 대의명분 하에 중원 지역의 시간적 공간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진화를 가속화시켰다. 중원의 古都는 지형적 지역에 기초하지만 인간의식의 차원에서 지역성의 시간적 공간화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의 탈공간화를 통해 공간적 진화를 거듭하였다. 면서 이념적 공간으로 확충되었다. 중원의 고도는 통치권력의 성취를 갈망 속에 지역의 不可逆의 물리적 세계를 넘어 과거, 현재 및 미래 시간의 可逆의 공간화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진화는 궁극적으로 이념적 공간, 즉 천하정륜의 현장을 특징으로 하는 가치지향적 지평으로 열려져 있다.

이러한 권력의 형국은 장기간 문화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축적한 지형도를 그려왔다. 그 지형도에는 지리적 공간의 기복을 표시한 등고선이 펼쳐져 있다. 이 등고선은 단순히 지형의 윤곽을 표시한 지도라기보다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리적 공간이 각인된 인간의식의 차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식의 지도에서 중원의 지역은 그 주변지역과의 지정학적 관계 속에 역사와 지리의 시간적 공간화가 진행되면서 공간적 진화를 거듭해왔다. 즉 春秋學의 계열에서 尊王사상을

16) 삼강은 父爲子綱, 君爲臣綱, 夫爲婦綱을 가리키고 오상은 仁, 義, 禮, 智, 信을 가리킨다. 유교사회에서 오상은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과 연관되면서 삼강오상은 삼강오륜으로도 불린다.

17) 吳龍燦, 『天命、正義與倫理 - 董仲舒政治哲學研究』, 人民人民出版社, 2013, pp.44-50.

18) 경륜이라는 말은 『주역』의 「상전」에 “雲雷, 屯, 君子以經綸.”의 구절에서 유래한다. 또한 『중용』에서는 “오로지 천하의 지극한 誠이라야 천하의 큰 법칙을 다스릴 수 있고 천하의 크나큰 근본을 세우고 천지의 크나큰 화육을 안다. 어찌 의지하는 것이 있겠는가?(『中庸』 32장, “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天地之化育. 夫焉有所倚?”)라고 말한다.

19) 汪高鑫, 『董仲舒與漢代歷史思想研究』, 商務印書館, 2012, pp.23-25.

바탕으로 하여 大一統의 역사의식도 형성되었으며, 통치권력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에 따라 그 지역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체계를 확장하였다.

역대의 왕조는 중원지역에서 통치의 시간적 흐름을 타고 통치의 공간적 실천을 하면서 天下經綸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모색하였다. 시간적 공간화는 역사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지리의 공간적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이 과정은 통치권력의 구조에서 중원의 지역, 국가의 공동체 및 천하의 지평으로 이루어지는 동심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 동심원적 구조에서 공간적 진화는 중원의 특화된 지역성이 국가권력의 의식적 공간으로 확충되면서 천하경륜의 이념적 공간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중원의 지역성을 토대로 하는 시간적 공간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진화는 통치권력의 대의명분, 즉 도의와 정의의 여지를 만들어가며 천하의 통일이라는 가치지향적 이념으로 고양될 수 있었다.

5. 中原天下論과 문화생태주의의 이념적 공간

세계의 실재(reality)에서 보자면, 중원의 현실과 가상의 교차점에서 진행되는 공간의 진화는 역대의 통치권력의 이정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漢代부터 국가의 체제는 중앙의 통치권력이 지방의 자치권력과 함께 국가의 공동체적 의식을 공유하고 천하경륜의 이념을 지향하였다. 여기에서 중원의 지역적 공간은 국가의 의식적 공간으로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천하의 이념적 공간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진화는 중원천하론의 지속가능한 지평을 열어놓았다.

동아시아의 지역에서 天下경륜의 가치지향성의 문제는 세계의 실재에 대한 일종의 이념적 성향을 지닌다. 그것은 처음에 지리적 視野 혹은 分野에서 유래되었으나 차츰 禹王의 治水사업, 九州의 범주, 名山大川의 분포 등의 영역으로 확충되었다. 또한 통치의 영역은 자연스레 中原의 도시적 장소에서 그 주변적 지역과의 관계에서 지역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국가의 공동체적 의식으로 강화되었다. 先秦시대 이후에 중원지역의 사람들이 東夷, 西戎, 南蠻, 北狄 등과 같은 주변의 소수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중원 지역은 자연스레 그 주변의 민족들이나 지역들과 차별화되었다. 특히 漢代이후에 중원의 지역이 그 주변지역의 중심되고 상대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야만과 문명의 차별, 華夷의 구분 등처럼 상대적 차별성 혹은 우위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원은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서 활동의 중심 혹은 중앙의 무대라는 일종의 관념론적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적 지리에서 인문적 지리로 확장된 결과로서, 중원이 통치의 중심 혹은 중앙이라는 의식이 강화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천하의 질서의식은 인간사회에서 안정적 질서와 확고한 권위로 자리잡게 되었다.²⁰⁾ 그 과정에서 중원의 시간적 공간화에 따른 국가와 천하의 공간적 진화를 거듭하였다.

역대의 왕조들은 중원의 고도와 그 지역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의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공간적 진화를 거듭하면서 민족 혹은 국가의 공동체적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결국에 천하의 이념적 공간을 창출하였다. 중원의 공간적 진화에는 天命觀과 그에 따른 범주, 즉 의지적 天, 천명, 天子, 천하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념적 공간이란 道義와 正義과 같은 공동체적 의식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지향하는 통치권력의 지속가능한 영역을 가리킨다. 중원의 지역적 공간은 大一統의 역사의식과

20) 唐曉峰, 『從混沌到秩序 - 中國上古地理思想史述論』, 中華書局, 2010, pp.82-90.

變法의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천하의 이념적 공간으로 확장된다. 중원지역의 이념적 공간은 중원을 장악해야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거나 천하를 통일하려면 중원을 장악해야 한다는 통치의 가치지향적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 이념적 공간을 통해 天人合一의 보편적 이념 속에 중원천하론의 가상적 세계관이 창출될 수 있었다.

중원천하론은 지방의 자치분권을 이념의 통일적 공간에 가두면서 중앙의 권력집중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공간의 이념화와 이념의 공간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공간의 이념화는 중원의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는 천하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념의 공간화는 중원의 지역을 천하의 중심으로 삼아 그 주변의 지역이나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다. 특히 송대부터 중원천하론은 시대정신과 역사정신이 결합되면서 통치권력의 권위를 대변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통치권력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데에 정통성(orthodoxy)의 기치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인간의 총체적 삶 전반에 걸쳐 일종의 문화권력으로 작동하였다.

천하의 지속가능한 지평은 영토, 지역, 국경 등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통치력, 통치이념 등과 관련된 관념적 공간의 세계이다. 통치권력의 仁政은 道義와 正義의 대의명분을 갖대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왕권은 仁政의 도의와 정의를 실현한다기보다는 통치권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치중한다. 군주라면 누구나 이러한 지평을 지향하면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하려는 통치권력의 야망을 갖게 되었다. 중원을 장악하는 군주는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天下經綸의 절대적 원칙이 생겨났다. 그 결과, 사회 전체를 통합하고 조정하면서 국가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켰다. 천하의 이념적 공간화는 이러한 의식의 절대적 최고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유교사회에서 중원의 시간적 공간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진화는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천하경륜의 가치지향적 지평을 열어놓았다. 중원천하론은 인간 삶의 총체적 영역에서 문화권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문화권력은 문화를 통해 지배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천하는 유가의 통치이념과 결부되면서 유교의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였다. 그것은 유교사회에서 문화권력의 통로를 거쳐 문화공동체의 이념적 공간을 열었다. 문화생태주의의 맥락에서 천하의 공간은 도의와 정의의 지속가능한 가치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아실현의 가치지향적 목표 속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욕망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은 존재의 변화가능성 속에 살아가면서 인식의 실천가능성을 구현하고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삶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른바 문화권력은 유가의 통치이념에 의거한 국가의 공동체적 의식의 結晶體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생태주의의 맥락에서 보자면, 중원의 명칭은 정통성, 정당성, 합법성 등의 대의명분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중원의 공간은 국가의 의식적 공간을 확충하면서 天下의 이념적 공간을 확충하면서 天下經綸의 지속가능한 지평을 열어놓고 있다. 여기에는 환상적 혹은 공상적 세계, 예를 들어 무릉도원과 같은 비현실적인 초공간성의 세계나 신화시대와 같은 비실재적인 초역사성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문화의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통합적 경계를 지향한다. 이는 고전적 유토피아처럼 인간이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관념적인 이상적 경지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不可逆의 시간의 현실적 세계에서 可逆의 시간의 가상적 세계를 바라다보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원은 단순히 집단이나 국가의 행정구역의 구획뿐만 아니라 통치권력의 가상적 공간도

가리킨다. 중원의 지역을 장악하는 문제가 왕조나 국가의 정권을 확립하기 위한 중대한 과업이 되었다. 그것은 권력의 구심력과 지배의 원심력에 따라 중원천하의 가상적 세계를 만들어갔다. 중원천하의 가상적 세계는 통치권력의 시간적 공간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중원의 고도와 그 주변적 지역의 일정한 관계를 통해 역사적 시간에 따라 지리적 공간을 전개해갔다. 이러한 공간적 진화는 지역의 동질성과 이질성, 차이성과 차별성, 통합과 분화, 화합과 차별 등과 같은 지정학적인 위계적 질서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한 위상은 道義와 正義의 대의명분하에 中原天下論과 같은 천하경륜의 가치지향적 지평으로 나아갔다.

6. 문제해결의 실마리

중원의 지역성은 역사적 시간과 지리적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역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역사성과 지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발휘해왔다. 공동체의 의식은 이처럼 역사와 지리의 시공간적 관계 속에 동질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유대감을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과거의 시간성에서 현재의 공간화로 전환하며 시간의 공간화를 통해 역사를 현재화하는 일정한 통로가 열려져 있다.

중원의 관념에는 공간의 실재(reality)가 있다. 그것은 지역적 공간, 의식적 공간, 이념적 공간 및 이들의 입체적 관계에서 접근된다. 여기에는 현실과 가상의 관계, 즉 현실적 가상과 가상적 현실이 맞물리는 영역이 있다. 중원의 고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 공간이며 국가의 공동체는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의식적 공간이며 천하의 이념은 가상의 탈경계적 공간이다. 중원의 공간을 소자의 도시공간이론에 적용하면, 중원의 지역적 고도는 지각된 공간에 해당되고 국가의 공동체는 체험된 공간에 해당되고 천하의 지평은 인식된 공간에 해당된다. 국가의 공동체의 공간은 지정학적 영역에 해당된 것으로서, 중원의 지역적 공간과 천하의 인식적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가상적 현실의 세계이다. 이러한 관념론적 공간에는 사회성을 넘어 국가의 집단 의식 속에 천하의 공동체적 의식의 지평이 펼쳐져 있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화는 중원의 지역과 천하의 이념의 경계, 즉 가상의 현실화와 현실의 가상화가 만나는 접점의 영역에서 진행된다.

이처럼 시간적 공간화에 따른 공간적 진화는 중원의 가상적 현실과 현실적 가상이 다채롭게 굴절되는 프리즘의 세계를 창출해왔다. 중원의 지역성을 토대로 하여 역사의 시간적 흐름 속에 통치권력의 특화를 거쳐 국가공동체의 의식을 형성하며 天下통일의 이념적 지평을 지향하였다. 천하의 세계는 중원의 현실이 가상화되고 중원의 가상이 현실화되는 문화생태주의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 천하를 통치하거나 통일하기 위한 대의명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원의 지역성은 현실적 인식과 가상적 염원이 교차하는 문화생태주의적 시선에서 中原天下論의 지속가능한 지평을 열어갔다.

【중국문화·영화분과】 발표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대학원 유학 실천에 관한 연구
— 서예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중국 서예가들을 중심으로

최리나* · Li Zhanpeng**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 이론
 - 2) 유학 실천에 대한 ‘장’ 이론적 접근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 1) 사례연구
 -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4. 분석결과
5. 논의 및 결론

【 초 록 】

본 연구는 현직 중국 서예가들이 서예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양상을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시각에서 한국 서예교육이 지니는 특징과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근거로 하여,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유학 실천을 둘러싼 ‘장’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 모 지방 S대 대학원에서 서예교육을 전공하는 중국 서예가 유학생 8명을 선정하였으며, 사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심층면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등 코딩절차를 반복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장’, 교육 ‘장’, 사회 ‘장’의 세 가지 핵심적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각 ‘장’에 내재하는 중국과 한국의 학교와 교육 체계, 그리고 국내외 사회 ‘장’을 아우르는 총 6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유학 실천이 다층적인 사회구조 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통찰을 제공해 준다.

【키워드】 재한 중국 유학생, 중국 서예가, 서예교육, 피에르 부르디외, ‘장’

* 제1저자. 세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lina@sehan.ac.kr)

** 제2저자. 세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243922347@qq.com)

1. 서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서예는 단순한 문자 표현을 초월하는 심층적 예술 양식으로 자리매김한다. 동북아시아 삼국은 각각 ‘書法’(중국), ‘書藝’(한국), ‘書道’(일본)라는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¹⁾ 비록 명칭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이들 용어가 내포하는 본질적 의미가 근본적으로 유사하며, 본질적 차별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서예 개념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경우, 문화적 현지화 과정과 이에 따른 독창성의 발현은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주제로 부각된다.²⁾ 이는 서예가 지역별 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다층적인 예술임을 시사한다.

서예를 둘러싼 한·중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국은 각각 ‘한글 서예’와 ‘중국 서예’라는 서예 문화를 통해 자국의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그중 외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적 교류 및 전파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서예의 종주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서예를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고등교육 체계에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된 서예 교육을 통해 중국 서예를 심도 있게 학습함으로써, 중국 전통문화의 국제사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³⁾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예교육은 대학교의 정규 교과정보다는 다양한 ‘서예 체험’의 형태로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문화도시센터 등의 주최로 서예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⁴⁾ 한글날을 기념하여 대학교 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예체험을 진행하기도 한다.⁵⁾ 뿐만 아니라 신문사, 문화재단, 서예관 등이 주최하는 서예 경연대회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등,⁶⁾ 이들 유학생들 역시 한글 서예의 문화적 전파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사회학적 현상을 바탕으로, 그동안 학계에서는 ‘유학생 서예교육’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유학생 서예교육은 한자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어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교과 과정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⁷⁾ 이와 함께, 유학생 집단의 특성에 따라 한자권 국가 출신과 비한자권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서예교육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⁸⁾ 각 지역별, 국가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는 특정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1) 李强, 『韩国书法丛考』, 河南美术出版社, 2004.

2) 여활양·장빙설·장의명, 「한국 H서예 동아리에서의 문화 간 교류와 문화 적응: 중국 유학생의 관찰과 체험」, 『조형교육』, 제92호, 2024, pp.256.

3) 金萌, 「中国书法文化的国际传播模式研究」, 中国美术学院, 博士学位论文, 2022, pp.73-75.

4) “붓글씨부터 판소리까지.. 유학생이 체험하는 전통문화”, 『목포MBC뉴스』, 2024.01.15., <https://www.mpmbc.co.kr/NewsArticle/1433751> [2025.04.04.]

5) “서영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캘리그라피 체험활동 실시”, 『무등일보』, 2024.10.10., <https://www.mdilbo.com/detail/G3XMjU/731495> [2025.04.04.]; “글자도 예쁘고, 속담도 재밌고”.. 외국인들 ‘한글 놀이’ 삼매경”, 『MBC뉴스』, 2023.10.09.,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1722_36199.html [2025.04.04.]

6) “인제서 열린 여초서예대전... 300여 명 참가 ‘필력 경쟁’”, 『동아일보』, 2024.09.2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922/130073846/1> [2025.04.04.]

7) 张鑫, 「高级班韩国留学生行书教学设计」, 哈尔滨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杨文琪·池程远, 「国际中文教育背景下的对外书法教学发展路径研究」, 『福建技术师范学院学报』, 第42卷 第1期, 2024, pp.128-136; 蒋鸿基, 「留学生书法课中的汉字教学」, 『语文教学与研究』, 第105期, 2016, pp.39-40; 董芳芳, 「利用书法提升留学生书写汉字的兴趣」, 『文理导航』, 第8期, 2015, p.15.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예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문화로서의 중국 서예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하고 전파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서예교육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자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중국어(한자) 공부’, ‘중국 문화 공부’ 등¹⁰⁾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참고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데이터베이스인 RISS에 “유학생 서예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할 시, 발견되는 연구는 중국 유학생이 한국 대학의 H서예 동아리에서 경험한 문화 간 교류를 다룬 문화기술지 연구 ‘단 한편’ 밖에 검색되지 않는다.¹¹⁾ 따라서,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지자체, 대학교, 또는 다양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유학생 서예 체험’ 프로그램 소개만으로는 한국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서예를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서예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과 그에 따른 교육적 맥락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과연 한국 서예의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자 유학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들의 한국 유학 실천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서예교육의 특징을 조망하고, 동시에 학습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서예 교육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진은 한국 모 지방에 위치한 S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예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중국 서예가 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연구의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중국 서예가들은 왜 한국으로 유학하여 서예교육을 전공하는가”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질문에 대해 자세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중국 서예가 유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중국 서예가들이, 서예의 발원지인 중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대신 한국의 대학원으로 유학하여 서예교육을 공부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한국 서예교육의 독특한 특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 중국 서예가들이 서예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한 교육사회학적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유학생들의 시선에서, 한국의 서예교육의 독자적인 특성과 문화적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8) 潘玉家, 「非汉字文化圈留学生汉字教学方法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杨洋, 「汉字圈与非汉字圈留学生书法教学的对比研究」, 安徽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胡予宸, 「汉字文化圈和非汉字文化圈留学生之中国书法学习动机比较」, 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11.

9) 朱倩倩, 「泰国在华留学生书法学习探索」, 『散文百家』, 第10期, 2017, pp.1-4; 王健文, 「对留学生的书法教学研究-以广西民族大学国际教育学院留学生为例」, 广西民族大学, 硕士学位论文, 2015; 张晓, 「对外汉语书法教学研究-以广西大学留学生为例」, 广西大学, 硕士学位论文, 2017; 谢慧, 「来华留学生书法学习兴趣的现状调查及对策-以暨南大学华文学院为例」, 暨南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10) 董芳芳, 「利用书法提升留学生书写汉字的兴趣」, 『文理导航』, 第8期, 2015, p.15; 喻国伟, 「基于传播中国传统文化的留学生书法课程教学探索」, 『教育观察』, 第7卷 第21期, 2018, pp.133-135.

11) 2025년 4월 5일 검색.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 이론

중국 서예가들이 한국 대학원으로 유학하여 서예교육을 전공하는 유학실천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 이론을 통해 효과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부르디외의 ‘장’ 이론은 특정 집단이 특정 실천을 수행하는 행위 양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효과적인 이론틀을 제공해 준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사회는 다수의 ‘장’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특정 사회적 ‘장’ 또한 여러 하위 ‘장’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각 ‘장’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나,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행위자들은 이러한 복수의 ‘장’에 동시적으로 소속되어 있어,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행위의 동태성(動態性)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대학원 유학 실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유학 ‘장’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유학 ‘장’은, 그 주변 ‘장’들 및 하위 ‘장’들과의 복합적인 역학 속에서 형성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 유학 ‘장’을 둘러싼 각 ‘장’의 상호작용을 규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유학 실천이 어떠한 ‘장’들 간의 역학의 산물인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유학 실천에 대한 ‘장’ 이론적 접근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유학 실천은, 이들이 한국 대학원에서의 학위과정을 통해 서예교육과 관련된 ‘문화자본’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분석은, 특정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조건과 상황을 정밀하게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부르디외 이론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문화자본과 학업성취 간의 독립적 상관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²⁾ 특히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드물며,¹³⁾ 유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통한 문화자본 획득과 유학 ‘장’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근거로 하여,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유학 실천을 둘러싼 ‘장’의 역학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대학원 유학 실천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는 것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측면에서 한국 서예교육의 특성을 탐구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양적연구 방법론은 적

12) 김영화,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교육과학사, 2021, p.122.

13) 김영화, 위의 책, p.122.

절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설계의 한 가지 유형, 하나의 방법론”¹⁴⁾으로서 사례연구 방법(Case study)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본질적 사례연구, 도구적 사례연구, 집합적 사례연구의 복합적 성격을 아우른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의 모든 하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내적 타당도 및 외적 타당도), 신뢰성, 주관성”¹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의 정확성 역시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대학원 유학 실천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Yin(2014)이 제시한 사례연구 자료수집 절차의 여섯 가지¹⁶⁾ 정보 유형 중 “면접”(심층인터뷰) 방식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한국의 모 지방 S대학 대학원에서 서예교육을 전공하는 중국 서예가 유학생 8명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예교육 전공’은 서예 교수법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학의 세부전공 분야를 가리킨다. 8명의 중국 서예가들은 중국의 각 공식 서예협회에 소속을 둔 ‘서예가’들이다. 또한 이들 전원은 중국 대학교에서 서예 강사로 재직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현직 전임강사로서, 자신의 소속 대학의 ‘교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 유학 왔다.

심층인터뷰는 2024년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제1저자의 연구실, S대학 인근 식당 및 카페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시작에 앞서 연구진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내하였다. 중도 포기 또는 인터뷰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러한 선택들이 연구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이들의 유학 실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그들의 유학 경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연구대상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유학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100% 중국어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진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였다. 일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인터뷰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보충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기록되고 전사(傳寫)되어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며, 성별에 대한 구분은 두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자료는 분석 단계에서 익명 처리되었으며, 후속 대화에서도 연구진은 기록 전에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14) John W. Creswell·Cheryl N. Poth(저), 조홍식 외(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21, p.139.

15) LeCompte, M. D., & Goetz, J. P. “Proble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in ethnographic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1, 1982, pp.31-60. doi:10.3102/00346543052001031.

16) 자료수집 절차에서 Yin(2014)이 제시한 여섯 가지 정보원은 ‘문서’, ‘기록물’, ‘면접’, ‘직접 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 등이다.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14; John W. Creswell·Cheryl N. Poth(저), 조홍식 외(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21, p.144 재인용.

<표1> 심층인터뷰 연구참여자 속성¹⁷⁾

성명 (이니셜)	성별	연령	입학 연도	유학 전 근무 경력	서예가로서 활동상황
(A)	남	30대	2021	출판사 서예편집 중학교 서예교사 서예학원 운영 대학 강사	중국서예가협회(中国书法家协会) 회원 한국서예가협회 회원
(B)	남	30대	2021	서예학원 운영 대학 강사	산서성서예가협회(山西省书法家协会) 회원
(C)	여	40대	2021	대학 강사 (교원 해외연수)	귀주성서예가협회(贵州省书法家协会) 회원 절강성청년서예가협회(浙江省青年书法家协会) 회원
(D)	여	30대	2021	대학 강사	중국서예가협회(中国书法家协会) 회원 흑룡강성서예가협회 회원
(E)	남	30대	2021	대학 강사	광서성서예가협회(广西省书法家协会) 회원 베이징서예가협회(北京书法家协会) 회원
(F)	남	40대	2022	대학 강사 (교원 해외연수)	산둥성서예가협회(山东省书法家协会) 회원
(G)	여	30대	2021	대학 강사	요녕성서예가협회(辽宁省书法家协会会员) 회원
(H)	남	50대	2021	대학 강사 (교원 해외연수)	중국서예가협회(中国书法家协会) 회원

4. 분석결과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진은 우선 8명의 중국 서예가 유학생들과의 심층면담 자료를 개방코딩(Open Coding)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후 축코딩(Axial Coding) 기법을 적용하여 ‘학교 장’, ‘교육 장’, ‘사회 장’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인 개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기법을 병행하여 상기 세 개념에 포함되는 대주제를 총 6개로 체계화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7) 심층인터뷰 참여자 명단의 이니셜 배열은 면담 실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8명의 심층인터뷰 참여자 전원은 한국으로 유학 오기 전 중국에서 ‘대학교 강사’로서의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 강사라는 직업을 명시함에 있어서 전임강사와 시간제강사 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학 강사’로 표기하였다.

<표 2> 중국 서예가들의 한국 대학원 유학 실천 '장' 개념의 범주화

개념	대주제	소주제
학교 '장'	중국 학교 '장'	-한중합작 학교 간의 자매교류 -지도교수의 추천 -학교 측의 교원 해외연수 지원
	한국 학교 '장'	-서예교육 세부전공 방향이 있었기 때문 -시간 단축
교육 '장'	중국 교육 '장'	-대학원 진학 및 졸업 어려움
	한국 교육 '장'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학원 진학과 졸업 -書藝學과 관련된 융합학문에 대한 포용도 높음
사회 '장'	국내사회 '장'	-취업, 연봉,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박사학위가 작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 '장'	-작품 창작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해외유학경험 -사회적 자본 획득

【중국문화·영화분과】 발표

중국의 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의 역할과 소비자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민욱* · 매건화** · 당덕흠***

【목 차】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 1) 라이브커머스의 오락성과 정보성, 상호작용성
 - 2) 정보전달자로서의 왕홍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논의

【 초 록 】

중국의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확장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예를 들어 타오바오(淘宝), 징둥(京东), 콰이쇼우(快手), 위챗(微信), 샤오홍슈(小红书), 틱톡(抖音) 등이 새로운 모델로써 라이브커머스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라이브커머스 기반 온라인 소비활동 또한 증가세에 있다.

라이브커머스 확장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커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중국의 라이브커머스 관련 연구들이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하다. 그 중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라이브커머스와 중국 소비자의 구매의도 및 구매만족도, 지속사용의도와 상관을 검증하는 연구들이다.

이와 더불어 왕홍의 온라인 영향력을 공익적 활동과 연계하여 소위 말하는 중국 내 인플루언서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 내 부각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접하는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정보전달자로서 왕홍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키워드】 라이브커머스, 전자상거래, 왕홍, 정보전달자, 지속사용의도

* 제1저자, 주민욱. 한라대학교 운곡프론티어교양대학 조교수 (minuk.ju@halla.ac.kr)

** 공동저자. 서경대학교 박사과정 (meijianhua8@gmail.com)

*** 공동저자.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tdx99992007@gmail.com)

1. 연구 목적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제55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서(中国互联网发展统计报告)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11억 8백만 명에 이르며, 전국 인터넷 보급률 또한 78.6%로 거의 80%에 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휴대폰 인터넷 접속자는 11억 5백만 명으로 네티즌 중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비율은 100%에 가까운 99.7%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는 그 사용비율은 전체 87.9%에 달하며, 온라인 결제 사용자는 92.8%이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사용자는 2023년도 대비 약 1천7백4십만 명이 증가한 전체 네티즌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스레 라이브방송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군이 각광 받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실시한 쏘츠 라이브 플랫폼 관련 연구에서는 해당 라이브 플랫폼 중 하나인 콰이쇼우(快手)를 매개로 약 4천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174개의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몇 년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중국 내외 자체 기술을 통해 개발된 커뮤니케이션형 온라인 SNS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라이브커머스 중심 모바일 쇼핑 시장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확장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예를 들어 타오바오(淘宝), 징둥(京东), 콰이쇼우(快手), 위챗(微信), 샤오홍슈(小红书), 틱톡(抖音) 등이 새로운 모델로써 라이브커머스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라이브커머스 기반 온라인 소비활동 또한 증가세에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을 매개로한 온라인 쇼핑으로 정의되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집중시켜 구입을 유도하는 이커머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진행자와 소통하고 다른 시청자들과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최신 트렌드를 익히고 그 과정 중 재미를 경험한다. 실제 라이브커머서 재미, 즉 오락적 요소는 시청자의 지속사용의도 및 구매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활동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공익연계 라이브커머스 활동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국내 공익연계 라이브커머스는 공익 마케팅의 혁신적인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적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확장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커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중국의 라이브커머스 관련 연구들이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하다. 그 중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라이브커머스와 중국 소비자의 구매의도 및 구매만족도, 지속사용의도와와의 상관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다.

이와 더불어 왕홍의 온라인 영향력을 공익적 활동과 연계하여 소위 말하는 중국 내 인플루언서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 내 부각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접하는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정보전달자로서 왕홍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라이브커머스의 오락성과 정보성, 상호작용성

라이브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서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 일반 전자상거래와 비교하여 상품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서비스가 일괄 처리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실시간 소통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재미를 함께 느끼게 해준다.

라이브커머스에서 즐거움, 재미로 대변되는 오락성과 영상물과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보성은 시청자의 구매의도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정수연·정재희(2021)는 라이브커머스의 오락적 요소와 시청자의 태도 및 이들의 지속이용의도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라이브커머스의 오락적 구성 요소는 시청자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청자 태도 중 감성과 행동적 요인이 이들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중국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의 오락성과 정보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또한 이들 요인들은 모두 중국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보성과 지속사용의도 관계 간 오락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여성 집단에서 오락성은 이 두 요인 사이에서 긍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남아영(2024) 연구에서 또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락성과 시청자의 지속사용의도 간 상호관계를 확인하였다. 라이브커머스는 단순히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 중국 소비자의 라이브커머스 이용에서 무엇보다 쾌락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구매만족도가 높았는데, 즐거움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이용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그만큼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자극하여 실제 구매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라이브커머스에서는 판매자와 시청자 간 상호작용이 용이하다. 그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중국 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매개한 화장품 구매 행태를 확인한 결과에서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정보전달자로서의 왕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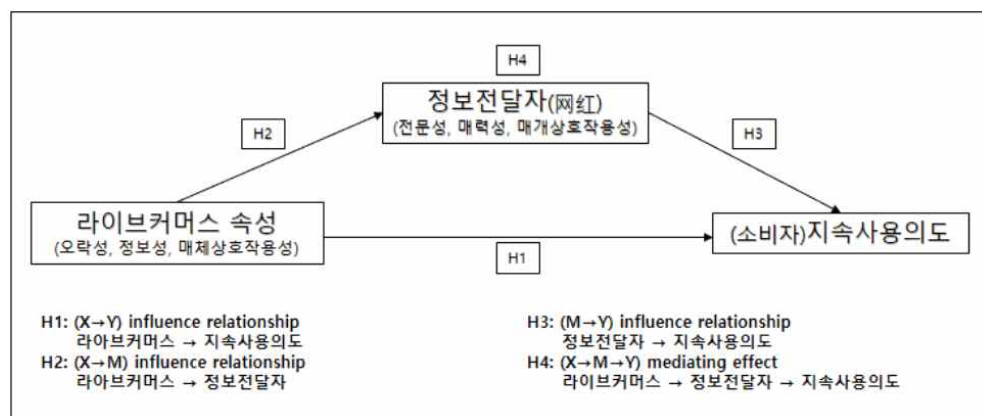
일반 온라인 쇼핑과 비교하여 라이브커머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더불어 상품 판매 매개자, 즉 쇼핑호스트 혹은 앵커의 존재 여부이다. 해당 라이브 방송 시스템이 구축된 플랫폼 안에 자체 제작 샵을 꾸미거나 가상의 샵이 구성되면, 이들은 온라인 상품판매를 진행하는 동안 상품 설명, 시청자와 상호소통 등을 주도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앵커는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전문 상품판매자 또는 사회에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인기인이 될 수도 있다. 유명주 외 2(2021)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 앵커는 물론 중국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있는 왕홍 집단 모두 시청자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앵커가 소비자와 얼마나 견고하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시청자는 해당 라이브커

머스 방송을 보다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대한 사용 용이성과 사용유용성은 중국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쇼핑하고자 하는 그 지속적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 중국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 왕홍의 역할이 상품구매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들의 다양한 내재적 특성, 즉 전문성, 매력성, 오락성,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지각 및 제품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주어 구매의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3. 연구 방법

<그림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정보전달자, 즉 왕홍의 영향력을 검증함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방송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속성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오락성, 정보성, 그리고 매체 상호작용성으로 세분화하였고, 마찬가지로 정보전달자의 속성 또한 전문성, 매력성, 그리고 매개 상호작용성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이어서 이들이 실제 소비자의 지속적 접근 및 사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인으로 지속사용의도를 배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계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라이브커머스 속성(오락성, 정보성, 매체 상호작용성)은 소비자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라이브커머스 속성(오락성, 정보성, 매체 상호작용성)은 정보전달자 속성(전문성, 매력성, 매개 상호작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정보전달자 속성(전문성, 매력성, 매개 상호작용성)은 소비자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정보전달자 속성(전문성, 매력성, 매개 상호작용성)은 라이브커머스 속성(오락성, 정보성, 매체 상호작용성)과 소비자 지속사용의도 사이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연구 검증하기 위해 중국인 대상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선형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표1> 측정변수 및 신뢰도 분석

구 분		문항	출처	크론바흐 알파(α)
라이브 커머스	오락성	1.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은 재미있다 2.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3.라이브커머스 방송 콘텐츠는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4.라이브커머스를 방송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미있다	주규희 외2, 2022 김선아·이은희, 2023	.864
	정보성	1.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세한 제품 정보를 얻는다 2.라이브커머스에서 다양한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3.라이브커머스로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4.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주규희 외2, 2022 황예영·김형준, 2022	.896
	(매체) 상호작용성	1.실시간으로 리뷰, 댓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2.상품 문의, 교환, 반품 등을 질문하고 신속하게 답을 얻을 수 있다 3.참여하는 소비자들 간 제품에 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4.진행자와 채팅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김선아·이은희, 2023 윤재만 외4, 2024	.889
정보 전달자	전문성	1.라이브커머스에서 왕홍은 풍부한 실천 경험이 있다 2.라이브커머스에서 왕홍은 소개하는 제품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3.라이브커머스에서 왕홍은 소비자의 제품 관련 질문에 전문적인 설명과 대답을 한다	전원·황용철, 2023	.864
	매력성	1.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의 이미지, 설명하는 방식이 맘에 든다 2.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은 라이브 방송을 재미있게 진행한다 3.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은 유머감각이 뛰어나다 4.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은 스타일리시하다 5.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은 호감이 간다	왕봉정 외2, 2021 남아영, 2024	.869
	(매개) 상호작용성	1.라이브커머스에서 채팅창, 댓글, 공감하기 등을 통해 왕홍과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 2.라이브커머스에서의 왕홍은 나의 피드백에 주의 깊게 반응하는 편이다 3.라이브커머스에서 왕홍과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왕후정 외2, 2022 주원철·이강희, 2023	.846
지속 사용의도		1.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쇼핑할 의사가 있다 2.기회가 된다면 라이브커머스를 더 자주 시청할 것이다 3.가까운 미래에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이다 4.향후 제품 재구매시, 라이브커머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수연·정재희, 2021 왕후정 외2, 2022 남아영, 2024	.877

연구도구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라이브커머스의 오락성(KMO=.830, TVE=70.99), 정보성(KMO=.848, TVE=76.30), 매체 상호작용성(KMO=.840, TVE=75.09)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고유값 기준(Eigenvalue>1)에 따라 각각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정보전달자의 전문성(KMO=.738, TVE=78.67), 매력성(KMO=.873, TVE=65.63), 매개 상호작용성(KMO=.731, TVE=76.50) 또한 분석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지속사용의도(KMO=.835, TVE=73.07) 또한 분석에 적합한 수준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역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 < .001$).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각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 7개 변인들이 크론바흐 알파(α) 계수가 모두 0.8보다 높게 나와(<표1> 참조) 신뢰도에 문제가 없으므로 라이브커머스(오락성, 정보성, 매체 상호작용성), 정보전달자(전문성, 매력성, 매개 상호작용성), 그리고 소비자 지속사용의도 변수를 새로 생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연구 결과

<표2>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 분		N	%
성별	남성	184	52.1
	여성	169	47.9
연령	20대	36	10.2
	30대	119	33.7
	40대	89	25.2
	50대	68	19.3
	60세 이상	41	11.6
학력	고등졸 이하	81	22.9
	전문대 졸	86	24.4
	대학 졸	163	46.2
	석사 이상	23	6.5
수입 (인민폐)	2천 미만	56	15.9
	4천 미만	79	22.4
	6천 미만	91	25.8
	8천 미만	56	15.9
	1만 미만	44	12.5
	1만 이상	27	7.6
총 합		354	100.0

본 연구를 위해 중국 전국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수집 기간은 2025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였으며, 남성 184명(52.1%), 여성 169명(47.9%)으로 답변 불량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전체 354명의 표본을 확정하여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33.7%)가 가장 많았고, 40대(25.2%), 50대(19.3%), 60세 이상(11.6%), 그리고 20대(10.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46.2%)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24.4%), 고등졸 이하(22.9%), 석사 이상(6.5%)이었다. 수입(인민폐)은 6천 미만(25.8%)이 가장 많았으며, 4천 미만(22.4%), 2천 미만(15.9%)과 8천 미만(15.9%), 1만 미만(12.5%), 1만 이상(7.6%) 순으로써, 대부분 6천 미만(한화 약 120만 원)의 수입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3>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std. B eta	t	p	검증
가설1	지속사용의도	오락성	.544	.052	.488	10.477	.000***	채택
		정보성	.362	.054	.335	6.666	.000***	채택
		(매체)상호작용성	.395	.054	.365	7.351	.000***	채택
가설2	전문성	오락성	.449	.048	.445	9.302	.000***	채택
	매력성		.430	.043	.471	10.010	.000***	채택
	(매개)상호작용성		.501	.053	.451	9.469	.000***	채택

가설2	전문성	정보성	.340	.049	.347	6.923	.000***	채택
	매력성		.260	.045	.293	5.746	.000***	채택
	(매개)상호작용성		.358	.054	.333	6.615	.000***	채택
	전문성	(매체)상호작용성	.193	.051	.197	3.767	.000***	채택
	매력성		.193	.046	.218	4.183	.000***	채택
	(매개)상호작용성		.262	.056	.243	4.696	.000***	채택
가설3	지속사용의도	전문성	.255	.057	.231	4.455	.000***	채택
		매력성	.352	.062	.289	5.650	.000***	채택
		(매개)상호작용성	.309	.051	.308	6.064	.000***	채택

※ 유의수준: *p < 0.05, **p < 0.01,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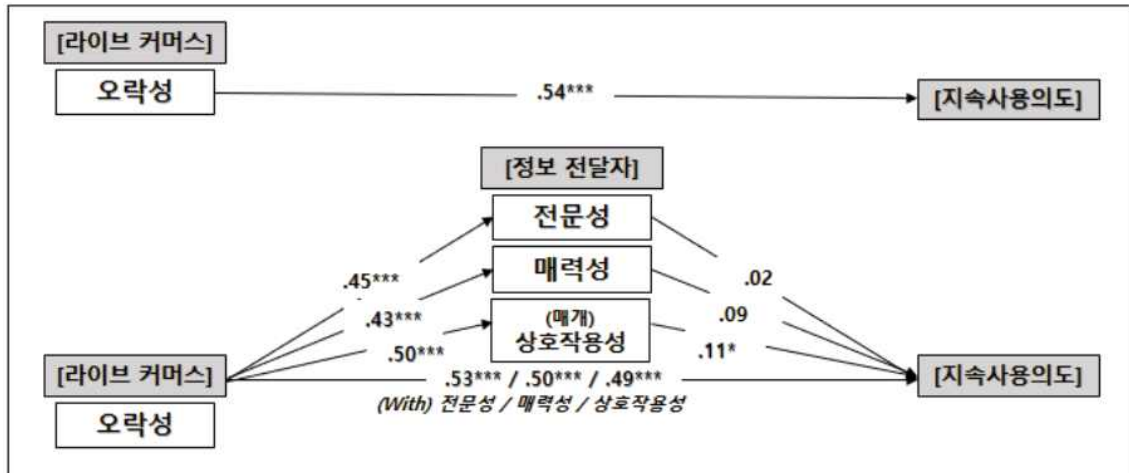
우선 가설 1부터 3까지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변인 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 1, 라이브커머스의 속성 모두 소비자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오락성: $t=10.477$, $p<.001$; 정보성: $t=6.666$, $p<.001$; 매체 상호작용성: $t=7.351$, $p<.001$). 특히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의 오락적 요인은 소비자의 재구매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 2, 라이브커머스의 속성은 정보전달자 속성 모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락성-매력성($t=10.010$, $p<.001$), 정보성-전문성($t=6.923$, $p<.001$), 그리고 매체 상호작용성-매개 상호작용성($t=4.696$, $p<.001$)은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어서 가설 3, 정보전달자의 3가지 속성 모두 소비자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성: $t=4.455$, $p<.001$; 매력성: $t=5.650$, $p<.001$; 매개 상호작용성: $t=6.064$, $p<.001$). 특히 매개 상호작용성의 경우 타 속성에 비해 소비자의 재구매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4> 매개효과 분석 결과

INDIRECT EFFECT				Effect	BootSE	95% CI		검증
						BootLLCI	BootULCI	
오락성	→	전문성	→	.0088	.0297	-.0484	.0704	기각
		매력성		.0396	.0349	-.0255	.1112	기각
		(매개)상호작용성		.0554	.0308	-.0028	.1182	기각
정보성	→	전문성	→	.0490	.0258	.0031	.1050	채택
		매력성		.0660	.0263	.0191	.1224	채택
		(매개)상호작용성		.0794	.0288	.0307	.1430	채택
(매체)상호작용성	→	전문성	→	.0353	.0176	.0064	.0750	채택
		매력성		.0517	.0228	.0132	.1008	채택
		(매개)상호작용성		.0612	.0238	.0213	.1152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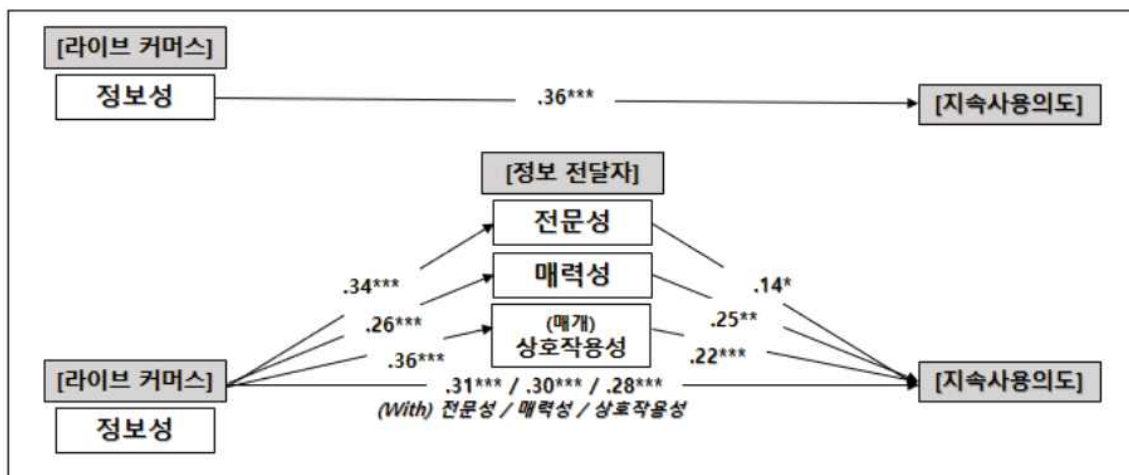
가설 4, 정보전달자의 매개성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ver.4.3) for SPSS의 model 4를 활용, 부트스트래핑의 샘플 수(number of bootstrap samples)는 10,000회로 지정 후 이를 검증하였다.

<그림2> 라이브커머스(오락성)에서의 정보전달자 매개성 검증



라이브커머스 속성과 지속사용의도 사이에서 정보전달자 속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우선 오락성은 정보전달자 세 속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속사용의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전달자 속성과 지속사용의도 관계에서는 전문성($\beta=.0196$, $p>.05$)과 매력성($\beta=.0920$, $p>.05$)의 경우 유의수준을 벗어났고, 나머지 매개 상호작용성($\beta=.1106$, $p<.05$)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보전달자 세 개 속성, 전문성($\beta=.0088$, $\text{BootSE}=.0297$), 매력성($\beta=.0396$, $\text{BootSE}=.0349$), 그리고 매개 상호작용성($\beta=.0554$, $\text{BootSE}=.0308$)의 매개효과 계수는 모두 95% 신뢰구간 하-상한값에 0이 존재하여 정보전달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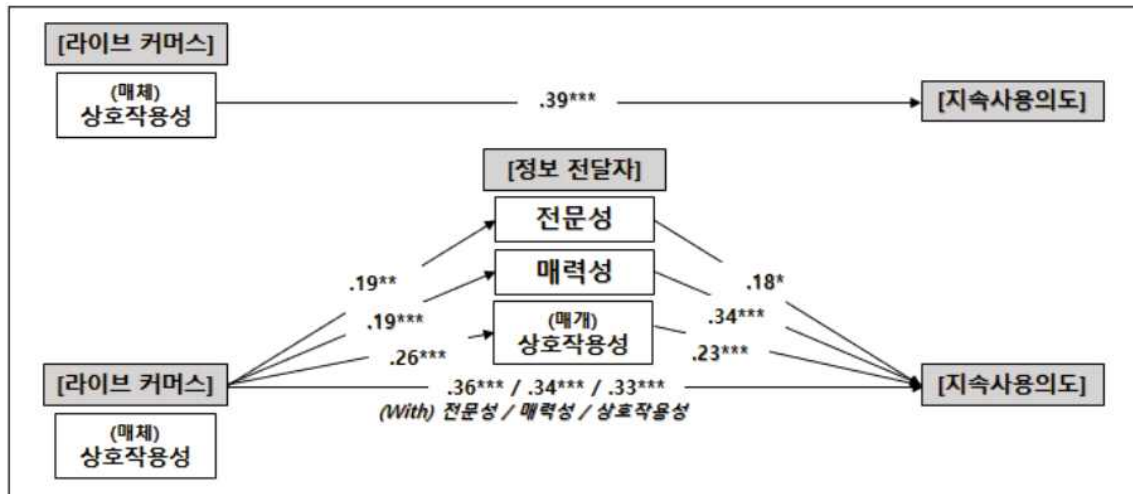
<그림3> 라이브커머스(정보성)에서의 정보전달자 매개성 검증



다음으로 라이브커머스의 정보성은 정보전달자 세 속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사용의도에 정보성은 물론 정보전달자 세 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어, 정보전달자 세 속성 모두 라이브커머스의 정보성과 소비자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성과 지속사용의도의 총효과(total effect) 수치($\beta=.3621$, $p<.001$)는 매개변인인 정보전달자 세 속성이 투입되면서 정보성에서 지속사용의도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의 수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전문

성: $\beta=.3131$, $p<.001$; 매력성: $\beta=.2961$, $p<.001$; 매개 상호작용성: $\beta=.2827$, $p<.001$). 이러한 결과는 정보전달자 세 속성이 두 변인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전달자 세 개 속성, 전문성($\beta=.0490$, $\text{BootSE}=.0258$), 매력성($\beta=.0660$, $\text{BootSE}=.0263$), 그리고 매개 상호작용성($\beta=.0794$, $\text{BootSE}=.0288$)의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표4> 참조).

<그림 4> 라이브커머스(상호작용성)에서의 정보전달자 매개성 검증



이어서 라이브커머스의 매체 상호작용성 또한 정보전달자 세 속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사용의도에 매체 상호작용성은 물론 정보전달자 세 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어, 정보전달자 세 속성 모두 라이브커머스의 매체 상호작용성과 소비자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체 상호작용성과 지속사용의도의 총효과(total effect) 수치($\beta=.3949$, $p<.001$)는 매개변인인 정보전달자 세 속성이 투입되면서 매체 상호작용성에서 지속사용의도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의 수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전문성: $\beta=.3595$, $p<.001$; 매력성: $\beta=.3432$, $p<.001$; 매개 상호작용성: $\beta=.3337$, $p<.001$). 이러한 결과는 정보전달자 세 속성이 두 변인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전달자 세 개 속성, 전문성($\beta=.0353$, $\text{BootSE}=.0176$), 매력성($\beta=.0517$, $\text{BootSE}=.0228$), 그리고 매개 상호작용성($\beta=.0612$, $\text{BootSE}=.0238$)의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표4> 참조).

5. 논의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의 세 가지 핵심 속성-오락성, 정보성, 매체 상호작용성-이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관계 중 정보전달자, 즉 왕홍의 전문성, 매력성, 그리고 매개 상호작용성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오락성, 정보성, 그리고 소비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성은 모두 소비자가 해당 방송을 계속적으로 시청하고, 구매 혹은 재구매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며, 특히 단일 변수로서 오락성의 영향력이 두

드러졌는데, 중국 소비자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단순 제품 구매 이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라이브커머스의 속성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인물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오락성이 높을수록 스트리머, 왕홍의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정보성이 높을수록 전문성, 매체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매개 상호작용성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라이브커머스 속성이 진행자의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속성의 영향력만을 검증했던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라이브커머스와 왕홍 상호 간 매칭되는 핵심 속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보전달자, 왕홍의 전문성, 매력성, 그리고 매개 상호작용성 모두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행자가 시청자와 얼마나 잘 상호작용하느냐(매개 상호작용성)가 소비자의 재방문과 재구매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라이브커머스 속성 중 오락성은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에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보전달자, 왕홍의 핵심 속성이 개입(매개)되면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에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이브커머스가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고 판매 상품과 거리감이 있는 전문성과 매력성 위주의 스트리머, 왕홍을 활용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라이브커머스의 정보성과 매체 상호작용성은 정보전달자(왕홍) 속성을 거쳐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전달자의 특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라이브커머스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합치성과 질적 수준, 그리고 시청자 대상과의 소통의 정도와 깊이는 소비자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며, 이는 단순히 콘텐츠의 재미를 넘어, 정보전달 매개자의 전문성, 소통 능력에 의해 보다 강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Multilevel variables and Health Behaviors in Chin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hen Nan*

【Abstract】

1. Introduction
2. Socio-ecological model for Health behaviors
3. Statistical techniques
4. Results
 -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2) Statistical analyses

【 Abstract 】

The COVID-19 pandemic introduced various stressors associated with health behaviors changes in China. While previous research has documented these associations, most studies have relied on national samples, limiting our understanding of pandemic-related behavioral consequences at the intra-national territorial uni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ltilevel relationships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COVID-19 stressors, and health behaviors through a socio-ecological lens. Using data from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I analyzed responses from 8,064 participants across 19 provinces in 2021. Multilevel modeling revealed that age and gender were associated with smoking and healthy diet, with relationships varying across provinces. Economic burd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oking across different provinces. The analysis also uncover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male participants showed stronger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economic burden and smoking frequency, while middle-aged and older adults exhibited lower likelihood of reducing binge drinking during periods of social disconnec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argeted interventions that address multiple factors influencing vulnerable populations during the global health crises.

【Key words】 Health behaviors, Environmental stressors, Sociodemographic factors, Multilevel regression, China

* 제1저자. 고신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chennan@kosin.ac.kr)

1. Introduction

Health behaviors have been broadly defined in health psychology as activities undertaken to prevent disease and improve health and well-being¹⁾. Given the pivotal role of health behaviors in shaping overall health, it is crucial to track their changes over time and investigate their determinants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s. The COVID-19 pandemic, which began in 2019, has led to a global public health emergency with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daily life. Many countries implemented stringent measures to control the virus's spread, resulting in significant lifestyle changes²⁾. Home isolation and economic strain has been linked to psychological issues, which in turn have stimulated the changes in health behaviors³⁾. Research has documented various changes in health behaviors during the pandemic, including health-promoting behaviors: physical activity and healthy diets as well as health-damaging behaviors: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⁴⁾. However,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according to the containment stage, environmental context of research areas, and socio-demographic differences of each research groups.

Health behaviors are multidimensional phenomena that evolve over the life course, reflecting interactions between social structur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⁵⁾. These behaviors result from a combination of cumulative personal experiences and external circumstances unfolding across diverse social contexts⁶⁾. According to the socio-ecological framework, health behaviors are shaped by social determinants at multiple levels, including community, physical, and political environments⁷⁾. This approach extends beyond individual factors to consider broader contextual influences on overall well-being. At the macro-level, society changes can significantly impact health behaviors. For example, economic recessions and labor market shifts have been linked to health behavior implications. Research shows that unemployment nearly doubles the odds of smoking and increases cigarette consumption among male smokers⁸⁾. The meso-level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health behaviors focusing on proximate settings such as neighborhoods, workplaces, families, as well as interpersonal interactions within these contexts⁹⁾. For instance, studies among low-in-

-
- 1) Conner, M., Norman, P. (Eds.), *Predicting Health Behaviour*, second ed.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2005.
 - 2) Musa, S., Dergaa, I., Bachiller, V., & Saad, H. B. Global Implications of COVID-19 Pandemic on Adults' Life style Behavior: The Invisible Pandemic of Noncommunicable Diseas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23;14:15.
 - 3) Bian, Y., Miao, X., Lu, X., Ma, X., & Guo, X. The emergence of a COVID-19 related social capital: The case of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50, 2020, pp.419-433.
 - 4) Ammar, A., Brach, M., Trabelsi, K., Chtourou, H., Boukhris, O., Masmoudi, L., Bouaziz, B., et al. Effects of COVID-19 home confinement on eating behaviour and physical activity: Results of the ECLB-COVID19 international online survey. *Nutrients*, 12(6), 2020; 1583.
 - 5) Conner, M., & Norman, P. Health behaviour: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Psychology & Health*, 32(8), 2017, pp.895-906.
 - 6) Stokols, D. Translating social ecological theory into guidelines for community health promo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0, 1996, pp.282-298.
 - 7) Short SE, Mollborn S. Social Determinants and Health Behaviors: Conceptual Frames and Empirical Advances. *Curr Opin Psychol.*, 5, 2015, pp.78-84.
 - 8) Arcaya M, Glymour MM, Christakis NA, Kawachi I, Subramanian S. Individual and spousal unemployment as predictors of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Soc Sci Med.*, 110, 2014, pp.89-95.

come African Americans have revealed that patterns within peer groups, friends, and family significantly influence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practices¹⁰).

China, as an emerging middle-income country, implemented one of the earliest, strictest, and most prolonged lockdown policies globally¹¹). Some scholars suggests that these stringent measures proved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pandemic within China¹²). However, the COVID-19 containment measures have also heightened vulnerabilities across various social sectors during this public health crisis. Studies indicate that regions with lower levels of marketization implemented more aggressive quarantine measures, requiring isolation of numerous close contacts for each confirmed case, while the stringent social distancing policies significantly reduced both human mobility and economic growth¹³). The duration of these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has show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creasing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urban areas¹⁴). Furthermore, prolonged lockdowns have contributed to a widespread decline in public trust in government, adversely affecting both economic productivity and citizens' daily lives¹⁵).

Social isolation and economic hardship during COVID-19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ental health challenges¹⁶). Research indicates that when faced with environmental stressors, individuals often resort to unhealthy coping mechanisms, which can influence their health-related behaviors¹⁷). In China, studies revealed that lockdown measures led to decreased engagement in both health-promoting activities (e.g., diet maintenance & physical exercise) and health-risk behaviors (e.g., smoking & binge drinking)¹⁸). Additionally, extensive research has examined how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stressors predict these health behaviors, respectively¹⁹). How-

-
- 9) McCormick BA, Porter KJ, You W, Yuhas M, Reid AL, Thatcher EJ, Zoellner JM. Applying the socio-ecological model to understand factors associated with sugar-sweetened beverage behaviours among rural Appalachian adolescents. *Public Health Nutr.*, 24(11), 2021, pp.3242-3252.
 - 10) Robinson T. Applying the socio-ecological model to improving fruit and vegetable intake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s. *J Community Health*, 33(6), 2008, pp.395-406.
 - 11) Hale, T., Petherick, A., Phillips, M., & Webster, S. Variation in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Working Paper Series, University of Oxford). 2020. Retrieved from https://www.bsg.ox.ac.uk/sites/default/files/2020-04/BSG-WP-2020-031-v4.0_0.pdf
 - 12) Fukuyama, F., & López-Calva, L. Pandemics and Political Performance (Jun 24, 2021)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pandemic-political-decay-latin-america-caribbean-by-francis-fukuyama-and-luis-felipe-lopez-calva-2021-06>
 - 13) Li X, Hui ECM, Shen J.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the government response to COVID-19 in China. *Habitat Int.*, 127, 2022, 102629.
 - 14) Shen, J., Shum, W. Y., Cheong, T. S., & Wang, L. COVID-19 and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China. *Frontiers in Public Health*, 9, 2021, 687152.
 - 15) Zhao Yucong , Wang Ting , Ye Bing , Pandemic lockdowns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024.
 - 16) Xiong R, Xia Y, Tian B. Social Disconnectedness and Mental Health Proble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ina: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t J Public Health*, 67, 2022, 1604742.
 - 17) Wethington, E., Glanz, K., & Schwartz, M. D. Stress, coping, and health behavior. In K. Glanz, B. K. Rimer, & K. Viswanath (Eds.), *Health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5th ed., pp.223-242). Jossey-Bass/Wiley, 2015.
 - 18) Qiu L, Li C, He W, Yin X, Zhan L, Zhang J, Wang Y. Changes in diet, exercise and psychology of the quarantined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Shanghai. *PLoS One*, 18(8), 2023, e0284799.
 - 19) Zajacova, A., Jehn, A., & Stackhouse, M., et al. Changes in health behaviours during early COVID-19 and socio-demographic disparities: a cross-sectional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 2020, pp.953-962.

ver, these studies have largely overlooked the critical perspective that health behaviors are fundamentally shaped by social determinants operating at multiple ecological levels. Thus, there remains insufficient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evel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during the period of significant public health disruption.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employs a socio-ecological framework to examine how individual demographic factors interact with COVID-19-induced environmental stressors to influence health behaviors in China.

The current study utilizes the cross-sectional data from the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to investigate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multilevel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during the middle phases of the pandemic (June 2021), coinciding with five major COVID-19 outbreaks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year²⁰⁾ (Zha et al. 2022). This survey also combines data with area-level data for each province, enabling a simultaneous assessment of individual- and area-level factors. Through this comprehensive analytical approach, I aim to provide evidence-based insights that will enable policymaker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to develop more targeted and multiple interventions for promoting health behaviors to vulnerable groups during both current and future public health emergencies.

2. Socio-ecological model for Health behaviors

The ecological paradigm has evolved across several disciplines, including sociology, psychology, economics, and public health, providing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people interact with their sociocultural environments²¹⁾. Social ecological models posit that the health status of individuals and groups is influenced by multiple factors, encompassing physical environment (e.g., geography, architecture, and technology), social environment (e.g., culture, economics, and politics), and personal attributes (e.g., genetic heritage, psychological dispositions, and behavioral patterns)²²⁾. Consequently, efforts to promote human well-being should adopt an integrated perspective, rather than relying on isolated analysis²³⁾. The framework typically delineates multiple levels of influence to facilitate health-related behavioral change²⁴⁾.

COVID-19 has inequitably impacted vulnerable groups, particularly those defined by gender and age. Prior research has shown that women tend to be more health-conscious and engaged in

20) Zha, Hao, Yuxi Zhang, Hui Zhou, Lijun Wang, Zihan Zhang, Zijia Tan, Longmei Deng, and Thomas Hale. Chinese Provincial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BSG-WP-2021/041). BSG Working Paper Series, 2022. Available online: <https://www.bsg.ox.ac.uk/sites/default/files/2022-01/BSG-WP-2021-041-v2.pdf>

21) Bronfenbrenner U.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 Psychol.*, 32(7), 1977, pp.513-531.

22) Sallis JF, Owen N, Fisher EB. Ecological models of health behavior. In: Glanz K, Rimer BK, Viswanath K (editor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4th ed., pp.465-485).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2008.

23) Stokols D.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healthy environments. Toward a social ecology of health promotion. *Am Psychol.*, 47(1), 1992 Jan, pp.6-22. doi: 10.1037//0003-066x.47.1.6. PMID: 1539925.

24) McLeroy KR, Bibeau D, Steckler A, Glanz A.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health promotion programs. *Health Educ Q.*, 15(4), 1988, pp.351-377.

preventive health-related behaviors²⁵). Howeve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udies found that women were more likely to report decreased well-being and reduced health-promoting behaviors. For example, a study found that increased smoking and high-fat diet were reported more often by participants who are women²⁶). The gender inequality regarding the impact of the pandemic could be due to two potential reasons. First, the pandemic had a larger impact on sectors where more women are employed, such as hospitality, retail or health care, entailing larger job and income losses²⁷). Second, the pandemic may have not only increased housework, but family responsibilities as well, which are mostly assumed by women²⁸). Nevertheless, these literatures were conducted within a limited cultural and developmental context; therefore, further research across diverse populations and settings may yield more comprehensive results.

Research has consistently shown that younger individuals are more susceptible to psychological problems. For instance, research has found that people aged 21 - 40 years were in a psychologically more vulnerable position during the COVID-19 epidemic²⁹). These psychological challenges may lead to adverse behavior changes. Research indicates that younger adults were more likely to increase consumption of alcohol and unhealthy foods during this period³⁰).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provided valuable insights into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it remains unclear how these associations vary across areas with different developmental levels and varying degrees of pandemic-related policy stringency.

Individuals may experience two kinds of environmental stressors, which are linked to their health behaviors during the pandemic crisis. The first one is perceived social disconnection. During the pandemic, social distancing practices can lead to social disconnection and boredom, potentially altering patterns of health behaviors. 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during pandemic-related self-isolation, alcohol consumptio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anxiety levels, and smoking behavior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alcohol consumption³¹). However, contrasting evidence suggests that alcohol-related problems decreased during pandemic-related self-isolation, with this decreased being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reduced social drinking motivations³²).

25) Hiller, J., Schatz, K., & Drexler, H. Gender influence on health and risk behavior in primary prevention: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Public Health*, 25, 2017, pp.339-349.

26) Bell, L. M., Smith, R., van de Venter, E. C., Shuttleworth, C., Wilson, K., & Lycett, D. COVID-19 stressors, wellbeing and health behaviour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Health*, 43(3), 2021, e453-e461.

27) Andrew, A., Cattan, S., Costa Dias, M., Farquharson, C., Kraftman, L., Krutikova, S., Phimister, A., & Seville, A. The gendered division of paid and domestic work under lockdown. *Fiscal Studies*, 43(4), 2022, pp.325-340.

28) Xia CL, Wei AP, Huang YT. The COVID-19 Lockdown and Mental Wellbeing of Females in China.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9(9), 2022, 4960.

29) Ahmed, M. Z., Ahmed, O., Aibao, Z., Hanbin, S., Siyu, L., & Ahmad, A. Epidemic of COVID-19 in China and associated psychological problems. *Asian Journal of Psychiatry*, 51, 2020, 102092.

30) Zajacova, A., Jehn, A., & Stackhouse, M., et al. Changes in health behaviours during early COVID-19 and socio-demographic disparities: a cross-sectional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 2020. pp.953-962.

31) Moura, H. F., von Diemen, L., Bulzing, R. A., Meyer, J., Grabovac, I., López-Sánchez, G. F., Sadarangani, K. P., Tully, M. A., Smith, L., & Schuch, F. B. Alcohol use in self-iso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ross-sectional survey in Brazil. *Trends in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45, 2023, e20210337.

32) Clay, J. M., Fontana, B. D., Proserpio, C., Fernandez, E. J., Pagliarini, E., Lopes, F., ... Parker, M. O. Drinki

The second one is COVID-19 induced economic burden. Economic downturns during the pandemic crisis have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impact the health behaviors. However, finding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essors and health behaviors during the pandemic have shown notable inconsistencies. Some research showed that adults who reported financial impacts from the COVID-19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reduced diet and increased smoking³³⁾, while others have documented that financial str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creased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during early lockdown periods³⁴⁾. These conflicting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research to elucidate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health behaviors within the unique context of the pandemic.

The COVID-19 pandemic triggered varied governmental responses across Chinese provinces. In the second half of 2021, China experienced three major multi-province outbreaks driven by the Delta variant. While these outbreaks affected more than ten provinces, they were successfully contained through “dynamic clearing” measures³⁵⁾. The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during the first and second epidemic waves, when outbreaks were primarily confined to five provinces. In 2021, provinces consistently maintained stringent restrictions, with the provincial stringency index remaining above 60³⁶⁾. These restrictions encompassed school closures, travel limitations, prohibitions on public gatherings, and other interventions designed to promote social distancing and enhance public health measures³⁷⁾. Research have shown that provinces with stronger state presence implemented more restrictive social distancing policies to limit population movement³⁸⁾. These varying levels of provincial restrictions may have differentially impacted residents’ social well-being. Accordingly,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Hypothesis 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varies across different areas in China.

Hypothesis 2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health behaviors varies across different areas in China.

ng during social isolation: investigating associations between stress, inhibitory control, boredom, drinking motives, and alcohol use. *Addiction Research & Theory*, 31(1), 2022, pp.16-28.

33) Keng, S. L., Stanton, M. V., Haskins, L. B., Almenara, C. A., Ickovics, J., Jones, A., Grigsby-Toussaint, D., Leander, N. P. COVID-19 stressors and health behaviors: A multilevel longitudinal study across 86 countries. *Preventive Medicine Reports*, 27, 2022, 101764.

34) Summan, A., & Laxminarayan, R. Changes in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India: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 *BMJ Global Health*, 9(11), 2024, e013295.

35) Wang X, Ma Z, Wang C. A Longitudinal Study on the Addictive Behaviors of General Population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ina.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9(10), 2022, 5979.

36) Zha, Hao, Yuxi Zhang, Hui Zhou, Lijun Wang, Zihan Zhang, Zijia Tan, Longmei Deng, and Thomas Hale. Chinese Provincial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BSG-WP-2021/041). BSG Working Paper Series, 2022. Available online: <https://www.bsg.ox.ac.uk/sites/default/files/2022-01/BSG-WP-2021-041-v2.pdf>

37) Hale, T., Petherick, A., Phillips, M., & Webster, S. Variation in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Working Paper Series, University of Oxford), 2020. Retrieved from https://www.bsg.ox.ac.uk/sites/default/files/2020-04/BSG-WP-2020-031-v4.0_0.pdf

38) Li X, Hui ECM, Shen J.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the government response to COVID-19 in China. *Habitat Int.*, 127, 2022, 102629.

Existing research has illuminated important associations between COVID-19 stressors and health behaviors, with a predominant focus on older adults. However, the differential impacts of these relationships across diverse populations remain insufficiently understood. Previous research has indicated that older adults and individuals with limited social support or minimal social interactions were more vulnerable to anxiety, and these high-risk groups experienced worsened health behaviors, including physical activity, dietary habits, and sleep patterns³⁹⁾. Additionally, financial burdens were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intoxication over a 12-month period⁴⁰⁾. This knowledge gap necessitates further investigation into how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ndemic-related stressors and health behavior outcomes. Understanding these interaction effects is crucial for developing more targeted and effectiv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hat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different population segments. Drawing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this study examines how multileve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both health-promoting (e.g., physical activity & diet quality) and health-damaging (e.g., drinking & smoking)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ly,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Hypothesis 3 The effect of environmental stressors on health behaviors is moderated by socio-demographic status.

3. Statistical techniqu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multi-level predictors and health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analysis utilized a data set comprising 8,064 individuals (level 1) nested within 19 provinces (level 2) in China.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provinces necessitated the use of two-level modelling, which allows for the investigation of both simultaneous and two-level effects on individual outcomes⁴¹⁾.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may be correlated with the error term, as they are influenced by the broader social context in which people live⁴²⁾. Notably, due to varying policies implemented across provinces during the pandemic, individuals within the same province may have been more likely to experience similar pandemic stressors, potentially affecting their health behaviors differently compared to those in other provinces. Consequently, there exists a group clustering effect within each province that cannot be adequately captured by individual-level data alone⁴³⁾.

39) Han G, Son H. A systematic review of socio-ec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urrent e-cigarette us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ddict Behav.*, 135, 2022, 107425.

40) Lin, T. W., Richman, J. A., Johnson, T. P., & Rospenda, K. M. Lingering Effects of COVID-19 Stressors on Mental Health and Alcohol Use in Middle Aged to Older Adults. *Aging and Health Research*, 4(1), 2024, 100178.

41) Diez-roux, A. V. Multilevel analysis in public health researc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1(1), 2001, pp.71-192.

42) Tom Snijders & Roel Bosker,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pplied Multilevel Analysis*, 2nd edition. Sage, 2012.

The analysis began with unconditional multi-level models (intercept-only models) without predictors to assess whether multi-level modeling was appropriate for each health behavior.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between-provinces variance by total variance to determine the proportion of variation in health behaviors that exists between provinces. The ICC values were 0 for binge drinking and physical activity, 0.02 for smoking, and 0.03 for healthy diet, indicating that approximately 2.5% of variance occurred between provinces on averag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ultilevel specification was warranted only for smoking and healthy diet. For these behaviors, the study processed with multi-level mixed-models (random intercept models). These models incorporated individual-level fixed parameters (age and gender), area-level fixed parameters (COVID-19 induced economic burden and perceived social disconnection), and control variables, with the intercept specified as random at level 2.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was employed to conduct how variables at different levels of a hierarchical structure relate to each other and influence outcomes⁴⁴⁾.

For binge drinking and physical activity, where the low ICC values indicated that multi-level analysis would be inappropriate⁴⁵⁾,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associations between demographic factors, environmental stressors, and health behaviors.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21.

4. Result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ample consisted of 8,064 participants from 19 provinces. Table 1 present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Females comprised 55% of respondents, with the middle-aged group representing the largest age category (38.9%). The regional distribution showed that participants were predominantly from middle regions (29.5%), followed by western (25.6%), eastern (23.6%), and northern regions (21.3%).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 = 8,064)

Variable	Percentage (%)
Age	
Young	35.1
Middle	38.9
Old	26
Gender	

43) Ballas, D., & Tranmer, M. Happy people or happy places? A multi-level modelling approach to the analysis of happiness and well-being.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35(1), 2011, pp.70-102.

44) Heck, R., Thomas, S., & Tabata, L.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ling with IBM SPSS*. Routledge, 2014.

45) Hox, J. J.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2.

Male	45
Female	55
Provinces	
Beijing	8.3
Hebei	3.7
Shanxi	3.7
Neimenggu	1.2
Liaoning	4.4
Jiangsu	6.1
Zhejiang	6.2
Fujian	3.8
Shandong	7.5
Anhui	5.1
Jiangxi	6.1
Henan	4.9
Hubei	7.4
Hunan	6.1
Guangxi	5
Chongqing	10.7
Shaanxi	5
Gansu	3.7
Ningxia	1.2

2) Statistical analyses

<Table 2a> Multilevel Regression Results of Health behavior (Smoking)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121***	-.103***		
Gender	1.605***	1.606***	.645***	1.258***
Individual-level controls				
Education	-.064***	-.062***	-.061***	-.062***
Health				
Environmental stressors				
COVID-19 induced economic burden		.079**		.081**
Perceived social disconnection				
Cross-level intersection				
Age x Economic burden				
Gender x Economic burden			.289***	
Age x Social disconnection				
Gender x Social disconnection				
Wald Z	2.031*	1.948*	1.980*	1.946*
-2 RLL	8132.019	8135.534	8120.019	8141.056

Note: *p < .05 **p < .01 ***p < .001,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presented

<Table 2b>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of Health behavior (Binge drinking)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086**	-.076**		-.275**
Gender	.796***	.797***		.517***
Individual-level controls				
Education				
Health	.045**	.045**	.045**	.046**
Environmental stressors				
COVID-19 induced economic burden		.062**		.065**
Perceived social disconnection				-.154**
Cross-level intersection				
Age x Economic burden				
Gender x Economic burden			.152***	
Age x Social disconnection				
Gender x Social disconnection				.055*
Modified R squared	.158	.160	.163	.162
Durbin-Watson			2.014	2.016

Note: *p < .05 **p < .01 ***p < .001,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presented

<Table 2c>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of Health behavior (Physical activit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024	.015	.07	-.035
Gender	.2***	.215***	.59*	.639*
Individual-level controls				
Education	.069***	.062***	.062***	.062***
Health	.13***	.127***	.126***	.124***
Environmental stressors				
COVID-19 induced economic burden				
Perceived social disconnection		.096**	.096**	
Cross-level intersection				
Age x Economic burden				
Gender x Economic burden				
Age x Social disconnection				
Gender x Social disconnection				
Modified R squared	.038	.04	.04	.041
Durbin-Watson			2.041	2.044

Note: *p < .05 **p < .01 ***p < .001,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presented

<Table 2d> Multilevel Regression Results of Health behavior (Diet habit)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084***	.086***		
Gender	-.174***	-.172***	-.265*	-.354**
Individual-level controls				
Education	.023***	.023***	.023***	.023***

Health	.092***	.092***	.092***	.093***
Environmental stressors				
COVID-19 induced economic burden				
Perceived social disconnection				
Cross-level intersection				
Age x Economic burden				
Gender x Economic burden				
Age x Social disconnection				
Gender x Social disconnection				
Wald Z	2.326*	2.097*	2.093*	2.1*
-2 RLL	6142.717	6150.461	6159.677	6158.574

Note: *p < .05 **p < .01 ***p < .001,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presented

【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계, 아시아계의 이주배경자녀 양육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 윤 영**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 초 록 】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 효능감에 대해 분석하고, 부모 효능감 요인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이때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중국(한족, 기타), 중국(조선족), 그 외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로 구분하고, 한국인 어머니도 함께 분석해 외국인 어머니와의 비교 분석도 시도했다. 또한 부르디외(Bourdieu)의 문화자본, 상징 폭력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틀을 확립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2기 데이터의 5차년도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1,818명의 응답자료를 spss 통계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에 따라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 학생활동을 위한 활동 수준, 부모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키워드】 결혼이주여성, 부모효능감, 자녀양육,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상징 폭력

* 이 논문은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2022S1A5A8055727).

** 제1저자.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younyoung.lee@halla.ac.kr)

1. 서론

2024년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인 156만1천명으로 남성이 57.85, 여성이 42.2%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인이 49만3천명, 베트남이 23만4천명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 특히 자녀가 있는 외국인인 87만5천명이며 평균 자녀수는 1.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이주가 보편화되고 이로 인해 이주자의 연령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부모를 따라 출신국을 떠나 이주하는 아동, 청소년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이주배경 학생 수는 급속히 늘어나 2014년 6만7천806명에서 2024년 19만3천81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성인과 달리 아동, 청소년은 이주의 경험과 이주국에서 지원받는 정도에 따라 적응은 물론이고 성장, 발달, 삶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교육부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주배경 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 시설, 인력 등 현황, 진학, 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 및 이주배경 학생 학습 지원 마련 등 이주배경 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³⁾ 요컨대 국제이주의 보편화, 세계화(global)의 가속화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local)의 사회적 특성이 맞물린 이주민의 증가,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라는 새로운 글로벌(glocal)현상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자녀를 양육 이주여성, 즉 외국인 여성(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 총각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국제결혼을 장려해왔고 한국 정부 역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다.⁴⁾ 이제 결혼이주민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4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1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유형은 17.9%에 그치는 반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결합한 다문화 유형이 69.8%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모의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 효능감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부모 효능감 요인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때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중국(한족, 기타), 중국(조선족), 그 외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로 구분하고, 한국인 어머니도 함께 분석해 외국인 어머니와의 비교분석도 시도한다. 요약하면 이주배경 학생을 둔 중국(한국, 기타) 어머니, 중국(조선족) 어머니, 그 외 아시아, CIS국가 국적의 어머니, 그리고 한국 어머니의 자녀양육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자녀양육 특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1) 통계청, 「2024년 이민자채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4.12.17.

2) 정명주, 『한국이민정책론』, 대영문화사, 2024, p.323.

3)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보도자료』, 2024.04.15.

4) 조숙정, 「결혼이주여성의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18권, 2024.12., p. 217.

5) 노보람,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과 부모지지의 이중매개효과」, 『2024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24.04., p.237.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학교의 장(field)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사회자본, 문화자본에 따른 불평등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부르디외(P.Bourdieu)는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불평등에 대해 분석적 틀로 가족 내에서 전수되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문화자본과 학업성취,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에 관한 수 많은 실증연구들이 쏟아져나왔으며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여타의 자본유형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등과 결합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⁶⁾ 이때 다수의 연구들은 부르디외의 문화적 취향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르디외는 문화적 취향을 정당한 취향(legitimate taste), 중류층 취향(middle-brow taste), 그리고 대중적 취향(popular taste)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이는 대체로 교육수준과 사회계급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러한 문화적 취향에 있어서의 계급차이들은 계급체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⁷⁾ 무엇보다 교육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통상적 목표를 위한 제도화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계급적, 신분적 구별짓기의 대표적 양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학력은 사회적 능력의 대리 지표이며 신분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화적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르디외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신이 속한 계급 속에 일정한 아비투스(habitus)를 획득하고 이 아비투스는 계급적 일상생활을 규정짓는 무의식적 기제로, 구별짓기의 강력한 기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계급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에 의해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의 교육은 신분적 구별짓기의 지표인 학력 자본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 형태를 띠게 되고, 사회적 신분 경쟁은 학력 경쟁으로 이어지며, 학력 경쟁은 고등학교의 학업 경쟁으로, 고등학교의 학업 경쟁은 중학교의 학업 경쟁으로, 중학교의 학업 경쟁은 초등교육 심지어 유아교육의 학업 경쟁으로 파급되고 있다.⁹⁾ 최근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미취학 아동이 유명 초등 수학,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 '7세 고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도 한국 교육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비춰본다면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든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이에 따른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이처럼 학력 자본이 강력한 사회적 신분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부모 효능감, 문

6) 조은주, 「학교실패와 상징폭력: 한국의 중등교육장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58권 제4호, 2024.02., p.3.

7) 이소영, 「부르디외의 문화이론과 재생산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철학적 고찰」, 『교육철학연구』, 제33권 제4호, 2011.01., p141.

8) 강창동, 「한국 초등교육의 학력자본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26호, 2006.11., p141.

9) 이소영, 앞의 논문, p141.

10) 김주연,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5호, 2023.09., p141.

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2기 데이터의 5차년도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1,81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데이터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축하였으므로 연구에 사용된 응답자료는 2023년 기준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을 둔 외국인과 한국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조사도구는 TAPI를 활용하였고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총 9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로 번역된 설문지가 한국어와 함께 제시되었으며 언어를 선택하여 답변하였다.¹¹⁾

1) 연구 도구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탐색적 요인분석(varimax=1, eigen value=1 기준)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다.

(1) 자녀양육

자녀양육에 관한 변수는 ‘자녀 성적향상 노력’, ‘자녀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을 활용하였다. 이때 자녀 성적향상 노력의 경우 응답범주가 상이하여 총 7개의 문항이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자녀 성적향상 노력 요인1은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의 3문항이 활용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번=전혀 하지 않았다, 2번=별로 하지 않았다, 3번=어느 정도 하였다, 4번=자주 하였다, 5번=매우 자주 하였다 등 5개로 구성되었다. 반면 자녀 성적향상 노력 요인2는 ‘학원에 보낸다’, ‘개인 과외를 시킨다’, ‘시험이 있으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시험을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친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번=전혀 그렇지 않다, 2번=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보통이다, 4번=그런 편이다, 5번=매우 그렇다 등 5개이다. 반면 자녀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은 ‘담임교사 면담’, ‘학교 교육 설명회 참석’, ‘학부모 교육 참석’, ‘그 외 학교행사(체육대회, 발표회, 학교축제 등)’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참석 횟수로, 1번=전혀 하지 않았다, 2번=1회, 3번=2회, 4번=3회, 5번=4회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p4..

(2) 부모효능감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부모효능감 요인1의 경우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의 4개 문항으로 요인2의 경우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나는 부모 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r)’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범주는 1번=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는 편이다, 3번=중간이다, 4번=그런 편이다, 5번=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로, 요인2는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번=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는 편이다, 3번=보통이다, 4번=그런 편이다, 5번=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4) 자아존중감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5개문항을 요인 분석의 활용하였으며 응답범주는 1번=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는 편이다, 3번=중간이다, 4번=그런 편이다, 5번=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2) 자료 분석

이 연구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척도, 왜도 분석, 변수의 구성을 위한 요인 분석,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 등을 진행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으며 한국인이 1.8%로 가장 적고 중국(한족, 기타)은 17.8%, 중국(조선족)은 14.4%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249)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국적	한국	32(1.8)	연령	20대이하	1(0.1)
	중국(한족, 기타)	323(17.8)		30대	757(41.6)
	중국(조선족)	262(14.4)		40대	845(46.5)
	그 외	1,201(66.1)		50대 이상	215(9.6)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이하	337(18.6)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567(31.2)
	200-300만원 이하	526(29.0)		고등학교 졸업 이하	795(43.7)
	300-400만원 이하	451(24.8)		대학(2-3년제) 졸업	182(10.0)
	400-500만원 이하	352(19.4)		대학(4년제) 졸업	236(13.0)
	500만원 이상	150(8.3)		대학원(석박사) 졸업	38(2.1)

<표2>는 자녀 성적향상 노력 요인1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한국,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기타), 그 외 국가 순서로 나타났고 사후분석(Scheffe) 결과, 중국계와 그 외 국가의 경우 자녀 성적향상 노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국적별 자녀 성적향상 노력 요인1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자녀 성적 향상 노력 요인					
		n	Mean	St.	F	p	Scheffe
국적	한국 ^a	32	8.65	2.22	23.783	.000	b<c b,c>d
	중국(한족, 기타) ^b	323	8.07	2.39			
	중국(조선족) ^c	262	8.67	2.58			
	그 외 ^d	1,201	7.37	2.55			
	전체	1,818	7.70	2.57			

*p<.05, **p<.01, ***p<.001

반면 국적별 자녀 성적향상 노력 요인2에 대해서도 국적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중국(한족, 기타), 중국(조선족), 그 외 국가의 순서로 나타나 요인1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표3> 국적별 자녀 성적향상 노력 요인2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자녀 성적 향상 노력 요인2					
		n	Mean	St.	F	p	Scheffe
국적	한국 ^a	32	10.21	2.89	18.054	.000	b,c>d
	중국(한족, 기타) ^b	323	10.14	3.07			
	중국(조선족) ^c	262	9.87	3.07			
	그 외 ^d	1,201	8.93	3.06			
	전체	1,818	9.36	3.10			

*p<.05, **p<.01, ***p<.001

다음으로 국적별 자녀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기타), 그 외 국가 순서로 개입 수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 수준의 차이가 자녀 성적 향상 노력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로 보여진다.

<표4> 국적별 자녀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					
		n	Mean	St.	F	p	Scheffe
국적	한국 ^a	32	7.12	2.92	11.128	.000	d<b,c<a
	중국(한족, 기타) ^b	323	5.31	2.13			
	중국(조선족) ^c	262	5.64	2.11			
	그 외 ^d	1,201	5.25	1.92			
	전체	1,818	5.35	2.03			

*p<.05, **p<.01, ***p<.001

부모효능감의 경우 요인1에서는 국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5> 국적별 부모효능감 요인1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부모효능감 요인1					
		n	Mean	St.	F	p	Scheffe
국적	한국 ^a	32	13.46	2.57	.573	.633	-
	중국(한족, 기타) ^b	323	13.23	2.55			
	중국(조선족) ^c	262	13.46	2.60			
	그 외 ^d	1,201	13.26	2.44			
	전체	1,818	13.28	2.48			

*p<.05, **p<.01, ***p<.001

그러나 부모효능감 요인2에 대해서는 국적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그 외 국가를 제외한 한국, 중국(한족, 기타), 중국(조선족)의 부모효능감 수준이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후분석 결과 중국(조선족)과 그 외 국가 어머니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표6> 국적별 부모효능감 요인2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부모효능감 요인2					
		n	Mean	St.	F	p	Scheffe
국적	한국 ^a	32	19.71	2.39	7.504	.000	c>d
	중국(한족, 기타) ^b	323	19.29	2.83			
	중국(조선족) ^c	262	19.62	2.80			
	그 외 ^d	1,201	18.84	2.71			
	전체	1,818	19.05	2.75			

*p<.05, **p<.01, ***p<.001

<표7>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해 분석했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조선족)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 국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19.2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국(한족, 기타), 중국(조선족) 집단과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7> 국적별 자아존중감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자아존중감					
		n	Mean	St.	F	p	Scheffe
국적	한국 ^a	32	19.87	2.44	10.203	.000	b, c>d
	중국(한족, 기타) ^b	323	19.58	2.64			
	중국(조선족) ^c	262	19.83	2.77			
	그 외 ^d	1,201	18.97	2.74			
	전체	1,818	19.22	2.74			

*p<.05, **p<.01,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1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중국(조선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다음으로 중국(한족, 기타), 그 외 국가 순서로 나타났다.

<표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1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자녀 성적 향상 노력					
		n	Mean	St.	F	p	Scheffe
국적	중국(한족, 기타) ^a	323	2.46	.95	18.396	.000	a, c>b
	중국(조선족) ^b	262	2.18	.97			
	그 외 ^c	1,201	2.57	.91			
	전체	1,750	2.49	.93			

*p<.05, **p<.01,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2 역시 중국(조선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 외 국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조선족)이 중국(한족, 기타), 그 외 국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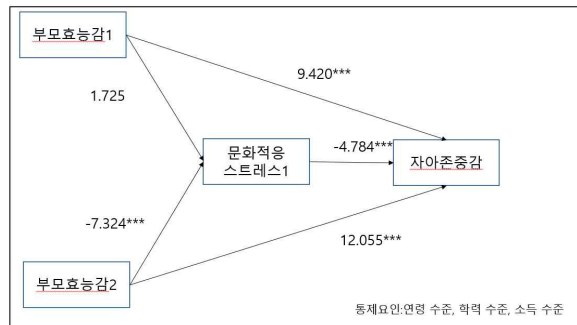
<표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2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자녀 성적 향상 노력					
		n	Mean	St.	F	p	Scheffe
국적	중국(한족, 기타) ^a	321	7.75	2.72	34.605	.000	a, c>b
	중국(조선족) ^b	260	6.38	2.56			
	그 외 ^c	1,169	7.87	2.59			
	전체	1,750	7.62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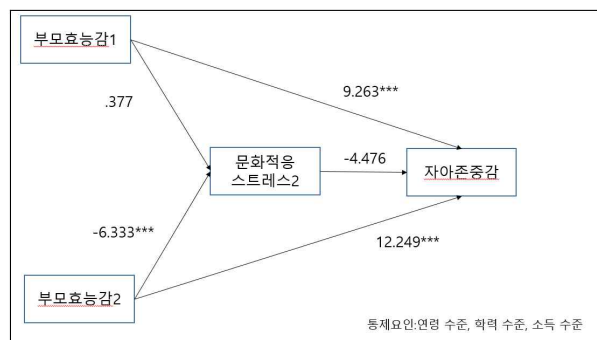
*p<.05, **p<.01, ***p<.001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사이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그림1, 2와 같이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1, 2모두 부모효능감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효능감2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사이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1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그림2>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사이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2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结构性压迫与主体性突围
：2000年后中国婚姻移民女性在韩社会融入策略研究

杨渝东* · 孙怡阳**

【목 차】

- 1.引言
- 2.研究设计
- 3.结果分析
 - 1) 家庭作为融入的起点与牢笼
 - 2) 跨国资源整合
 - 3) 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 4) 生命历程
- 4.总结

【 초 록 】

本研究主要聚焦于2000年后通过自由恋爱移民韩国的中国女性群体，区别于传统以移民为目的的“跨国新娘”，旨在探讨其在韩国社会融入过程中的能动性实践与结构性压迫的复杂互动。研究采用深度访谈法对15位中国籍婚姻移民女性进行质性分析，揭示其社会融入策略及面临的制度性限制。发现移民女性以家庭为融入起点，通过构建核心家庭、整合跨国资源（如原生家庭支持、华人互助网络）等方式提升经济与社会地位。然而，韩国社会的家庭主义传统、性别角色固化及“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的单向文化同化政策，形成了隐形的制度性压迫，将策略选择变成了另一种限制，制约了其社会融入与个人发展。尽管受访者普遍对当前生活状态表示满意，但其融入仍停留在工具性层面，面临文化隔阂及社会边缘化等问题。

【키워드】 婚姻移民女性；社会融入；能动性；结构性压迫；韩国社会

* 제1저자. 南京大学 社会学院 副教授 (yangyudong@nju.edu.cn)

** 제2저자. 南京大学 新闻传播学院 本科生 (221810046@smail.nju.edu.cn)

1.引言

从韩国或者釜山来看,婚姻移民女性都是并非少数的存在。韩国作为一个非传统的移民国家,远嫁韩国的女性移民又作为特殊的群体,在进入韩国后,必然会面临家庭关系、就业、教育、社会交往等方方面面的问题,适应新的社会成员身份,进行所谓的社会融入。Constable(2005)指出,女性可以借助婚姻的动力为自己争取更多的生存机会,婚嫁使其以一种有效的、得到社会认可的方式来改善社会和经济地位。¹⁾同时,子女是夫妻双方对婚姻的重要投资。²⁾实证研究指出,子女数量越多,夫妻离婚风险越小,拥有年龄较小的子女更有利于婚姻稳定性,为了子女健康成长,夫妻即便感情破裂也仍会倾向于维系婚姻。³⁾对于移民女性而言,生育子女能够让她们更好地融入家庭,在她们确立自身社会位置的过程中充当了一种重要的方式和策略。

而在婚姻移民的研究之中,许多文献关注到了“跨国新娘”这一群体,她们选择缔结跨国婚姻并非受浪漫爱情的驱动,而是把结婚视为迁入韩国的手段,其姻缘开始于商业化婚介所、报纸求偶广告、有组织的婚配旅行,这样的婚姻被贴上了讽刺的标签,诸如新娘菜单(电子邮件点单)、签证婚姻(Visa wives)、进口丈夫(Imported husbands)。⁴⁾段晓红(2020)指出,汉族女性选择通过婚姻移民韩国受到历史、地理、经济等多方面因素的推动,如东北国企破产重组引发失业、“韩流”盛行、沿海地区韩企入驻,而在海外移民风潮中,婚姻移民这一途径对女性而言更为安全和便捷。既有文献表明,这些女性适应韩国社会的过程充斥着不平等与苦痛。⁵⁾一项针对朝鲜族移民女性的研究发现,她们在生活中缺乏政治、经济、文化上的话语权,未能获得应有的社会保障,在差别待遇和社会歧视下自尊受损,甚至沦为买卖婚姻的牺牲品。⁶⁾韩国的多文化主义具有较强的父权制色彩,例如,由于国籍政策的约束,婚姻移民女性在一定程度上从属于韩国丈夫,没有配偶的支持和协助,她们的滞留资格便无法顺利持续。⁷⁾在婚介顾问的诱导下,一些跨国新娘事先对丈夫几乎毫无了解,甚至发现受骗。既有文献指出了多文化家庭存在的冲突,如中韩两国文化差异带来的文化震荡,婆媳关系恶化,家庭暴力与丈夫施虐等;存在巨大年龄差的夫妻需要面对代际差异,而双方缔结婚姻目的或利益的不一致也会诱发矛盾;此外,尽管远嫁韩国的女性努力学习韩语、适应当地习俗,也可能难以获得家庭和社会的认可,由于阶层限制和贫穷所迫,她们除了忍受艰辛外别无选择,也极少主动提出离婚。⁸⁾

1) Constable, N.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2) Becker, G. S., Landes, E. M., & Michael, R. T.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977, pp.1141-1187. <https://doi.org/10.1086/260631>

3) Heaton, T. B. "Marital Stability throughout the Child-rearing Years." *Demography*, 27(1), 1990, pp.55-63. Waite, L. J. & Lee A. Lillard. "Children and Marital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4), 1991, pp. 930-953.

4) 乌尔里希·贝克, 伊丽莎白·贝克-格恩塞姆 著, 樊荣 译,『全球热恋:全球化时代的爱情与家庭』,北京大学出版社, 2014.

5) 段晓红,「中韩国际婚姻的跨国家庭纽带研究——以汉族婚姻移民女性为中心」,『华侨华人历史研究』,第2期,中国华侨华人研究所, 2020., pp.24-32.

6) 全信子,「论跨国民族认同的场景与差异——以中国朝鲜族婚姻移民女性为例」,『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5期,延边大学, 2012., pp.87-94.

7) 김현정,「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권리 보호」,『法學論叢』,第44卷 第4號, 법학연구소, 2012., pp.63-98.

8) 송지현,「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09. 박영주·윤동화·김원진,「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해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09., pp.163-188. 박진근,「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양육권의 결정」,『법과 정책 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12., pp.1117-1142.

与此同时,伴随着国际移民流动性增强,更多的婚姻移民女性并非完全为了移民而选择与韩国男性结婚,相反,她们更多是因有了自主的婚姻意象而选择了移民,“跨国新娘”的预设已经不再是韩国婚姻移民女性的现状。在本研究的田野中,15位华人/华侨女性中,只有2位女性明显带有移民的目的而结婚,其余的女性则是自由恋爱而后为了共同生活,移民韩国。因此本文重点关注的女性移民群体有别于先前的研究:她们多是经过自由恋爱与韩国丈夫结婚并定居韩国,大体而言,已经较好地得到了家庭和韩国社会的接纳,目前的生活境遇并不算糟。正如Palriwala&Uberoi(2008)所言,研究者不能忽视频繁发生的虐待案例,也不能将视角局限在受害者角色,对于女性来说,婚嫁与移民之间的关系既是机遇也是风险。⁹⁾

2. 研究设计

研究的田野在韩国釜山展开,为期半个月。田野采用小组形式,小组成员一同完成了访谈和报告撰写。正如前文提及,釜山的婚姻移民分布比较分散,各区的婚姻移民数量较平均,使得寻找研究对象——中国籍婚姻移民女性比较困难。于是研究小组想到通过釜田教会中文部,利用教会网络接触到潜在的受访群体。幸运的是,在釜田教会遇到了本次田野的关键人物,同时也是小组的第一位受访者。通过这位女性的关系网,我们较为顺利地与接下来的受访者进行了会面。在接下来的10天中,小组在釜山的不同地点访谈了这些移民女性,并通过她们又获得了更多釜山华人/华侨女性的信息。

最终,研究小组采取深度访谈法共对15位女性进行了深度访谈,基本情况及婚姻家庭情况详见下表:

<表1> 访谈对象基本情况

序号	出生年份	国籍	家乡	教育背景	来韩时间
01	1982	中国	黑龙江、上海	职高毕业	2013
02	1990	中国	贵州遵义	本科	2015年来韩读书; 2021年因结婚留韩
03	1982	中国	沈阳	硕士	2004年来韩读书, 2010年回国; 后因结婚留韩
04	≈1985	中国	天津	硕士	2010
05	1979	韩国(2017年更换国籍)	辽宁大连	初中毕业	2012
06	1985	中国	东北绥化; 5岁迁居威海	初中毕业	2016
07	1989	中国	山东		2018
08	1985	韩国(2018年更换国籍)	辽宁大连	硕士	2011
09	1982	韩国(2013年更换国籍)	哈尔滨	初中毕业	2008
10	1988	中国	河南开封	硕士	2007
11	1964	中国	沈阳	大专	1991年首次来韩; 2001年来韩讨债
12	1979	韩国(2005年更换国籍)	出生于黑龙江; 大连长大	中学毕业	2003
13	1980	正在申请韩国国籍中	四川绵阳	初中毕业	2007

9) Palriwala, R., & Uberoi, P. *Marriage, migration and gender*. SAGE Publications, 2008.

14	1972	韩国(2004年更换国籍)	山东曲阜	大专	2003
15	1979	中国	河南郑州	博士	2003

表中有13位是自由恋爱结婚(不以移民为结婚目的),她们与丈夫通过社交媒体、学习或工作等途径相识,并最终步入婚姻殿堂。结婚后,多数女性选择跟随丈夫留在韩国定居。有近一半的女性与其配偶年龄差达10岁或以上。并且除了受访者15,其他女性都与丈夫育有子女,其中最多的有3个子女。共同的是,她们的丈夫大多数在韩国比较有稳定的工作,有高校行政人员和公务员,也有自己创业的游艇合伙人、烤肉店老板、装修店老板、船长等。她们的家庭基本都有稳定收入,甚至在访谈中能够了解到大部分的经济情况都处于韩国社会的中上层。这也表现出我们的研究对象以自由恋爱为主,在韩家庭经济状况良好,与更多早期的“跨国新娘”研究对象有许多不同。

3. 结果分析

1) 家庭作为融入的起点与牢笼

家庭是女性婚姻移民融入韩国社会的重要社会单位。她们与韩国丈夫的婚姻稳定程度,家庭的经济状况,与家庭其他成员的关系,养育和照料子女的状况,以及由此与社区、邻里、职场同事等发生的联系,都会对她们的社会融入程度产生极大的影响。

这些移民女性面对的是怎样的韩国家庭?张庆燮(2024)针对韩国社会提出“压缩现代性”的概念,指出在二十世纪后半叶韩国经历高速现代化的过程中,家庭主义这一核心意识形态成为了适应社会急剧转型的重要生存策略。¹⁰⁾在韩国,社会推崇的依然是基于儒家伦理的家庭规范,重视垂直等级秩序,男尊女卑的性别角色和传统家长制伦理根深蒂固。作为半无产阶级的构成群体,韩国女性一方面从事着低薪工作,为国家发展提供廉价劳动力,另一方面在文化观念上被期望回归家庭,充当无偿家务劳动的主要承担者,由此也导致女性教育水平的上升与其就业机会的不对称。该理论观点强调了韩国在社会文化变革方面相对于政治、经济的滞后特征,其突出表现之一是女性所受的巨大束缚和沉重负担。

在现实层面,这意味着移民女性在嫁给韩国丈夫并在韩定居后,面对的是性别与异国的双重挑战,她们必定要直面韩国社会的家庭主义以及伴随而来的权威主义和针对女性的性别意识形态。孤身进入韩国社会的婚姻移民,必须采取策略,构建自己的家庭并融入韩国丈夫的亲缘关系,并希望以新的家庭为基础融入韩国社会。

按家庭的结构和规模划分,家庭类型有联合家庭、核心家庭、主干家庭等。在访谈的15名个案中,就目前的家庭结构而言,以核心家庭居多,有11名。其他还有3位女性与公婆共住,1位与大嫂等男方亲戚共同生活。

但在结婚初期,大部分女性都经历了主干家庭的居住模式,或是存在婆婆经常登门的情况。这种家庭形式的变化,是移民女性的策略尝试,她们要求以“核心家庭”来经营与丈夫的生活,营造相对夫家其他成员而言较为独立的生活空间,从而避开成员在一起生活时更为复杂的家庭伦理的束缚。这也是这些女性构建在韩国的新的家庭,获得在韩社会融入的重要一环。而这其中过程并非一帆风顺,大多经过了这些女性

10) 张庆燮 著,司炳月·孙彤彤译,『压缩现代性下的韩国:转型中的家族政治经济学』,苏人民出版社,2024.

的额外情感劳动或家庭内部博弈。

在移民刚刚开始阶段，部分家庭仍会在心中对“跨国媳妇”这样的“外来人”心存芥蒂，其中突出的就是“婆媳矛盾”。比如受访者提到，婆婆认为儿子处处优秀，不满于儿子找了她当妻子，认为应该找一个更能配得上儿子的韩国妻子。面对这样的情况，这些结婚移民女性有些选择隐忍、多做少说；而有些则是能避则避，并且尝试与丈夫沟通解决。为了能够融入丈夫的家庭，构建自己的新家庭，她们都采用间接避让的态度。

(婆婆在家待)好像一整天吧，我记得每次都是快吃晚饭了她才走，然后弄得我压力很大，然后我就跟我老公说，我说别让你妈来，行不行啊？我说我实在是受不了了，但是我老公说，那跟他妈妈说一句，后来就是三次变成两次。还有一个我觉得是，其实我现在是能想一想看还有一点原因是什么？就是其实她有点是帮她儿子看着我那种，因为我那时候也很年轻嘛，30岁出头一点。然后呢带个小孩，我性格又很开朗，我愿意笑，愿意说，就不像人家在哪一呆就不吱声那样的，我这还挺张扬……

我一直带我儿子出去玩，就我婆婆一来我就出去，你在家干活，我就带着孩子溜达溜达，就带我儿子骑自行车就出去了，我们就顺着温泉川骑，完了，看我婆婆差不多要走了我再骑回来。(01)

为了能够成为韩国媳妇，这些女性还需要在饮食、文化上适应韩国家庭。

饮食方面是最大的，就是感觉还是毕竟是中国胃嘛，有的时候吃他那个韩国的泡菜或者比较清淡的东西，不太适应。(15)

中餐一点都不吃，因为我老公是纯韩国人，就是一口也不吃，包括我包的饺子他都不吃，然后他上超市去买饺子吃，我自己吃我包的饺子，我们家都是这样。(09)

尽管对跨国婚姻的态度逐渐开放，韩国社会中传统的性别角色观念依然根深蒂固。大多数受访女性在访谈中表达了对目前生活状态的较高满意度，但她们也普遍表示自己的丈夫时常会表现出大男子主义的行为和思维方式，继而引发家庭矛盾，且大部分会以女方的无奈妥协收场。

我老公是就是典型的韩国男人那样，就特别是咱们说的那种大男子主义。其实一开始我们恋爱的时候没有，他很好，就是我生病他会给做饭。结婚以后他就这样，我就感觉我被他骗了(笑)。不过他对我是很好，但是家里的事他不管。我老公真的是，到什么程度？搁家要喝水，喝不动，他张嘴：老婆给我倒杯水。他就是这种大男子主义的男人，韩国的大男子主义男人都那样，但是最近的男人还好一点。(受访者06)

15位受访者中，有6位是全职家庭主妇，其余受访者也均表示承担了较大比例的家务劳动，平均每人生育了1.6个孩子。这种现象在之前的研究中往往与女性移民在语言、文化适应等方面所面临的挑战联系在一起。但如资料展现，本研究受访者中包含了以韩语为母语的朝鲜族女性、曾在韩留学的女性，很大程度上，她们并没有受限于语言，且部分女性有能力顺利进入韩国社会活动，但却仍要承担起大部分的家务劳动，在工作与家庭事务发生冲突时，首先牺牲自己的工作机会。

因为我家孩子小嘛，然后总生病，要去医院住院啥的。那个时候是我妈在给我看孩子，我妈从中国过来的。然后我妈就说你还是以孩子为主吧，不要去挣钱了。然后我老公也是那么说的，孩子还小，我又不是挣不了钱，养活不了你们。就是不让去嘛...后来他给我开店的时候，就是离我家很近，我家就在这上面，对面

的楼，闲着也是闲着。大女儿不是生病嘛，家里就近工作的话，有的时候比如有事的话，回家比较方便。(12)

为了进入韩国社会，这些女性选择了家庭为单位。但又因为要扮演好家庭角色和叠加的移民身份，让她们在初步建立起自己在韩国的家庭后难以转换身份，实现进入社会的目标。

2) 跨国资源整合

贝克(2014)在分析全球化时代的家庭形式和情感生活时，创造性地提出“世界家庭”的概念，意指居住在或来自不同大洲、国家的人构成的爱情与亲属关系，世界家庭逾越了国家、宗教、文化、种族的界限。¹¹⁾在世界家庭中，亲属关系的作用举足轻重——作为文化纽带，使人们跨越国境的限制，建立、拓展人际信任和团结。

对于本研究中的婚姻移民女性来说，亲属关系和“家庭”的范围不只限于韩国。她们大多与中国的原生家庭继续有着紧密的情感、经济联系。

根据韩国出入境管理政策，作为韩国国民配偶的婚姻移民女性可以邀请原生家庭成员访韩，特别是以“产后看护”为由的探访。大部分受访者父母就是以这样的方式暂居韩国的。据了解，也存在部分结婚移民女性的亲属以这样的方式留韩打工赚钱的案例。跨国移民女性给予娘家经济帮助和回馈，这成为她们自我满足感的来源，而娘家人也在这过程中提供情感支持，以及处理照顾小孩等家庭事务。

我妈带(宝宝)，我妈从国内，我爸我妈从国内过来，现在跟我们一块住。是看宝宝的那个签证，大概可以签7年，就是签到小孩上小学，好像是这个样子。(10)

这种双重的跨国婚姻功能性还体现在对韩国家庭的“反哺”。婚姻移民女性调用中国家庭的资源来资助自己的新家庭，不仅出于经济的目的，更是希望能够和丈夫形成更强的情感联结。

40万人民币，汇过来以后，他就交了首付，买了一台车。从没有感情一直到我能相信他，那孩子(大女儿)已经两岁多了。大女儿两岁的时候我才开始就稍微的把心打开一些，在家里边把钱调过来，让他买车。甚至我们家老大6岁的时候我们都没有感情，6岁之前我也没把这里当成家，但是那个时候突然就有了我第二个儿子嘛，有了儿子以后我就发现他也更热爱这个家，然后我也会更真心一些，就那样开始好起来。(09)

通过策略性地整合两国资源，带来两个家庭的共同发展是这些女性的共同选择。她们并没有特定的家庭、国家偏向，更在意的是实际经济状况的提升。

同时，在选择国籍，这个一般被认为是重要的身份认同和社会融入指标的行为上，在15位受访者中，有9位仍保留中国国籍，有5位已取得韩国国籍，另有1位正处于申请韩国国籍的过程中。多数未转换至韩国国籍的女性受访者主要是出于实用性考量，如为便于未来回国无需办理签证手续，以及基于子女教育规划的不确定性而选择了保留中国国籍。相反，那些决定转换为韩国国籍的受访者则倾向于采用一种工具性策略。她们视国籍变更为获取社会权益及生活便捷性的策略，而非基于文化身份的认同或归属感。

我现在是结婚移民，F6，准备换永住，但我不准备换国籍。我回国就很麻烦。要办签证了。(02)

11) 乌尔里希·贝克，伊丽莎白·贝克-格恩塞姆，위의 책.

我现在充分可以拿韩国国籍，因为我已经有了永住。我想保留我的那个中国国籍，因为我是独生子女嘛，爸爸妈妈还在中国。所以可能未来爸爸妈妈要是年纪稍微大的话，他们是没有什么方法能够来韩国的。(04)

传统社会融入理论现有对于衡量指标的研究可划为四个维度：经济性融入、社会性融入、政治性融入和文化性融入(Entzinger & Biezeveld, 2003; Gordon, 1964; Junger-Tas, 2001)。¹²⁾其中，社会方面侧重于个体与朋友、社区、组织间社会支持网络的建立状况，体现社会关系的质量和广度。但移民的社会融入内涵、主体及过程并非同质，另一方面移民所处的历史时期和研究视角各异，由此，社会融入的概念呈现出条件性和暧昧性，尚未形成一个全面的界定。

在本研究中，婚姻移民女性基本都能在韩国社会中占有一席之地，以自己的方式过着相对稳定的生活，但绝大多数受访者均表示不可能完全融入韩国社会，自己也无法变成一个真正的韩国人。

在家庭的双向整合之外，大部分婚姻移民女性的社会关系网络依旧以中国人为主。在访谈的过程中，“中国朋友多还是韩国朋友多”是一个几乎向每一位受访者都有提出的问题，而收到的回答多数是“中国朋友多”或“一半一半”。但因为这些新婚姻移民的韩国家庭基本经济状况较好，她们可以较好地利用中国人的社交网络实现经济上的适应。这些女性多采用“跨国主义”的方式，提高个人在住在国的社会地位，并对祖籍国的经济社会产生一定的影响(廖萌，2019)。

受访者中有两位女性是华侨互助团体的干部成员，这类团体一般与中国大使馆、领事馆合作，为包括婚姻移民女性在内的华侨提供帮助和支持，是较为正式的华侨互助形式。

我们成立了一个侨民协会，釜山中国侨民协会……协助领馆，来做一些服务这些华人的义工活动吧。特别是疫情期间，那个是我们在疫情之前成立的，因为那时候有很多其实挺困难的这些移居女性，就是我们觉得挺需要帮助的，我们成立这个团体之后就可以比较系统化地帮助她们。后来我们成立了这个团体之后，领馆比如说每次发春节包，还有防疫包，还有一些帮助她们的一些活动，就通过我们这个团体来帮她们。我们就是自费，自己开车走到那些基层去，就给她们送这些东西，几百家、百十家吧，包括一些打工仔，还包括一些非法的华人，我们也是知道。但是，这个其实也给他们提供一些帮助，送一些祖国的温暖。(15)

随着互联网的发展，越来越多的婚姻移民女性能够通过网络获取和分享信息，这也就催生了许多“互助群”。依托于网络通信的特点，互助群能够在一定程度上超越地域的限制，群内人员也可能完全是陌生人，但却能够为婚姻移民女性提供一定的支持，满足她们的一些需求。

釜山姐妹信息共享群，然后还有什么在韩华人信息服务互助群……对那种刚来韩国或者什么都不知道的人也可能是会有点帮助……就是在这边待的时间比较长久的一些人在那里弄了一个群而已，然后大家一起分享信息。(05)

我之前还有一个宝妈群，那个群是专门交流育儿的……都是中国人，全国各地的中国人嫁来韩国以后生完孩子会交流彼此的经验。然后你有，比如说我孩子大了，我的婴儿车，还有一些衣服、鞋子，如果你需要的话，我可以给你……那种群是彼此也都不认识，但是会问我孩子今天皮肤不好，你们都用什么东西？或者是哪个尿不湿比较好用啊？哪种婴儿车比较好？会问这些。(06)

12) Entzinger, H., & Biezeveld, R. *Benchmarking in Immigrant Integration*.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2003.

3) 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前两部分的分析都可以被归纳为婚姻移民女性的“社会融入”策略，她们并不追求完全的社会融入，基本都采用家庭或跨国的策略来提升自己的在韩国经济、社会状况。同时，这些策略性选择又会同步带来她们对韩国社会的有限融入。

但在个人的主动选择之外，不代表没有制度性的因素。而在韩国婚姻移民群体中，最特别的制度就是多文化中心(MFSC)。

多文化中心，全称为“多文化家庭支援中心”，是由韩国女性家族部管理的，依照《多文化家庭支援法》运营的政府机构。在本世纪初来到韩国的婚姻移民者增加的背景下，多文化中心于2006年以“结婚移民者家庭支援中心”的名称应运而生，并于2008年更为现名。多文化中心是应对韩国多文化家庭逐渐增多的一个官方机构，更主要的职能是提供支持和缓解矛盾。作为“支援多元文化家庭稳定的定居以及家庭生活，提供综合性服务”的机构，多文化中心的职能包括而限于提供韩国语教育、烹饪教育、定期活动、子女双语教育、法律咨询等服务。目前，釜山广域市辖区内的16个区/郡中除了中区和江西区以外，每个区/郡都有一家多文化中心，共计14家(<https://liveinkorea.kr/portal/CHN/main/main.do>)。

从中心介绍上可以看到，这些中心是为帮助结婚移民者及其家庭经营稳定的韩国生活而建立的机构。提供统合教育(家庭、性别平等、人权等)、韩语培训、上门教育、咨询、信息介绍、结婚移民者口译·翻译服务、子女语言支持服务等。

虽未能直接采访多文化中心的工作人员或前往多文化中心进行实地参观、体验，但能够从受访者的叙述中侧面了解了这一机构。在接受访谈的15位婚姻移民女性中，有至少三分之二曾经或仍在接受多文化中心提供的支持。

婚姻移民女性来到韩国后，如果有语言学习的需求，可以到多文化中心参加免费的韩国语课程。但这些课程与语学堂等专业的韩语教学相比，学习压力较小，效果也有限。

我最开始来韩国，韩语虽然会说一点，但是不太好。然后就在网上查，那里(多文化中心)免费教外国人的韩语，我就去那里。(06)

因为我上过语学堂嘛，他那里(多文化中心)的老师和语学堂老师肯定是不一样的。这个老师他也教，但是以玩为主……在语学堂的话就是老师会考试、考察嘛，对话啊，发表什么的老多了。作业、考试这里没有，所以就是随便说一下。但我感觉一节课上下来可能大家也没学上，就是以玩为主。(02)

除了韩国语课程，多文化中心还针对婚姻移民女性开设烹饪、韩国文化、礼仪等课程，帮助她们提升个人技能，适应在韩国的家庭生活。

语言、文化、电脑，你还可以去学韩国的礼仪……主要是学语言，然后学料理，学电脑……他教你做韩国饭，因为你不嫁给韩国老公了嘛，你得学给韩国老公做饭……大酱汤啊、泡菜啊，他都教你做哦，看一遍就会了。(13)

多文化中心也因其能将婚姻移民者聚集起来的性质，成为了一个社交平台。一些女性前往多文化中心的初衷，也是希望能交到朋友。我们寻找受访者的过程中一定程度上采用了熟人介绍的模式，其中几位受访者便是通过多文化中心结识并成为朋友。

Q: 您是怎么和她们(其他受访者)认识的?

A: 在我们这边有金井区多文化中心, 我也不上班, 没什么事情就去上上课, 认识了她们。(02)

多文化中心的帮助不仅限于婚姻移民, 也有对于多文化家庭的子女的服务。如果父母希望自己的子女能够掌握两种语言, 多文化中心提供对应语言的免费教学服务。但类似于韩国语教学, 这类语言教学也在专业性和实际效果层面存在提高的空间。

多文化中心他们的汉语教学, 其实还是不那么系统, 因为每个孩子他们的状态是不一样的, 年龄也是不一样, 水平也是不一样, 但是他们可能只有这一个老师, 然后可能一个星期只有这一个机会, 所以他们可能会把所有的孩子都聚集到一起。我也参加过这样的活动。所以说实话, (政府的)资金也花了, 我们时间也花了, 但是最后的结果并不是那么好。(04)

除此之外, 多文化中心还提供政策、法律等咨询服务。但面对发生在婚姻移民女性身上的家庭矛盾甚至家暴事件时, 多文化中心受限于其职能和性质, 也无法提供十分有效、实质性的干预和帮助。

多文化中心, 它也是以韩国人为主的多文化中心, 它不是说国际的慈善那种的, 它是以韩国家庭为中心, 让你们家庭和谐……也会安慰你一些, 但是涉及到韩国人老公这边的冲突的时候, 他们不是不想帮你, 而是没有能力。其实有些韩国老师他亲身经历, 看到我们这些, 他们真的是很心疼我们的, 但是他们没有权利, 没有能力, 政府也不支持他们那样做。(09)

正如受访者指出, “多元文化”还是“韩国文化”是这一机构面对的严峻的理念问题。多元文化主义作为一个政策概念起源于加拿大。Castles&Miller(2009)指出, 多元文化主义意味着“多数群体愿意接受甚至欢迎文化差异并相应地调整制度。” Kymlicka(2009)将多元文化主义定义为“一种‘承认政治’, 因为它承认并接受过去被‘正常’公民忽视的少数群体的差异¹³⁾。”

而在韩国语境中, “多元文化”的意涵其实并不同。“damunhwagajok[다문화가족]”的字面意思是“多元文化家庭”, 指的是由跨境婚姻组成的家庭。MFSC 将“多元文化家庭”定义为符合以下两个标准之一的家庭:“由出生的大韩民国国民和结婚移民组成的家庭”;或“由通过出生或承认或归化获得韩国国籍的人和通过承认或归化获得韩国国籍的人组成的家庭”。¹⁴⁾

多文化中心为“多元文化家庭”的成员而设立, 而在根源上, 它的理念就有偏差。在韩国, “多元文化家庭”一词来源本身就是一次抗议。2003年一个名为“Hi Family”的非政府组织在兵役法执行令中指出: “混血儿童”(mixed-blood children)一词侵犯了人权, 并提出了一个替代术语“第二代多元文化家庭”(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由此, 韩国政府开始使用“多元文化家庭”一词来表示国际婚姻家庭。

由之, 再回看多文化中心的服務, 就能够理解它的服务和婚姻移民的需求之间的鸿沟。多文化中心基本只提供韩餐、韩语的教学; 对婚姻移民的技能培训集中于烹饪等家务领域。同时, 它并没有资金、房屋等资源和能力真正保护一些被家暴的女性。

13) Ahn, J. H. “Transforming Korea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Reception of multiculturalism discourse and its discursive disposition in Korea.” *Asian Ethnicity*, 13(1), 2012, pp.97-109.

14) Oh, Ga Yeon. “The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n social integra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Hague*, 2015.

多文化中心提供的社会融入是婚姻移民单向度地融入韩国家庭以及韩国社会，而非接纳社会的文化多元性。它的课程设置也体现了韩国社会的“移民形象”——需要的是完美的韩国家庭妻子，而在这一形象之外的婚姻移民都受到了隐形的制度排斥。

4) 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以上的叙事虽然从结构框架上讨论了移民女性的社会融入问题，但是我们设立的框架在一定程度上也成为歪曲她们长时段构建社会融入的历时性过程的一个阻碍，有一些人与事如果简单被割成切片，就会丧失整体故事的复杂性和深度，乃至本身所具有的厚重感。同时，符合“跨国新娘”叙事的几个个案在之前的框架中并没有得到展现，尽管存在年龄、背景的差异，但从结构性的压抑和个体的能动性来看，这样的个案有着更甚的复杂张力。为了将她们的这种普通人难以经历的人生历程更厚重地“书写”出来，生命史的视角就显得更加必要。

生命史作为一种研究方法，能够帮助我们细致地描绘出个体如何在特定的社会历史背景下，通过个人的决策与行动，书写出各自独特的人生篇章。在探讨“移民”与“婚姻”这两个主题时，我们不可避免地要深入到个体生命的具体历程中去。因为正是这些个体的选择与经历，构成了宏大社会变迁下的微观叙事。生命史的撰写不仅能够帮助我们更深入地理解这一群体的生存状态和心理特征，还能够为我们提供更加丰富和多元的视角，去审视和思考全球化背景下个体命运与社会变迁之间的复杂关系。

(1) L姐

L姐的故事只讲了一半，然后用“讲不下去”和眼泪关闭了后一半的故事。对那一半，我们充满了好奇，然而在当时的当地，却已无从追问。这是访谈调查的伦理，但是短期考察的无奈。不过她前半的故事就很有魅力。她是生长在沈阳的朝鲜族，却并没有跟随1992年中韩建交后朝鲜族的那股打工热赴韩，而是去了南方的深圳做起了管理者。而在这之前，她就已经依靠特殊的经历获得了经济财富，婚姻家庭和社会阅历，因此移民对她而言并不是一个社会结构性的人生选项。读大学的时候，她相貌出众，得到众多男同学的追求，最后她选择了要为她跳楼的那个男生。两人1988年就结婚，并生下了一个女儿，安家在沈阳。此后她受朋友的邀请，到北京做导游，专门负责接待来中国旅游的韩国人。那个年代，中韩尚未建交，来中国旅游的大多都是富有的商人或者官员。当时中韩国家财富上的悬殊让她的这段人生经历充满了传奇色彩。1990年她接待了釜山到北京旅游的8位韩国游客，大多都是釜山的富商，其中还有一名国会议员。他们要去东北白头山，这在当时是不合规的，她带他们去了。她的朝鲜族口音，让这些久居韩国的韩国人找到了乡音的感觉，于是双方很快就建立了深厚的感情。这8位游客离开时，认她做了干女儿，赠送她高档手表，并表示要邀请她到釜山旅游。之前她曾因代姐夫寻亲到过韩国，但这一次她很开心地到釜山旅游了十几天，得到了韩国富商们的亲切款待。这一切，都让她成为同辈群体中的名人，也让她的很多同学干起了导游。回国之后，她继续书写她的人生传奇。因为头脑灵活，她发现了导游中的商机。在接待韩国商人的过程中，她发现了当时他们随身携带了市面上稀缺的牛仔裤和折叠伞，然后她采购回来，找了一个面包车从北京拉回沈阳去销售。这一下在1990年就赚到了3万块钱，相对于普通人而言，这绝对是一笔巨款。另外一个赚钱的机会，是当时旅游购物市场利用信息不透明对游客的巨额牟利。于是她利用这个机会，在带团的时候沿途和商家谈，要求返点，否则她就不让游客停留。据此，她就在当时赚到了普通人不可企及

的财富。这个时候，她才二十七八岁。可以说，在人生的前半段，她是一个比较成功，甚至带有一定光环的人。形象好，能力强，有追求她的人，组建了家庭，生了女儿，事业上 and 国外富商有往来，收入偏高，这一切使得她稳固地存在于社会结构之中，移民并没有成为人生的计划。

不过，宏大叙事往往会改变小人物的微观人生。随着韩国的第一任民选总统金泳三替代了卢泰愚，之前韩国的旅游消费遭到遏制，来中国的游客出现大幅度下滑，这也严重影响了L姐的经济状况。在这个时候，深圳崛起了，一家做珠宝生产的韩企需要管理人员。她和另外两位朝鲜族女性去面试。之前与韩国富商交往过的阅历帮助了她，让她知道“体面”在面试当中的重要性。最后她成功地留了下来，然后招聘了该公司的400多名员工。彼时的打工潮汹涌澎湃，也并不好管理，但是她却依靠个人的能力与魅力把这400多人管得服服帖帖，并且善良地帮助了里面涉世未深的女工，让她们或者不被人骗，或者被骗之后帮助她们度过难关。最难得的是，在一个韩企里面她作为中方管理者，竟然依规开除了三名韩籍员工，有效维护了中方员工的利益和企业的秩序。自然，她也因此在公司里树立了很高的秩序。

然而，与个人事业上升相伴的并非所有的顺利。在她离开东北三年期间，家中出现了变故，当年为了追求她要跳楼的丈夫在此时出了轨，而深具社会经验的她，在因故不得不调回辽宁并自开一家饭店的开业当天，就敏锐地发现了丈夫和第三者的问题。在中国，丈夫的背叛和家庭的破碎对一个女性的打击往往是毁灭性的，而L姐的人生命运也由此改写。婚姻与家庭在社会中的结构性意义彰显在个人身上，并由此成为她选择移民韩国的助推器。

在与出轨的丈夫离婚后，L姐并没有马上选择移民，而是选择了自己创业。之后在于韩国商人的业务往来中，又遭对方拖欠工资，4500万韩币一直未付清。她只身从中国到水原去找债务人偿债，然后到她的哥哥家住下来。这个时候，她已经孤身一人，寄居在哥哥家，与四五年前事业上升家庭完整的境遇完全不同。这个时候，她还不是真正的移民，而是飘移在中韩两个社会之外的讨债人。哥哥劝她留下，她自己则并没有彻底想移民韩国。而恰恰在这时，命运发生了新的转折。在她哥哥家的时候，偶遇了一位来为她哥哥的门店装牌匾的韩国师傅。偏巧哥哥出门，她一个人在家。这位师傅请她帮忙打下手，然后两人就在一起喝酒。她个人是因为无聊，有一个能陪她喝酒的人感到好过一点。结果多次接触之后，他们走到了一起。但其中，从经济和组建家庭的角度来说，是她付出更多。在建立关系的时候，她为他订做了套装衣服，为他过生日。在关系逐渐紧密的时候，她帮他在装门面的技术上又设计了很多新的方案，提高效率，钱也赚得更多。不过，前夫的背叛依然让她难以立刻重回结构，而是选择了同居而不是结婚。直到有一天，这位韩国人把1000万韩币扔给她保管，然后丝毫没有表现出警惕和担心的时候，她才真正被感动，认为他们之间有了信任与感情。于是，她选择了移民婚姻，并真的在韩国留了下来。

不过，这位感动她的韩国人并没有立刻给她一个完整、安稳、幸福的家。2000年左右，他们为了韩日世界杯大量使用广告招牌而没日没夜地工作赚钱，“广安里大桥通车”都忙得没时间去。当时赚了不少钱，还帮她先生还了过去的欠款。然而L姐的父亲不幸出了车祸，她只好赶回中国去照顾老人，留下了貌似业务已经上了路子的丈夫。然而让她没想到的是，回国之后发现自己怀孕，她一边照顾父亲一边联系丈夫帮忙协调韩国的业务。但是，丈夫在经营方面的能力还是不足，一年不到将之前的积累几乎赔损殆尽。等她再回釜山的时候，丈夫只能在釜山的穷人区租一个15坪的房子，然后她就要在这样的环境里生下他们的第一个孩子。她们每个人的人生犹如毁损-重组而拼凑出来的圆盘，也是略带伤感的乐章，不同生命阶段的人相互交织在一起，因这些经历而具有深刻的“共情”之处，恰恰是因移民跨境所生成的游离并没有在新的婚姻家庭得到修复的结果，这其中，有的人命运好一点，有的人命运舛一些，在漫长的历史中翻演着跨境女性建构自己一生的故事。

4. 总结

在本研究中,通过对15位定居韩国的移民女性进行深度访谈,揭示了她们在韩国社会“融入”过程中的复杂性和多样性。研究的初衷并非基于受访者的生活满意度进行样本筛选,而是在访谈过程中意外发现,这些受访者普遍对当前的生活状态感到满意。具体而言,13位2000年后自由恋爱移民韩国的女性,并未经历如家暴等跨国婚姻家庭中常见的问题,经济状况相对宽裕,没有面临基本生活需求的困境,且没有受访者表达了迫切想要离开韩国的意愿。这些发现促使研究进一步探讨这些女性是如何“成功融入”韩国社会的。

总体而言,这些成功融入韩国社会的女性在初期阶段,大多将融入家庭作为首要任务。初抵异国他乡,面对全新的环境和社会,她们难免感到孤独与恐惧。融入丈夫的亲缘关系,建立新家庭,生育子女成为她们融入家庭的重要方式和策略,这一过程在她们确立自身社会位置中起到了关键作用。婚姻作为她们社会融入的依托,通过家庭这一基本单位,她们逐步建立起交往关系,并逐渐在社会中占据一席之地,家庭因此成为她们社会融入的基石。

但这种融入不是顺理成章的。在子女年幼时,许多受访者因需全身心投入家庭,而不得不选择担任全职家庭主妇的角色,这在一定程度上顺应了传统期待,她们努力扮演传统意义上的“贤妻良母”。她们在家庭中尽力满足丈夫及婆家的期望,承担起家庭内部的责任和义务,然而,这一时期的她们在社会融入方面相对薄弱,主要局限于家庭内部。而长期处于这种状态反而使得她们更被认为是“合适”这样分工的。并且因为这些女性能够更轻松地从“华人圈”中获得融入感和经济、社会资源的互换,她们长期处于与其他女性婚姻移民的社交网络中。想要脱离家庭,以个体形象融入韩国社会的路被进一步堵上。

此外,隐形的制度性排斥看似给这些女性保障,却进一步将她们禁锢在韩国家庭需要的“好媳妇”角色上。多元文化家庭支持中心通过教授韩式料理、韩语给这些婚姻移民女性融入韩国家庭的基础条件,但本质上排斥“多元文化”,以移民单方面融入韩国社会为融入标准。同时,韩国社会对生育的鼓励和支持,一方面补贴了这些移民家庭,但同时,婚姻移民女性又一次与“生育”牢牢绑定,更加难以破除僵化的家庭分工。

能动性策略性是成功女性移民在社会适应过程中展现出的一个重要特征。她们通常不会被动接受环境带来的各种障碍和压力,而是主动采取策略性行为来化解矛盾,并创造条件提升自身家庭在社会中的地位。但这种以家庭为中心的移民路径选择又一次束缚了她们个人的融入和发展。

尽管与先前研究的跨国移民女性相比,这些中国移民女性在韩国社会的融入取得了显著成就,但这种融入仍存在一定的限度,远未达到完全成功的状态。她们并未完全融入韩国社会,与韩国人无异,而是仍处于一种挣扎之中,面临着各种压力、障碍和困境。

“能留在釜山的每个女的背后都有故事”,受访者的表述讲出这份研究的局限,也同时是研究的意义。田野中,我们在釜山接触到的所有受访者都是这场“移民战争”的获胜者,更多没有能力和机遇留下的曾经婚姻移民都已经回到中国或另谋出路。但从另一视角看,在这些即使已经取得相对成功融入的女性中,她们的现状也难以掩盖其在韩国面临的困境与挑战。由此可见,那些尚未达到这一程度或尚处于初期适应阶段的跨国婚姻女性,所面临的困难与压力可能更为严峻。

【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임시커플’에 대한 연구
—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魏霞*

【목 차】

1. 서론	2) 연구대상의 선정
2. 이론적 배경	4. 가족기능의 관점에서 본 ‘임시커플’
1) ‘임시커플’이란?	1) 관계의 합법성
2) 다문화가족의 기능론적 접근	2) 이익 공동체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의 선정	3) 성(性), 출산의 당위성
1) 연구방법	5. 결론

【 초 록 】

우리의 사회가 가치관, 사회, 인구학, 개인적 및 가족 요인 등의 변동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안정성과 통합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수한 양성관계 - ‘임시커플’이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임시커플’은 중국인 이주자 집단에서 형성된 동거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성 및 정서적 요구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가치교환을 통해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회관계망 확장하여, 경제 수입이 증가 등 이익 획득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등록 이주남성이 결혼이주여성과의 이 관계에서 생활자원, 사회 자원, 심지어 합법적인 체류 경로 획득 등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 관계는 성적 호혜 및 이익 호혜적 관계이며,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존 및 발전 전략이며,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전략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관계의 합법성, 이익 공동체, 성(性)과 출산의 당위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내의 부부관계 및 가정 외의 임시커플 관계를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부부관계 파열 이후 1.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의 양육권 및 체류자격 취득하는 주요 목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2. 결혼이주여성은 미등록 이주남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하나의 이익 공동체 형성. 3. 혼인은 단지 성과 출산의 정당성만 보장, 그 반면에, 미등록 이주남성과 혼외 사실적 혼인관계의 형성은 가정 내에서 그 당위성이 찾을 수 있음. 그러므로 임시커플 현상은 단지 사적인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보이지만, 법률적

* 경상국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tiantian1007@kakao.com)

남편과 사실혼 남편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가정 내의 부부관계와 가정 외의 법제도, 사회,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여성들의 심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다. 이런 비(非)도덕적인 문제는 사회 측면의 거시적 요인,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적 공간적 요인 등과 관련돼 있다. 본고는 다문화가정의 갈등, 충돌을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려고 하고, 이를 토대로 건 강한 다문화사회를 유지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임시커플,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관계의 합법성, 이익공동체, 성과 출산의 당위성

1. 서론

1970년대에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급심한 사회변동을 맞이하였고, 90년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 경제의 지구화에 더하여 외국인 이주자가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다. 아울러 가치관, 사회, 인구학, 개인적 및 가족요인(김승권, 2005) 등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도시 이주로 출산률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결혼 시장에서 결혼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이 심화됨과 동시에 여성 교육 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양성평등 관념의 광범위 확산으로 결혼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하였다(김두섭, 2006). 결혼적령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 상황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한국 남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족 유형이 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지만, 2022년부터 결혼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고, 2024년에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대비 27.2% 증가하여, 이 중에서 중국인 아내는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19%, 2위로 차지하였다¹⁾.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외감, 외로움, 언어 및 문화차이에 따른 혼란, 가족갈등 등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이 당사자의 대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유발(임혁, 2010)될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낮은 사회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익숙한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로 인하여 느끼게 된 고독감, 외로움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동질적인 중국인 집단에서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달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과 이주, 정착하는 동시에 동질적 집단속에서 동거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들과 이주노동자 사이의 이런 일시적인 혼외 동거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입국 외국인 및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 말 411,270명이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3년 말에는 423,675명으로 3%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20대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64,199명으로 15.2%로 2위로 차지하였다²⁾.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은’ 불균형한 상태이면서, 이 사이에서 ‘임시커플’

1) 「2024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2025. 3. 20., <https://kostat.go.kr/ansk/> [2025. 3. 20]

2) 「2023년 통계연보」,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2024.6.28., <https://www.moj.go.kr/moj/532/subview.do> [2024.6.8.]

규모가 커지고, 현대사회 사람들의 가치관이 더욱 개인주의로 전환하여 가정의 불화, 해체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경제적 관계가 엉켜 악성범죄를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2020년의 대립동 남녀 살인사건³⁾, 용인 옛 연인 살해 후 시신훼손한 살인사건⁴⁾,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 연인 폭행해 살해한 사건⁵⁾을 보면 사건의 당사자 간에 모두 ‘임시커플’ 관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의 안정성과 통합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의제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중국인 아내는 전체 결혼이주여성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시커플’,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혼외 양성관계는 아직 주목받지를 못하고 있다.

혼인은 남녀가 경제생활, 정신과 물질 등의 분야에서 동등하게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 윤리, 정치, 법률 등의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 부부로서 같이 가정을 꾸리는 사회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법적 구속, 관념과 문화에 따라 친밀감이나 성적 표현으로 인정받아 결혼을 통해서 성립을 선언한 인적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결합이다. 감정, 경제, 신앙, 사회, 개인생활, 생리적, 심리적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해, 혼인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위한 합법적인 결합 또는 계약이다. 즉, 사회학의 측면에서 혼인은 양성 간에 결합하게 된 특별한 사회관계이며, 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규범성이다. 진정한 이상적 혼인은 단지 성적 조화일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 감정의 조화, 재미와 흥미의 결합이며, 더불어 사는 협력 발전, 자녀 출산을 위한 가능한 협력의 장, 그리고 경제적 단위 집단이기도 하다(해블록엘리스, 2020). 결혼이주여성의 혼외 양성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혼인 외의 관계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며, 경제적 이익 관계를 얻은 것은 혼인 내에 갈등과 충돌이 존재하고, 이 문제는 또 혼외 양성관계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예측하며, 이런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조직의 구성으로 건강하게 가족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임시커플’이란?

위에서 제시된 독특한 형태의 양성관계는 중국 학계에서 처음에는 ‘搭伙夫妻(주로 둘이 붙어사는 상태를 가리키다)’라고, 그 뒤에 ‘临时夫妻(임시로 구성된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비공식적이고 짧은 기간의 동거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로 바뀌었다. 한국의 결혼이민자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간에 형성된 이런 양성관계는 이익관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집단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확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서로의 독립성이 아주 강한 두 사람의 결합이다. 법으로 유지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례상의 정의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생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며,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공유된 재산이 없는 집단이다. 이는 보통 커플과 달리 결합하는 데에 결혼하자고하는 기반이 없으며, 성적, 정서적 욕구, 경제적 목적 혹은 발전 기회 등 획득하는 목적 등

3) “대립동 남녀 살인사건”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 2022. 1. 12.,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6953.html [2022. 1. 12.]

4) “동부서, 옛 연인 살해 후 시신훼손 중국인 검찰송치”, 2020. 8. 10., 『용인신문』, <https://www.yonginilbo.com/news/article.html?no=86227> [2020. 9. 10.]

5) “제주서 전 연인 폭행해 살해한 30대 중국인 구속”, 2025. 1. 28., 『제민일보』,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516> [2025. 1. 28.]

이익관계를 중심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법적 약속 없어, 관계 유지하는 기간에서 관계가 매우 약하고, 그 결합 및 해체는 쉽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협력관계로 보여, 이런 양성관계는 ‘임시커플’로 한다.

2) 다문화가족의 기능론적 접근

기능론에서는 사회를 상호 관련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 본다(조정문 외, 2007). 상호관련 된 부분 체계가 기능을 수행되어야 사회체계가 유지된다. 즉, 사회의 유지, 통합 및 지속을 수행하게 하는 이 체계에 존속하는 부분 체계들이 작용하고, 기능을 잘 수행하기 때문이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도 전체 사회 체계에 존속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구조기능론적자들은 가정하여, 가족과 사회제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의 기능을 확인을 하여, 재생산과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를 가족의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강홍열 외(2006)⁶⁾ 제시된 재생산 기능, 정서적 기능, 교육적 기능, 경제적 기능, 복지 5가지기능에 논의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돌봄과 양로하는 복지 기능도 이제 점점 더 가정 밖에서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있고 현대사회는 가족의 재생산 기능이 약화되고, 성과 출산이 가정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은정(2024)는 오늘날 지식 중심의 교육적 기능의 상당 부분이 가족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가족이 가장 작은 사회라고 볼 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정서적 기능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⁷⁾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의 주된 어려움은 언어문제(34.0%),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33.3%), 자녀양육과 교육문제(23.2%)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자녀의 교육, 정서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짐작 할 수가 있다.

여성들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바로 사회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에 따라 결정하는 실용적인 욕구이다. 예컨대, 물의 공급, 건강관리, 고용 등 부족한 생활 조건. 또 하나는 젠더 측면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한 전략적인 욕구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의 종속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욕구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별, 노동 분업, 권리와 통제권, 합법적인 권익, 가정 폭력,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성의 신체 통제권 등 포함한다(佟新(2021)). 한국 사회의 발전,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시민권 개념은 가부장제의 통치 체계에 도전하고 있으며, 여성운동은 젠더 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젠더연구의 발전도 촉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설계, 사회전체의 성인지, 이주여성의 취업차별 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남성의 보편적 우선권을 가진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존재한다. 한·중 문화, 가족관계(특히 부부관계, 고부관계)의 차이를 느끼며, 한국 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새로운 의식과 행동규범의 틀에 끌어하려는 시도, 감정 및 성에 대한 욕구, 가정폭력, 경제적 궁핍,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권도 가지고 못하는 체, 가정 내의 불평등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직면해야 할 현실적 경험으로 이는 은연하게 불평등 한 젠더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6) 김은정, 「가족 기능,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및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제36집 2호, 2024, 06, pp. 199~227. 제인용

7) 김이선 외,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1. p.131.

젠더의 관점에 따르면, 사적 영역의 개념은 가정 네트워크로 형성된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공적 영역은 법제도 등 국가의 힘이 개입하는 생활 영역을 의미한다(佟新, 2021).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의 부부관계, 미등록노동자와의 임시커플관계를 공적 영역에서 법제도의 측면에서 관계의 합법성, 사적 영역에서 경제적 기능이 수행하여 이익 공동체의 형성여부 및 성(性)과 출산과 관련된 재생산 기능에 대한 살펴보고, 이로 통한 관계, 이익, 성 및 출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의 선정

1) 연구방법

본인은 2018년부터 중국인 이주자들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같은 지역 출신이라서 지금까지 일부 이주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들의 모임에도 참여하였고, 여러 차례 며칠 동안 같이 생활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근거리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경험들이 본 연구에도 녹아 있다는 점이 먼저 여기서 밝힌다.

본 연구에서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대상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하여, 참여자와의 개별 심층면담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문헌 수집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론 비추, 선행연구 검토하고, 심층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의 주관적 및 객관적 인식에서 임시커플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을 시도하도록 유도, 더불어 기존의 연구 성과 및 미디어, 홈페이지 자료 활용하여 혼인내의 결혼이주여성의 혼외 '임시커플' 관계의 형성을 촉진된 원인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성역할, 젠더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내적 요인 및 가족외적 요인 두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가정의 갈등을 살펴보고, 가족기능이 가동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로 임시커플의 결합을 촉진하는 사회적 요인을 탐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탐구하려고 시도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개인이 이 사회현상의 참여자, 관찰자로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제시를 최소화하며 주로 임시커플관계, 가족내적 요인, 가족외적 요인, 크게 3개의 주제를 나눠 또 다시 각 주제별로 아래<표1>와 같이 하위주제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1> 심층면담 주제 및 하위주제

주제	하위주제
'임시커플' 관계 (형성, 유지, 종료)	동기, 결합된 방법, 종료원인 및 시기
	생활의 변화, 의사결정권
가족내적 요인 (가족기능의 측면)	가족 내 의사결정권
	가족 간의 갈등(성, 정서, 경제)
가족외적 요인 (사회문화, 법제도)	사회자원 확보
	취업경로

2) 연구대상의 선정

임시커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는 이주노동자들 끼리 같이 붙어서 생활하는 동거관계,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형성된 비혼 혹은 혼외 양성관계이다. 더 자세한 유형 분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시커플'의 유형 및 특징

	'임시커플' 결합방식		특징
외국인노동자들의 동거	등록노동자 + 등록노동자		성, 정서적 수요 및 생활부담 줄이자는 경제적 목적
	등록노동자 + 미등록노동자		
	등록노동자 + 미등록노동자		
결혼이주자의 비혼/ 혼외 동거	결혼이민자 + 등록노동자		1. 성, 정서적 만족 및 생활부담 줄이자는 경제 적 목적 2. 사회적 공간 확장 3.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취득 경로 도모
	결혼이민자 + 미등록노동자	위장결혼 (혼인관계 유지 / 영주권 혹은 귀화 이후 이혼)	
		정상적인 혼인 (혼인 중단/혼인 관계 유지)	

외국인노동자들의 동거를 통하여 형성된 임시커플은 한국과 다른 문화적 요소를 지닌 하나의 집단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동거 및 결혼이민자와 등록노동자의 동거는 주로 성, 정서적 수요 및 생활부담 줄이자는 경제적 목적이다. 결혼이주자의 비혼/혼외 동거 중 위장결혼 결혼이주자의 혼인이 한국이주 및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한 하나의 경로일 불과하고, 남편과 단지 법적 의미에서의 부부관계, 하나의 협약관계이며, 진정한 가족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정한 결혼생활의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과 미등록 노동자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임시커플 관계를 연구대상을 삼아, 관계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등록 중국인노동자들은 '최대의 유동성, 최대의 익명성, 최대의 사회자원 취득 제한,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 등 특징으로, 결혼이주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 간에 형성된 혼외 동거관계는 더욱 깊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예측하고 아래 <표3>의 대표 사례로 통해서 임시커플을 살펴 볼 것이다.

<표3> 대표 사례

	여성의 체류 자격	기본 상황 및 현 상태
A	귀화	1. 같은 고향 출신. 2. 여성은 남성의 생활편리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구매. 3. 남성은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
B	F6	1. 남성은 여성의 음식점에 투자. 2. 코로나 때 남성이 귀환, 투자이민으로 재입국 시도하지만 실패. 귀환 한 달 정도 여성에게 이별 통보 받음.
C	F6	1. 여성이 안전교육 받고 남성은 여성의 명의로 공사현장 일함. 2. 남성은 귀환, 고용허가제로 한국 재입국시 비자 신청 및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차질. 재입국 후 여성이 계속 핑계로 만남 거부, 자연스럽게 관계 종료. 3. 관계 종료 이후,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는 남성의 제의 거절.

4. 가족기능의 관점에서 본 ‘임시커플’

가족은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생활 조직으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정의는 머독 (Murdock, 1949:1)은 ‘경제적 협동, 공동거주,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타적인 성관계, 자녀양육’, 이 네 가지 요소를 지적하였다⁸⁾. 전통적 가족 가치관은 개인보다 가족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가족은 경제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적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을 통한 재생산의 기능을 하고,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제공하는 사회적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김은정, 2024). 현대사회에서 산업의 발달, 문화 및 인구의 초국가 이동, 우리 사회관계의 변화, 독립성, 자율성, 개방성, 포용성 등의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주말부부의 경우는 공동거주를 하지 않고, 무자녀 가족 또한 전통적 가족에 한정하지 않는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성행위는 일정한 종범과 법률 의식을 통해 규범화된 부부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가족 외에 법적 구속 없는 동거 가족도 이제 하나의 가족형태로 보았다. 인간의 성행위도 날로 출산과 분리되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위주로 하는 인생의 일부가 되어, 가족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김은정(2024)은 가족의 기능은 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가족의 역할은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장경섭(2011)⁹⁾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복잡다기한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해왔으며 그 기능들 사이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하였다.

1) 관계의 합법성

법률상의 가족관계는 혼인, 혈연 또는 법률에 기반으로 형성된 일정 범위의 친족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의미한다.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일종의 인연 관계로 특수한 사회 제도적인 관계이며, 혈연관계에 기초한 다른 가족관계에 비해 안정성이 낮고, 감정이 깨지고 혼인이 해제되면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일시적이며 불안정성과 일시성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24년 외국인 여성과의 이혼은 4,200건¹⁰⁾으로 한국 전체 이혼의 4.6% 차지하였다.

한국 남성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현저하게 젊은 여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김현정(2020, 김은정 외(2017) 등은 자기 연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지배권을 점유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런 혼인 관계는 다시금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 또는 국적취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2017년에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결혼상태를 유지 중이거나 결혼 관계가 해체된 경우를 포함)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설문 대상의 42.1%가 경제적 학대를 포함하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외, 2017).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하게 되어 다문화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2017년(839건)에 비해 51.7% 늘어났다(신은별, 윤향희, 2022). 큰 피해를 보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체류 자격을 한국인 남편의 협조에 의존한다고 대답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 연장 시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배

8) 조정문, 장상희, 『가족사회학』, 아카넷. 2007, pp.23-29. 참고.

9) 김은정, 위의 논문, 제인용

10) 「2024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2025.03.20. <https://kostat.go.kr/ansk/>, [2025.03.20.]

우자의 협조가 필요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의 비협조나 악의로 체류 자격을 좌우 당할 가능성을 염려(김현정, 2020)하자 그녀들은 남편의 의사에 종속된다. 체류를 연장하지 못하여 이른바 불법체류의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다(송서순, 2009)는 염려에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한국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체류 자격이나 국적 취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녀 양육권이 남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이다(민기연·이영선, 2020).

혼인 관계가 유지하고 결혼이주여성이 간이귀화 하려고 하면 귀화 기간 요건도 어려운 점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2년의 혼인 및 거주 기간을 원칙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내 주소가 필요하고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서류나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양현아, 2013). 김현정(2020)은 귀화 신청 후 실제 귀화 허가에 이르는 데에는 또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제 귀화에 필요한 것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의 취득 및 국적 정책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파열하더라도 이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2) 이익 공동체

전통사회에서 가족과 일의 균형은 성별 분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도 대부분 가족의 생존 모델이기도 하다. George Murdock(1949)은 200여 개 사회 집단에 대한 다문화 연구에 따르면 모든 문화에는 노동의 성별 분업이 존재하며 여성은 가사와 가족 책임에 집중하고 남성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또 가장 편리하기도 하다¹¹⁾. 이는 여성의 가족 역할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모델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높은 의무감, 책임감, 비교적 명확한 분업 협력으로 나타나며, 아내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을 담당하고, 남편은 돈벌이와 개인 능력 발전 등 자신의 임무로 하면서도 가능한 한 아내가 가사 노동을 돕는 것으로, 그 공동 목표는 가족구성원이 더 잘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는 더욱 상호 의존적이며,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의 이익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은정 외(2017)는 실제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한중 국제결혼 배우자의 선택 과정에서 한국 남자들은 현저하게 젊은 여성을 선택하여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배우자와 연령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어서 남편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거나 이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많은 여성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아이를 키우고 자녀의 미래를 대비하여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역할 - 유급 노동에서의 직업적 역할뿐만 아니라 가정 역할 - 가사 노동에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로 노력하였지만, 개인적, 가정적 측면의 제한뿐만 아니라 아직도 취업시장에서 차별을 당하고¹²⁾, 다양한 요인으로 노동 시장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가정에서는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 또한 남편의 역할 부족으로 인해 이 두 역할의 부담이 똑같이 무겁고, 계층을 뛰어넘거나 소

11) 李银河, 『女性主义』, 山东人民出版社 p9.. 재인용.

12) “외모·말투 이유로...고학력 결혼이주여성도 취업차별 일쑤”, 『국제신문』 2025.2.2.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50203.22008000085>. [2025.2.2.]

득이 많이 향상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중국인 미등록 노동자들은 대체로 언어, 신분, 기술, 교육 수준 등의 제한으로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들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일하는 분야도 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구조의 주요 부분에서 차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자신의 계층에 있는 한국의 사회 상황에 익숙해지고, 언어적 소통도 어느 정도로 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익숙한 업무 분야에서 일정한 인맥을 쌓아 생존과 발전의 기반을 얻었다. 일부 미등록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과 자본을 확대하여 자신의 생존과 발전 방향, 경제 공간을 모색하고 조정할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자본과 자본에 의지할 여력이 부족해서 수직적 발전 공간을 가질 수 없고, 수평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하도급업자와 일용노무자’이라는 등급이 생기기 시작하여, 주로 농사 혹은 건축 현장에서 보인다. 하도급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일거리를 찾아서 일용노동자를 차로 태워 현장에 가서 일하고, 이 중에서 일용노동자들의 일급 일부를 떼어 갖는다는 방식이다.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단계에 오르면 자동차가 필수라서 여성의 명의로 구입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사업하거나, 심지어 합법 체류를 위해 고국에 있는 아내와 이혼하고 귀화, 혹은 영주권을 가진 독신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이주 방법까지 도모한 미등록 남성 노동자도 있다.

외국인 실업자들의 구직 경로(복수 응답)는 친척·친구·동료(50.8%)¹³⁾. 이에서 그들에게 사회관계망이 생존과 발전의 기초이며, 취직하는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임시커플들이 가치교환을 통해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회관계망 확장하여, 경제 수입이 증가하고, 생활 자원, 소득을 얻는 능력이 향상했다는 이익이 확인되었다. 임시커플은 양쪽의 사회관계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더 큰 사회적 연계가 된 일종의 양성관계로, 결혼이주여성과 미등록 이주 남성에게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생활, 생존 및 발전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난제에 대처하기 위한 양 측의 이익을 극대화 해 하나의 이익공동체로 볼 수 있다.

3) 성, 출산의 당위성

W.Melton & D.L.Thomas(1976)는 배우자 선택 기준을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눴다. 첫째는 도구적 기준으로 경제, 사회적 지위 등의 기준을 포함하고, 둘째는 감정적 기준으로 감정의 조화 등의 요소를 포함했다. 그리도 혼인의 가장 큰 상징적 의미는 바로 출산을 합법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다. 본고가 임시커플 관계를 이런 다문화 가정을 관찰하고 살펴 한 결과는 아내의 역할은 매우 강한 ‘도구적 역할’, 즉 출산 임무를 수행하여 가족 대를 잇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경제적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녀가 출산한 후 여성은 남편에게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그들의 결혼은 단지 법적인 의미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어떠한 응징력도 없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경제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아내와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음).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가족생활에서 안정감,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박민자(2002; 2004)는 혼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남녀 공동으로 답하였지만, 이 외에 남녀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아직도 ‘경제적 안정’

13)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5. 3. 18, 통계청, <https://kostat.go.kr/anskr/>. [2025. 3. 18.]

이라는 의존 지향적 이유를 들고 있고, 남성들은 자녀 출산, 성적 욕구 충족과 같은 전통적 의미를 아직도 혼인에 부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김은정 외(2017)는 국제결혼은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평등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도구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국제결혼 아내의 목적은 더 나은 삶과 발전 기회를 얻기 위한 한국에 오는 것이고, 남편은 아이 출산하는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여성의 성 및 출산이 완전히 분리하였으며,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여성의 성적 욕구는 혼외에서 충족시켰다. A 사례의 결혼이주여성은 혼외 임시커플 관계 형성하는 필연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생활비 한 톨도 안 주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아이를 낳고 그 뒤부터 잠자리도 없어요. 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3, 40대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 여자만의 잘 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 결론

임시커플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衣华亮(2008)은 심리적으로 부부의 분리, 심리적 스트레스, 외로움, 생리적으로 이성애에 대한 열망, 물질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고 보고, Lee Hay aon(2011)는 필리핀 여성의 임시커플은 가정부들은 이국에서 상류사회에 진출하는 일종의 사교 수단으로 본다. Seidman Steven(2012)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태국의 '렌트아내'는 성(性)관광으로 지방 경제를 이끌었고, 여성들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 운명을 바꾼 기회를 보았다. 이 외에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 간의 매력이 약해진다는 가설 대신 외출 청년 농민공이 생활의 짜릿함을 찾기 위해 관계를 꾸리는 경우(Perviti, Amato.P.R, 2003)로 보고 있는 관점도 있다¹⁴⁾.

기능론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임시커플을 보면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에서 정서적, 생리적 욕구를 만족하지 못한 채, 대를 잇는 도구적 역할만 하였다. 큰 피해를 입고, 부부관계가 파열해도 법제도 때문에 체류 자격 및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남편과 혼인 관계 유지했으나, 성과 출산이 분리되어, 부부관계는 다만 자녀 출산을 정당화하고, 부부관계에서 채우지 못한 성적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편의 성역할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와 협력해서 경제적 부담 해소, 일자리 확대, 사회자원 창출 등 이익의 공동체가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중국인 이주노동자와 같이 기존 사회지원 네트워크를 이탈, 한국의 사회 환경의 배제로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험하는 만족, 기쁨 등 같은 정서적 보상을 획득 못 할 더러, 언어의 장벽, 문화의 이질성, 높은 생활비용, 심리 상태의 불안, 정서적 욕구 등은 하여금 한국에서 '뿌리가 내리다'라는 소속감과 만족감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같은 중국인 집단 내부의 임시커플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호혜적인 교환관계를 형성하여, 임시커플은 부부관계보다 더 많은 가족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관계의 결합과 해체는 매우 빠르고,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시커플은 양측의 성적 호혜 및 이익 호혜적 관계로 보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생존 및 발전 전략이며,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14) 陶自祥, 「临时夫妻: 青年农民工灰色夫妻关系及其连带风险」, 『中国青年研究』(07). 2019. 재인용.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임시커플 현상은 단지 사적인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보이지만, 법률적 남편과 사실혼 남편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가정 내의 부부관계와 가정 외의 법제도, 사회,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여성들의 심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다. 이런 비(非)도덕적인 문제는 사회 측면의 거시적 요인,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적 공간적 요인 등과 관련돼 있다. 본고는 다문화가정의 갈등, 충돌을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려고 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유지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둥지 형성’
— ‘슈춘(樹村)’의 형성과 해체를 중심으로

장신편이*

【목 차】

1. 서론	2) 슈춘(樹村)의 형성
1) 연구배경 및 연구의의	3) 슈춘(樹村)의 상징적 기호
2) 선행연구	4) 슈춘(樹村)의 해산
3) 이론적 분석	3. 재현체계에서 구성체계로의 도약 시도
4) 연구방법	4.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딜레마와
2. 슈춘(樹村)의 재현	진로
1) 슈춘(樹村)이 형성되기 전의 시대적	5. 결론
배경	

【 초 록 】

인디음악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개혁·개방의 물결과 함께 중국으로 전해져 왔다. 중국 인디음악의 초기 물리적 공간 매개체인 슈춘(樹村)은 중국 인디음악의 유토피아로 알려져 있다. 슈춘(樹村)에는 전국 각지에서 인디음악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음악을 하고, 밴드를 결성하고, 악기를 배우고, 가끔 바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이 밴드들 중 일부는 점차 유명해져서 음반을 발행하고, 언론에 노출되고, 심지어 해외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슈춘(樹村)은 중국 인디음악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매개체인 슈춘(樹村)의 형성과 해체 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재현한다. 중국 인디음악의 초기 발전 매개체인 ‘슈춘(樹村)’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인디뮤지션, 음악 평론가, 음악 팬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터뷰 다큐멘터리, 음악 예능 프로그램과의 인터뷰, 그리고 기타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발전을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제시한 발전 체계를 기반으로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경제적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이 직면한 딜레마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키워드】 중국, 인디음악, 슈춘(樹村), 정치경제학, 진실성

* 제1저자. 국립부경대학교 박사졸업 (zxppppppp@outlook.com)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의의

중국 인디음악의 기원은 20세기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서양 인디음악의 도입과 영향으로 개혁·개방의 물결과 함께 중국에 전해져 왔다.¹⁾ 새로운 형태의 음악 문화로서 인디음악은 곧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첫 번째 발전 위기에 직면하였다. 인디뮤지션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장소인 베이징 슈춘(樹村)은 이러한 젊은 인디뮤지션들을 받아들였고, 중국 인디음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요즘 대중의 이목을 끄는 인디뮤지션도 대부분 슈춘(樹村) 출신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경제환경은 정치개혁의 침체와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로 인해 완전한 발전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1990년대 최초의 인디뮤지션들은 종종 인디음악 상업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시기 중국 인디뮤지션들의 위기감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상업 자본과 대중문화의 초기 결합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 인디음악이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고, 2000년을 전후해 팝 음악 산업화의 영향으로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은 추운 겨울을 맞았다. 본 연구는 중국 인디음악에 관한 중국과 서양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음악 정치경제학 이론을 인용하여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 특징을 결합하였다. 또한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 동인,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에 미친 정치 및 경제환경의 영향, 인디뮤지션의 정체성, 그리고 당면한 발전의 딜레마와 진로 등 다양한 문제를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 사고방식과 관점이 중국 인디음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에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선행연구

인디음악의 개념은 음악학, 미술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많은 학문에 포함되고 있으며, 그 의미와 내용이 세분화되고 불분명하게 정의되었다. 학계는 여전히 서양에서의 ‘음악’의 비교적 성숙한 기본 개념과 다른 학과 분야의 연구 방법에 의존하여 연구하고 있다. 필자는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버밍엄 학파, 포스트 하위문화 연구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디음악 현상(왕리위안지에(王驪媛潔), 2018), 인디음악의 관념(류징슈(劉經樹), 2012), 음악 공간(첸타오(陳濤), 2016), 뮤직 페스티벌의 문화적 재현(우샤오펑(吳少峰), 2019), 하위문화의 관점에서의 정체성(리우베이(劉蓓), 2017) 등 인디음악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였다. ‘슈춘(樹村)’을 연구대상으로 한 문헌의 주요 연구관점으로는 상징적 관점, 공간적 관점, 시각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등이 있다. 류산산(劉珊珊)의 논문은 공간 시각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례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중국 도시 내 촌락과 도시-농촌 결합부의 재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²⁾ 첸타오(陳濤)의 문장에서는 상징적 시각을 통해 중국 인디음악 장르의 영화에서 베이징의 공간에 대해 의향적인 해석을 하였다.³⁾ 리탄(李檀)은 관찰과 카메라 녹화를 통해 서사의 방식으로 슈춘(樹村)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노력하였다.⁴⁾ 1990년대

1) 馮春萍, 「中國獨立音樂人的發展路徑研究」, 『中國民族博覽』, 第17期, 中国民族文化艺术基金会, 2021, pp.131-133.

2) 劉珊珊, 「城鄉結合部的視覺現狀研究」, 清華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3) 陳濤, 「中國搖滾電影中的北京空間」, 『當代文壇』, 第17期, 四川省作家协会, 2016, p.5.

중국 인디음악 발전에 관한 연구와 가장 가까운 것은 2005년 왕쓰치(王思琦)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 <1978~2003년 중국 도시 팝 음악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다.⁵⁾ 선행연구는 높은 참고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와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

3) 이론적 분석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이다. 본 연구의 이론은 그의 저서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학(Noise: The Political Economy of Music)>에서 비롯되었다.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학>에서 음악의 발전 단계를 희생(Sacrificial), 재현(Representation), 반복(Repetition), 구성(Composition)의 네 가지 구조적 체계로 나누었다. 각 체계는 당시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 및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은 모든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다양한 매체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희생체계는 명령, 종교적 상징, 사회 또는 경제 관계로 구성된 체계이다. 이 체계는 인간이 자연 환경과 다양한 현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초기 역사 단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은 매우 강한 권위와 억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본질적으로는 제사 의식에 사용되었다. 즉, 음악이 희생의 부수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모든 상업적 교환에 앞서 정치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 사용되었다.⁶⁾ 정치적 차원에서 음악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이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 그 권력은 분산되어 있다. 기능적으로 희생체계에서의 음악은 이차적 형식으로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급자족하고 질서 정연하게 생산되는 부속품에 불과하다.

18세기부터 '의식화'의 특징이 뚜렷한 희생체계는 재현체계로 발전하였다. 음악가라는 직업은 원래 마을에서나 궁정에서나 구별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봉건 시대 영주에 속하는 직업으로 바뀌었다.⁷⁾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궁정 음악가는 일종의 공무원이었고, 그는 단지 그의 영주로부터 지시를 받을 뿐이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재현체계 단계에서 음악가들은 공연을 하거나 자신의 악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재현체계에서 음악은 일반적으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며 청중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세기 말, 서구의 녹음 기술이 발명되었을 때, 그것은 재현체계에 대한 정치적 보조도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발전은 당초 그 발명의 목적과 반대되었다.⁸⁾ 음악 복제의 가능성이 더 이상 권력에 의해 규제되는 사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사물에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음악 비축의 경제적 과정이 일어났다. 이로써 반복체계의 초기 형태가 형성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소비산업의 탄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산업의 운영은 자본 집중화의 과정이다.⁹⁾ 전반적으로 반복체계의 주요 특징은 생산 공정에서 새로운 요소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인한 공급 생산 방식의 변화이다.

마지막 체계는 구성체계로, 아카데미에서 훈련 받지 않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로 새로운 질문에 답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형식적으로는 불안정하며, 새롭고 즉각적

4) 李檀, 「霍營 北京搖滾公社」, 『藝術評論』, 第5期, 中國藝術研究院, 2005, pp.58-61.

5) 王思琦, 「1978-2003年間中國城市流行音樂發展和社會文化環境互動關係研究」,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6) 최유준, 「제의와 재현, 그리고 소음: 아탈리의 음악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미학예술학연구』, 제66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21., p.47.

7) 阿達利, 『噪音: 音樂的政治經濟學』, 河南大學出版社, 2017, p.104.

8) 阿達利, 같은 책, p.190.

9) 阿達利, 같은 책, p.222.

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제안 없이 그룹 플레이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생산 방식에 가깝다.¹⁰⁾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때 집중하는 것은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에 있다. 결론적으로, 구성체계에서 상품 생산의 전반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음악 제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생산 도구로 변환된다.

<표1-1>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학> 이론 요약

	희생체계	재현체계	반복체계	구성체계
정치와 이데올로기	고도로 중앙 집중화	비교적 고도로 중앙 집중화	개인화, 상업성 나타내기 시작함	개인화, 아방가르드
자본	분산	비교적 분산	집중	이탈
창작 독립성	매우 약함	약함	비교적 약함	강함
특징	종교, 성직자, 축하 행사	지배계급	상업 자본	개인
역사적 단계	소음, 폭력, 안내	고용, 찬송, 칭찬	상거래, 복제, 안내, 소비	개인화, 일반인화, 차별화
기능	인류의 초기 단계	봉건 시대, 국가 개념이 형성된 시기	녹음 및 기타 과학기술 발전 시기	—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특징과 함께 참여관찰 방법, 현장 조사 방법, 문헌 검색 및 읽기 방법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원활한 작성을 도모하였다.

참여관찰 방법은 본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연구 방법이다. 인디음악은 직관적이고 생생한 예술적 표현형식으로서 다양한 주체의 직접적인 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연구자로서 라이브 공연, 뮤직 페스티벌, 리허설, 녹음 등 인디음악과 관련된 라이브 및 무대 뒤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논문 연구에 신선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인디음악의 작업 종사자, 음악가, 무대 뒤 스태프, 관객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동시에 관찰에 참여하여 향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장 조사 방법은 본 연구의 주된 방법이다. 인디음악은 라이브 연주를 주요 표현 방식으로 하는 예술 형식으로서 논문 작성을 위해 현실 속 실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문헌에 부족한 부분은 전문인원에게 현장 질문을 하여 세부 사항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문헌 검색 및 읽기를 통해 이론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현재 연구의 포화 및 단점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논문 분석의 틀을 확정할 수 있다.

인터뷰대상 및 인터뷰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10) 최유준, 위의 논문, p.57.

<표1-2> 인터뷰 요약

No.	인터뷰 대상	간략한 소개	인터뷰 내용 요약
1	슈춘(樹村) 원주민1	슈춘(樹村) 집주인	1. 중국 인디음악이 처음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2	슈춘(樹村) 원주민2	최초 슈춘(樹村) 원주민	2. 슈춘(樹村)이 중국 인디뮤지션들의 모임 장소인 이유는 무엇인가?
3	슈춘(樹村) 원주민3	슈춘(樹村)으로 이주한 주민	3. 슈춘(樹村)이 해체된 원인
4	슈춘(樹村) 원주민4	슈춘(樹村) 주택중개업	4. 인디뮤지션에 대한 슈춘(樹村) 원주민의 태도
5	DM 밴드 멤버 4명	베이징 인디 밴드, 베이스리스트는 Beijing Midi School of Music(北京迷笛音樂學校) 졸업, 기타리스트는 Beijing Contemporary Music Academy(北京現代音樂研修學院) 졸업	1. 슈춘(樹村) 해체 후 인디뮤지션들은 어디로 갔는가? 2. 인디뮤지션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슈춘(樹村)의 인상과 슈춘(樹村)이 중국 인디음악 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무엇인가?
6	S양	베이징에서 생활, 현재 예술 분야에서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 예술 평론가	3.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무엇인가?
7	D씨	레코드 가게 주인	4.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8	L씨	유명한 밴드의 베이스리스트, Beijing Huawei School of Music(北京華偉音樂學校)	

2. 슈춘(樹村)의 재현

1) 슈춘(樹村)이 형성되기 전의 시대적 배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새로운 사회주의 음악 체계의 탄생을 의미한다. 마오쩌둥(毛澤東)이 1942년 옌안(延安)에서 한 연설에 따르면, 음악 창작과 제작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상업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였다. 이 시기 권력을 장악했던 ‘4인방(四人幫)’이 몰락한 후에 음악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면서 서양 음악이 중국 본토에 유입되었다. 중국 인디음악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문화의 물결인 ‘북서풍’에서 시작되었다. 1986년 추이지안(崔健)은 베이징노동자체육관(北京工人體育館) 무대에 올라 청바지와 어깨에 기타를 메고 현대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이로부터 중국에 새로운 형태의 음악 문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부터 베이징에서는 더 많은 밴드가 결성되고 특정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1989년 천안문 광장 학살 사건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인디음악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一無所有)>와 <최후의 총성(最後一槍)>과 같은 작품은 엄격한 검열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는 중국 인디음악이 1990년대 언더그라운드에서 발전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디음악의 영향력은 새로운 세대 젊은 뮤지션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인디음악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이는 또한 슈춘(樹村)이 중국 인디음악의 초기 ‘인디음악 유토피아’라는 전제를 마련하고,

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2) 슈춘(樹村)의 형성

Beijing Midi School of Music(迷笛音樂學校)을 베이징 인디음악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놓는 첫 번째 목적지로 간주하였다.

슈춘(樹村)은 바로 Beijing Midi School of Music(迷笛音樂學校) 옆에 위치하고 있다. 슈춘(樹村) 마을의 월세가 매우 저렴했기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이거나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초기 임대료는 한 달에 수십 위안에서 수백 위안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슈춘(樹村)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언더그라운드 음악 공동체의 객관적 조건을 갖췄다. 이 때문에 전성기에는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인디 뮤지션이 이 마을에서 집을 임대하고 살았다.

<그림2-1> Beijing Midi School of Music(北京迷笛音樂學校)



슈춘(樹村)의 마을 주민은 약 1,190가구에 달했으며, 1,800명 이상이 직업을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 외래 인구는 약 15,000명이 있었으며 그 중 마을에 상주하는 외래 인구는 10,000명 이상이었다.¹¹⁾ 한때 지역주민과 외래 인구의 비율이 1:10을 넘어섰고, 주택 임대는 지역주민의 주요 생계수단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래 인구가 많고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슈춘(樹村) 원주민과 외래 인구 간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슈춘(樹村)의 형성은 원주민과 외래 인구 사이에 타협한 결과이다. 인디음악은 다른 형태의 음악과 다르다. 리허설 할 때마다 들려오는 헤비메탈의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독특한 옷차림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뮤지션들은 슈춘(樹村)을 선택해야만 하였다. 슈춘(樹村)의 이러한 전제 조건은 외래 인구 비율이 높은 주요 원인이다.

“몇 년 전, 낡은 주택을 기반으로 작은 방 8개를 임대용으로 지었고 월수입은 약 1,500 위안에 달했어요.”

“저는 학력도 높지 않고, 기술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 이 월세로 생활할 수 밖에 없으니 외래 인구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 슈춘(樹村) 원주민1에 대한 인터뷰

11) “北京城中村調查之樹村”, 『新京報』, 2004.06.29., <http://news.sohu.com/2004/06/29/92/news220759247.shtm>
1 [2025.04.20.]

슈춘(樹村)의 원주민들은 포용적인 면에서 시대를 앞서갔다. 인터뷰를 통해 외래 인구에 대한 슈춘(樹村) 원주민의 일반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세입자가 뮤지션이다. 슈춘(樹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심지어 보통의 회사원들보다 더 낮다. 당시 슈춘(樹村)은 단순한 리허설 공간만 제공할 수 있었으며 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

“처음에 이 마을 집주인들은 혼란스러웠고, 뮤지션들의 삶의 규칙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집을 임대해 주는 것을 꺼렸어요. 그들은 오전에는 낮잠을 자고 밤에는 신나게 놀았어요. 하지만 2, 3년이 지나자 서로 익숙해졌죠.”

- 슈춘(樹村) 원주민2에 대한 인터뷰

“저는 그들을 지지해요. 그들을 아주 많이 좋아해요. 우리 아이도 스스로 음악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 중국 인디음악의 미래이며, 슈춘(樹村)은 그 발상지예요.”

- 슈춘(樹村) 원주민3에 대한 인터뷰

“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뮤지션이 이곳에서 살았어요. 이들은 아주 착했으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집을 기꺼이 임대해 준 이유는 이들의 마음씨가 나쁘지 않고 모두 분별력이 있으며, 수년 동안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생각이 단순해요. 일반적으로 저는 보통의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임대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 저는 그들을 이해해요.”

- 인디뮤지션의 다큐멘터리 <Border of Freedom(自由的邊緣之見證)>에서 발췌

추이지안(崔健)에 의하면 “현실은 돌과 같고, 정신은 달걀과 같다. 돌은 딱딱한 무생물이지만 달걀은 생명이다.” 뒤에서 보면, 슈춘(樹村)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부화되지 않은 달걀처럼 보이며, 껍질을 깨고 외부 세계를 보고 싶어 하는 듯하다. 이는 그들에게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이다. 슈춘(樹村)과 밴드의 관계는 암탉이 없는 부화장과 달걀의 관계이다. 슈춘(樹村)의 원주민들은 뮤지션들에게 교육 기능을 제공하거나 더 많은 공연 자원을 제공할 수 없으며, 밴드가 모여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할 뿐이다. 슈춘(樹村) 원주민의 포용성은 시대를 앞서갔고, 슈춘(樹村)은 중국 인디음악에 상업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1990년대의 중국 인디음악이 창작 내용과 커뮤니케이션 형식면에서 더 순수했으며 이는 인디음악에 대한 이전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도 일치한다.

슈춘(樹村)의 외래 인구, 즉 인디뮤지션들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쑤즈창(孫志強) 감독의 2002년 다큐멘터리 <Border of Freedom(自由的邊緣之見證)>에서는 슈춘(樹村)에서 생활했던 100여 명의 뮤지션을 녹화하고 인터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주었다. 인디뮤지션에 대한 질문은 먼저 자기소개를 중심으로 이름, 나이, 출생지, 슈춘(樹村)에서의 활동 기간, 밴드에서 맡은 역할, 앞으로의 계획 등이었다.

<그림2-2> 다큐멘터리 <Border of Freedom(自由的邊緣之鑒證)>에서 발췌



“그냥 음악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땐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밴드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잘 먹지 못하고 임대한 집도 낡았지만, 음악을 하는 마음은 되게 단순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은 제가 베이징에 온 것을 몰랐어요. 사실 저는 드림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배울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 와서 배우는 게 앞으로의 밴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슈춘(樹村)의 친구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중국 인디음악이 점점 더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느낌이 달라요. 저는 단지 이 사람들, 또는 제가 그들과 더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 다큐멘터리 <Border of Freedom(自由的邊緣之見證)> 인디뮤지션들의 자술

외래 인구로서 인디뮤지션들이 슈춘(樹村)에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통된 의식이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언가를 배우고 전문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음악을 잘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슈춘(樹村)은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자발적인 공간으로, 인디뮤지션을 위해 가능성과 사용기능을 최대한 제공하였다. 마침내 슈춘(樹村)은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물리적 공간의 매개체가 되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게 물건을 거리로 옮기거나 가게를 창고로 사용하고, 매장 외부에 선반을 설치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수레와 당구대, 길가에 놓인 의자가 공간을 거의 가득 채운다. <Street Observation Studies>에 따르면 이를 ‘자동 스케일’이라고 하며, 이는 자동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 기능이다.¹²⁾

<그림2-3> 슈춘(樹村)의 그래피티



12) 劉嫻嫻, 「從空間敘事的角度解讀城鄉結合部——以北京“樹村”為例」, 『美與時代：創意(上)』, 第3期, 鄭州大學美學研究所;河南省美學學會, 2015, p.3.

이에서 파생된 건물은 의외로 인접성과 연결의 실용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시의 문맥과 원래의 패턴을 과감히 무시했다. 도시 패턴의 속박에서 벗어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뮤지션들은 간단한 리허설룸과 같은 음악 공간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슈춘(樹村)은 주거 기능과 사용 기능을 모두 갖춘 공간이 되었다.

3) 슈춘(樹村)의 상징적 기호

슈춘(樹村)의 형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모순되며, 그 면모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평면 구성의 형성은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시간에 따라 독특한 시각 언어를 구성하였다. 이 특별한 질감과 패턴은 슈춘(樹村)이 상징하는 인디음악 유토피아의 특별한 기호이다.

현대 중국 영화에도 많은 인디뮤지션과 그들의 삶이 표현 대상으로 등장하며, 상징적 기호로서 슈춘(樹村)도 여러 번 등장하였다.

인디 뮤지컬 영화에서 슈춘(樹村)은 독점적이고 독특한 공간이다. 슈춘(樹村)의 특수성으로 인해 슈춘(樹村)의 공간은 어느 정도 인디뮤지션의 근본적이고 주변적인 정체성 특징에 대한 은유가 되었다. 다큐멘터리 성격의 인디음악 영화에서 <Post Revolutionary Era(後革命時代)>, <Border of Freedom(自由的邊緣)>, <로큰롤(搖滾多多)>, <Night of an Era(再見!烏托邦)> 등의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베이징 슈춘(樹村) 인디음악 청년들의 소외되고 주변적이며 곤궁한 생활상을 직접 기록하였다.

<그림2-4> 슈춘(樹村)의 원래 모습의 한 부분



영화 <Beijing Rocks(北京樂與路)>에서 관객이 볼 수 있는 슈춘(樹村)은 활기차고 다채롭다. 또한 후기 제작 과정에서 전체 단락을 특별히 색상 배합하여 색상 대비가 강하고 다채로운 효과를 나타냈다. 영화 <Beijing Rocks(北京樂與路)>을 통해 슈춘(樹村)을 처음 알게 된 관객들은 슈춘(樹村)이 ‘천국’과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림2-5> 영화 <Beijing Rocks(北京樂與路)> 속의 슈춘(樹村)



그러나 촬영 초반에 <Beijing Rocks(北京樂與路)>는 베이징의 많은 언더그라운드 인디뮤지션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이러한 밴드들은 심지어 공동으로 <슈춘성명(樹村聲明)>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중국 록 음악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업 시스템에서 막대한 이익과 자본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지만, 이제 막 등장한 언더그라운드 록은 이전 세대처럼 일찍이 반대했던 주류(상업 음악)속에 합류할 생각은 없다.” 인디뮤지션들이 이 영화에 대해 항의를 한 이유는 그들의 삶, 생각,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언더그라운드 인디음악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또 다른 오해를 대중에게 가져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슈춘성명(樹村聲明)>은 상업 자본과 대중문화에 재편성 되기를 거부하는 인디뮤지션들의 하위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사실 슈춘(樹村)의 기호 상징 자체는 상업 자본이나 대중문화와는 무관하고, 곤궁한 삶과 활력에도 무관하다. 그것은 중국 인디음악의 초기 상징일 뿐이며, 카메라 속 슈춘(樹村)의 모든 요소는 중국 인디음악의 상징이다. 슈춘(樹村)에 사는 인디뮤지션들은 슈춘(樹村)을 중국 인디음악의 유토피아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물질적 조건보다 정신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필자는 슈춘(樹村)이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시대의 상징이자 시대의 흔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4) 슈춘(樹村)의 해산

2000년부터 슈춘(樹村)은 도시마을 개조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그 이후로 슈춘(樹村)의 주택은 차례로 철거되었다. 2010년에는 인디뮤지션들이 살고 있는 슈춘(樹村) 후오잉(霍營) 건물도 개조를 시작했다으며, 모든 가정의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마을 주민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016년 베이징시 인민정부 관공실은 <베이징 2016 판자촌 재건 및 환경 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슈춘(樹村) 주택 철거를 시작하였다. 건설회사는 등록 자본금 20000만위안의 베이징완린(北京萬霖)부동산 개발 유한회사였으며, 슈춘(樹村)의 원래 장소는 만수원(萬樹園) 커뮤니티, 슈춘리징위안(樹村麗景苑) 등 아파트 단지가 되었으며, 대부분 슈춘(樹村) 이주 가구가 살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이전에 슈춘(樹村)에 살았던 인디뮤지션의 집주인이며, 원래 주택이 철거된 후 새로운 아파트 건물에 살게 되어 기뻐하였다.

<그림2-6> 슈춘(樹村)의 현재 모습



“사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호우잉(後營)이 철거되기 전에 마을의 임대료가 올랐고, 임대료를 내지 못한 뮤지션들은 이미 조금씩 이사를 갔어요.”

- 슈춘(樹村) 원주민4에 대한 인터뷰

“예전에 북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월세 수입은 2,000위안이 넘었고 생활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예전에 인디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집을 임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 한 채 월세가 5, 6천 위안이에요.”

- 슈춘(樹村) 원주민1에 대한 인터뷰

철거 소식이 발표된 날부터 마을의 거의 모든 가구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주택의 마당에는 지붕을 씌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인 변수였다. 슈춘(樹村)의 원주민들은 낡은 건물을 철거할 때 주택 면적을 더 많이 계산하기 위해 건물(마당에 씌운 지붕을 포함)을 추가로 지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했다고 솔직히 말하였다. 주택이 개조됨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할 것이므로 슈춘(樹村)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쁘게 생각하였다. 일부 주민들은 외래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공질서, 쓰레기, 물과 전기난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단독주택 철거 및 재건 계획이 실제로 발표되는 순간, 사실 슈춘(樹村)의 원주민들은 슈춘(樹村)에 그리 미련을 두지 않았다.

“기억해요, 왜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괴이한 복장을 하고 갖가지 악기를 쥔 젊은이들이 마을을 드나들었어요. 그들은 올빼미족이랑 좀 비슷했고, 종종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하러 갔어요. 어쨌든 마을에서는 매일 여기저기서 ‘징글징글’하는 소리가 들려 왔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모두 돌아오면 저는 항상 일어나서 문을 잠갔어요.”

- 슈춘(樹村) 원주민1에 대한 인터뷰

“나중에 베이징이 도시 속 마을을 개조할 때 이 젊은이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 후부터 마을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 슈춘(樹村)의 원주민4에 대한 인터뷰

시대의 변화로 인해 슈춘(樹村)에서 인디음악 관련 경력이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현지 원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여전히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슈춘(樹村) 단독주택 철거 후 인디뮤지션들의 행방에 대해 필자는 베이징에서 방랑 생활을 하던 인디뮤지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슈춘(樹村)은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됐어요. 물론 그곳에 리허설 장소와 숙소가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삼환내(三環內)(1990년대의 주류 록 밴드)의 많은 밴드가 그때부터 인기를 받게 됐어요. 이제 몇백 위안의 임대료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밴드 리허설은 리허설 룸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리허설 룸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예약해야 되고, 시간당 80 위안이에요. 멤버들은 다른 일도 하는데 주로 인터넷 게이머와 프로그래머예요. 리허설 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리허설 하려면 차로 한 두 시간 와야 해요.”

- DM 밴드 멤버에 대한 인터뷰

슈춘(樹村)이 해체된 후 일부 뮤지션들은 ‘신슈춘(新樹村)’으로 알려진 후오잉(霍營)으로 갔다는 설도 있다. 후오잉(霍營)은 슈춘(樹村)의 역할을 대체하였다.¹³⁾ 예능 프로그램 <The Big Band(樂隊的夏天)>가 인기를 받으면서 슈춘(樹村)은 다시금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인 미디어 종사자들에 의해 ‘문화적 기원 찾기’로 불린다.¹⁴⁾ Miserable Faith(痛仰)밴드, 셔터우(舌頭)밴드, Muma(木馬)밴드와 같은 중국 인디음악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100개 이상의 밴드가 모두 슈춘(樹村) 출신으로, 중국 인디음악의 무에서 유로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디음악계의 변화를 목격하였다.

3. 재현체계에서 구성체계로의 도약 시도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음악, 문화, 정치 및 경제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은 중국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 것이다.

1990년대는 중국 정치 생활에서 중요한 변혁기였으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조정과 개혁이 있었다. 경제적 성과는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에 따라 문화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우선,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는 경제 발전으로 재정 수입의 꾸준한 성장 등의 많은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의지가 있었다. 음악산업의 경우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한편, 음반사와 출판사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인디음악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련의 개혁 이익을 누릴 수 없었기에, 인디 뮤지션들의 집결효과에 의해 자발적으로 슈춘(樹村)에 모여 자원교환, 자원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음반사들의 생산모델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다음으로 시장과 산업 모델의 1990년대 행정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에 산업 개혁을 제약하거나 늦추었으며, ‘긴축하면 죽고, 느슨하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다시 긴축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중국 정부는 1999년 WTO 가입 협정을 체결하여 점점 더 많은 산업이 시장 경제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중국 인디뮤지션의 대다수는 1990년대 인디음악 회사의 산업화에 적대적이었고, 모든 형태의 상업화에 저항하였다. 특히 자금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중국 인디음악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의 인디음악 스타일은 헤비메탈이 주를 이루고 가사가 대부분 사회 비평을 중심으로 하기에, 중국 인디음악 또는 록 음악은 반항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적 도구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시장 통제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인디음악의 발전을 통제해야만 했으며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국영 음반사는 중국 인디뮤지션을 위한 앨범을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인디음악은 상대적으로 반복체계 측면에서 자본 참여 없는 순수한 창작 환경을 수동적으로 얻게 되었다.

1990년대 전반기 중국 인디뮤지션들은 구성체계의 단계에 빠르게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음악 작품을 만들고자 했으며, 사상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이기를 원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권력을 얻기를 바랐다. 이 시기의 중국 인디뮤지션들은 재현체계와 구성체계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애썼고, 단기간에 질적인 도약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러한 확실하지 않은 입장은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와 경제의 발전이 불균등하고 이 시기의 인디음악과 경제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즉, 중국에는 인디음악의 경제가 없고 문화에 들어가는 경제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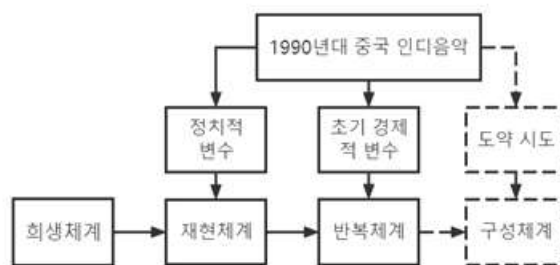
13) 李檀, 「霍營 北京搖滾公社」, 『藝術評論』, 第5期, 中国艺术研究院, 2005, p.4.

14) 孔德罡, ““野蠻生長”和身份謎題: 中國樂隊的“本地化”之路”, 『搜狐』, 2020.08.16., https://www.sohu.com/a/413383014_617382 [2025.04.20.]

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1986년에 대중음악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음악의 창작, 전파 및 소비가 먼저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과 공산당의 문학 및 예술 노선, 즉 주류 사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에 점차 바뀌었다. 정부는 음악이 주류 사상을 위해 계속 일하면서 시장에도 진출하여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제안한 음악의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인디음악은 재현체계에서 반복체계, 나아가 구성체계로 옮길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디뮤지션들을 구성체계에서 반복체계로, 심지어 재현체계로 옮길 것을 바랐다. 물론 이러한 체계의 상향 및 하향 이동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 음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일부 인디뮤지션의 자기표현 수단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은 겹치는 공간에서 서로 타협을 하였다. 이처럼 중국 인디뮤지션 체계의 상향, 하향 이동에 대한 정부의 희망은 인디뮤지션이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게 하고, 인디음악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인디뮤지션이 창작 공간과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인디뮤지션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사회에 대한 비평을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이들이 겹치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타협은 중국 인디뮤지션의 정치적 진실성을 희석시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 인디음악의 비주류 진정성을 풍부하게 하고, 중국 인디음악과 정부의 관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림Ⅲ-1> 재현체계에서 구성체계로의 도약 시도



중국국가통계국 공식 홈페이지(<http://www.stats.gov.cn>)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400%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개인소득은 1980년 247위안에서 1999년 3,485위안으로 14배 증가했으며,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고 소비 분야가 확대되었다. 1999년 교육, 문화 및 오락 서비스에 대한 평균 소비자 지출은 1985년의 10배를 초과하였다. 문화 소비는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음악 소비는 그 일부에 불과하며 인플레이션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산업의 부상에 힘입어 중국 음악문화는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갖추었다. ‘문화경제’라는 용어는 1991년 정부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2000년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가 1차 및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990년대에 중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했지만, 문화상품의 공급과 수요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1990년대 말까지 중국 인디음악이 경제의 일부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일부 인디뮤지션들의 확고한 반상업적 입장은 중국 인디음악이 대중문화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사실 1990

년대에는 이미 예술과 상업의 이분법이 존재했고, 산업이 문화를 창조하느냐, 문화가 산업을 창조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경제환경과 인디음악문화 사이에서 자주 있었다. 키스 니거스(Keith Negus)는 경제와 문화가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이 둘 사이에는 종종 모호함과 융합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¹⁵⁾

1990년대의 경제 환경에서 팝음악은 상품으로서 완전한 상업 시스템을 형성할 수 없었다. 산업화 및 상업화의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자본 축적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광둥 음악산업은 스타 만들기 운동, 즉 포장 및 홍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팝음악을 형성하며, 점차적으로 중국 본토의 팝음악 시장을 독점하였다. 이후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도 일련의 유사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동안 다양한 가수들이 여러 음반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당시 중국 본토 음악 산업에는 완벽한 규칙과 규정, 관리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대한 비용은 매우 적었다. 이로 인해 계약 체결 붐이 일어난 직후 곧 계약 해지 붐이 일었고, 1996년 Guangzhou Xinshidai Audio&Video Company(廣州市新時代影音公司), Zhuying White Swan Audiovisual Press(珠影白天鵝音像出版社), Pacific Audio&Video co.(太平洋影音公司)등 3대 팝음악 산업 거물이 붕괴되면서 중국 팝음악 산업의 중심은 광저우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였다. 중국 대중음악 산업의 중심지가 북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중국 팝음악의 초기 단계는 끝났고, 그 과정에서 인디음악은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았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홍콩과 타이완의 음반사 및 해외 음반사들이 중국 인디음악을 지원했지만, 정치적 영향과 음악 자체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때 중국 본토 최초의 인디음악 음반사인 'Modern Sky(摩登天空)'는 중국 인디음악의 틈새시장을 발견하였다. 필자는 이를 '인디음악 상업화'라고 부르며 이는 Modern Sky(摩登天空) 창립자인 선리웨이(沈黎暉)와의 후속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비록 이 과정은 더뎠지만 일부 인디뮤지션과 밴드가 주류 음악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직도 '인디음악의 상업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인디음악의 상업화'는 타협을 통한 '제3의 길'로 볼 수 있다. 인디음악은 다른 산업, 특히 관광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인디음악의 중요한 무대로서 이와 관련된 티켓, CD, 티셔츠, 뮤직 북, 밴드 상품 등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 광고 홍보, 관광 프로그램, 음식, 숙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상업적 요소를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중국 인디음악은 중국 음악산업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도 통합될 수 있다. 이는 중국 사회경제에서 인디음악의 중요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반영한다.

4.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딜레마와 진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중국 인디음악은 등장 이후 언더그라운드 발전 상태에 있었다.¹⁶⁾ 객관적 원인은 많은데,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저서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필자는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

15) Negus, K. *Producing pop: Culture and conflict in the popular music industry*. Edward Arnold, 2011.

16) 李檀, 「搖滾樂在中國」, 『藝術評論』, 第11期, 中国艺术研究院, 2004, p.5.

적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가 성행하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정도가 낮을수록 음악에 대한 정부의 검열 정도가 강하다. 대중의 미학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와 범위이다. 둘째, 음악 평론이다. 셋째, 대중의 소비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여론’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택 가능한 콘텐츠와 범위의 목록에서 중국은 콘텐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볼 수 없는 콘텐츠가 많다. 둘째, 음악 평론의 관점에서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학> 제4장에서 각종 음악 차트의 공신력이 크게 무너졌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자본의 개입과 관련이 있으며, 차트에 오른 곡들은 미리 정해져 있고 자본에 의해 우수한 음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적 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 좋고 나쁨의 평가 기준은 대중의 선호도가 아니라 자본을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시장 경제의 맥락에서 음악은 점점 더 산업화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음악 작품은 음악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미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음악 제작자가 음악 소비의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맹목적으로 대중에 영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음악 소비에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신곡(神曲, 들으면 세뇌당한 듯 계속 생각나는 노래)’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중음악의 미적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표절의 확산과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를 받은 예술은 발전 방향이 불균형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정치와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 환경은 예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느슨한 정치 환경은 사상 해방과 자주적 사고의 발전 논리에 부합하는 반면, 긴축된 정치 환경은 예술의 비정상적인 발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중국의 인디음악은 상대적으로 파편화된 발전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표준화되고 완벽한 음악산업 체인이 시급히 필요했다. 음반사와 음악산업 체인의 발전과 개선이 중국 인디음악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음반사의 발전과 음악산업 체인의 개선은 중국 인디음악이 정치적 검열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작품을 원활하게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인디뮤지션이 더 많은 경제적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인디 레이블은 인디뮤지션에게 더 많은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인디뮤지션이 꿈과 상업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제3의 길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인디음악의 상업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5. 결론

본고의 연구는 슈춘(樹村)에서 시작해 슈춘(樹村)의 형성부터 해체까지의 과정을 재현하였다. 1990년대 ‘둥지 형성’ 단계에 있는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 체계를 분석하고,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이 직면한 딜레마를 논의하고, 이후의 중국 인디음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소개하였다.

1990년대 이전의 정치적 환경은 슈춘(樹村)의 언더그라운드 인디음악 커뮤니티 형성의 필연성을 결정하였다. 첫째, 슈춘(樹村)의 형성 원인은 무엇보다도 슈춘(樹村) 원주민과 외래 인구 간 타협의 결과이다. 둘째, 슈춘(樹村) 원주민의 포용성은 그 시대를 앞서갔다. 슈춘(樹村) 원주민의 시대를 앞선 포용성은 인디뮤지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셋째, 슈춘(樹村)의 외래 인

구, 즉 인디뮤지션들은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슈춘(樹村)의 환경은 중국 인디음악에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지 않게 하였다.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이 창작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형식 면에서 순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슈춘(樹村)에 비교적 순수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슈춘(樹村)은 인디뮤지션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자동 스케일’ 기능은 본래의 사용 기능을 넓혀 마침내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물리적 공간의 매개체가 되었다. 상징적 기호 관점에서 슈춘(樹村)이라는 공간은 인디뮤지션의 사회 밀층과 소외계층의 정체성 특징에 대한 은유가 되었으며, 상업 자본과 대중 문화에 선택되기를 거부하는 인디뮤지션의 하위문화적 특징을 표현한다. 슈춘(樹村)이 해체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행정명령과 개발업자와 원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중국의 인디뮤지션들은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한 재현체계와 구성체계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애썼고, 단기간에 질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다.

1990년대에 정부는 음악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음악산업의 발전을 허용했지만, 인디음악은 정부로부터 일련의 개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자금과 자원의 부족에 직면한 이러한 상황은 중국 인디음악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행정 체계의 불완전성과 더딘 개혁 속도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얹히며 타협이 이뤄졌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 산업의 부상에 힘입어 중국 음악문화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상품이 극도로 부족한 환경에서, 중국 인디음악은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인디뮤지션들은 특히 개혁·개방 이후 상업 음반사들이 본토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에서의 절대적 위치를 잃었고, 중국 인디음악이 하나의 대중문화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1990년대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 요인이었다. 정치적 검열, 대중의 미학, 그리고 통제 이후 예술 발전 방향의 불균형은 중국 인디음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다음 번에는 ‘인디음악의 상업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팝음악과의 경쟁과 상업적 재편성은 중국 인디음악이 다음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도전으로 여겨진다.

【차세대학자분과 I】 발표

中韩日越四国同形异义汉字词“丁宁”的语义演变考察

염유새* · 이효영**

【목 차】

1. 绪论
2. “丁宁”의 语源及释义
3. “丁宁”在各语言中的同形异义演变分析
4. 结论

【 초 록 】

本研究考察了汉字文化圈中国、韩国、日本和越南四国语言中同形异义汉字词“丁宁”的语义演变过程。通过探讨该词的起源、发展历程以及语义分化现象,研究发现“丁宁”在各国语言中虽保留了原有意义,但因社会、文化及语言环境的差异,呈现出不同的语义扩展和使用特征。此外,本文还分析了导致这一变化的文化交流与社会变迁背景,揭示了各国词汇演变中所体现出的独特发展路径。

【키워드】 同形异义词、 “丁宁”、 汉字文化圈、 语义演变、 文化传播

* 제1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박사과정 (yusaelian99@gmail.com)

** 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전공 부교수 (hylee@bufs.ac.kr)

1. 绪论

汉字文化圈指的是以汉字为核心书写体系、历史上深受中国汉文化影响的国家或地区，包括中国、韩国、日本、越南等。“汉字文化圈”这个用语在1986年之后广泛被学界使用。¹⁾ 这些国家曾长期使用汉字记录历史，并以汉字书写的文言文作为主要的官方和文化交流工具。通过汉字这一媒介，中国的周边国家在古代吸收了包括法律、政治制度、哲学思想在内的文化体系，形成了相似的文化价值观。在儒教思想的共同影响下，这些地区共享以《四书五经》为基础的伦理规范与礼仪制度，同时在稻米饮食、筷子使用、茶文化和建筑风格等生活习俗方面也表现出高度的共性。尽管汉字在不同地区经历了本土化的改造，但作为超越文字功能的符号体系，它在推动思想传递与文化交流中始终居于核心地位。韩国、日本和越南等国不仅被动接受了汉字文化的影响，更在吸收的过程中展现出创造性，重新塑造了各自的文化传统。汉字文化圈因此成为东亚研究的重要领域，不仅反映了这些国家在历史上深度交流的文化纽带，也揭示了其内部既有差异又互通的文明特质。这一文化圈通过汉字这一载体书写了超越时空的共同文明史，为东亚研究提供了独特的视角。

历史上在中国的影响下这些国家均可以熟练地使用汉字，大量的汉字词也就这样融入各自的文化当中，变成了各个国家不可缺少的构成部分。²⁾ 并且汉字文化圈的国家并不把汉字词视为外来语，在汉字使用达到鼎盛的时期韩语，日语，越南语中汉字词占据着压倒性的优势地位。进入现代，汉字词的比重虽然有所下降，但是依旧占据着巨大的比例。除中国和日本外，韩国和越南分别用自己国家的表音文字体系来将汉字词进行标记，汉字词的功效逐渐强化的同时汉字的功效在不断弱化。³⁾ 根据统计，在韩语中汉字词的比例约占全部词汇的60%，其中经济，政治类相关词汇的汉字词比例可以占到63%。⁴⁾ 日语中汉字词大约占全体词汇的53.6%⁵⁾。越南语中的汉字词约占60%，其中经济，政治类相关词汇的汉字词比例可以高达80%。⁶⁾

中韩日越汉字词可以大体分为以下几类：同形同义词，同形异义词和异形同义词。同形同义词是指形态和意义完全一致的词汇，同形异义词是指形态相同但意义不同的词汇，以及异形同义词是形态不同但意义相同的词汇。在这些类别中，同形异义词最能反映四国语言在长期发展过程中相互影响的复杂性。由于历史、文化及社会语境的差异，许多原本含义一致的汉字词在各国语言中逐渐衍生出新的意义，甚至完全脱离其原初语义。这种变化可能受到语言内部语义扩展规律的影响，也可能源自跨语言接触中的语义再解释。本研究所探讨的“丁宁”一词即属于同形异义词的范畴。在现代汉语中，“丁宁”通常表示“叮嘱”或“反复嘱咐”的意思。然而，在其他语言中，其语义或词用方式却发生了显著的变化。例如，在韩语中，该词多在历史文献中出现，现代韩语书面语口语均较少出现，整体使用频度较低；而在日语中，使用频度相对较高，但因为历史因素或社会因素，具有不同的语用场景。在越南语中，汉字词汇“丁宁”更是难以保留或产生不同意义。

从词汇分类的角度，词汇可根据意义透明度分为透明语和非透明语。“丁宁”一词因脱离原始意义，在不同语言中衍生出新的语义特征，因此被归为非透明语。⁷⁾ 然而，在汉字词对照语言学的研究中，针对

1) 陈佳宁 外, 『汉字文化圈内的对外汉语教学』, 『汉字汉文教育』, 第30輯, 2013.

2) 汉字词, 在现代韩语中被称为‘한자어(漢字語)’, 在现代日语中也通常被称作‘漢字語(かんじご)’但为了与传统的和语和片假名相区分, 在划分上更常用‘漢字(かんじ)’去指代, 在现代越南语中通常被称为‘Từ Hán Việt(詞漢越)’.

3) 李顯雨, 『同形異義語‘工夫’로 본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교류』, 『中國語文學志』, 第65輯, 2018.

4) 何九盈 外, 『中国汉字文化大观』, 北京大学出版社, 1995, p.374.

5) 刘元满, 『汉字在日本的文化意义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3, p.19.

6) 于维雅, 『东方语言文字与文化』, 北京大学出版社, 2002, p.246.

这类词汇的系统性分析仍较为稀缺。“丁宁”因其使用频率不一、语义复杂，鲜少出现在同形汉字词研究的核心内容中，但这恰恰是语义分化研究的重要切入点。所以本研究通过对“丁宁”这一同形异义词的分析，旨在探讨其在四国语言中的语义分化规律，揭示语言接触与历史变迁对词义演变的影响。这不仅有助于深化对汉字文化圈语言发展的理解，也为同形异义词的演变机制提供了新的实证支持。因此，本文以“丁宁”一词为研究对象，着重对其在中韩日越四国语言中的语义特征进行对比分析，重点剖析其语义分化的具体表现以及四国语言中语义差异形成的规律。

2. “丁宁”的语源及释义

关于“丁宁”一词的本义，《辞源》、《辞海》和《汉语大词典》各有不同的解读。《辞源》和《辞海》均将“叮嘱、告诫”或“一再嘱咐”列为丁宁的第一义项，而《汉语大词典》则将“古乐器名”视为其第一义项。根据《辞源》和《汉语大词典》的编排体例，第一义项通常被视为该词的本义，因此，这三部辞书在“丁宁”本义的界定上并未达成一致。

“丁宁”一词是指“钲”（即古代乐器），而“叮嘱、告诫”及“再三告示”等含义则为其引申义。⁸⁾在古代文献中，最早出现的“丁宁”均指的是“钲”。《国语·吴语》：“昧明，王乃秉枹，亲就鸣钟鼓。丁宁，鎗于振铎，勇怯尽应。韦昭注：“丁宁，谓钲也，军行鸣之，与鼓相应。”此前考古学相关研究中通过对江苏丹徒北山顶春秋吴王墓中出土的军乐器与《国语·吴语》中记载的夫差使用的乐器进行对比，发现其中一件小型钟类乐器被称为“丁宁”，其形制与钲一致，并且与文献中的描述相符。⁹⁾由此更加可以证明，“丁宁”与“钲”是同器异名的关系。

<图1> “丁宁”“钲”示意图



其次，“丁宁”一词可以看做是源自对乐器声音的模仿。如王建《宫词》之二九：“琵琶先抹六幺头，小管丁宁侧调愁。”和黄景仁《绮怀》诗之二：“敛袖搥成弦杂拉，隔窗掺碎鼓丁宁。”由此可见“丁宁”是拟声词。丁宁和钲都模仿敲击乐器时发出的声音，可以认为“钲”是“丁宁”的合音。

因此“丁宁”一词本义可以看作是“钲”这种古代乐器，其它所有义项均可视为是引申义。作为古代

7) 李顯雨, 「同形異義語‘工夫’로 본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교류」, 『中國語文學志』, 第65輯, 2018.

8) 『汉语大词典』, 第1卷, p.146.

9) 杨蕾, 「钲与丁宁、鐃的关系」, 『文物鉴定与鉴赏』, 03, 2021.

军用乐器，丁宁的作用可分为对内管理和对外展示两大层面。对内而言，丁宁作为指挥工具，用于规范军队行动。古代军事中，乐器常作为信号传递工具，通过击打丁宁来传达前进、后退等指令，类似“鸣金收兵”的传统。通过丁宁的声音，指挥官能够快速有效地管理和调度军队，确保命令的及时传达和士兵的响应。在《诗经·小雅·采芣》中提到“钲以静之，鼓以动之”。对外方面，丁宁也具有象征意义。在战场上，其声音不仅用于传递指令，也可能作为威慑工具，展示军队的力量和凝聚力，例如《国语·卷十一·晋语五》中说“伐备钟鼓，声其罪也，战以鐃于、丁宁，儆其民也”均是对其的体现。

对于“丁宁”一词的引申释义大体可以概括为以下几个方面。

首先，表示再三告示。本义中“丁宁”作为军队乐器有通过击打反复击打以达到控制军队，广而告之，再三告示的效果。因此可引申为一种反复告示的手段，与语言提醒无关，常常与自然或天命相关。在《汉书·谷永传》中提到的“十二月朔戊申，日食婺女之分，地震萧墙之内，二者同日俱发，以丁宁陛下，厥咎不远，宜厚求诸身”中，颜师古注释“丁宁”是“再三告示”，即通过自然现象反复提醒人们。这种使用方式体现了“丁宁”作为一种非语言的告示手段，不同于普通的语言告知。

表示叮嘱、告诫之意。在许多词典中常被归为与再三告示相同的义项。然而，本文认为这两个义项应当分开讨论。原因在于，叮嘱和告诫侧重于通过言语进行反复提醒，强调的是通过人的主观意图和行为来传递警示或忠告，而非自然现象中的反复提醒。如韩愈在《月蚀诗效玉川与作》写到：“丁宁附耳莫泄漏，薄命正值飞廉慵。”以及陆龟蒙的《五歌》：“鸥闲鹤散两自遂，意思不受人丁宁。”二者均表示因此一种语气上的提醒和嘱托，具有告诫意味。尽管这两个义项在某种程度上可能具有重复性，但在语义层面上存在本质的区别。其中在叮嘱、告诫这一义项下，“丁宁”常被写作“叮宁”或“叮咛”，其中《玉篇·上口部》也对其解释为“叮咛，嘱咐也”。其中，“叮咛”一词在现代汉语中被广泛使用，且往往特指叮嘱和告诫之意。实际上，“叮咛”是都后来创造的字，专门用来表达这一层含义。其构词方式中的“口”字旁，就可以窥探出通过言语进行提醒或叮嘱，体现了言语在传达劝告、警示和告诫时的重要作用。且根据《现代汉语词典》的记载，“丁宁”亦可写作“叮咛”，二者可通用。¹⁰⁾

表示再三、反复之意。该义项与前述再三告示之意有所不同，重点在于强调再三与反复这一层含义，而相对弱化了告知或告示的含义。在此用法中，“丁宁”作为副词形态出现，主要起到表示反复提醒或再三强调的作用，突出了动作的频繁性和持续性。如《太平经》中所述：“今子得书，何不详结心意，丁宁思之？”在这里就是表示反复和再三之意，表示反复考虑，再三考虑。

表示仔细或详细之意，常用来描述事物或行为的细致周到。丁宁作为军用乐器名称，其击打频繁的特性与节奏的重复性赋予了词汇反复、再三这一语义特征。在这一基础上，词义逐渐引申为认真周到，以强调事物的持续性和仔细程度。元代马致远《耍孩儿·借马》套曲中有云：“马儿行嘱咐叮咛记：鞍心马户将伊打，刷子去刀莫作疑”，以及元杂剧贾仲明《吕洞宾桃柳升仙梦》中“我对你丁宁话，你不必心惊怕”的用例中，“丁宁”一词突出的是表达内容的仔细、周到与详尽。这种用法强调说话者在语言表达上的细致入微，注重事物的每一个细节，展现了古人通过语言传递精确信息的用心与对事物的全面交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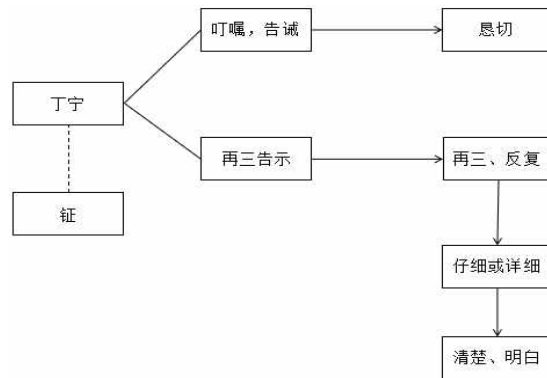
表示恳切之意，这种用法可看作是源自叮嘱、告诫这层含义，即言语上苦口婆心、反复劝说劝诫的情感表达，体现出话者出于真心的恳切之意。例如，唐代张籍《卧疾》诗中有云：“童仆各忧愁，杵臼无停声。见我形憔悴，劝药语丁宁”，其中丁宁强调的是劝药之言的恳切与殷勤。此处不仅传达了语言内容的真挚与反复，更突显了说话者对他人健康的关切和认真负责的态度，体现出一种诚恳的劝导方式。”

表示清楚、明白之意。可视为源自仔细或详细这一义项。由于认真、仔细、周到地对待事物，往往能

10) 『现代汉语词典(第7版)』, p.303.

够使事情变得清晰明了。《敦煌曲·太子入山修道赞》有云：“宫中闻唤太子声甚叮咛。”其中表现了呼唤太子的声音显得十分清晰明确。

<图2> 汉语“丁宁”语义演变及来源关系图



根据对汉语“丁宁”一词的释义进行的系统分析，其语义演变规律和来源关系如图2所示。“丁宁”一词的发展轨迹清晰地展现了汉语词汇在历史演变中的动态特征。从古代语境中的起源到后来实际中的运用，“丁宁”的语义呈现出一定的变化趋势，这种变化既是语言自然发展的结果，也是其在不同历史时期适应社会需求的体现。接下来，本文将进一步扩展研究视野，考察“丁宁”在其他汉字文化圈国家中的同形异义现象。通过对比不同语言中的语义发展与文化背景，本文旨在揭示“丁宁”一词在文化交流中的语义传递与演变规律。

3. “丁宁”在各语言中的同形异义演变分析

1) 韩语中的“丁宁”的分析

在韩语中，“丁宁”一词对应的汉字词是“정녕(丁寧)”。¹¹⁾根据韩国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国立国语院 标准国语大词典)提供的解释，정녕具有三个主要义项¹²⁾。并且根据三个义项的解释，可以分别从诸多古典文献中找到相应的例证。¹³⁾

1. 名词，대하는 태도가 친절함과 충고하거나 알리는 태도가 매우 간곡함(态度亲切或者告诫或通知时态度非常恳切)。정녕하다(丁寧하다)为其形容词形态。

그리고 세자께서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는 아버지이니 끝내 생각하여 주심이 있을 것이지만, 하늘이야 어찌 나를 생각해 줄 것이냐.」 하여, 정녕(丁寧)하게 주상께 고하였습니다. (而且世子反省自己的过错，自己发誓并说道：“陛下是我的父亲，最终会有怜悯之心，但天

11) “丁宁”与“丁寧”二词仅为简体字与繁体字这种在字形上的差异，实质上是同一词语，只是书写形式有所不同。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13) 以原文『조선왕조실록』为例，各王代部分出现정녕(丁寧)的次数分别为：태조 (8)태종 (6)세종 (57)문종 (8)단종 (3)세조 (25)예종 (1)성종 (66)연산군일기 (23)중종 (158)인종 (4)명종 (104)선조 (238)선조수정 (8)광해군중초본 (123)광해군정초본 (103)인조 (58)효종 (48)현종 (19)현종개수 (37)숙종 (86)숙종보궐정오 (8)경종 (12)경종수정 (3)영조 (83)정조 (134)순조 (77)헌종 (6)철종 (9)고종 (52)

命又怎会为我考虑呢？”他用非常恳切的语气向君主表达了这个意思。）¹⁴⁾

그러나 삼가 자전께서 신들에게 내리신 전교를 보니, 종이 가득 정녕하신 말씀이 간절하고도 지극 하였습니다. (但是仔细查看帝王给臣子们所传下的诏命, 纸上满是恳切而深切的言辞, 意思非常真挚且迫切。) ¹⁵⁾

내가 간혹 평안치 않을 때가 있는 경우에 세자가 대행하는 일이 있으므로 우선 동궁의 屬僚들을 備員하여 두려는 것이다.’ 고 하시어 聖諭가 丁寧하시니, 신 등은 본래부터 전하가 아랫사람들에게 믿음성을 보이시려는 지극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有时我心情不安, 因此有些事情由太子代行, 首先安排东宫的属下们做好准备。” 圣旨言辞恳切, 臣等从一开始就明白陛下希望对下属们展现出信任与极大的诚意。) ¹⁶⁾

2. 名词, (음악) 軍中에서 쓰던 정(鉦) 비슷한 악기. 戰時에 쳐서 군사들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在军队中使用的类似钲的乐器。战争时击打以确保军人不懈怠警戒)

3. 副词, 조금도 틀림없이 꼭. 또는 더 이를 데 없이 정말로. (一点不差, 必须, 或者更进一步, 确实如此) 常见的形式为정녕히(丁寧히), 还可以以정녕코(丁寧코)的形式出现, 具有更强的强调效果, 表示正是这样, 毫无疑问。

“구법이 정녕 이럴 리가 있겠는가. 그 무게는 어떠하며, 길이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니, 홍낙성이 아뢰기를, “길이는 5자 5치이고 무거운 것은 25근, 가벼운 것은 20근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너무 길다.” (“旧法真的会是这样的吗? 它的重量是多少? 长度又没有显示出来吗?” 于是, 洪乐性回答道: “长度是五尺五寸, 重的有25斤, 轻的有20斤。” 我说: “太长了。”) ¹⁷⁾

오늘 가는 일은 이미 허락했으니, 誠實의 도리로 보아 다시 어찌 망설였겠는가마는, 출발할 때 나를 만나 보고 길을 나서는 일에 대해 연석에서 어찌 정녕히 승낙하지 않았던가. (在诚实的道理上, 怎会有难以持守的理由呢? 而在出发之时, 见我已开始行动, 宴席上岂不是已明确答应了吗?) ¹⁸⁾

태종의 밝으신 鑑識으로서 이미 제(提)의 불의(不義)가 반드시 이 지경에 이를 것을 환히 알고 계셨으므로 정녕코 나라 사람들에게 諭示하였사오니, 신 등은 태종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不義의 행동을 坐視하고 잠자코 申請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 등이 태종의 遺教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凭借太宗陛下高明的眼光, 他已经洞察到提的不义行为必然会导致此种结局, 且他确实如此明言告诫国家百姓。因此, 作为受太宗陛下托付的人, 如果我们对不义的行为袖手旁观, 且不加以申诉, 这就意味着我们背离了太宗的遗训。) ¹⁹⁾

正如前文所述, 在使用方面, 汉语“丁寧”与韩语“정녕(丁寧)”的用法多见于古代文献中。尤其是在文学作品、史书等书面材料中有较多出现, 而现代韩语中, 尽管该词仍保留着一定的历史印记, 但使用较为稀少, 口语和书面语中均不常见, 尤其是在非正式场合。²⁰⁾ 现代汉语中的“丁寧”在表达叮嘱或告诫时, 通常以“叮咛”形式出现, 仍然有一定的使用频率。然而, 其他含义在现代汉语中也已经不再常见, 几乎只出现在古文或文学作品中, 难以在日常生活中见到其踪影。

从释义方面分析可以看出, 韩语中的“정녕(丁寧)”一词与汉语中的“丁寧”在古代乐器“鉦”这

14)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태종 17년 丁酉, 2월 17일.

15) 『승정원일기』, 인조, 인조 7년 기사, 9월 23일.

16)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 24년 壬戌 8월 28일.

17) 『일성록』 「정조」, 정조 원년 丁酉, 1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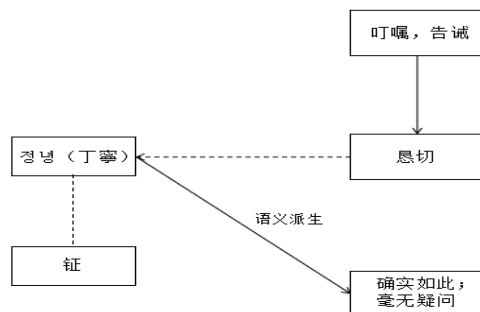
18) 『승정원일기』 「영조」, 영조 4년 戊申 8월 12일.

19) 『승정원일기』 「영조」, 영조 4년 戊申 8월 12일.

20) 根据『현대 한국어 어휘 빈도 사전 2 <가나다순>』(서상규 著, 한국문화사, 2023年) 的韩国语使用频度调查, “정녕(丁寧)”一词的排名为第17,340位, 其使用频度数仅为6, 体裁数为4, 其中口语出现两次, 都是在韩国国会会议的速记记录, 书面语中准口语出现1次, 小说2次, 杂志1次。该词典涵盖了1990年至2021年期间的口语和书面语, 基于最现代韩语平衡语料库(150万词汇)收录了实际使用的约52,400个词汇。

一义项上是完全重合的,体现了二者在语源上的直接对应关系。这说明,汉字文化圈语言在初期语义传递过程中,常常以具体事物或象声联想为基础,形成了较为一致的义项指向。然而,随着语言在各自文化中的演变,其语义体系逐渐产生分化。韩语中“정녕(丁寧)”所包含的“亲切、恳切”这一层含义,可以在一定程度上与汉语中“丁寧”的释义对接。然而,根据前文的分析,这一层含义实际上是汉语中“叮嘱、告诫”这一语义的进一步引申义,而韩语中“정녕(丁寧)”并不具备“叮嘱、告诫”这一语义层次。这种语义缺失表明,韩语在语义继承和发展过程中,对某些原有义项进行了选择性保留或舍弃,反映了语言在适应各自社会文化环境时的语义取舍机制。至于“毫无疑问”或“确实如此”这一层意义,韩语中的“정녕(丁寧)”与汉语中的“丁寧”释义之间并不存在直接对应关系。可以推测,这一语义可能并非源自汉语“丁寧”的任何既有义项,而是韩语在自身语用体系中通过特定的文化需求和表达习惯,重新赋予了该词新的语义功能。具体演化图示如<图3>所示。

<图3> 韩语“정녕(丁寧)”语言演变关系图



2) 日语中的“丁寧”的分析

在对日语中“丁寧”一词的分析时,可以明确该词的写法为“丁寧(ていねい)”或“叮嚀(ていねい)”。且根据《Weblio辞書 国語辞典》中的解释,日语中的“丁寧”可以视为“叮嚀”的简化形式,二者可以视作同一词汇。²¹⁾根据《ふりがな文庫》的统计,该词在实际使用中以“丁寧”和“叮嚀”两种形式并存。²²⁾

根据《デジタル大辞泉》的释义,“丁寧(ていねい)”一词共给出了三个主要的义项;²³⁾而《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则提供了五个义项。²⁴⁾在这些释义中,有些义项是重合的,因此需要进行排除与整合。通过对比和分析,可以归纳出五个主要的义项。并且通过历史文献及现代语料库中的例句,能够进一步验证各个义项的归纳。

1. 昔、中国の軍中で、警戒の知らせや注意のために用いられた楽器。(古代中国军队中,用于警戒和通知的乐器。)

21) 辞典・百科事典の検索サービス『Weblio辞書 国語辞典』。该词典内收条500以上词典,是日本国内最大规模线上词典。

22) 『ふりがな文庫』是日本一个提供汉字及其对应读音使用频率数据的平台,旨在揭示汉字与振假名之间的相互关系。该网站主要聚焦于文学作品中的振假名应用。根据『ふりがな文庫』的统计数据,本词汇以“叮嚀”形式出现的次数占比为46.8%,以“丁寧”形式出现的占比为38.9%,其余小比例为“叮嚀”、“鄭寧”等形式。

23) 该词典收录了近30万词汇(截至2020年8月),每年更新三次,定期更新,提供最新的条目和日常修订的最新数据。

24) 『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经过40多年的时间和超过3000名专家的合作完成的,是日本引以为傲的最大国语词典,其收条词条30万项,约30万个用例。

2. 注意ぶかく念入りであること。こまかいところまで注意がゆきとどいていること。また、そのさま。(指小心谨慎且周到, 关注到每个细节, 或者说是做事非常仔细、细心。)

自分の氣にいと、さもうれしそうに、それを丁寧に箱の中に納めました。そして、つぎの人形の顔を描きにかかったのです。(当他自己满意时, 看起来非常高兴, 然后小心地把它放进了箱子里。接着, 他开始画下一个玩偶的脸。)²⁵⁾

それから、そのあとで丁寧にいねいに手を洗ったのであったが、それとても平生よりイクラカ念入りに洗った位の事で、左右の掌てのひらには何の汚染よごれも残っていなかったように思う。(之后仔细地洗了手, 但这也不过是比平时稍微更仔细了一些罢了, 感觉左右的掌心似乎没有留下任何污垢。)²⁶⁾

3. 言動が礼儀正しく、配慮が行き届いていること。また、そのさま。丁寧。文法で、話し手が聞き手に対して敬意を表す言い方。丁寧語。(言行举止礼貌得体, 关照周到。以及, 这种状态。恭敬。在语法中, 指的是说话者对听话者表示尊敬的表达方式。敬语。)

紺三郎がエヘンエヘンとせきばらいをしながら幕の横から出て来て丁寧にお辞儀をしました。(紺三郎一边咳嗽‘咳咳’, 一边从幕布的旁边出来, 恭敬地行了个大礼。)²⁷⁾

丁寧過ぎるほど丁寧な挨拶。(过于恭敬的问候。)²⁸⁾

敬語は主に①尊敬語②謙譲語③丁寧語の3種類に分けられます。(日语的敬语主要分为①尊敬语②谦逊语③丁寧语这3种)²⁹⁾

4. なんども繰り返すこと。再三再四行なうこと。また、そのさま。多く、なんども忠告する意に用いられる。(反复多次的行为。多次重复地进行某事。还有, 表示这种状态。通常用于表示多次重复的忠告。)

自ら善し自ら照顧する徳の重んずべき事を丁寧訓告せざるべからず。(要郑重地训诫人自善自顾之德是重中之重。)³⁰⁾

5. (接頭語「ご」を伴って) 冗長なこと。無駄に多いこと。また、そのさまを皮肉に言うときに用いる。(常与前置词ご连用, 指的是内容冗长、过多且无用的事情, 通常是在讽刺、批评时使用这种说法。)

汽車は御丁寧に各駅を拾ってゆく。(火车过于频繁地停靠每一站。)³¹⁾

在使用层面来看日语“丁寧(ていねい)”一词不仅在古代日语中有着较为广泛的使用, 而且在现代日语中依然保持较高的使用频率。无论是书面语还是口语, 它都广泛应用于各种正式与非正式の場合中。特别是在日语语言学范畴本身, 日语敬语体系十分发达, “丁寧(ていねい)”作为日语敬语的专有名词有着较高的使用频率。

在释义方面, 日语“丁寧(ていねい)”一词与汉语“丁宁”之间存在一定的关联。从词源来看, 作为古代乐器“钲”的表记, 无论在汉语还是韩语中均有相同法。其次, 日语中有这个“反复”的这层含义, 还可以表示“多次重复的忠告”。“多次重复的忠告”就可以视为“叮嘱”, “叮嘱”和“反复”意思在汉语“丁宁”里都有, 但是被划分了两个不同的义项, 然而在日语中合并为了一个义项, 可以反映出日语对语义归纳的一种集中化倾向。“仔细周到”这一层含义在汉语“丁宁”中也有所体现。不过, 汉语中该词“仔细, 详细”通常是从“再三, 反复”这一层含义引申而来。日语“丁寧”同样具备这样含义, 在这一点上与汉语呈现出高度的相似性, 表明两者在基本语义的引申逻辑上存在一定的共同点。由此可以

25) 小川未明, 『気まぐれの人形師』(新字新仮名)。

26) 夢野久作, 『一足お先に』(新字新仮名)。

27) 宮沢賢治, 『雪渡り』(新字新仮名)。

28) 野村胡堂, 『銭形平次捕物控: 306 地中の富』(旧字旧仮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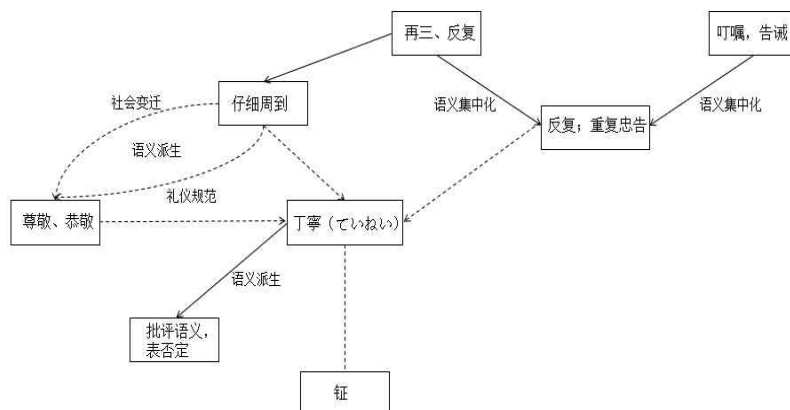
29) 東京外国語大学言語モジュール 参照。

30) 中村正直訳, 『自由之理』(1872), 四。

31) 湯ヶ原ゆき, 『国木田独歩』(1907), 一。

推测,在词义传播过程中,这一层次的含义可能较为稳定,并未受到过多文化语境的干扰。然而,日语“丁寧”的“尊敬、恭敬”义项与汉语“丁寧”并无直接对应,可能源于“恳切”所体现的真挚态度发展为一种礼貌行为模式,且此基础上结合社会礼仪需求,进一步衍生出尊敬与关怀的含义。现代日语“丁寧”强调规范化的礼仪形式,而早期则侧重个人态度的细心与专注。这一变化源于19世纪后半叶日本社会由封闭向开放过渡,人口流动与异质交往增加促使交际行为标准化。³²⁾ 儒教“礼仪”的形式化影响通过国语教育推广,推动了“丁寧”从个人态度向社会规范转变。此外,日语“丁寧”还带有批评“冗杂无用”的语义,表否定,这一含义在汉语“丁寧”中并未出现。通过分析可以发现,这种否定含义或许是基于“再三,反复”所带来的冗长枯燥印象而派生出来的。反复进行一件事可能导致效率低下,这种负面感受在日语中得到了语义上的体现,而汉语“丁寧”则保持了更为中性、正向的语义特征。具体演化图示如<图4>所示。

<图4> 日语“丁寧(ていねい)”语言演变关系图



3) 越南语中的“丁寧”的分析

在越南语中,“丁寧”这一汉字词写作“đình ninh(丁寧)”,但这一汉字词的使用频率较低,其相关语义研究与文献资料相对匮乏。相比于韩国和日本,对于汉字词的研究在越南语学界尚处于较薄弱的阶段,现有资料的参考价值亦受到一定限制。然而,通过筛选,本文选取了两本具有代表性和参考价值的辞典作为分析基础,分别为《TỪ ĐIỂN VIỆT-HÀN 베트남어-한국어 사전》³³⁾和《베트남어 한국어 입문 사전》³⁴⁾。根据《TỪ ĐIỂN VIỆT-HÀN 베트남어-한국어 사전》中的释义,“đình ninh”被赋予三个主要义项,其中动词性义项包括:(1)“(열심히) 권하다(认真地劝告或叮嘱)”;(2)“확신하다(确信、不变或坚定的状态)”。此外,作为形容词词性,该辞典还描述了该词与“不变、恒定”相关的语义特征。例如:“Đá mòn nhưng dạ chẳng mòn, những lời họ hẹn vẫn còn đình ninh”(石头会被磨损,但心意不会改变,那些曾经的誓言依然铭刻在心)。此处的“đình ninh(丁寧)用于表示“不变”的意义,强调内心情感或誓言的坚定与永恒性。而《베트남어 한국어 입문 사전》对“đình ninh”仅给出了一个义项,即“~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다”(将某事视为理所当然)。

32) 西嶋義憲.2007.『丁寧の意味変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行動評価概念の異文化間比較のために-』,『金沢大学経済学部論集』第27巻第2号.

33) 조재현 저, 『TỪ ĐIỂN VIỆT-HÀN 베트남어-한국어 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5년, 초판 12쇄.

34) 응우웬 티 또 맘/ 류지은 저, 『베트남어 한국어 입문 사전』, 도시출판 문예림, 2008년, 초판 1쇄.

根据越南的官方查字搜索引擎 Soha Tra Từ 查询结果³⁵⁾，“đinh ninh”一词给出了三个义项，其中包括两个动词和一个形容词，具体解释如下：

动词：(Từ cũ) nói đi nói lại, dặn đi dặn lại cẩn kễ để cho nhớ kĩ.

(古语)反复叮嘱，仔细嘱咐，以便牢记。

例如，“Vầng trăng vằng vặc giữa trời, Đinh ninh hai miệng một lời song song.”³⁶⁾

(皎洁的月亮高挂天际，两人叮嘱彼此要同心同德，言辞一致，齐头并进。)

动词：tin chắc hoàn toàn là việc nào đó đã hoặc sắp xảy ra.

(完全相信某事已经发生或即将发生)。

形容词：(Từ cũ, hoặc vch) trước sau vẫn như vậy, không thay đổi.

(古语或庄重用法)始终如一，不改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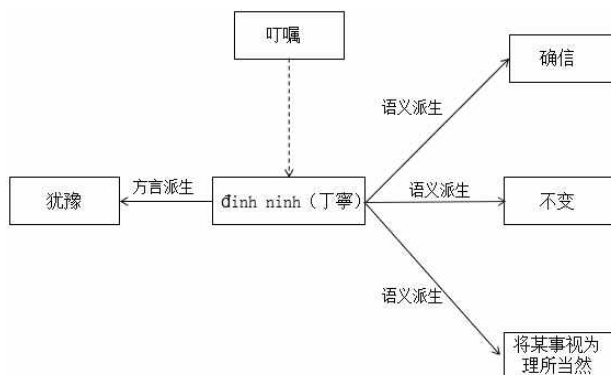
由此可以看出，越南语中“đinh ninh”一词的意义与《TỪ ĐIỂN VIỆT-HÀN 배트남어-한국어 사전》中给出的三个义项基本一致，均体现了反复叮嘱、不变、以及完全确信的语义。但是根据给出的古语标注，可以看出“đinh ninh”在现代越南语中的使用频率较低，尤其是在日常交流中较少出现，而更多地保留在书面语言或较为庄重的语境中，这一变化反映了该词汇语义的演变及其使用范围的收缩。除了以上几个义项外，在越南的地方方言中，尤其是中部地区的顺化，该词还具有一些特殊的用法。例如，在面对选择时，若感到犹豫不决或无法做出明确判断时，“đinh ninh”可以与“phân vân”（犹豫）一同使用，表示对某种情境的反复思考或未能作出决定的状态。越南学者Nguyễn Văn Lợi指出在某些方言环境下，词汇的扩展和转义常常通过反复使用或口语化的方式实现。

根据上述分析，可以得出结论，越南语中的“đinh ninh”一词在现代越南语的使用频率较低，主要出现在古语或文学作品中。这一现象反映了该词的语义和用法在历史的演变过程中发生了变化，尤其是在传播过程中，其原本作为军用乐器“钲”的含义已经丧失。另外，与汉语中的“丁宁”类似，越南语中该词也有“叮嘱”这一层含义，但需要注意的是，在汉语中，这一含义是引申义，而在越南语中并无引申的主体的那层含义。值得一提的是，越南语中的“丁宁”还包含了“确信”“不变”以及“将某事视为理所当然”等意思，这些含义与汉语中的“丁宁”并无直接对应。基于此，可以合理推测这些意义是在越南语中通过语义派生逐渐形成的。此外，中部地区方言，用来表达在面对选择时无法决定的情境，这一用法可以看作是该词在地方性语言环境中通过语义派生产生的新的用法。尽管这一用法尚未得到广泛的文献支持，但其派生的可能性是存在的，且有可能与该词在特定区域的文化背景和语言习惯密切相关。具体演化推测图示如<图5>所示。

35) Soha Tra Từ , Hà Nội: Công ty cổ phần Truyền thông Việt Nam.

36) 出自『金云翘传』，『金云翘传』是越南国民文学长编叙事诗。是18世纪到19世纪间，诗人阮攸根据中国明末清初青心才人原著小说『金云翘传』用本民族文字喃字写成的3254行叙事诗。

<图5> 越南语“đinh ninh (丁寧)”语言演变关系图



4. 结论

本文通过对同形异义汉字词“丁宁”在中韩日越四个汉字文化圈国家中的语义演变进行详细考察，探讨了该词的起源、发展变化以及各国语义分化的情况。首先，从“钲”（军用乐器）这一本义出发，该词最初源于古代战场上用于指挥和传递命令的工具。这一层含义因为战争在古代社会中具有极其重要的地位而得以保留，尤其是在中韩日三国中均得到了传承。钲不仅承载了军事文化的具体功能，还成为语言交流中的共同符号。其次，关于“恳切”这一层意义的保留，主要与古代封建社会的文化背景有关。在君臣关系严苛的封建体制下，臣对君表达忠诚和谦恭是一种被高度重视的文化现象，这种社会环境促成了“丁宁”一词中恳切、郑重等语义的传承。在各国文化传播过程中，“丁宁”一词的使用频率和语义分布差异明显。这种差异反映了不同文化和社会规范对词汇意义的不同侧重。随着社会变革和文化演进，各国根据自身的政治和社会背景，对“丁宁”一词进行了不同程度的语义扩展，派生出新的含义和用法。然而，本文对“丁宁”演变原因的分析仍显不足，尤其是在具体的细化研究方面尚需加强。未来研究可以更深入地探讨不同社会文化因素对语言语义演变的具体影响，从而更全面地揭示“丁宁”一词在汉字文化圈内的多重价值与意义。

【차세대학자분과 I】 발표

중국어 중복문의 특징 고찰

박현경* · 이미경**

【목 차】

1. 서론
2. 말뭉치 분석
3. 논의
 - 1) 통사적 특징
 - 2) 화용적 특징

【 초 록 】

현대 중국어의 중복문은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통사적·의미적 구조로, 문장의 유창성을 높이고 감정과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통사 구조와 의미 분석에 치중되어 있으며, 화용적 기능과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美好生活(아름다운 생활)>과 <三十而已(겨우 서른)> 드라마의 실제 대사를 기반으로 중복문의 유형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말뭉치 분석을 통해 중복문의 빈도와 유형을 분류하고, 구조 분석을 통해 문법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화용 및 의미 분석에서는 감정 표현, 상호작용 조절 등 중복문의 다양한 담화 기능을 고찰하였다. 또한 음성 분석 도구를 활용해 억양, 강세, 속도 등 발화 특징이 의미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복문의 화용·의미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중국어 담화 및 화용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키워드】 중국어 중복문, 화용 기능, 의미 분석, 드라마 대사 분석, 말뭉치 분석

* 제1저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중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생 (gwul401@naver.com)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제어문학과 부교수 (meijing8910@gmail.com)

1. 서론

본 논문은 중국어 대화 말뭉치 속 중복문을 분석한 후, 구조적 특징을 고찰하고 어떠한 화용 및 의미적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孟琮(1982)은 문장의 첫 부분에 출현한 언어 성분이 문장의 끝부분에 다시 출현하는 현상을 처음 논의하고 분석하면서 2인칭 대명사 중복사용을 소개하였다(张旺熹, 2012; 郭燕春, 2013; 이지원, 2019).

먼저, 아래 대화를 살펴보자.

- (1) 刀美岚 : 有人了? 女的?
徐 天 : 妈, 那还能是男的呀?
刀美岚 : 你疯了你。¹⁾
(2) 许幻山 : 给爸爸吃一吃啊?
(3) 这和我没关系这。²⁾
(4) 到底要哪件啊到底?³⁾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1)과 (2)에서 볼 수 있는 인칭대명사 你 등이 한 문장 안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중복문이다. 문법규칙에 따르면 예(1)은 你疯了你가 아니라 你疯了가 문법에 맞고, 예(2)는 你也不容易啊你가 아니라 你也不容易啊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1)과 (2)처럼 주어가 문장 끝에 한번 더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李颖, 2014; 张金圈, 2018; 李晓玉, 2020). 이외에도 예(3)과 같이 지시대명사 这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은 예(4)처럼 부사 형태로 나타나는 중복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어순을 벗어난 중복문이 어떠한 기능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 대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뉘앙스⁴⁾와 그 의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중복문이 구어에서 매우 흔한 문장 구조⁵⁾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에게 비교적 생소한 문형이기에 중복문이 대화에서 어떠한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중복문에서 중복이 가능한 품사와 문장 성분의 종류를 분석함으로써 중복문의 통사적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둘째, 중국 드라마에서 실제 사용된 중복문을 추출한 후, 해당 문장의 인접쌍을 중심으로 중복문의 화용적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복문이 담고 있는 화용·의미적 차이를 고찰한다. 셋째, 음성 분석을 통해 중복문이 실제 대화 속에서 어떤 음성적 특징

1) <美好生活(아름다운 생활)>은 2018년 2월 28일 동방위성TV와 베이징위성TV에서 처음 방영하였고 유쿠(优酷)에서도 방영하였다. 이 작품은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량샤오후이(梁晓慧)와 그녀의 남편 심장을 이식받은 남주인공 쉬텐(徐天)이 심장 이식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깊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총 45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1)은 <美好生活>에서 추출하였다.

2) 容晶, 「跨语言视觉下的汉语口语中拷贝式右置句」, 『云南民族大学学报』 第1期, 2008, p.141. 재인용.

3) 张金圈, 「汉语口语中的首尾重复式话语句式及相关问题」, 『语言与翻译』 第3期, 2018, p.11. 재인용.

4)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뉘앙스(nuance)는 ‘어떤 말의 소리, 색조, 감정, 음조 등에서 기본적인 의미 외에 문맥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섬세한 의미 차이’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뉘앙스, 즉 어감이 기본적인 의미와는 달리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섬세한 의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 표현이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徐舒桐(2018)에 따르면 도치(倒装)는 구어체에 자주 쓰이는데, 산둥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라 북방 관화(官话)지역 전체에서 매우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다. 또한 후난성(湖南), 장쑤성(江苏), 저장성(浙江), 광둥성(广东), 광시 좡족 자치구(广西) 등 지역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을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 말뭉치 분석

본 논문은 <美好生活>와 <三十而已> 속 대화에서 중복문의 분포 현황을 <표1>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중복문의 형식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 유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X와 X'가 모두 표기된 X-X'형태로 예를 들면 你干什么你和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X가 생략되었거나 X'의 위치 이동된 Ø-X'형태로 예를 들면 干什么你和 같은 문장이다. 또한, X와 X'의 문장 성분이 상이하고 X' 뒤에 또 다른 구성요소 Y가 결합된 X-X'Y형태로 예를 들면 你还知道过来啊你啊와 같은 문장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X가 없고 X' 뒤에 또 다른 구성요소 Y가 결합된 Ø-X'Y 형태로 예를 들면 有什么好谈的呀, 咱俩? 이다.

<표1> 중복문 형식에 따른 분석 현황

구분		X-X'	Ø-X'	X-X'Y	Ø-X'Y	합계
형식에 따른 분류	개	41	44	23	12	120
	%	34.2	36.7	19.2	9.9	100.0

Ø-X'형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총 44개로 36.7%이다. 다음으로 X-X'형식이 41개로 34.2%이며, X-X'Y형식은 23개로 19.2%이다. 마지막으로 Ø-X'Y형식은 12개로 9.9%이며,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표1>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복문이 반드시 X-X'형식으로만 사용되지 않으며, 회화적 맥락에서는 Ø-X'와 같은 변형된 형식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Ø-X'형식의 높은 비율은 중복문의 표현이 보다 유연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화자의 감정 표현과 청자 지칭의 방식에 따라 문법적 형식 또한 엄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1>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표2>는 두 드라마의 회수, 시간, 문장 수, 중복문의 개수와 그 비율로 분류하였다.

<표2> <美好生活>와 <三十而已>의 중복문 현황

분류	美好生活	三十而已	합계
회수(부작)	10	43	53
시간(분)	400	1,720	2,120
문장 수(개)	5,092	28,997	34,089
중복문 수(개)	92	28	120
중복문 비율(%)	1.81	0.10	0.35

<표2>에서 중복문은 전체 문장 34,089개 중 120개로 전체의 약 0.35%를 차지하는 낮은 비율을 보이거나 드라마별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美好生活>는 5,092문장 중 92개인 1.81%가 중

복문으로 나타난 반면, <三十而已>는 28,997문장 중 28개로 0.10%만이 중복문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약 18:1의 차이를 보이며 <美好生活>에서 중복문이 더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결과는 중복문의 사용이 단순한 화자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지역적 언어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2>의 중복문 현황을 토대로 <표3>은 중복문의 구조 형태에 따라 크게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나누었고, 복합형은 다시 이중형과 다중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순형은 X와 X'이 같은 성분이다. 복합형에서 이중형은 X와 X'이 서로 다른 성분인 형태를 말하는데 이때 다중형은 X에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오며 X'는 그 외 다른 성분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기타는 X에 인칭대명사가 위치하고 X'에 서로 다른 성분이 세 개 이상 출현하는 범구조 형태를 띤다. 예를 들면 你就一点都不着急, 这孩子 등이다.

<표3> <美好生活>와 <三十而已>의 중복문 구조 분석

작품명			<美好生活>	<三十而已>	
중복문 구조형태					
단 순 형	인칭대명사	개	41	23	
		%	44.8	82.2	
	지시대명사	개	15	3	
		%	16.3	10.7	
	부사	개	5	0	
		%	5.4	0.0	
	동사	개	2	2	
		%	2.2	7.1	
복 합 형	이 중 형	인칭대명사+지시대명사	개	12	0
		%	13.0	0.0	
	인칭대명사+부사	개	3	0	
		%	3.3	0.0	
	다 중 형	인칭대명사+지시대명사+부 사	개	5	0
		%	5.4	0.0	
		인칭대명사+지시대명사+명 사	개	4	0
		%	4.3	0.0	
		인칭대명사+지시대명사+동 사	개	3	0
		%	3.3	0.0	
	기타	개	2	0	
		%	2.2	0.0	
합계		개	92	28	
		%	100.0	100.0	

<표3>의 중복문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각 드라마에서 중복문의 구성 요소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三十而已>는 전체 28개의 중복문 중 23개인 82.2%가 단순형 인칭대명사 중복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시대명사의 경우 10.7%, 동사의 경우 7.1%가 사용되었으며, 그 외의 복합적인 구성 요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남방 지역의 언어문화, 특히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을 선호하는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三十而已>의 중복문 사용은 감정 표현의 강조나 설명 내용의 확장을 위해 중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중복을 통해 담화의 간결성과 정밀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반면, <美好生活>는 총 92개의 중복문 중 41개인 44.8%가 단순형 인칭대명사 중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외에 다양한 중복문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결합이 13.0%, 인칭대명사와 부사의 결합이 3.3%,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 및 부사가 결합된 형태가 5.4%를 차지한다. 이러한 복합 구성의 중복문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언어문화에서 중복문을 활용해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중복문의 구조적 다양성과 사용 빈도로 볼 때 각 드라마 배경 지역의 언어문화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방 지역은 대화가 비교적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이 직접적인 담화 양식을 나타내고 남방 지역은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 전략이 각 드라마에서 중복문 형태를 통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지역별 언어문화 차이가 담화 전략에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중복문 앞뒤에 자주 나타나는 어기조사 형태에 따른 분포 현황이다.

<표4> 중복문에 나타난 어기조사 현황

분류		啊	呀	吧	呢	吗	的	없음	합
어 기 조 사 유무 및 종 류	개	23	18	11	10	8	1	49	120
	%	19.2	15.0	9.0	8.3	6.7	1.0	40.8	100

총 120개의 중복문에서 어기조사와 공기하는 중복문은 59% 이상이고, 공기하지 않는 중복문은 40% 정도로 나타났다. 어기조사와 중복문이 공기한 형태는 啊가 23개로 19.2%, 呀는 18개로 15.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吧가 11개로 9.0%, 呢가 10개로 8.3%, 吗가 8개로 6.7%, 的는 1개로 1.0%이며 어기조사가 없는 중복문은 49개인 40.8%로 나타났다. 郭燕春(2013)은 549개의 중복문 말뭉치 중에서 335개의 문장이 어기조사와 공기하였고, 그 중 67.5%가 기본 어기조사⁶⁾인 啊와 공기하는 것을 밝혔다. 徐舒桐(2018:115)에 따르면 일부 중복문은 어기조사인 啊, 了, 吗, 呢, 吧 등을 기준으로 X와 X'이 구분되며, X'은 반드시 어기조사 뒤에만 위치한다. 이러한 구분은 글을 쓸 때 어기를 드러내는 일시적인 멈춤을 표시함과 동시에 중복 성분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중복문 내 휴지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포도 살펴보았다. 휴지 없이 선행하는 문장 구조 뒤에 이어져 나타나는 중복문이 56개로 전체 중복문의 약 61.5%를 차지하며, 휴지가 존재하는 중복문은 35개로 약 38.5%를 차지하였다.

3. 논의

말뭉치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복문의 통사적, 화용적, 음성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1) 통사적 특징

앞서 문장의 첫 부분에 나타난 언어 성분이 문장의 끝부분에 다시 출현하는 현상을 중복문이라고

6) 张伯江(2001:266)에 제시된 어기조사 종류 중 단음절 어기사는 발음에 따라 기본 어기사와 파생 어기사로 분류한다. 이때, 파생된 어기사는 선행하는 구조의 음절 끝 음에 따른 기본 어기사의 변이형 및 기본 어기사의 지역 방언에 따른 발음 변체를 가리키는데 기본 어기조사 啊에 파생된 어기사는 呵, 呀, 哇, 哪, 哈, 哟, 哎이다 (郭燕春, 「汉语口语中人称代词重复现象的多维研究」, 华中师范硕士论文, 2013, p.57. 재인용).

하였는데 중복문은 주로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 등이 문장 내에서 중복되는 X-X' 형식이다. 그 외에도 Ø-X'이나 X-X'Y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구조 그리고 어기조사가 X' 앞에 위치한 구조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중복문의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문은 주로 X-X' 또는 Ø-X'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5) 朋 友 : 这怎么回事?这 。。

예(5)에서 朋友는 자신의 친구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충격과 상실감으로 인해 술에 취한 채 같이 술을 마신 친구의 부축을 받아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한 상황이다. 화자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라고 하며 뜻밖의 상황에 대한 놀람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과 걱정을 내비친다. 이는 예(5)의 중복문은 실제 담화에서 지시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화자가 당황스럽고 난처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 자주 관찰되며, 이때 X'의 这是 감정 표현과 담화 구성의 중간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시대명사 这是 X-X' 외에도 X-X'Y 형태로 자주 출현하는데 张金圈(2018)에 따르면 X' 성분의 80% 이상은 대명사 또는 대명사를 포함한 구 형태로 나타나고 대상을 지시하는 주요 성분에는 지시대명사 这가 있는데 이때 X성분이 这이면 X'에 출현하는 这是 의미가 약화되고 주로 这个, 这是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这怎么回事啊这是이다.

(6) 刀美岚 : 行了吧你, 白等了, 一句都不带听的, 哼!

예(6)은 刀美岚이 아들 徐天의 집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늦은 시간에 돌아온 아들을 향해 그와 만나고 있는 여성인 梁晓慧의 전화번호를 줄곧 달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회피하는 듯 엄마에게 '이따 보내줄게요'라고 답하는데, 이때 예(6)에서 엄마가 '됐어, 괜히 기다렸지, 듣지도 않을 거면서, 흥!'라고 답한다. 문법적으로 你是 대상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여 你行了吧이어야 하나, 실제 대화에서 Ø-X'형태인 行了吧你로 你가 X'에 위치한다. 이때 X인 你가 뒤로 이동하거나(徐舒桐, 2018) X인 你가 생략되면서(李颖, 2014) 술어 行了吧에 초점이 맞춰진 중복문의 특징을 보인다. 이때 张伯江(1996)은 화제중심 언어에서 화제가 술어 뒤에 놓이는 현상에 대해 말하며 간결하고 함축적인 담화체에서 화자가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간결성 원칙과 명확성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중요한 정보는 화자가 우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위치하고, 중요도가 낮은 정보는 부차적인 것으로 뒤에 나오게 된다. 그 결과 화제주어 후치현상(话题主位后置现象)이 나타난다.⁷⁾ 예(6)처럼 行了吧你的 화제주어가 술어 뒤로 이동하는 구조는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발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容晶(2008)은 X-X' 형태인 복제식우치문(拷贝式右置句)⁸⁾과 Ø-X' 형태인 위치 이동문(易位句)을 비교하며 두 구조의 기능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X-X' 형태는 문장의 주체 참여자(subject participant)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Ø-X' 형태는 문장의 술어 부분(predicate)을 부각시키는 역할

7) 郭燕春, 「汉语口语中人称代词重复现象的多维研究」, 华中师范硕士论文, 2013, p.3. 재인용

8) 容晶(2008)에 따르면 중국어에서는 위치 이동문(易位句)이 복제식 우치문(拷贝式右置句)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며 수집된 자료 기준으로 복제식 우치문은 위치 이동문 중 약 30%에 불과하다. 또한 복제식 우치문은 대부분 인칭대명사가 사용되고 문미에 어기조사가 자주 공기한다는 구조적 특징을 밝혔다.

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화자가 특정 발화에서 어느 구성요소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른 선택 전략과 관련되며, 특히 감탄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구어적 맥락에서 더욱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예(6)의 중복문은 문장의 술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불만이나 책망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전략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X-X' 형태는 Ø-X' 형태와 달리 술어 부분이 아닌 주체 강조로 담화의 중심을 형성하며 특히 일상 대화에서 발화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개입이 높은 발화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인칭대명사 중복 구조가 많다.

郭燕春(2013:22)에 따르면 중복문의 중복 성분을 분석한 결과 2인칭 대명사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인칭 대명사가 높았으며 3인칭 대명사 사용 빈도가 가장 낮다. 본 논문에서도 분석 결과 2인칭 대명사 중복 구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 (7) 黄浩达 : 美岚阿姨, 您帮我分析分析, 这豆豆到底对我有没有意思, 真没意思的话, 我真就调头了。
刀美岚 : 哼, 你要想调头你早调头了你。

예(7)은 黄浩达가 刀美岚의 딸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나, 刀美岚의 딸은 黄浩达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黄浩达는 자신이 좋아하는 豆豆의 어머니인 刀美岚에게 답답한 감정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黄浩达가 ‘미란 아주머니, 한번 봐 봐요, 도우도우가 저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건지, 정말 관심이 없는 거라면 저 진짜 그냥 돌아설 거예요.’라고 말하자 刀美岚은 ‘아이구, 돌아설 거였으면 진즉에 돌아섰겠지, 넌’이라고 하며 2인칭 대명사 你를 중복하여 상대를 향해 돌아서지 못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黄浩达에게 말한다. 이때 你的 중복은 단순히 청자를 직접 지칭하는 기능을 넘어서 화자의 의견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거나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청자의 동의를 유도하려는 담화 전략으로 자주 활용된다. 또한 인칭대명사의 중복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吕叔湘(1985)에 따르면 你가 직접적인 지시 기능을 가지며 X-X'구조의 중복문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X'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⁹⁾ 하지만 你要想调头你早调头了와 같이 문미에 X'이 없더라도 그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지원(2019)에 따르면 X는 주어로서 문장의 주요 성분과 긴밀히 결합하나, X'는 필수 요소가 아니며 생략해도 통사적으로 문제는 없다. 예(7)에서 X'이 없어도 문장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X를 중복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 혹은 담화의 흐름을 보다 뚜렷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담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X'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어기사가 자주 출현하며, 이때 어기사는 주로 X' 앞에 위치한다.

- (8) 刀美岚 : 上哪儿去了, 你这溜溜一天, 你累不累啊你。
徐 天 : 出去溜达溜达。

예(8)은 刀美岚은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 徐天이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걸 발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刀美岚은 ‘너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쏘다니면 피곤하지도 않니 넌’이라고 하며 회복도 채 되지 않은 상태로 밖에 돌아다니는 아들을 보고 걱정스러워하며 한편으로 질책하는 뉘앙스로 말한다. 이때 X'이 어기조사 啊와 공기 한다¹⁰⁾. 郭燕春(2013:59)은 반어문

9) 郭燕春, 「汉语口语中人称代词重复现象的多维研究」, 华中师范硕士论文, 2013, p.22. 재인용.

10) 중복문과 공기한 어기조사 형태별 분포현황은 <표7>을 참고할 것.

我怎么给你说得清楚啊我를 예를 들면서 만약啊를 제외할 경우我怎么给你说得清楚我的 반어적인 억양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张谊生(2000,2002)에 따르면 중복문에서 동일한 평서문이라 할지라도 어기조사가 더해질 경우, 단순한 억양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뉘앙스나 담화적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啊와啊의 파생 어기조사인 呀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郭燕春(2013:58)은啊가 단순한 감탄 이상의 기능을 지니며 그 중 화자의 주의 환기, 의문 표출, 해명, 명령, 꾸짖음 등을 전달할 때啊가 일정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 또한 중복문과 공기하는 어기조사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의미를 담화 표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예(8)은 상대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행동이 화자의 기대나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반응을 내포하고 있다. 이때 어기조사啊는 여기서 화자가 상대방의 무리한 활동이나 지나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함께 드러내는 기능으로 보았다. 金智妍(2011:89)에 따르면啊는 화자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대한 반응 및 주관성을 나타낸다. 예(8)의 你是 청자를 직접 지목하여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를 가지며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정서적인 개입을 더욱 심화하며 이는 단순한 걱정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과 동시에 약간의 불만, 걱정이 섞인 담화 행위로 볼 수 있다.

(9) 钟晓芹：我差点就白死了！

陈 屿：死什么呀死！

예(9)에서 钟晓芹은 이혼한 남편 陈屿가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려 한다고 오해하며 분노와 서운함을 ‘나 까딱하다 걱정되 죽을 뻔했잖아’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이 발화에는 钟晓芹의 과잉된 감정과 상대에 대한 강한 서운함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陈屿는 이미 두 사람이 이혼한 상황에서 钟晓芹이 고향에 가는 일정에 맞춰 그녀의 어머니를 함께 찾아뵙기 위해 잠시 다녀오려는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상황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죽긴 왜 죽어!’라고 답했다. 화자의 발화를 즉각적으로 부정하며 약간의 위로의 의미도 담겨있다. 예(9)의 중복문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걱정하는 감정의 정도를 높이고 일반적인 부정표현보다 훨씬 강한 반박과 정서적 반응을 전달한다. 특히, 死什么呀死는 휴지 없이 단숨에 이어지는 억양을 통해 대화의 긴박함을 유지하고 청자의 감정 상태를 흔드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또한 예(9)의 X-X' 구조에 나타나는啊는 발화자의 정서 상태를 강하게 드러내고 대화 당시 상대에게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며 상호작용의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담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의 중복은 통사적 의미 이상의 화용기능을 수행하며 감정 표현이 강조되는 구어체 담화에서 자주 활용된다.

2) 화용적 특징

본 절에서는 중복문의 화용적 특징을 분석하고 중복 구문이 담화 참여자 간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감정, 태도, 의미를 전달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서베이몽키(SurveyMonkey)’를 활용하여 2025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에는 중국 국적의 응답자 총 123명(남성 64명, 여성 59명)이 참여하였다. 수집된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화용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났다.

첫째,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의 표현 강도를 심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0) 徐豆豆：我才不嫁给他呢。

刀美岚：就你这个性，人家都追了你五六年了吧都，啊？你非得等人家对你一点感觉没有了，你就傻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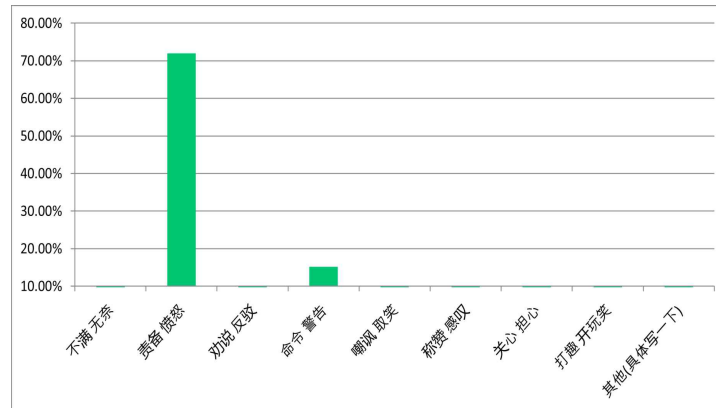
예(10)에서 刀美岚은 徐豆豆(딸)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으나 딸은 그 남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을 보고 그녀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상황이다. 徐豆豆는 ‘절대 그 사람이라 결혼 안 할 거야’라고 말한 것에 대해, 刀美岚은 ‘그 사람이 너 쫓아다닌 지 벌써 5~6년이나 되었다며, 응?’라고 반응한다. 이때 예(10)에서 ‘都.....都’가 나타나는 부사 X-X`구조를 통해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매우 오래 동안 딸에게 구애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 한다. 张明月(2021:133)에 따르면 都가 있는 중복문은 화자가 문장 끝에 都를 다시 중복함으로써 강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현재 화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구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예(10)의 都는 단순한 부사 기능을 넘어 화자의 주관적 입장을 드러내는 화용적 전략으로 작용한다. 또한 X` 앞에 위치한 吧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徐豆豆의 태도에 대한 엄마의 답답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을 극대화 하고 있다. 다음 예를 보자.

(11) 钟晓芹：你不要推人！

投诉人：你打我老婆是吧你！

예(11)은 며칠 전 신발을 구매한 고객이 불량품 문제로 남편과 함께 항의하러 매장에 찾아와 매장 직원인 钟晓芹과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다. 고객과 钟晓芹 사이에 감정이 고조되면서 밀치는 행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에 격분한 고객의 남편(投诉人)이 감정적으로 钟晓芹에게 분노를 내비치는 상황이다. 특히 你打我老婆是吧你和 같은 중복 구조는 감정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질책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중복문을 통해 청자를 겨냥해 비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효과를 드러내어 청자가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또한 대화의 리듬을 빠르게 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상황의 위급함이나 갈등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그림1>은 예(11)의 설문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71.4% 이상이 화자의 감정 상태를 상대에 대한 강한 비난과 격앙된 분노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중복문이 감정의 고조와 직접적인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담화 전략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중복 표현을 통해 감정의 강도를 더욱 심화시키며, 이는 화자의 정서적 태도와 의도를 극대화하여 전달하는 주요한 담화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림1> '你打我老婆是吧你!'에 대한 설문 결과

둘째,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표5>은 인물 관계별 중복문 사용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에 따르면 가족 관계일 때 중복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비율은 58개로 48.3%이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1개로 17.5%이다. 여기서 낯선 관계는 일회성 만남에 가까운 관계를 말한다. 동료 및 친구는 17개로 14.2%, 연인 및 배우자는 15개로 12.5%이며, 이웃 및 지인 관계는 9개로 7.5%로 나타났다.

<표5> 인물 관계별 중복문 비율 현황

구분		가족	낯선 사람	동료 및 친구	연인 및 배우자	이웃 및 지인	합계
인물관계별 중복문 사용 빈도	개	58	21	17	15	9	120
	%	48.3	17.5	14.2	12.5	7.5	100.0

(12) 徐 天：哎妈，你吓死我了您。

刀美岚：我是你妈，你还什么怕呀，我又不是没见过你。

예(12)는 徐天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刀美岚을 발견한 후 놀란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이다. 徐天은 '에이 엄마, 간 떨어질 뻔 했잖아요'라고 하는데 이때 你吓死我了 중 문미의 您은 단순한 경칭이라기보다 상대방에게 최소의 예의를 표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하며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 Brown·Levinson(1978)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에게 호감을 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긍정적 체면과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인 부정적 체면이 있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체면을 최대한 보존해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예(12)는 권력 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화자가 청자에게 약간의 불만이 섞인 의사를 표현할 때 상대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你 대신 존칭 您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의 체면을 지키는 동시에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¹¹⁾ 郭燕春(2013:31)에 따르면 중복문 549개 중 절반 이상이 화자와 청자의 지위가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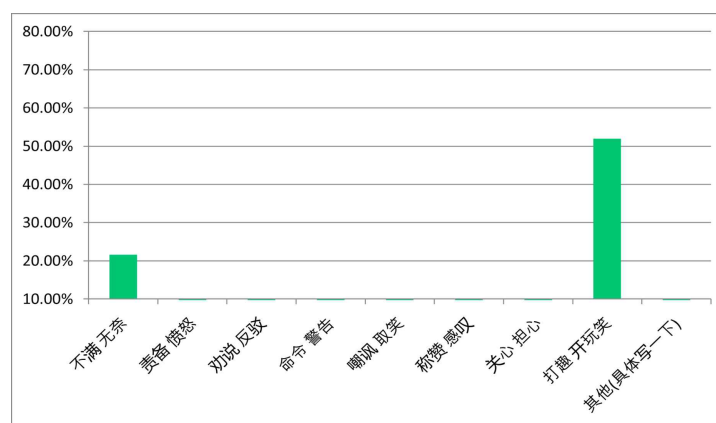
11) 郭燕春, 「汉语口语中人称代词重复现象的多维研究」, 李秀明, 『汉语元话语标记研究』, 复旦大学博士论文, 2006, p.78. 재인용.

하였다. 이는 일상 대화에서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담화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체면을 고려한 언어 사용이 서로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친근함이나 유머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거나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도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중복문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연소자가 존칭 您을 사용하면서 중복문을 구사하는 경우, 이는 상대에 대한 예우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12)에 나타나는 중복문은 화자가 엄마가 왔다는 사실에 놀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엄마가 자신이 만나는 여성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 상황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부드럽게 회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복문의 사용은 엄마와의 관계를 갈등 없이 조율하려는 담화적 전략으로 기능한다. 다음 예를 보자.

- (13) 朋 友：你还知道过来啊你？多久不见了，我还以为你把咖啡戒了。这杯算我请你的。
王漫妮：够意思啊，好香。

예(13)은 오랜만에 자신이 일하는 카페에 찾아온 王漫妮를 보고 화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책망과 서운함이 섞인 농담조의 인사를 건네는 상황이다. 이때 화자는 ‘너 찾아 올 줄은 아는 구나 너’라는 표현을 통해 두 사람이 예전부터 친근한 사이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문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될 때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다.

<그림2>는 예문(13)의 설문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51.4% 이상이 화자의 감정 상태를 장난스럽게 놀리는 뉘앙스로 인식하였으며, 해당 대화를 전반적으로 유쾌한 분위기 속의 상호 작용으로 이해하였다. 응답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감정은 불만과 어이없음이었는데, 이는 중복 표현이 겉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질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가움과 장난스러운 애정 표현이 섞여 있는 화자를 향한 진정성이 묻어나는 말투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복문이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감이 충분히 형성된 관계에서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그림2> '你还知道过来啊你?'에 대한 설문 결과

셋째, 여성 화자의 중복문 사용 경향이 두드러진다.

<표6>는 성별에 따른 중복문 사용 분포이다. 여성의 중복문 사용 비율이 71.7%로 남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인물이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담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중복문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다 직설적이고 간결한 표현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성별에 따른 중복문 사용 분포

구분		여성	남성	합계
성별에 따른 비율	개	86	34	120
	%	71.7	28.3	100.0

중국어 담화에서 중복문의 사용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여성 화자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드라마 <美好生活>와 <三十而已>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인 Lakoff(1973)를 비롯한 Cameron(1985), Key (1975), Bernard(1982) 등에 따르면 여성 화자의 언어사용의 특징으로 색채 표현의 섬세함, 감탄사 및 비의미적 어구의 빈번한 사용, 특정 형용사의 선호, 부가의문문의 활용, 그리고 표준문법에 대한 민감성을 지적한 바 있다.¹²⁾ 이러한 언어사용의 특징은 여성 화자의 의사소통 방식이 감정 표현과 상호작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복문의 사용 역시 이와 같은 성별 기반 언어 사용의 경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복문은 단순한 의미 강조를 넘어 화자의 정체성 표출, 관계 형성, 감정 전달 등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 화자는 중복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며 부정성은 더욱 부정적으로, 긍정성은 더욱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 화자의 언어 사용이 남성 화자에 비해 보다 협력적이고 상호작용 중심적이라는 기존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넷째, 중복문은 주로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중복문은 대부분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담화에서는 중복문이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복문은 주로 칭찬이나 감탄, 고마움과 같은 정서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긍정적인 의미를 보다 강화하고 감정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 대화를 보자.

- (14) 贾小朵 : 嘿,你不知道了吧。这要是女的呀,咱就得比她漂亮,一漂亮呢,版权就好谈了。但是男的不一样啊,咱们一补妆,他觉得自己多吃香呢,版权一开 始就端起来,那就不好谈了。

梁晓慧 : 还挺懂的你。

예(14)는 회사 동료 贾小朵가 저작권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성별이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12) 蘇恩希(2003), 「현대 중국어에 나타난 여성 언어의 특징」, 『중국문학연구』, 제2집, 200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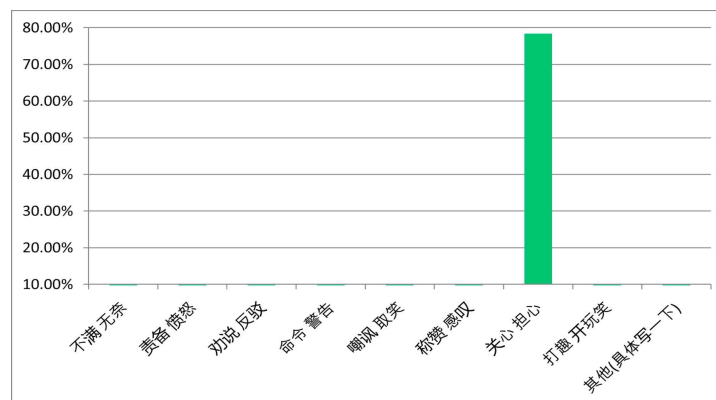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상황이다. 贾小朵는 상대가 여성일 경우 외모적 요소가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남성일 경우에는 자존심이 개입되어 협상이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梁晓慧는 ‘은근히 잘 안다, 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贾小朵의 통찰력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你还挺懂的和 같이 말할 수 있지만, X에 你를 두면서 보다 구어적이며 친근한 뉘앙스를 더하고 있다. 문미에 중복된 你是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자를 직접 지칭함으로써 감탄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는 화자의 감탄과 긍정적 평가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담화 전략으로 기능한다. 다음 예를 보자.

(15) 贾小朵：救命啊，开门，有没有人啊？

徐 天：出好多汗啊，看你脸色也不好，没事吧你？

예(15)는 엘리베이터가 갑작스럽게 멈추는 돌발 상황 속에서 贾小朵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에 徐天은 그녀의 표정과 상태를 살핀 뒤, 没事吧你? 라는 발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있다. 이때 X의 你是 단순한 질문 이상의 담화적 함의를 갖는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즉각적인 관심을 드러내며 청자의 감정 상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반영한다.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은 위급한 상황에서 청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관계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중복문이 단순히 감정의 고조나 비난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배려와 공감 그리고 대화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담화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맥락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과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정서적 조율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림3>은 예문(15)의 설문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78%이상이 화자의 발화를 걱정과 배려의 정서로 인식하였으며 예(14)의 중복문이 단순한 사실 확인의 질문을 넘어서 청자의 불안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공감적 발화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부정적인 감정 고조나 대립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일반적 경향과는 다르게,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담화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중복문은 단순히 의미를 중복하거나 강조하는 기능을 넘어, 화자의 태도, 정체성, 상대에 대한 배려와 같은 담화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아내는 언어적 장치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화용적 의미를 갖는다.



<그림3> ‘没事吧你?’에 대한 설문 결과

(16) 同事：我可听说你今天的精彩表现了啊，你怎么那么厉害呢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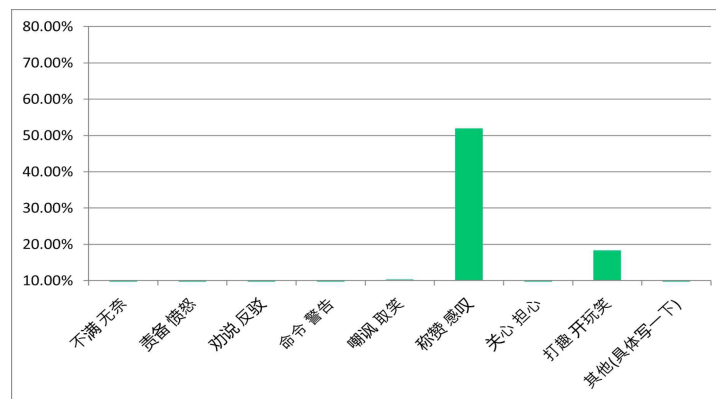
王漫妮：你知道每天晚上睡觉前我都干什么吗？

同事：干什么呀？

王漫妮：我把所有视频里要债的、追账的还有国外那些黑帮片反复地观看学习他们的台词和动作现在气场稳得不行了。

예(16)에서 同事는 王漫妮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를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며 돈을 받아내어 성과를 올린 그녀의 뛰어난 행동력에 대해 놀라워한다. 그리고 그녀의 용감함을 칭찬하며 ‘너 이렇게 대단했어, 너?’라고 王漫妮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시한다. 이때 你的 중복은 회사동료와 王漫妮의 관계가 꽤 가깝고 친근한 사이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상대의 업무 능력에 대한 감탄의 정도가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4>는 예(16)의 설문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55.2% 이상이 칭찬과 감탄으로 나타났으며 위 대화를 통해 주요 정서가 긍정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화용기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중 불만과 체념에 대한 견해도 있었는데 대화의 배경이 직장, 성과, 평가와 직결되는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대에게 감탄을 드러내는 동시에 성과를 낸 동료에 대한 순수한 의도의 칭찬과 감탄 외에도 경쟁의식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你怎么那么厉害呢你?'에 대한 설문 결과

중복문의 기타 특징에는 지역성의 차이가 있다.

말뭉치 분석 결과 <美好生活>는 중국 북방 지역을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방 방언은 일반적으로 직설적인 억양과 표현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은 대화에서 감정의 강조나 비판적 뉘앙스를 드러내기 위해 중복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과 연결된다. 따라서 <美好生活>에 중복문 사용 빈도가 높은 이유는 북방 지역 언어문화의 직접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三十而已>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남방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지역의 언어 문화는 전반적으로 감정표현에 있어 절제와 간접성을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담화 전략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중복문과 같은 표현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비교는 중복문 사용의 양상이 단순히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서사의 구조적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언어문화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중복문은 특정 지역 언어의 담화 전략 중 하나로 기능하며, 대화 참여자 간의 심리적 거리 조절,

감정의 강도 표현, 갈등의 조율 방식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표현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美好生活>와 <三十而已>에서 나타나는 중복문의 화용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7> 중복문의 화용 기능

구분		기능 분류
긍정적	우호	칭찬, 감탄, 관심, 걱정
	중재	설득
부정적	간접	농담, 풍자
	대립	불만, 반박, 조롱, 질책, 분노, 명령, 경고

기존 연구들(张旺慧, 2012; 郭燕春, 2013; 李晓玉, 2020)은 감정 표현을 긍정, 중립, 표면, 부정으로 구분하여 화용 기능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선행연구는 일정 부분 공통된 분류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정 표현이 지닌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담화 자료를 통해 다양한 감정 표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기존 분류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표현들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표7>은 중복문의 화용 기능을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유형을 우호, 중재, 간접, 대립으로 세분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복문의 화용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 기능은 우호적 혹은 중재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호적 감정 표현에서는 칭찬, 감탄, 관심, 걱정이 있다. 화자가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를 드러내는 데 중복문이 사용된다. 예컨대 상대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상대방의 상태를 염려하는 발화에서 중복된 구조를 활용하여 감정의 진정성과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 중재적 기능에서는 주로 설득을 위한 발화에 나타나는데 이 경우 화자는 중복구조를 통해 발화의 친근감을 높이고 상대방의 저항감을 낮추는 전략을 취한다. 중복을 통해 발화의 부드러움을 확보하고, 설득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기능은 간접적 기능과 대립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간접적 기능은 농담이나 풍자와 같이 화자가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기보다, 우회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데 중복문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때 중복은 단순한 의미 강화가 아니라, 발화의 모호성과 유희성을 증가시켜 담화에 다층적 의미를 부여한다. 대립적 기능은 불만, 반박, 조롱, 질책, 분노, 명령, 경고 등 강한 대립적 감정이 표현될 때 나타난다. 이 경우 중복문은 화자의 강한 정서적 반응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거나 청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중복은 발화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청자의 인지적 주의를 환기하는 데 기여한다.

【차세대학자분과 I】 발표

从亭台堂记看苏轼精神家园的构建

翟春燕* · 金昌庆**

【목 차】

1. 绪论
2. 致君尧舜，奋励当世
3. 寄情桃源，不忘苍生
4. 躬耕东坡，众妙归一
5. 结论

【 초 록 】

精神家园是一个民族在文化和行为方式中表现出来的基本精神。其传统的价值系统往往会制约这个民族的思维与行为方式，使之表现出某种共同的精神状态和面貌。同一个民族同一时代的人们也会呈现不同的精神面貌和价值判断，这种个体的精神家园体现的是个体的精神追求与人格特征。精神家园为人们提供行为准则、心灵栖息地，帮助人们找寻归属感及存在的意义。对中国而言，构筑精神家园的思想基础与文化基础主要来源于儒佛道思想。苏轼作为传统文人理想人格的典范，其精神家园的构建无疑对后世有着重要的参考价值。中国古代文人热衷于为亭台楼阁作记，在这些文章中寄寓自己的理想追求。苏轼文章中，即有这样一类亭台堂记，这些建筑物记写作时间分布在苏轼人生的不同阶段。从某个角度而言，这些亭台楼记，就是苏轼精神家园的外化。他的经典亭台堂记展现了苏轼于儒佛道基础上融会贯通并自我构建而成的以人格典范留存于世的独特精神家园。

【키워드】苏轼 儒 道 佛 亭记 台记 堂记 精神家园

* 제1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박사과정 (15513663030@163.com)
** 교신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cgkim@pknu.ac.kr)

1. 绪论

在中国古代诸多文体之中,“记”是其中重要的一类。记体文萌芽于两汉时期,成长于唐代,宋代时达到繁盛,明代时注重抒情,清代则融合前代的义法。第一次明确地对记体文下定义的是明代的吴讷。在「文章辨体序说」中,吴讷着眼于记体文从正体到变体的演化:“大抵记者,盖所以备不忘。如记营建,当记月日之久近,工费之多少,主佐之姓名,叙事之后,略作议论以结之,此为正体。至若范文正公之记严祠、欧阳文忠公之记昼锦堂、苏东坡之记山房藏书、张文潜之记进学斋、晦翁之作婺源书阁记,虽尚尚议论,然其言足以垂世而立教,弗害其为体之变也¹⁾。”;褚斌杰则对记体文的类别进行了划分,认为“从现存的记文来看,有的记人,有的记事,有的记物,有的记山水风景;有的尚叙述,有的尚议论,有的尚抒情,有的尚描写,是非常复杂多样的²⁾”。日本学者儿岛献吉郎在其「中国文学通论」中倾向记体文纪念功用与多种命名的研究:“记是记事之文,或曰纪事,或曰述,是皆把事物客观地观察同时记录之,不过欲使其为永久不忘记念,其名虽殊,而目的则一,体裁亦同³⁾”。各家在不同时空背景下审视记体文这一创作类型,或关注其正体变体,或关注其写作类型,或侧重其命名与功用,包含了记体文多种文体、内容以及形式上的典型特征。

唐代及以前的记体文注重客观地记录,宋代记体文特点则为议论色彩逐渐浓厚。王水照在「宋代文学通论」中明确谈到“到了宋代,记体散文才大展风采,不仅前代已有的题材继续得到充分发展,而且开辟出不少新领域,在作品的立意、格局、视角和语言诸方面,也大变于唐⁴⁾”。作为记体文的繁荣时期,宋代记体文创作无论从数量、质量以及作家来看,都呈现出了前所未有的繁荣景象。据「全宋文」统计,北宋160多年记体文约有2400篇,数量约是唐代3倍之多。其中苏轼留存63篇记体文,是北宋记体文数量最多的作家。亭台堂记等建筑物记属于古代记体文的范畴,是记体文中最大的类别。苏轼63篇记文中写有三十多篇亭台楼堂记,“出新意于法度之中,寄妙理于豪放之外”,极具个性特征。“苏轼之前的亭台楼堂记,或叙述其建立的缘由和经过,杂以写景抒情之笔;或以即景抒情为主,杂以议论之笔。苏轼的亭台记在叙事、写景、抒情的基础上借题发挥,以议论为主,寓理于记。他不象前人那样用大量的笔墨叙述亭台位置和修建过程,单纯地记述亭台的特点,而是借以表达自己的社会经验和人生感受,寄托宏大深远的意义,从而达到了有寓理、有寓情、有寓气、有寓识的较高境界⁵⁾。”以下章节便以苏轼极具代表性的几篇亭台堂记观照苏轼精神家园的构建过程。

“精神家园”,辞书中并未对其有准确定义,但历来人们对其理解与使用却十分广泛。它指的是人精神层面上的意义性存在以及思想上的寄托,其作用在于安抚心灵。因此,精神家园当被看作是对生活的意义及生命归宿的一种普遍性文化认同。“家园是由文化认同所引发的精神上的归属感、思想上的一致性和思维上的一贯性;在文化认知上表现为对作为民族文化之根的思想传统、精神理念、文化习俗乃至生活方式的认同、尊崇和追随⁶⁾。”精神家园包含人的文化体验、生命感悟、思维与认知模式、价值观以及人的信念信仰等内容。其中最为核心的价值,就是人的信念、信仰。当人具备了一定的价值观,也就具备了一个评判事物“是非曲直”的自我标准,因而也具有了行为的导向。精神家园有个体与群体之分,精神家园所体现的是对生命的价值追求以及终极关怀,因而它具有对人价值导向以及精神激励的巨大作用。

1) (明)吴讷,『文章辨体序说』,人民文学出版社,1962, p.41.

2) 褚斌杰,『中国古代文体概论』,北京大学出版社,1990, p.363.

3) (日本)儿岛献吉郎,孙俎工译,『中国文学通论』,台湾商务印书馆,2004, p.47.

4) 王水照,『宋代文学通论』,河南大学出版社,1997, p.440.

5) 张智华,『苏轼亭台楼堂记的艺术特色』,安徽师大学报,第21卷(1993)第3期, p.334.

6) 侯小丰,『精神家园、情感依恋与马克思主义哲学中国化』,学术研究,2007(9), p.54.

“人工建造的物质家园是人类文化的一部分，体现着人类精神文化的状态，因此表现和渗透着精神家园的内容⁷⁾”。当“家园”被赋予物质与精神双重内涵时，“家园”才拥有完整的意义。物质家园是精神家园的存在前提与基础，精神家园在此基础上进一步完善并彰显家园的核心意义，展现家园对人身心的双重庇护功能，为人的内心带来真正的安顿与舒适。苏轼在亭台堂记中对物质家园的精神思考是其在儒佛道基础上的独特精神家园构建，是苏轼思想发展的重要表现，对个体精神家园的构建具有极大参考价值。

2. 致君尧舜，奋励当世

『喜雨亭记』『凌虚台记』与『墨妙亭记』这三篇文章的创作时间基本集中在苏轼进入官场后的最初十年。这三篇文章，比较清晰地反映了这一时段苏轼精神境界的基本状态：致君尧舜，奋励当世。

嘉祐六年（1061年），苏轼被任命为大理评事签书凤翔府判官，这是苏轼仕途生涯的起点。第二年，苏轼在自己官舍北面建亭，作为休息之所。当年凤翔春旱，严重影响春耕生产，亭子建成时，碰巧下了一场大雨，于是作者为此亭命名为“喜雨亭”，并写下了这篇『喜雨亭记』。整篇文章都围绕“喜雨亭”名字的含义展开。亭以雨名，志喜也。古者有喜，则以名物，示不忘也。在中国古代，命名是一件非常重要的事情。所谓“人如其名”，一个人的主要精神特质与他的名字内涵往往是一致的，给建筑物命名也是同样的道理。建筑物的名字，最能直观体现建造者或者命名者的精神状态。精神家园十分重要的一个作用就是带给个人归属感和幸福感。这里，归属感和幸福感归结为“喜”这样一种心理状态。“喜从何来”，就是解构一个人精神家园构成的关键所在。喜雨喜雨，喜从雨来。百姓饱受旱灾之苦，对百姓而言，天降甘霖是最大的喜乐之事。而东坡官邸外建修凉亭，本是私人观景娱乐的场所，他将自己的一座私亭名为“喜雨”，目的是“示不忘也”，即“不忘民生”，“无麦无禾，岁且荐饥，狱讼繁兴，而盗贼滋炽。则吾与二三子，虽欲优游以乐于此亭，其可得耶？”苏轼认为，如果天不降雨、庄稼歉收，诉讼、盗贼猖獗，不仅百姓不能安居乐业，官员们也断无喜乐可言。

林云铭「古文析义」卷十三：“居官兴建，当言与民同乐。但亭在官舍，为休息之所，无关民生。髯苏却借早后大雨，语语为民，便觉阔大⁸⁾。”“语语为民”，这就是此时苏轼精神家园的支柱所在。可以看出，此时的苏轼精神家园的根基，是牢筑于儒家思想之上的，苏轼所追求的快乐和人生价值的实现，都是来源于儒家“治国”“平天下”的政治理想。『喜雨亭记』最后的歌中提出一个问题：这场官民同庆的雨，到底该归功于谁。“一雨三日，繁谁之力？民曰太守，太守不有；归之天子，天子曰不；归之造物，造物不自以为功；归之太空，太空冥冥。”太守、天子、甚至造物，都不觉得这是自己的功劳。作者最终只能将其归功于冥冥的太空。

雨是喜的源泉所在，这里的喜，可以理解成为儒家政治理想：国家风调雨顺，百姓安居乐业。但这一理想靠谁实现，靠官员、君王还是上天？作者自己也不是很确定。但有一点是十分确定的，即这不以个人的意志力为转移。求风得风，欲雨得雨不是常态，而是幸运。这涉及到一个更为深刻的命题：儒家人生价值的实现与否，往往不由自己掌控。在传统儒家社会中，知识分子想要建立一番功业有一个必要前提：君主圣明。因为在专制社会中，皇帝拥有绝对的权威，儒家知识分子只能借助皇权的平台去施展自己的理想抱负，实现自己人生价值。可绝对的权力导致绝对的腐败，专制世袭制度下，明君产生的概率极低，韩非

7) 宫丽，『精神家园论』，华中科技大学博士论文，2022.05，p.37。

8) 朱一清，「古文观止鉴赏集评（四）」，安徽文艺出版社，1996，pp.157-161。

子就嘲笑儒生等待名君的行为是守株待兔。需要指出的是，苏轼创作喜雨亭记时，大概只是在欣喜之余感叹世事难料，借此提醒人们更应珍视来之不易的喜乐幸福，并没有其它政治领域的寓意。因为此时初涉官场的苏轼正如同初生牛犊，迫不及待想要成就一番大的事业。对于前进道路上遇到的那些困难和挫折，毫无畏惧，投之以轻蔑和嘲笑，并不认为他们能够阻碍自己的成功。

喜雨亭建好一年后，京东转运使陈希亮调任凤翔太守，成为苏轼的顶头上司。同年，陈希亮也在自己的后花园修建一座观景台，起名为“凌虚”，当时苏轼已是名满天下，陈太守邀请苏轼为之作记，于是苏轼便作了这篇『凌虚台记』。同样是为观景台作记，但两篇文章所表现的情感却截然相反。杨慎『三苏文范』卷十四：“『喜雨亭记』，全是赞太守；『凌虚台记』，全是讥太守。『喜雨亭』直以天子造化相形，见得有益于民；『凌虚台』则以秦汉隋唐相形，见得无补于民，而机局则一也⁹⁾。”一篇文章中充满赞扬，一篇文章中充满讥讽，虽然文章所说道理并无可挑剔之处，但文章中明显掺杂了苏轼的个人情绪。苏轼自己修的喜雨亭和陈太守修的凌虚台都是观景所用，也就是杨慎所说“机局则一”，但苏轼却在文中将陈太守的凌虚台与秦汉隋唐的前朝宫殿相较，批评陈太守筑台的行为是劳民伤财的无益之举。这种批评无疑是吹毛求疵，更何况出现在别人邀请他写的文章之中。苏轼对陈太守的怨气是有原因的，他认为这位上司总在无端打压自己。苏轼曾在诗中写道：“虽无性命忧，且复忍斯须”，可见苏轼终日都在忍耐中度过，忍无可忍，因此苏轼对陈太守所有的不满情绪都在这篇台记中倾泻而出。事实上，陈希亮的所作所为，都是为了苏轼，用陈希亮自己的话说，他担心苏轼年纪轻轻却享有大名，会骄矜自满，内在涵养不足，所以才会故意压制。苏轼后来明白了这位前辈的苦心，深感后悔。后在其『方山子传』中表达了悔恨之意，“方是时年少气盛，愚不更事，屡与公争议，至形于言色，已而悔之。”遇到陈希亮这样的上司，是苏轼的福气，而苏轼之后的宦途生涯中，很难再遇这样的人共事。但在当时的苏轼眼中，他认为与陈希亮共事的这段岁月是难以忍受的，甚至因此产生了辞官归隐的念头，这一时期苏轼所呈现出的精神面貌，具有一定的典型意义和代表性。

“诗三百，一言以蔽之，曰思无邪”，儒家最大的特点就是“天真”。儒家治国的思想过于理想化，认为王道分两步，第一步：君王实行仁政，本国百姓安居乐业；第二步：仁政威名远扬，天下百姓纷纷投奔。孟子对此有生动的形容。“民归之，如水之就下”、“从之者如归市”。儒家对这套理论有着十足的自信，笃定这样施政，“然而不王者，未之有也。”国学大师章太炎点评孟子的王道思想：孟子讲王道，讲来讲去，只有五亩之宅，树之以桑等话，简陋不堪。更是毫不留情指出，孟子的政治水平“为太守固有余，治国家则不足”。但孟子认为自己是五百年才出一人的治世奇才，“如欲平治天下，当今之世，舍我其谁也？”

苏轼和孟子一样，相信自己有着平治天下的能力。“致君尧舜，此事何难”，在年轻的苏轼看来，实现治国平天下的理想是易如反掌之事。但治国平天下并非易事，仅陈太守一点善意的责难就让苏轼无法忍受，心生退意，可见苏轼此时基于儒家思想构筑的心灵家园还处在十分脆弱的阶段。

“盖世有足恃者，而不在乎台之存亡也。”苏轼『凌虚台记』中的讲这样的话，只是为了讽刺陈希亮，之后苏轼即将面对的是更加变幻莫测的政治风暴，而他的心里尚未搭建“有足恃者”的精神家园。这也是中国古代知识分子普遍面临的问题，精神家园该如何抵御面对残酷的政治现实。

『墨妙亭记』作于宋神宗熙宁五年（1072年）。当时王安石主导的变法运动正轰轰烈烈展开，变法遭到了包括苏轼在内的众多大臣反对，但神宗皇帝坚定不移支持变法，并贬黜罢免了大量反对变法的大臣。苏轼就是在这时离开京城，赴杭州担任通判。赴任路经湖州，湖州知州是苏轼密友孙莘老，孙莘老新建墨妙

9) 朱一清，「古文观止鉴赏集评（四）」，安徽文艺出版社，1996，pp.162-166。

亭，用来存放其收藏的古代石刻，苏轼应孙莘老所邀为亭作记。亭记的前半部分主要是称赞孙莘老在湖州当地卓越的政绩，一方面，是题中应有之义，另一方面，也反映了儒家为政爱民是苏轼一直以来坚守的信念。文章后半部分话锋一转，就孙莘老建亭一事，探讨了“知命”的话题。“凡有物必归于尽，而恃形以为固者，尤不可长，虽金石之坚，俄而变坏”，“而恃形以为固者，尤不可长”和凌虚台记“台犹不足恃以长久”的观点如出一辙，意思都是金石虽坚硬，但终是有形之物，和亭台楼阁一样，都无法做到长久。这就是天命，凡有物必归于尽，一切事物最终都会消亡，这是事物不可摆脱的自然规律。从这个角度而言，孙莘老修建亭子保护石碑的徒劳之举就属于不知天命。身处此时的苏轼，对天命难违有着更深刻更直观的认识。他认为此时的“天命”，态度坚决、不遗余力地支持变法，苏轼这些人做出的任何努力，都像孙莘老所修的亭子一样徒劳。

相比之前陈希亮的刁难，神宗皇帝的天命像一座大山，彻底阻断了苏轼政治方面的前途，苏轼的精神家园该如何面对这样的重压呢？苏轼态度鲜明地提出了自己的立场：“以为知命者，必尽人事，然后理足而无憾”。天命虽不可抗，但人事一定要尽，面对不可抗拒的命运，要做出最大的努力。唯有这样，才能够无怨无悔。苏轼以身体和国家来做类比，“君子之养身也，凡可以久生而缓死者无不用；其治国也，凡可以存存而救亡者无不为之，至于无可奈何而后已。”身体终究会死，但人还是会想尽一切方法去延长寿命，同理，国家也是如此，没有哪个王朝可千秋万代，终究会灭亡，但爱国的仁人志士们总会想尽一切办法去救亡图存。这些努力虽然不能改变最终的结果，但绝非没有意义。对外而言，能延缓衰亡的到来，对内而言，可得到无怨无悔的心安。这才是真正的知命。苏轼用实际行动践行了自己的观点。他无力阻止变法的推行，但不管在中央还是地方任职，他都没有放弃努力，或上书言事，指出新法的问题所在，或权宜处置，努力将新法对百姓的危害降到最低。

一个“天真”的理想主义者，在被残酷的现实摧残之后，很容易堕落成为一个无所作为的虚无主义者，放弃所有努力，美名其曰“顺其自然”，而此时的苏轼，虽然经历了仕途的挫折，但精神家园并未坍塌，并且日益坚固，始终坚定自己“致君尧舜上”的理想并积极践行，这一点极为可贵。

3. 寄情桃源，不忘苍生

神宗熙宁七年（1074年），苏轼改任密州太守。第二年，苏轼把园圃北面一个旧台修葺一新。他的弟弟苏辙给这个台取名叫“超然”。故此，苏轼写了这篇《超然台记》。超然台，取道家思想的超然物外之意。茅坤《唐宋八大家文钞》卷二十五：“子瞻本色。与《凌虚台记》，并本之庄生。”茅坤的话有待商榷，凌虚台记虽有道家思想的成分，但其中很大程度上是苏轼的负气之言，彼时的苏轼精神家园的构成要素中还是以儒家思想为主。但从超然台记中，我们能明显看出苏轼道家思想的体现趋于明显。这其中最主要的原因是苏轼的人生经历带给他新的认识理解，进而影响了这一时期其精神家园的进一步构建。

《墨妙亭记》中提到，面对政治上的失意，作者依然能够做到“尽人事而安天命”，但就精神家园的功用而言，这种“尽人事”只能让人做到无憾，并没有办法带来人生价值实现的归属感和幸福感，因此，苏轼如果想要获得精神上的幸福与满足，就必须继续开拓建设自己的精神家园，从而实现精神层面的富足。实际上，这也是随着时代变迁，整个儒家知识分子群体所面临的共同问题。

盛唐的衰亡，带来的是整个儒家知识分子政治理想的幻灭，传统知识分子很难再从政治领域获得价值感的满足，价值追寻的方向由对外转向对内，这在文艺领域最直观的反映就是从唐诗到宋词。唐诗，特别

是盛唐诗，书写更多的是知识分子渴望建功立业的热情，即使是失意者的幽怨之作，也是抒发不得志的抑郁之情。唐诗到宋词，不仅是表面语言风格上的变化，还反映了儒家知识分子价值追求的变化。宋词更多的开始关注个人情感与生活，从个人层面去思考人生的价值和意义。相比儒家的经世致用之道，道家思想从最初关注的重点就在于个体，在精神。因此，从这时起，道家思想在中国人精神家园中的影响力也逐渐增大。特别是道家“齐一万物”的思想，能给宦海沉浮中的中国知识分子带来心灵上的安慰。正如苏轼的这篇《超然台记》中所表述，政治命运无法把握，作者从有天堂之称的苏杭，来到了穷山恶水的密州，“余自钱塘移守胶西，释舟楫之安，而服车马之劳；去雕墙之美，而蔽采椽之居；背湖山之观，而适桑麻之野。始至之日，岁比不登，盗贼满野，狱讼充斥；而斋厨索然，日食杞菊。”但只要能做到齐一万物，超然物外，就可以无所往而不乐。

《宝绘堂记》作于熙宁十年（1077）七月二十日。当时苏轼好友驸马都尉王诜家建造“宝绘堂”，收藏历代书画，请苏轼写一篇记文。本文从精神家园的构成来看，可以视为作者对儒家思想和道家思想在精神家园层面的第一次融合。墨妙堂和宝绘堂都是用来做收藏之用的。但在墨妙堂记中，作者更多是借堂来阐述儒家知命的人生态度，文章关注的重点仍旧放在世俗世界，到《超然台记》中，作者提出了“超然于物”的人生态度，文章关心的重点转移到了人的精神世界，追寻没有束缚的自由快乐，这明显是受道家思想的影响。但道家思想所追求的超然与物质至上、纯粹精神的自由实际上是很难达到的。物质家园是精神家园的基础，彻底脱离物质家园，精神家园只能变成虚无缥缈的空中楼阁。在《宝绘堂记》中，作者在儒家的“入世”和道家的“出世”中找到了一个平衡点。这个平衡点就是宝绘堂记开篇所说：君子可以寓意于物，而不可以留意于物。道家思想彻底否定物质欲望：老子认为五色令人目盲，五音令人耳聋，五味令人口爽，驰骋田猎令人心发狂。在老子看来，物质欲望只会将人引入深渊。但精神的享受很多时候也来源物质，例如，宝绘堂是用来收藏书画的，书画是古代知识分子获得精神愉悦的重要途径。作者大方地承认物质享受的必要性，但要有节制，更不能沉迷其间。

比起道家脱离世俗的超然，儒家玩物丧志的说教，苏轼这种带有折中色彩的人生态度更具有实际意义，也更容易令人接受。这也是苏轼在构筑自己精神家园时的一大特点：不被某种单一的思想左右，能够博取百家之长，为我所用。“在中国古代士大夫那里，儒道一直是作为互补的两个方面来影响士大夫的政治演生。二者在苏轼这里已经超越了政治演生层面和简单的互补关系，实现了与人生的深度融合¹⁰⁾。”

宋神宗元丰二年（1079年）三月，作者从彭城移守吴兴，途经张氏园亭，应张氏儿子张硕之请，为张家园亭作记。从这篇《灵壁张氏园亭记》中，我们可以看到苏轼精神家园的构筑过程中，对儒道两家思想的进一步调和。对于中国传统知识分子而言，出世与入世的命题几乎等同于出仕与归隐。若要实现儒家的政治理想，做官是唯一的途径；而若想追求道家的自由，惟有归隐深山。出仕与归隐，成了中国古代知识分子都要面临的选择题，也成了最让中国古代知识分子纠结痛苦的问题。因为选择出仕，就必须忍受官场的束缚和羁旅的漂泊，但若归隐，就意味着放弃政治理想和道义责任。苏轼本人也面临着这样的两难处境。仕途的不得志和羁旅之苦让苏轼萌生退意，但致君尧舜的理想之火还并未熄灭。但在这篇亭记中，苏轼给出了一个理想的答案：古之君子，不必仕，不必不仕。一个不必，将单选题变成了多选题，出仕和归隐都对，都可以选。作者还做了一个贴切的比喻，譬之饮食，适于饥饱而已。饿了就吃，饱了就别吃，该作官就做官，该归隐就归隐。都没有问题。所以归隐者不要嘲笑官场之人“怀禄苟安”，为官的也不要讥笑归隐之人“违亲绝俗”。更关键的是，苏轼进一步指出，“必仕则忘其身，必不仕则忘其君”。如果一个人一门心思要做官，那就会忘掉自我，失去自由，一个人如果一门心思归隐，就会忘掉国家，抛弃社会

10) 沈广斌，《苏诗理趣论》，「中国苏轼研究（第五辑）」，2016.03，p.15。

责任。换个角度说,苏轼的“不必”代表着一个人即使选择身在官场时,也能追求个人的自由快乐;一个人远离官场时,也能心系百姓,不忘社会责任。

从其它两篇亭记中我们同样可以看到,苏轼在身体力行地践行着“不必”二字。一篇是前文中所提及的『超然台记』,身处官场的苏轼,依然能做到“无所往而不乐”,不忘追寻心灵的自由快乐,而『放鹤亭记』是一年前于元丰元年(1078年)苏轼知徐州时拜访隐者张天骥时为其养鹤之亭做的题记。“鹤”在中国古代和道家有着密切的联系,可以视作隐者的代名词,从这篇亭记中也可以看到苏轼对官场的厌倦,流露出渴望归隐的情感。但渴望归隐并不代表苏轼抛弃社会责任,也就在这一时期,苏轼所任徐州,遭遇大洪水,苏轼身先士卒,组织当地官员百姓抗洪救灾,最终取得胜利,苏轼本人还因此受到朝廷表彰。这说明苏轼在追求道家精神自由快乐的同时,从未抛弃儒家的社会责任,这一理念贯穿苏轼一身,苏轼宦途生涯后期,北贬岭南,与犯人无异,但每到一地,苏轼总是竭尽所能为当地百姓做事。可见,对苏轼而言,“不必仕”、“不必不仕”并不是一句轻飘飘的空谈,而是践行一生的精神准则。

4. 躬耕东坡,众妙归一

宋神宗元丰四年(1081年)二月,苏轼贬谪黄州第二年,生计艰难,老友马正卿向黄州府求得黄州城东门外“故营地”五十亩,给苏轼耕种,即东坡,苏轼从此自号“东坡居士”。次年一月,苏轼于东坡下得废园,他在废园建堂,因堂成时正逢大雪,遂名之为“雪堂”,并写下『雪堂记』这篇散文。学界普遍认为,被贬黄州时期是苏轼思想的成熟期,也就是苏轼精神家园建设完成的时期。女性作家吴淡如在其为苏轼所作传记中将苏轼被贬黄州的那一年,也就是元丰二年,公元1079年称之为“东坡元年”。正是这一年,“苏轼”变成了中国心目中的人格典范“苏东坡”。创作于这一时期的雪堂记,也就成为一窥苏轼精神家园建设的最佳窗口。

『雪堂记』采用的主客问答的形式,最适合用来表现人内心的矛盾斗争。在这篇文章中反复劝苏轼做藩外之游的“客”,无疑是道家思想的化身,但这篇主客问答的内容,又与苏轼在前面『宝绘堂记』『灵壁张氏园亭记』中体现的儒道思想冲突有所不同,那是因为在苏轼精神家园的建设中另一精神资源的介入,佛家的思想。文章中面对客“藩外之游”的邀约,苏轼表示“自以为藩外久矣”,这就是典型佛教思想的体现。佛教思想传入中国后演化出各个流派,其中影响力最大的就是禅宗。禅宗的一个基本主张就是“挑水砍柴,无非妙道,行住坐卧,皆是道场”。同样是追求人生的最高境界,与道家和印度本土佛教不同,禅宗不主张脱离世俗生活去寻求生命真谛,主张日常生活中一样能够成佛。既然“大千世界一禅床”,作者自然没有必要跟随客人去做藩外之游了,换句话说,在作者的思想里,并无藩内与藩外之分。

中国人民大学中国语言文学系教授朱靖华「朱靖华序跋书评集」评价“在『雪堂记』中,东坡作为一位清醒的主体意识者,他决定既不做嗜佛习道的方外之士的“散人”,也不做“趑趄于利害之途”的儒教“拘人”;“我之为”,则是一种既不脱离现实又不拘泥现实,既“不傲睨万物”又不汲汲于功名利禄的高尚境界的自由人格¹¹⁾。”原始印度佛教是不从事生产劳动的,而中国禅宗则非常重视生产劳动。自百丈怀海禅师创立丛林清规,一日不作,一日不食。生产劳动成了中国僧人的必修课。苏轼能够成为苏东坡,是因为,在东坡这块土地上,苏轼自耕自种,自食其力。这个经历,是中国古代绝大部分文人没有经历过的,但正如禅宗祖师所言,挑水砍柴,无非妙道,行住坐卧,皆是道场。苏轼的精神家园正是在这日复一日的

11) 朱靖华,「朱靖华序跋书评集」,吉林人民出版社,2006年3月第1版,p.61。

生产劳作中趋于圆满的。

与苏轼形成鲜明对比的，是同样是受佛教思想影响巨大的宋代理学，一门心思追求形而上学之道，脱离生产生活实际，培养出一批“无事袖手谈心性，临危一死报君王”只知“空谈”的废物，这一对比，对于精神家园的建设非常具有启发意义。

『观妙堂记』和『众妙堂记』这两篇堂记都是作者晚年被贬南海时所作，观妙和众妙，“妙”是道教和佛教都有的概念，可以简单理解成为人生所追求的最高境界或者所谓的终极真理。对于人的精神家园而言，这个妙就是精神家园的终极形态、完美的形态。作者『众妙堂记』借梦展开关于“一妙”和“众妙”的争论，就人生境界的构建而言，这个争论可以理解人精神家园的完美形态是否只有一种形式，或者是儒佛道三家哪一种才能成为构建完美精神家园的妙道。在作者的认识中，“一已陋矣，何妙之有。若审妙也，虽众可也。”儒佛道任何一家的思想，都不是构筑精神家园的不二法门，拘泥于一家思想，是无法达到人生至高境界的。

儒释道是构成中国人精神家园的文化土壤，对于三家思想，苏轼在『观妙堂记』中明确提出“不可执偏，强生分别，以一味语，断之无疑”。六祖慧能言：“世人妙性本空，无有一法可得”，这句话可以作为苏轼最终构建自己精神家园的根本原则。仅凭儒佛道任意一法，都不足以支撑精神家园。“世人妙性本空”，强调了个人的主体性。禅宗认为，每个人的心中都有佛性，也可称之为自性。自性是成佛的前提，就精神家园的建设而言，就是接受儒佛道思想时不是被动的接受，接受的前提是自性，要结合自身实际情况，对三种思想予以调和。从两篇堂记中可以看到，苏轼在晚年时期，已将儒释道三家思想在自己身上实现了融会贯通，搭建起堪称中国人典范的精神家园。

5. 结论

苏辙为苏轼撰写『亡兄子瞻端明墓志铭』，对苏轼求学的历程作了简单概述“公之于文，得之于天。少与辙皆师先君，初好贾谊、陆贽书，论古今治乱，不为空言。既而读『庄子』，喟然叹息曰：“吾昔有见于中，口未能言，今见『庄子』，得吾心矣。”乃出『中庸论』，其言微妙，皆古人所未喻。尝谓辙曰：“吾视今世学者，独子可与我上下耳。”既而谪居于黄，杜门深居，驰骋翰墨，其文一变，如川之方至，而辙瞠然不能及矣。后读释氏书，深悟实相，参之孔、老，博辩无碍，浩然不见其涯也。”苏轼最早接触的是儒学，之后是道家思想，最后是佛教思想。而这恰恰也是苏轼精神家园构建的整个过程。事实上，每个中国人的思想历程都大致经过了这样一个过程：在人生的初期，青年阶段，是受儒家思想影响最多的时期，积极投身事务，渴望建功立业，“致君尧舜，此事何难”，都认为自己能有一番大的作为；进入中年，当理想在现实中处处碰壁，渴望自由却不得不被世俗枷锁束缚，这时道家思想便发挥功用安慰人疲倦受伤的心灵；到了晚年，随着生命走向尾声，死亡迫使人们开始关心终极或者是来世的问题，这时人们便容易亲近佛教思想，希望从中获得启迪，来从容面对即将到来的死亡。

苏轼的过人之处在于，他在人生的不同阶段，对待几种思想并未喜新厌旧。世人中许多原是儒家入世的积极理想主义者，在遭受打击后会彻底抛弃儒家，转身投入道家或佛家的怀抱。而苏轼在接触新思想的同时，没有彻底抛弃否定旧思想，而是各取其长，从致君尧舜、奋励当世到寄情桃源、不忘苍生再到躬耕东坡、众妙归一，苏轼就是在儒佛道思想的不断融合与自我构建中不断提升着自己的人生境界，其精神家园的构建也在人生不同阶段对儒佛道思想的取舍与自我构建过程中趋向成熟。

【차세대학자분과 I】 발표

探究《桃花源记》与《桃花源诗》的关系问题
— 暨中国古代文体认知问题的探讨

韦树定* · 朴炳仙**

【목 차】

1. 绪论
2. 对目前各类说法的分析
3. 文本对比分析
4. 版本传播分析
5. 结语

【 초 록 】

目前对陶渊明《桃花源记》和《桃花源诗》二者关系有多种说法。本文试图从中国古代文体特征，文本对比，版本影响等方面去探究二者关系，并分析造成二者关系的复杂化的深层原因，从而强调中国古代文体学的重要性。

【키워드】 《桃花源记》，《桃花源诗》，文体形式，版本，文体学

* 제1저자. 국립군산대학교 중국학과 석박사과정 (693595844@qq.com)

** 교신저자. 국립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parkbs@kunsan.ac.kr)

1. 绪论

陶渊明(365—427年),一名潜,字元亮,世称靖节先生¹⁾。东晋著名诗人,文学家。他给后人留下的不少经典的诗作和文章。传统上,陶渊明的作品被编为《陶渊明集》,其中收录的诗作大约有一百二十余首,而文章则包括辞赋、疏、传等,数量较少,大约有十几篇。其中他的《桃花源记》(以下简称《记》)是历代传诵的古文名篇,又曾入选中学语文课本,故而说是陶渊明最具知名度和影响力的作品。而《桃花源诗》(以下简称《诗》)的影响力则相对逊色不少。

虽然古今不少陶渊明的诗文集版本里,《诗》和《记》是紧密连在一起的,以《桃花源记并诗》的名目出现在读者的面前较为常见,也有当代的诸多选本中,《诗》只是附带性介绍于《记》之后。然而《诗》的重要性未必就在《记》之下。类似的情况,还有唐代王勃的《滕王阁序并诗》中《滕王阁序》和《滕王阁诗》的关系问题。这就不得不去探讨一下《诗》和《记》的关系,进而重审中国古代文体的认知问题。

2. 对目前各类说法的分析

现在关于《记》与《诗》二者关系有种种说法。根据李光摩《两个桃源的对话——《桃花源记》与《桃花源诗》关系的再探讨》²⁾(以下简称李文)曾探讨过《记》与《诗》的关系,资料详实。李文认为,《诗》和《记》的关系大致可分为如下几种关系的说法。第一,视诗文各自独立。第二,视诗文互为一体(其中又分两种关系,其一,认为《桃花源记》是《桃花源诗》的序。其二,认为二者属于对话关系)。第三,认为《记》与《诗》是一个整体,属于文体的创新。然而李文分析最终认为二者是第二种其二与第三种关系的结合,即认为是**不同文体对话构成的新体裁,可视为陶渊明的一次文体实验**。对此,本文不认同此结论,认为二者关系应当是李文所述的第二种关系其一的说法,即认为**《桃花源记》是《桃花源诗》的序,二者互为一体**。下面结合李文原文,本文分别重新分析。李文原载:

第一,视诗文各自独立。其一,认为《桃花源记》是一篇小说。1918年,胡适发表《论短篇小说》一文,认为《桃花源记》是一篇用心结构的短篇小说。1929年,梁启超说:“这篇记可以说是唐以前第一篇小说,在文学史上算是极有价值的创作。……至于这篇文的内容,我想起他一个名叫做东方的Utopia(乌托邦),所描写的是一个极自由极平等之爱的社会。”把《记》视作一篇小说,这个说法自然有其根据。因为在《搜神后记》里可以找到《记》的雏形,而《搜神后记》在中国传统的四部分类当中属于子部小说类。其二,认为《桃花源记》是一篇古文。如明贺复徵编《文章辨体汇选》就将《桃花源记》与柳宗元“永州八记”等编为一卷,明显是将其视为古文。传统的古文选本如吴楚材、吴调侯编纂《古文观止》,限于选文体例,单选记,不录诗,完全将《记》视作古文。(인용문 스타일로 변경)

本文认为,以上是后人根据自己的编选体例需要,裁篇单行后,按内容特点和文体形式的从属关系去认定《记》,这里面是有交叉和从属关系。如胡适³⁾、梁启超⁴⁾认为《记》是小说,是内容形式和文体从属关系论定,即古文小说。如上述《搜神后记》⁵⁾视为古文小说,它们既是古文,又属于小说,

1) 陶淵明,『陶淵明集』,遼立校注,北京,中華書局,2007年重印說明頁, p.1. 本文所引陶詩文皆出此書, 不另注。

2) 李光摩,「两个桃源的对话——《桃花源记》与《桃花源诗》关系的再探讨」,『学术研究』, (11), 2023, pp.162-169.

3) 胡适,「论短篇小说」,『新青年』,第4卷 第5号, 1918.5.15., p.12.

4) 梁启超,「陶渊明」,『饮冰室合集』,第8册,中华书局, 1989, p.1.

这并不矛盾。而《文章辨体汇选》《古文观止》选《记》为古文名篇之一，即“记”为古文体之一，则是文体从属关系。古文是大的概念，而“记”属于小种类。这在南朝刘勰《文心雕龙》⁶⁾，明代文学评论家吴讷《文章辨体序说》和徐师曾《文体明辨序说》⁷⁾中已有论定，此不赘述。但李文在第一种关系中没有论及《桃花源记》和《桃花源诗》各自独立性的问题，而只说了“限于选文体例”的原因。然而这并不能说明客观上二者没有联系，独立存在（李文亦否认此种说法）。

李文又载：

视诗文互为一体。其一，认为《桃花源记》是《桃花源诗》的序。《四库全书总目》“搜神后记”提要云：“旧本题晋陶潜撰，中记桃花源一条，全录本集所载诗序，惟增注渔人姓黄名道真七字。”四库馆臣把《搜神后记》当作伪托之作，且把《记》当作《诗》的序言看待。王瑶编注《陶渊明集》，将《桃花源记》降为与“诗序”同列，是《诗》之附庸。施蛰存也认为《记》是《诗》的序，后人裁篇单行，题作《桃花源记》，可以说是游记文的嚆矢。什么是诗序呢？吴讷《文章辨体序说》云：“《尔雅》云：‘序，绪也’。序之体，始于《诗》之《大序》，首言六义，次言风雅之变，又次言二南王化之自。其言次第有序，故谓之序也。”吴承学《论古诗制题制序史》（以下简称吴论）：一般诗序，大都“自述写作缘起、主旨和阐释创作背景，是对诗题的补充，是读者了解作品的重要依据”。

本文认为以上没有问题。但李文又接着说明：

陶渊明的作品，如《停云》《时运》《游斜川》《饮酒》等作均有序，也都是交待写作缘起、背景，而《记》却没有这些类似的交待，与诗序迥不相类。

但本文解读认为，根据《诗大序》⁸⁾所谓“其言次第有序，故谓之序”和吴论诗序为“阐释创作背景，是对诗题的补充，是读者了解作品的重要依据⁹⁾”，《记》所写桃花源故事经历即是在介绍背景，使之言之次第有序。

此外，目前最早的陶集版本只能追溯到宋代¹⁰⁾，故本文推测有可能最初陶渊明可能曾写过《诗》的写作缘起，即因闻桃花源的故事有感而作此诗的字句，有可能是后人再传抄或选编的过程中为了使得桃花源故事的完整性，就把陶渊明写作缘起的部分序文删去，亦未可知。故而本文认为二者的关系，实际上正如李文所举王瑶¹¹⁾和施蛰存¹²⁾先生观点，《记》为《诗》之序，客观上是一体的，但选编者可裁篇单行，不害其全。

李文又述第二种关系其二说法，认为二者属于对话关系。并举：蔡瑜曾论及陶集不同文体之间的对话，认为《记》与《诗》也是如此。但本文认为，李蔡对文体的理解有问题。一般上，对话关系的文体在古代文学作品中，呈现出来的形式要么是语录式的对话体，如《论语》《孟子》；要么是对话体辞赋类的，如屈原《渔父》，司马相如《上林赋》《子虚赋》；班固《两都赋》，甚至欧阳修《秋声赋》；苏轼《赤壁赋》都是对话体辞赋。然而陶渊明《记》与《诗》的关系，明显是既不属于语录式的对话体，又非对话体辞赋。因此，二者明显不属于对话关系或对话体。

5) 永瑢等，《四库全书总目》，卷一四二子部·小说家类三，中华书局，1965，p.1208.

6) 刘勰著，范文澜注，《文心雕龙注》，人民文学出版社，1958，p.125-126.

7) 吴讷，《文章辨体序说》，徐师曾，《文体明辨序说》，人民文学出版社，1962，p.42.

8) 毛亨传，郑玄笺，陆德明音义，《毛诗传笺》，中华书局，2018.11.，p.3.

9) 吴承学，《论古诗制题制序史》，《文学遗产》，第5期，1996，p.25.

10) 松冈荣志，《「陶渊明集」版本小识——宋本三种》，《苏州大学学报》，(01)，1994，pp.60-63.

11) 王瑶编注，《陶渊明集》，作家出版社，1956，p.92.

12) 施蛰存，《漫谈古典散文》，胡道静主编，《国学大师论国学(下)》，东方出版中心，1998，p.30.

李文又载：

第三，认为《记》与《诗》是一个整体，属于文体的创新。张伯伟认为陶渊明是文学史上少有的文体大师，兼采不同文类，熔铸新体。《桃花源记》由一文一诗构成，以两种不同的体裁处理同一主题，亦文亦诗，互相映衬，正是陶渊明在文体上的一种新尝试。

关于“《记》与《诗》是一个整体”是第二种关系“诗文一体”的说法，本文赞同。但李文认为“属于文体的创新”这个说法，本文不敢苟同。原因是文体是不能随意创新的。进行文体创新如同古人认为制定礼乐一样非同寻常的事情。《中庸·第二十八章》：“虽有其位，苟无其德，不敢作礼乐焉；虽有其德，苟无其位，亦不敢作礼乐焉。¹³⁾”既要有德，还要有位。这就是周公和孔子可以，而一般的君王不能制定礼乐这个道理。搞文体创新的作者也需要同时具备两个条件，一是文学之位，相当于当时的文坛领袖级别的身份。因为有了这个身份地位，才能影响众人；二是文学之德才，要极有才华和魄力，并创造出一些新文体作品代表。有了代表性作品，才能得到后人的承认和接受。文坛领袖之类，在汉代如司马迁，扬雄是，在唐则韩愈是，宋则欧阳修，苏轼是。而陶渊明在世时并非文坛领袖，当时钟嵘《诗品》仅列其为中品¹⁴⁾；颜延之的《陶征士诔》文中提到陶渊明“弱不好弄，长实素心。学非称师，文取指达”¹⁵⁾，可见陶渊明当时的诗文影响并不大。所以，陶渊明属于有德才而无位者。无位，在当时则无影响力，若想创新则读者大众不接受，不承认，因此他没有进行文体创新的条件。

更重要的是，我们遍翻陶渊明集子，也没有发现他刻意创新文体更多例子和作品。陶集里的文章分别是“辞，赋，记，传，赞，述，疏，祭文”。这几类文体在陶渊明之前代文人作品中已经屡见不鲜。可查清人严可均《全上古三代秦汉三国六朝文》¹⁶⁾，此不赘述。而《记》作为古代散文，《诗》为五言古诗，这种前面部分以散文来交代事情缘由，后面部分是韵文诗体抒情言志的搭配，古已有之。如东汉张衡《怨诗》有序¹⁷⁾，曹植《洛神赋》《赠白马王彪》有序¹⁸⁾，西晋的付咸，石崇，陆机，陆云诗赋作品皆有序，其序或长或短，皆为散文，皆在陶渊明之前。后代如碑文铭文仍多沿用此种写法。

根据上文各个学者的观点与本文态度总结，可将关于《桃花源记》与《桃花源诗》的关系分类与分析总结为下表1.

<表1> 各类学者关于《桃花源记》与《桃花源诗》的关系分类与分析表

关系分类	学者	主要依据	本文态度
各自独立	胡适、梁启超	《记》视为小说或古文，单独成篇	认为应互为一体，但理解分类背景
互为一体（《记》为《诗》序）	王瑶、施蛰存	《记》交代背景，符合古代诗序传统	支持
互为一体（对话关系）	蔡瑜等	不同文体间对话	否定，指出不符合古代对话体形式
整体创新	张伯伟、李光摩	新体裁，亦文亦诗	否定，认为陶渊明无文坛领袖地位，非文体创新

13) 朱熹，《四书章句集注》，中华书局，1983，p.66.
14) 王叔岷，《钟嵘诗品笺证稿》，中华书局，2007，p.125.
15) 松冈荣志，梁克隆，「关于颜延之的《陶征士诔》」，《中华女子学院山东分院学报》，2006.04., pp.79-84.
16) 严可均，《全上古三代秦汉三国六朝文》，中华书局，1958，目录pp.1-20.
17) 张衡，《张衡诗文集校注》，张震泽 注，上海古籍出版社，2009.08., p.247.
18) 曹植，赵幼文校注，《曹植集校注》，中华书局，2016.10，p.235.

通过表1总结,我们再结合中国古代文体的功能,尤其是序、记、诗的文本角色辨析和诗文关系的结构性逻辑,以及版本学的介入,文本载体对文体认知的形塑作用分析发现,《桃花源记》之名,则可能是因后人裁篇单行,改“序”为“记”。因此,可以认为《记》与《诗》是一个整体,但不属于文体的创新,而是既有之文体,即前文后诗。

3. 文本对比分析

我们还需要用从文本上去对照看二者关系,离开文本去讨论就没有多大意义了。以下为逯钦立校注《陶渊明集》所录《桃花源记》:

晋太元中,武陵人捕鱼为业。缘溪行,忘路之远近。忽逢桃花林,夹岸数百步,中无杂树,芳草鲜美,落英缤纷。渔人甚异之,复前行,欲穷其林。林尽水源,便得一山。山有小口,髣髴若有光。便舍船从口入。初极狭,才通人,复行数十步,豁然开朗。土地平旷,屋舍俨然。有良田、美池、桑竹之属。阡陌交通,鸡犬相闻。其中往来种作,男女衣著,悉如外人。黄发垂髫,并怡然自乐。见渔人,乃大惊,问所从来,具答之。便要还家,为设酒杀鸡作食。村中闻有此人,咸来问讯。自云先世避秦时乱,率妻子邑人来此绝境,不复出焉,遂与外人间隔。问今是何世,乃不知有汉,无论魏晋。此人一一为具言所闻,皆叹惋。余人各复延至其家,皆出酒食。停数日,辞去。此中人语云:“不足为外人道也。”既出,得其船,便扶向路,处处志之。及郡下,诣太守说如此。太守即遣人随其往,寻向所志,遂迷不复得路。南阳刘子骥,高尚士也。闻之,欣然规往,未果,寻病终。后遂无问津者。

以下是逯钦立校注《陶渊明集》所录《桃花源诗》:

嬴氏乱天纪,贤者避其世。
黄绮之商山,伊人亦云逝。
往迹寢复湮,来径遂芜废。
相命肆农耕,日入从所憩。
桑竹垂馥荫,菽稷随时艺。
春蚕收长丝,秋熟靡王税。
荒路暧交通,鸡犬互鸣吠。
俎豆犹古法,衣裳无新制。
童孺纵行歌,班白欢游诣。
草荣识节和,木衰知风厉。
虽无纪历志,四时自成岁。
怡然有余乐,于何劳智慧。
奇踪隐五百,一朝敞神界。
淳薄既异源,旋复还幽蔽。
借问游方士,焉测尘嚣外。
愿言蹑轻风,高举寻吾契。

关于《记》与《诗》内容之间的各有异同之处,本文通过比较,总结为表2.

<表2> 《桃花源记》与《桃花源诗》文本内容对比表

对比项目	《桃花源记》	《桃花源诗》	差异分析
起源背景	避秦而隐，发现桃源	同前	重合
发现过程	详细叙述渔人发现过程	省略	诗歌简洁需要
生活描写	农耕自足，怡然自乐	强调无王税、无历志	诗歌补充强调自治乐土
历史感知 渔人走后	不知有汉，无论魏晋 迷失路线，不能复得	无直接叙述 无描述	诗歌以四时自然替代纪历 诗重在理想化表达

李文也就《记》与《诗》逐条疏解对比分析指出：

发现《记》与《诗》有重合，有差异，差异多于重合。重合是认同，这是二者相似的地方，都是避难入山，都生存在一个相对独立的环境里，其中的生活非常美满。差异是商榷，是对话，重要性远在重合之上。差异之中包含着忽略与增补，忽略是否定，增补是强调。一损一益之间，诗的主旨凸显了。其中最重要的忽略是桃源发现的过程，诗人有意避开，其目的是否认其神话性质，显示了桃源的人间属性。增补的是桃源人肆力农耕，以及桃源世界无王税、无历志的无政府状态。其对劳动的赞美，是诗人站在大地上面对浇薄人世的批评，希望能借此移风易俗，返璞归真。

本文则认为，《记》与《诗》有重合，有差异，这是事实，但是不同意李文分析其中差异的原因。从文学作品上看，序文和诗歌主体部分内容必须是要有所差异的，如果完全重合的话，那么二者就没有存在的必要。因为在传统同主题诗歌创作中，就是要在同一背景下去言志。这与古人的乐府诗和唱和诗作法是一致的。古乐府创作，必须要了解乐府题解，然后从中发挥，不能完全离开乐府本事。古乐府本事则是指与这些乐府古题相关的原始故事或背景¹⁹⁾。例如，与《长歌行》相关的本事可能是关于古代战争的悲壮故事，与《江南曲》相关的本事可能是关于江南水乡的美丽传说。这些本事为乐府古题提供了文化背景和情感内涵，使得诗歌作品更加丰富和有深度。而古代的唱和诗一般在不同作品与首唱作品之间，内容主题上往往具有紧密的关联性，通过主题相关性、内容延续性、情感共鸣、艺术创新和文化遗产等关系，形成了一个有机的整体。这也是后来很多咏桃花源的诗，如王维的《桃源行》，张旭的《桃花溪》，刘禹锡《桃源行》，韩愈的《桃源图》，王安石的《桃源行》等作，也默认把陶《记》中的桃花源当背景故事去展开写，或抒情，或议论²⁰⁾。

而《记》与《诗》的差异之中包含着忽略与增补，本文认为忽略不是否定，而是诗文之间可以做相应的省略，桃源发现的过程在《记》中的序言部分已经交代，《诗》中就没有必要一板一眼再述，也是为了避免重复。因为诗需要更简洁的语言去叙述。增补的内容也未必是强调，而是补充说明罢了。《诗》中增补桃源人肆力农耕，以及桃源世界无王税、无历志的无政府状态部分。其实是对《记》里面“不知有汉，无论魏晋”的解释说明，形成一定的呼应关系。

《记》重在记录故事事件本身，而《诗》是在相应故事背景的基础上，重在抒发陶渊明本人的看法和观点的。这与“诗重在言志”传统的是一致的。所以本文认为《桃花源记并诗》应题作《桃花源诗并记》，王勃的《滕王阁序并诗》应写作《滕王阁诗并序》才符合诗人作诗旨意。即这诗文一体中的两部分关系是文从于诗。

19) 王辉斌,「唐人题解与吴兢乐府古题要解」,『南都学坛』, 2013.01, pp.57-64.

20) 黄园园,「唐代歌行体桃源诗的承与变」,『荆楚学刊』, 2023.04., pp.45-51.

那么，古代文学作品当中，是否也有诗文一体的作品，而其诗部分从属于整篇文章之中的现象？也有，如苏轼的《潮州韩文公庙碑》²¹⁾是后文的诗从属于整篇碑文。这类一般是碑文，祭文，诔文，墓志铭类文体。而记类文体一般是单独成篇的散文或骈文，或者从属于诗的序部分，起到背景介绍的作用为常见。关于同一主题作品中的文和诗二者的关系，需要从具体内容和创作旨意去分析才好。

4. 版本传播分析

是什么造成《记》与《诗》二者关系的复杂化？版本差异问题也是值得研究。据李文载：

宋人汤汉注《陶靖节先生诗》四卷，是现存最早的陶诗注本，其中《诗》却以《记》的附庸形式出现，题作《桃花源记并诗》，附在卷四之末。现代学者逯钦立校注《陶渊明集》，以元代李公焕本为底本，并用曾集等本对校，桃源诗文题作《桃花源记并诗》。其他如杨勇、龚斌和袁行霈等笺注本也都参校多种古本，题作《桃花源记并诗》，入卷六“记传赞述”类。这样看来，陶集里的桃源诗文基本上是以记为主，以诗为辅。这些版本影响较大。实际上应该我们看到名人黄文焕析义《陶元亮诗》四卷，突出了《诗》的地位，题名《桃花源有记》，列在卷四之末。近人古直《陶靖节诗笺定本》参照黄文焕做法，列《诗》于卷末，题作《桃花源诗并记》。丁福保《陶渊明诗笺注》、王叔岷《陶渊明诗笺证稿》亦是如此处理，题作《桃花源诗并记》，只是影响力稍逊

那么为什么造成这种差异呢？本文认为这是文学史中的版本的影响传播问题，同时也是后人对文体的认知差异问题造成的，可通过总结为表3.

<表3> 各版本与编排方式对比表

版本/编者	处理方式	对《诗》《记》地位影响
汤汉《陶靖节先生诗》	题作《桃花源记并诗》	以《记》为主，《诗》为附属
逯钦立《陶渊明集》	同上	加强了《记》的主导地位
黄文焕《陶元亮诗》 古直《陶靖节诗笺定本》	题作《桃花源诗并记》	突出了《诗》的主导性和重要性
其他笺注本（如丁福保、王叔岷）	多沿用“诗并记”	影响较小，但方向相同

上表为陶渊明集古代版本中《记》与《诗》的编排方式对比，可见宋元以降《桃花源记并诗》的编纂体例，因受选本功能与传播需求影响，逐渐强化《记》的独立性，导致后世对诗文关系的误读。明清部分注家虽尝试恢复诗本位传统，但受限于版本权威性，未能扭转主流认知。

此外，由于五四新文化运动打倒旧文化之后，百余年时间里，古代传统知识的断层，中国古代文体的传统没有得到应有的研究学习重视。此后中国新的文体分类，长期受到西方文体的“小说、诗歌、散文、戏剧”四种文体分类方法影响很大，尤其是中国的中学教材语文课本对《记》的经典化塑造，使得广大师生和民众受到了现代选本的极大影响，从而造成当今大众对《记》《诗》关系的误解。

21) 苏轼,『苏轼文集』(全六册),中华书局,2004.11., pp.3567-3569.

5. 结语

古人写诗作文，讲究“得体”。所谓“得体”，就是符合一定的体裁形式要求。但是后人由于认知理解的不同，以及近代以来对传统文体学研究逐渐式微，遂对传统的文体的认知和分类有所差异，从而导致了文体分类的混乱，甚至谬误。如前文所列关于《记》与《诗》二者关系说法之纷繁，也是不同读者对传统文体学不了解造成的。当代学者吴承学《中国古代文体学研究》认为，中国古代文体学是研究古代文学的体裁、体制、风格、语言特征、章法结构等现象的综合性学科，是文学理论的一个重要方面²²⁾。因此，加强中国古代文体学的研究学习，对于我们深入理解和欣赏中国古代文学作品具有重要的意义。

通过对目前人们关于《记》与《诗》二者关系说法进行探讨分析，可以发现，《记》与《诗》既不是各自独立的关系，也并非文体创新式的对话关系，而是认为《记》是《诗》之序。《记》与《诗》构成典型的“序诗一体”结构。《记》以散文形式完整叙述桃源故事，承担“诗序”的叙事功能；《诗》则以五言古体升华主题，实现抒情言志的创作意图。二者分工明确，共同服务于陶渊明对理想社会的建构。

通过分析目前造成二者关系混乱的原因，既有不同版本的影响传播力的因素，也有后人对文体的认知差异等因素。从而启示我们要加强中国古代文体学的研究学习，跳出“诗歌、小说、古文”的现代文体标签束缚，回归中国古代文体功能分析框架。此案例通过《记》与《诗》关系探究分析表明，文体分类需兼顾形式特征与文本功能，避免以今律古的范畴错位。在经典文本研究时，应注重版本谱系与编纂意图的关联性分析。特别是中小学语文教学，需强化诗文一体的完整性解读，避免割裂式教学。在未来研究方面，可拓展至中国古典文学中的诸多“序诗一体”作品分析，构建和完善中国古代文体互文理论体系。

22) 吴承学,『中国古代文体学研究』,中华书局,2024,序p.4.

【차세대학자분과 II】 발표

坚毅对非书法专业大学生书法学习兴趣的影响研究

— 以家庭文化资本为中介效应

张潇* · 陈云飞**

【목 차】

1. 绪论	3. 研究方法
2. 理论背景	1) 研究对象
1) 学习兴趣	2) 研究工具
2) 家庭文化资本	3) 研究结果
3) 坚毅(Grit)	4. 分析与讨论

【 초 록 】

本研究旨在探讨坚毅品质对学习兴趣的影响,中国高校大学生的家庭文化资本为中介作用探讨两者之间的关系,并尝试探索改进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学习兴趣。这项研究从2025年3月15日到3月25日对中国山东612名大学生进行了问卷调查。本研究采用SPSS 26.0进行描述性统计分析,并对数据进行相关性分析,采用Amos 26.0进行结构分析方程模型分析和路径分析,以验证n之间的影响关系变量。

研究结果表明:第一,坚毅、家庭文化资本和学习兴趣之间产生正向影响。坚毅与书法学习兴趣呈显著正相关关系,坚毅水平越高,书法学习兴趣越持久;坚毅与家庭文化资本也存在显著正相关关系,家庭文化资本越丰富,学习兴趣也越高。第二,家庭文化资本在坚毅和学习兴趣之间产生中介效应。家庭文化资本越丰富的学生,其坚毅品质对书法学习兴趣的促进作用更为显著。

研究结果揭示了坚毅在家庭文化资本的中介作用的效应下对非书法专业大学生书法学习兴趣有显著正向影响,有助于培养坚毅品质的人格和高校大学生的学习兴趣,为高校书法教育推广提供了理论支持和实践指导。本论文建议在书法教育中注重培养学生的坚毅品质,并充分利用家庭文化资本优势,以激发更多非书法专业大学生的书法学习兴趣,推动高校书法教育多方面发展,促进传统文化传承。

【키워드】 坚毅; 书法学习兴趣; 家庭文化资本; 非书法专业大学生; 中介效应

* 제1저자. 세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349363324@qq.com)

** 제2저자. 세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511821074@qq.com)

1. 绪论

书法作为中华文明的传统文化之一,凝聚着深厚的历史传承和文化积累。《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¹⁾明确指出:“书法是中华民族的文化瑰宝,是人类文明的宝贵财富,也是基础教育的重要组成部分。”这一表述充分凸显了书法教育在基础教育体系中的核心地位和重要意义。在当今数字化时代,科技的飞速发展对传统书写方式产生了深远影响,但书法艺术凭借其独特的美学价值和文化内涵,依然成为备受瞩目的文化热点,并吸引了大量非书法专业的学习者和爱好者,继续在非专业群体中焕发出蓬勃的生命力²⁾。通过查阅先行研究发现,书法教育不仅能够提升学生的文化素养,还能在培养学生良好习惯和磨炼意志力方面发挥重要作用,通过书法学习,学生可以积累文化知识,增强文化认同感,同时在书写过程中培养专注力、坚毅、耐心和细致入微的观察力,从而全面提升个人综合素质。在这些背景下,书法作为中国传统文化的重要组成部分,它的传承与发展离不开普通大学生的积极参与和广泛关注,大学生作为文化传承的重要力量,对推动书法的延续与创新具有重要意义。

中国著名书法家米元璋曾说“一日不书,便觉思涩”³⁾,由此可以看出书法不仅是一种身体的练习,更是一种精神内里的修养,这一点得到了热爱书法的人的普遍认同。孔子曾说:“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乐之者。”⁴⁾由此看出,与书法专业学生不同,非书法专业学生通常缺乏系统的书法基础教育,其书法学习往往需要外部因素和个人兴趣以及个人品质的激发。在《大学生业余书法学习的兴趣培养》研究中已经明确指出,要改变大学生业余书法学习存在的不足,核心在于激发学生对书法学习的兴趣⁵⁾。在《来华留学生书法学习兴趣的现状调查及对策》的研究中表明,学习兴趣是激发学习书法的动机,学习兴趣与其呈现显著正相关关系⁶⁾。综合以上先行研究,学习兴趣是书法学习的核心驱动力,研究学习兴趣对书法学习的重要性具有重要的理论和实践意义。因此,通过这项研究,研究影响非书法专业大学生学习兴趣的重要变量,将具有重要意义。

然而,随着不同家庭文化背景的学生进入高校接受教育,一方面提升了高等教育的机会公平,另一方面也加剧了大学生在家庭文化资本上的差异,使得高校内部学生家庭背景呈现多极化趋势⁷⁾。Mercy研究表明家庭文化资本成正相关对学习投入有显著的正向影响⁸⁾。在Richardson和Skinner的研究中发现,家庭文化资本越薄弱的学生,参加教育社团以及学习活动的机会越少⁹⁾。在《青少年书法教育现状调查》¹⁰⁾的研究中指出,非专业书法学生学习书法的兴趣受到多种因素影响,包括家庭环境、学校教育等。由此可看出,家庭文化资本也影响着学习兴趣的培养。

在《论语·泰伯篇》中¹¹⁾,孔子的弟子子路曾提到,“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远”。在《孟

1) “书法是中华民族的文化瑰宝,是人类文明的宝贵财富,也是基础教育的重要组成部分。”国务院,《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人民教育出版社,2010.

2) “弘扬书法艺术 滋润中华文脉.中国能源报.”,《中国能源报》,2024.12.23., http://paper.people.com.cn/rmzk/pc/content/202412/23/content_30048460.html [2024.12.23.].

3) 米芾,《海岳名言》,上海书画出版社出版社,1989.

4) 孔子,《论语》,雍也篇.

5) 周军,「大学生业余书法学习的兴趣培养」,《扬州职业大学学报》,(2),1998,5.

6) Zhang, J., 「来华留学生书法学习兴趣的现状调查及对策」,《扬州职业大学学报》,18(2),2014, pp.123-128.

7) Zhu, C., 「家庭文化资本对大学生学习投入影响的实证研究」,《教育理论与实践》,45(3),2023, pp.45-52.

8) Mercy, J. A., & Steelman, L. C. (1982). Familial influence on the intellectual attainment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4), pp.532 - 542.

9) Richardson, C., & Skinner, E. (1992). Helping first-generation minority students achieve degre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4), pp.326-333.

10) 晁萌·李意·康丹妮·陈书涵,「现代化背景下蓬溪县书法文化传承与发展——青少年书法教育现状调查」,《社会科学前沿》,11(10),2022, pp.4418-4424.

子·告子下》中¹²⁾，孟子曾提到，“天将降大任于斯人也，必先苦其心志，劳其筋骨，饿其体肤，空乏其身，行拂乱其所为。”在《中职生成就目标定向、坚毅品质与学习投入的关系及干预研究》中提到，坚毅的个人品质更具深层丰富的内涵，并且指出，坚毅是为了达成长期的目标，从而保持稳定的学习兴趣的能力¹³⁾。在2008年，Singh认为坚毅品质是个体对长期目标坚持不懈的追求和热情，以及面对挫折时的决不放弃韧性和意志力¹⁴⁾。非专业书法大学生与专业书法大学生不同，没有通过专业的学习，需要靠个人品质的提升才可激发。经过以上先行研究，坚毅对学习兴趣和有着显著的正向相关关系，高坚毅的人往往能够将兴趣与目标相结合，从而在学习过程中表现出更高的学习动机与学习投入¹⁵⁾。

以上先行研究可表明，坚毅品质与学习兴趣是相辅相成的，共同促进学习效果的提升，通过坚毅的个人品质，对培养非专业大学生的书法学习兴趣，帮助学生在在学习过程中克服困难，得到长期目标的实现。

在文化自信战略背景下，非专业大学生书法学习兴趣不足的困境亟待破解。现有研究缺乏对个体心理特质（坚毅）与家庭文化资源（家庭文化资本）交互作用的关注。坚毅作为长期目标坚持的核心特质，其在艺术学习中的驱动机制尚未明确。本研究构建“坚毅—家庭文化资本—书法学习兴趣”中介模型，旨在揭示坚毅对兴趣的直接驱动作用，解析家庭文化资本在个体特质转化为兴趣表现中的传导路径，并整合心理学、社会学与艺术教育理论形成跨学科框架。研究成果将为高校设计“心理赋能+文化激活”双轨干预方案提供依据，助力构建“个人—家庭—学校”协同育人机制，兼具理论与实践价值。

本研究的研究问题如下：

- 1、坚毅、家庭文化资本和学习兴趣之间是否有影响。
- 2、家庭文化资本是否在坚毅和学习兴趣之间有中介作用。

2. 理论背景

1) 学习兴趣

学习兴趣与教育的关系在西方教育思想中可追溯至古希腊和古罗马时期的教育思想，而在中国教育传统中，则可追溯到春秋至秦汉时期的“乐学”理念¹⁶⁾。王雁在《普通心理学》¹⁷⁾中提到，兴趣是人对某种事物或活动产生积极探究和爱好的心理状态，它是人类认识需求的一种情绪体现，反映了个体对客观事物的选择性态度，兴趣本质上是需求的外在表现形式，通常与个体的直接或间接需求密切相关，当一个人对某种事物感兴趣时，他会倾向于主动接近这一事物，并积极参与相关的活动，表现出极大的热情和主动性，甚至乐在其中、不知疲倦。M·Ainley指出¹⁸⁾，兴趣是一种支持学习的情感体验，是学习者主动参与

11) 孔子，《论语译注》2版，中华书局，1980.，pp.135.

12) 孟子，《孟子·告子下》.

13) 陈玉融，《中职生成就目标定向、坚毅品质与学习投入的关系及干预研究》，合肥师范学院，2023.

14)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2), pp.40 - 45.

15) 黎晓娜·李晓华·刘华山·龚少英，「宽容理解教养方式与中学生学业坚毅品质的关系：学业兴趣及学业意义感的中介效应」，《心理研究》，18(1)，2025，pp.79-87.

16) 薛小丽，「西方近现代兴趣教学思想研究」，西南大学，2008.

17) 王雁，《普通心理学》，人民教育出版社，2002，pp.211.

18) Ainley, M. (2007). Interest, learning, and the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mediate their relationship. In S. Hidi, K. A. Renninger, & A. Krapp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motivated learn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117 - 135.

学习活动的关键因素。林崇德认为,兴趣是一种心理状态,表现为对事物的喜好程度,当这种心理状态针对与职业相关的活动时,被称作职业兴趣¹⁹⁾。根据以上研究可得出,当这种学习活动具体为书法学习时,这种兴趣就被称为书法学习兴趣。杜威在他的专著《教育中的兴趣和努力》中指出,基于兴趣的学习与仅靠努力的学习在结果上有着本质的不同²⁰⁾。他认为,兴趣驱动的学习能够带来更深层次的理解和更持久的动力,而仅靠努力的学习则可能缺乏内在驱动力,导致学习效果的差异。海蒂、贝尔德依据活动主体和对象,将兴趣划分为个体兴趣和情境兴趣²¹⁾。Ainley²²⁾提出了一个包括价值、情感和知识三个维度,学术、职业、社会、人际和个人发展五大领域的的兴趣自评量表,在这定义上,本研究采用赵兰兰(2006)设计的《学习兴趣问卷》作为研究工具。分为三个子维度:探索性研究、喜爱和投入,分别测量非书法专业大学生的学习兴趣。这是因为本研究的对象为非书法专业大学生,因此仅使用与非书法专业相关的测量工具。

2) 家庭文化资本

“家庭文化资本”源于法国学者布尔迪厄关于“文化资本”的研究,文化资本最初是布尔迪厄为了解释不同社会阶层背景的孩子们在学术成就上的差异而提出的理论,他认为,文化资本是一种由家庭传承而来的习惯、性格和文化情绪²³⁾。在中国的研究里指出,家庭文化资本是家庭中实际客观存在的文化产品以及父母的教育水平²⁴⁾。许怀雪(2017)对家庭文化资本进行了更为具体的阐述,认为家庭文化资本涵盖了物质层面的教育资格证明、文化产品等,同时也包括家庭成员所具备的教育观念、教育方式、教育期望、举止等非物质层面的精神品质和文化修养²⁵⁾。何二林(2020)认为,家庭文化资本是家庭成员在日常互动中逐渐形成的文化习惯的积累,它是一种独特的文化资源²⁶⁾。中国学者马和民、高旭平(1998)认为,家庭文化资本可以被看作是运用经济学原则来审视社会各阶层及个人所具备的文化背景、知识和气质的总和²⁷⁾。周霖则认为,家庭文化资本是通过家庭成员之间的互动交流,由父母的兴趣和爱好潜移默化地影响个体而实现的积累²⁸⁾。布尔迪厄认为文化资本可以以三种形态存在:身体化文化资本作为知识、修养、技术等,构成个人内在与精神的一部分;客观形态的文化资本则以书籍、工具、绘画、机器等文化商品的形式存在;而制度化形态的文化资本则以一种客观化的形式存在,通常以文凭、证书等形式²⁹⁾。研究发现,家庭文化资本不同的学生,学习投入的高低也不同³⁰⁾。刘天元等(2019)指出,文化

19) 林崇德.『发展心理学』,人民教育出版社,2009.

20) Dewey, J. (1913). *Interest and Effort in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1) Hidi, S., & Baird, W. (1988). Strategies for increasing text-based interest and students' recall of expository tex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3(4), pp.465 - 483.

22) Ainley, M. (2007). Interest, learning, and the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mediate their relationship. In S. Hidi, K. A. Renninger, & A. Krapp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motivated learn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117 - 135.

23)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wood.

24) 吴婷,「家庭文化资本对中学生校外体育锻炼行为的影响因素实证研究」,安徽师范大学,2020.

25) 许怀雪,「家庭文化资本对农村初中生学习投入的影响研究」,东北师范大学,2017.

26) He, E.,Ye,X.,&Pan,K.,「中英两国家庭文化资本对学生学业成绩的影响差异——基于PISA2015数据的实证研究」,『教育学术月刊』,(03),2020,pp.25-32.

27) Ma, H., & Gao, X. (1998). *Research on educational sociology*. Shanghai Education Press.

28) 周霖·孙晓雪,「(2017)谁更易于获得核心素养——家庭文化资本对核心素养获得的影响」,『教育理论与实践』,37(7),2017,pp.25-29.

29) Bourdieu, P. (1997). *Cultural capital and the alchemy of society: An interview with Pierre Bourdieu*. Translated by Bao, Y. M. Shanghai: Shanghai People's Publishing House.

资本较高的家长往往更清楚教育对孩子未来发展的重要性,尤其是对收入提升和社会地位改善的积极作用,因此他们对孩子在教育方面的表现抱有更高的期望³¹⁾。王晓云(2013)的研究表明,高文化资本家庭的子女更有可能享有高质量的高等教育,并且在选择学校地区、层次和专业时更具竞争力³²⁾。赵雪斐(2015)的研究发现,家庭资本水平较高的学生,更加注重自身价值和兴趣的实现³³⁾。殷华敏等人(2018)的研究发现,家庭社会经济地位与子女的心理韧性水平之间存在显著的正向影响,即家庭经济地位越高,子女的心理韧性水平也越高³⁴⁾。有研究中表明,家庭资本与坚毅性水平呈现显著正相关关系³⁵⁾。

本研究采用以布尔迪厄的文化资本理论为角度出发,将家庭文化资本分为制度化文化资本、身体化文化资本与客观化文化资本三个子维度进行测量。因此,综合上述先行研究可推测,本研究对象——非书法专业大学生中,家庭文化资本较高的学生,相较于家庭文化资本水平较低的学生,在坚毅和学习兴趣方面可能会受到更为积极的影响。

3) 坚毅 (Grit)

Duckworth (2007) 首次提出坚毅,他认为,坚毅是一种关键的个人品质,同时也是一种稳定的人格特征,坚毅品质由两个核心因素构成:努力的持久性和兴趣的一致性,并且它在个体的成就表现中扮演着至关重要的角色,不同个体的坚毅品质存在差异,这种差异会影响个体在完成任务时的表现³⁶⁾。孟万金(2016)等人指出,坚毅是指为实现目标而具有坚持不懈的个人品质³⁷⁾。国内学者魏军和刘儒德提出,应关注学生的坚毅品质,并将坚毅译为Grit,他们认为学习毅力是学生在追求目标学习技能过程中,主动应对挫折和困难并长期坚持的心理品质³⁸⁾。外部因素中,李婷和张又文(2022)研究了父母教养方式对子女坚毅品质的影响,他们指出,父母的关怀等对子女的坚毅品质有显著的正向影响,从而促进其在面对挑战时的坚持和韧性³⁹⁾。由此得出,坚毅品质较高的个体在面对挑战和困难时,并受到家庭环境的影响下,更能持之以恒地追求长期目标,他们在任务完成方面往往表现得更加出色,坚毅不仅反映了个体在面对长期目标时的坚持和专注,还决定了他们在追求目标过程中能否克服困难并取得成功。基于以上先行研究可以确认,坚毅品质与家庭文化资本呈现相关关系。内部因素中,王子仟(2020)等学者探讨了坚毅品质与心理韧性的关系,发现中职生的坚毅品质与心理韧性之间存在显著的正相关,他们建议在学校开展团体辅导,营造一种坚韧的文化氛围,以提升学生的坚毅品质和心理韧性⁴⁰⁾。张生(2021)⁴¹⁾和蒋文(201

30) 常晨,「家庭背景对研究生学习投入的影响研究」,山西财经大学,2017, pp.23-35.

31) 刘天元·王志章,「家庭文化资本真的利于孩子形塑良好习惯吗?——家长教育参与和教育期望的中介作用」,『教育科学研究』,30(11),2019, pp.51-57.

32) 王晓云,「中国家庭文化资本与子女高等教育机会获得的实证研究」,『中国高等教育评估』,25(04),2013, pp.49-54.

33) 赵雪斐,「家庭社会资本对高校学生就业意向影响研究」,华东师范大学,2015.

34) 殷华敏·牛小倩·董黛·牛更枫·孙丽君,「家庭社会经济地位对青少年抑郁的影响:自尊的中介作用和心理韧性的调节作用」,『心理研究』,11(05),2018, pp.465-471.

35) 张学敏·林宇翔,「家庭资本对大学生成长型思维水平的影响」,『重庆高教研究』,10(3),2022, pp.1-19.

36)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pp.1087 - 1101.

37) Meng, W. J., Zhang, C., & Wagner, R. (2016). The revision report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quality assessment scale for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中国中学生积极心理品质测评量表修订报告]. *Chine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16(2), pp.6 - 8.

38) Wei, J., & Liu, R. (2014). Research on the grit of middle school students[中学生学业坚毅品质的研究]. *Psychology and Behavior Research*, 12(3), pp.326 - 332.

39) Li, T., Zhang, Y., Li, Y., & Huang, Z. (2022).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ri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yles[坚毅力的代际传递:父母教养方式的中介作用].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Education*, 2022(2), pp.207 - 215.

8) 42) 的研究显示, 坚毅品质对学业成绩的提高有显著的正向影响。

本研究采用改编自Duckworth的坚毅量表, 由官群(2015)进行修订而成, 将坚毅分为努力持久性和兴趣一致性两个子维度。之所以选择此分类, 本研究对象为非书法专业大学生, 而非专业学术性, 更为贴近本研究的变量, 更符合研究的意义和研究需求。

3. 研究方法

1) 研究对象

本研究以山东省淄博某高校非书法专业的612名大学生为研究对象, 在利用了每个学生的课外时间, 经过五天时间的问卷调查, 调查对象为山东省非书法专业的大学生。612名参与者的性别构成分别为: 男生296人, 女生316人; 学年以及性别分布为: 大一男生82人(13.40%), 大一女生92人(15.03%), 大二男生93人(15.20%), 大二女生105人(17.16%), 大三男生68人(11.11%), 大三女生67人(10.95%), 大四男生53人(8.66%), 大四女生52人(8.50%)。研究人群的分布情况见表1。

<표1> 研究人群的分布

年级	性别	N	百分比(%)
大一	男	82	13.40%
	女	92	15.03%
大二	男	93	15.20%
	女	105	17.16%
大三	男	68	11.11%
	女	67	10.95%
大四	男	53	8.66%
	女	52	8.50%
总计		612	13.40%

2) 研究工具

(1) 学习兴趣

本研究采用了赵兰兰(2006)设计的《学习兴趣问卷》⁴³⁾, 作为学习兴趣调查的量表。该问卷包含

40) Wang, Z. Q., & Chen, W. X. (2020). Zhongzhi students' grit, coping styles,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Journal of Yueyang Vocational and Technical College*, 35(4) pp.57-61.

41) Zhang, S., Wang, X., Wang, Z., et al. (2021). The impact of grit on academic achievement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sights from an inclusive education perspective [坚毅对中小学生学业成绩的影响——融合教育视角的启示]. *Chine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21(11), pp.18-23+17.

42) Jiang, W., Jiang, J., Du, X., et al.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role of learning engagement [坚毅人格与学业成就的关系: 学习投入的中介作用]. *Chine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18(4), pp.91-96.

43) 赵兰兰, 「成就目标、环境目标引导、成就动机与学习的关系」, 首都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6.

三个子维度,共20个问题,包含三个领域:探索性研究(对学习材料未知部分的深入探索)对应调查问卷里的18、19、21、22、26、27、28、36题;喜爱(学习过程中的情感愉悦)对应调查问卷里的23、24、29题;学习投入(学习过程中的注意力、精力、资源和时间的投入)对应调查问卷里的20、25、30、31、32、33、34、35、37题,此量表对非书法专业大学生的书法学习兴趣进行了全方位的调查。该问卷采用李克特5级评分制,得分越高,表示学习兴趣越强烈。总量表的内部一致性系数 α 为0.904,探索性分量表为0.72,喜爱分量表为0.824,投入分量表为0.816。

(2) 家庭文化资本

本研究量表以布尔迪厄的文化资本理论为角度出发,将家庭文化资本分为制度化文化资本、身体化文化资本与客观化文化资本三个子维度分别进行测量。调查题项采用李克特5,其中,基本信息是1-5题,制度化文化资本为6-8题,分别考察父母本人受教育程度与父母获取职业技能证书数,其中父母受教育程度划分为“初中及以下”“高中及中专”“高职与大专”“大学本科”“硕士及以上”;身体化文化资本对应的题目是9-14题,主要考察父母对子女学业情况的关注度、对子女未来发展的关注度、父母个人的阅读习惯、对子女发展的期望度以及家庭中沟通交流的畅通程度;客观化文化资本对应的题目是15-17题,主要通过“家庭藏书量”“家庭文化商品收藏量”“文化活动参与”三个方面进行调查,共17道题。得分越高,表明家庭文化资本在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品质与书法学习兴趣之间产生中介作用,家庭文化资本量表的Cronbach系数为0.791。这三个维度与各自包含对应的题项有显著相关性,因此,有较高的信效度。

(3) 坚毅 (Grit)

本研究以Duckworth提出的坚毅为角度,将坚毅分为两个子维度,分别为兴趣一致性和努力持久性。采用改编自Duckworth的坚毅量表,由官群(2015)进行修订而成⁴⁴⁾。该量表包含12个问题,包含两个子维度。其中兴趣一致性2、3、5、7、8、11题,采用反向计分方式,努力持久度对应调查问卷里的1、4、6、9、10、12题。量表采用五级评分制,得分越高,表明个体的坚毅品质越强。此量表 Cronbach's α 系数为 0.742, KMO检验系数为0.826,且显著性无限趋近于0,进一步验证了量表的效度。综上,量表的信效度表现良好,能够有效测量坚毅的两个子维度。

3) 研究结果

为了测试坚毅、学习兴趣和家庭文化资本这三个变量之间的结构关系,本研究通过调查问卷收集了数据,并采用了以下分析方法:

首先,为了掌握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家庭文化资本和学习兴趣的定位水平,本研究使用SPSS 26.0进行了描述性统计分析,包括平均值、标准偏差、斜率和峰值。

其次,为了探索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家庭文化资本和学习兴趣的相关性,本研究进

44) Guan, Q., Xue, L., & Lv, T. T.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deliberate practice and English achievement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Chine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15(12), pp.78-82.

行了相关性分析。

第三，为了验证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家庭文化资本和学习兴趣的结构关系，本研究使用了AMOS 26.0用于分析结构方程式模型并验证各变量之间的因果关系。

最后，通过路径分析，更全面、准确地分析了在家庭文化资本的中介效应下，坚毅对学习兴趣和投入产生正面影响。

<표2> 模型拟合度

指数	χ^2	df	χ^2/df	GFI	RMSEA	RMR	CFI	TLI	NFI
标准			<3	>.8	<.08	<.05	>.9	>.9	>.9
测量结果	83.68	37	2.26	.969	.035	.045	.987	.933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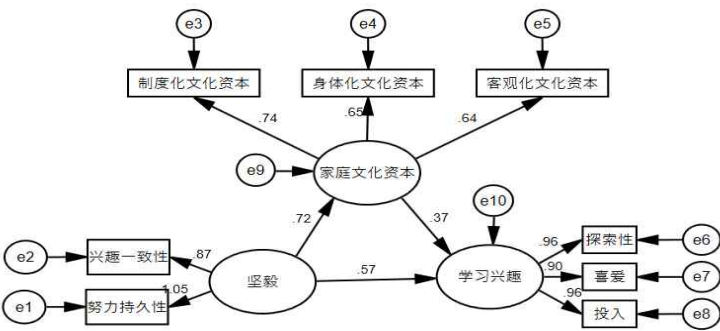
结果显示， $\chi^2/df=2.26$, RMSEA=0.035, CFI=0.987, TLI=0.933, SRMR=0.045，表明这些研究变量构成的测量模型拟合情况较为理想，达到可接受标准。因此，研究模型的拟合适合进行路径分析（见表2）。

首先，研究变量之间的相关性发现为显著正向影响。坚毅对学习兴趣和投入产生正向影响，坚毅对家庭文化资本产生有正向影响，家庭文化资本对学习兴趣和投入产生正向影响，并且在家庭文化资本在坚毅和学习兴趣之间产生中介效应。

本研究回顾了之前的研究之后，并构建了一个研究模型，以探索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学习兴趣和家庭文化资本之间的结构关系，如下图所示（见表3）。

坚毅对学习兴趣和投入有积极的正面影响（ $\beta=.57$, $p<.01$ ），这证实了研究的第一个问题；坚毅对家庭文化资本有积极正面影响（ $\beta=.72$, $p<.01$ ），这证实了研究的第二个问题；家庭文化资本对学习兴趣和投入产生积极正面影响（ $\beta=.37$, $p<.01$ ），这证实了研究的第三个问题。相关分析显示，家庭文化资本在坚毅和学习兴趣之间具有一定的中介作用。换句话说，家庭文化资本在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和学习兴趣的影响中起着重要的促进作用。

<표3> 研究模型分析



4. 分析与讨论

本研究以中国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为研究对象，探讨家庭文化资本在坚毅和学习兴趣之间的中介作用。在收集调查问卷的基础上，建立了一个理论模型并进行了实证测试。根据本研究的数据分析，分析与

讨论如下:

首先,本研究证实,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对学习有兴趣有正向影响,这一研究成果与之前的研究结果一致⁴⁵⁾。这表明,具有较强坚毅品质的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的大学生将拥有更高的学习兴趣。因此,教师和家长应该转变观念,激发学生的学习热情,让学生主动制定学习目标和计划,学习新知识,获得成就感和自我价值感,从而促进培养学生坚毅品质。

第二,本研究证实,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对家庭文化资本有正向影响,这一研究成果与之前的研究结果一致⁴⁶⁾。这表明,具有较强坚毅品质的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的大学生拥有较好的家庭文化资本。学校和家庭是学生学习和生活的重要场所。教师和家长应该共同努力,提供更好的家与校之间的教育配合。在学校中,教师不仅要发挥自己的主导作用,还要站在学生的角度上,鼓励学生积极参与的同时,并提高他们的自信心。在家庭中,丰富制度化、身体化和客观化文化资本,在面对挫折困难时,强化并感染学生们习惯的培养,有助于推动学生们的坚毅水平。

第三,本研究证实,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家庭文化资本对学习有兴趣有正向影响,这一研究成果与之前的研究结果一致⁴⁷⁾。这表明,拥有良好家庭文化资本的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的大学生将拥有更高的学习兴趣。在家庭中,父母应该创造一个开放且民主,有学习氛围的家庭环境,更侧重于对学生们的教育方法,以及培养学生学习书法的文化氛围并给予正面的积极回应。在尊重家庭文化资本的同时,提高家长自身的文化素养,更新教育方式,培养良好的家庭文化氛围,激发学生们的学习的主动性,从而提高学习兴趣。

第四,本研究证实,家庭文化资本在中国某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坚毅与书法学习兴趣之间产生中介效应。当增加家庭文化资本这一变量时,坚毅直接影响学习兴趣的每一个子维度是非常重要的。因此,家庭文化资本在促进坚毅品质对学习有兴趣的影响方面起着重要作用。在高校非书法专业大学生的家庭文化资本的影响下,学生会拥有更强的坚毅品质,并在未来的学习生活中拥有更高的学习兴趣。

总之,本研究证明拥有较强的坚毅品质是影响学习兴趣的一个重要因素,家庭文化资本也起着重要的中介作用。教师和家长应该因材施教根据自身条件,帮助高校的大学生认真把握自己的长处和短处。引导学生发挥主观能动性,对自己有更加清晰的认知,在家庭文化资本感染下,助力构建“个人—家庭—学校”协同育人机制,促进更强的个人坚毅品质,更积极地参与学习,培养更高的学习兴趣,以实现自己的目标和价值。

本研究的结果可作为提高中国非书法专业大学生的书法学习兴趣,但仍然有一些局限性。首先,由于影响学习兴趣的因素有很多,除了本研究中的两个变量之外,还有更多变量需要探索;其次,本研究只针对于中国一所高校的非书法专业大学生的现状分析,研究对象仅限于中国,因此,在后续的研究中可以将研究范围扩大到世界,并选择更多的研究参与者。

最后,希望在这项研究的基础上,可以制定更多的研究,旨在提高非书法专业大学生的书法学习兴趣,为传承中华文明贡献一份力量。

45) 刘孟超·黄希庭,「希望: 心理学的研究述评」,『心理科学进展』, 21(3), 2013, pp.548-560.

46) Howard, J. M., Nicholson, B. C., & Chesnut, S. R. (2019).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overparenting, grit, and academic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60(2), pp.189-202.

47) 朱丛杉,「家庭文化资本对大学生学习投入影响研究」,中国矿业大学, 2020.

【차세대학자분과 II】 발표

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研究

于雯* · 张蕊**

【목 차】

- 1.引言
- 2.中国学术界的研究动态分析
 - 1) 研究数量及时间分布特征
 - 2) 学术期刊及研究机构分布特征
 - 3) 研究成果关键词分布特征
- 3.中国学术界的研究观点分析
 - 1) “韩国非物质文化遗产介绍”分析
 - 2) “中韩文化比较”分析
 - 3) “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制度的启示”分析
 - 4) “中韩文化冲突”分析
- 4.结论

【 초 록 】

本文以2001—2024年中国知网数据库收录的148篇韩国非物质文化遗产相关研究成果为样本，综合运用文献计量与内容分析法，系统梳理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动态、核心观点及学术启示。研究发现：中国学术界对韩国非遗的关注度与韩国非遗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进程存在一定关联，研究数量于2014年达到峰值后逐步回落；研究主题集中于“江陵端午祭”“阿里郎”等代表性案例，涵盖非遗保护制度、中韩文化比较及文化冲突等多元视角，充分肯定韩国在非遗保护中“政府—民间—市场”协同机制、教育传承体系及文化产业化创新等方面的国际典范价值。同时，研究指出中国学界存在案例覆盖不均衡、实证研究不足及理论深度待提升等问题，尤其在高级别期刊中的系统性成果较少。本文认为，韩国非遗保护经验为中国提供了重要借鉴，未来需深化跨学科合作、拓展实地研究，并探索数字化与可持续发展等新兴议题，以促进中韩文化交流与非遗保护的协同创新。

【키워드】 中韩非遗保护制度、文化传播策略、中韩民间文化、中韩国际交流

* 제1저자. 경희대학교 예술경영학 박사과정 (viann420@gmail.com)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객원교수 (zhang@pusan.ac.kr)

1.引言

非物质文化遗产保护是一项全球性的重要课题,世界各国基于自身的国情以及深厚的文化底蕴,开展了各具特色的探索与实践,共同推动着世界文化的多元化发展。韩国目前拥有23项被列入世界人类非物质文化遗产名录的项目。在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与传承方面,韩国积极采取了一系列行之有效的举措,积累了相当数量的成功实践案例。以韩国传统说唱艺术盘索里为例,这一极具代表性的非物质文化遗产,不仅承载着韩国悠久的历史记忆,寄托着韩国民众的精神情感,还充分展现出韩国文化在艺术表现形式等方面的独特魅力,吸引了国际社会的广泛关注,在韩国向全球推广本国文化的进程中,发挥了不可忽视的重要作用。

中国作为与韩国在地理和历史上都紧密相连的重要邻国,自古以来就与韩国保持着频繁且活跃的文化交流。但自21世纪初,韩国首个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非物质文化遗产名录的“江陵端午祭”成功申遗后,两国之间的文化冲突便开始逐渐显现。近年来,围绕韩服、泡菜、春节等文化话题的争议不断出现,进一步加剧了两国民间的文化矛盾,给中韩两国的文化交流带来了新的挑战,也引发了诸多值得深入探讨的课题。

另一方面,2003年联合国教科文组织通过「保护非物质文化遗产公约」后,全球范围内对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传承的重视程度大幅提升。如今,非物质文化遗产不再仅仅被看作是传统文化的产物,更被视为承载着群体身份认同和历史价值的珍贵文化资产。并且,非物质文化遗产超越了文化象征的范畴,属于人类共同的遗产,从这一点来说,应当通过国际交流与合作,广泛传播传统文化,并确保其可持续发展。

在非物质文化遗产日益成为人类共同文化资产的大背景下,各国学术界和社会对非物质文化遗产的认知及研究方式,将有助于进一步凸显其价值与作用。基于此,考察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不仅是对两国文化交流成果的简单分析,更具有重要的学术价值和实践意义。

第一,可以向韩国学者提供能够了解韩国传统文化在中国社会是如何被认知和接受的基础资料。

第二,能够使中韩两国学者在相关主题的研究中,将其作为重要的参考资料,客观的理解和明确中韩两国学术界及社会在两国文化冲突问题上的立场。

第三,探索以非物质文化遗产为媒介的两国之间文化交流与合作的新可能性,进而为制定非物质文化遗产的国际宣传战略提供有意义的启示。

截至2024年12月,通过对韩国主要学术数据库RISS和中国主要学术数据库CNKI的全面检索发现,目前韩国学界与中国学术界均未开展针对中国学术界关于韩国非物质文化遗产研究动态及成果的系统性、深层次分析研究。

因此,本论文拟运用文献计量分析法与内容分析法,对2001年(韩国首个项目入选世界人类非物质文化遗产之年)至2024年期间,中国学术界发表的韩国非物质文化遗产相关研究成果展开深入剖析,并提炼具有价值的研究结论。为确保研究目标的实现,特确定如下研究对象与方法:

其一,依托中国知网(CNKI)这一具有权威性和代表性的学术数据库,全面、系统地检索并收集2001-2024年间,中国学术界发表的与韩国非物质文化遗产相关的全部研究成果,确保研究样本的完整性与可靠性。

其二,对所收集的研究成果,从多个维度展开分析:通过梳理研究成果的时间分布、发表机构及期刊来源,把握研究发展脉络;统计关键词出现频率,归纳研究热点;深入探讨核心研究视角,以此明晰中国学者对韩国文化及文化冲突问题的认知与立场,实现对研究动态的系统化解读。

其三,在全面总结研究成果的基础上,客观分析现存不足,结合研究发现,为优化非物质文化遗产宣传战略提供切实可行、富有针对性的建议,助力推动中韩文化交流与非物质文化遗产保护事业发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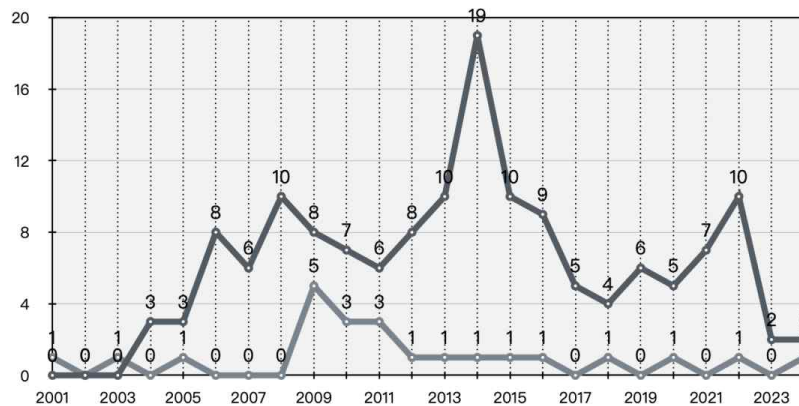
2. 中国学术界的研究动态分析

1) 研究数量及时间分布特征

本文利用中国具有代表性的学术数据库中国知网(CNKI),将“韩国非物质文化遗产”以及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非物质文化遗产名录的23项韩国文化遗产设定为关键词。¹⁾通过这种方式,共收集了2001年至2024年期间发表的相关研究成果148篇。收集到的研究成果包括学术论文、学位论文、会议论文、新闻报道以及年鉴。

经上述检索策略共获取2001-2024年间相关研究成果148篇,涵盖学术论文、学位论文、学术会议论文、新闻报道及年鉴等多种文献类型。同时,系统梳理韩国非物质文化遗产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数量与时间节点,并与中国学术界年度研究成果分布情况进行交叉分析,直观呈现韩国非遗入选动态与中国学术界研究热度之间的关联性特征,具体内容如下图1所示:

<图1> 2001年-2024年韩国非物质文化遗产入选情况以及中国学术界对此的研究统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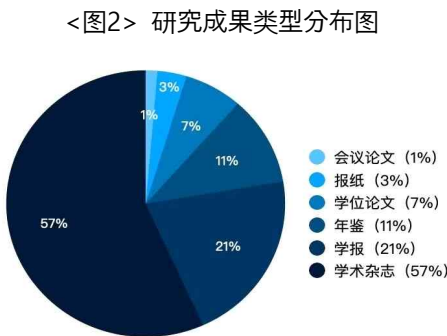
通过对各年份研究资料的分布情况进行分析,可以确认以下内容: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始于2003年,在2014年达到顶峰后,呈现出逐渐减少的趋势。2022年虽有小幅回升,但目前看来仍处于停滞状态。另一方面,韩国非物质文化遗产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情况,自2001年开始,除了在2009年至2011年期间较为集中地进行之外,每年大约只有1项左右。特别是从2009年到2016年,韩国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数量一直保持在相对较高的水平,所以在这一时期,中国学术界的研究资料数量也呈现出相对增加的趋势。尽管从2001年到2005年韩国共有3项非物质文化遗产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但中国学术界的相关研究从2003年才开始,且研究资料仅有6篇。

1) 在进行文献收集和关键词翻译时,仔细调查并采用了在中国广泛使用的表达方式。考虑到同一文化遗产名称可能会被翻译成多种中文表述的情况,在检索过程中涵盖了这些不同的表达方式。具体的设定结果如下:1.韩国非物质文化遗产,韩国非遗 2.宗庙祭礼及宗庙祭礼乐,祭礼,宗庙祭礼乐 4.江陵端午祭,端午祭 5.江江水莱舞,团圆舞,圆舞曲,圆圈舞(因篇幅所限,23项关键词完整清单略)

此外，2006年至2008年期间韩国没有非物质文化遗产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然而在同一时期，中国学术界的研究资料数量反而呈增加态势。可以看到，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关注度与韩国非物质文化遗产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数量之间存在一定的相关性，但这两个变量之间的关系并非始终成正比。

2) 学术期刊及研究机构的分布特征

共计148篇研究成果以学术期刊、大学学报、年鉴、报纸等多种形式发表，我们按照刊载地的类型将其整理如下（见下图）。



从2003年到2024年，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数量发生了显著变化，而这一变化背后，存在着多重影响因素。

其一，政策与研究背景的作用。2003年，联合国教科文组织大会通过「保护非物质文化遗产公约」，此后中国政府大力推进非物质文化遗产保护工作，学界对该领域的关注度随之提升，研究活动也愈发活跃。其中，学者高艳芳（2024）指出，2003-2010 年，学界主要围绕 “有形文化遗产” 与 “非物质文化遗产” 的差异及特性展开理论探讨；2011年后，研究范围拓展至保护政策、传承人制度、教育体系等实际领域，国外案例研究也蓬勃开展。在此趋势下，2011年前韩国非物质文化遗产相关研究较少，之后则逐步增多。即便在中国学术界着力构建本土理论体系的阶段，仍有45篇相关论文发表，足见其关注度始终未减。

其二，韩中文化交流环境的影响。“2007年韩中文化交流年” “2008年北京奥运会文化活动” “2010 年上海世博会” “2014年中韩艺术文化交流展” 等一系列国际文化活动，为两国文化交流注入活力。在此过程中，韩国大众文化与传统文化在中国广泛传播，不仅推动了两国文化互动，也拓宽了学术讨论的边界。随着中国高校增设韩语专业，研究韩国文化的学者与机构不断涌现，韩国非物质文化遗产也在 中国学术界占据重要研究地位。不过，2016年 “萨德” 部署致使中韩关系紧张，再加上2020年新冠疫情暴发，两国文化与学术交流大幅缩减，这些政治、社会因素对学界合作与研究产生负面影响，进而导致韩国非物质文化遗产研究热度降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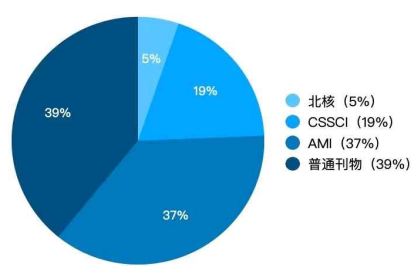
其三，联合国教科文组织申遗情况。韩国早在1962年就制定「文化财保护法」，构建起非物质文化遗产保护传承的制度框架，在该领域发挥引领作用。2003-2024年，韩国共有23项非物质文化遗产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成为国际典范，吸引全球目光，其法律制度与保护政策也备受中国学术界关注。但2015年后，韩国申遗数量减少，中国学术界对其研究热情也随之下降。与此同时，中国不断增加申遗项目，并

将研究重心转向本国非物质文化遗产的发掘与保护，使得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优先级降低，成为研究热度下滑的重要原因。

其四，研究主题的局限与认知度问题。尽管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已有一定积累，但在开拓新研究方向上存在瓶颈。此外，韩国非物质文化遗产国际宣传不足，部分项目认知度较低，也可能影响研究热度。例如，2023-2024年发表的4篇相关研究中，有2篇聚焦2018年韩国“摔跤”保护制度，而关于“腌制泡菜文化”等内容研究却鲜少出现。

在本研究中，以31篇大学学报和84篇学术期刊文章，总共125篇研究成果为对象，将学术期刊等级分布整理如下（见下图）。²⁾

<图3> 研究成果等级分布图



通过图3可以看到，中国学术界有关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成果呈现出显著的传播特征，即主要发表于具有大众传播性质的学术期刊。在统计的125篇研究成果中，发表于普通出版物的有45篇，占比达39%，位列各载体之首。这一数据表明，此类研究在内容建构上更注重引发公众关注与文化传播，一定程度上弱化了学术深度的挖掘。其次，发表于AMI学术期刊的研究成果共42篇，占比37%，说明仍有部分研究成果进入相对权威的学术传播平台。

反观学术影响力较高的核心期刊领域，收录于「北京大学中文核心期刊要目总览」（北核）和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的研究成果分别仅为6篇（占比5%）和22篇（占比19%）。这一分布特征揭示出，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在专业深度与理论建构方面仍有提升空间，相较于面向大众的一般性探讨，具备系统性、理论性的深度学术研究仍显不足。特别是CSSCI与北核收录论文的低占比，直观反映出该领域尚未形成成熟的学术研究体系。由此可见，尽管韩国非物质文化遗产已在中国社会引发广泛文化关注，但从学术研究的专业化、理论化维度审视，仍需开展更为深入、系统的学术探索。

3) 研究成果关键词分布特征

本研究以2001-2024年间韩国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23项非物质文化遗产为研究核心，系统分析中国学术界相关研究成果。通过全面收集中国学术界发表的148篇研究论文的关键词，对这23项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现状进行梳理，具体情况如下表所示。

2) 由于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收录的是具有最大影响力的学术期刊，所以当某一期刊同时被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北京大学中文核心期刊要目总览」（PKU）、学术期刊综合评价指标体系（AMI）收录时，将其统计在 CSSCI 类别中；当某一期刊同时被「北京大学中文核心期刊要目总览」（PKU）和学术期刊综合评价指标体系（AMI）收录时，则将其统计在 PKU 类别中。

<表1> 中国学术界针对韩国各项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现状统计

연도	01	03	05	09	09	09	09	09	10	10	10	11	11	11	12	13	14	15	16	18	20	22	24
무형 문화 유산	종묘 제례 및 판소리 종묘 제례 악		강릉 단오 제	강강 술래	남사 당놀이	영산 재	제주 칠머리 당 영등굿	처무 용	가곡	대목 장	매사 냥	줄타 기	택견	한산 모시 짜기	아리 랑	김장 문화	농악	줄다 리기	제주 해녀 문화	씨름	연등 회	한국의 장 탈춤	한국의 장 담그 기 문화
연구 수	4	10	28	0	0	4	0	0	4	0	0	0	0	1	14	12	5	3	0	6	0	8	1

经关键词统计分析,中国学术界围绕23项韩国非物质文化遗产所开展的研究共计99篇,在全部148篇研究成果中占比达66.9%。其中,“江陵端午祭”是被研究最多的对象,紧随其后,“阿里郎”“泡菜文化”“盘索里”等也获得了相对较高的关注度。与之形成鲜明对比的是,包含“康康舞(강강술래)”以及“南寺党游戏(남사당놀이)”在内的10项非物质文化遗产,至今尚未进入中国学术界的研究视野,这部分未被研究的遗产项目在全部23项韩国非物质文化遗产中占比43.5%。这些统计结果清晰地反映出,中国学术界在对韩国特定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方面,存在着明显的偏重倾向。

为了进一步深入且清晰地剖析中国学者针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主要研究主题与对象,从全部148篇研究成果中对相关关键词进行了收集整理,随后借助Python软件对这些关键词进行可视化处理。在生成的词云图中,字体大小与关键词的出现频率呈正相关,即字体越大,表明该关键词在研究中出现频率越高。通过这一词云图,能够以直观的方式,准确确认各项关键词在研究中出现频率情况。

<图4> 中国学术界研究成果的关键词词云图



本关键词词云图是根据148篇研究成果中关键词的出现频率(不包括仅出现1次的关键词)进行可视化处理的结果。通过这一词云图可以看出,在中国学术界最受关注的研究对象有“江陵端午祭”“阿里郎”“泡菜”“盘索里”等认知度相对较高的非物质文化遗产。此外,“文化纷争”“祭仪”“保护制度”“保护经验”“传承人”“差异”等关键词也有所呈现,这表明相关研究并非仅仅局限于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介绍,而是正围绕着保护制度、中韩文化比较、文化纷争等主题积极展开。

3. 中国学术界的研究观点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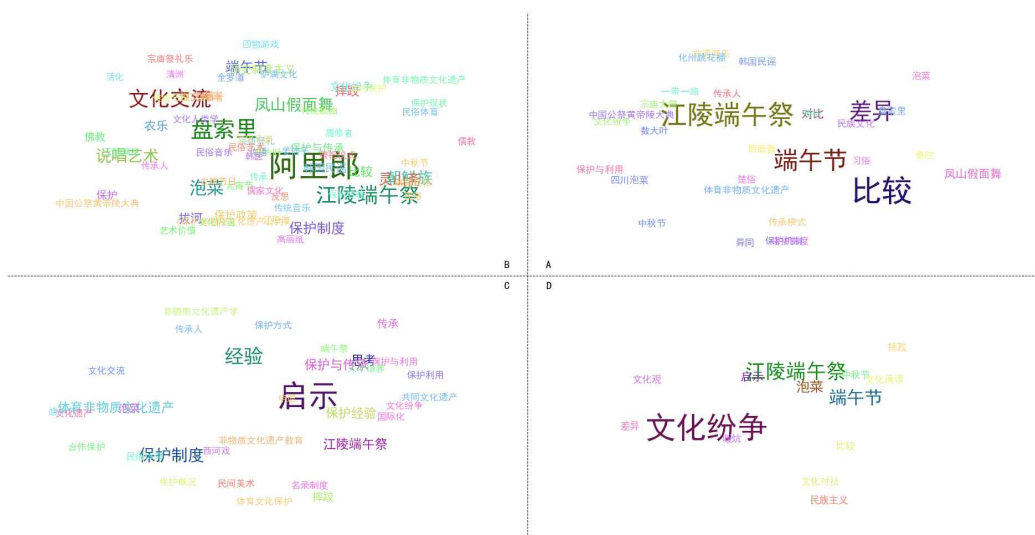
通过对上述关键词词云图和按年份分布情况的分析结果来看,中国学术界对于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

研究,大致可以分为四类。即,(A)“韩国非物质文化遗产介绍”、(B)“中韩文化比较”、(C)“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制度的启示”、(D)“中韩文化冲突”。

在本研究中,将从 148 篇研究成果中提取出的关键词按照四种观点进行了分类,之后运用基于 Python 的数据分析及可视化工具,对每种观点下主要关键词的出现频率进行了分析,并将其以可视化的形式呈现了出来。

图5展示了在各个观点中所讨论的主要关键词的分布可视化结果。在图中,关键词的大小反映了其在相应研究观点中的出现频率,通过这一点,可以直观地确认在各个观点中被重点探讨的研究对象。

<图5> 按观点划分的主要关键词词云图



对关键词分布进行分析的结果显示,各观点的特征可整理如下:

“A”领域,即“韩国非物质文化遗产介绍”,出现了最为多样的关键词,被确认为研究最为活跃的领域。主要研究对象提及了“阿里郎”“盘索里”“江陵端午祭”“假面舞(탈춤)”“灵山斋(영산재)”“摔跤(씨름)”“农乐(농악)”等,其中“阿里郎”出现的频率最高。从这种频率差异可以看出,研究对象存在向一些具有代表性的例子(如江陵端午祭、盘索里等)集中的倾向。此外,除了韩国的非物质文化遗产外,“恨文化(한(恨)문화)”“传统游戏(사물놀이)”“民俗体育”“文化保护”“传承人”等关键词也出现了,这表明中国学术界广泛地关注了韩国的各种文化元素。

在“B”领域,即“中韩文化比较”方面,“端午节”和“江陵端午祭”的关键词出现频率最高,“盘索里”“泡菜”“假面舞”等也以较低的频率出现。这表明韩中文化比较研究主要是以“端午节”和“江陵端午祭”的比较为中心展开的。特别是,有关端午节的研究似乎主要致力于探究中韩两个文化圈之间在传统和现代意义上的差异点。

在“C”领域,即“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制度的启示”领域中,“祭仪”“保护制度”“经验”等关键词出现的频率较高。除此之外,“民俗体育”“摔跤”“体育非物质文化遗产”“非物质文化遗产教育”“保护与传承”“保护方式”“江陵端午祭”等关键词也出现了。这表明中国学术界对韩国的保护制度和保护经验有着浓厚的兴趣,尤其具有特点的是,针对“体育”领域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讨论十分活跃。

最后,在“D”领域,即“文化纷争”领域中,“江陵端午祭”“端午节”“泡菜”成为了主要

关键词。这意味着这些元素作为中韩文化冲突的主要争议点，受到了中国学术界的关注。特别是，“端午节”与“江陵端午祭”之间在文化起源及身份认同方面的讨论处于纷争的核心位置，而“泡菜”也被视为中韩文化冲突中被提及的元素。

为了更具体地分析上述四种主要研究观点，从而探讨中国学者所运用的研究方法和学术立场。我们选定了42篇被收录在学术影响力较高的AMI来源期刊的学术论文，以及28篇被收录在北大核心期刊（北核）及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来源期刊的学术论文作为分析对象。

1) “韩国非物质文化遗产介绍”分析

在“韩国非物质文化遗产介绍”领域，“阿里郎”“盘索里”“江陵端午祭”“假面舞”“灵山斋”“摔跤”“农乐”等多种非物质文化遗产被当作主要研究对象进行探讨。根据图6显示，“阿里郎”出现的频率最高，但从作为分析对象的70篇论文的内容来看，“江陵端午祭”“韩国的非物质文化遗产制度”以及“盘索里”受到了最多的关注。对相关研究进行考察的结果显示，以“韩国非物质文化遗产介绍”为中心的研究可以得出如下特征：

第一，许多研究运用多种方法论对韩国的非物质文化遗产保护活动进行分析，尤其高度评价韩国的文化政策在大众教育、市场经济、政府与民间合作等多个方面表现出色，并提出这对中国具有可借鉴的启示意义。此外，研究围绕假面舞、江陵端午祭、盘索里等具体案例展开，细致地分析了各项非物质文化遗产的传承与保护现状，提供了切实的借鉴要点。

第二，虽然研究是在尊重文化内在意义的基础上进行的，但主要存在着聚焦于广为人知案例的倾向，并且对具有较高参考价值的资料或素材的运用相对不足。此外，很多研究并非基于对韩国当地的实地考察，而是以文献资料为中心展开，从研究的深度和可信度方面来看，这可能会被指出存在局限性。

第三，许多研究具有增进韩中文化交流，以及为中国文化遗产保护提供有益启示的潜力，然而，研究范围有限，且缺乏深入分析，导致在学术深度方面稍显不足。

作为具有代表性的研究，莫代山（2015年）不仅阐述了“编号制度”和“人类文化遗产制度”，还通过“新村运动”以及“民俗村的建立”等实践性活动，剖析了韩国传统文化保护的多维度方法。特别是，他评价道，韩国在开展这些保护活动方面，在“与大众教育的紧密结合”、“与市场经济的密切关联”以及“强化政府、民间、企业和学界的合作”等方面表现得极为出色。

田耕旭（2016年）具体分析了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与传承现状。他从技艺、演艺、传承人、领域、项目等多个不同方面进行了细致的探讨，尤其指出了假面舞在传承及保护过程中出现的困难和问题。此外，为了解决这些问题，他还详细介绍了韩国文化财厅所推行的政策和应对方案。

另一方面，在探讨非物质文化遗产与学科教育关联性的代表性研究中，庞建春（2021年）和郑延学的研究值得一提。他们对韩国主要大学，如安东大学、高丽大学、东国大学等所开设的与非物质文化遗产相关的学科和课程进行了分析，进而提出了基于学科教育的多种人才培养模式。在这项研究中，指出了存在的问题，即对于韩国大学设立非物质文化遗产学科的必要性和合理性的认知仍然较低，学科的独立性不明确，且理论基础的构建尚不完善。

与“江陵端午祭”相关的研究，可以举陈媛和刘畅（2015年）的研究为例。他们探究了在江陵端午祭中举行的祭仪和民俗活动的文化意义。在研究中，深入分析了端午节所蕴含的原始宗教元素，揭示了其中的文化本质以及江陵地区持续举办端午祭的根本原因。特别是，这项研究被评价为对不熟悉江陵端午祭的

中国读者来说是有用的资料。

钟芳芳和辛知宥（2020年）以“江陵端午祭”为例，对韩国的非物质文化遗产传承体系进行了分析。他们研究了非物质文化遗产传承人体系的历史形成、传承人和传承团体的认定程序、资助金发放标准，以及以传承接班人为核心的传承模式。研究结果对这一体系在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和传承方面发挥的重要作用给予了积极评价。

最后，关于盘索里的研究，可以提及李红梅（2008年）的研究。她介绍了盘索里的名称由来和发展历程，并具体分析了盘索里的创作技法。除此之外，涉及“阿里郎”等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主要采用了同时探究其历史背景和文化特性的方式来进行。

2) “中韩文化比较”分析

在“中韩文化比较”方面，如图5所示，关于“端午节”和“江陵端午祭”的比较研究正在最为活跃地开展着。通过对相关研究进行考察，可以得出如下特征：

第一，融合了民俗学和历史学等多种学术视角，从多角度分析了非物质文化遗产的历史背景、文化意义以及保护机制，这一点十分突出。然而，研究对象主要局限于“江陵端午祭”等部分案例，存在研究范围具有局限性这一不足。

第二，通过对端午节和端午祭进行比较，得出了韩国文化的特性以及与中国文化的关联性，这提升了该研究的学术价值。然而，存在对文化元素的本质意义缺乏深入解读的情况，并且未能全面涵盖文化差异和现代变化方面存在局限。此外，研究方法过于侧重于文献分析，缺乏像实地考察或访谈等多方面的研究途径。这导致在化解围绕端午祭中韩两国的文化冲突方面，无法提供充分的讨论和说服力，存在一定的局限性。

第三，以中国文化为中心的文化立场十分突出，在强调中国端午节深厚的历史根源和文化内涵的同时，对于韩国端午祭的独创性以及在社会中的创新与发展的讨论相对不足。这被认为是未能充分阐释韩国端午祭所具有的文化意义的一大遗憾。

作为主要研究成果，王鹏（2009年）比较了中国和韩国端午祭的历史发展进程，并分析了两种文化的独特特征。他解释道，中国端午节与特定的历史人物，尤其是屈原紧密相关，主要的民俗活动包括赛龙舟和吃粽子等传统习俗。另一方面，他评价说，韩国端午祭的特点不在于纪念特定人物，而是以摔跤、射箭等传统游戏为核心，强调地方社会的共同体意义。

黄崇浩（2008年）分析了中国和韩国端午祭之间的关联性，指出中国的端午节在相对较早的时期便已形成，而韩国的端午祭则是在较晚的时候才得以固定下来。他还从活动内容的角度强调，韩国的端午祭在诸多方面继承了中国端午节的本质性元素，凸显了两种文化在历史和文化层面的联系。

3) “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制度的启示”分析

在以探讨韩国先进非物质文化遗产保护制度为核心，为中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传承提供借鉴的研究方面，展现出如下值得关注的特点：

其一，众多研究通过深入对比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典型案例与政策，提炼出对中国极具价值的保护启示，并构建了多维度的应对策略。这充分彰显了韩国文化政策在国际非物质文化遗产保护领域的引

领地位与示范价值。不过，部分研究虽对韩国文化政策给予高度赞誉，却未能深入剖析其在不同历史时期的演进脉络与具体实施路径。尽管这些研究从宏观层面肯定了韩国政策的成效，但在政策执行的微观运作机制及潜在局限方面缺乏细致探究，一定程度上影响了对韩国经验全面且深入的理解。

其二，大量研究挖掘出韩国传承机制、教育模式等极具实践价值的经验，并提出诸多可资借鉴的应用方案，充分展现了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实践体系上的先进性。然而，部分研究过度依赖文献资料，缺少实地调研获取的实证数据支撑，这在一定程度上削弱了研究对韩国先进经验解读的准确性与可信度。尽管如此，韩国在相关领域的创新实践与成功经验，依然为全球非物质文化遗产保护提供了重要参考。

其三，此类研究多以文献分析为主，缺乏实地考察、深度访谈等多元化研究方法的运用。尽管文献分析有助于梳理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理論框架，但由于未能结合中国各地实际情况进行针对性研究，难以全面反映中国在文化遗产保护利用过程中的具体问题与区域差异。不过，这也从侧面反映出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经验具有广泛适用性与高度概括性，亟待中国学术界以更丰富的研究手段深入挖掘其应用潜力。

以张世均（2011年）的研究为典型代表，其充分肯定了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利用领域取得的卓越成就。韩国凭借健全的法律制度、政府的高效统筹、国民的积极参与、对文化传承人的悉心培育，以及文化产业化的创新发展等一系列系统性举措，在亚洲乃至世界范围内树立了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标杆。这些成就不仅体现了韩国对传统文化的珍视，更彰显了其在文化遗产保护领域的前瞻性战略眼光与强大的执行能力。张世均由此提出，中国应积极借鉴韩国经验，完善法律保护体系，强化政府支持力度，提升国民文化遗产保护意识，推动文化产业与遗产保护的深度融合，为中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注入新动能。

除此之外，马驰（2009年）的研究则深入梳理了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历史进程，高度赞扬了韩国深厚的文化与民俗保护意识。他特别认可韩国将非物质文化遗产与观光产业有机结合的创新发展模式，这一模式不仅有效促进了非物质文化遗产的传承与传播，更带动了韩国文化经济的繁荣，展现了韩国在文化资源整合与创新发展方面的非凡智慧。尽管马驰也指出过度商业化可能带来的潜在风险，但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产业发展平衡方面的探索，仍为世界各国提供了宝贵经验。同时，他指出中国在文化遗产管理中存在的问题，进一步凸显了借鉴韩国先进经验、优化中国文化遗产保护体系的必要性与紧迫性。

4) “中韩文化冲突”分析

在“中韩文化冲突”方面，如图6所示，关于韩中文化冲突的研究主要围绕江陵端午祭展开，且发表在被收录于 AMI、北大核心及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等学术期刊上的相关研究相对有限。

第一，韩国学者深入回顾了从高丽时期到朝鲜王朝的历史发展脉络，系统且全面地阐述了韩国端午祭在吸收中国传统元素的基础上，独立传承与发展的独特历程。特别是，韩国学者巧妙地将现代社会的端午祭活动与之紧密联系，生动地展现了传统节日在当代社会的适应与演变过程，这无疑为包括中国读者在内的广大受众更深入、透彻地理解韩国江陵端午祭的丰富内涵与独特魅力起到了极为积极的推动作用，彰显了韩国学者在文化研究与阐释方面的深厚功底与卓越能力。

第二，部分中国学者在分析韩国江陵端午祭时，一定程度上呈现出以中国为中心的视角倾向，并且在介绍韩国学界立场时，存在难以明确列举具体资料或论据的情况，这在一定程度上影响了研究的全面性。

第三，研究中还存在过度依赖文献分析，而缺乏深入实际的实地考察或严谨实证研究方法论的问题。

这使得对于现代社会中端午祭的实际运营模式,以及它与当地社会的互动方式,难以获得具体、全面且细致入微的理解。

此外,韩国学者朴英焕(2011年)引用了中国「人民日报」中关于江陵端午祭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相关报道,并指出以此为契机,中韩之间引发了文化争端。他从中韩文化交流的宏观视角出发,对丰富的历史资料进行了深入细致的分析,具体且生动地介绍了从高丽时代到朝鲜王朝时期,韩国端午祭的起源以及各种节庆活动的发展演变过程。他高度评价道,韩国的端午祭虽然受到中国端午节的影响,但在与韩国本土地域文化深度融合的过程中,以独特而富有创意的方式不断发展壮大,展现出了强大的生命力与文化魅力。更进一步地,他强调韩中两国的端午庆祝活动均源自“对美好生活的追求”,并极具前瞻性提出应超越单纯的文化起源之争,积极探寻共同的文化价值以及传统的持续发展路径,为中韩文化交流与合作提供了宝贵的思路与启示,彰显了韩国学者在文化研究与交流方面的广阔视野与包容胸怀。

4. 结 论

本研究以2001年至2024年期间发表的共计148篇与韩国非物质文化遗产相关的中国学术界研究成果为分析对象,得出了如下主要结论:

第一,对研究成果按年份分布进行分析后发现,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可清晰划分为三个阶段:2001年至2005年的初期阶段、2006年至2014年的活跃阶段以及2015年至2024年的减少阶段。研究关注度与韩国非物质文化遗产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数量之间存在一定关联,这体现出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领域的国际影响力对学术研究的带动作用,尽管已确认这种关系并非简单的成比例关系。近期研究数量大幅下降并呈现停滞状态,不过也反映出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随着韩国在该领域的发展进程而动态变化,更凸显了韩国非物质文化遗产在不同阶段所展现出的独特魅力和影响力对研究的推动与调整,有必要对此保持关注并进一步深入探究。

第二,对发表媒介的分析结果表明,在所有研究成果中,84篇(占比57%)发表在学术期刊上,31篇(占比21%)发表在大学学报上。其中,发表在普通刊物上的有45篇(占比39%),发表在AMI学术期刊上的有42篇(占比37%),而发表在具有较高影响力的北大核心及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收录期刊上的分别有6篇(占比5%)和22篇(占比19%)。由此可见,韩国非物质文化遗产在一定程度上广泛吸引了大众的关注,体现出韩国非物质文化遗产在传播过程中所具备的广泛影响力和吸引力。不过,在高级别学术期刊上深入探讨的相对较少,这暗示着中国读者在借助现有研究成果全面、深入、充分地理解韩国非物质文化遗产丰富的内容及深刻的内在意义方面,存在一定的局限性,但也从侧面反映出韩国非物质文化遗产内涵丰富,有待更深入的学术挖掘。

第三,关键词分析结果显示,韩国非物质文化遗产是否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对研究的起始时间点并没有直接影响,这也说明韩国非物质文化遗产自身的独特价值和魅力,即便未被列入名录也能吸引学术关注。同时,关于“江陵端午祭”和“阿里郎”等大众熟知的文化遗产的研究开展得十分活跃,充分展现了这些韩国非物质文化遗产在国际上的广泛影响力和文化魅力。而对于另外10项非物质文化遗产,目前的研究仍处于不足的状态,有待进一步挖掘这些遗产的独特价值。此外,通过关键词云分析可以发现,中国学术界对于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并非仅仅停留在简单介绍层面,而是涵盖了保护制度、韩中文化比较、文化冲突等多种主题。特别是关于保护制度、传承人以及传承方式的研究,受到了极高的关注,

约占全部研究的30%，这也体现出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制度等方面的先进经验对中国学术界的吸引力和启示作用。从按年份的关键词分布分析来看，“江陵端午祭”受到的关注最多，并且研究范围已经从单纯的文化介绍扩展到了文化比较以及有关冲突的讨论，这也进一步说明了韩国“江陵端午祭”这一非物质文化遗产的丰富内涵和学术研究价值。

第四，研究观点分析结果显示，中国学术界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研究可分为“韩国非物质文化遗产介绍”“中韩文化比较”“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制度的启示”“中韩文化冲突”这四大主要观点。其中，与韩国非物质文化遗产介绍相关的研究开展得最为活跃，“阿里郎”“盘索里”“江陵端午祭”成为主要的研究对象，这些韩国非物质文化遗产凭借其独特的艺术魅力和深厚的文化底蕴，成为了学术研究的热点。中韩文化比较研究主要围绕“端午节”和“江陵端午祭”展开，同时也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制度及保护经验进行了深入探讨，充分肯定了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方面的先进经验和积极成果。

中国学者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制度、与现代文化的融合以及政府和普通民众的积极参与给予了高度赞扬，并在此基础上提出了中国保护和发展非物质文化遗产的多种方案，这体现了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领域的成功经验对中国的借鉴意义。并且在介绍像“盘索里”这样的非物质文化遗产时，将其历史背景和文化特性相结合，为中国读者提供了理解韩国文化所需的信息，有助于促进中韩文化的交流与理解。此外，许多中国学者介绍了韩国江陵端午祭与中国古代端午节在历史和文化方面的差异，并高度评价韩国对其进行传承和发展是一个极具借鉴意义的典型案例，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的传承和发展方面展现出了卓越的智慧和创造力。

关于中韩文化冲突的研究主要围绕江陵端午祭展开，但大部分发表在反映大众关注的普通刊物上，而发表在学术影响力较高的被AMI、北大核心及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收录的学术期刊上的研究相对较少。特别是，实证资料和论据的缺乏不仅无法化解两国间的文化冲突，反而有可能产生负面影响。

第五，钟芳芳、申知雨（2020年）关于江陵端午祭的研究，庞建春、郑然鹤（2021年）对韩国非物质文化遗产学科与教育的研究，以及朴英焕（2011年）有关韩中文化冲突的研究等，中国学者与韩国学者的共同研究以及韩国学者单独开展的研究，都为深入理解韩国文化提供了极为重要且珍贵的信息。只是这类研究成果的数量相对较少，这表明有关非物质文化遗产的学术交流有必要进一步活跃起来。韩国在推动非物质文化遗产学术交流方面的积极努力，对于促进两国间的文化交流以及化解文化冲突能够发挥非常重要的作用，彰显了韩国在文化交流与合作方面的积极态度和贡献。

第六，目前中国学术界集中于一些具有代表性的案例，研究范围存在局限性，并且有很强的侧重于文献分析的倾向，通过实际的实地考察和访谈所收集的实证数据不足。此外，以中国文化为中心的文化立场较为突出，在化解韩中之间的文化冲突方面，实际贡献有限。这也从侧面反映出韩国非物质文化遗产的丰富性和复杂性有待中国学术界以更客观、多元的视角去深入研究。那么，在今后的研究中，不能仅仅局限于探讨传统文化的起源和历史意义，还需要积极研究包括非物质文化遗产的可持续发展战略、数字化以及文化产业化等面向未来且具有国际性的研究主题，韩国在这些方面的实践经验和创新探索值得中国学术界深入学习和借鉴。

最后，针对诸如端午祭这类可能引发文化认知分歧的非物质文化遗产，亟需构建更为完备的学术论证体系，并加强双边学者的协同研究，以此深化对文化遗产多元价值的认知。韩国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和研究方面的先进理念和实践经验，值得中国学术界学习和借鉴。另外值得注意的是，在韩国已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名录的23项非物质文化遗产中，中国学术界尚未开展系统性研究的项目多达10项。基于此，完善相关国际传播策略，健全研究支持机制，已成为推动非物质文化遗产跨文化研究的重要任务，韩国在这方面的成功经验能够为中国提供有益的参考和启示。

【차세대학자분과 II】 발표

电影视角下的中国洗浴文化
— 从传统礼仪到现代生活

杨春宇* · 金炫兑**

【目 录】

1. 序言
2. 洗浴文化的发展背景
 - 1) 中国传统沐浴文化历史溯源：从宗教到世俗
 - 2) 西方世界看待中国洗浴文化：刻板印象与误解
 - 3) 近现代洗浴文化的变迁：从传统澡堂到现代浴场
3. 中国洗浴文化的历史演变与文化意涵
 - 1) 中国古代洗浴文化的起源与发展
 - 2) 洗浴文化中的社会结构与身份象征
 - 3) 从传统礼仪到现代生活：洗浴空间的转型
4. 结语

【 초 록 】

本研究从电影这一影像媒介出发,探讨中国洗浴文化在传统与现代之间的演变轨迹及其深层文化意涵。洗浴,作为中国传统礼仪的重要组成部分,不仅承载着身体清洁的功能,更体现了宗教净化、社会身份与礼仪规范的象征意义。从古代皇室“兰汤”到民间澡堂,从宗教仪式到城市生活,洗浴文化逐渐发展为一种集清洁、社交与养生于一体的生活方式。进入影像时代以来,洗浴空间频频出现在电影银幕上,成为承载情感表达、社会象征与文化认同的重要符号。本研究通过对多部典型影片中洗浴场景的文本分析,揭示其在反映社会结构、文化变迁与个体身份中的多重功能,尤其在中西文化对比与身份建构中具有独特意义。洗浴空间既是传统集体记忆的载体,也是现代消费社会中身份再生产的隐喻。本研究认为,电影中的洗浴文化意象,既展现出中国式生活美学的深厚底蕴,也为传统文化的现代表达提供了新的叙事维度。

【키워드】 电影;洗浴文化;文化认同;传统礼仪;现代生活

* 제1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박사과정 (zwy19910814@gmail.com)

** 교신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dochtkim@pknu.ac.kr)

1. 序言

水, 既是自然的馈赠, 也是文明的象征。沐浴作为人类最基本的生活行为之一, 在中国传统文化中早已超越了生理清洁的范畴, 演变成为一种富含礼仪、精神与社会意义的文化现象。从宗教净身仪式到皇家御汤, 从民间澡堂到现代SPA中心, 洗浴文化记录着中国社会从古至今的变迁图景, 也映照出国人关于身体、空间与身份认同的深层观念。

进入影像时代以来, 电影不仅仅是娱乐媒介, 更是文化叙事的重要工具。作为一个高度视觉化、符号化的空间, 洗浴场所频频出现在银幕之上, 既承载着人物性格、社会结构的隐喻表达, 也折射出时代精神的光影流转。通过洗浴场景, 观众得以窥见封建社会中等森严的性别秩序, 感受到城市化进程中人情味的流失, 也能体会当代消费文化对身体与休闲的新定义。

本研究以电影为观察窗口, 试图在影像与现实的交织中还原中国洗浴文化的历史轨迹与社会意义; 通过对典型影片中洗浴场景的文本分析与符号解读, 揭示其所隐含的文化结构与意识形态; 并在中西文化的对比中, 思考中国影像如何在回应外部视角的同时, 进行文化身份的自我建构。这不仅是一项关于“沐浴”的探索, 更是一场关于中国式生活美学与文化认同的深度对话。

2. 洗浴文化的发展背景

洗浴文化起源于宗教礼仪, 发展至皇家宫廷, 再到民间澡堂, 逐步演变为集清洁、社交、养生于一体的生活方式。随着城市化和消费文化的兴起, 传统澡堂逐渐被现代洗浴中心取代, 洗浴场所的功能和意义也随之转变。电影作为文化镜像, 真实记录并反映了这一变迁, 同时也回应了西方对中国洗浴文化的误解与偏见, 成为理解文化认同与传播的重要媒介。

1) 中国传统沐浴文化历史溯源：从宗教到世俗

洗浴文化在中国源远流长, 蕴含深厚的文化内涵与历史价值。电影作为文化表达的重要载体, 也在不同历史时期呈现出对沐浴文化的不同阐释, 从古装历史剧对宗教净身礼仪和宫廷浴池的再现, 到现实主义电影对澡堂社交功能的描绘, 这些影像文本共同构成了中国洗浴文化在银幕上的历史记忆¹⁾。

洗浴文化起源可追溯到远古时期, 当时的人们逐水而居, 利用天然水源进行简单的清洁。到了西周时期, 沐浴被赋予了重要的礼仪和文化意义, 成为祭祀活动的重要环节。汉代, 沐浴文化进一步发展, 形成了“三日具沐, 五日具浴”的习俗, 且官吏还享有五日一假的“休沐”制度。魏晋南北朝时期, 甚至出现专门的沐浴著作。南朝诗人何逊在『拟古诗八首·其四』中写道: “朝沐发, 夕濯足, 朝夕沐, 身无垢。”描写日常的沐浴行为, 可见当时对洗浴清洁的重视。洗浴文化在儒家、佛教、道教等思想体系的影响下逐渐演变成为一种带有宗教、礼仪和社会功能的文化现象, 承载着精神净化、社会礼仪和权力象征等多重含义²⁾。在宗教影响下, 沐浴文化被赋予超越身体清洁的精神意义。儒家思想强调“沐浴更衣”, 认为洗浴是个人修养和礼仪的一部分。张艺谋执导的『英雄』中, 秦王嬴政在皇宫中沐浴的场景不仅展现了帝王的权

1) 常圆, 「说好中国故事的电影视阈: 中国电影的话语框架」, 『当代电影』, (05), 2018, pp. 159-161.

2) 苏全有·崔海港, 「论近代中国的洗浴文化」, 『福建论坛(人文社会科学版)』, (08), 2013, pp. 92-96.

力象征,也隐喻了权谋斗争中的净化与思考,水的流动象征着权力的更替与洗涤。佛教传入中国后,“净身”成为修行者必行之事,佛教经典将洗浴视为净化身心、消除业障的方式,许多寺庙因此设有浴堂供僧人使用。唐宋时期,皇家更是在宫廷内建造“兰汤”,供高僧大德沐浴,以示宗教威仪³⁾。而道教则更加强调洗浴的修行功能,在徐克执导的《青蛇》中,白素贞与青蛇在水中洗浴的场景不仅具有视觉上的唯美意境,同时也隐喻了道家文化中的“水”意象——水代表灵性、修行和蜕变。沐浴不仅是生理上的清洁,更是灵魂的升华,表现了修行者对尘世的超脱。同样《倩女幽魂》(1987)中,燕赤霞作为道士,在施法之前需要净身,呼应道教“欲通仙道,先须洁身”的信仰,强化道士修行的仪式感。

随着封建王朝的巩固,洗浴文化逐渐由宗教仪式向世俗化、奢华化方向发展,尤其是在皇家宫廷中,沐浴成为身份与权力的象征。唐代皇室洗浴之风盛行,陈凯歌执导的《妖猫传》中,华清池的洗浴场景展现唐代洗浴文化的极致奢华,电影通过洗浴场景,展现唐代宫廷的日常生活,更通过视觉与象征手法,使洗浴文化成为封建帝王沉溺奢华的生动写照。

宋元时期,宫廷浴堂内部装饰考究,采用香汤、药浴等方式,民间洗浴文化的普及始于宋元时期,到明清时期形成了以公共澡堂为中心的洗浴传统,澡堂成为普通百姓日常生活的重要场所。不同于皇家浴池的奢华,民间澡堂更注重其实用性和社交功能,尤其在北方城市,澡堂不仅是洗澡的地方,更是社交、休闲、甚至商业谈判的场所。澡堂文化在电影中的表现尤为突出,电影《洗澡》通过老式澡堂的兴衰,展现了中国社会的变迁与传统文化的式微⁴⁾。在影片中,澡堂不仅是父子情感交流的场所,也承载了老北京人的社交习惯,许多老顾客在澡堂里打牌、聊天、按摩,形成了一种独特的社群文化。而这种传统随着现代生活方式的变迁和都市化的推进逐渐衰落,电影中的澡堂最终面临拆迁,成为一个时代消逝的象征。

2) 西方世界看待中国洗浴文化:刻板印象与误解

在19世纪和20世纪初期,欧美国家的媒体和文学作品经常将中国描述为“肮脏”或“缺乏卫生意识”的国度,这种误解不仅源于文化差异,也与西方早期对东方世界的殖民话语和偏见密切相关。西方电影在涉及中国文化时,往往强化这些刻板印象,使其成为主流观众对中国的默认认知,而忽视了中国自古以来的洗浴传统及其丰富的文化内涵。

在好莱坞电影中,早期的华人形象往往与贫民窟、黑帮、鸦片馆等负面意象联系在一起,洗浴文化也未能幸免。上世纪的电影《唐人街》(1974)华人生活环境被刻意塑造成狭窄、污秽、充满异国情调但又带有某种“危险气息”的场所;《黑社会》(1985)聚焦纽约唐人街的华人帮派,片中对华人生活环境的描绘充满阴暗、混乱的色彩,使得中国洗浴文化在西方观众眼中被进一步边缘化。浴池、澡堂等空间要么被完全忽略,要么被表现为简陋不堪,与中国人“不重视个人卫生”的刻板印象相呼应。

与西方电影长期塑造的刻板印象相比,中国本土电影在对外输出文化时,往往选择通过影像强调洗浴文化的历史传统和仪式感,以此呈现中国社会的独特性。面对外界对中国人“忽视个人卫生”的误解,中国电影人并未直接反驳,而是通过精雕细琢的洗浴场景展现洗浴在中国社会中的重要性,不仅关乎身体清洁,更承载着身份象征、礼仪规范和精神净化的意义。《大红灯笼高高挂》(1991)便巧妙地利用洗浴场景刻画封建制度下女性的境遇,片中,女主人在被召幸前必须沐浴净身,这一仪式不仅象征着女性的服从与被动,也通过氤氲水雾和精致画面突出了封建家庭制度的森严等级⁵⁾。这一类电影的影像叙事,使洗浴

3) 胡晓晴,「唐代道教的沐浴文化探究」,《中国宗教》,(05),2024,pp.88-89.

4) 庞振康,「电影《洗澡》对传统文化的三重建构」,《传媒论坛》,2(13),2019,p.175.

5) 张永梅,「电影《大红灯笼高高挂》艺术赏析」,《电影评介》,(18),2015,pp.35-37.

文化从单纯的日常行为上升为文化符号，让国际观众得以窥见中国洗浴文化背后的社会秩序与思想传统。

3) 近现代洗浴文化的变迁：从传统澡堂到现代浴场

改革开放以来，中国社会经历快速的城市化和经济发展，洗浴文化也随之发生巨大的变化。传统澡堂逐渐式微，现代洗浴中心、洗浴会所、SPA馆等新兴洗浴场所成为主流⁶⁾。这一过程不仅反映在社会现实中，也在中国电影中得到了生动的呈现。

尤其在上世纪90年代，各类豪华洗浴会所、休闲洗浴中心兴起，洗浴文化逐步与消费文化相结合，成为城市人群放松身心、社交娱乐的重要场所。这一阶段的洗浴文化在电影中也有明显呈现，例如『天下无贼』（2004）中，贼王黎叔在高档洗浴中心的场景，象征着90年代中国社会财富分化加剧。而在『金鸡』等香港电影中，洗浴场所则往往与服务行业、情色文化联系在一起，反映了资本主义消费文化对传统洗浴文化的改造与渗透。

1999年上映的『洗澡』（张杨执导）是最具代表性的电影之一，影片讲述了北京一座即将拆迁的老澡堂和一家三代人的故事。片中，传统澡堂不仅是洗浴的场所，更是居民社交、休闲、甚至进行中医保健的地方，如搓背、拔罐、捏脚等场景都真实展现了旧澡堂的日常生活。影片以澡堂为载体，展现了改革开放后，传统生活方式如何在现代化进程中逐渐消失，同时也刻画了人情社会向现代都市社会的转型。这种变迁在电影中表现得极为细腻，片中老澡堂主人固守传统，而儿子则已融入现代都市生活，对澡堂的情感认同越来越淡薄，最终澡堂因城市发展而被拆除，象征着一个时代的终结⁷⁾。东北地区的澡堂文化也成为电影关注的焦点，『钢的琴』影片中的澡堂场景不仅是角色们洗浴的地方，更是下岗工人们最后的“避风港”，在这里，他们回忆过去、交流信息、互相调侃，澡堂成为了他们失落身份的象征。这与改革开放后，东北国企改革、大量工人下岗的社会现实紧密相连，反映了经济转型对普通人生活方式的冲击。

进入21世纪后，洗浴行业的商业化趋势愈发明显。随着国家对洗浴行业的规范整治，以及人们健康养生观念的升级，洗浴行业再次转型，逐渐回归更健康的方向。高端洗浴会所成为新兴消费场所，尤其在东北、京津冀等地，洗浴中心不仅提供传统洗浴服务，还融入了休闲、娱乐、按摩、餐饮等多种功能。这种“洗浴+”模式在电影中同样有所呈现。『疯狂的石头』（2006）中，黄渤角色（黑皮）在澡堂里，黑皮与道哥（郭涛饰）以及其他人物相互调侃，突出澡堂作为城市底层人物聚集地的现实性。

3. 中国洗浴文化的历史演变与文化意涵

1) 中国古代洗浴文化的起源与发展

中国洗浴文化的历史源远流长，其起源可以追溯到原始社会的自然崇拜与身体清洁的朴素观念。在甲骨文和早期青铜器铭文中，已有与“沐”、“浴”相关的字形与描述，表明古人对水与身体洁净的早期意识⁸⁾。随着农业社会的发展和礼制文明的建立，洗浴逐渐成为社会行为的一部分，并与礼仪制度深度融合。

6) 庞振康，「电影『洗澡』对传统文化的三重建构」，『传媒论坛』，2(13)，2019，p. 175.

7) 张灵燕，「论电影『洗澡』的多重主题」，『电影文学』，(07)，2012，pp. 99-100.

8) 韩儒博，「漫谈中国的洗浴文化（英文）」，『The World of Chinese』，(02)，2019，pp. 54-58+3.

合。『礼记·内则』中记载,“凡始冠、嫁娶、丧祭,必先沐浴”,可见洗浴不仅是日常行为,更是各类重要仪式的前置步骤,代表着对神明、祖先以及社会关系的尊重。进入西周与春秋战国时期,贵族阶层通过沐浴仪式来区分身份与权威,洗浴成为等级制度的象征之一。战国时期楚简中的『日书』也有对洗浴时间与禁忌的记载,反映出古人将沐浴与天文、祭祀、命理结合的思想。在汉代,宫廷中设有专门的浴室,配有热水供应系统,并出现了熏香、草药浴等养生方式,既体现出实用性,也显示出审美与精神层面的发展。至唐代,洗浴文化进一步发展,长安、洛阳等大都市中出现了大量公营或私营澡堂,部分文献记载如『资治通鉴』亦提及长安有“浴坊”百余间,反映出市民阶层对洗浴的普遍需求⁹⁾。同时,佛教在这一时期的传播也促使洗浴行为具有了宗教净化的含义。『四分律』规定僧人需每日净身,寺庙常设“浴室”,用以修行前的洗涤,体现了佛教“清净身心”的教义与洗浴行为的契合。宋元时期,随着城市经济的发展和手工业的繁荣,民间澡堂成为重要的公共设施。城市中兴起的“香汤浴”“药浴”等服务已具备现代意义上的商业属性,澡堂成为城市居民日常生活中不可或缺的场所。明清时期,尤其是在京津、东北等地,澡堂文化高度发达,形成了较为成熟的空间布局、服务流程与文化习俗。例如“洗三”“洗百日”“产妇头洗”等民俗体现出洗浴在生命礼仪中的重要角色,同时也为后来的电影文化积累了丰富的情节母题与空间想象¹⁰⁾。

2) 洗浴文化中的社会结构与身份象征

虽然洗浴行为表面上是一种生活习惯,但在中国传统社会结构中,它实际上是一种具有明确社会标识功能的文化实践。古代“宫浴”与“民浴”之间的差异,构成了一种身体实践与权力结构之间的隐喻关系。在宫廷中,浴室不仅仅是皇族清洁身体的场所,更是国家礼仪的重要组成部分。

与宫廷洗浴相对应,民间洗浴则呈现出更强的公共性与实用性。城市中的公共澡堂往往设有大厅、淋浴区、搓背区、休息厅等分区,既满足了清洁需求,也成为邻里交流、信息传播甚至谈判交易的社交场域。这种公共空间在一定程度上打破了日常生活中的身份屏障,使人们在“裸身平等”的状态下展开交流,强化了社会认同与人际联结。然而,在这类公共空间中仍存在隐性阶层划分,例如高级澡堂设有单间、定制服务和精美装潢,服务对象主要为中产及富裕阶层,而普通澡堂则服务于普通市民与体力劳动者,其装置与服务相对简陋。洗浴场所中的行为规训也体现出性别与身份的文化建构¹¹⁾。男女分浴不仅源于礼教对“男女有别”的强调,也体现了对身体的性别化管理。在一些地方还保留有“男搓男、女搓女”的规定,搓澡师傅的等级与经验直接影响其服务价格,也间接映射出职业等级与服务经济的现实逻辑。更重要的是,洗浴作为仪式的一部分,承载了对身体与道德的象征性操控。在婚嫁、成年礼、丧葬等重要节点,洗浴常常预示着生命状态的转变与社会角色的更新。如新娘在出嫁前要沐浴更衣,寓意“洗去尘俗、焕然一新”;丧礼前为逝者净身,象征其由尘世走向彼岸的“纯净”状态。这些仪式行为将洗浴从纯粹的生理需求中抽离,提升为文化意义上的“洁净”“净化”与“重生”¹²⁾。

3) 从传统礼仪到现代生活:洗浴空间的转型

进入20世纪尤其是改革开放以来,中国社会发生了剧烈的变迁,洗浴文化也随之经历了从传统礼仪性

9) 王珺,「盛唐时期沐浴文化初探」,『华夏文化』,(04),2007,pp.38-40.

10) 周晓江,「中西沐浴文化比较研究和我国沐浴发展趋势探索」,江南大学,2004.

11) 杨劲松,「沐浴业发展的中外比较」,『旅游学刊』,(09),2008,pp.67-72.

12) 许是,「由身到心的中外洗浴文化」,『中国信用卡』,(04),2017,pp.76-81.

行为向现代生活消费方式的深刻转型。随着城市化进程的加快与居民收入水平的提升,洗浴场所从以往单一功能的澡堂演化为集清洁、休闲、娱乐、养生于一体的多功能综合体。从东北“洗浴王国”的大澡堂到南方城市的高端SPA会所,洗浴场所逐步成为都市人缓解压力、寻求情感慰藉与身体修复的重要场域¹³⁾。

现代洗浴中心在空间设计上更加注重私密性与个性化体验,配备有按摩室、影院、KTV、美食区等配套服务,强调的是一种“沉浸式消费体验”。这种转型不仅反映了人们生活方式的变化,也折射出社会对身体感官享受与精神慰藉的双重诉求。在这种背景下,洗浴空间从社区性空间逐步向商品化空间转变,其文化功能逐渐让位于市场逻辑与消费主义价值。例如,高端洗浴会所的出现也标志着新一轮的身份区隔,以价格与服务内容划定顾客的社会地位。尽管如此,传统澡堂作为一种历史记忆与文化符号仍在不少地区保留,成为城市记忆与情感认同的重要载体。许多电影作品借助澡堂空间来表现人物间的亲密关系、社区文化的消亡与时代变迁的伤感,如『洗澡』『老炮儿』『人生大事』等影片均通过澡堂场景营造一种集体记忆与文化情感的投射。澡堂作为传统生活的一部分,在现代影像中往往被处理为一种“文化遗产”或“精神象征”,其承载的不仅是生活方式的变迁,更是人与人之间温情纽带的见证¹⁴⁾。

因此,洗浴文化从古至今的演变,不仅是一部日常生活史的缩影,更是一种文化精神的流动与社会结构的映射。它在中国文化中独特的地位,使其不仅成为生活经验的重要组成部分,也为影视叙事提供了极具张力与表现力的文化场域。

3. 电影中的中国洗浴文化意象

1) 电影叙事中的洗浴文化表达

电影,作为一种综合性的艺术形式,能够通过视觉、声音、情节和符号传递深刻的文化和社会信息。在中国电影中,洗浴场景不仅仅是为叙事提供一个背景或舞台,它常常充当着情感、身份、社会关系等重要元素的载体。洗浴空间,因其特殊的私密性和开放性的双重属性,成为了一个富有象征意义的空间。在这种空间中,人物常常经历情感的高潮与低谷,洗浴不再仅仅是身体上的清洁,更是精神和心理的释放。

洗浴场景通过其独特的文化符号与隐喻,展现了人物的情感纠葛与身份变迁。澡堂这种具有“开放性”和“公共性”的空间往往能够打破人物内心的隐秘世界,促使他们展现最真实的情感。许多电影通过设置洗浴场景作为情节的转折点,推动故事发展或揭示人物的内心世界。以『洗澡』为例,影片通过反复出现的澡堂场景,让观众见证父子间的亲情修复与兄弟间的情感恢复。澡堂不仅是一个洗净疲惫的地方,更是亲情、友情和社会联系的象征,赋予了影片深厚的人情味和文化温度¹⁵⁾。这个空间不仅为影片提供了情感的纽带,也让观众通过对传统生活方式的共鸣和怀旧,重新审视人与人之间的关系和情感纽带的力量。此外,洗浴场景常常也承载着人物的社会身份和心理变化。由于洗浴是一个需要去除外衣、暴露自我的过程,这一动作不仅在表面上象征着身体的清洁,更在深层次上代表了身份的剥离和心理的透析。例如,在『霸王别姬』中,程蝶衣在洗净脸上的妆容时,不仅是在摆脱外界的社会面具,更是在进行自我身份的重构,这一动作隐喻了他在性别与社会身份之间的纠结与冲突。洗浴场景在电影中的功能,不仅是揭示人物的内心世界,也在于通过这一“净化”的过程,推动故事的情感升华与人物的心理成长。

13) 陈苹,『洗浴文化浅说』,『室内设计与装修』,(08),2005,pp.18-19.

14) 孙勇·郭艳婷,『由古罗马浴场谈国内洗浴中心』,『建筑技艺』,(09),『2009』,110-113.

15) 张灵燕,『论电影『洗澡』的多重主题』,『电影文学』,(07),2012,pp.99-100.

2) 代表性电影案例分析

中国电影中的洗浴文化表现形式多种多样, 不仅涉及日常生活的点滴, 还反映了社会阶层、历史背景以及文化传承的深刻变革。通过洗浴场景的设定, 影片不仅展现了不同社会群体的生活状态, 还揭示了中国社会在不同历史时期的变迁与挑战。

『洗澡』是中国电影中最具代表性的关于洗浴文化的影片之一。电影通过描绘一个普通澡堂的日常, 展现了父子重聚和邻里互动的温馨场景, 这不仅是人物关系的转折点, 也是社会集体主义与家庭纽带的重要体现¹⁶⁾。在影片中, 澡堂不仅仅是一个简单的公共洗浴场所, 它象征着中国传统社会中人与人之间紧密的联系和相互依存。澡堂成为了情感的交流平台, 也成为了社会结构和人际关系的缩影。电影通过这一场景, 展现了普通百姓的情感世界与社会互动, 让观众在细腻的情感纠葛中看到传统社会的温情。与『洗澡』不同, 『活着』中的洗浴场景则充满了沉重的历史感。在这部影片中, 简单的洗浴场景与底层民众艰难的生存状态紧密相连。电影通过展现战乱中的普通百姓, 折射出中国社会底层劳工的艰辛生活¹⁷⁾。洗浴在这部影片中不仅仅是身体的清洁, 更是生存的象征, 它标志着这些角色在动荡时代中的苦难与无奈。影片通过对这些场景的刻画, 表达了作者对社会变迁和人们困境的深刻反思, 也让观众通过这些日常的仪式感受到人性的坚韧与脆弱。『霸王别姬』中的洗浴场景则更多地与人物的心理和身份撕裂相联系。在影片中, 程蝶衣的洗浴场景不仅是外在妆容的清除, 更是其内心的挣扎与自我认同的体现。洗去脸上的妆容, 意味着他摆脱了一个社会标签, 开始面对真实的自己¹⁸⁾。这一场景象征着程蝶衣在复杂的性别认同与命运安排之间的挣扎, 折射出那个时代对身份、性别与社会地位的压迫与束缚。洗浴场景在影片中起到了情感升华的作用, 它让人物的内心世界与社会角色的冲突更加鲜明, 也为影片的主题增添了深刻的社会意义。『地久天长』中的澡堂场景则充满了现代化进程中的社会变迁感。影片通过冷清的澡堂与疏离的人际关系, 展现了现代化带来的社会断裂与传统社会的消失。影片中的澡堂不仅是一个生活空间, 它更承载了时代的变迁和社会阶层的冲突。在现代化的进程中, 传统的集体主义精神逐渐消散, 洗浴场景成为了这一转型的象征, 反映了工人阶层的边缘化问题, 也折射出社会情感的日益冷漠。

这些影片通过不同的洗浴场景, 展现了社会结构的深层次变化, 并在此过程中反映了电影创作者对传统文化的反思与再现。无论是展现家庭与社区的温情, 还是揭示社会阶层的分裂, 洗浴文化在电影中的呈现, 都是一种深刻的社会符号。它不仅表现了社会变迁中的个体命运, 也通过细腻的情感描绘, 让观众重新审视中国文化中的集体主义与人际关系的独特性。

结语

从宗教礼仪到日常生活, 从封建宫廷到现代都市, 从澡堂社群到SPA消费, 中国洗浴文化的发展不仅是一段身体实践的历史, 更是一部深刻映射社会结构、文化观念与时代变迁的生活史。电影作为文化传播的重要载体, 凭借其强烈的视觉性与符号性, 赋予洗浴场景以丰富的社会意义和文化意涵, 使洗浴空间在影像中成为身份认同、情感关系乃至社会记忆的凝结场所。

16) 万明科, 「论电影『洗澡』中的现代性书写」, 『电影文学』, (05), 2015, pp. 97-99.

17) 张春艳, 「传统文化对现代小说叙事的影响——以『活着』为例」, 『新传奇』, (30), 2024, pp. 7-9.

18) 李海鑫·韩佳杏, 「历史背景下『霸王别姬』的隐喻表达与镜头语言解析」, 『新闻研究导刊』, 15(15), 2024, pp. 253-257.

通过对不同历史时期、不同题材电影中洗浴文化的观察与分析，我们看到的是一个不断演进的文化空间：它既承载了中国人对身体、秩序与礼仪的传统观念，也反映出城市化、消费主义、现代性等力量对生活方式的深刻重塑。在本土电影中，洗浴往往被赋予温情、怀旧与人际纽带的情感功能；而在西方镜像中，它又常被误读为异域符号或卫生差异的象征。正是在这种多重视角的交织中，洗浴文化成为中西文化对话与理解的重要切入点。

本研究试图通过电影这一窗口，对中国洗浴文化的形象与内涵进行系统化的重构与阐释。在当下全球化语境中，重新理解并讲好“澡堂里的中国故事”，不仅有助于增强文化认同与传播力，也为传统文化的现代表达与国际传播提供了有益的启示。

洗浴不止于“洗身”，更是一种对文化的体认与对生活的凝望。未来，随着媒介形式的不断拓展，洗浴文化在影像表达中的形象也将不断丰富与再造。我们期待更多创作者关注这些“日常中的不寻常”，让文化在生活的细节中被重新发现、被温柔讲述

【차세대학자분과 II】 발표

돌보는 여성들: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돌봄을 발견하기

손 수 경*

【목 차】

1. 들어가며
2. 의외의 조합: 페미니즘, 돌봄,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3. 돌보는 중국 여성들: 2018년 이후 중국 미투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4. 나가며

【 초 록 】

이 연구는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돌봄을 발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이 안에서 형성된 연결과 연대가 중국 청년 여성에게 돌봄과 맞물린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소셜미디어는 낯고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공간이자, 글로컬(global)한 정보교환 및 전지구적인 페미니즘 정치 참여 및 연대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이 실제로 좁은 의미의 돌봄 실천을 넘어서, 넓은 의미의 돌봄 정치로서 기능한다고 믿기에, 중국 여성들이 온라인이라는 장(場)에서(그리고, 이를 넘어) 돌봄의 개념과 기능을 확장하면서, 서로의 취약함을 서로의 피어남으로 전환해왔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자는 페미니즘, 돌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만남이 의외의 조합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이 실제로 촘촘히 맞물리면서, 중국 사회에 새로운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의 등장, 상호돌봄의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물결을 일으켜왔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 사례를 통해 중국 청년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위치성을 포용하는 돌봄의 정치를 수행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들의 연결과 연대, 그리고 돌봄과 페미니즘이 함께 또 같이 걸어가는 길을 재상상하기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중국 청년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변화하는 중국 사회 내 청년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과 해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키워드】 청년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운동,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중국 페미니즘, 중국 페미니스트 운동, 돌봄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sgson@snu.ac.kr)

1. 들어가며

이전의 인류학 내 돌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의 여성화, 젠더화된 돌봄 노동, 인종·계급의 불평등을 생산해온 정치·경제적 구조들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및 신자유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행되었다. 실제로 돌봄은 대체로 여성적 또는 비생산적이라고 여겨지는 돌보는 직업과 연관되어 오랫동안 평가절하되어왔기 때문에,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지위, 시장에서의 평가절하, 혹은 재생산으로서 여성의 일과 연관 지어져 왔다.¹⁾ 이에 따라, 돌봄의 책임이 종종 초국가적인 착취의 사슬에 간혀버린 채 글로벌 불평등과 결합하면서,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 유색인종, 가난한 글로벌 사우스 출신의 여성들에게 전가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²⁾ 또한, 사람을 만드는 일로써 사회적 재생산이 생물학적인 의미로 생명을 창조,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자 올바른 태도, 역량, 기술 등을 갖춘 사람들을 빚어내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만드는 일(making of people)과 수익 산출(making of profit)을 분리하고, 이윤 창출을 돌봄보다 더 우위에 두면서 젠더 역압의 원천으로 기능해왔다.³⁾ 즉, 돌봄은 더 넓은 의미의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때문에 좌절되기도 하고, 이와 협상하기도 하면서 실천됐으며, 이는 자기희생, 이타주의,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감정 및 태도 등으로 가치화되고 이론화됐다.

물론 우리는 돌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네 삶이 각자가 정의하는 돌봄의 다양하고 복잡한 실천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돌봄을 주기도, 받기도, 그리고 이에 의존하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은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서로를 피어나게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실천(everyday practices)에서부터, 무임승차로 여겨지는 사나이들의 돌봄, 대체로 여성적, 비생산적이라 여겨지고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성별화된 돌봄 노동, 친족, 혈연을 넘어 비인간, 동물, 환경, 땅, 물, 동물들까지로도 확장되는 난잡한 돌봄(promiscuous care),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attentive action), 따뜻하게 보살피는 아름다운 일임과 동시에, 실제로 연약함을 직면하는 지치는 일 등까지 다채롭고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돌봄의 정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을 돌봄 정치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돌봄 정치에 관한 논의는 가족, 커뮤니티, 국가 차원에서의 돌봄 노동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페미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노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착취됐으며, 남성 중심적인 사회·경제적 제도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국 사회 내 새로운 여성 주체와 페미니스트의 등장이라는 절실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이 중국 여성들이 서로를 돌봄으로써 연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돌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대의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 정치에 관한 논의와 차별점이 있다고 믿는다.

본 연구는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돌봄을 발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사이버 스페이스⁴⁾의 발달과 이 안에서 형성된 연결과 연대가 중국 청년 여성들을 완전하게 해방케 할 수는 없

1)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 선언 :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p.14, 52.

2) ibid. p.54.

3)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 『99% 페미니즘 선언』, 박지니 옮김, 움직씨출판사, 2020, p.77-78.

4) 주디 와이즈먼은 『테크노 페미니즘』(2009)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라도, 이들에게 돌봄과 맞물린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여성의 주체성과 행위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낡고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공간이자, 글로컬(glocal)한 정보교환 및 전지구적인 페미니즘 정치의 참여 및 연대의 가능성을 제공한다.⁵⁾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이 실제로 좁은 의미의 돌봄 실천을 넘어서, 넓은 의미의 돌봄 정치로서 기능한다고 믿기에, 중국 여성들이 온라인이라는 장(場)에서(그리고, 이를 넘어) 돌봄의 개념과 기능을 확장하면서, 서로의 취약함을 서로의 피어남으로 전환해왔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페미니즘, 돌봄,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만남이 의외의 조합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이 실제로 촘촘히 맞물리면서, 중국 사회에 새로운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의 등장, 상호돌봄의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물결을 일으켜왔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중국 미투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청년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위치성을 포용하는 돌봄의 정치를 수행해왔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연결과 연대, 그리고 돌봄과 페미니즘이 함께 또 같이 걸어가는 길을 재상상하기를 제안한다.

2. 의외의 조합: 페미니즘, 돌봄,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중국의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를 연구하는 필자에게 온라인이라는 장소는 수많은 난제를 안겨준 부정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온라인과 페미니즘 운동이 조우한 2010년대 초는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 교차성 논의, 더 높은 수준의 성 평등 달성을 위한 제4 물결 페미니즘의 시작과 맞닿은 시기였다. 제4 물결 페미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 여성들이 인터넷(특히, 소셜미디어)을 통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젠더 기반 차별, 성희롱·폭행, 타자화 등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더 빠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소리, 경험, 감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여성들이 전지구적으로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성평등 달성을 위해 함께 싸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이자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장(章)을 통해 온라인과 페미니즘 운동의 만남을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차적인 다양성과 다층적인 정체성을 포용하고,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피어나게 하는 돌봄 정치의 일환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물론, 돌봄과 온라인 스페이스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온라인의 발달과 이 안에서 형성된 상호돌봄의 네트워크가 중국 청년 여성들에게 돌봄과 페미니즘이 뒤섞인 연결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돌봄, 페미니즘,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만남은 디지털 격차 및 접근성, 온라인에서 오프라인(혹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등이 전이될 위험성, 남성 주도-지배의 기술이 여성의 행위성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고, 이들 사이의 돌봄과 연대를 가능케 하며, 주체적이고

5) 주디 와이즈먼, 『테크노 페미니즘: 여성, 과학 기술과 새롭게 만나다』, 박진희, 이현숙 옮김, 궁리, 2009, pp.16-21. 김은주, 「제 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한국여성철학회, 2019, pp.1-2.

6) 주디 와이즈먼, 『테크노 페미니즘: 여성, 과학 기술과 새롭게 만나다』, 박진희, 이현숙 옮김, 궁리, 2009, p.112.

창조적인 행위 및 정체성 선택의 기회를 제시해왔다고 믿는다.⁷⁾

먼저, 2012년 중국에서 청년여권행동파(青年女權行動派)로 불리는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가 등장했던 때를 살펴보자. 이들은 2012년 광저우에서 “남자 화장실을 점령하라”⁸⁾ 운동을 시작으로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고,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피 묻은 신부들” 운동, 상하이에서 시작된 “나는 소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너는 나를 희롱할 수 없다”⁹⁾ 운동, 대학 입시에서 여학생들이 차별받는 불합리한 사실을 비판하기 위한 “대머리 자매” 운동 등 많은 스트리트 퍼포먼스 형태의 운동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고,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온라인 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¹⁰⁾ 더 나아가, 201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에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성희롱 방지 스티커를 배포하려고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안에게 체포되어 37일 동안 구금되었던 페미니스트 파이브(The Feminist Five)¹¹⁾의 석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FreeTheFive’ 해시태그 운동과 이들의 구금에 반대하는 청원서 작성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중국 페미니즘의 전환점이 되었다.¹²⁾ 즉, 2012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의 결집과 연대를 더욱더 강화하고 영향력 있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 지지, 위로, 그리고 다중의 연결과 만남을 매개할 수 있게 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¹³⁾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양가적인 장소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2012년 상하이에서 시작된 “나는 소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너는 나를 희롱할 수 없다” 운동을 촘촘히 살펴본다면, 온라인에서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탓하기(victim blaming) 현상이 중국 여성들의 삶에서 복잡하게 재현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 6월 24일 상하이 지하철 공식 위챗 계정에는 시스루 치마를 입은 한 중국 여성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당신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성희롱을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해요. 제발 조심하세요, 아가씨!”라는 메시지와 함께 업로드되었다(青年女权行动派, 2019).¹⁴⁾ 이는 위챗(WeChat)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이들은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좀 더 보수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여성들에게 어떤 옷을 입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했다.¹⁵⁾ 그러나, 이 논쟁에서 남성들이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나 논쟁은 없었다. 논란이 점차 거세지자 성차별 게시물을 올린 상하이 지하철 공식 위챗 계정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이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

7) *ibid.*, pp.95-99, 103-108.

8) 여성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고발하기 위한 운동.

9) 대중교통 이용 시 여성들이 겪는 성추행,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운동.

10) 박자영, 「거리의 페미니스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페미니즘」,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p.99. 손수경, 「잊혀진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2012년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25(2), 현대중국학회, 2023, pp.191-192. Hou, Holly Lixian, 「On Fire in Weibo Feminist Online Activism in Chin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50(17), 2015, p.79.

11) 5명의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리마이지, 우룽룽, 정추란, 웨이팅팅, 왕만. 중국에서는 여권오자매(女权五姐妹)라 불림.

12) Wang, Qi, 「Young Feminist Activists in Present-Day China: A New Feminist Generation?」, 『China Perspectives』, 114(3), 2018, p.59.

13) Chamberlain, Prudence, 「Why 4th Wave Now?」 in 『The Feminist Fourth Wave: Affective Temporality』, Cham: Palgrave Macmillan, 2017, p.117.

14) “我可以骚，你不能扰”, 『YouTube』, 2019.11.21., <https://youtu.be/hnjHHWcJ3r8> [2025.03.01.]

15) “Shanghai Metro ‘Dress Code’ Warning Sparks Debate”, 『BBC News』, 2012.06.26.,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18589737> [2025.04.15.]

라고 주장했으며, 그는 최근 지하철에서 성희롱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¹⁶⁾

성희롱은 피해 여성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절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거니와, 이러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지탄받아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중국 여성들은 여전히 “무슨 옷을 입었길래, 성희롱을 당하냐,” “무슨 행동을 했길래, 저 사람을 자극하여 성희롱하게 만드냐” 등의 피해자 탓하기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결국 이는 온라인 여성 혐오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가져왔다. 잠재적 가해자로 몰려진 남성들은 여성들이 젠더를 무기로 사용하여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가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선동과 함께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문화적 패권을 쥐게 되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¹⁷⁾ 즉, 온라인 여성 혐오는 이제 단순히 남성이라는 존재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혐오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여성 차별주의와 페미니즘 백래시와 뒤섞인 정치적인 행위로 중국 사회에 재현되고 만 것이다.¹⁸⁾

필자는 온라인이라는 장(場)이 모호하고 양면적이며, 때때로 차별과 혐오와 뒤섞일지라도, 온라인 연결 행동이라는 새로운 소통-연대 방식을 통해, 페미니즘 운동을 글로벌(global)한 운동으로 확장케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끄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구성해내면서, 사회적 변화들을 끌어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믿는다.¹⁹⁾ 이는 온라인은 정보가 글이 단순히 업로드되는 것을 넘어서, 이 정보와 글이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것이 다수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이들이 사회·문화적 문화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²⁰⁾ 더 나아가, 온라인은 여성들이 자매애와 같은 공동체 의식 및 연대를 느끼며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이는 나와 같은 타인에 대한 돌봄이자,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와 조언과 감정적 지지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조직하거나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서로가 돌봄을 주고받는 공간으로써 작동한다.²¹⁾ 특히, 2010년대 이후 중국 청년 여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으로서 살면서 마주했던 불쾌하고 부당한 경험(직장 내 성희롱,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 가사·돌봄·육아에 관한 압박, 낮은 정치 참여, 노동·입직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 등)들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평범한 중국 청년 여성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취약함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상호돌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산해왔다. 즉, 제4 물결 페미니즘과 맞물리는 디지털 페미니즘은 단수의 페미니즘이 아닌, 복수의 페미니즘들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중국 청년 여성들이 일상 속 돌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정치적 행동과 페미니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²²⁾

16) ibid.

17) Koulouris, Theodore, 「Online misogyny and the alternative right: debating the undebatable」, 『Feminist Media Studies』, 18(4), 2018, pp.752-753.

18) ibid., p.752,759.

19) 김은주, 「제 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한국여성철학회, 2019, pp.1-2.

20) Chamberlain, Prudence, 「Affective Temporality: towards a Fourth Wave」, 『Gender and Education』, 28(3), 2016, pp.458-460.

21)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 선언 :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p.74. Toffoletti, K., and Thorpe, H, 「Bodies, gender, and digital affect in fitspiration media」, 『Feminist Media Studies』, 21(5), 2021, pp.824-826.

22) McLean, Jessica, 『Changing Digital Geographies: Technologies, Environments and People』, Palgrave Macmi

물론, 필자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너무 쉬운 접근성과 너무 빠른 소통과 정보교환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배제와 무관심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²³⁾ 이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와 활동(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대도시·만 집중되어 있는 중국(베이징, 상하이)의 현 상황이 지역(지방)의 페미니스트들을 고립시키고, 전 지역을 아우르는 더 넓고 촘촘한 연대를 불가능케 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더 나아가, 2012년 마초적인 남성다움을 찬양하고 사회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궁극적 철권통치자로 거듭나기 위해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시진핑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중국 당국이 모든 형태의 사회 운동 및 집단행동의 과도한 확산을 경계함과 더불어, 온라인·미디어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해왔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자는 온라인 공간이 차별, 혐오, 무관심이 뒤섞인 양가적인 장(場)일지라도, 중국 청년 여성들이 긴장이 발생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 머무르면서 함께 흔들리기도 하고, 이들을 확 잡아당기는 다중적 관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많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다중 쟁점 정치에 헌신해왔다고 생각한다.²⁴⁾ 필자는 페미니즘, 돌봄,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조우가 의외의 조합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은 실제로 촘촘히 맞물리면서, 중국 사회에 새로운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의 등장, 상호돌봄의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물결을 일으켜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돌보는 중국 여성들: 2018년 이후 중국 미투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필자는 2장을 통해 페미니즘, 돌봄,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얼핏 보면 잘 맞닿지 않아 보일지라도, 중국 청년 여성들이 맞닥뜨린 삶 속 다양한 목소리들과 실천들이 느슨하지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3장은 201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국 미투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청년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다층적인 위치성을 포용하며,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피어나게 하는 돌봄의 정치를 수행해왔는지를 살펴본다. 2018년 미투 운동은 전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1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뤼첸첸(Luo Qianqian)이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Weibo)에 올린 글로부터 시작되었다. 뤼는 12년 전 베이징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당시 지도교수인 천샤오우(Chen Xiaowu)에 의해 성폭행을 당할뻔했던 경험을 털어놓았고,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중국 내 미투 운동의 시작에 불을 붙였다.²⁵⁾ 중국 여성들은 전례 없는 화력으로 미투 운동을 이끌기 시작했으며, 중국 소셜미디어는 #MeToo, #WithYou, #WoYeShi(我也是: ‘나도’라는 뜻) 등의 해시태그(들)로 가득 차면서, 중국 전 지역 대학의 성추행·성폭력 예방 운동을 위한 연대와 결집의 성공적인 장(場)으로 거듭났다.²⁶⁾

llan, 2020, pp.177-178.

23) Kanai, Akane, 「Between the perfect and the problematic: everyday femininities, popular feminism, and the negotiation of intersectionality」, 『Cultural Studies』, 34(1), 2020, p.36.

24) 일라이 클레어, 『망명과 자금심 :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전혜은, 제이 옮김, 현실문화, 2023, p.18, 140, 294.

25) Lin, Zhongxuan and Yang, Liu, 「Individual and collective empowerment: Women's voices in the #MeToo movement in Chin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5(1), 2019, p.119.

26) Yin, Siyuan, and Yu, Sun, 「Intersectional Digital Feminism: Assessing The Participation Politics and Impact of The MeToo Movement in China」, 『Feminist Media Studies』, 21, 2020, p.11.

그러나, 2012년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제창하는 시진핑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중국 당국은 모든 형태의 사회 운동 및 집단행동의 과도한 확산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중국 사회 내 사회적 소수자들로 여겨지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성 소수자 커뮤니티는 이들의 이념, 믿음, 성 정체성 등을 바탕으로 한 차별에 직면해 왔으며, 심지어 페미니즘은 종종 정치적으로 잘못된 이념으로 간주되었고,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페미니즘 운동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념적, 사회적, 정치적 억압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투 운동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관련된 포스트, 댓글, 해시태그가 중국 당국의 온라인 검열에 의해 삭제되거나, 심지어 미투와 관련된 단어의 검색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했다. 이에 따라, 중국 여성들은 당국의 온라인 검열을 피해 미투 운동을 지속·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냈는데, 바로 쌀 미(米)에 토끼 토(兔)를 붙인 새로운 해시태그를 이용한 위장(偽裝) 전략이다. #米兔는 쌀과 토끼의 합성어인데, 미(米)의 중국어 발음은 ‘mi,’ 토(兔)의 중국어 발음은 ‘tu’이기 때문에, 이 두 발음을 붙이면 ‘mitu,’ 즉 ‘미투(Me too)’와 같은 발음이 된다. 이는 중국 여성들이 당국의 사회·정치적 압박과 강화된 미디어 검열 및 통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투 운동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⁷⁾

뤄첸첸이 중국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다면, 저우샤오취안(Zhou Xiaoxuan)을 포함한 많은 용감한 중국 여성들은 이 불길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했다. 2018년 7월 셴쯔(Xianzi)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저우는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간판 진행자인 주쥔(Zhu Jun)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그를 고소했고, 5년간이나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 나갔다. 2021년 1심 판결은 주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무죄라는 판단이었다. 저우는 이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필자는 그녀와 주의 싸움이 힘겨웠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선구자적 여정이 외롭지는 않았다고 믿는다. 용기 있게 침묵을 깬 저우는 다른 성추행·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용기와 영감을 주었고, 이들 또한 저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했기 때문이다. 중국 미투 운동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저우의 여정을 기폭제로 중국 사회에 개인 수준에서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새로운 청년 페미니스트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집단 수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중국 여성들의 느슨하지만 단단한 연결과 연대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대중, 학계, 미디어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중국 사회 내 새로운 여성 주체와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물결을 재조명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결을 단순히 정치적 연대로만 보는 것은 아주 제한된 시각일지도 모른다. 중국 청년 여성들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장(場)을 통해 여성으로서 살면서 마주했던 부당한 경험들을 공유했다. 이는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함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돌봄 제공자인 동시에 돌봄 수용자로서 얹히고 의존하면서, 포개진 의존의 집합 안에 놓여 있는 상호돌봄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 즉, 중국 미투 운동의 시작과 확산은 중국 사회의 페미니즘 담론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편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돌봄과 연대의 감각을 일깨워준 것이다. 이는 중국 여성들의 연결을 바탕으로 한 연대하는

27) 손수경,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나도’에서 ‘너와 함께’로: 2018년 미투 운동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중국 여성들의 이야기」, 『현대중국연구』, 26(1), 현대중국학회, 2024, pp.206-208.

28) 예바 페더 키테이, 『의존을 배우다 : 어느 철학자가 인지장애를 가진 딸을 보살피며 배운 것』, 김준혁 옮김, 반비, 2023, p.341.

페미니즘이자, 공동체에서 우정을 느끼지도, 보호받지도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뛰어넘어, 서로를 위해 서로의 피어남에 이바지하는 돌봄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²⁹⁾

실제로 중국 미투 운동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여성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범죄와 젠더 불평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여성성, 성적 주체성, 섹슈얼리티 등에 관한 훨씬 더 광범위한 공개 토론과 참여를 유발하고, 이들의 삶 속 재현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니즈(needs) 및 인정(recognition)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포스트 미투 운동의 바람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³⁰⁾ 또한, 이들은 중국 정부 주도의 여권신장과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실질적 효과가 없는 법과 정책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재발 방지,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정의를 위한 법률개혁 등을 주장하며 중국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들의 존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2018년 중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들은 反성폭력 연대를 넘어 여권(女權)과 성평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권장,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발전에 대한 요구의 증가 등 더욱더 확장된 페미니즘 담론과 여론을 형성해오고 있다. 필자는 이를 민주적 돌봄 혁명의 일환이라 믿는다. 이는 중국 미투 운동이 기존의 정치적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됐던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협상력이 약한 이들이 연대를 구축하여, 중국 사회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2018년 중국 미투 운동의 시작과 확산을 통해 여성들은 “함께 돌봄(caring with)”의 연대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중국 미투 운동은 결국 이들이 모두 취약한 존재이자 상호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돌봄이 개인과 관련된 것이라 사적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돌봄을 공적 가치이자 공적 실천의 장(場)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³²⁾

물론, 중국 사회 내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 그리고 이들의 결집과 연대를 더욱더 강하고 영향력 있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 지지, 그리고 다층의 연결과 만남을 매개할 수 있게 한 소셜미디어의 역할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의 투쟁은 실제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또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더 나아가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인 연결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의 캠페인과 활동은 중국 사회와 외부 세계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중국 여성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 등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정치적 운동 및 캠페인을 계획·수행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더 쉽고 빠르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미투 캠페인에 동원하는 구심점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대규모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Global4Jingyao 운동과 #FreePengShuai 운동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국 미투 운동을 대표하는 두 가지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Global4Jingyao 운동은 2018년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JD.com(정동닷컴) 창업자 류창동(Liu Qiangdong)이 만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유학생 류징야오(Liu Jingyao)를 지지하기 위해

29) *ibid.*, p.83,356.

30) Cooper, Davina, 「Caring for Sex and the Power of Attentive Action: Governance, Drama, and Conflict in Building a Queer Feminist Bathhouse」, 『Signs』, 35(1), 2009, pp.111-112.

31) 조안 트론토, 『돌봄민주주의』, 김희강, 나상원 옮김, 서울: 박영사, 2021, p.16.

32) *ibid.*, p.71,98,269.

시작된 글로컬(glocal)한 미투 운동이다. 대학생, 청년 페미니스트 활동가 등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지지자들은 웨이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해시태그(#Global4Jingyao)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을 공론화하려고 노력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그녀의 권리와 정의를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FreePengShuai 운동은 중국 유명 테니스 선수 펑샤이(Peng Shuai)가 2021년 전(前) 공산당 최고위급 정치인 장가오리(Zhang Gaoli)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시작된 국제적인 미투 캠페인이다. 펑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장에 대한 미투 폭로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약 20분 만에 곧바로 삭제됐다. 이후 그녀는 갑자기 대중으로부터 자취를 감췄고, 그녀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감금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펑의 안녕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펑의 지지자들은 즉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미투 캠페인을 개최해, 중국 당국에 펑의 미투 폭로와 관련해 투명한 조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라 주장했다. 또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유학생들과 청년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모여 펑을 위한 오프라인 긴급 집회(Rally for Peng Shuai: #WhereisPengShuai)를 개최하였고, 이는 중국 당국에 국제적인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펑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응원 또한 얻을 수 있었다.

특히, #Global4Jingyao 운동과 #FreePengShuai 운동은 다시 한번 조안 트론토(2021)가 『돌봄 민주주의』에서 세분화하여 설명했던 돌봄의 단계와 촘촘히 맞물린다. 트론토에 따르면, 돌봄은 누군가가 취약한 존재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감지하는 ‘관심돌봄(caring about)’으로 시작된다. 이는 돌봄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안심돌봄(caring for)’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돌봄 제공(care-giving)’과 이에 대응하는 ‘돌봄수혜(care receiving)’로 연결되면서, 트론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민주적인 돌봄이자 연대를 뜻하는 ‘함께 돌봄(care with)’이라 강조한다.³³⁾ 즉, #Global4Jingyao 운동과 #FreePengShuai 운동은 류징야오와 펑샤이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취약함과 고통을 이해하고 지원·지지한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돌봄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인 류와 펑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겪어야만 했던 트라우마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면서, 이들이 다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회적 연대의 일환이자, 이러한 돌봄의 실천이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미투 운동은 돌봄을 공적 가치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가 시민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민주적 다수가 돌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돌봄의 과정에서 중국 청년 여성들이 돌봄 책임을 분담하고 함께 돌봄을 가능케 하는 민주적인 책임 의식과 연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2018년 이후 중국 미투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국 미투 전시회(The Voiceless Rise Up: #MeToo in China)를 개최해왔다. 전시회는 2019년 처음으로 중국 내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에 의해 베이징, 청두, 광저우에서 개최되었으나,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었다-감사하게도, 상하이에서의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전시회는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공화국 등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으며, 중국 미투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미투 운동이 수많은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중국 미투 전시

33) ibid.

회는 2018년 이후 중국 미투 운동의 물결 안에서 성범죄 생존자들과 중국 페미니스트 운동의 내러티브를 제시함과 더불어, 생존자들을 지지하고, 이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향해 끝없는 싸움을 해나갈 것을 시사한다. 전시회의 주요 목표는 중국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을 재조명하는 것이 다양한 민족적, 성(性)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체성들의 연결과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며, 다시 한번 돌봄과 페미니즘을 함께 또 같이 재사유하기를 제안한다. 즉, 전시회는 결국 여성들이 자매애와 같은 공동체 의식 및 연대를 느끼며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돌봄 실천의 공간이자 중요한 구심점인 것이다.

4. 나가며

2010년대 이후 중국 여성들은 빅브라더에 저항하며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중국을 뜨겁게 달구며 중국 페미니즘의 새로운 장(場)을 열었던 미투 운동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다시 온라인으로 페미니즘 운동의 활동 반경을 넓힘과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하지만 단단한 연대를 형성해왔다. 본 연구는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돌봄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이다. 필자는 먼저 중국 여성들이 좁은 의미의 돌봄 실천을 넘어, 넓은 의미의 돌봄 정치로서, 돌봄의 개념과 기능을 확장하고, 서로의 취약함을 서로의 피어남으로 전환해왔음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페미니즘, 돌봄,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조우가 의외의 조합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이 실제로 촘촘히 맞물리면서, 중국 사회에 새로운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의 등장, 상호돌봄의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물결을 일으켜왔음을 논의했다. 더 나아가,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2018년 이후 중국 미투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청년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위치성을 포용하는 돌봄의 정치를 수행해왔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연결과 연대, 그리고 돌봄과 페미니즘을 함께 재사유하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필자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남성들에 의한(혹은, 남성들의 필요에 의한) 기술 지배-통제로 인해 종종 가려지기도 하고, 중국의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이 교차적인 다양성과 정체성을 포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중국 여성들의 비가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2018년 이후 중국 미투 운동이다. 2018년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시작과 확산의 물결이 중국 사회에서도 시작되었을 때, 중국 당국은 언론 및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미투 운동과 관련된 대다수의 게시물 및 기사를 검열하여 삭제하거나, 검색 및 접근이 불가하도록 만들었다. 2021년 11월 평화이가 장가오리에 대한 미투를 폭로했을 때, ‘테니스’라는 단어조차 검색이 불가할 정도로 언론·온라인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중국 페미니즘 운동을 이끄는 청년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 한족이고, 주로 대도시 출신이거나, 학업·일 등의 이유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데, 이들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교육이나 커리어를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은 중산층 이상의 계급 출신이다. 결국, 중국 페미니즘 운동은 때때로 도시 중산층 이상 계급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농촌, 가난한 노동자 계급, 소수민족 여성들은 비가시화되면서, 결국 중국 사회 내 다양한 민족, 계급, 장애, 섹슈얼리티, 도시성 등의 다층적인 정체성에 주의를 기울이

거나, 이를 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국 청년 여성들은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정체성을 포용하고, 서로의 취약함을 인지하면서 서로를 피어나게 하는 돌봄의 정치를 수행해왔다. 이는 돌봄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상호의존의 네트워크이자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겠다. 이들의 연결과 연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호돌봄은 서로의 이상함과 취약함을 직면할지라도, 그 안에서 꽃피는 의존, 배려, 피어남과 얹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이며, 필자는 이들의 돌봄 정치가 중국 사회에 더욱더 거대한 변혁의 물결과 새로운 페미니즘 등장 of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34) 일라이 클레이, 『망명과 자긍심 :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전혜은, 제이 옮김, 현실문화, 2023, p.25.

【차세대학자분과 Ⅲ】 발표

从文学地景到文学观光的扬州经验

司钰阳* · 朴炳仙**

【목 차】

1. 绪论
2. 扬州文学观光的兴盛与潜力
3. 扬州文学观光的初步规划
4. 扬州经验中的“再书写”实践
5. 结论

【 초 록 】

扬州自古便为文人雅士所咏叹，其城市形象深受古典诗词文化的影响。近年来，许多源自文学的“地景”逐渐转化为现实中的“文学观光”资源。例如李白的“烟花三月下扬州”构建了春日名城的意象，杜牧的“二十四桥明月夜”使二十四桥成为游客必访的文化地标。这些作品不仅塑造了扬州的文化记忆，也影响了大众的旅游期待与空间想象。

本文从文学地景与城市空间关系出发，探讨扬州如何借助诗词文化遗产推动文学观光的发展，分析文学在城市意象、地方认同与旅游经济之间的作用机制。研究显示，扬州作为典型案例，展示了文学在连接历史传统与当代表达、融合文化认同与产业开发中的独特价值。

【키워드】 文学地景、文学观光、古典诗词、诗歌文化遗产、扬州旅游产业

* 제1저자.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대학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과정 (siyuyangksnu@gmail.com)

** 교신저자.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parkbs@kunsan.ac.kr)

1. 绪论

在世界范围内,“文学观光”已逐渐成为深度文化旅游的重要形式。巴黎的雨果故居纪念馆、伦敦的“莎士比亚之路”、布宜诺斯艾利斯以博尔赫斯命名的街道和博物馆,无不体现出文学在城市形象建构与文化观光中的深远影响。这些文学地景不仅保存着城市的文化记忆,更通过观光路径将非物质文化遗产转化为具象可感的空间体验。¹⁾近年来,随着“文化+旅游”融合趋势的持续发展,越来越多城市开始重视文学在旅游资源开发中的作用,探索将文学书写与城市空间、旅游产业发展相结合的方法。中国古城扬州,作为“诗词中的城市”与“文化中的地标”,自古便承载着丰富的文学意象。从李白的“烟花三月下扬州”,到杜牧的“二十四桥明月夜”,从姜夔的《扬州慢》,到朱自清、汪曾祺笔下的风物记忆,文学不仅塑造了扬州的地方感,也在长期的文化传播中影响着人们对这座城市的情感认同与想象方式。这些作品所描绘的“文学地景”,已逐步成为可供开发的观光资源。²⁾本文以扬州为个案,尝试探讨“文学地景”如何在当代城市旅游中实现“再激活”,并分析文学、城市形象与旅游产业之间的互动联系。试图回答:在传统文化资源寻求现代转化的当下,文学如何成为连接历史与当代旅游消费的桥梁?扬州的文化观光经验能否为中国其他城市提供可借鉴的文学观光范式?

2. 扬州文学观光的兴盛与潜力

虽然“文学观光”这一概念近年来才在国内一些城市流行开来,但扬州作为一座文化积淀极深的历史名城,早已有着天然适合“文学+地景”融合的条件。从古至今,关于扬州的诗词歌赋数不胜数,这些文学作品不只是书本里的内容,更是散落在扬州城各个角落的“文化坐标”。

早在清代,李斗所撰《扬州画舫录》便详细记录了扬州园林、胜景、风俗、文人雅集等地方生活场景,为后人留下了极为宝贵的文学性地景资料。³⁾其中对二十四桥、平山堂、个园、何园等著名景点的描写,不仅增加了地理名气度,这些文字渲染更赋予了这些空间诗意与文化厚度。再加上近几年扬州被国际组织评定为“世界运河之都”“世界美食之都”“东亚文化之都”等国际荣誉,这些高含金量的荣誉品牌打造使越来越多的文化活动开始将城市空间与文学记忆相结合。例如在东关街、个园、瘦西湖等地,部分导览项目已尝试引入诗词解说、作家小传、历史故事等内容,让游客感受到“游中所学,学中所想,想中所忆”的深刻的文化体验。尽管扬州尚未系统化地规划出专门的“文学观光路线”,但与其他城市相比,扬州在将文学资源转化为文化活动与城市体验方面,已呈现出较为成熟的实践路径。在文教领域,一些中学与高校的语文教学活动中也逐渐引入“走读扬州”的写作方式。例如通过参观古迹、阅读本地文学、现场观察与创作结合等形式,让学生在城市空间中感知文学地景。这种教育导向的“文学行走”与香港早期的“文学行脚”形式不谋而合。香港的“文学行脚”多由高校教师、作家与学生共同参与,以特定作家作品或历史文化片段为线索,开展实地踏查与写作训练,强调文学与地方记忆之间的深度连接。扬州目前的“走读”实践尚以教学为主,更多体现在课堂延展与校园活动之中,但也可以充分的展现出“文学散步”从校园走向城市的潜力。⁴⁾以扬州大学附属中学的“春日走读:二十四桥文学采风写作活动”为例,师生

1) 段义孚,《空间与地方:经验的视角》,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7,p.110.

2) 卢桢,《旅行中的文学课,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20.

3) 李斗,《扬州画舫录》,中华书局,2007.

4) 刘伟成,《树影婆娑的命途》,《思源》,第1期,2013,pp.113-17.

共同前往瘦西湖、二十四桥等诗词名胜，结合杜牧《寄扬州韩绰判官》等古诗进行现场讲解与写作实践，鼓励学生在实地观察中激发文学想象。

如果说校园中的“走读”活动强调教育功能，那么来自文化旅游部门的实践则展示了“文学地景”转化为公众体验资源的另一种路径。举一个案例，例如在2024年夏季瘦西湖推出的“以诗词为钥匙解锁夜游体验”活动，为扬州的文学观光提供了极具代表性的现实范例。⁵⁾活动期间，游客只需在入口打卡点背诵『春江花月夜』及三首与扬州相关的古诗词，便可免费进入瘦西湖参与“二分明月忆扬州”大型沉浸式夜游。这一设计巧妙地将文学知识转化为参与门槛，让传统诗词以互动形式进入大众视野，实现了知识变现与文化传播的双重功能。更富创意的是，游客在夜游过程中，还可“偶遇”扮演李白、杜牧、白居易等大唐诗人的演员，与其对月吟诗、打卡互动。现场设置的“集章换银票”环节则将文学进一步游戏化，赋予夜游更多趣味性与文化厚度。此类活动不仅让文学“可游”“可玩”，更以亲子化、沉浸式的方式激发了市民与游客对扬州文学传统的兴趣与参与热情，展示出文学观光的本土化创新路径。⁶⁾见图一、二：

<图一> 免瘦西湖门票规则海报



<图二> 背诵古诗免费游瘦西湖活动现场



由上述文化体验活动可见，扬州在推动文化与旅游融合方面已取得积极成效，并在“文学观光”相关实践上积累了初步经验。⁷⁾无论是校园中的“走读”活动，还是公众参与的夜游诗词项目，都显示出文学与空间深度融合的现实可能，也印证了扬州具备将文学资源转化为文化体验路径的实践能力与创新潜力。（见表1）

<表1> 扬州文化观光特色活动一览表

分类	活动名称	时间	地点	内容	特色
历史遗迹体验	跟着唐诗游扬州	常年（春秋 季主题）	瘦西湖、大 明寺等	诗词主题线路，古装导游 讲解李白、杜牧名篇	沉浸式诗词文化场 景，结合园林实景
夜游文化	瘦西湖“二分 明月忆扬州” 沉浸式夜游	夏季及中秋 假期	瘦西湖	光影秀、泛舟诗词互动， 背诵免费夜游瘦西湖	中国首创的唐诗主题 夜游项目，“李白、杜 牧等诗人角色”巡游
运河文化	古运河非遗水 上巴士	4-10月周末	古运河沿线	乘船游览+成语图画猜诗+ 评话表演+茶点品尝	诗词串联运河遗产 点，船上体验非遗

5) 扬州市文化广电和旅游局,“扬州以诗词为钥匙解锁瘦西湖免费夜游体验”, 2024年7月29日发布。

6) Rossetti & Quinn. “Performing at Literary Festivals.” In: Literary Tourism, CABI, 2019: 93-107.

7)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Report, CI.T/CEI/CID/2008/RP/66.

节庆互动	宋夹城“宋代市井生活体验”	清明节前后	宋夹城遗址公园	投壶、蹴鞠、诗词大会，汉服巡游	还原《清明上河图》场景，对诗歌赢奖品等活动
园林文化	何园中秋赏月雅集	中秋夜	何园（寄啸山庄）	古琴演奏、品诗赏月+月饼品尝	园林建筑与月亮文化结合，夜间诗歌互动体验
博物馆创新	中国大运河博物馆“运河迷踪”	2021年起	中国大运河博物馆	实景诗词游戏，模拟游船穿越运河，根据地名猜诗	4D实景游览空间

出处：扬州市文化广电和旅游局

值得注意的是，扬州在行政架构上也体现出对“文化赋能旅游”的高度重视。原先的旅游管理部门已调整为“扬州市文化广电和旅游局”，这一名称的改变不仅是职能合并，更反映出城市治理理念的转变：将文化作为发展的底蕴，将广电作为传播的手段，将旅游作为带动经济的动力。这样的机构设置，也让像“文学散步观光”这样的融合型项目有了落地的可能。因为这种改变不只是一种文化想象，而是变成了可以被推进的具体思路。

3. 扬州文学的初步规划

若以文学作为打开城市记忆的钥匙，扬州无疑是中国最早被文学“命名”的城市之一。“烟花三月下扬州”、“二十四桥明月夜”、“腰缠十万贯，骑鹤下扬州”等诗句，不仅构建了人们心中关于扬州的文化意象，也深刻影响了城市空间的认知与叙述方式。随着文化与城市相遇的方式日益多元，扬州开始尝试以“文学”为媒介，重构人们观看城市风景的方式，“扬州文学径”的构想逐渐浮出了水面。在这一趋势中，香港“南区文学径”提供了一个具有启发性的参考路径。该项目以“香港文学散步”为线索，串联蔡元培、张爱玲、萧红、胡适等作家与本地空间的关联，通过纪念装置、互动导览、节事活动等手段，使城市地景具备了文学温度与叙事层次。这种将作家记忆、文学文本与城市空间相结合的实践，正是扬州“文学径”构想可以借鉴的发展方向。它启示我们：文学不仅是历史的见证者，也可以成为当代城市空间再生的推动者。⁸⁾

有了香港文学径的参考，扬州的文学径设想，则更可从其自身深厚的文脉中出发，追溯至汪曾祺、朱自清、李斗等人对地方生活与情感的生动书写。汪曾祺在『受戒』⁹⁾中描绘了扬州郊野庙会的喧闹与人情，在“扬州小吃”中详述豆腐干、糍粑与市井风味；朱自清则以『扬州的夏日』¹⁰⁾将蝉鸣、荷香、夜船凝固为一段“只可意会”的城市体验；而清代李斗的『扬州画舫录』¹¹⁾更以“笔走龙蛇”之势，铺陈了平山堂、个园、二十四桥等地的胜景与人文活动，其对地景的细致描写，使这部笔记天然成为一部“清代文学地图”。这些文本，虽各有风格，却共同为扬州构筑出一幅文学、城市、记忆的三重图景。若将这些文本中的空间与现实中的地理坐标重合，便不难发现一条颇具潜力的“文学径”雏形路线：自东关街入

8) 凌逾，「城乡地景与文学风景：文学空间考现学」，《香港文学》，第5期，2018，p.29.

9) 汪曾祺：『扬州小吃』，载『花城』1983年第5期；『受戒』，载『十月』1980年第3期.

10) 朱自清：『扬州的夏日』，原载『语丝』第136期，1925年.

11) 李斗，『扬州画舫录』，中华书局，2007.

口进入,可抵达汪曾祺旧居及“人间草木”¹²⁾纪念园区,一路穿行至个园,在其竹石错落之中感受朱自清笔下夏夜的清凉,继续往瘦西湖,则可在二十四桥旁设立杜牧名句“夜月诗墙”浮雕,并设感应朗读装置。而平山堂、何园等地亦可嵌入李斗、袁枚等人描写扬州游宴生活的原文片段,或投影式演绎场景,再现“广陵盛事”。

在已有的一些实践中,例如香港常通过纪念碑、雕塑等可见装置,将文学文本转化为空间媒介,使城市记忆得以具象呈现。相比之下,扬州则可融合其擅长的园林意境,发展出更为“隐入风景”的互动式文学空间。比如,可以设立“汪曾祺食集亭”,陈列他散文中提到的扬州菜肴与民间风味,游客也可以录制关于“我记忆中的扬州味道”的语音,与空间共同构成口述地景。在朱自清荷塘意象所在的位置,可以结合动态灯光与环境音效,模拟“竹露滴清响”的夏夜氛围,让人沉浸其间。东关街沿线可设计一条“诗意长廊”,游客扫码即可听到声情并茂的扬州文学朗读,实现“耳读扬州”的体验。在香港“南区文学径”的设计中,不乏通过装置艺术传达作家精神内涵的尝试,例如为纪念萧红所设的“飞鸟三十一”,便以三十一只渐变色鸟群寓意其短暂而浓烈的生命轨迹,展现出其女性意识与漂泊命运的深层表达。对扬州而言,也可借鉴这一“文学装置”的转译方式,结合本地历史人物与文学意象进行创意改写。比如设立“郑板桥忧民石”,选取其诗句“咬定青山不放松”,结合其在扬州任知州期间的廉政故事,配合投影动画与艺术雕塑,营造观赏、阅读、联想的互动空间。从而利用装置语言激活了沉睡于文本中的文学情境。

2024年暑期,扬州市文旅局首次在城市层面持续推进文学观光的路径。“扬州的夏日”文旅推广活动推出十条主题游览线路,包括“律动扬州·乐享一夏”、“月色荷塘·诗画一夏”等多个与诗意城市记忆高度关联的子项目,涵盖瘦西湖、东关街、个园、平山堂等文学地标空间。其中部分路线明确标注诗词打卡点,配合讲解导览和文创市集,构成了初具雏形的“文学路径”体系。在非遗文化维度,扬州市还发布了“绽放光彩·活力扬州”四条非遗体验线路,将剪纸、漆器、评话等地方文艺形态与传统街巷空间相结合,增强游客“行走中的文化触感”。此外,交通部门还开通了“景区直达专线”,将高铁扬州东站与瘦西湖、大明寺、广陵王墓等重要文化地标串联起来,让游客能更方便地抵达这些承载文学记忆的空间。通过这一方式,城市中的文学地景不再是“隐匿”的存在,而是逐渐融入了日常的出行路线和公共流动的动线之中。上述实践在学界和文旅业界也获得了积极评价。在《新华日报》对“诗意扬州”的专题报道中,评论指出:“扬州将文学资源转化为城市文化的活化剂,使夜游、节事与文学导览融合发展,成为中国式现代化中文旅融合的一种有效路径。”¹³⁾

扬州要真正把“文学观光”落到实处,也还面临不少现实问题。比如,有些地景分布太散,彼此之间走不通;路线设计也还不够清晰,有的地方指引不明确,有的点讲解内容太少。更重要的是,要警惕形式主义,不能只是设几个牌子、贴几句诗,就算完成任务,结果变成了“打卡完就走”的空壳式体验。目前,东关街到个园到瘦西湖这条线,基本形成了一个可操作的样板路线。但要真正走下去,还得一点点把“点”连成“线”,再延展成“面”。比如,可以引入更懂文学的导览人员,把诗词背后的故事讲出来,再比如增设多语种的讲解服务,方便外地和海外游客理解这些地景背后的文化意涵。只有当文学被讲活了,游客才可能真正“走进来”,也才有可能留下来。

从扬州的经验再结合理论上来说,也正如乔纳森·卡勒(Jonathan D. Culler)曾在《旅游符号学》中提出的:“游客关注的并非自然地景本身,而是那些被“赋予意义”的空间,即带有“文化标记”的景观。”¹⁴⁾因此,“文学径”的核心在于如何以设计激活记忆、以创意转译文本,使得扬州的风景不再仅

12) 汪曾祺,《人间草木》,人民文学出版社,2009。

13) ““诗与远方”无限拉近:江苏旅游在高铁时代如何“乘风”飞驰”,《新华日报》,2025.04.11., <https://www.xhby.net/content/s67f8515be4b0e9163595392c.html>

是园林，而是“可被观看的诗意”。联合国教科文组织提出“创意旅游”概念时，曾特别强调游客的参与感，以及与地方文化的真实接触感。在这样的理念下，文学观光的意义也就不再是“边走边看”，而是让人真正走进一座城市，去读它、听它、感受它。如果扬州的文学路线，能让人在行走中读到城市的故事，在停下脚步时想到自己的经历，那它就不只是一个旅游项目，而是一次人与城市之间的重新对话。甚至，是扬州重新讲述自己的方式。

4. 扬州经验中的“再书写”实践

从文学地景的书写到文学观光路径的构建，写作不仅绘出了最初的文化地图，也持续参与着地方意义的更新与重塑。文学并非只是城市风景的记录者，更是赋名者与想象力的制造者。扬州这样一座因诗词而闻名的城市，其文学观光并不只是对经典的重复消费，而是在一次次“重新讲述”中试图激活地方经验，让过去与当下形成新的连接。人们常说，扬州的经济离不开旅游，甚至调侃“只能靠吃老本”。确实，当“烟花三月下扬州”成为某种固定想象，它既是一种文化荣光，也容易演变为被过度使用的符号标签。而文学，恰恰提供了一种不那么依赖“原样复刻”的可能。它通过再书写、再命名、再组织，赋予熟悉的空間以新的观看方式。正是在这种不断重构意义的过程中，扬州的“文学观光”才能不只是重走旧路，而是面向未来。如果文学观光只是把这些大家耳熟能详的经典意象贴在景点上，走一圈、打个卡，最后也不过是换了个方式重走旧路。

真正有生命力的文化，不是重复，而是重新讲述。讲出新的角度、新的感受，甚至是新的“扬州”。那不得不提汪曾祺先生了。他说：“地方风物皆可入文，关键是要写出它的气味、它的魂魄。”这句话不是虚的。他写《受戒》、《人间草木》，讲的是庙会、小吃、雨天，还有那些看似平常但让人念念不忘的生活细节。那些文字，不光是抒情，也是我们今天还能从中读出烟火味、读出扬州生活节奏的原因。现在很多文旅项目也开始从这些“生活的文学”里找灵感，在瘦西湖夜游里背诗打卡，在个园的茶舍里“偶遇”杜牧对诗。这些体验，不只是游客拍照打卡，更是一种让文学“活起来”的方式。它不再是过去的纪念碑，而是变成一种可以参与的写作现场，甚至是一种关于生活、审美的重新定位。

从扬州本地的地景书写来看，文学在城市空间中的作用远不止是记录与解释。它不是简单地去发现现有的景点，而是在命名、想象与讲述中，重新组织了城市的观看方式。像东关街、平山堂、瘦西湖、个园这些如今热闹非凡的地方，早在文人的诗赋中就已经被反复书写。它们之所以后来成为文化地标，很大程度上，是因为文学的语言先抵达了那里。清代李斗在《扬州画舫录》中，用日常化、细致入微的笔记方式，描写了平山堂的宴集、二十四桥的月夜、东关街的市井风貌，像是为城市勾勒出一幅可以“被记住”的文化地图。他写道：“广陵旧地，月夜最胜，桥上有人吹箫，清音遥度，想见风流。”这样写，不只是“写景”，更是在“造境”，赋予空间以情境与感官的联想。文学赋予空间意义，这种转化不是锦上添花，而是一次从“无名”到“可见”的转变。很多扬州的“文学地景”，并不是因为它们本来有多特别，而是因为有人写过它、记住它、赋予它某种可以流传的形象。而这其中最迷人的，往往不是那些早已被标记的“名胜”，而是一些被忽略的日常空间，例如，一条旧巷子、一家还没翻新的茶馆，一个小渡口。它们原本不在地图上，却因为被写入记忆、进入语言，而慢慢地重新浮现。这也正是“文学地景”真正动人的地方。

14) Culler J D. Framing the Sign: Criticism and Its Institutions[M]. Oxford: Basil Blackwell, 1988:153-167.

有些地方原本默默无闻，是文学让它们进入了公众视野；也有些地方看起来很醒目，却因为被过度使用和消费，反而失去了原本的文化感知。文昌阁就是这样一个典型的例子。它坐落在扬州市区的中轴线上，地理位置十分显眼，是城市中几乎每个游客都会经过、甚至拍照打卡的地方。建于明万历十三年（1585年），最初是为供奉文昌帝君而建，象征文运昌盛。清代以后，它成为扬州科举文化的象征，也是一种“文枢之地”的空间标识。但随着城市变迁，文昌阁的周边环境发生了很大变化。过去它位于汶河与文津桥交汇之处，是一个地势高点，而在1950年代的城市改造中，汶河被填、桥被掩埋，它也从曾经的桥阁高处变成了一个交通环岛的中心。今天，它已成为扬州最繁华的商业中枢之一，但真正的文化意义却逐渐淡化，甚至变成了一个“背景建筑”。很多人说“来扬州就是要在文昌阁前拍张照”，但拍完之后，却未必知道它是什么、为什么在这。也正是在这种“被看见却未被理解”的状态下，文学写作开始重新介入，通过重新命名、重新讲述、重新凝视，文昌阁可以不再只是一座拍照地标，而重新成为承载文化记忆。在一些青年写作者的笔下，文昌阁从不是什么宏大的历史象征，它更像是一种悄悄渗进生活的背景。尤其对在扬州念过书的大学生来说，它是日复一日的擦肩而过，是穿梭在大学生活的公交车窗外那一眼熟悉的剪影，是四年里无数次路过、却未必认真凝视的存在。直到毕业季，大家才忽然发现，不约而同地走向文昌阁，在它面前拍下最后一张合影。有同学写道：“大学四年没怎么仔细看过，但临走前总想留下一张照片，好像拍下它，就能多留住一点在扬州的时光。”还有人写：“文昌阁太像扬州了，安静、高傲、不喧哗，却又在心底留了很深的印。”这些文字没有铺陈故事，也不讲什么历史，它们只是轻轻地说出，有些地方，陪伴你整个青春，而你可能直到要离开时，才意识到它在。也许，文学的意义就在于这样的时刻，让我们回过头去，把一座城市、一个场所，重新写进记忆。

如果市民和游客也用写作的方式走进这座城市，无论是记录旅途的片段，还是讲述记忆中的某条街道那么我们对扬州的理解，也会不再只是对历史的回望，而是一次次真实发生的相遇。那种“地方感”，不再只是书上的印象或照片里的景观，而是可以被触摸、被参与的，是对城市空间的重新感受与重新讲述。那么“写作”便不仅是记录既有景点的一种方式，更是一种在日常中主动形成的文化活动。近年来，扬州大学文学院联合本地高校与文化机构，发起“青年写作扶持计划”，定期组织驻地写作、城市采风、写作工作坊等项目，鼓励年轻人走出教室，深入街区、菜市场、码头和旧桥，观察、书写那些不在地图上的“非景点”空间。这些“边走边写”的文本，多为非虚构描写与感官笔记，重构了一条不同于观光路线的“文学路径”。在这些作品中，空间不再是背景，而成为被感知、被讲述的对象，城市也因此获得了新的叙述入口。

另外，扬州也在公共文化空间中，为文学创造新的发生点。以“24小时城市书房”体系为例，瘦西湖书房、曲江书房、明月湖书房等，既是阅读空间，也承办文学讲座、市民朗读会与写作展演。它们多数选址于古街、运河或城市文化地点，使文学与地景之间形成自然联结。比如瘦西湖书房举办的“诗词灯影·夜读扬州”活动，邀请了市民与诗人共读古今诗作，还通过节事活动与文学奖项的设立，拓展“写作介入城市”的路径。例如，“虹桥修禊·国际诗会”就把诗人们请到了虹桥边上，他们朗诵、对话、互动，让诗歌真正回到了风景之中，也回到了人群之中。

还有在扬州举办的“朱自清散文奖”，这些年来一直在鼓励以城市为题、以地方为背景的写作。不少作品写的是家门口的桥、放学路上的街、节令里的河水。写得虽不宏大，却很动人。正是这一类“写给地方的散文”，让扬州在全国文学的地图上，有了越来越清晰的位置。对扬州来说，写作从来就不只是表达。它不是为了给风景贴标签，也不是为了走一遍标准路线，而是为了在写作中和城市建立一种你走过、看过、记下来的东西，才是属于你的地方。真正动人的文学观光，可能不是看了多少，而是你在看之后，有没有想写点什么。

5. 结论

扬州的文学观光实践表明，写作不只是表达的手段，更是一种激活地方经验、生成文化空间的方式。从非虚构写作到青年驻地计划，从城市书房到散文奖项，文学正以一种温润却有力的方式，介入城市的日常，并不断重新定义我们如何看见一座城市、记住一个地方。它不再只是为既有景点添加解释，而是在重新讲述中创造新的观看路径。在这一过程中，文学成为连接历史与当代、地方经验与文化消费之间的桥梁。它把传统意象从静态记忆中“唤醒”，又将日常空间写入感知的地图，使“观光”不止于游览，而成为一种可以被参与、被创造的文化过程。尽管扬州的探索尚处起步阶段，但其路径的生成性和实践的多样性，已为中国其他城市提供了一个值得参考的方向。

【차세대학자분과 III】 발표

中国老人社会网络的变化轨迹及影响因素分析

岳俊跃* · 舒梓乔** · 杜智佳***

【목 차】

1. 绪论
2. 研究方法
3. 研究结果
4. 讨论
5. 结论

【 초 록 】

本研究旨在分析中国老年人家庭与朋友社会网络随时间推移的变化轨迹,并考察日常生活活动能力限制和人口社会学因素对社会网络变化的影响,以期为改善老年人社会支持政策提供实证依据。研究使用了2014至2020年四波中国老年社会追踪调查(CLASS)的数据,选取了2,915名60岁及以上老年人为分析对象。使用Lubben社会网络量表评估了家庭和友社会网络状况,并采用潜在增长模型(LGM)分别对家庭和友社会网络的初始值及变化轨迹进行了无条件模型分析。之后,将日常生活活动能力限制和人口社会学变量(年龄、性别、居住地、婚姻状况、教育程度)作为影响因素纳入条件模型分析。研究发现,2014-2020年期间中国老年人的家庭和友社会网络均呈现非线性变化趋势,其中家庭社会网络表现为先快速下降后缓慢回升的曲线趋势,而友社会网络整体变化不明显,但存在显著的个体差异。日常生活活动能力限制对老人的友社会网络存在显著的负向影响,但对家庭社会网络的影响相对较弱。人口社会学因素方面,年龄、居住地、婚姻状况和教育水平对社会网络的初始值及变化速率存在不同程度的显著影响。本研究揭示了老年人家庭与友社会网络随年龄增长的非线性变化轨迹,强调了身体功能限制与人口社会学特征对社会网络变化的重要作用。研究建议,应加强针对高龄、失能老年人的社会网络支持,尤其关注其友网络的维持;同时需针对城乡差异及教育背景实施差异化的社区社会支持措施,以提升老年人的整体福祉与社会参与水平。

【키워드】 老年人, 家庭社会网络, 友社会网络, 日常生活活动能力, 变化轨迹

* 제1저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yuejunyue@jbnu.ac.kr)
** 제2저자.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shuziqiaokorea@163.com)
*** 제3저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duzhijia123@naver.com)

1. 绪论

中国正面临着日益严峻的人口老龄化挑战。根据中国国家统计局最新发布的数据,截至2024年末,全国65岁以上老年人口达2.2023亿人,占总人口的15.6%¹⁾。更值得关注的是,据预测2030年65岁及以上老年人口将突破2.6亿,占总人口比重超过20%,中国将正式迈入“超级老龄社会”²⁾。如此剧烈的人口年龄结构转变对社会保障体系带来巨大压力,如何保障庞大老年人口的生活质量已成为亟待解决的社会议题和学术关注焦点。

社会网络作为老年人重要的社会资源,对其心理健康和生活质量的作用日益凸显。社会网络通常指个体与家人、朋友、邻里等社会关系所构成的联系网络,它既是老年人获得情感支持和生活照料的关键来源,也是影响其身心健康的重要因素³⁾。大量研究表明,良好的社会联系能够有效缓解老年人的抑郁和孤独感,提高主观幸福感和生活满意度⁴⁾。其中,家庭网络主要提供经济支持和日常照料等实质性支持,而朋友网络更多满足情感陪伴、兴趣共享等社会心理需要。已有研究发现,相较于仅依赖家庭成员的老年人,那些保持着丰富朋友交往的老年人报告了更高的心理幸福感和生活满意度⁵⁾。也有研究发现,家庭网络对农村老年人福祉的影响随年龄增长显著增加,而朋友网络仅对农村年轻和中老年群体的福祉具有轻微影响⁶⁾。

尽管社会网络被证实是影响老年福祉的重要因素,但现有研究多数采用横断面调查设计,往往局限于某一时间点上考察老年人社会网络状况,难以捕捉其动态演变过程。实际上,老年人的社会网络并非静止不变,而是会随着生命历程中的重要事件(如退休、健康恶化、丧偶等)而发生变化。一篇系统综述总结到,不同老年群体的社会网络变化存在明显异质性,大多数老年人的网络规模和组成相对稳定,只有少部分经历了显著的扩张或收缩⁷⁾。保持多元且稳定社会网络的老年人通常拥有更高的生活满意度和主观幸福感,相反,社会网络持续萎缩的老年人面临更高的死亡风险⁸⁾。来自韩国的一篇研究也表明,社会范围狭窄、主要依赖直系亲属是韩国老年人中最普遍且稳定的社会网络类型。那些从多样网络退缩为受限网络的老年人往往自评健康更差、抑郁症状更严重、生活满意度更低⁹⁾。然而,目前关于中国老年人社会网络随时间变化的纵向跟踪研究仍非常有限,需要进一步的探讨。

影响老年人社会网络变化的因素多样而复杂,其中身体健康状况尤其是身体功能障碍被认为是老年人社会网络萎缩的关键因素之一¹⁰⁾。此外,身体功能障碍导致老年人外出社会活动减少,朋友网络规模随之

1) 中国国家统计局,『中华人民共和国202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25.02.28., <https://www.stats.gov.cn>. [2025.04.01.]

2) 徐建中·赵海然·韩华,『中国银发经济发展报告』,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24.

3) Tian, J., & Li, H., “Social networks and the mental health among Chinese older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loneliness and moderating role of Internet use”.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2023.

4) 张君安·张文宏,『社会网络类型与老年人幸福感』,『社会发展研究』,第6卷 第2期,2019, pp.79-96, 243-244.

5) Chopik, W. J. “Associations among relational values, support, health, and well-being across the adult lifespan”, *Personal Relationships*, 24(2), 408-422, 2017.

6) Zheng, Z., & Chen, H. “Age sequences of the elderly’ social network and its efficacies on well-being: An urban-rural comparison in China”, *BMC Geriatrics*, 20(1), 372, 2020.

7) Siette, J., Pomare, C., Dodds, L., Jorgensen, M., Harrigan, N., & Georgiou, A. (2021). A comprehensive overview of social network measures for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97, 104525.

8) Cheng, G. H.-L., Sung, P., Chan, A., Ma, S., & Malhotra, R., “Transitions between social network profiles and their relation with all-cause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Social Science & Medicine*, 292, 114617. 2022.

9) Kim, Borin, Park, Sojung & Antonucci, Toni C., “Longitudinal Changes in Social Networks, Health and Wellbeing among Older Koreans”, *Ageing and Society*, 36(9), 1915-1936, 2016

逐渐缩小。相较而言, 家庭网络受身体功能退化的影响较小, 这是因为即便老年人行动能力下降, 配偶、子女等直系家庭成员的照料需求促使家庭关系持续维持甚至加强。因此, 功能障碍对老年人的朋友网络和家庭网络产生了不同的影响模式, 朋友网络更易萎缩, 而家庭网络则表现出较强的韧性。

基于上述背景, 本研究旨在利用纵向数据, 系统探讨中国老年人社会网络随时间推移的变化轨迹, 特别关注家庭社会网络与朋友社会网络在老年期的不同演变特征及相关的影响因素。本研究的目标在于深化对中国老年人社会网络演变规律的理论理解, 同时为制定和完善我国老年社会支持政策提供可靠的实证依据。

2. 研究方法

1) 研究数据和研究对象

本研究使用了2014年、2016年、2018年和2020年中国老年社会追踪调查(China Longitudinal Aging Social Survey, CLASS)的数据。CLASS是由中国人民大学老年学研究所开展的一项全国性队列调查, 旨在探究中国老年人的人口、健康和经济状况。该调查采用分层、多阶段概率抽样方法, 于2014年进行了基线调查, 共收集到28个省(不包括海南、西藏和新疆)60岁及以上老年人的11,511份有效答卷。后续调查分别于2016-2017、2018-2019和2020-2021年进行。自启动以来, 该调查已成为中国老年人健康和社会研究中广泛使用的数据集。在本研究中, 我们使用了2014年至2020年期间四次波次的数据。在约11,511名基线参与者中, 有3,030人完成了全部四次调查。在排除应答缺失样本后, 最终的分析样本包括2,915名60岁及以上的参与者。

2) 研究变量

(1) 社会网络

本研究中的社会网络包括家庭社会网络和朋友社会网络。通过使用Lubben社会网络量表¹¹⁾对家庭和朋友社会网络进行评估。该量表被认为是评估中国大陆老年人社会网络的有效工具¹²⁾, 由六个项目组成, 旨在评估受访者活跃和亲密社会网络的规模。具体而言, 三个与家庭社会网络相关的项目: 1) 您是否每月至少与家人/亲戚见面或联系一次? 2) 您能否与家人/亲属谈论个人事务? 3) 在需要时, 家人/亲属能否提供帮助? 三个项目对朋友社会网络进行评估: 1) 您是否每月至少与朋友见面或联系一次? 2) 您能否与朋友谈论个人事务? 3) 朋友能否在需要时提供帮助? 每个问题都采用李克特五分量表来回答: 0=无, 1=1次, 2=2次, 3=3到4次, 4=5到8次, 5=9次或更多。家庭和朋友社会网络的平均分从0到5分不等,

10) Li, T., & Zhang, Y., "Social network types and the health of older adults: Exploring reciprocal associ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130, 59-68, 2015.

11) Lubben, J. E., "Assessing social networks among elderly populations", *Family & Community Health*, 11(3), 42-52, 1998.

12) Chang, Q., Sha, F., Chan, C. H., & Yip, P. S. F., "Validation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6") and its associations with suicidality among older adults in China", *PLOS ONE*, 13(8), e0201612, 2018.

分数越高,表示家庭或朋友社会网络越强。在本研究中,四波调查的家庭社会网络量表的信度为0.72到0.80,朋友社会网络量表的信度为0.81到0.85,均显示出较高的信赖度。

(2) 日常生活活动能力限制

根据以往的研究,老人的日常生活活动能力(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随时间变化,是影响社会网络的重要因素。我们选择CLASS调查提供的ADLs量表来衡量老人的身体健康状况。具体包括吃饭,穿衣,上下床,上厕所,室内走动,洗澡等6项指标。每项分为“不需要别人帮助”,“需要一些帮助”,“完全做不了”三个级别。在本研究中,将“不需要别人帮助”设置为0,代表无日常生活活动能力限制,将“需要一些帮助”“完全做不了”设置为1,代表存在日常生活活动能力限制。6个项目的总分为6分,分数越高代表老人的功能限制越高。在本研究中,四波调查的ADLs量表的信度为0.88到0.92,显示出极高的信赖度。

(3) 人口社会学变量

基线数据反映了研究开始时的基本情况,能有效帮助控制潜在的混杂因素,避免在分析时由于未考虑这些因素而导致的偏倚。因此,我们选择了基线数据中年龄、性别、教育程度、居住地、婚姻状况作为控制变量。具体来说,年龄被视为连续变量;性别编码为1=男性,0=女性;教育程度分为0=未受过正规教育,1=小学及以下,2=初中,3=高中及以上;居住地分为0=农村,1=城市;婚姻状况编码为0=无配偶,1=有配偶。

3) 分析方法

本研究通过潜在增长模型(Latent Growth Model, LGM)来识别中国老人的家庭社会网络与朋友社会网络的变化轨迹。分析通过两阶段进行展开。第一阶段使用无条件模型估计家庭社会网络与朋友社会网络的初始值,变化率和二次变化率,从而确认最佳模型;第二阶段根据第一阶段得到的模型拟合度,确认最佳模型,从而考察随时间变化的ADLs以及不随时间变化的人口社会学特征和社会网络变化轨迹之间的关系。无条件线性增长模型包含截距和斜率两个参数,其中截距表示家庭社会网络与朋友社会网络的初始水平,斜率和二次函数衡量家庭社会网络和朋友社会网络的线性变化及其曲线变化。其中,四次测量的斜率因子负荷量(Factor loadings)分别设置为0、1、2、3。模型拟合度通过多个指标进行评估:比较拟合指数(Comparative Fit Index, CFI)和塔克-刘易斯指数(Tucker-Lewis Index, TLI)大于0.90时,表示模型具有良好的拟合度;均方根误差(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和标准化均方根残差(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小于0.08时,表示模型拟合良好。

在潜在增长模型分析之前,进行了主要变量的频度分析,描述性统计分析和相关关系分析。本研究所有操作均在StataMP 18.0和M-plus 8.0完成。

3. 研究结果

1) 样本的基本特征

表1描述了研究样本的基线人口社会学特征及2014-2020年主要变量的描述统计结果。受访老年人平均年龄68.20岁(SD=7.05)，男性(51.46%)，居住在城市(52.11%)，小学学历(35.75%)。日常生活活动能力限制(ADLs)在四个调查年份中的平均得分逐渐上升(0.13到0.35)，反映了随年龄增长功能限制逐渐加剧的趋势。同时，家庭社会网络得分呈现先下降后略有回升的趋势(2.82到2.54)，朋友社会网络则表现出波动特征(2.03到2.22)，总体呈上升趋势。

<表1> 样本的基本特征

变量		频率/均值	百分比/标准方差
性别	男性	1,500	51.46
	女性	1,415	48.54
居住地	城市	1,519	52.11
	农村	1,396	47.89
教育水准	无学	877	30.09
	小学	1,042	35.75
	中学	557	19.11
	高中以上	439	15.06
年龄	60~96	68.20	7.05
2014年 ADLs	0~6	0.13	0.69
2016年 ADLs	0~6	0.23	0.93
2018年 ADLs	0~6	0.23	0.94
2020年 ADLs	0~6	0.35	1.19
2014年 家庭社会网络	0~5	2.82	1.08
2016年 家庭社会网络	0~5	2.60	0.94
2018年 家庭社会网络	0~5	2.50	0.91
2020年 家庭社会网络	0~5	2.54	0.85
2014年 朋友社会网络	0~5	2.03	1.57
2016年 朋友社会网络	0~5	2.26	1.11
2018年 朋友社会网络	0~5	2.13	1.06
2020年 朋友社会网络	0~5	2.22	1.01

2) 主要变量间的相关关系 (略)

3) 家庭社会网络和朋友社会网络的无条件模型分析

为了检验老年人家庭和朋友社会网络的变化轨迹，我们分别构建了三种无条件潜在增长模型：无变化模型、线性变化模型以及二次函数变化模型。表2展示了中国老年人家庭与朋友社会网络的无条件潜在增长模型拟合结果。从拟合指标来看，无论是家庭社会网络还是朋友社会网络，二次函数变化模型均优于线性变化模型与无变化模型。具体而言，家庭社会网络的二次函数变化模型中，CFI与TLI均超过推荐的拟合

标准0.90，RMSEA也低于0.08，同时卡方检验（ χ^2 ）结果不显著，表明该模型拟合效果非常理想。朋友社会网络方面，二次函数变化模型的CFI超过0.90，但TLI略低于0.90，说明模型拟合尚存一定改进空间。然而，由于AIC、BIC及saBIC等模型比较指标均明显低于无变化模型和线性变化模型，因此整体而言，二次函数变化模型仍然是三种模型中最为合适的选择。

<表2> 家庭和友社会网络的无条件潜在增长模型拟合度

变量	模型	$\chi^2(df)$	CFI	TLI	RMSEA	AIC	BIC	saBIC
家庭 社会 网络	无变化模型	742.17*** ⁽⁸⁾	0.45	0.59	0.18	31060.98	31096.84	31077.78
	线性变化模型	176.80*** ⁽⁵⁾	0.87	0.85	0.11	30501.60	30555.40	30526.80
	二次函数变化模型	0.02 ⁽¹⁾	1.00	1.00	0.00	30332.82	30410.53	30369.23
朋友 社会 网络	无变化模型	676.46*** ⁽⁸⁾	0.60	0.70	0.17	35688.66	35724.53	35705.46
	线性变化模型	196.00*** ⁽⁵⁾	0.89	0.86	0.11	35214.21	35268.00	35239.41
	二次函数变化模型	65.87*** ⁽¹⁾	0.96	0.77	0.15	35092.07	35169.78	35128.48

注: *** $p < .001$

二次函数模型的的各项参数估计如表3所示。在无条件二次函数变化模型中，中国老人的家庭社会网络的初始值为2.82（ $p < 0.001$ ），初始值的方差在统计上不显著，说明在起始时间老人的家庭社会网络不存在个体差异。线性变化率的均值是-0.29（ $p < 0.001$ ），线性变化率的方差在统计上显著，说明在2014-2020年间老人的家庭社会网络水准呈现下降趋势，且存在个体差异。二次函数变化率的均值是0.06（ $p < 0.001$ ），方差在统计上显著，说明二次函数模型的增长轨迹中即时变化率为-0.29，随着时间的变化，即时变化率约上升了0.12。在朋友社会网络，初始值为2.12（ $p < 0.001$ ），初始值的方差在统计上不显著，说明在起始时间老人的朋友社会网络不存在个体差异。线性变化率和二次函数变化率的均值同样不显著。但是方差在统计意义是显著的，表明老人朋友社会网络的线性变化和二次函数变化存在显著的个体差异。

最后，如表4所示，家庭和友社会网络的线性变化率和二次线性变化率的协方差显著，表明在家庭和友社会网络的变化形式随着时间的变化存在个体差异。接下来，进一步分析是什么因素影响了家庭和友社会网络的变化。

<表3> 家庭和友社会网络的二次函数模型结果

变量	样本特征		Estimate	S.E.
家庭社会网络	初始值	平均值	2.82***	0.02
		方差	0.11	0.06
	线性变化率	平均值	-0.29***	0.03
		方差	0.43***	0.09
	二次变化率	平均值	0.06***	0.01
		方差	0.045***	0.01
朋友社会网络	初始值	平均值	2.12***	0.03
		方差	0.16	0.10
	线性变化率	平均值	0.03	0.03
		方差	0.62***	0.14

	二次变化率	平均值	0.002	0.01
		方差	0.07***	0.01

注: *** $p < 0.001$, * $p < 0.05$

<表4> 二次函数模型的初始值, 线性变化率和二次变化率间的协方差

变量		协方差	标准误差
家庭社会网络	初始值 - 线性变化率	-0.07	0.07
	初始值 - 二次变化率	0.014	0.02
	线性变化率- 二次变化率	-0.12***	0.02
朋友社会网络	初始值 - 线性变化率	-0.08	0.11
	初始值 - 二次变化率	0.01	0.03
	线性变化率- 二次变化率	-0.18***	0.03

注: *** $p < 0.001$, ** $p < 0.01$

4) 家庭社会网络和朋友社会网络的条件模型分析

为了解释老人的家庭和朋友社会网络中的个体差异, 我们进一步构建了条件潜在增长模型。表5显示了条件潜在增长模型的拟合结果。结果表明, 加入ADLs和人口社会学变量后, 家庭和朋友社会网络模型均有较好的拟合效果。

<表5> 条件潜在增长模型的拟合度

变量	X ² (df)	CFI	TLI	RMSEA	SRMR
家庭社会网络	69.72***(18)	0.97	0.92	0.03	0.02
朋友社会网络	151.53***(18)	0.93	0.84	0.05	0.03

注: *** $p < 0.001$

表6和表7分别显示了ADLs和人口社会学特征对家庭和朋友社会网络初始值, 线性变化率和二次函数变化率的影响。具体而言, 每年度的ADLs对每年度的朋友社会网络均有显著的负向影响。即老年人的功能限制越严重, 朋友社会网络的水准越低。在家庭社会网络方面, 仅有2016年和2018年的ADLs对家庭社会网络具有负向的显著影响, 但在2014年和2020年间, 没有显著影响。表明ADLs和家庭社会网络的变化更复杂, 可能受到其他因素的共同作用。

<表6> 不同年份ADLs对家庭和朋友社会网络变化的影响参数估计

变量	影响因子	β	B	S.E.
家庭社会网络	2014 ADLs - 2014 家庭社会网络	-0.03	-0.04	0.03
	2016 ADLs - 2016 家庭社会网络	-0.08***	-0.08	0.02
	2018 ADLs - 2018 家庭社会网络	-0.04*	-0.04	0.02
	2020 ADLs - 2020 家庭社会网络	-0.02	-0.01	0.01

朋友社会网络	2014 ADLs - 2014 朋友社会网络	-0.08***	-0.18	0.04
	2016 ADLs - 2016 朋友社会网络	-0.08***	-0.10	0.02
	2018 ADLs - 2018 朋友社会网络	-0.08***	-0.09	0.02
	2020 ADLs - 2020 朋友社会网络	-0.04**	-0.04	0.01

注: *** $p<0.001$, ** $p<0.01$, * $p<0.05$

在人口社会学特征方面, 年龄对家庭网络初始值有显著正向影响 ($\beta=0.22$, $p<0.001$), 而对朋友网络初始值则为显著负向 ($\beta=-0.23$, $p<0.001$), 说明年龄越高家庭网络越高, 朋友网络越少。此外, 年龄也对朋友网络的线性变化率 ($\beta=0.15$, $p<0.001$) 和二次变化率 ($\beta=-0.12$, $p<0.01$) 具有显著影响。表明随着年龄增长, 中国老人的朋友社会网络呈现线性上升趋势, 但这种趋势会随时间推移会逐渐减缓甚至可能转为下降。居住地与社会网络的初始值没有关系, 仅对家庭网络线性变化率 ($\beta=-0.11$, $p<0.05$) 和二次变化率 ($\beta=0.08$, $p<0.05$) 具有显著负向影响, 表明, 相比于农村老人, 城市老人的家庭社会网络在初期阶段呈现更快的下降趋势, 但随着时间推移, 这种下降趋势逐渐减缓甚至有所回升。婚姻状况对家庭社会网络的初始值 ($\beta=0.32$, $p<0.001$), 线性变化率 ($\beta=-0.12$, $p<0.01$) 和二次变化率 ($\beta=0.09$, $p<0.05$) 均有显著影响。表明, 与没有配偶的老人相比, 有配偶的老年人的家庭社会网络越高。但有配偶的老年人家庭网络的线性下降速率较无配偶者更快, 但随后的二次变化趋势呈现明显的减缓甚至回升趋势。教育水平只对朋友网络初始值 ($\beta=0.39$, $p<0.001$) 具有显著影响。表明, 教育水平越高, 老人的朋友社会网络越高。

<表7> 人口社会学特征对家庭和朋友社会网络变化的影响参数估计

变量	影响因子	初始值			线性变化率			二次变化率		
		β	B	S.E.	β	B	S.E.	β	B	S.E.
家庭社会网络	年龄	0.22***	0.01	0.00	-0.07	-0.01	0.00	0.07	0.00	0.00
	性别	-0.09	-0.06	0.04	0.03	0.04	0.06	-0.03	-0.02	0.02
	居住地	-0.01	-0.01	0.04	-0.11*	-0.14	0.06	0.08*	0.04	0.02
	婚姻状态	0.32***	0.23	0.05	-0.12**	-0.17	0.06	0.09*	0.04	0.02
	教育水准	0.00	0.00	0.02	0.08	0.05	0.03	-0.07	-0.01	0.01
朋友社会网络	年龄	-0.23***	-0.01	0.00	0.15***	0.02	0.01	-0.12**	-0.01	0.00
	性别	-0.12	-0.11	0.06	0.05	0.09	0.07	-0.04	-0.02	0.02
	居住地	-0.04	-0.03	0.06	-0.06	-0.10	0.07	0.05	0.03	0.02
	婚姻状态	0.13	0.13	0.06	-0.04	-0.07	0.08	0.03	0.02	0.02
	教育水准	0.39***	0.17	0.03	-0.05	-0.04	0.04	0.00	0.00	0.01

注: *** $p<0.001$, ** $p<0.01$, * $p<0.05$

4. 讨论

为探讨中国老年人家庭和朋友社会网络随时间的变化轨迹及其影响因素, 我们基于2014 - 2020年“中国老年社会追踪调查”(CLASS)数据, 通过潜在增长模型分别考察了家庭社会网络和朋友社会网络的动态变化。研究结果表明, 老年人的社会网络依然以家庭成员为中心, 家庭社会网络远高于朋友社会网络。

并且,在2014-2020年间,中国老人的家庭社会网络经历了显著的下降趋势,下降速度逐渐缓慢回升。朋友社会网络的变化虽不显著,但存在显著的个体差异。这一结果与大多研究¹³⁾相一致。同时,也有研究表明,韩国老年人的社会关系正从传统的家庭中心转向以同辈朋友为主,朋友和邻里在其社会网络中扮演越来越重要的角色¹⁴⁾。因此,相较于韩国,中国老年人的家庭社会网络仍是支撑其社会联系的主体。

ADL功能限制对社会网络变化的影响在本研究中尤为突出。我们发现,日常生活活动能力受限的老年人,其社会网络(特别是朋友网络)收缩速度更快。这意味着当老年人出现行动困难或生活不能自理时,他们与朋友见面、聊天的频率明显降低,朋友圈规模也随之缩小。相对而言,家庭社会网络受到的影响较小,可能因为家庭成员(如配偶、子女等)会在老年人功能受限时提供更多支持,使得家庭联系得以维系甚至强化。这一发现与现有文献的结论相一致,健康状况与老年人社交参与密切相关,当身体功能下降时,老年人的社交互动范围通常会缩减¹⁵⁾。一项针对中国失能老年人的调查进一步印证了我们的发现,ADL限制严重的老年人往往社会网络更狭窄,朋友数量更少,感到更强的孤独感¹⁶⁾。

此外,我们发现基线年龄越大的老年人,家庭社会网络越高,但朋友社会网络越低。并且在随访期内,朋友社会网络减少的速度更快。这表明,年龄增长通常伴随着朋友社会网络的收缩。在婚姻状况方面,有无配偶只与老人的家庭社会网络相关,与朋友社会网络无关。一般而言,相较于没有配偶的老年人,有配偶的老年人拥有更大的家庭网络,丧偶者则常通过朋友或其他社群获得支持。然而我们的研究发现,无论婚姻状态如何,老年人的家庭网络都相对稳定,而朋友网络都会随时间有所减少。在居住地方方面,我们没有发现相较于农村老人,城市老人有更高的家庭社会网络或者朋友社会网络。但是,相较于农村老人,城市老人可能会面临更快的家庭社会网络的下降趋势,但这种下降趋势会逐渐减缓甚至回升。

教育程度对老年人朋友社会网络具有正向显著影响。受教育程度较高的老年人在基线时往往拥有更广泛、更多元的朋友社会网络。这可能是由于高学历老人社会参与意识更强,可能在退休后积极加入老年大学、社区活动,从而拓展朋友网络。相反,受教育程度低的老年人社交圈相对有限且主要集中于家庭,因此家庭社会网络规模变化不大。以往的研究也表明,较高社会经济地位的老年人在社会网络规模和多样性上占有优势,而低教育水平的老年人网络资源较少但也较为稳定¹⁷⁾。本研究并未观察到男性与女性在家庭和朋友社会网络变化上的显著差异。一些研究表明女性老年人的社会网络规模通常大于男性,并更善于维持亲密关系网¹⁸⁾,但我们的纵向结果表明性别在中国老人的社会网络变化趋势上可能趋于相似。这可能是因为尽管女性社交更活跃,但进入高龄阶段后男女社会关系会趋向于稳定。

本研究具有以下重要意义。首先,本研究丰富了老年社会网络研究的文献。以往许多研究集中于老年人社会网络对健康、福祉的影响,以及横断面上的社会网络类型划分。相比之下,我们采用纵向调查探讨了中国老年人家庭和 friend 网络的动态变化轨迹,提供了老年人社会网络变化轨迹的中国证据。其次,本研究的发现可能在老年人社会工作和社区养老服务方面具有一定的现实意义。本研究特别强调功能障碍对老

13) Badawy, P. J., Schafer, M. H., & Sun, H., "Relocation and Network Turnover in Later Life: How Distance Moved and Functional Health Are Linked to a Changing Social Convoy", *Research on Aging*, 41(1), 54-84, 2018.

14) 김세진·이선희,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311, 2022, pp.77-91.

15) 张君安·张文宏, 「社会网络类型与老年人幸福感」, 『社会发展研究』, 第6卷 第2期, 2019, pp.79-96, 243-244.

16) Niu, L., Qu, W., Ying, X., Cao, X., Li, R., Wang, X., Gao, R., Chen, Y., & Gao, Y.-X.,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network with loneliness: A cross-sectional study of China older adults with activity of daily living disabilities", *BMJ Open*, 15(1), e087204, 2025.

17) Zheng, Z., & Chen, H., "Age sequences of the elderly' social network and its efficacies on well-being: An urban-rural comparison in China", *BMC Geriatrics*, 20(1), 372, 2020.

18) Schwartz, E., & Litwin, H., "Social network changes among older Europeans: The role of gender", *European Journal of Ageing*, 15(4), 359 - 367, 2018.

年人的朋友社会网络的负面影响。换句话说,当老年人失去自理能力时,他们最容易失去的是朋友互动。因此建议,养老服务提供者,应针对失能老人制定干预措施,帮助他们维持社会联系,如组织志愿者定期探访、发展邻里互助小组等。此外,本研究也揭示了城乡、教育等群体差异,这意味着在构建老年人社会网络时需要考虑个体的异质性。例如,对于农村低教育水平的老年人,可着重加强社区互助和正式支持;对于城市高学历的老年人,则可提供更多社会参与平台,延缓其社会网络退化。

最后,需要承认本研究仍有局限性。第一,我们使用的CLASS纵向数据样本以社区居住老年人为主,未充分覆盖高龄失能且机构养老的群体,因而对社会网络极端萎缩的老年人关注不足。第二,社会网络的测量主要依据老年人的自评量表,未全面反映网络的结构和质量。这可能导致我们低估某些社会联系(如邻里互助)在老人社会网络中的作用。第三,我们无法完全确立因果关系,尤其是身体健康和社会网络的关系可能是双向的。未来研究可以通过质性分析,深入探讨老年人社会网络变化的主观体验。同时,也建议通过生存分析等纵向分析方法,扩展老年人样本以涵盖更广泛的老年群体。

5. 结论

本研究通过纵向分析揭示了中国老年人家庭和朋友社会网络的动态变化及其影响因素。主要发现中国老人的家庭和朋友社会网络呈现非线性变化,日常生活活动能力限制与老年人朋友社会网络降低相关,高龄、城市居住、有无配偶和高教育水平的老年人社会网络变化更为明显。基于上述发现,我们建议,首先,应加强对高龄独居及失能老年人的社会支持。例如,动员社区志愿者或社会工作者结对陪伴生活能力受限的老人,帮助他们维持朋友间的联络,减缓社会网络的萎缩。其次,发展老年人社区交往平台。城市社区可兴建更多老年活动中心、日间照料中心,鼓励老年人参与各类文体活动,拓展朋友圈并增强彼此支持。在农村地区,则应发挥乡土社会优势,支持乡村互助组织和老年协会的发展,扩大老年人的社会交往范围。第三,倡导“积极老龄化”理念,提升老年人的数字素养。例如,政府可开展针对老年人的数字能力提升项目,缩小“数字鸿沟”,使老年人通过线上线下相结合的方式丰富社会生活。最后,在社会政策层面,应将老年人的社会参与指标纳入社区老龄工作评价体系。例如,在社区养老服务评估中增加“老年人社会网络维护”相关指标,预防和减少老年群体的社会隔离。

【차세대학자분과 Ⅲ】 발표

乡村振兴背景下鞍山市乡村旅游发展研究

— 以千山区为例

JIA XIAOFEI* · WEN HAORAN** · LI DAN***

【목 차】

1. 绪论	4. 鞍山市千山区乡村旅游存在的问题
2. 鞍山市千山区旅游资源概况	1) 旅游产品同质化
1) 自然景观资源	2) 资源整合不足
2) 人文景观资源	3) 服务质量有待提高
3. 鞍山市千山区旅游发展现状	5. 关于鞍山市千山区乡村旅游的相关建议
1) 客户市场现状	1) 深挖地方文化, 打造特色旅游品牌
2) 乡村旅游收入情况	2) 加强基础设施建设与服务
3) 旅游产业链现状	3) 整合社会力量积极做好人才储备
4) 旅游发展模式	6. 结语

【 초 록 】

在乡村振兴战略背景下, 鞍山市千山区以乡村旅游发展为核心, 通过整合资源、创新模式和优化服务, 推动乡村经济与文化深度融合, 实现区域振兴。为了进一步推进鞍山市乡村旅游的发展进程, 助力乡村振兴, 实现乡村旅游绿色可持续发展。本研究选择以鞍山市千山区为研究对象, 综合运用文献研究法、实地考察法, 从客户市场现状、乡村旅游收入情况、旅游产业链现状、旅游发展模式四个方面出发对鞍山市千山区乡村旅游进行深入考察和研究。发现了旅游产品同质化、资源整合不足、服务质量有待提高三个问题, 进而应该从深挖地方文化, 打造特色旅游品牌、加强基础设施建设与服务、整合社会力量积极做好人才储备三个方面入手, 结合所学知识因地制宜给出具有建设性的对策和建议。经过本研究得出鞍山市千山区乡村旅游现如今仍存在进步空间, 但发展方向明确, 发展动力十足, 在克服现有困难的基础上未来发展前景广阔。

【키워드】乡村振兴; 鞍山市乡村旅游; 千山区; 可持续发展; 融合发展; 旅游监管。

* 제1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석사과정 (XFfei0922@gmail.com)

** 참여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석사과정 (whr990314@gmail.com)

*** 교신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lidan@pknu.ac.kr)

1. 绪论

1) 研究背景及意义

2017年10月18日习近平总书记在党的十九大报告中首次提出乡村振兴战略¹⁾, 2021年2月25日全国脱贫攻坚总结表彰大会上, 习近平总书记再次强调乡村振兴是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一项重大任务。要围绕立足新发展阶段、贯彻新发展理念、构建新发展格局带来的新形势、提出的新要求, 坚持把解决好“三农”问题作为全党工作重中之重, 坚持农业农村优先发展, 走中国特色社会主义乡村振兴道路²⁾。自乡村振兴战略提出以来习近平总书记多次到全国各地进行实地考察并留下很多指导性建议。习近平总书记对乡村振兴战略的持续关注, 极大地推动了这一战略的发展进程, 并带动了社会各界积极参与到乡村振兴的伟大实践中。其中, 乡村旅游作为乡村振兴的重要组成部分, 逐渐走入大众视野。习近平总书记曾明确指出, 乡村旅游的发展必须确保可持续性, 这意味着乡村旅游的发展不能以牺牲乡村的绿水青山为代价, 而应在绿色发展的同时, 有效增加乡村人民的经济收入, 实现乡村的高质量发展。

本研究旨在探讨鞍山市千山区在乡村振兴战略背景下乡村旅游的发展路径及其对区域经济、社会和文化振兴的促进作用。千山区作为鞍山市的重要组成部分, 拥有丰富的自然景观、人文资源和历史底蕴, 是推动乡村旅游发展的理想区域。近年来, 千山区通过实施“四产融合”发展模式, 依托千山风景区、温泉资源以及丰富的生态和文化资源, 逐步形成了以休闲度假、康养旅游和文化体验为核心的乡村旅游体系。

研究乡村旅游发展不仅有助于优化乡村产业结构, 提升农民收入, 还能推动城乡融合发展, 实现经济、社会和生态效益的良性循环。同时, 乡村旅游作为乡村振兴的重要抓手, 能够有效激发乡村活力, 促进乡村治理能力提升, 改善基础设施建设, 推动美丽乡村建设。此外, 通过科学规划和创新举措, 千山区可以进一步挖掘乡村旅游潜力, 打造具有地方特色的精品旅游线路, 提升品牌影响力, 吸引更多游客, 从而为鞍山市打造成为北方重要的休闲旅游目的地提供有力支撑。本研究将从理论和实践层面分析千山区乡村旅游发展的现状、问题及对策, 为推动千山区乃至鞍山市乡村旅游的高质量发展提供科学依据和政策建议, 助力实现乡村振兴战略目标。

2) 研究综述

(1) 乡村旅游发展研究综述

有关中国乡村旅游的发展, 早在1998年王兵就表示中国的乡村旅游是受三方面的影响才逐步发展起来的, 首先是国内外市场的需求, 其次是发达国家的影响, 最后是中国特殊的旅游扶贫政策³⁾。王云才在2006年就提出中国乡村旅游新形态和新模式的改进方向⁴⁾; 王继庆在2007的论文中阐述了中国乡村旅游可持续发展的模式和相关政策⁵⁾; 到了2020年以后耿松涛、张仲阳认为乡村旅游应该与文化产业协同发展⁶⁾,

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s://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2025. 03. 10]

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习近平: 在全国脱贫攻坚总结表彰大会上的讲话』, https://www.gov.cn/xinwen/2021-02/25/content_5588869.htm, [2025. 03. 10]

3) 王兵, 『从中外乡村旅游的现状对比看我国乡村旅游的未来』, 『旅游学刊』, 第2期, 1999年, p.38.

4) 王云才, 『中国乡村旅游发展的新形态和新模式』, 『旅游学刊』, 第4期, 2006, p.8.

5) 王继庆, 『我国乡村旅游可持续发展问题研究』, 『东北林业大学』, 2007, p.29.

而徐虹、张行发则提出了最新的“人—地—业—治”的乡村旅游研究的整合性理论框架⁷⁾。

卢小丽、成宇行、王立伟在2014年对国内外乡村旅游近20年文献研究的热点问题进行回顾,得出目前乡村旅游正在世界范围内发展的如火如荼,各界学者各展所长对乡村旅游各个方面进行了探索和研究,但仍然存在如利益相关者问题等有待解决⁸⁾。根据李志飞、夏家豪的理论文献,近三十年来中国乡村旅游正逐步走向多元化和成熟化,研究的主题更为深入,问题也更加具体,正处于乡村旅游的黄金发展期⁹⁾。

(2) 鞍山市乡村旅游发展研究综述

黄磊、郑岩在其研究中表示鞍山市乡村旅游资源品质优良、种类丰富,民族特色鲜明,乡村民风淳朴,游玩项目参与感和观赏度兼而有之¹⁰⁾。这为鞍山市乡村旅游的开展提供了可能性,也为研究奠定理论和实践基础。李丹、蔡泽泰和高天好都在研究中表示鞍山乡村文化旅游发展的区域布局应该按照“统一规划、合理布局、整体推进、重点突破”的发展方针,要做大做强千山、玉佛苑、汤岗子温泉、鞍钢、岫玉等五大文化旅游品牌^{11) 12)}。鲁小波、王爽以辽宁岫岩满族自治县黄岭村为例,期待更好降低旅游带给乡村的负面影响,综合协调旅游开发与传统文化保护工作,实现黄岭村乡村振兴与旅游可持续发展¹³⁾。鞍山市作为辽宁省优秀旅游城市,在乡村旅游方面也为之做出了许多努力和贡献,乡村旅游产品开发投入不断增长,很多特色村镇被收入文化和旅游部联合国家发展改革委推出“体验脱贫成就 助力乡村振兴”乡村旅游学习体验线路300条,由此可见鞍山市乡村旅游发展正在稳步推进中¹⁴⁾。

2. 鞍山市千山区旅游资源概况

鞍山市千山区作为辽宁省鞍山市的重要组成部分,以其丰富的自然景观和人文资源而闻名,被誉为“东北明珠”和“辽东第一山”。千山风景区总面积达125平方公里,其中核心景区面积为44平方公里,是国家4A级旅游区,也是首批国家重点风景名胜区

1) 自然景观资源

千山区总面积约359平方公里,其中耕地面积为9092.36公顷,基本农田面积为6892.26公顷,土地资源较为稳定,为农业生产和生态建设提供了良好的基础。千山区还拥有丰富的林业资源,林业用地面积达13879.86公顷,其中包含国家公益林面积,为森林资源保护和生态旅游提供了重要支撑。千山区矿产资源

6) 耿松涛·张仲阳,「乡村振兴背景下乡村旅游与文化产业协同发展研究」,『南京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2期,2021, p.44.

7) 徐虹·张行发,「人—地—业—治:乡村旅游研究的一个整合性理论框架」,『旅游导刊』,第6期,2023, p.1.

8) 卢小丽·成宇行,「王立伟.国内外乡村旅游研究热点-近20年文献回顾」,『资源科学』,第1期,2014, p.201.

9) 李志飞·夏家豪,「乡村旅游研究30年:国内外文献回顾与展望」,『华中师范大学学报(自然科学版)』,第1期,2024, p.7.

10) 黄磊·郑岩,「再生型资源型城市旅游业发展研究——以鞍山市为例」,『时代经贸』,第21期,2018, p.51.

11) 李丹·蔡泽泰,「鞍山乡村文化旅游集聚发展研究」,『鞍山师范学院学报』,第3期,2013, p.49.

12) 高天好,「构建鞍山特色旅游的思路研究」,『现代营销(下旬刊)』,10期,2022, p.103.

13) 鲁小波·王爽,「乡村振兴背景下旅游开发对乡村影响及改进策略研究——以辽宁省鞍山市黄岭村为例」,『决策咨询』,第2期,2022, p.38.

14) 于桐,「乡村振兴战略背景下鞍山乡村旅游创新发展路径研究」,『中国集体经济』,第6期,2022, p.136.

丰富，已探明的铁矿储量达24.5亿吨，占鞍山市总储量的30%左右，是全国重要的铁矿资源区之一。同时，该地区还蕴藏多种非金属矿产资源，如花岗岩、石灰石、硅石等，这些矿产资源为工业发展提供了重要保障。千山区水资源丰富，境内有大小河流35条，水资源总量达25.32亿立方米，为农业灌溉和工业用水提供了充足的水源。千山区的汤岗子温泉富含多种矿物质，水温常年保持在38℃至72℃之间，是中国著名的地热温泉之一，具有极高的旅游和疗养价值。千山区的生物多样性极为丰富，野生植物种类多达1100余种，包括油松、大叶杨、山皂角等华北地区典型的代表植物，同时还有梨、南果梨等特色水果。该地区还拥有丰富的野生动物资源，包括多种鸟类和哺乳动物，为生态研究和保护提供了重要基础。

2) 人文景观资源

千山区是鞍山市的发源地，拥有悠久的历史和丰富的文化遗产。早在新石器时代，这里就有人类活动，唐朝时期“薛礼征东”故事广为流传，辽金时代人们在此冶铁采矿，明朝洪武年间还修建了“鞍山驿堡”，成为鞍山城市文化的重要发源地。千山地区还保留了大量明清时期的古建筑群，如千山古镇的广济寺、富春和坤元宫等，这些建筑展示了中国传统文化和建筑艺术的精髓。千山地区是佛教和道教的共融之地，自北魏时期佛教传入以来，隋唐时期已有寺庙建筑，至辽金时期发展成为辽东地区著名的佛教胜地。目前，千山内有五寺、七观、九宫、十庵等宗教建筑，如无量观、龙泉寺和五佛顶等，这些寺庙布局巧妙，建筑宏伟，是千山人文景观的重要组成部分。千山区还保留了丰富的非物质文化遗产，如海城高跷、海城喇叭戏、鞍山评书等，这些非遗项目与当地的自然景观和文化活动相结合，为游客提供了沉浸式的文化体验。此外，千山地区还注重挖掘和保护传统手工艺，如岫岩玉雕等，进一步推动了文化旅游的融合发展。千山区近年来通过举办各类文化赛事和活动，如梨花节等，吸引了大量游客。这些活动不仅提升了千山的知名度，也促进了当地文化旅游产业的发展。千山区还积极开发旅游产品，结合当地的历史文化资源，打造了多种文化体验项目，如温泉康养、民俗小镇等，进一步丰富了旅游业态。鞍山市千山区不仅以其秀丽的自然景观闻名，还因其深厚的历史文化积淀和丰富的非物质文化遗产而备受关注。这些人文资源为千山的旅游发展提供了坚实的基础，同时也为研究和传承中国传统文化提供了宝贵的素材。

3. 鞍山市千山区旅游资源概况

1) 客户市场现状

千山区的旅游市场近年来逐步成熟，依托丰富的自然和文化资源，吸引了大量游客。例如，千山区连续多年成功举办了“鞍山市梨花节”、“南果梨文化节”和“大樱桃采摘节”¹⁵⁾，这些活动不仅提升了区域知名度，还促进了文旅体融合，为吸引游客提供了重要支撑。此外，祥家村通过村企合作开发的生态旅游项目，如祥和度假庄园，每年接待游客约60万人次¹⁶⁾，显示出千山区乡村旅游市场的潜力。然而，目前千山区的旅游市场仍以周边省市游客为主，沿海经济发达地区和境外游客比例较低，这表明市场开拓

15) “千山区落实“三年行动”全力打造文化体育强区”，『鞍山新闻网』，<https://www.qianhuaweb.com/2024/09/06/99169087.html>, [2025.03.25]

16) “鞍山市千山区祥家村：村企共建打造美丽乡村”，『辽沈智慧党建』，<https://www.lndj.gov.cn/portauploads/html/site-5/info/50496.html>, [2025.03.25]

空间较大。

2) 乡村旅游收入情况

千山区乡村旅游的发展对当地经济产生了积极影响。例如,祥家村通过发展特色旅游项目,不仅提升了村民收入,还带动了周边地区的经济发展。鞍山市千山区祥家村的祥和度假庄园美景怡人,庄园投资1亿元,建有酒店、游乐场、采摘园,年接待游客约600万人次,营业额达1500万元,为村民提供了上百个就业岗位。祥家村还积极发挥党组织纽带作用,帮助企业代办服务事项35件,进行相关政策解答70余次,以实际行动为企业排忧解难。¹⁷⁾同时,千山区的旅游收入增长也得益于政府对旅游产业的支持政策,如降低门票价格、推出旅游促销活动等。尽管乡村旅游收入有所提升,但整体产业链仍存在不足,如旅游产品同质化严重、服务质量参差不齐等问题。

3) 旅游产业链现状

千山区的旅游产业链正在逐步完善。例如,祥家村通过村企合作开发了集酒店、游乐场、采摘园于一体的综合旅游项目,形成了较为完整的旅游服务链条。千山区还注重发展乡村旅游相关的配套产业,如民宿建设。例如,“桩石三号”民宿,建筑面积约为1024平方米,建筑风格独树一帜,巧妙地融合了江南水乡的温婉与北方乡村的淳朴风情。被评为全国乙级旅游民宿,成为千山区乡村旅游的重要组成部分将对鞍山旅游民宿发展起到积极地带动和引领作用。“桩石三号”民宿被评为全国乙级旅游民宿,成为千山区乡村旅游的重要组成部分¹⁸⁾。但目前千山区的旅游产业链仍存在资源整合不足、创新能力较弱等问题。

4) 旅游发展模式

(1) 全域旅游与多业态融合

千山区以全域旅游为指导,通过全域生态、全景旅游和度假区开发,将自然景观与文化资源相结合,打造特色鲜明的旅游目的地。千山风景区作为国家5A级旅游景区,依托其丰富的自然景观和宗教文化资源,通过整合周边村落、温泉资源等,形成了以“赏梨花、住民宿、品美食、泡温泉、饮美酒”为主题的四季观光旅游目的地。¹⁹⁾

(2) “文化+旅游”深度融合

注重文化资源的挖掘与利用,通过打造历史文化地标和文创产业聚集区,提升区域文化影响力。同

17) “鞍山市千山区祥家村:村企共建打造美丽乡村”,『辽沈智慧党建』, <https://www.lndj.gov.cn/portaluploads/html/site-5/info/50496.html>, [2025.03.25]

18) “辽宁省事业单位招聘11436人”,『辽沈晚报』, <http://epaper.lnd.com.cn/lswbepaper/pc/att/202502/19/87971917-6b7a-4576-8528-1485a747ebfc.pdf>, [2025.03.25]

19) “鞍山市千山区:打造“文化旅游+”多业态融合发展模式”,『辽宁省文化和旅游厅』, <https://whly.ln.gov.cn/whly/wlzt/qmzxxtpt/dxal/2023080913525961562/index.shtml>, [2025.03.25]

时,千山区还通过举办鞍山市梨花节、南果梨文化节等活动,将地方特色文化与旅游活动相结合,吸引游客的同时带动当地经济发展。

(3) 温泉康养与体育旅游结合

温泉康养是千山区的重要旅游发展方向之一。以千山温泉为核心,千山区打造了温泉康养基地,并结合体育产业资源,发展“温泉+体育”的复合型旅游模式。例如,千山温泉度假区与老院子滑雪场合作,推出冰雪+温泉的特色旅游产品。此外,千山区还计划升级汤岗子温泉度假区,打造世界级温泉养生基地。

(4) 康养与生态旅游

千山区以生态康养为核心,推动森林康养基地建设,并结合健康饮食文化,打造“康养+健康+养老”的综合服务体系。例如,玉佛山景区通过禅修体验项目和玉佛文创开发,吸引游客参与养生和文化体验。

4. 鞍山市千山区乡村旅游存在的问题

1) 旅游产品同质化

旅游景区纪念品缺乏创新,千山区内各旅游景区的纪念品形式上都为千篇一律的钥匙扣、冰箱贴、折扇、笔记本等大众常见的旅游纪念品,可以说是毫无新意,很难做到吸引消费者注意,激发旅游者的购买欲望。另外一些特色玉石等纪念品的加工工艺粗糙,无法满足高端消费群体的购物需求,从而降低旅游总体质量和收入。

独特的产品未形成品牌效应,南果梨是鞍山的特有果品,全国独一无二,已有百余年的栽培历史,主要分布在东部山区的海城和千山区。在乡村振兴的总体背景下,政府部门曾出台多部相关指导政策帮助千山区形成独特旅游产业,也打造了一批南果梨品牌,其中很多都走向了全国各区农业博览会的舞台。鞍山南果梨即使在全国范围内打响了知名度,但是南果梨品牌对于千山区农村旅游业的发展整体推动效果并未达到预期水平,仅仅是增加了村民的农业收入,未能和第三产业服务业之间形成密切的良性循环,没有成为千山区农村旅游的亮眼名片。

2) 资源整合不足

千山风景区虽然拥有丰富的自然资源和文化资源,但其发展仍面临诸多挑战。例如,旅游产品开发滞后,基础设施不完善,景区内的住宿、餐饮、娱乐设施水平较低,高品质酒店和特色餐饮数量不足,无法满足游客的高品质需求。公共服务设施如标识牌、停车场、厕所等也存在不足,部分景区甚至缺乏必要的服务设施,进一步限制了游客体验。

千山风景区的南北景区发展严重失衡,南部景区面积大但游客数量远低于北部景区。这与南北景区交

通规划不合理、内部配套设施不完善密切相关。例如，南部景区仅有一个上石桥行政村，发展空间有限，而北部景区则有较为完善的基础设施和便利的交通条件。这种南北发展不均衡的现象，使得南部景区的旅游潜力未能得到充分挖掘，制约了整个景区的旅游效益。

3) 服务质量有待提高

乡村旅游的核心之一是体验乡土乐趣、回归大自然，感受泥土和星空的美好。然而，由于农家乐、特色酒店和民宿的经营者大多为当地村民，而这些村民中接受过专业服务培训的人数较少，导致在服务过程中存在情绪冲动、服务不够周到以及语言缺乏专业性等问题。此外，乡村旅游的发展随着农村整体发展逐步推进，目前千山区的乡村旅游仍处于探索阶段，因此在不断尝试和努力中难免会暴露出一些问题。例如，千山区乡村旅游中可能出现车辆和人员超出民宿或特色酒店接待能力的问题；采摘园过度接待游客导致游客体验感降低的情况；温泉项目中游客不文明行为无人监管的问题；以及钓鱼项目收费不合理的行为等。

5. 关于鞍山市千山区乡村旅游的相关建议

1) 深挖地方文化，打造特色旅游品牌

加强文化内涵的挖掘与创新，将文化特色融入旅游产品设计中，避免“千篇一律”的模式。通过讲述地方故事、展示民俗文化、开发具有地方特色的文创产品，增强旅游产品的文化吸引力和独特性。旅游企业应注重产品的创新性，通过差异化设计来吸引游客。可以开发一些结合当地特色的文创产品，如手工艺品、纪念品等，同时提升产品的实用性和艺术性，还可以通过引入智慧化服务、个性化定制等方式，增强游客的体验感。这不仅能够提升游客体验，还能形成独特的品牌效应，从而避免同质化现象。

2) 加强基础设施建设与服务

加快景区基础设施建设，不仅能够提升游客体验，还能为景区的可持续发展奠定基础。在完善交通网络方面，应优先加强景区与周边高速公路、铁路、机场等交通大网络的衔接，构建便捷的交通体系，同时优化景区内部的交通设施，如增加公交线路、设置停车场、提供观光车服务等，以提高游客的出行便利性。此外，还应注重公共交通系统的整合，如在景区主要景点之间开通直达公交线路，方便游客快速到达目的地。

在住宿和餐饮方面，应合理规划并引入更多高品质酒店和特色餐饮服务，满足不同层次游客的需求，同时注重餐饮服务的多样化和卫生条件的提升，以增强游客的消费体验。例如，可以鼓励当地村民发展特色民宿和农家乐，提供具有地方特色的美食和住宿服务。景区内的公共服务设施也需进一步完善。应加强旅游厕所建设，按照国家相关标准，提升厕所的清洁度、数量和布局合理性，同时配备必要的设施如洗手液、烘干机等，确保游客使用体验良好。此外，还应加强标识系统建设，包括景区全景图、导览图、安全警示标识等，采用多语种标识，如中文、英文和韩语，以方便国际游客。同时，应完善景区内的应急救援

设施,如急救站、消防设施等,确保游客在紧急情况下能够得到及时救助。信息化建设也是提升景区服务质量的重要手段。景区应引入智能化系统,如电子导览系统、票务系统、智慧监控系统等,以提高游客的游览效率和景区管理的效率。同时,景区应加强环境保护,推广绿色低碳发展,如使用清洁能源交通工具,设置垃圾分类处理设施,减少对环境的污染,为游客提供一个安全、舒适的游览环境。

3) 整合社会力量积极做好人才储备

为了推动鞍山市千山区乡村旅游的高质量发展,需要通过短期突击培训提升从业人员的专业知识和技能,使其能够胜任岗位需求,同时为后续工作奠定基础。此外,鞍山市内两所高校均设有旅游管理专业,每年为地方输送一定数量的专业人才。相关部门可以积极联合高校,引导学生在校期间关注千山区乡村旅游的现状,并鼓励学生参与实地调研和考察工作,例如举办乡村旅游主题策划比赛、科研项目扶持以及开设乡村旅游选修课等。当前,千山区乡村旅游正处于关键阶段,急需大量高质量人才提供专业能力和管理支持。因此,政府应出台优厚的人才政策,吸引专业人才,并通过优质条件确保现有人才不流失。

6. 结语

鞍山市千山区作为辽宁省重要的旅游目的地,拥有得天独厚的自然资源和深厚的文化底蕴,乡村旅游发展潜力巨大。近年来,随着乡村振兴战略的推进和休闲旅游市场的兴起,千山区乡村旅游在促进农村经济发展、带动农民增收、传承地方文化等方面发挥了重要作用。然而,当前的发展仍面临诸多挑战,如旅游产品同质化、资源整合不足、服务质量有待提高等问题,制约了乡村旅游的高质量发展。本研究通过对千山区乡村旅游现状的分析,发现其客源市场以省内及周边城市游客为主,旅游资源以自然景观和农业观光为核心。由于缺乏创新性的旅游产品和深度体验项目,游客的停留时间和消费水平仍有较大提升空间。此外,部分乡村地区的交通、住宿、餐饮等配套设施尚不完善,影响了游客的满意度和重游意愿。

在未来千山区乡村旅游的发展应更加注重生态保护与文化遗产的平衡,避免过度商业化对乡村原真性的破坏。同时,可借鉴国内外优秀案例,如浙江莫干山民宿集群²⁰⁾、日本“一村一品”模式²¹⁾,探索符合本地特色的可持续发展路径。借助数字化技术,例如,智慧旅游平台、短视频营销,扩大宣传推广力度,吸引更多年轻游客群体。当千山区乡村旅游全面打响知名度后,旅游业不仅会反哺农业,更会成为一张蕴含着千山区文化习俗与地方美景的名片,助力鞍山市在青山绿水中实现高质量发展,实现乡村振兴。总体而言,鞍山市千山区乡村旅游仍处于成长阶段,但通过科学规划、政策支持和多方协作,有望成为东北地区乡村振兴的示范标杆。未来的研究可进一步探讨如何结合“文旅+农业”“文旅+康养”等模式拓展产业链条,推动乡村旅游向更高层次发展。

20) “天和案例库：莫干山民宿产业的迭代及特征”，『天合经济研究所』，https://mp.weixin.qq.com/s?__biz=MzI4MjUzMjM5Ng==&mid=2247497108&idx=4&sn=39217c9431823ecb761d82dcdedfffd3&chksm=ea25994cb39b01cd81d13a180b1e28b321b56d6b85a446872414c91fab6470886fc32012ffde&scene=27, [2025.04.08]

21) 中华人民共和国驻新潟总领事馆，“日本“一村一品”经验借鉴”，http://niigata.china-consulate.gov.cn/gdxw/201709/t20170913_5536604.htm, [2025.04.08]

【차세대학자분과 III】 발표

2014~2025년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图谱：基于文献计量的综述

杜壮* · 조진호** · 杨军秀*** · 이태호****

【目 录】

- 1.引言
- 2.定义职前教师数字胜任力
 - 1) 职前教师
 - 2) 数字胜任力
- 3.研究方法
 - 1) 数据收集
 - 2) 文献计量分析和聚类
- 4.结果
 - 1) 职前教师数字能力文献概况
 - 2) 研究主题概况
- 5.讨论
- 6.结论

【 초 록 】

在教育数字化加速推进的背景下，职前教师的数字胜任力已成为教师教育领域的关键研究议题。尽管国际政策持续推动相关能力框架的构建与实践应用，但当前实证研究仍存在视角碎片化、区域比较不足与理论整合薄弱等问题。本研究基于Web of Science核心合集，遴选2014年至2025年间415篇英文文献，采用文献计量与可视化分析方法，系统梳理了该领域的发展趋势、研究主题、影响力文献及地理分布格局。结果显示，2020年后研究产出迅速增长，高被引文献主要聚焦于理论模型（如TPACK、DigCompEdu）、能力评估工具以及COVID-19疫情背景下的数字应对策略。关键词与术语共现网络揭示出以“能力框架—心理机制—教学实践”为核心的三维知识结构。基于分析结果，本文提出了涵盖理论建构、个体变量与教学整合的整合性框架，为未来职前教师教育中的实证建模、政策设计与课程开发提供了理论支撑与方法参考。

【키워드】 职前教师；数字胜任力；文献计量；知识图谱；综述

* 제1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박사과정 (1824840711@qq.com)

** 교신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교수 (75jino@pkmu.ac.kr)

*** 참여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박사과정 (15603308301@163.com)

**** 참여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교수 (leeth@pknu.ac.kr)

1.引言

近年来,教育数字化被视为提升教育系统韧性与教师专业能力的关键路径。然而,正如多数技术创新领域所面临的挑战一样,教育改革中的许多数字化举措并未成功实现其预期目标。大量关于教育技术与教师发展计划的投入,未必能在实践中转化为有效教学行为或可持续性成果(Instefjord & Munthe, 2016; McGarr & McDonagh, 2021)。尤其是在教师教育领域,职前教师(pre-service teachers)的数字胜任力发展仍面临显著不确定性,表现为课程嵌入不足、教学目标不明晰、以及能力结构模型碎片化等问题(Vieira & Pedro, 2023)。在全球范围内,政府和教育机构持续加大对教师数字素养的投资,视其为推动国家教育质量提升和数字时代公民能力建设的战略性支点(Yoon, 2022)。诸如DigCompEdu与TPACK等模型被广泛引用于教师教育体系之中,旨在规范与提升教师应对教育技术快速变革的适应力。然而,现有研究显示,这些模型在实际应用中常因课程设计不系统、评价机制不统一、实践场景不真实等原因而难以达成应有效果(Goeltl et al., 2023; Köstler & Wolff, 2025)。

此外,已有研究主要集中在某些具体维度,如TPACK维度测量、性别差异分析、技术接受模型等(Moy nihan et al., 2023)。虽然这些研究为理解职前教师数字胜任力的子领域提供了丰富视角,但总体上呈现出研究视角零散、跨区域比较不足、生态关系缺乏系统建构等局限(McGarr & McDonagh, 2021)。尤其值得注意的是,许多研究依赖于问卷自评数据,缺乏纵向与多源数据的支持,这在一定程度上限制了对“能力形成”这一动态过程的深入理解。

因此,本研究基于Web of Science数据库,通过文献计量分析与主题聚类分析方法,系统分析2014年至2025年期间国际文献中“职前教师数字胜任力”这一领域的发展脉络、研究集群、核心作者与机构网络分布,尝试回答以下关键研究问题:当前“职前教师数字胜任力”领域的研究格局如何构成?主题之间是否存在结构性关联与演化路径?我们能否提出一个整合性框架来概念化该领域,为未来研究、课程开发与政策制定提供基础?本文拟构建一个多维度、跨时空的数字能力研究图景,为该领域未来的理论深化与实践转化提供启示。

2. 定义职前教师数字胜任力

1) 职前教师

“职前教师”(Pre-service teachers)是指尚未正式进入教育岗位、正在接受教师教育的师范生或教育专业学生。他们通常处于教育学位课程或教师资格认证的培训阶段,尚未具备独立执教身份,但未来将直接进入中小学课堂从教(McGarr & McDonagh, 2021)。作为教育变革的“潜在推动者”,职前教师群体的教育观念、教学能力与技术素养不仅影响其个体职业生涯,也将深刻塑造未来教学系统的数字适应性(Vieira & Pedro, 2023)。

职前教师在数字技术的使用上往往具有较高的工具熟悉度,但在将技术有效整合进教学设计、课堂管理、评估反馈等核心教学活动中,仍面临技能差距与信心不足(Goeltl et al., 2023; Yoon, 2022)。因此,系统理解并培养该群体的数字胜任力,是提升教师教育质量与应对教育数字转型的重要前提。

2) 数字胜任力

“数字胜任力”(digital competence)在教师教育中被广泛理解为教师有效、负责任地整合数字技术于教学实践的能力。这一能力不仅涵盖ICT工具的基本使用技巧,更涉及教学设计、课堂互动、学习者支持、信息素养、伦理意识等多个层面(Instefjord & Munthe, 2016; Tondeur et al., 2017)。

目前,关于教师数字胜任力的主流理论框架主要包括:

TPACK模型(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该模型强调“技术-教学-内容”三类知识的整合,揭示教师如何在特定学科中使用技术实现有效教学(Tondeur et al., 2017)。TPACK是测量教师“整合能力”的核心理论之一。

DigCompEdu框架(欧盟教师数字能力框架):该框架包含6个能力维度与22个指标,涵盖教师的专业互动、数字资源管理、数字教学策略、评估、个别支持与赋能学生等方面(Yoon, 2022)。其最大特征在于关注教学实际表现与教育伦理。

批判性数字素养视角:越来越多研究强调,教师不应仅仅“使用技术”,更需具备理解与批判数字技术背后隐性逻辑(如算法偏差、平台控制、隐私风险等)的意识(Moynihan et al., 2023; McGarr & McDonagh, 2021)。

这意味着,职前教师的数字胜任力是一种“复合型专业素养”,既包含技术层面的可操作性,也包含教育本体论与伦理学维度的深层理解。理解这一能力结构,有助于我们在分析文献时更系统地解读不同研究主题的定位与作用。

3. 研究方法

1) 数据收集

本研究的数据来源为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oS) 数据库,检索时间截止至 2025年3月15日。使用以下高级检索表达式,限定文献的主题字符串(包括标题、关键词、摘要):

```
TS=("pre-service teacher" AND "digital competence")
OR TS=("preservice teacher" AND "digital literacy")
OR TS=("teacher education" AND ("digital competence" OR "TPACK"))
OR TS=("pre-service teacher" AND ("ICT competence" OR "digital skills"))
OR TS=("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technology integration")
OR TS=("pre-service teacher" AND "digital pedagogical competence")
```

最终共获得文献415篇。排除类型包括更正、会议论文、会议摘要、早期访问、书评与数据论文。最终保留的样本仅包括**英文期刊中的文章(Article)、综述(Review)、社论(Editorial)、来信(Letter)**等正式出版的学术成果。所有数据均于 2025 年 3 月完成导出。

2) 文献计量分析和聚类

为系统描绘“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的知識结构与演化路径，本研究采用Web of Science的“分析结果”功能进行文献计量分析，并借助SCI-Expanded数据库开展引文分析，以识别高被引文献和核心知識群体。在主题聚类方面，下载了WoS核心合集中的完整记录，包括标题、摘要、作者关键词、WoS关键词及引用信息，并导入 VOSviewer 1.6.20 软件进行可视化分析。该软件基于关联强度算法构建共现矩阵，并对术语进行聚类分析，相关方法已被广泛应用和验证（van Eck et al., 2010; Waltman et al., 2010）。本研究分别绘制了基于作者关键词的关键词共现图谱与基于标题摘要术语的术语共现图谱。图中术语之间的空间距离反映其语义相关性，共现频次越高，节点间距离越近；节点大小与术语出现频率成正比，颜色则表示其聚类归属，代表潜在研究主题。在参数设定方面，关键词分析采用全计数法，术语分析使用二元计数法；所有图谱均基于默认的吸引力-排斥布局算法与关联强度标准化处理，以确保聚类结果的稳定性与可解释性。上述方法为进一步识别研究主题演化趋势与构建文献理论框架奠定了基础。

4. 结果

1) 职前教师数字能力文献概况

初始检索共540份文献。经筛选，仅保留英文撰写的期刊文章、综述、社论与来信，最终构建的用于文献计量分析的核心数据库共包括415篇正式出版文献。其中约 91.6% 为学术期刊文章（n=380），4.3% 为社论（n=18），3.1% 为综述（n=13），其余为学术信件（n=4）。研究主题呈现出明显的跨学科特征，尽管大多数文献集中在教育/教育研究类期刊（355篇，占比85.5%），但也涉及多个边缘学科领域，呈现出显著的“知识生态融合性”。

根据 WoS Core Collection 的数据，自2014年起该领域文献年产量呈现持续增长趋势，尤其在2020年之后加速上升。文献数量从2014年的不足10篇，增加至2024年接近100篇，10年间增长近十倍，年均增长率显著。2025年数据虽因时间未滿而暂低，但趋势已体现出延续性（图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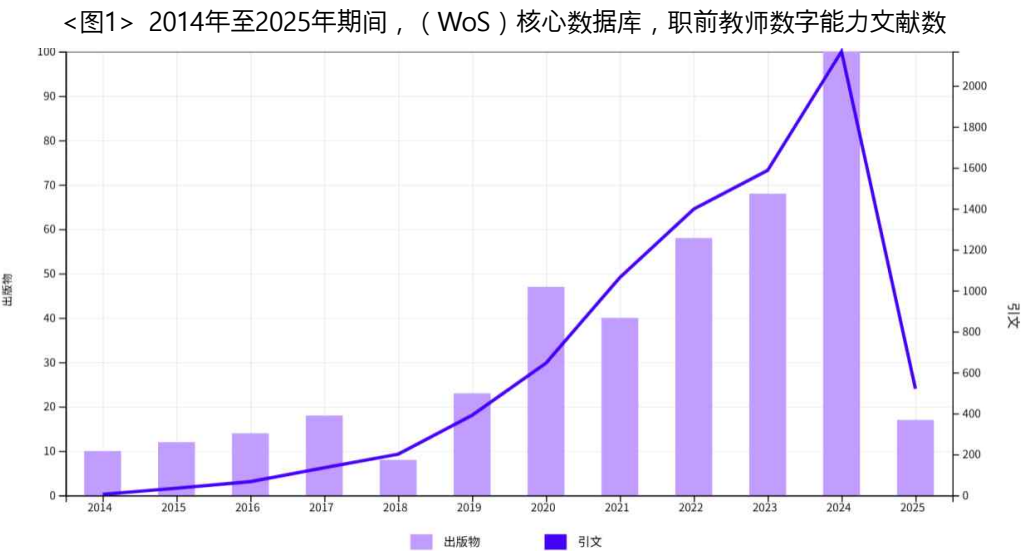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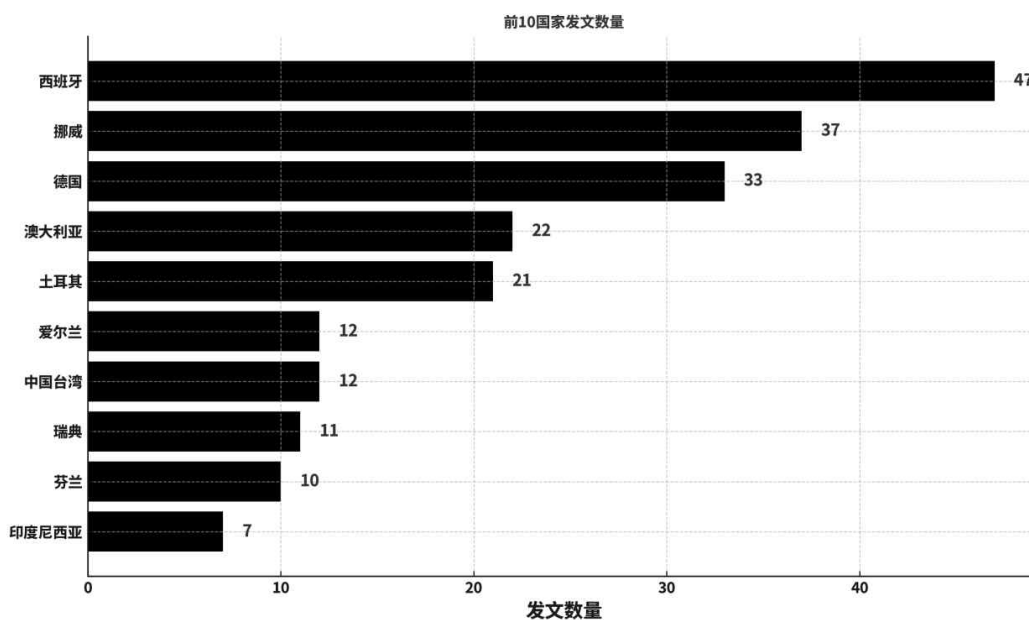
表1列出了在“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领域中被引用次数最多的十篇核心文献。值得注意的是，在该领域引用量前十的文章中，有5篇发表于2017年至2020年之间，这与此阶段教育技术应用加速、COVID-19疫情促使远程教学普及的背景高度吻合。同时，文献的高引用频次也与其发表后经过一定时间的积累效应相关。这些高被引文献集中反映了以下五大研究主题：数字胜任力理论模型的提出与验证；疫情背景下职前教师教育的适应与挑战；数字能力纳入课程与教学系统化整合；职前教师对技术的态度、信念与接受行为以及AI与TPACK整合。

<表1> 职前教师数字胜任力高被引文献表（前10篇）

序号	文章标题	作者	出版年份	总引用
1	在 COVID-19 学校停课期间适应在线教学：德国早期职业教师的教师教育和教师能力影响	König, J; Jäger-Biela, DJ 和Glutsh, N	2020	528
2	从数字素养到数字能力：教师数字能力（TDC）框架	Falloon, G	2020	314
3	使教师能力框架与21世纪的挑战保持一致：欧洲教育工作者数字能力框架（DIGCOMPEDU）的案例	Caena, F and Redecker, C	2019	278
4	新晋教师的专业数字能力：对教师教育的启示	Gudmundsdottir, GB和Hatlevik, OE	2018	267
5	培养具有数字能力的教师：将专业数字能力整合到教师教育中的研究	Instefjord, EJ and Munthe, E	2017	239
6	教师教育工作者的数字能力	Krumsvik, RJ	2014	194
7	探索数字时代教师准备的研究回顾	Starkey, L	2020	183
8	通过态度和信念、能力、访问和经验解释职前教师的技术整合	Farjon, D; Smits, A and Voogt, J	2018	173
9	迈向智能 TPACK：对教师专业知识的实证研究，以合乎道德的方式将基于人工智能（AI）的工具整合到教育中	Celik, I	2023	168
10	对职前教师 ICT能力培训中的重要因素进行多层次分析	Tondeur, J; Aesaert, K; (...); Consuegra, E	2017	157

数据显示（图2），有来自超过50个国家/地区的研究人员参与了“职前教师数字胜任力”领域的研究，显示出该领域的高度国际化与全球关注度。有趣的是西班牙是发文量最多的国家，共有47篇文献，约占总量的11.3%。紧随其后的是挪威（37篇）和德国（33篇），三国合计贡献了超过四分之一的研究成果。位列第四至第六的国家为澳大利亚（22篇）、土耳其（21篇）和爱尔兰（12篇），此外，中国台湾、瑞典、芬兰和印度尼西亚也均进入前十。可以看出，欧洲国家在该领域中仍处于主导地位，特别是西欧与北欧地区的研究机构在推动数字素养、TPACK框架、课程融合等方面起到了关键作用。值得注意的是，尽管美国并未出现在发文量前十中，但其研究团队常见于高被引文献之中，在理论模型与评估体系建设方面仍具有深远影响。相比之下，亚洲、大洋洲和拉丁美洲国家在数量上仍处于边缘地位，但近年来呈现出明显增长趋势，代表性国家包括中国台湾、韩国、澳大利亚与印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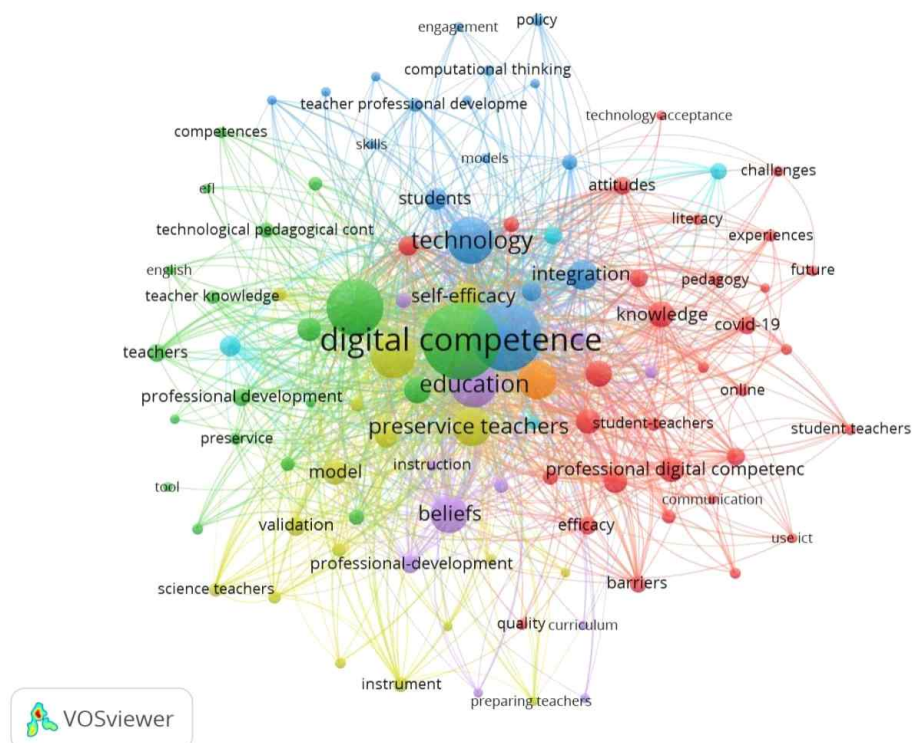
<图2> 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中发文量最多的前10国家 (2014~2025)



2) 研究主题概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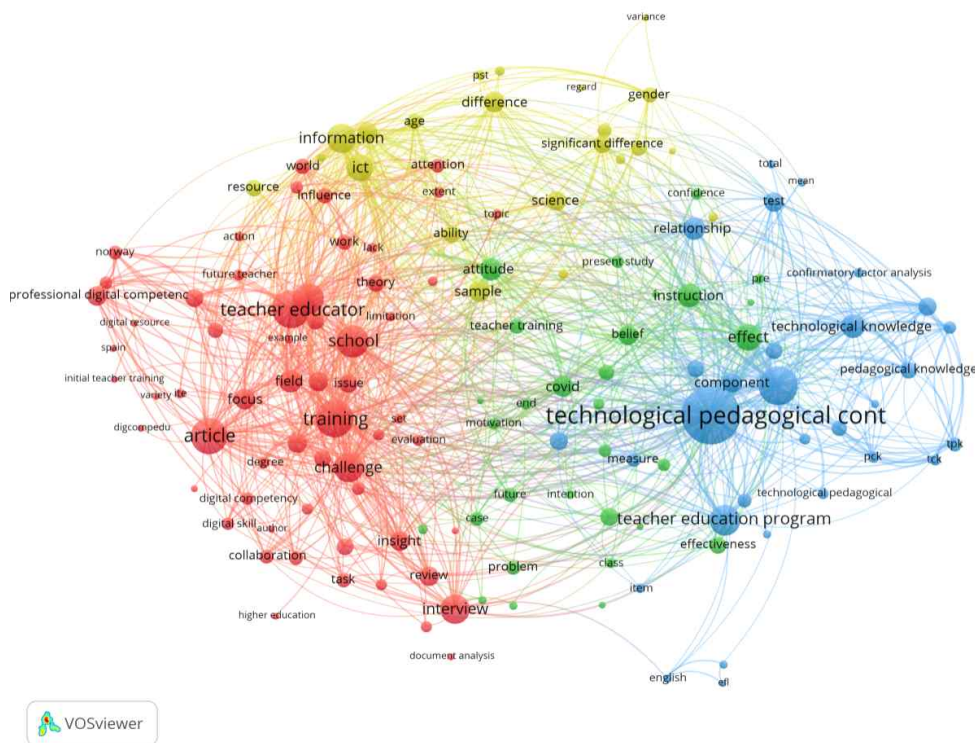
为了确定“职前教师数字胜任力”领域中最具代表性的研究主题，我们使用了 VOSviewer 软件中的关键词共现分析功能。在作者提供并在数据库中识别的2418个原始关键词中，最终筛选出在至少 10 篇文献中出现的 88 个关键词纳入分析（图3）。

<图3> 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中的关键词共现网络图



关键词共现网络，由 88 个项目和 617 条共现链接组成。每个节点代表一个作者定义的关键词，节点的大小与关键词在数据集中出现的频率成正比。关键词之间的线条表示它们在文献中共同出现的关系，两个术语之间的距离越近，表示它们之间的语义相关性越强。每个关键词的颜色由其所属的集群决定，代表其在研究主题结构中的归属。最常出现的关键词包括：“digital competence”（129 次出现）；其次是“pre-service teachers”（95 次）和“technology”（91 次）。此外，“technology integration”、“TPACK”和“self-efficacy”也出现在共现频率前列，分别出现了 78、68 和 61 次。为了确定“职前教师数字胜任力”领域研究人员关注的主要研究主题，并理解其文献计量网络的结构，本研究基于数据集中所有文献的标题与摘要信息，使用VOSviewer软件构建了一个术语共现图谱。在识别出的17,977个术语中，VOSviewer提取出在至少20篇出版物中出现的146个最具代表性的术语，并将其划分为三个主要语义集群（图4）。

<图4> 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中的术语共现聚类图



与关键词共现网络类似，该图中每个圆形标签代表一个术语，其直径大小表示术语的重要性（即共现频率），颜色表示其在聚类分析中所属的主题类别。尽管术语网络结构密集、节点之间互有联系，但聚类结果展现了较为清晰的研究方向分布：蓝色集群聚合了围绕TPACK框架、教师知识建构与课程效果测评的术语，如“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teacher education program”、“technological knowledge”、“effectiveness”、“test”等。该集群代表了本领域以TPACK为核心的实证建模与教学整合路径研究。红色集群以“teacher educator”、“training”、“challenge”、“school”、“article”、“collaboration”等术语为核心，聚焦于教师教育者角色、培训设计与教师准备机制。该集群的术语分布揭示了学术研究对于职前阶段数字教育能力传授过程的高度关注，尤其是在培训成效、制度构建、课程嵌入方式等方面的探讨。黄色集群则集中出现与个体差异变量与教育影响因素相关的术语，如“gender”、“difference”、“attitude”、“sample”、“relationship”、“motiva

tion”、“science”。这一集群表明本领域研究者正逐渐将心理变量、人口统计因素、性别平等等多维视角引入对职前教师数字胜任力的解释体系中。

5. 讨论

1) 文献计量分析

根据设定的检索策略与纳入标准,本研究从 Web of Science 核心合集共获取415篇英文文献,类型包括期刊论文(92.5%)、综述(4.1%)、社论材料与来信(不足3.5%)。研究时间跨度为2014年至2025年,尤其在2020年后发文量明显增长,表明“职前教师数字胜任力”已成为教师教育研究中的关键议题之一。引用分析显示,总体引用频次超过7000次,反映出该议题具备持续且高水平的学术关注度。被引次数最多的10篇文章多发表于2017年之后,研究焦点集中在能力框架构建(如TDC、DigCompEdu、TPACK)、能力测评工具开发、教师教育中的技术整合路径,以及疫情背景下的数字适应性表现。König等(2020)关于COVID-19停课背景下德国职前教师的研究获得了超过528次引用,进一步突显了该议题的现实紧迫性与理论贡献。从国家分布来看,西班牙是该领域的研究重镇,在发文数量与高被引文献上均处于领先地位。其领先地位源于三方面因素:一是政策响应积极,较早建立了全国统一的教师数字能力框架并对接欧盟DigCompEdu框架;二是高产研究团队活跃,如Murcia、Valencia等高校形成了稳定的合作网络;三是项目驱动显著,研究者在EU项目中参与广泛,成果国际影响力高。相比之下,亚洲与大洋洲国家研究热度正逐步上升,而非洲、拉美等地区代表性成果仍较有限,未来应加强全球南方国家的研究参与度与跨区域经验迁移机制。从整体来看,当前“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呈现出以欧洲为中心、框架主导、应用导向增强的研究格局,研究力量逐步集聚、学科交叉显著。该格局不仅体现出教师教育领域对数字转型问题的高度响应,也为构建多维能力体系、评估工具和教学实践方案奠定了基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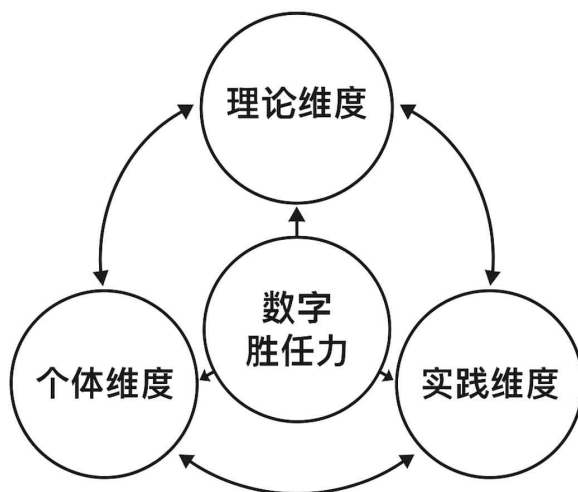
2) 网络 and 术语映射分析

关键词共现图与术语共现图进一步揭示了研究主题之间的内在关联及其语义演化路径。图谱呈现出高度密集的链接网络,表明研究主题间交叉频繁、耦合性强,学科融合特征明显。在关键词共现图中,以“digital competence”为核心的高频术语呈现明显的聚集结构,其周边紧密分布着与技术知识、教学整合、教师教育及心理变量相关的关键词。图谱整体形成多个颜色集群,暗示研究已围绕若干核心议题形成了主题共同体,并构成了相对稳定的知识结构。术语共现图进一步拓展了该结构的语义深度。术语网络清晰划分为若干语义区域,显示出教师教育框架、能力评估、心理机制与教学策略等多维度研究重心之间的相互嵌套关系。术语之间的交互强度表明当前研究正由碎片化走向结构化,研究路径呈现出从理论建构、认知机制到教学实践的演化轨迹,构成了以“能力—信念—实践”为主轴的知识图谱。

从图谱特征综合分析可提出一个三维整合框架,即(图5):

- 理论维度:以TPACK、DigCompEdu等模型为核心,提供数字能力的结构性定义;
- 个体维度:以信念、自我效能、态度等心理变量为关键,解释能力发展机制;
- 实践维度:以技术整合、培训路径、课程设计为落点,体现教学嵌入与教育干预。

<图5> 职前教师数字能力三维整合框架



该整合性结构不仅描绘出当前研究生态，也为未来研究提供了明确方向。特别是在研究主题的结构性关联与机制路径建模方面，该图谱体系奠定了理论基础与术语边界，具有重要的方法启发价值。综上所述，当前“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已形成较为系统的知识结构。研究主题围绕能力建构—心理机制—教学实践三个方向展开，存在清晰的演化路径与概念集群，具备提出整合性框架的基础。未来研究可据此深入发展结构模型建构、跨文化适配与课程政策联动研究，从而进一步推动理论与实践的融合发展。

6. 结论

本研究以415篇Web of Science核心数据库中的英文文献为分析对象，采用文献计量与可视化分析方法，系统探究了2014至2025年间“职前教师数字胜任力”领域的研究格局、主题结构与演化路径。研究结果显示，该领域在过去十年间发展迅速，发文量自2020年起显著增长，学术影响力不断扩大，尤其聚焦于能力框架建构、心理机制介入与教学实践嵌入等方向。从文献结构来看，该领域研究以欧洲国家为主导，西班牙在政策响应、研究团队与项目驱动方面形成领先地位，研究重心集中且输出质量较高。与此同时，全球研究力量分布仍呈现出区域不平衡态势，亚洲和大洋洲热度逐步上升，而非洲与拉美国家的参与度亟待提升。关键词与术语共现图谱揭示出“职前教师数字胜任力”研究已构建起稳定的主题集群，聚焦于以“能力—信念—实践”为主轴的结构性生态系统。进一步分析表明，当前研究已从碎片化描述逐步转向结构化建模，具备建构多维理论路径的基础。基于图谱结构与术语分布，本研究提出了一个整合性三维框架：（1）理论维度强调能力结构的明晰化；（2）个体维度关注教师心理变量的建构机制；（3）实践维度则聚焦于能力在课程、教学与评价体系中的具体落地。该框架不仅有助于理解“职前教师数字胜任力”领域的主题分布与交互逻辑，也为未来在结构方程模型建构、政策制定、能力测评工具开发等方面提供了理论基础与操作路径。未来研究可考虑从以下方面展开深化与拓展：探索跨文化情境下能力模型的适配性与可迁移性；引入纵向设计与因果建模，揭示能力发展的时间动态机制；强化对发展中地区的研究投入，推动数字教育公平；将理论与课程开发、教师培养政策进一步联动，实现框架—测评—实践的闭环整合。综上，本研究不仅描绘了该领域的知识地图，也为其未来的学术推进与教育应用提供了坚实支撑。

